

에밀

# Émile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인간과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담은 루소의 대표작. 루소는 이상적인 사회의 근본 토대는 참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이는 자연에 순응하며 선한 본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에 따르라"는 루소의 250여 년 전 오랜 외침이 지금 우리 교육과 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작지 않다.



에밀

Émile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에밀》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주)헤럴드는 출판인쇄를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대진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ics@olje.or.kr

🐦 @oljeclasics 📘 www.facebook.com/oljecla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 차 례

역자의 말.....	6
해설.....	9
머리말.....	20
제1부.....	24
제2부.....	79
제3부.....	211
제4부.....	279
제5부.....	502

## 역자의 말

이 책은 《플레야드 총서(Bibliothèque de la Pléiade)》에 네 권으로 나온 《장 자크 루소 전집》(1959~1969)에서, 제4권(1969년 판)에 실린 《에밀》을 완역한 것이다. 장 자크 루소 협회의 후원과 스위스 정부의 과학 연구 기금의 원조를 얻어, 베르나르 가뉴뱅과 마르셀 레이몽 감수로 나온 이 책은, 샤를 비르즈가 편하고 피에르 뷔르즐랭이 교주한 가장 권위 있는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OEuvres Complètes de Jean-Jacques Rousseau, Tome IV, Emile de l'Education, Texte établi par Charles Wirz, présenté et annoté par Pierre Burgelin.

〈교육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에밀》의 초판이 나온 것은 1762년,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많은 판본들이 나왔고, 판에 따른 내용과 체재의 차이도 상당하다. 이 역업이 시작된 1968년에는 위에 든 전집이 3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 우선 종전에 가장 권위가 있던 《가르니에 고전 총서》 판(1964)에 의해 착수되었고, 3분의 1 가량이 끝난 다음 해에 대망의 ‘플레야드 판’이 나오자, 이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본문 3,517장이 탈고된 것은 1972년 8월, 그러니 5년이 걸린 셈이다. 역자 자신의 개인 사정이나 게으름 탓도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만큼은 번역도 해 본 역자로서도 정말 힘겹고 고된 일이었다. 그만큼 루소의 글이 난해하고, 더구나 우리말로 옮겨 놓기에는 힘든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역자가 루소를 알게 된 것은 사범학교 시절의 교육학사 수업에서였다. 30여 년 전 일이다. 그 후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내게 가장 관심을 준 작가의 하나가 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두 편의 작은 논문을 낳게도 하였다. 〈진실에의 집착—루소의 한 단면〉(《외대 논문집》, 1969)과 〈루소의 인간 개조 사상〉(전편)

(《외대 논문집》, 1971)이 그것이다. 특히 나중 논문은 앞으로 그 후편에서 《에밀》과 《사회계약론》 등에 나타난 그의 인간 및 사회 개조에 대한 사상을 분석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역자는 어느 출판사로부터 《에밀》의 중역본의 교열을 부탁받고 원서와 대조해 본 일이 있지만, 원서 없이는 제대로 읽히는 대목이 거의 없음을 알고는 중역의 한계성을, 아니 그 불가능성을 절감했었다. 그것이 이 역업을 시작한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따라서 이번 번역에서는 원문의 뜻에 충실하면서 우리글로서도 제대로, 그리고 쉽사리 읽힐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역자 자신으로서도 미지수이다. 앞으로 지적이나 의견을 보내 주시는 이가 있으면 고치고 키워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참고삼아 적어 두겠다.

1. 원문에서 각주로 나와 있는 저자 원주는 페이지 아래쪽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2. 원문에서 ‘이본(variante)’에 대한 주석과 ‘교주 피에르 뷔르즐랭(Pierre Burgelin)’이 본문과 맞먹을 정도의 분량으로 권말에 곁들여져 있던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긴 부분만 추리고, 따로 참고될 만한 것은 덧붙여, 역주로서 페이지 아래쪽 일련번호 옆에 \*를 붙인다.
3. 역주에 쓰인 약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F는 제1초고(장 자크 루소 협회 소장 파브르(Favre) 초고)를 나타낸다.  
P는 제2초고(파리(Paris) 국회 도서관 소장)를 나타낸다.  
G는 인쇄에 쓰인 복사 원고(제네바(Genève) 도서관 소장)를 나타낸다.  
C는 재판을 위해 루소가 주석한 초판본(쿠앵데(Coindet) 씨 소장본)을 나타낸다.
4. 원문에서 고딕체로 표기한 것 중에서 서명 따위는 《》로, 논문 따위는 〈〉로 표

시한다.

5. 원문에서 고딕체로 표기한 것 중에서 인용된 부분은 “ ”로 표시한다.
6. 원문에서 고딕체로 표기한 것 중에서 부분 인용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 ’로 표시한다.
7. 삽입 구문으로서, 우화, 대화 따위는 고딕체로 표시한다.
8.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 )로 표시한다.



## 해설 <sup>1\*</sup>

《학문 예술론》(1750)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4) 및 《달랑베르에의 연극 서한》(1758)에서 당시 사회의 온갖 모순과 폐단을 지적 고발한 루소는,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자각하고, 뒤이은 건설적인 저작들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갖가지 토대들을 쌓아올리게 된다. 《신엘로이즈》(1761)에서는 바람직한 가정의, 《사회계약론》(1762)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온갖 성분을 미리 아이 속에서 제대로 발달시키지 않고서는 그러한 가정이 나 국가를 어디에 어떻게 앞힐 것인가?

따라서 사회의 개조는 인간의 개조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개조는 오로지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에밀》(1762)이 루소의 모든 저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작품이야말로 그의 사상 모두의 핵심이고, 그의 학설과 주장 모두를 푸는 열쇠다. 사회 개혁론자 루소의 이상과 기대 모두는 결국 인간의 교육에 귀착되었던 것이다.

### 1. 몇 가지 원리

루소가 말하는 자연인(l'homme naturel)은,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빈정거리던 원시 미개인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을 벗어난 문명인(civilisé)이며, 종족이나 때와 곳이 태워 준 모든 특수한 것을 떨어 버린 보편적인 인간이다. 자연인이란 따라서 인간의 자연(la nature de l'homme) 즉 본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되찾아야 할 것은 이 본성(자연)이다. 이 본성이 《에밀》에서는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지나치게 이상화된 에밀이나 그 교사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sup>1\*</sup> 이 해설을 씀에 있어서는, François et Pierre Richard의, 가르니에 판 《에밀》(1964)의 서문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혀 둔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론적인 저작에서 작자는, 하나의 테제(These)를 시적으로 해설하고 하나의 이상을 그려 보이며, 인간의 마음의 연구에서 충분히 인간적인 하나의 교육법의 원리들을 끌어내어 보겠다는 약속 이상의 것은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우리도 이 생명의 본성 즉 본능들을 들추어 내어 보자. 그러면 그의 방법 체계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기서 차츰 풀려 나올 것이다.

서로 어긋나는 두 가지 경향이 인간의 낯을 조정하며 그 완성을 보장해 준다. 자기 보존에 필요한 이기심과, 유익한 모든 연대 관계의 근원인 동정심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능은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물의 그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자유로워, 자연이 과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알고 받아들이는 한도 안에서는, 자신과 남을 위해 행복을 실현시키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이 자유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교육의 첫째 일이 될 것이다. 동작과 놀이와 행동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자유를 말이다. 아이는 사물들의 가혹함만 느껴야지, 사람들의 그것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학교는 안 된다. 자기 잘못에 대해 과해지는 자연의 벌 말고는, 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이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에도, 자연의 대리인에 그쳐야 한다. 자연에의 접근을 쉽게 해 주고 그 한계들을 설명해 줄 일을 맡은 대리인으로서 말이다.

사회생활에 앞서는 개인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해 주려면, 아이는 여느 조건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정 자체 때문에도 위험한 가정에서 우선 떨어져 있어야 한다. 불평등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부정의 온상인 사회에서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죽은 지식이 존경을 받고 있기에 더구나 해로운 책들에서도, 16살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관념도 갖지 못하는 종교에서도, 그리고 아이더러 자신의 자유의 가장 고상한 형태인 미덕 즉 정념에 저항하는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습관의 속박에서도, 온갖 악의 근원인 문명의 적이며 온갖 선의 근원인 자연만이 그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자연 교육, 이것이 루소의 첫째 원리이다.

둘째 원리는 아이를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로서 대하는 일이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이 독창성도 첫째 원리에서 말미암고 있다. 어린 시절은 어린이 속에서 무르익도록 두어야 한다. 아이가 달라져 감에 따라 교육자는 목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2살까지는 몸을 발육시켜야 한다. 3살에서 12살까지는 감각을, 13살에서 16살까지는 머리(정신)를, 17살에서 19살까지는 추리력과 감수성을, 20살에는 도덕감을 발육시켜야 한다. 방법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관례와는 반대로 나가야 하며, 아직은 싹트지 않은 이성이나, 이성을 전제로 삼는 신중성,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개념인 의무감, 미움이나 허영심의 근원인 경쟁심 따위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잇따라 일깨워 주는 동기들을 이용해야 한다. 힘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의 순종심을 말이다. 그다음에 가서야 선견지명, 지적인 관심, 선에 대한 기호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엉뚱한 노력을 쏟지 않고도 청년기는 기쁨 속에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매력 있고 점진적인 교육(éducation attrayante et progressive)이라 부르는 것이다.

셋째 원리는 양심(conscience)을 학문(science)보다 앞세우는 일이다. 자연인은 정직하지 유식하지는 않다. 이 선량한 바탕은, 아이를 되도록 오래 무지 속에 붙들어 두면, 실례에 의해, 나중에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미덕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더러 악을 멀리하도록 해 주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형성이 머리의 형성에 앞서야 한다.

그런데 마음에 우선권을 준 루소는 이어 그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 이성으로 감성을 벌충하고 있으며, 지식의 훈련보다는 판단력의 훈련을 택한다. 꼭 차 있기보다는 제대로 다듬어진 머리, 이것이 넷째 격률이며, 이도 또한 첫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인은, 자기가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올바른 머리(정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몇 가지의 교육이 과해지게 되고, 이도 역시 점진적이어야 한다. 첫째는 자연과 그 유익한 요소

들에 대한 공부이다. 즉 우주의 형상 · 물리학과 기상학 · 지리학 · 식물학 · 동물학 등이다. 다음은 물질을 이용하는 재주(직업)와 여기서 생겨나는 두 가지의 활동 형태, 즉 손재주(공업)와 장사이다. 그리고 사물들에 관한 지식 다음에 마침내 사람들에게 관한 그것, 즉 역사 · 정치 · 종교가 온다. 이것으로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에밀은 그것을 쉽사리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배우는 법을 배웠으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나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업이다.

## 2. 내용

저술의 이론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머리말 다음에, 저 유명한 허두로 제1부는 시작된다.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좋다. 사람 손에서 모조리 나빠진다.*

그러니 자연인이 나빠지(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 거스르지 말고 자연을 도와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교육, 즉 사람들의 교육 · 사물들의 교육 · 자연의 교육 중에서, 자연의 교육만은 우리 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공교육이 아니라 알뜰한 가정 교육에 의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이 사회의 갓은 질곡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기 젖은 어머니가 먹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이며 결정적인 이유라도 없고서는 면할 도리가 없는 의무이다. 젖먹이의 발육에 필요한 동작의 자유를 주려면 배내옷은 버려야 한다. 어머니 곁에는 아버지가 있어 첫 교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될 때는 탄 길잡이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뛰어난 머리와 심정을 갖추고 여러 해 동안 이 일에만 오로지 몸과 마음을 바칠 만한, 그런 희귀한 사람을 구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에밀 또한 보기 드문 아이다. 루소는 이 고아를, 지능과 성격 아울러 정상적이고 모범적이며, 건강과 재산을 구비한 아이로 만들고 있다. 교사는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빈사 상태 말고는 의사에게 의지하는 일도 없이 아이의 건강을 보살피 준다. 몸과 마음이 건전한 유모를 구해 주고, 해로운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살게 하고, 나면서부터 날마다 목욕하는 습관을 붙여 주고, 탈 같은 보기 흉한 것들이나 시끄러운 소리들, 거친 감촉 위에 익숙케 함으로써 시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사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으며, 필연에는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이끌어 준다. 도와는 주되 아이의 변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말로써 자기 뜻을 남에게 이해시키도록 가르쳐 준다. 이리하여 아이는 5살이 된다.

제2부에서도 주되는 관념이 되풀이된다. 즉 자연을 따르라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이 아니다. 아이의 앞날의 이득보다는 당장의 행복을, 즉 욕망과 능력의 균형에 의한 현재의 즐거움을 더 생각해 주어야 한다. 결과와 어떻건 사물들에만 의존케 하자. 현학적인 말공부도 추리도 필요 없다. 설사 그 효력이 더디더라도 경험에만 의지하자. 허비한 것 같은 시간이 실은 탄 시간이 된다. 경험에 의해서만 아이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경험이 힘든 것일 때는 더구나. 이웃이 가로챈 정원을 보고는 소유 관념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가 화감에 유리창을 깬 방이 추운 것을 알고는 그런 버릇을 고치게 될 것이다.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공부, 즉 무지의 공부를 시키자. 아이의 기억력을 훈련시키거나 책을 손에 잡히는 것은 잘못이다. 우화를 읽히지 말라. 더구나, 다들 어지지 않은 아이 머리에는 이해되기 힘들고 아이의 도덕심에는 위험한 <까마귀와

여우> 따위의 라퐁텐의 우화는 안 된다. 에밀은 개인적인 필요를 느끼게 될 때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식사에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아무도 짐짓 읽어 주려 들지 않을 그런 때에 말이다.

아이가 튼튼하고 날쌔어지도록 유의해야 하고, 나이에 알맞은 운동으로 단잠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캄캄한 데서도 예사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감각 교육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갖은 배려를 요구하는 미묘한 과업이다.

에밀은 이제 12살이다. 여느 방법에 따라 길러진 같은 나이의 판 아이들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뛰어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가장 고전적인 제2부는 여기서 끝난다. 현대의 교육은 여기서 그 점진적인 교육법은 채택하고 그 소극적인 교육법은 물리치게 된다.

제3부의 시작에서 소년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자라남을 보게 된다. 이 힘은 어디에 쓸 것인가? 스스로 그 이득을 깨달아 호기심이 쏠리는 공부들에 쓰게 된다. 그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은 자연의 현상들이다. 그런데 표시된 사물을 그 표시와 바뀔쳐서는 안 된다. 낮과 밤의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의 형상과 방위를 배워야 한다. 산책에서 지리학을, 요술쟁이의 재주에서 실험 물리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이러한 자연적인 교육이 요구하는 노력 없이는 파분한 것이 되고 만다. 내보내어 놀게 해야 한다. 자신의 과학 교육에 필요한 연장들을 제 손으로 만들게 하고, 자신에 유익한 것을 경험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자연인의 이야기인 《로빈슨 크루소》만 빼놓고 모든 책은 돌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유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배운 것을 착실하게 터득하게는 될 것이다. 그는 또한 꽤 바르고 용의주도해질 것이고, 또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남들과 손잡는 데 있어 자기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미 깨달은 바 있기 때문에, 연대 의식도 갖게 될 것이다. 손으로 하는 일에 능숙해진 그는 하나의 생업을 배워야 한다. 부자이긴 하나, 언제까지나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혁명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놀고먹는 국민은 다 험잡꾼” 이니까, 오래 궁리한 끝에 그는 소목장이 직분을 택한다.

제4부가 시작되면서 에밀은 15살이 된다. 감정과 정념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 자연스러운 충동들은 이끌어 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막아 주어야 한다. 동정심 · 박애심 ·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이나 야심을 꺾고 발전되어야 한다. 비록 자기 선생을 통해서밖에는 우정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에밀은 깨닫고 있다. 행동화된 도덕인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다. 우화도 이제는 제2부에서만큼 엄격히 멀리할 것은 없지만, 그보다는 《플루타르코스》가 바람직하다. 선악에 대한 첫 관념에 눈뜬 젊은이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18살이다. 하느님을 알려 줄 때가 온 것이다.

〈사보아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다. 포(Po) 강 계곡을 굽어보아 그 조화를 이룬 전망만으로도 창조자 하느님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산꼭대기에서, 신부는 자기가 믿게 된 까닭을 젊은 친구에게 말해 준다. 그는 철학자들의 전후 당착된 독단적인 논거들보다는, 신앙을 부추기기보다 알맞은 내면 감정을 중요시한다. 영혼의 목소리인 양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과, 슬기롭고 선한 의지인 최고 존재자의 실존을 동시에 보여 준다. 악이 존재한다면 그 잘못된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택할 자유로운 영혼을 그로부터 받았는데도 사회생활 때문에 자신이 타락하도록 둔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선인들에 대한 상과 악인들에 대한 벌이 내 세에는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천계(天啓) 종교들보다도 바람직한 자연 종교다. 이 종교만이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해 줄 것이다.

에밀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청년이다. 가로막지 말고 사랑하려는 욕구를 이끌어 주고, 이상적인 반려자에 대해 말해 주고, 고약한 본보기들로부터 막아 주어야 한다. 사교계나 그 오락들에서 그를 따돌리지는 않더라도 그 밖에도 기분 좋고 건전한 소일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예컨대 고대나 외국의 책들을 읽는 일,

시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 작은 시골집에서의 전원 생활 등을 말이다.

에밀의 결혼으로 끝나는 제5부는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성은 능동적이고 강하며, 여성은 수동적이고 약하다. 남성이 가장이 되도록 자연이 시킨 것이다. 따라서 교육도 달라야 한다. 예컨대 남성에 있어서는 솔직함이 권장되는 데 반해 여성에 있어서는 잔꾀나 교태가 조장되어야 한다. 남성은 자연 속에서 길러지는 데 반해, 여성은 사교계에 드나들어 음악·노래·춤·레이스 같은 예능을 닦게 된다. 여성의 교양은 가계에 필요한 셈과 《텔레마크》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피도 에밀과 마찬가지로 신동은 아니어서, 보통 머리에 보통 미모이니까.

종교에 대해 그녀가 어떤 개인적인 관념을 갖기를 기다린다면, 종교 이야기는 영해 줄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의 종교를 그냥 가져야 한다. 에밀의 교육에서 완전히 도외시된 권위나 남의 쑥덕공론이, 소피의 교육에는 영향을 미친다. 소년이 문제일 때 아주 대담한 여권 반대론자인 루소는, 소녀의 교육에서도 사뭇 뒤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그가 그리는 여주인공의 초상은 약간 엉성하고 흐릿해 전체로서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지만, 그 디테일들에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러 있다.

알맞은 신부를 구하려고 에밀은 교사와 함께 파리를 떠난다. 우연인 양 소피네 집에 당도해 부모의 환대를 받게 된다. 두 젊은이는 서로 좋아하게 된다. 대어섯 달 동안 서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두세 번씩 만난다. 에밀이 청혼을 하고, 그것은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교사는, 자기 제자가 어른은 되었지만 아직 시민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년 동안 유럽 여행을 시켜, 여러 나라 국민들을 만나 보고, 여러 가지 정체들의 운영을 보게 한다. 마침내 돌아오자 교사는 결혼을 허락하고, 신랑신부에게 계속 조언을 주어 나간다. 에밀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극성스러운 스



승은 제자 부부의 간청에 따라 휴식하는 데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 3. 영향

20년 동안의 명상과 3년 동안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에밀》은, 1762년 5월 중순에 인쇄가 끝나, 24일에 16리브르의 값으로 뿔라얄에서 팔리기 시작하자 당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교회와 정부가 저자에 반대해 일어나고, 친구들은 위험을 경고해 주었다. 6월 3일에 책은 몰수당했다. 몰래 팔린 것이 42권에 달한다. 여론에 놀린 법원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어, 기소가 이내 결정되고 공판이 열렸다. 6월 9일 아침에 대법정은 저자의 체포와 저작물의 분서를 선고했다. 11일에 책은 불태워지고, 저자의 쫓겨다니는 생활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알거나 모르는 독자들의 칭찬과 격려에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 독자들의 그것은 대단했었다. 엄마 젖을 먹이는 일이나 전원 생활이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많은 사교계 여성들이나 귀족들이 문의를 해 오는 바람에, 루소는 유랑 생활 속에서도 이들에게 답변을 해 주어야만 했을 정도다.

루소의 영향이 절정에 달한 것은 대혁명기이다. 국민 의회가 《사회계약론》을 헌법의 전거로 삼았듯이, 시민 교육의 입안자들은 《에밀》의 저자에게서 착상을 얻게 된다. 마리 조제프 세니에<sup>2\*)</sup>는 1793년 11월 5일의 의회에서 루소를, “교육의 참된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한 철학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의 판 나라들에서의 반향도 프랑스에서의 그것 못지않았다. 영국에서는 두 가지 번역이 동시에 나와, 자기 아이들의 교육을 루소에게 맡기겠다는 귀부인까지

2\*) Marie-Joseph Chénier(1764~1811)는 시인 앙드레 세니에의 아우, 극 시인이면서 혁명 의회의 의원이었다.

있었다. 독일에서의 성공은 더욱 대단했고, 특히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랬었다. 피히테, 칸트, 괴테, 실러 등은 다 그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낭만주의가 다가옴에 따라 《에밀》에 대한 호의는 부쩍 늘어나, 그 이론을 실천에 옮겨 보려는 열광자들이 속출했다. 페스탈로치는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의 이론에 회의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프레데릭 2세, 스탈 부인,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등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구나 2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소론에는 모호함이나 모순, 억지나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교육 이론이 후세에 끼친 영향의 폭과 깊이로 보아 《에밀》을 능가할 것이 없다는 사실 또한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찍이 비평가 귀스타브 랑송은, “근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에는 루소가 서 있다”는 뜻의 말을 한 일이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주장을 우리가 고지식하게, “원시 미개로의 복귀”로만 보지 말고, “일상생활의 순간마다의 생각이나 판단 및 행동에서, 부자연한 것을 되도록 물리치고 인간의 본성에 보다 알맞은 방향을 취하도록,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진정 무엇인가를 탐구해 나가도록, 늘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가르침은 그 힘찬 생명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쩌면, 물질문명의 질곡에 인류가 가장 지독하게 얽매어 있는 것 같은 현대에 있어, 그의 부르짖음은 한결 더 힘차게 살아 있는 것 일지도 모를 일이다.

1972년 가을

역자 박은수

에밀 —교육론—

*Sanabilibus ægrotamus mails; ipsaque nos in rectum*

*genitos natura, si emendari velimus, juvat.*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다.

고치려고 만들면, 자연이 도와 준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노여움》 L. II. (c. 13 B.C.)

## 머리말<sup>1\*</sup>

생각하고 관찰한 바를 두서 없이, 별로 일관성도 없이 모은 이 책은 생각할 줄 아는 어느 어진 어머니<sup>2\*</sup>를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애초에는 몇 장의 의견서를 쓸 생각뿐이었다. 내 테마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 의견서가 어느새, 알맹이에 비해서는 분명히 너무 큰 저작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기가 다루고 있는 소재에 비해서는 너무 작겠지만, 이 책의 출판을 나는 오래 망설여 왔다. 또 쓰면서도, 책 한 권을 써 낼 줄 알게 되려면, 작은 책자 몇 권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가 일쑤였다. 좀 더 잘 써 보려고 공연한 노력만 거듭한 끝에, 독자들의 주의를 우선 이쪽으로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대로 그냥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설사 내 생각들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들이 태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한 것으로는 되지 않겠기 때문이다. 칭찬해 줄 사람도 두둔해 줄 패거리도 없지만,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은신처에서 책을 내놓는 사람은, 자기가 틀렸을 경우 그 잘못을 남이 따져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면 어찌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겠다. 현행 교육의 좋지 않은 점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겠다. 그런 일은 술한 사람들이나 먼저 해 왔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로 책 한 권을 메우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없이 오래전부터 기존 방법에 대해, 보다 나은 방법을 내놓을 생각은 못 하면서 노상 불평만 해 왔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겠다. 우리 세기의 문학과 지식은 건설보다는 훨씬 더 파괴에 쏠리고 있다. 대가 같은 태도로 트집만 잡는다. 무엇을 내놓으려면, 고매한 철학자들

1\* 머리말이라는 표제가 원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뒤팡 부인(Mme Dupin)의 며느리 슈농소(Chenonceaux) 부인을 두고 한 말. “이 모든 일 외에도 나는 얼마 전부터 하나의 교육 체계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남편이 받은 교육 때문에 자기 아들 걱정을 몹시 하던 슈농소 부인이 나더러 부탁했던 것이다(《고백》 9부).”

은 덜 좋아하겠지만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공익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그렇듯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이 온갖 이익 중의 으뜸가는 이익은 여태 등한시되고 있다. 나의 테마는 로크의 저서<sup>3\*</sup>가 나온 뒤에도 아주 새로운 것이었지만, 내 책이 나온 후에도 이 테마가 여전히 그럴까 봐서 나는 몹시 걱정이다.

사람들은 유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는 갈수록 길만 짧게 된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에는 유의하지 않으면서, 어른들이 알아 두어야 할 것에만 매달린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가를 생각지도 않고, 아이 속에서 노상 어른만 찾고들 있다. 내 방법 모두가 설령 엉뚱하고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찰한 것들만은 남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전력을 쏟아 본 것이 바로 이 연구다. 해야 할 바는 사뭇 잘못 보았을지는 몰라도, 손대야 할 테마는 제대로 보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우선 여러분의 제자들부터 더욱 잘 연구해 보라. 왜냐하면 분명 여러분은 그들을 통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무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른바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에서는 그것이 자연의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독자를 가장 어리둥절케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틀림없이 공격받게 될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또 어쩌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옳을지도 모른다. 교육론이라기보다는 교육에 관한 어느 공상가의 몽상을 읽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어떡하랴?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남의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난받아 온 지도 오래다. 그러나 내게 남

3\* 비록 근본적인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로크에 대해 루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다. 로크의 《인간 오성론(悟性論)》(1690)은 유럽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심리학사에 신기원을 가져왔고, 루소는 샤르메트(Charmettes)에 있을 때 이를 읽었다. 또 그의 《아동 교육론》(1693)도 읽어 《에밀》을 쓰는 데 힘입은 바 컸던 것이다.

의 눈을 주고 남의 생각들을 태워 주는 것이 내게 달린 일인가? 아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나만이 누구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내게 달린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내게 달린 일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 모두는 바로 이것이다. 때로 내가 독단적인 어조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독자를 올려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위해서다. 나로서는 의심하지도 않는 것을 어쩌서 의심하는 것으로서 내어놓겠는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나는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의견을 자유로이 말하더라도 그것이 권위가 있기를 바랄 생각은 없으며, 독자가 그 이유를 검토하고 나를 비판하도록 언제나 그 이유를 곁들이겠다. 내 생각들을 굳이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내놓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격률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옹고그름이 기어이 밝혀져야만 할 성질의 격률들이고, 인류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격률들이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일을 제안하라고, 노상 나에게 되풀이들 한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도록 제안하라. 아니면 적어도 지금 있는 좋지 않은 것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이거나 제안하라고. 이러한 계획이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내 계획들보다도 사뭇 더 엉뚱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뒤범벅에서는 좋은 것은 망가지고 나쁜 것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는 좋은 방법을 어중간히 취할 바에야 기존 방법을 송두리째 따르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만큼 모순이 덜할 것이다. 사람은 상반되는 두 목표를 한꺼번에 노릴 수는 없다. 부모들이여, 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당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내가 당신들의 의지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가?

온갖 계획에는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그 계획의 절대적인 정당성이다. 둘째로는 실행의 용이함이다.

첫째 점에 있어서는, 그 계획 자체가 용납되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것이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정당하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이 경우에는, 제한된 교육이 사람에게 알맞아 사람 마음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고려는, 처지에 따라 주어진 갖가지 관계들에 달려 있다. 즉 사물에 따라 우발적인 관계들, 따라서 전혀 필연적이 아니고 한없이 바뀔 수 있는 관계들에 말이다. 그래서 어떤 교육은 스위스에서는 실행될 수 있어도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또 어떤 것은 부르주아들 집에서 가능하고, 어떤 것은 귀족들 사이에서 가능하다. 실행이 얼마나 쉬운가는 온갖 사정에 달려 있어, 그 방법을 어찌어찌한 나라, 어찌어찌한 신분에 따로따로 적용해 보지 않고서는 달리 정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적용들은 다 내 테마에 꼭 긴요한 것은 아니어서 내 플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럴 생각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나라나 신분에 대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곳이면 어디서나, 그들을 내가 제안하는 대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들을 내가 제안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들 자신과 남을 위해 보다 나은 일을 한 것이 된다면 그만인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지킨다면, 내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잘못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밖에는 약속하지 않으니까.

## 제 1 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좋다. 사람 손에서 모조리 나빠진다. 사람은 어떤 땅에 다른 땅의 산물들을 가꾸도록 강요한다. 어떤 나무더러 탄 열매를 달도록 강요한다. 풍토 · 환경 · 계절을 뒤범벅을 만든다. 개 · 말 · 노예를 병신으로 만든다. 모두를 뒤집어엎고, 모두를 일그러뜨린다. 기형이나 괴물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자연이 만든 그대로는 두려 들지 않아, 사람까지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말처럼 길을 들여야 한다. 정원의 나무처럼 자기 멋대로 뒤틀어 놓아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모두가 더 나빠질 것이고, 우리 인류는 어중간히 만들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나면서부터 남들 속에 혼자 버려 두어진 사람은 가장 기형적인 것이 될 것이다. 편견 · 권위 · 필연성 · 본보기, 우리를 그 속에 몰아넣는 이 모든 사회 제도가, 사람의 본성을 목 졸라 죽이고 그 대신 아무것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본성은 마치 어찌다가 길 한복판에 돌아나, 행인들이 사방에서 부딪고 사방으로 구부러뜨려 이내 죽이고 마는 관목과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한길에서 비켜날 줄을 알아, 돌아나는 관목을 사람들의 의견의 충격으로부터 지켜 줄 줄 아는 어질고 선견지명 있는 어머니여! 내가 호소하는 것은 바로 당신한테입

- 1 첫 교육은 가장 중요하며, 이 첫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여자들의 일이다. 이것을 조물주가 남자들에게 줄 생각이었더라면, 아이들에게 먹일 젖도 붙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육론에서는 언제나 맨 먼저 여자들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더 가까워서 보살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언제나 더 클뿐더러, 과부들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거의 매여 살게 되고, 그럴 때 자기가 써 온 교육 방식의 결과를 좋건 나쁘건 빠져리게 느끼게 되는 것만 보더라도 교육의 성과는 여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크니까. 미덕보다는 평화가 목적이어서 늘 재산이 문제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법률은, 어머니들에게 충분한 권위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지위는 아버지의 그것보다도 확고하다. 어머니의 의무는 보다 쉽다. 그 보살핌은 가정의 안녕질서에 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애착도 대체로 더하다.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구는 아들은 어느 정도 용서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뱃속에 배어 주고, 젖으로 길러 주고, 저만을 생각해 오랜 세월을 자신을 돌보지 않은 자기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굴 만큼 어긋난다면 그런 형편없는 자식은, 살아갈 자격도 없는 괴물로서 당장 목을 졸라 마땅할 것이다. 어머니가 응석받이 아이들을 버린다고들 말한다. 이 점에서는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망쳐 놓는 여러분들보다는 잘못이 덜하다. 어머니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당장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 점에서는 옳다. 방법이 틀렸다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야심 · 탐욕 · 압제 · 영타리 선견지명 · 그 무관심 · 그 지독한 무감각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눈명 애정보다 백배는 더 해롭다. 한편 이 어머니라는 이름에 내가 주는 뜻도 설 명해야겠다. 그러나 나중으로 미루겠다.

니다. 어린 나무가 죽기 전에 가꾸고 물을 주세요. 언젠가는 그 열매들이 열려 당신에게 다시없는 기쁨을 가져다줄 겁니다. 당신 아이의 영혼의 돌레에다 일찌감치 울타리를 치세요. 돌레의 금은 남이 그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위에 담을 쌓아야 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sup>2\*</sup>

식물은 가꾸어서 되고, 사람은 가르쳐서 된다. 설사 사람이 크고 강하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몸집과 힘은 쓰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남들더러 그를 도와 줄 생각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sup>3</sup> 그래서 혼자 내버려진 그는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기도 전에 궁해서 죽을 것이다. 어린 상태를 탓하다니! 사람이 아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들 인류는 멀하고 말았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하게 태어나, 힘이 필요하다. 빈손으로 태어나, 도움이 필요하다. 어리석게 태어나, 판단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날 때에는 갖지 않으나 커서는 필요하게 되는 이 모두는 교육에 의해 주어진다.

이 교육은 자연이나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해 준다. 우리의 기능과 기관의 내부 발전은 자연의 교육이다. 이 발전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의 교육이다. 우리에게 작용하는 대상물들에 관해 우리 자신의 경험이 얻는 것은 사물들의 교육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 세 가지의 스승에 의해 육성된다. 그들의 각각 다른 가르침이 서로 어긋나면 그 제자는 잘못 가르쳐지는 것으로,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 가르침들이 다 합치되어 같은 목적을 지향할 때만 제자는 목표대로 나가 모순 없이 살게 된다. 이런 제자만이 제대로 가르쳐진 것이다.

2\* “포르메이 씨는 내가 여기서 우리 어머니 말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어떤 저술에서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포르메이 씨나 나를 지독히 우롱하는 이야기다(C에 있는 저자 원주).”

포르메이(Formey)는 어리석게도, ‘어질고 선견지명 있는 어머니’를 루소의 어머니로 가정하고, 그의 《양파-에밀》(1763)에 그렇게 썼으며, 루소는 이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포르메이는 처벌을 두려워한 출판자의 부탁을 받고 《에밀》을 개작한 독일의 신교 목사.

3 외모는 그들과 비슷하나, 말도, 말이 나타내는 생각들도 갖지 않은 그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도 알릴 도리가 없어,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도 그 필요를 나타내어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다른 교육 중에서 자연의 교육은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사물들의 교육은 어느 점에서만 우리에게 달려 있다. 사람들의 교육만은 정말로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것도 가정에 의해서만 그렇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누가 완전히 지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교육이 하나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성공에 필요한 협력은 누구의 힘으로도 되지 않을 일인 만큼, 교육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목표에 다소간 접근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것에 이르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자연의 목표 바로 그것이다. 이는 증명이 된 일이다. 교육의 완성에는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한 만큼, 딱 두 가지를 몰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교육 쪽으론다. 그런데 이 자연이란 말은 뜻이 너무 막연할지 모른다. 여기서 그 뜻을 밝혀 보아야겠다.

자연은 습성에 불과하다고들 말한다.<sup>4\*</sup> 무슨 뜻인가? 억지로 해야만 불지만 자연은 결코 죽이지 않는 그런 습성들은 없단 말인가? 예컨대 수직으로 자라는 경향을 방해당하는 식물들의 습성이 그렇다. 내버려 두어도 식물은 강제당한 경향을 그냥 지켜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수액이 본래의 방향을 바꾸는 일도 없어, 식물이 계속해 자라면 그 성장은 다시 수직이 된다. 사람들의 경향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은 습성에서 오는 경향, 즉 가장 덜 자연적인 경향을 간직할 수 있다. 그러나 처지가 바뀌기가 무섭게 그 습성은 그치고 본성이 나타나난다. 교육은 분명 하나의 습성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가 받은 교육을 잊거나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자연이란 말을 자연과 맞는 습성에만 한정시켜야 한다면 이런 횡설수설

4\* C에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원주가 달려 있다.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포르메이 씨는 장담한다. 그러나 내가 대꾸할 생각이던 다음 시구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진다. 내 말을 믿으라, 자연이란 습성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동류들을 거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포르메이 씨는 겸손하게도 자기 두뇌의 한계를 인간 오성의 한계로 짐작하고 있다.”

이러한 빈정거림은 볼테르의 비극 <예언자 마호메트>의 다음 시구를 노리고 있다.

*자연이란 내가 보기에 습성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감각을 갖고 태어나, 나면서부터 주위의 사물들에 의해 갖가지로 자극을 받는다. 말하자면 제 감각을 깨닫게 되자마자 우리는, 그 감각을 낳는 대상물들을 찾거나 피하게 마련인 바, 처음에는 그 감각이 기분 좋으나 나쁘냐에 따라서, 다음에는 그 대상물들이 우리에게 알맞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이성 이 주는 행복이나 완전성의 관념에 비추어 우리가 그 대상물에 대해 내리는 판단 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감각이 더욱 발달되고 경험이 더욱 많아질수록 넓혀지고 굳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습성에 얽매인 이 경향은, 우리의 편견 때문에 다소간 변질된다. 이러한 변질 이전의 이 경향,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의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는 이 본래의 경향으로 돌려야 하겠고, 우리의 세 가지 교육이 단지 다 를 뿐이라면 이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 인간을 그 자신을 위해 기르지 않고 남들을 위해 기르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화합이 불가능하다. 자연이나 사회 제도와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한 인간을 만드느냐, 한 시민을 만드느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한꺼번에 양쪽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부분 사회는 다 그것이 좁아서 제대로 단결되었으면, 큰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애국자는 다 외국인에 대해 사정이 없다. 외국인은 그저 사람에 불과해 애국자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sup>5\*</sup> 이러한 탈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긴요한 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일이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밖에서는 야심적이고 구두쇠고 공정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성벽 안에서는 무욕과 공정과 화합이 지배하고 있었다. 자기네 둘레에서는 이행하기를 꺼리는 의무를 멀리 책 속에서 찾으려 드는 세계주의자들을 믿지 말라. 이런 철학자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면하려고 타타르(Tatar 달단)인들을 사랑한다.

5\* “그래서 공화국들의 전쟁은 군주국들의 전쟁보다 더 잔인하다. 그런데 왕들의 전쟁은 지독하지 않더라도, 무서운 것은 그들의 평화다. 그들의 신화가 되기보다는 적이 되는 편이 낫다(P와 G의 저자 원주).”

자연인에게는 자기가 모두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을 닮은 것하고밖에는 관계가 없는, 단위 수(數)이고, 절대 정수(整数)이다. 사회인은 분모에 딸린 분자에 불과하며, 그 가치는 사회라는 전체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좋은 사회 제도란 사람을 변질시켜 그 절대적 존재를 빼앗고는 상대적 존재를 주어 ‘자아’를 단일 공동체 속으로 옮길 줄을 가장 잘 아는 제도이다. 각 개인이 이미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통일체의 부분으로 알며, 전체 속에서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말이다. 로마의 한 시민은 카이우스도 투키우스도 아니었다. 한 로마인이었다. 자기 말고 오로지 조국만을 사랑하기까지 했다. 레굴루스<sup>6\*</sup>는 카르타고인의 노예가 되었기에 스스로 카르타고인으로 자처했었다. 외국인 신분임을 내세워 로마 원로원의 석을 차지하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한 카르타고인이 그러도록 명령해야만 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개했다. 그는 이겨내었고, 자랑스레 돌아가 처형당해 죽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라케다이몬(Lakedaimon) 사람 파이다레토스는 300인 의회의 의원이 되려고 나선다. 그는 거부당한다. 스파르타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300명 있다는 사실에 그는 아주 기뻐서 돌아온다. 나는 이러한 태도 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보며, 그렇다고 믿을 만한 건터기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이다.

스파르타의 한 여인은 아들 다섯을 군에 보내고 전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노예가 도착한다. 그녀는 떨면서 묻는다. 아드님 다섯 분이 전사했습니다. 천한 종아, 내가 그걸 물었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전에 달려가 신들에게 감사한다.<sup>7\*</sup>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아내다.

사회 질서 안에서 자연 감정을 앞세우려 드는 자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알지 못한다. 늘 자기 자신과 모순되고, 늘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의무 사이를 떠돌게 되어, 결코 인간도 시민도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저 인간들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 프랑스인, 한 영국

6\* 레굴루스(Marcus Atilius Regulus)는 기원전 3세기의 로마 장군.

7\*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에서 나온 것.

인, 한 부르주아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무언가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되려면, 또 한 인간이 되려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취할 태도를 늘 분명히 하고 당당히 내세워 밀고 나가야 한다. 그가 인간인지 시민인지를, 아니면 동시에 양쪽이 다 되려고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비범한 인간을 누가 내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의 교육 형태가 생겨난다. 하나는 공적인 공동 교육이고 또 하나는 개별적인 가정 교육이다.

공공 교육의 개념을 얻고 싶거든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 보라. 이것은 책을 표제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생각하듯이 정치에 관한 저술은 아니다. 일찍이 쓰인 교육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공상의 나라로 보내고 싶을 때 사람들은 플라톤의 제도를 든다. 리쿠르고스<sup>8\*</sup>가 자기의 제도를 글로 썼을 뿐이었다면 내게는 그 제도가 훨씬 더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켰을 따름이다. 리쿠르고스는 그것을 변질시켰다.

공공 교육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미 조국이 없는 곳에 시민들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국과 시민이라는 이 두 낱말은 현대어에서 지워져야 한다. 그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가 않다. 내 테마와는 상관없는 이유다.

콜레주(collège, 학교)라 불리는 저 가소로운 시설들을 나는 공공 교육 기관으로는 보지 않는다.<sup>9</sup> 세상의 교육도 나는 썸에 넣지 않는데, 반대되는 두 가지 목적을 노리는 이 교육이 두 가지를 다 놓치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모든 이익을 남들에게 돌리는 것 같아 보이면서 자신에게만에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는 이중 인간들을 만들기에만 알맞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 표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인 만큼 아

8\* 리쿠르고스(Lycourgos)는 스파르타의 입법자.

9 제네바 아카데미와 파리 대학에는 내가 좋아하고 또 무척 존경하며, 기존 방법을 좇도록 강요당하지만 않는다면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수들이 있다. 나는 그들 중의 하나에게 자기가 생각한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권하고 있다. 약이 없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침내는 병을 고쳐 볼 마음도 아마 들게 될 것이다.

무도 속이지는 못한다. 하는 만큼 헛수고다.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우리가 자신 속에 노상 느끼는 모순이 생겨난다. 자연과 인간들에 의해 상반되는 길들로 끌려가 그 갇가지 충동에 찢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우리는, 어느 한쪽의 목표에도 이끌어 주지 않는 뒤범벅 길을 간다. 그래서 한평생을 줄곧 시달리고 떠도는 우리는, 자신과도 뜻이 맞지 못한 채,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좋은 존재가 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게 된다.

결국 남은 것은 가정 교육이나 자연의 교육이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교육된 인간이 남들을 위해 무엇이 될 것인가? 혹시 노리는 이중의 목적이 단 하나로 결합될 수라도 있다면, 사람의 모순들이 제거됨으로써 그의 행복의 큰 장애물도 제거될지 모른다. 이런 인간을 알아보려면 완전히 형성된 그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성향을 관찰하고 그의 진보를 보고 그가 가는 길을 뒤밟아 두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연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이러한 연구에서 얼마간의 진전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보기 드문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 할 일이 많다. 그것은 아무것도 되어 지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바람을 안고 가는 것만이 문제라면 갈지자로 가면 된다. 그러나 바다가 거친데 제자리에 있고 싶다면 닻을 내려야 한다. 어린 파일럿아, 닻줄이 풀리지 않도록 닻이 끌려가지 않도록, 배가 모르는 사이에 독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 질서 안에서는 저마다가 제자리에 맞게 교육되어야 한다. 제자리에만 맞도록 만들어진 개인은 그 자리만 벗어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진다. 교육은 자기 운명이 부모의 천직과 일치되는 한도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 밖의 모든 경우 교육은 아이에게 해롭다. 교육이 아이에게 준 편견들만 생각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취해야만 하던 이집트에서는, 교육이 적어도 하나의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계급만이 남아 있고 그것이 노상 바뀌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계급에 맞게 가르쳐서 오히려 아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만큼 그들의 공통된 천직은 인간의

상태이다. 인간이 되게 제대로 교육된 자는 누구나 인간과 관계되는 구실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 리가 없다.

내 제자를 군인으로 삼건 성직자로 삼건 변호사로 삼건 내게는 상관없다. 부모의 천직 이전에 자연이 그에게 인간의 생활을 요구한다. 사는 일이,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직업이다. 내 손에서 떠날 때 분명 그는 법관도 군인도 신부도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일 것이다. 그는 필요하면 한 인간으로서 되어 마땅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운명이 그의 자리를 바꾸려 들어도 헛일,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 *Occupavi te fortuna, atque cepi: omnesque aditus tuos interclusi, ut ad me aspirare non posses.* (운명이여, 나는 너를 앞질러 너를 포로로 만들었다. 네가 나한테 다가들 수 있던 온갖 통로를 나는 막아버렸다.)<sup>10</sup>

우리의 진짜 공부는 인간 조건의 공부다. 우리 중에서 이승의 좋고 궂은일들을 가장 잘 견딜 줄 아는 자가 내 생각으로는 가장 잘 교육받은 자다. 그러기에 진짜 교육은 교훈보다는 훈련에 있다. 우리는 살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한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와 함께 시작된다. 첫 스승은 유모다. 그래서 이 ‘교육(éducation)’이라는 낱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른 뜻을 갖고 있었다. 젖 주어 기르기로 뜻이었던 것이다. *Educit obstetrix, educat nutrix, instituit pedagogus, docet magister.* “산파는 낳아 주고, 유모는 길러 주고, 가정 교사는 깨우쳐 주고, 스승은 가르친다”라고 와로는 말하고 있다.<sup>11</sup> 그래서 기르는 일(éducation)과 깨우치는 일(institution)과 가르치는 일(instruction)은 그 목적에 있어, 유모와 가정 교사와 스승이 다른 만큼이나 달랐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은 알맞지가 않다. 제대로 지도받으려면 아이는 단 하나의 지도자만 따라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보는 눈을 일반화해야 하며, 우리의 제자 속에서 추상적인 인간, 인생의 온갖 사건에 내어 맡겨진 인간을 보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한 고장 땅에 매여 태어났다면, 같은 계절이 일 년 내 계속된다면, 저마다가 제 운명에 고정되

10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의 《투스쿨룸(Tusculum)》 제5권.

11 뉴뉴스 마르켈루스의 와로 인용.



어 그걸 바꿀 도리가 없다면, 여태까지의 방법도 어떤 점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제 신분에 맞게 길러져 그 신분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는 아이는, 다른 신분의 불편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의 변덕을 생각하고, 모두가 세대마다 뒤집혀지는 이 세기의 불안하고 동요하는 정신에 비추어 보아, 제 방을 나올 일이 통 없는 사람, 노상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한 아이를 기르는 이상으로 지각없는 방법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쌍한 인간은 땅에 한 걸음만 내어 디더라도, 한 층계만 내려서도 어리둥절해한다. 이걸 그에게 고통을 견디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느끼도록 훈련하는 것이 된다.

자기 아이를 지킬 생각들밖에는 하지 않는다. 이걸로는 족하지 않다. 어른이 되어 자신을 지키도록, 운명의 타격을 견뎌 내도록, 호사나 비참을 예사로 알도록, 필요하다면 아이슬란드의 얼음 속이나 말타 섬의 타는 바위 위에서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은 아이가 죽지 않도록 조심을 하지만 헛수고이다. 아이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설사 그 죽음이 여러분의 조심 탓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그런 조심은 의당치가 않다. 죽는 것을 막기보다는 살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산다는 것은 숨쉬는 일이 아니고 행동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관들,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기능들을,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일이다. 가장 많이 산 인간이란, 가장 많은 햇수를 센 자가 아니라, 삶을 가장 많이 느낀 자다. 나자마자 죽었으면서도 땅에는 백 살에 묻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젊어서 무덤에 가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까지만마 살았다면 말이다.

우리의 지혜란 다 비굴한 편견들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이란 굴종과 속박과 강제에 불과하다. 시민은 노예 상태 속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나면서부터 포대기 속에 꿰매어진다. 죽으면 관 속에 못 박힌다.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제도에 묶인다.

산파들은 터러 갓난아기들의 머리를 주물러서 더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고 우겨 댄다지만, 그러도록 내버려 두다니! 우리의 머리는 조물주의 솜씨 그대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머리 굽은 산파들이, 안은 철학자들이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다. 카리브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다.

“아이가 어머니 태를 나오기가 무섭게 또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펴는 자유를 누리기가 무섭게 새로운 속박들이 주어진다. 배내옷에 싸이고, 머리를 고정하고 두 다리를 뻗고 두 팔을 옆구리에 늘어뜨려 놓게 한다. 꼬짝달짝 못 하게 만드는 온갖 속옷과 띠로 감싼다. 숨이 막힐 정도로 죄어 대지만 앉았어도, 또 입으로 내놓을 물이 절로 흘러내릴 수 있게 모로 눕혀만 주었더라도 다행이지 뭐가! 그제 쉽사리 흘러내리도록 고개를 모로 돌릴 자유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sup>12</sup>

갓난애는 그토록 오래 팔다리를 실뭉당이 모양으로 웅크리고 있던 동면 상태에서 팔다리를 풀어 내기 위해 그것들을 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기가 펴 주기는 한 다, 그러나 움직이지는 못하게 한다. 머리마저 모자로 눌러 댄다. 마치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겁이 나는 모양이다.

이리하여 자라나겠다는 몸 내부의 힘은, 제가 요구하는 운동에 대한 엄청난 장애에 부딪는다. 아이는 헛된 노력만 계속하다가 힘만 빠지고 발육은 늦어진다. 포대기 속보다는 모래집 속이 차라리 덜 좁고 덜 답답하고 덜 눌러 있었던 것이다. 태어나서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아이의 팔다리를 꼬작 못 하게 엮매어 얻는 것은, 피나 분비액의 순환을 막고, 아이가 튼튼해지고 커지는 것을 막으며, 체질을 망쳐 놓을 따름이다. 이런 엉뚱한 조심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크고 튼튼하며 몸의 균형이 잡혀 있다.<sup>13</sup> 아이들에게 배내옷을 입히는 나라들은 곱추 · 절름발이 · 안짱다리 · 관절병자 · 구루병자 등 온갖 유의 병신들이 육시글거리는 나라들이다. 자유로운 동작으로 몸이 기형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서둘러 죄어 대어 기형으로 만든다. 불구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가 즐겨 반신불수를 만들 것이다.

이토록 잔인한 구속이 기질과 체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첫 느낌은 고통이다. 필요한 모든 동작에서 장애밖에는 발견하지 못한다. 고랑 찬 죄수보다도 더 불쌍한 그들은 헛고생을 하며 약이 올라 외친다. 그들의 첫 소리는 울음소리라고 여러분은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그들을 나면서부터

12 뷔퐁(Georges-Louis Leclerc de Buffon, 1707~1788)의 《박물지(Histoire naturelle)》 4권, p. 190.

13 본서 p. 65의 각주 27 참조.

터 괴롭힌다. 여러분에게서 받는 첫 선물이 사슬이다. 받는 첫 대접이 시달림이다. 자유로운 건 목소리밖에 없으니 어떻게 그것을 써서 호소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주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이다. 이렇게 졸라매면 여러분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을 것이다.

이런 당참은 습관은 어디서 오는가? 자연을 벗어난 습관에서 온다. 자신의 첫 의무를 무시한 어머니들이 제 아이를 기를 생각이 없어지면서부터 돈으로 산 여자들에게 맡겨져야 했으며, 그래서 자연적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낯선 아이의 어머니가 된 그녀들은, 고생을 피할 염박에는 없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라면 노상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잘 묶어 두면, 울음소리에 아랑곳없이 한구석에 버려 둔다. 유모가 태만한 증거만 없다면, 젖먹이가 팔다리만 부러지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아이가 죽건 평생 병신이 되건 무슨 아랑곳이랴? 아이 몸을 희생시켜 손발만 보호하는 셈이니, 무슨 일이 생기건 유모에게는 죄가 없다.

아이들을 떨쳐 버리고 즐겨 도시의 환락에 빠져 있는 저 알뜰한 어머니들은, 배내 옷에 싸인 아이가 마을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나 아는가? 하찮은 볼일만 닦쳐도 아이는 옷꾸러미처럼 못에 매달려지고, 그래서 유모가 천천히 볼일을 보는 동안 가엾은 아이는 이렇게 못 박힌 채 있다. 이런 처지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다 보랏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슴이 세게 짓눌려 피가 돌지를 않고 머리로 거슬러 오른다. 그래서 꼬마가 아주 암전히 하고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리지를 기운이 없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이것이 배내 옷의 가장 큰 쓸모의 하나다.

내버려 둔 아이들은 나쁜 자세를 취해 팔다리의 정상적 발육 형성을 해칠 동작을 할지도 모른다고들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엉터리 지혜가 하는 저 헛된 추리, 일찍이 어떤 경험으로도 확인된 적이 없는 추리의 하나다. 우리보다 더 지각 있는 나라들에서 손발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 길러지는 술한 아이들 중에는, 다치거나 병신이 되는 아이라곤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동작을 위험하게 만들 만한 힘을 동작에 줄 수가 없어, 설사 난폭한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내 고

통이 그것을 바꾸도록 경고한다.

우리는 아직도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한테 배내옷을 입힐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내버려 두어서 무슨 지장이라도 생긴 일이 있는가? 아이들은 몸이 더 무겁다. 그렇다. 하지만 그 비례로 더욱 약하기도 하다.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까 말까다. 어떻게 제 몸을 망가뜨리겠는가? 반듯이 눕혀 두면 새끼 거북이처럼 엎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제 아이에게 젖 주기를 그만두고도 불만인지 여자들은 아이를 만들 생각도 없어졌다. 당연한 결과다. 어머니 노릇이 짐이 되자 이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을 찾아 낸다. 만든 것을 못 쓰게 만들고는 노상 다시 만들려고 들며, 인류를 불리도록 주어진 매력을 인류를 해치는 데 쓰고 있다. 인구를 줄이는 판 원인들에 덧붙여진 이러한 버릇은 다가올 유럽의 운명을 예고한다. 유럽이 낳는 과학·예술·철학·풍습이 머지않아 유럽을 무인지경으로 만들 것이다. 야수가 번식할 것이다. 그래도 유럽의 주민이 많이 바뀐 셈은 아닐 것이다.

자기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체하는 젊은 부인들의 잔꾀를 나는 더러 보았다. 이런 변덕은 단념하도록 남더러 재촉시킬 줄을 알고 있다. 약삭빠르게도 남편이나 의사, 특히 어머니를 끌어들인다. 아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선불리 동의할 그런 남편은 볼 장 다 본 남자다. 아내를 떨쳐 버리려는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신중한 남편이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희생시켜야 한다. 여러분의 부인들보다 더 순결한 여자들이 시골에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 그런 여자들이 버는 시간이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에게만 바쳐진다면 더욱 다행한 일이다!

여자들의 의무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데 동조해서 시비들을 하고 있다. 자기 젖으로 기르건 남의 젖으로 기르건 아이들에게는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의사들이 심판자인 이 문제는 여자들의 소원대로 판정된 것으로 나는 본다. 뿐더러 나로서는 아이가 타고난 피에 꺼림칙한 무슨 병이 있다면, 그런 고약한 어머니의 젖보다는 건강한 유모의 젖을 빠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도 생각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육체적인 면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보다는 엄마의 정성이 덜 아쉽단 말인가? 판 여자들도, 짐승들까지도, 엄마가 거절하는 젖을 아이에게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정성은 대신할 도리가 없다. 자기 아이 대신 남의 아이를 기르는 여자는 나쁜 어머니다. 어떻게 좋은 유모가 되겠는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습관이 천성을 고쳐 놓아야 할 것이다. 또 제대로 돌봐 주지 않는 아이는, 유모가 어머니의 애정을 갖기 전에 백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면 하는 대로 역시, 다감한 여자라면 누구나 자기 아이를 남을 시켜 기를 용기가 싹 가시게 될 만한 지장이 생겨난다. 그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아니 그것을 내주어야 하는 지장이고, 자기 아이가 자기만큼이나 자기 이상으로 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지장이며, 제 어머니에 대해 간직한 애정은 호의이고, 양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장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의 정성을 발견한 그곳에 나는 아들로서의 애착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장을 없애는 방법은, 유모들을 진짜 종으로 대함으로써 아이들 머리에 멸시를 넣어 주는 일이다. 유모 일이 끝나면 아이를 도로 빼앗거나 유모를 내보낸다. 술한 푸대접으로, 젖먹이를 보러 올 염조차 나지 않게 만든다. 몇 해가 지나면 아이는 유모를 보지 않게 되고, 얼굴마저 잊게 된다. 유모 자리를 차지해, 잔인한 짓으로 자신의 태만을 벌충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는 잘못이다. 그르친 젖먹이를 다정한 아들로 만들기는커녕, 배은망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젖으로 자기를 길러 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낳아 준 사람도 언젠가는 무시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유익한 테마들을 자꾸 되풀이해 봤자 헛수고라는 생각에 낙심만 덜 되어도 나는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 이건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일과 관련되어 있다. 각자를 자기의 첫 의무로 돌려보내고 싶다면, 우선 어머니들에서부터 시작하라. 거기서 생기는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 첫 변질에서 잇닿아 생겨난다. 도덕 질서 모두가 망가진다. 천성이 모든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집안은 활기가 줄어든다. 신접살이 가정의 감동적인 광경도 이미 남편들의 눈을 끌지 못하고, 남들

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는 어머니는 존경을 덜 받게 된다. 가정에는 몸돌 곳이라고는 없다. 습관이 혈연을 굳게 만들지도 않게 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도 형제도 자매도 이미 없다. 서로 알아보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는가? 저마다 제 생각밖에는 않는다. 집이 쓸쓸한 곳에 지나지 않게 되면 딴 곳으로 즐기러 가야만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몸소 길러 주게 되면, 가풍은 절로 개선되고, 자연의 감정이 모든 마음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나라는 인구가 되어난다. 이 첫째 점, 이 점만이 모두를 도로 맺어 줄 것이다. 가정 생활의 매력은 악습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다. 귀찮게들 생각하는 아이들의 법석이 기분 좋은 것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로 더욱 소중하고 다정하게 만들어, 부부 사이의 유대가 죄어진다. 가정이 활기를 띠게 되면 살림살이가 아내의 가장 소중한 일, 남편의 가장 기분 좋은 낙이 된다. 그래서 이 폐단만 고쳐지면 곧 전반적인 개혁이 오고, 자연이 제 권리 모두를 돌이키게 될 것이다. 아내들이 일단 어머니로 되돌아오고 나면, 남자들은 이내 아버지로, 남편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군소리! 세상의 쾌락에 대한 권태마저도 결코 이런 기쁨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는다. 아내들은 어머니이기를 그만두었다. 다시는 어머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바라다손 치더라도 되기는 힘들 것이다. 반대되는 습관이 이미 굳어 버린 오늘에 와서는, 어느 여자나 주위의 모든 여자들의 반대와 싸워야만 할 것이니까. 자기들은 보여 준 일도 없지만 따를 생각도 없는 본보기에 반대해 뭉친 여자들의 반대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 유행의 횡포나 같은 여성들의 아우성을 감히 무릅쓰고, 자연이 과하는 그 알뜰한 의무를 용감히도 다하고 있는 뛰어난 천성의 젊은 여성들이 아직은 더러 있다. 바라건대 의무에 골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에 마음이 끌려 그 수효가 늘어났으면! 가장 단순한 추리의 결과와 일찍이 어긋나 본 적이 없는 관찰을 근거 삼아, 나는 감히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에게 언약한다. 남편의 굳고 한결같은 애착과 아이들로부터의 진정 효성스러운 애정과, 세상 사람들의 신망과 존경을, 사고도 뒤탈도 없는 안전한 해산과 튼튼하고 힘찬 건강

을, 그리고 마침내는 언젠가 딸들이 자기를 본뜨고 남의 딸들의 본보기로 꼽히는 자신을 보게 될 기쁨을 말이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도 없다. 모자간의 의무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서, 한쪽에서 덜 채워지면 판 쪽도 소홀해진다.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사랑해야 한다. 핏줄의 소리도 습관과 정성에 의해 강해지지 않으면 몇 해 못 가서 사라지며, 정은 싹트기도 전에 죽는 셈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첫걸음서부터 자연에서 벗어난다.

반대되는 길로 해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정성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밀고 나가는 경우다. 아이를 자기 우상으로 삼는 경우다. 아이가 자신을 약하게 느끼는 것을 막으려고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경우며, 약간의 불편에서 아이를 잠시 막아 주려다가 얼마나 큰 사고와 위험들을 아이의 앞날에 쌓아올리게 되는지, 또 어린 시절의 약함을 연장시켜 어른이 되어 지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참견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이더러 자연의 법칙을 면하게 해주느라고 힘드는 일들에서 멀리해 주는 경우다.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스틱스 강물에 담갔다고 전설은 말한다. 이 비유는 아름답고 분명하다. 내가 말하는 지독한 어머니들은 달리하고 있다. 아이들을 나약 속에 잠금으로써 고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온갖 병에 대해 아이들의 털구멍을 열어 주고 있는 셈이니, 커서 영락없이 걸려들고 말 것이다.

자연을 관찰하라. 그리고 자연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라. 자연은 노상 아이들을 단련한다. 온갖 시련으로 아이들의 체질을 굳혀 준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가르쳐 준다. 돌아나는 이는 열을 준다. 심한 복통은 경련을 준다. 오래 가는 기침은 숨을 막는다. 별레들이 괴롭힌다. 다혈증이 피를 썩게 한다. 갖가지 효모가 핏속에서 괴어 고약한 발진들을 일으킨다. 초기는 거의 모두가 병이고 위험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8살 이전에 죽는다. 시련이 끝나면 아이는 힘을 얻어, 생명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마자 생명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왜 그것에 거역하려 드는가? 이 법칙을 고치려 들다가 그것이 해 놓은 일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배려한 결과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분은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으로는, 자연이 안에서 하는 일을 밖에서 하는 것은, 위험을 늘리는 짓이 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위험을 따돌리는 일이며, 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소중히 기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히 가르쳐 주고 있다. 아이들의 힘의 한도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끼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러니 아이들이 언젠가는 겪게 될 타격에 대해 단련시키라. 고르지 못한 계절이나 풍토, 환경에 대비해서 아이들 몸을 단련시키라. 굶주림, 갈증, 피로에 대비해서, 스틱스 강물에 아이들을 담그라. 몸의 습성이 굳어지기 전에는, 바라는 습성을 위험 없이 붙여 줄 수 있다. 그러나 몸이 일단 굳어지고 나면, 모든 변화는 위험한 것이 된다. 아이는 어른이 감당하지 못할 변화도 감당할 것이다. 물러서 잘 휘는 아이의 섬유들은 쉽사리 주어지는 대로 주름이 잡힌다. 굳어진 어른의 섬유들은 주어진 주름이 억지로밖에 바뀌지 않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아이는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설령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에는 피치 못할 위험들인 만큼, 가장 덜 불리한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겪게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아이란 나이가 들면 더 값진 것이 된다. 자신의 값에, 들인 정성의 값이 합쳐진다. 아이에게는 제 생명의 손실에, 죽음의 감정이 합쳐진다. 그러니 아이의 보호에 유의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앞날이다. 청년이 되기 전에 청년기의 고생에 대비해서 아이를 무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생명이 쓸모 있게 될 나이까지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철들 나이에 고생을 늘려 주려고 어릴 때 약간의 고생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것이 그래 스승의 가르침이란 말인가?

인간의 운명이란 언제나 고생하는 일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씀 자체가 고통과 붙어 있다. 어려서 육신의 고생들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가! 판 고생들보다는 훨씬 덜 지독하고 덜 괴로울뿐더러 삶을 단념하게 만드는 일도 훨씬 드문 고생들을 말이다. 풍병(風病)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절망을 낳는 것은 정신의 고통밖에 없다. 우리는 유년기의 처지에 동정하지만, 동정해



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처지다. 우리의 가장 큰 고생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 아이는 나면서 온다. 영아기는 울어서 보낸다. 불안해져서 달래느라고 어르기도 한다. 울음을 그치게 하느라고 어르기도 때리기도 한다. 아이 비위에 맞게 해 주거나 우리 비위에 맞추도록 강요한다. 아이 변덕에 따르거나 아이가 우리 변덕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중간이라고는 없어, 아이는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가 맨 먼저 갖는 관념은 지배 관념과 복종 관념이다. 말할 줄 알기 전에 명령한다. 행동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복종한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잘못을 알게 되기도 전에, 아니 저지를 수 있게 되기도 전에 벌을 받는다. 이리하여 일찍부터 어린 가슴에 정념을 부어 넣고는 나중에 가서 그것을 자연의 탓으로 돌리며, 애써 아이를 고약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가 고약해졌다고 투덜거린다.

아이의 여자들 손에서 그 변덕과 자기 변덕의 희생이 되어 육칠 년을 이런 식으로 보내며, 이것저것을 배우게 한 뒤에는, 말하자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나 아이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을 외게 하고는, 억지로 생겨나게 한 정념들로 천성의 목을 조르고 나서는, 이 인조인간을 가정 교사 손에 넘겨주는 것이며, 교사는 이미 형성되어 버린 인공의 싹들의 마지막 성장을 맡아, 온갖 것을 가르쳐 준다. 자신을 아는 일,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일, 살아가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일은 제쳐놓고 말이다. 노예이고 폭군이며, 지식은 찻으나 지각은 텅 빈, 몸도 정신도 같이 허약한 이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던져지게 되면, 제 무능과 교만과 온갖 악습을 드러내어 보임으로써 인간의 비참함과 간악함을 한탄케 한다. 잘못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변덕이 만들어 낸 인간이다. 자연의 인간은 달리 만들어진 다.

그러니 그가 타고난 형상을 간직하기를 바라는가? 그럼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을 보존하도록 해 주라. 태어나자마자 그를 꼭 붙들여라. 그리고 어른이 되기 전에는 놓지 마라.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진짜 유모가 어머니이듯이, 진짜 교사는 아버지이다. 그들은 자기네 일의 차례에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도 일치되어야 한다. 어머니 손에서 아버지 손으로 아이는 옮겨져야 한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선생보다도 지각 있는 범용한 아버지에게 의해 보다 낫게

교육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능이 열성을 별충하기보다는, 열성이 재능을 더 잘 별충할 테니까.

하지만 불일과 직무와 의무들이…… 아, 의무들! 분명 그중의 꼴찌가 아버지로서의 의무겠지?<sup>14</sup> 둘의 결합의 열매를 기르기를 꺼린 아내를 가진 남자가, 그 열매를 교육하기를 꺼리는 것은 놀랍지가 않다. 가정이란 그림 이상으로 매력 있는 그림은 없다. 그러나 단 한 획만 빠져도 나머지가 죄다 뒤틀어진다. 어머니가 유모가 될 만큼 건강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일이 너무 많아 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집을 떠나 기숙사나 수도원이나 학교로 흩어진 아이들은, 어버이 집에 대한 애정을 탄 데로 옮기게 될 것이며, 그보다도 아무것에도 애착을 느끼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매들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예식이라도 있어 모두가 모이게 되면, 서로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게 될 것이다. 서로 남처럼 대하게 될 것이다. 양친 사이에 이미 친밀감이 없어지자, 가정의 단란함이 생활에 다사로움을 가져오지 않게 되자, 그것을 메우려면 나쁜 습관에 의지할 도리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의 얽힌 관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빠진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게 하고 먹여 살리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임무의 3분의 1 밖에는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는 인류에게 인간들을 줄 의무가 있고, 사회에 사قم성 있는 인간들을 줄 의무가 있으며, 국가에 시민들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삼중의 빚을 치를 수 있으면서 치르지 않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반만 치른다면 더 큰 죄가 될지 모른다.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가 될 권리도 없다. 가난도 일도 체면도 손수 자기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일을 면하

14 플루타르코스에서, 로마를 그토록 빛나게 다스린 감독관 카토가, 자기 아들을 요람에서부터 손수 길렀으며, 그것도 유모 즉 어머니가 아이를 움직이거나 씻겨 줄 때는 만사를 제폐하고 거들 정도로 정성껏 길렀다는 사실을 읽으면, 또 수에토니우스에서, 세계를 정복해 스스로 다스린 세계의 지배자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손자들에게 쓰기와 해엄치기와 학문의 초보를 손수 가르치며 아이들을 노상 자기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읽으면,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하기 좋아하던 그 당시의 착한 소인들에 대해 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일들에 종사하기에는 분명 너무나 막힌 그 소인들에 대해서 말이다.

게 해 주지는 않는다. 독자들이여, 여러분은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정을 가지고도 이렇듯 신성한 의무를 돌보지 않는 자라면 누구에게든 나는 미리 말해 두겠다. 자기 잘못에 대해 오래오래 쓴 눈물을 쏟게 될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풀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내버려 둔다는 저 부자들, 저 가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기에게는 벅찬 짐인 이런 책임을 메우기 위해 딴 사람에게 돈을 치르고 있다. 돈만 아는 인간! 당신 아들에게 돈으로 딴 아버지를 주겠다는 생각인가? 잘못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아들에게 주는 것은 선생이기는커녕 종이다. 그는 곧 당신 아들을 또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좋은 교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말이 많다. 내가 요구하는 첫째 자격, 이 자격만 해도 다른 술한 자격을 전제로 삼는 것이지만, 그것은 돈에 팔리지 않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 고상해서, 부끄럽다는 생각 없이는 돈 때문에는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다. 군인의 직업이 그렇다. 교사 직업이 그렇다. 그럼 누가 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이미 말했지만 당신 자신이다. 나는 못한다. 당신은 못한다고!…… 그럼 친구를 만들어라. 다른 도리가 없다.

교사! 오, 얼마나 숭고한 인간인가!…… 실상 한 인간을 만들어 내려면, 자신이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인간 이상의 인간이어야만 한다. 여러분이 예사로 고용인에게 맡기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어려움들을 깨닫게 된다. 교사는 제자를 위해 교육되어 있어야겠고, 하인들은 주인을 위해 가르쳐져 있어야겠고, 아이를 가까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게 주어도 좋을 인상을 지니고 있어야겠다. 교육에서 교육으로, 알지 못할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자신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자에 의해 어떻게 아이가 제대로 교육될 수 있겠는가?

이런 보기 드문 인간은 찾아볼 수 없는가? 나는 모르겠다. 이 타락의 시대에서 아직도 한 인간의 낮이 어느 정도의 미덕에 이를 수 있는지를 누가 알랴? 그러나 이런 비범한 인간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주시함으로써 가능하다. 내가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되

는 것은, 좋은 교사의 가치 모두를 알아차릴 만한 아버지라면 교사 없이 지낼 결심을 하리라는 점이다. 그런 교사를 얻기란 자신이 그런 교사가 되기보다 더 힘들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친구를 만들 생각인가? 그러려면 자기 아들을 자기가 교육하도록 하라.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되거니와 자연이 이미 일의 절반을 한 셈도 된다.

내가 그 신분밖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더러 자기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해 온 적이 있다.<sup>15\*</sup> 분명 내게는 큰 영광을 베푸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거절을 못마땅히 여기기보다는, 나의 조심성을 기뻐해야 한다. 내가 만일 그의 청을 들어 방법을 가르쳤더라면, 교육은 실패다. 내가 성공했더라면 더욱 나빠, 그의 아들은 자기 타이틀을 부인했을 것이다. 군주가 될 생각이 가서 버렸을 것이다.

어디서 청해 오건 이런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교사의 의무의 중대함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고, 나의 무능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으며, 우정에 대한 관심조차도 내게는 거절의 다른 동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게 이런 청을 할 엄두를 낼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런 헛수고는 말도록 당부해 둔다. 이 직업이 내게 맞지 않음을 확신할 만큼은 전에 시험해 본 일이 있으며, 또 설령 내 재능이 그것을 가능케 해 준다 하더라도, 내 처지가 그걸 면하게 해 줄 것이다. 내가 진심이며 굳은 결심이 되어 있다고 믿을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공언을 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장 보람 있는 임무를 다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는, 가장 손쉬운 일이나마 감행하겠다. 다른 술한 사람들을 본받아, 일에 손대지는 말고 펜을 잡겠다. 해야 될 일을 하는 대신, 그것을 말해 볼 생각이다.

이런 유의 계획에서는, 저자가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되는 체계 속에 편히 도사리고 앉아, 따르지 못할 술한 근사한 교훈만 예사로 늘어놓기가 일쑤일뿐더러, 그가 말하는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세목이나 실례가 없어, 응용을 보여 주지 않는 한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15\* 루소는 1740년에 리옹 현령 사령관 마블리(Mably) 씨의 아이들의 가정 교사를 지낸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 가공의 아이를 제자로 삼고, 그의 교육에 종사하기에 알맞은 나이, 건강, 지식과 온갖 재능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되어 자기 이외의 판 지도자가 필요 없게 될 때까지 그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방법은 자신 없는 저자가 환상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보통 방법에서 벗어난 이상 자기 방법을 제자에게 시험해 볼 도리밖에 없는 만큼, 자기가 아이의 진보와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진행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곧, 그가 깨닫게 되든가 아니면 그 대신 독자가 깨닫게 될 것이니까.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해 보려고 애쓴 바가 바로 이것이다. 책 부피만 공연히 커지지 않게 하려고 나는, 누구나가 진리로 느낄 원리만을 내세우는 데 그쳤다. 그러나 증명이 필요할 원칙들로 말하면, 모조리 나의 에필이나 다른 예에 적용시켰고, 광범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내가 내세운 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보이도록 했다. 내가 따르기로 작정한 계획은 대체로 이런 것이다. 내가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나의 첫 교육 격률들은, 비록 기성의 그것들과는 반대되는 것이긴 하나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하지 않기가 힘든 분명한 것인 만큼, 처음에는 에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아감에 따라, 여러분의 제자들과는 달리 지도받은 내 제자는 이미 여느 아이가 아니다. 그에게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때 그는 더욱 자주 무대에 나타나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가 뭐라 그러건 내가 전혀 필요치 않게 되기까지는 나는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좋은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통 말하지 않고, 그런 자격을 가정하여, 나 자신이 그런 자격 모두를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일반 의견과는 반대로 한 아이의 교사는 젊어야 하며, 현명한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젊어야 한다는 점만을 밝혀 두겠다. 될 수만 있다면 교사 자신이 아이였으면, 그래서 제자의 벗이 되어 같이 놀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공통되는 것이 별로 없어, 이런 거리를 두고는 굳은 애착이 생겨나

지 않는다. 아이들은 때로 노인들에게 알랑대는 일은 있어도 결코 사랑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이미 교육한 경험이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나치다. 같은 사람은 한 번의 교육밖에는 할 수가 없다. 두 번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면, 무슨 권리로 첫 교육을 맡겠는가?

경험이 더하면 더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아 그 온갖 고생을 웬만큼 느껴 본 사람이라면 다시 하려 들 리가 없고, 또 첫 번째 제대로 해치우지 못할 사람은 두 번째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갖게 된다.

한 소년에게 4년 간 붙어 있는 것과, 25년 간 그를 지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여러분은 이미 굳어져 버린 아들에게 교사를 붙여 준다. 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교사를 갖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교사는 5년마다 제자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교사는 제자를 하나밖에는 갖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교사(précepteur)와 스승(gouverneur)을 구별한다. 이것도 어리석은 짓! 여러분은 제자와 학생도 구별하는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학문은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의무라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단일하며,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인들의 교육에 대해 설사 무슨 말을 했건, 이 학문은 갈라지지 않는다.<sup>16\*</sup> 더구나 나는 이런 학문의 선생을 교사라기보다는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에게는 가르치는 일보다 지도하는 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교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찾아 내게 해야 한다.

이렇듯 조심해 교사를 골라야 하는 것이라면, 교사에게도 제자를 고르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한 본보기를 내놓아야 할 때는 더구나 그렇다. 이 선택은, 일을 해 본 끝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는 아이의,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골라잡게 되는 아이의 천분에도 성격에도 미칠 수는 없다. 설령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경우라도, 나는 보통 머리를 가진 아이밖에는 골라잡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제자로서 가정하는 아이는 이런 아이다. 흔한 사람들밖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교육만을 그 동류들의 교육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 밖의 사람들은 싫건 말건 자라난다.

16\* 크세노폰(Xenophon)은 몽테뉴의 《에세》1부 25장에 인용되어 있다.

땅이 사람들을 가꾸는 데 무관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온화한 풍토에서밖에는 제가 될 수 있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양극의 풍토에서는 분명 불리하다. 사람은 나무처럼 한곳에 심어져 언제까지나 거기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쪽 끝에 이르려고 한쪽 끝을 출발하는 자는, 같은 목적지에 이르려고 중간에서 출발하는 자의 갑절 되는 길을 가야만 한다.

온화한 고장 사람이 차례로 양쪽 끝에 간다면, 그의 이득은 더욱 뚜렷하다. 비록 한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자만큼 바뀌기는 한다 치더라도, 타고난 체질에서 절반은 덜 멀어지는 셈이니까. 한 프랑스인은 기니에서도 라플란드에서도 산다. 그러나 한 니그로가 마찬가지로 토르네아에서 살거나, 한 사모예드인이 베냉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sup>17\*</sup> 게다가 뇌 조직도 양극에서는 덜 완전한 것 같다. 니그로 들도 라플란드인들도 유럽인들의 감각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 제자가 지구 의 주민이기를 내가 바란다면, 나는 그 제자를 온대에서 구하겠단, 예컨대 다른 데 에서보다는 프랑스에서 말이다.

북극에서는 사람들이 메마른 땅에서 많이 소비한다. 남극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적 게 소비한다. 한쪽 사람들을 부지런케 하고 다른 쪽 사람들을 명상적이게 만드는 새로운 차이가 여기서 생겨난다. 사회는 같은 한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차이를 빈 자와 부자 사이에서 보여 주고 있다. 전자는 메마른 땅에 살고 있고 후자는 기름진 고장에 살고 있다.

빈자는 교육이 필요 없다. 자기 처지에서 받는 교육이 강제적인 것이어서 다른 교 육을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부자가 자기 처지에서 받는 교육은, 자신에게도 사회 에도 가장 부적당한 교육이다. 더구나 자연적인 교육은 한 인간을 온갖 인간 조건 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빈자를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자를 빈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덜 합리적이다. 두 계급의 수효 비례로 보아, 벼락부 자보다는 몰락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 한 부자를 택하자. 적어도 사람 하나를 더 만들게 될 것은 틀림없다. 빈자는 제 힘으로도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같은 이유로 해서 에밀이 명문 태생이더라도 나는 탐탁지 않게 여기지는 않겠다.

17\* 토르네아는 쉬든의 강, 베냉은 서아프리카 기니의 왕국.

여전히 한 희생자가 편견에서 건져진 것이 될 테니까.

에밀은 고아다. 부모가 있어도 상관없다. 부모의 임무를 떠맡은 나는, 부모의 모든 권리도 이어받는다. 에밀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내게는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첫째 조건, 아니 단 하나의 조건이다.

이 조건에다 나는 이 조건의 결과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밖에 서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덧붙여야 한다. 이 조항은 중요한 것이며, 게다가 나는 제자와 교사의 운명이 늘 하나가 될 정도로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까지도 바라고 싶다. 장차 헤어질 것을 생각하게 되면, 서로 남이 될 때를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은 이미 남이다. 저마다 따로 제 작은 세계를 만들며, 같이 있지 않게 될 때 생각만 하는 둘은 다 마지못해서만 머물러 있게 된다. 제자는 선생을 그저 어릴 때의 표적이나 성가신 존재로만 여긴다. 선생은 제자를 내려 놓고 싶어 애가 타는 무거운 짐으로만 여긴다. 둘은 짝 듯이 서로 상대방에서 풀려 나올 때만 고대한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참된 애착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하나는 조심음, 하나는 순종을 거의 않게 된다.

그러나 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것으로도 서로 친해진다. 커서 갖게 될 친구를 어려서 따르는 것을 제자는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할 보살핌에 관심을 갖게 되며, 제자에게 들인 공 모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쌓는 밑천이 된다. 미리 맺어진 이 계약은, 순산과 몸이 좋아 튼튼하고 건전한 아이를 가정하고 있다. 아버지는 선택권이 통 없어, 하느님이 준 가족 중에서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 모두가 똑같이 자기 아이다. 똑같은 정성과 애정을 베풀 의무가 있다. 불구이건 아니건, 허약하건 튼튼하건, 자식은 모두가 그것을 준 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위탁물이며, 결혼은 배우자끼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도 맺은 계약이다.

그러나 자연이 과하지도 않은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는 자는 누구나, 그 의무를 다 할 방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병약한 제자를 맡은 자는 교사직을 간호원직으로 바꾼다. 생명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쓸 시간을 한 무익한 생명을 돌보는 데 허비하게 된다. 오랫동안



대신 지켜 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언젠가는 눈물 젖은 어머니의 나무람을 받는 꼴을 당하게 된다.

허약한 아이는 설사 여든 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나는 말지 않겠다. 제 몸 돌보는 데만 골몰해서 몸이 심혼의 교육을 해치는 아이,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늘 쓸모 없는 그런 아이는 나는 싫다. 그런 아이에게 공연히 정성을 쏟아 봤자, 사회의 손실을 갑절로 늘리고 한 사람 대신 둘을 앗아 가는 일 말고는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나 대신 남이 그런 병신을 맡겠거든 말이라. 나도 찬성이고 또 그의 적선을 시인도 한다. 그러나 내 재능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죽기를 면할 생각밖에는 없는 자에게 사는 법을 가르칠 줄은 모른다.

몸이 심혼에 복종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한다. 좋은 하인은 튼튼해야 한다. 무절제가 정념을 끄드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중에 가서는 몸도 망치고 만다. 고행이나 단식이 반대 원인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수도 있다. 몸은 약할수록 주문도 많다. 강할수록 더욱더 복종한다. 온갖 욕정은 나약한 몸에 깃들인다. 나약한 몸은 욕정을 덜 만족시키는 만큼 더욱 짜증이 많다.

허약한 몸은 혼도 약하게 만든다. 의학의 지배권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 그것이 고친다고 주장하는 온갖 병보다도 사람들에게는 더 해로운 기술이 말이다. 의사들이 우리의 어떤 병을 고쳐 주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불길한 병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알고 있다. 비겁·소심·경신(輕信)·죽음에 대한 공포 따위를 말이다. 그들이 몸을 고친다면, 용기는 죽인다. 그들이 송장을 건네 한들 무슨 소용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며, 사람이 그들 손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이 유행이다. 그럴 수밖에. 제 시간을 쓸 줄을 몰라 제 몸 돌보는 데만 보내는 일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니까. 그들이 만일 불행히도 죽지 않게 태어났더라면, 만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앓을까 봐 염려하는 일이 통 없는 생명이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위를 맞추려고 올려대어 주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쁨을 날마다 대어 주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기쁨을 말이다.

나는 여기서 의학의 헛됨에 관해 긴 말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내 목적은 의학을 정신면에서 고찰하는 일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학의 효용에 관해 진리의 탐구에 관해서와 같은 궤변을 쓰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언제나, 병자는 고치면 낫고, 진리는 찾으면 발견된다고 가정한다. 의사가 베푼 치유의 이득과 그가 죽인 백의 병자의 죽음을, 또 발견된 한 진리의 효용과 이에 따라 생긴 오류들이 낳은 손해를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가르쳐 주는 학문과 고쳐 주는 의학은 아주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속이는 학문과 죽이는 의학은 나쁘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진리를 모르고 지낼 줄만 안다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에 속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연을 여기면서 낫기를 바라지 않을 줄만 안다면, 의사 손에 죽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단념이 현명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분명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의학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따지지는 않겠으나 인류에게 해롭다는 점은 말해 둔다.

노상 그러듯이, 잘못된 의사지 의학 자체는 틀림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지. 좋다. 그럼 의사 없이 의학만 와 보라. 왜냐하면 둘이 같이 오는 한, 기술의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기술자의 실수를 백배는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까.

몸의 병보다는 정신의 병을 위해 있는 이 헛된 기술은 그 어느 쪽이나 더 이될 것도 없다. 병을 고쳐 주기보다는 병에 대한 공포를 더 품게 한다. 죽음을 물러가게 하기보다는 죽음을 지레 더 느끼게 한다. 생명을 늘리기는커녕 마멸시킨다. 생명을 늘려 준다면 인류에게는 더욱 손해다. 몸조심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를 사회에서 따돌리고, 공포를 줌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의무에서 따돌리게 되니까 말이다. 위험을 겁내게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다. 자신을 불사신으로 믿는 자는 아무 것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를 위험에 대해 너무 무장시킨 시인은, 용기의 가치를 그에게서 없애 버렸다. 누구건 같은 처지였다면 아킬레우스처럼 되었을 것이다.

진짜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보고 싶은가? 의사가 없는 곳에서, 병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죽음 생각을 통 않는 곳에서 찾으라. 사람이란 절로

꾸준히 참을 줄을 알며, 고이 죽어 가게 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켜 제대로 죽는 법을 잊어 먹게 하는 것은 바로, 처방을 내리는 의사, 교훈을 주는 철학자, 설교하는 신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통 필요 없는 제자를 내게 달라. 아니면 나는 거절이다. 남들이 내 일을 망쳐 놓는 것은 질색이다. 나는 혼자서 가르치고 싶고, 아니면 손도 대고 싶지가 않다. 생애의 일부분을 의학 연구에 보낸 현명한 로크는, 예방 때문이건 가벼운 병 때문이건 아이들에게 약을 함부로 먹이지 말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sup>18\*</sup> 나는 한술 더 뜨겠다. 즉 나를 위해 결코 의사를 부르는 일이 없는 나는, 에밀을 위해서도 결코 의사는 부르지 않겠다. 그의 생명이 분명 위독하지 않은 한은. 그때는 죽이는 이상으로 나쁜 짓은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다.

의사가 이러한 지체를 영락없이 이용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이가 죽으면 불러도 너무 늦다. 아이가 위기를 넘기면 아이를 구한 것은 의사가 될 것이다. 의사가 우쭐대려면 대라. 어쨌든 그는 막바지에밖에 불러 와서는 안 된다.

병을 고치는 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아이는 병을 당하는 법은 알아야 한다. 이 기술은 의술을 대신하며, 훨씬 더 성공하기가 일쑤다. 이는 자연의 기술이다. 동물이 앓을 때는 말없이 견디며 꼼짝 않고 있다. 그런데 인간보다 나약한 동물은 없다. 병이 봐주고 시간만이 고쳐 주었을 사람들을, 조바심이나 걱정·불안이, 특히 약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동물들은 자연에 더욱 맞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병에 덜 걸리게 되어 있다고 말하겠지. 그렇다! 이런 생활 방식이야말로 바로 내가 내 제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바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똑같은 이득을 얻어야 한다.

의학에서 단 하나 쓸모 있는 분야는 위생학이다. 그런데 위생학은 학문이라기보다는 미덕이다. 절제와 일은 인간의 진짜 두 의사다. 일은 식욕을 둔우고, 절제는 그것의 남용을 막는다.

어떤 섭생이 생명과 건강에 가장 유익한가를 알려면,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가장 오래 사는 겨레가 어떤 섭생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인 관

18\* 로크의 《아동교육론》 30장.

찰에 의해, 약의 사용이 사람들에게 더욱 튼튼한 건강과 더욱 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기술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과 사람들과 물건들을 허비하게 되는 만큼 해로운 것이다. 생명을 보전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은 생명을 누리는 시간의 허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빼어야 한다. 더구나 그 시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데 쓰인다면 없는 것보다도 나빠, 마이너스인 만큼, 제대로 셈하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서 그 만큼은 빼어야 한다. 의사 없이 10년을 산 사람은 의사의 피해자로서 30년을 산 사람보다도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더 많이 산 셈이 된다. 양쪽을 다 겪어 본 나는 이런 결론을 끌어낼 권리가 누구보다도 더 있다고 자부한다.

이상이 내가 튼튼하고 건강한 제자만을 바라는 이유이며, 그 제자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길러 나가기 위한 나의 원칙이다. 체질과 건강을 증강하기 위한 손노동과 신체 훈련의 효용을 자세히 증명하려고 지체할 생각은 없다. 아무도 딴 소리를 하지 않는 문제니까 말이다. 가장 장수한 예들은 거의 모두가, 가장 많이 단련하고 가장 많은 피로와 노동을 당해 낸 사람들 중에서 나오고 있다.<sup>19</sup>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내가 취할 배려에 관해서도 자세히 파고들지는 않겠다. 그것은 나의 실천에 필연적으로 끼어드는 것인 만큼, 그 정신만 파악하면 딴 설명은 없어도 된다.

생명과 함께 필요가 생겨난다. 갓난아기에게는 유모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기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면 좋다. 여러 가지 지시만 써 주면 된다. 왜냐하면 이 이득에는 핸디캡이 있어, 교사를 제자로부터 약간 따돌리게 되니까. 그러나 아이에 대한 관심과, 그렇듯 소중한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어머니로 하여금 선생의 의견에 주의하게 만들 것으로는 생각된다. 그래서 그녀가 하고 싶은

19 영국 신문에서 인용한 예를 하나 들겠는데, 내가 보고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내 테마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다.

“1647년에 난 패트릭 오닐이라는 사람은 1760년에 7번째로 재혼했다. 찰스 2세 치하 27년에 용기병대에 근무했고, 1740년까지 여러 부대에 있다가 제대했다. 윌리엄 왕과 말보로 공작의 모든 전투에 참가했다. 이 사람은 보통 맥주밖에는 마신 적이 없다. 늘 식물성만 먹어 고기라고는 자기 가족에게 특히 베푸는 식사 때밖에는 먹지 않았다. 근무에 지장만 없으면 언제나 해와 함께 일어나고 자는 습관이었다. 113살인 지금도 귀가 잘 들리고 건강해 지팡이 없이 걷는다. 고령인데도 잠시도 가만있지 않으며, 일요일마다 자식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데리고 성당에 다닌다.”

모두를 누구보다도 잘 해낼 것이 틀림없다. 만일 판 유모가 필요하다면 우선 잘 고르도록 하자.

부자들의 불행의 하나는 만사에 있어 속는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람들을 잘못 판단한다 해서 놀라야겠는가? 그들을 부패시키는 것은 재물이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자기가 아는 유일한 연장의 결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챈다. 그들 집에서는 그들이 손수 하는 일 말고는 모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집에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유모를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산부인과 의사더러 고르게 한다. 그 결과는 어떤가? 가장 나은 유모는 언제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장 많이 돈을 준 유모가 된다. 그래서 나는 에밀의 유모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의하러 가지는 않겠다. 꼭 나 자신이 고르도록 하겠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의사만큼 구변 좋게 따지지는 않겠으나, 보다 성실할 것은 틀림없으며, 나의 열성이 의사의 돈 욕심보다는 나를 덜 속일 것이다.

이 선택에는 대단한 비결이라곤 없다. 그 기준들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젖의 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도 좀 더 주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새 젖은 순 장액으로, 갓난아기의 창자 속에 굳어 붙은 ‘배내똥’ 찌끼를 씻어 내기 위한 하제(下劑)와도 같은 것일 것이다. 젖은 점점 진해져, 소화력이 강해진 아이에게 더욱 단단한 영양을 대어 준다. 자연이 모든 동물의 암컷 속에서 젖먹이의 나이에 따라 젖의 농도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분명 까닭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 갓난아기에게는 아기를 갓 낳은 유모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만만찮은 일이며, 나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자마자 모든 일은, 제대로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편리한 단 하나의 미봉책은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다. 이는 누구나가 택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몸만큼 마음도 건전한 유모가 필요할 것이다. 정념이 고르지 못한 것은 체액이 고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젖을 변질시킨다. 뿐더러 육체에만 고친다는 것은, 사물의 절반밖에는 보지 않는 것이 된다. 젖은 좋아도 유모는 나쁠 수 있다. 좋은 성격은 좋은 체질만큼이나 요긴하다. 못된 여자를 쓰면, 못된 점이 젖먹이에게 옳는 다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젖먹이가 그 때문에 욕을 보게 되리라고는 말해 둔다. 유

모는 젖도 젖이지만, 열성과 인내와 상냥함과 정결을 요구하는 뒷바라지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식충이고 절제 없는 여자라면 이내 젖도 나빠지고 말 것이다. 칠칠하지 못하거나 극성스러운 여자라면, 자신을 지킬 수도 호소할 수도 없는 가엾은 아기는 그 변덕 바람에 무엇이 되겠는가? 무슨 일에 있어서나 못된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다.

젖먹이가 스승 이외의 교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모 외에 딴 가정부가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유모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우리만큼 따지지는 않으나 우리보다 현명한 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유모들은 여자 아이들을 길러 낸 뒤에도 그 곁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 고대 연극에서 대부분의 통사정 상대가 유모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차례로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는 아이가 제대로 길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뀔 때마다 아이는 속으로 비교해 보게 되고, 그러한 비교는 자기를 지도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언제나 줄이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들의 자기에 대한 권위도 줄게 된다. 아이들보다 지각이 낫지도 못한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을 그가 한 번 하게 되면, 나이에서 오는 권위는 모조리 없어지고 교육은 실패다. 아이는 자기 부모 이외의, 부모가 없으면 유모와 교사 이외의, 딴 어른들을 알아서는 못쓴다. 둘 중의 하나도 이미 군더더기다. 그러나 둘로 나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두는, 아이를 지도하는 두 성이 아이에게는 둘이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협력하는 것뿐이다.

유모는 약간 더 편하게 살아야 하고, 약간 더 양분이 많은 음식을 취해야 하지만, 생활 방식을 전혀 바꾸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모조리 바꾸는 것은, 나쁜 것이 좋게 바뀌는 경우마저도, 건강에는 위험하게 마련이니까. 여태까지의 섭생이 그녀를 건강하게 두었거나 건강하게 만들어 튼튼한 체질을 이루게 한 만큼, 그것을 바꾸게 해서 무슨 소용이겠는가?

농사꾼 여자들은 도시 여자들보다 고기는 덜 먹고 채소는 더 먹는다. 이러한 채식은 그녀들과 그 아이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는 이로와 보인다. 부르주아 젖먹이를 맡게 되면, 고깃국이 보다 나은 유미(乳糜)를 만들어 젖을 많이 나게 한다는 생각

에서 포토프<sup>20\*</sup>가 주어진다. 이런 의견에는 나는 전혀 반대다. 그런 젖으로 자란 아이들이 판 아이들보다 배앓이나 충에 더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경험이 내게는 있다.

부패한 동물성 물질에는 벌레가 끓는 만큼 하나도 놀라운 일은 아니며, 식물성 물질에는 그런 일이 없다. 젖은 비록 동물의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식물성 물질이다.<sup>21</sup> 분해해 보면 증명이 된다. 젖은 쉽사리 산으로 바뀌며, 그래서 동물성 물질처럼 휘발성 알칼리의 흔적을 보여 주기는커녕 식물처럼 요긴한 중성 염(鹽)을 준다.

초식 동물의 젖은 육식 동물의 그것보다 달고 몸에 더 좋다. 저와 같은 질의 물질로 만들어진 젖은 제 본성을 더욱 잘 간직하며, 부패할 염려도 적어진다. 양으로 보더라도 녹말이 고기보다 많은 피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니 젖도 더 많이 만들 것은 뻔하다. 너무 일찍 젖을 떼지 않거나 채식만으로 젖을 떼지 않아, 그 유모도 채식만 하는 아이가 충에 걸리기 쉽다고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채식이 더 빨리 시어지는 젖을 줄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신 젖을 해로운 먹이로는 전혀 보지 않는다. 채식만 하는 민족은 모두가 아주 튼튼하며, 저 흡수제란 모두가 내게는 순 엉터리로 보인다. 젖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흡수제도 젖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판 체질은 흡수제 없이도 젖을 받아들인다. 망울지거나 엉기는 젖을 염려하기도 한다. 젖이 위 안에서는 언제나 엉긴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만큼,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아이나 짐승 새끼를 기르기에 충분하도록 먹이는 단단해지는 것이다. 통 엉기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갈 뿐, 자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sup>22</sup> 젖에 온갖 것을 타거나 온갖 흡수제를 써 보았자 헛

20\* pot-au-feu 고기와 채소로 된 수프의 한 가지.

21 부인들은 빵과 채소와 우유 제품들을 먹는다. 암거나 암고양이도 그런 젖을 먹는다. 암이리도 풀을 뜯는다. 모두가 젖이 되는 식물성 즙이다. 반드시 고기로밖에 영양을 취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2 우리에게 영양을 주는 즙들은 액체인 하지만, 단단한 먹이에서 짜내어지게 마련이다. 국물만으로 살며 일하는 사람은 금방 힘이 빠질 것이다. 우유는 엉기기 때문에, 몸이 훨씬 더 오래 지탱될 것이다.

일이며, 젓을 먹는 아이면 다 치즈도 삭인다. 여기엔 예외가 없다. 위는 젓이 엉기도록 하도 잘 되어 있어, 젓을 엉기게 하는 효소가 송아지 위로 만들어질 정도다. 그래서 나는, 유모의 여태까지의 음식을 바꾸지 말고, 같은 것을 더욱 잘 골라 더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름기 없는 음식이 변비를 일으키는 것은 그 음식의 성질 때문이 아니다. 그 음식을 해롭게 만드는 것은 양념뿐이다. 여러분의 조리법을 개선하라. 브라운 소스도 튀김 기름도 쓰지 말라. 버터도 소금도 우유 제품도 불에 익혀서는 안 된다. 삶은 채소는 더운 채 식탁에 오른 뒤에나 양념을 쳐야 한다. 기름기 없는 음식은 유모에게 변비를 일으키기는커녕, 푸짐하고도 가장 질 좋은 젓을 대어 줄 것이다.<sup>23</sup> 채식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식이 유모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가 있겠는가? 이에는 모순이 있다.

공기가 아이들의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생애의 초기에 있어서다. 공기는 모든 털구멍으로 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스며들어, 이 갓 태어난 몸에 크게 작용하며,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다. 따라서 나는 농사꾼 여자를 마을에서 끌어내어 도시의 방에 가두고 아이를 그 집에서 기르게 하는 데는 반대다. 유모가 도시의 나쁜 공기를 마시기보다는 아이가 시골의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는 편이 낫다. 아이는 새로운 어머니의 생활 상태를 받아들여 시골집에 살게 되며, 교사도 따라갈 것이다. 이 교사가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독자도 생각날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없을 때는, 시골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을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실현성이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내게 말하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을 나는 이미 했다. 여기에는 충고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포개어져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작해야 할 땅 위에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다. 몰려 지낼수록 더 타락한다. 약한 몸도 약한 마음도, 이

23 피타고라스식 식이요법의 장점과 단점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코키 박사와 그 반대자인 비안키 박사<sup>24\*</sup>가 쓴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탈리아의 의사 Giovanni Bianchi(1693~1775)는 Antonio Celestino Cocchi(1695~1758)의 논문을 비판하는 글을 1752년에 발표했다.



렇게 너무 많이 몰려 사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인간은 온갖 동물 중에서 가장 떼지어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양 떼처럼 뿔뿔 대는 인간들은 모두 당장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인간이 내쉬는 숨은 동류에게 치명적이다. 이는 비유적인 뜻 못지 않게 본뜻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도시는 인류의 구렁텅이다. 몇 세대 못 가서 종족은 망하거나 변질된다. 이를 되살려야 하며, 되살려 주는 것은 언제나 시골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어, 말하자면 되살아나게 해 주라. 그래서 너무 몰려 사는 곳의 해로운 공기 속에서 잃는 생기를 들 한복판에서 되찾게 하라. 시골에 가 있는 임부들이 해산하러 서둘러 도시로 돌아온다. 전혀 그 반대로 해야 한다. 아이들을 손수 기르고 싶은 임부들은 더구나 그렇다. 생각보다는 덜 뉘우치게 될 것이고, 인류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곳에서 자연의 의무와 맺어진 기쁨들이, 이와 관계 없는 기쁨들에 대한 취미를 이내 그녀들에게서 앗아 가고 말 것이다.

해산을 하면 먼저 아이를 대개는 포도주를 탄 더운 물로 씻어 준다. 이 포도주를 가하는 일이 내게는 필요 없어 보인다. 자연은 썩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는 않는 만큼, 인공 액체의 사용이 그 피조물들의 생명에 긴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물을 데우는 조심성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실 많은 민족들은 갓난애들을 그냥 내내 바다에서 씻어 준다. 그런데 나약한 부모 때문에 나기도 전에 나약해진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에 오면서 이미 망가진 체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줄 온갖 시련에 처음에는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본래의 기운을 돌이켜 줄 수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처음에는 습관에 따르게만 하고, 조금씩만 거기서 벗어나게 하라. 아이들을 자주 씻겨 주라. 아이들의 불결이 그럴 필요를 보여 주고 있고, 닦아만 주면 피부가 망가진다. 그러니 아이들이 튼튼해짐에 따라 차츰 물의 온도를 내려, 마침내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찬물로, 언물로도 씻기도록 하라. 위험이 없게 하려면 온도를 서서히 차례로 표나지 않게 줄이는 일이 긴요한 만큼, 정확히 재기 위해 온도계를 써도 좋다.

이러한 목욕의 습관은 일단 들고 나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평생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정결이나 현재의 건강 면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근

육 조직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 온갖 온도의 더위와 추위에 아무런 노력이나 위험 없이 적응하기 위한 유효한 조심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면서 가끔은 견딜 수 있는 온갖 온도의 더운 물에, 때로는 가능한 온갖 온도의 찬물에 목욕하게 버릇했으면 한다. 그래서 보다 밀도가 높아 더 많은 점으로 해서 우리 몸에 닿고, 미치는 영향도 더한 유체인 물의 온갖 온도에 익숙해지고 나면 공기의 온도에는 거의 예사가 될 것이다.

아이가 태를 나와 숨쉬는 순간, 몸을 더욱 쪼들 만 것들로 싸게 두지 말라. 모자도 띠도 배내옷도 안 된다. 손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어, 동작을 막을 만큼 둔하지도 않고, 공기의 영향을 느끼는 것을 막을 만큼 덥지도 않은 풍성한 옷이어야 한다.<sup>25</sup> 위험 없이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신한 큰 채롱<sup>26</sup>에 넣으라. 힘이 불기 시작하거든 방을 기어다니게 두라. 작은 팔다리를 펴고 뻗게 두라. 팔다리가 날로 튼튼해 가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배내옷에 싸인 같은 나이의 아이와 비교해 보라. 그 성장의 차이에 놀라게 될 것이다.<sup>27</sup>

25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가두고 입히고 해서 질식사킨다. 보살피는 사람들은 또한, 찬 공기가 아이들을 해치기는커녕 강하게 하며, 더운 공기는 약하게 하고, 열을 주어 아이들을 죽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26 다른 말이 없어 보통 쓰이는 말을 써서 채롱(un berceau)이라고 해 둔다. 왜냐하면 나는 한편, 아이들은 흔들여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런 습관은 해롭기가 일쑤라고 믿고 있으니까.

27 “고대 페루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풍성한 배내옷을 입혀 팔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 벗길 때는 땅에 파서 형질을 친 구멍에 몸을 절반이나 넣어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팔이 자유로웠고, 떨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이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고 몸을 구부릴 수 있었다. 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억지로 걸리기 위한 미끼처럼 젓통을 좀 떨어진 데서 내어 보이곤 했다. 검둥이 아이들은 젓을 빨기 위해 훨씬 더 고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무릎과 발로 어머니의 한쪽 허리를 안고 어머니의 팔의 도움 없이도 몸을 지탱할 만큼 짙다. 두 손으로 젓통에 매달려, 줄곧 어느 때처럼 일하는 어머니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도 끄떡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 빨아 댄다. 이런 아이들은 둘째 달부터 걷기 시작한다. 아니 무릎과 손으로 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연습은 그 자세로 거의 발로 달리는 것 못지않게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 준다.” (《박물지》 4권, p. 192).

뽀빠 씨의 이러한 실례들에, 배내옷 입히는 엉뚱하고 잔인한 버릇이 날로 없어져 가는 영국의 예를 곁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라 루베르의 삼 기행, 르 보씨의 캐나다 기행 등도 참조하라.<sup>28\*</sup> 사실들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인용으로 스무 페이지라도 메울 것이다.

28\* La Loubère: 《Du royaume de Siam》(1691), Le Beau: 《Voyage curieux et nouveau, parmi les sauvages de l'Amérique septentrionale》(1738).

잔뜩 졸라맨 아이가 노상 지켜봐야 하는 아이보다는 유모에게 고생을 덜 시키는 만큼, 유모들의 강한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헤벌어진 옷을 입히면 때가 더욱 눈에 띈다. 더욱 자주 씻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습관이란 어떤 나라들에서는, 모든 계급의 국민의 뜻에 따라, 반박당하는 일이 결코 없는 하나의 논거다.

유모들과는 따지지 말라. 명령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시킨 뒷바라지가 행해지기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라. 여러분이 그 뒷바라지를 같이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몸만 생각하는 보통 양육에서는, 아이가 살아 있고 쇠약해지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통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이 생명과 더불어 시작되는 여기서는, 아이는 나면서부터 이미 교사의 제자가 아니고 자연의 제자다. 교사가 하는 일은, 이 첫 스승 아래서 연구하고 이 스승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다. 그는 젖먹이를 지키고, 관찰하고, 따라가며, 아이의 희미한 이해력의 첫 미광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다. 회교도들이 초승달이 가까워지면 달이 뜨는 순간을 지켜보듯이.

우리는 배울 능력은 가졌으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 태어난다. 반면 이루어져 불완전한 기관들 속에 갇힌 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마저도 없다. 갓난아이의 몸짓과 울음소리는, 인식도 의지도 없는 순전히 기계적인 작용이다.

아이가 나면서부터 어른의 키와 힘을 가졌다고, 말하자면 팔라스가 주피터의 골에서 나왔듯이, 완전무장하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기 어른은 완전한 바보, 자동 인형, 꿈쩍 않는 거의 감각도 없는 조상(象)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봐야 될 것 쪽으로 눈을 돌릴 줄도 모를 것이다. 자기 밖의 어떤 대상을 알아채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알아채게 해 줄 감각 기관에 대상 하나를 전해 주지도 못할 것이다. 색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만지는 물체들이 몸에 느껴지지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육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손의 촉감이 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감각이 단 한 점에 모여 들 것이다. 그는 '감각 중추(sensorium)'에밖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의 관념, 즉 '자아

(moi)'라는 관념밖에는 갖지 않게 되어, 모든 감각을 그것에 결부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관념, 아니 이 감정이, 그가 여느 아이보다 더 가진 유일한 것이 될 것이다.

갑자기 이루어진 이 인간은 발로 설 줄도 모를 것이다. 몸을 가누고 서 있는 것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일어서 볼 생각조차 없을지 몰라, 그 강하고 튼튼한 커다란 몸이 돌처럼 제자리에 가만있거나 강아지처럼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욕구를 알지도, 그것을 채울 아무런 수단도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욕구 불만을 느낄 것이다. 위의 근육과 팔다리의 근육 사이에는 직접적인 아무런 교류도 없어, 음식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집으러 가까이 가거나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미 몸이 자랐고 사지도 온통 발달되어 있어 아이의 불안도 노상 하는 동작도 없는 만큼,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기도 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의 순서와 발전에 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면 이것이 대체로 경험에서나 남에게서 아무것도 배우기 전의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타고난 원시 상태였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저마다가 이해력의 보통 단계에 이르기 위해 출발하는 시발점은 이해 되거나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극은 누가 아는가? 저마다 제 천분 · 취미 · 요구 · 재능 · 열의에 따라, 또 그것들을 발휘할 기회에 따라, 많건 적건 진보한다. 이것이 인간이 이를 수 있는, 그러나 넘어설 수는 없는 한계라고 말할 만큼 대답했던 어떤 철학자도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중의 아무도 한 인간과 딴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리를 재어 본 일은 없다. 이런 생각에 흥분한 적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 있겠는가. 또 때로는 우쭐해져서, 나는 이미 얼마나 넘어섰는가! 나는 아직도 얼마나 따라붙일 수 있는가! 내 짝이 어째서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겠는가? 하고 혼잣말하지 않는 비열한 사람이 있겠는가.

거듭 말하겠다. 인간의 교육은 나면서 시작된다고, 지껄이기 전에, 알아듣기 전에 이미 인간은 배운다. 경험이 공부에 앞선다. 제 유모를 알아보는 순간은 이미 많은

것을 얻은 뒤다. 가장 변변찮은 인간의 지식에도,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가 다다른 순간까지의 진보를 더듬어 본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만일 인간의 학문을 두 부분으로, 즉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분과 학자들에게 특유한 부분으로 나눈다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아주 작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은 모르는 사이에 철들 나이 이전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단케 여기지 않는다. 마치 대수 방정식에서 공통된 양이 셈에 들지 않듯이, 학식도 차이에 의해서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들조차 많은 것을 얻는다. 감각들을 가졌으니 그것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구를 가졌으니 그것을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먹고 걷고 날고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발로 서는 네발짐승이라 해서 걸을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첫 걸음걸이로 보아 그제 자신 없는 연습임을 알 수 있다. 새 장을 빠져 나온 카나리아는, 날아 본 적이 없기에 날 줄을 모른다. 살아서 느끼는 것들에게는 모두가 다 교육이다. 식물들에 점진 운동이 있다면, 감각도 가져야 하고 인식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내 씨가 마르고 말 것이다.

아이들의 첫 감각들은 순전히 감정적이어서 왜 · 불쾌밖에는 깨닫지 못한다. 걸을 수도 잡을 수도 없어, 자신 밖의 물체들을 보여 주는 표상(表象) 감각이 차츰 형성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 물체들이 펼쳐져, 말하자면 아이들 눈에서 멀어져, 크기나 모양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감정적 감각의 반복이 아이들을 습관의 힘에 복종시키기 시작한다. 보면 아이들 눈은 노상 빛 쪽으로 돌려지고, 빛이 옆에서 오면 어느새 그쪽으로 향한다. 따라서 사팔뜨기가 되거나 비투로 보는 버릇이 들 염려가 있으니, 얼굴을 햇빛 쪽으로 돌려주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찌감치 어둠에도 익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두운 데다 두자마자 울고 소리 지르게 된다. 너무 정확하게 안배된 식사나 잠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찾는 버릇을 만든다. 이내 욕구가 필요에서가 아니라 습관에서 생겨나게 되며, 그보다도 습관이 자연의 욕구에 새로운 욕구를 덧붙이게 된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미리 막아야 할 일이 바로 이 점이다.

아이들더러 갖게 두어야 할 유일한 습관은 어떤 습관도 들지 않는 일이다. 한쪽 팔

로만 안아 주지 말아야 한다. 한쪽 손만 내밀거나 한쪽 손을 더 자주 쓰는 버릇, 일정한 시간에 먹거나 자거나 행동하고 싶어지는 버릇, 밤에도 낮에도 혼자서는 못 있는 버릇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습성을 아이 몸에 남겨 둬으로써, 언제나 자신을 지배하고 의지만 갖게 되면 만사에 제 의지대로 하는 상태에 아이를 둬으로써, 일찍부터 자기 자유의 통치와 자기 힘의 사용을 준비하도록 하라.

아이가 물건들을 가려보게 되자, 아이에게 보여 주는 것들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말할 나위도 없이 새로운 것은 다 인간의 흥미를 끈다. 자신을 하도 약하게 느끼기에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두려워한다. 새로운 것들을 예사로 보는 습관은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 준다. 거미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미를 무서워하며, 이 무서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시지 않는 수가 흔히 있다. 농민은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을 나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

무엇을 골라서 보여 주느냐만으로도 아이를 겁쟁이 아니면 용감하게 만들기에 충분한데, 도대체 아이의 교육은 왜 지껄이고 알아듣기 전에 시작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 흥하고 징그럽고 괴상한 동물들을 보는 데 익게 하고 싶으나,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예사로 알게 되는 데까지, 남들이 만지는 것을 노상 본 끝에 자기도 만져 보게 되는 데까지 차츰차츰 익혀 나갔으면 한다. 어려서 겁 없이 두꺼비나 뱀, 가재를 본 아이라면, 커서도 어떤 동물이건 예사로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것도 그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무섭지가 않다.

아이들은 다 탈을 무서워한다. 나는 우선 에밀에게 기분 좋은 얼굴의 탈부터 보여 준다. 그리고 나서 누가 에밀 앞에서 그 탈을 쓴다. 나는 웃기 시작하고, 모두가 웃고, 아이도 같이 웃는다. 차츰차츰 덜 기분 좋은 탈들에도, 마침내는 보기 흉한 탈에도 익게 해 나간다. 내가 차례만 잘 안배했다면, 아이는 마지막 것에 겁을 먹기는커녕 첫째 것과 마찬가지로 웃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탈로 겁먹을 염려는 이미 없어진다.

안드로마크와 헥토르의 작별 장면에서,<sup>29\*</sup> 아버지의 투구에 나부끼는 깃털 장식에

29\*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6권.

겹먹은 꼬마 아스튜아낙스가 아버지를 몰라보고 울며 유모 품에 달려들어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짜낼 때, 이런 겹을 가라앉히려던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헥토르가 하는 그대로다. 즉 투구를 벗어던지고 아이를 쓰다듬어 줄 일이다. 더욱 조용한 때라면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투구에 손을 올려 깃털을 만지작거리고 아이더러도 만지게 할 것이다. 필경은 유모가 투구를 집어 웃으며 제 머리에 써 볼 것이다. 하긴 여자 손이 헥토르의 병기를 감히 만질 수 있다면 말이다.

에밀을 총소리에 익게 하는 것이 문제인가? 나는 우선 피스톨의 점화약을 태운다. 그 급작스레 잠시 타오르는 불꽃이, 그 번갯불과도 같은 것이 아이를 기쁘게 해 준다. 더 많은 화약으로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피스톨에 탄약을 장전은 않고 조금씩 가해 나가 차츰 양을 늘린다. 마침내는 총소리 · 산탄통 소리 · 대포 소리 · 가장 무서운 폭발 소리에도 익게 만든다.

폭음이 엄청나지 않아 실지로 청각 기관을 다치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이 천둥을 무서워하는 일은 드물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챘다. 이런 무서움은 천둥이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들어서 알았을 때에만 느끼는 것이다. 이성이 아이들에게 겹을 주기 시작하거든 습관이 안심시키도록 해 주라. 서서히 차례만 밝아 나간다면 어른이건 아이건 모든 것에 대답해지게 만들 수 있다.

기억력과 상상력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생애의 초기에서 아이는 실제로 감각을 자극하는 것밖에 주의를 쏟지 않는다. 아이의 감각은 아이의 지식의 첫 밑천인 만큼, 감각들을 적당한 순서로 아이에게 대어 주는 것은, 장차 같은 순서로 아이의 이해력에도 그것들을 제공하도록 아이의 기억력을 준비시키는 일이 된다. 그런데 아이는 제 감각에만 주의를 쏟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그 감각들과 그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이는 모든 것에 손대어 만지작거리려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조바심에 반대하지 말라. 그것이 매우 필요한 공부를 아이에게 암시해 준다. 아이가 바라보고 만져 보고<sup>30</sup> 듣

30 후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아이들에게는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이다. 두세 살까지는 아이들은 좋은 냄새도 나쁜 냄새도 느끼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은, 몇몇 동물에서 보이는 무관심을, 아니 오히려 무감각을 보이고 있다.

고 함으로써, 특히 시각을 촉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손가락으로 느끼는 감각을 눈으로 재어 봄으로써, 물체의 뜨거움·차가움·무름·무게·가벼움을 깨닫고, 그 크기와 모양과 감각적인 모든 성질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다.

우리가 우리 아닌 것들이 있음을 배우는 것은 운동에 의해서뿐이고, 우리가 공간관념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운동에 의해서뿐이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나 백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나 똑같이 손을 내밀어 잡으려 드는 것은, 이 공간관념이 통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하는 이러한 노력은, 지배의 표시처럼, 물건더러다가오도록 이르고, 사람더러 그것을 가져오도록 이르는 명령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고, 다만 아이가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이어 눈으로 보던 같은 물건들을 이제는 손끝에 보기 때문이며, 제 손이 닿는 공간밖에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리를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아이를 자주 움직여 한 곳에서 딴 곳으로 옮겨 주도록, 장소의 바뀔을 느끼게 해 주도록 하라. 거리를 알아채기 시작하면 방법을 바꾸어, 아이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뜻대로만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가 감각에 속지 않게 되자 아이의 노력의 원인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바뀔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욕구 불만은 여러 가지 표적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의 울음이 여기서 온다. 아이들은 많이 운다. 당연한 일이다. 아이들의 모든 감각은 감정적인 것이므로, 그것들이 기분 좋은 것일 때는 잠자코 즐긴다. 괴로운 것일 때는 제 나름의 말로 그것을 알려 위안을 청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깨어 있는 동안은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거의 없다. 아이들은 자거나 자극을 받거나 둘 중의 하나다.

우리의 말 모두는 인공의 산물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타고난 말이 있었느냐에 대해 오랫동안 추궁되어 왔다. 분명 하나가 있다. 아이들이 말할 줄 알기 전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은 음절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나 억양과 음색이 있어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의 말의 사용이 그것을 버려 완전히 잊게까지 만들었다. 아이들을 연구하자. 그러면 곧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말에서는 유모가 우리 선생이다. 유모는 젖먹이가 하는 말 모두를 알아 듣는다. 젖먹이에게 대답도 하고 아주 잘 연속된 대화도 주고받는다. 그리고 유모는 단어들도 발음하지만, 그 단어들은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다. 젖먹이가 알아듣는 것은 단어의 뜻이 아니고, 그것에 따르는 억양이다.

목소리의 언어에 그것 못지않게 힘찬 몸짓의 언어가 합쳐진다. 이 몸짓은 아이들의 약한 손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난다. 제대로 틀어 잡히지도 않은 얼굴이 벌써 얼마나 많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아이들의 얼굴 모습은 생각도 못하게 빨리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미소·욕망·겁이 번개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그럴 때마다 탄 얼굴을 보는 기분이다. 아이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잘 움직이는 안면 근육을 갖고 있다. 그 대신 아이들의 흐릿한 눈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요구밖에는 없는 나이에 그 표현 방법은 이래서 마땅하다. 감각 표현은 얼굴에, 감정 표현은 눈길에 나타난다.

인간의 첫 상태는 궁핍과 약함인 만큼, 그 첫 소리는 하소연과 울음이다. 아이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 울어서 남의 도움을 애원한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운다. 너무 춥거나 더워도 운다. 움직이고 싶는데 가만두면 운다. 자고 싶는데 흔들어도 운다. 있는 상태가 마음에 덜 들수록 그것을 바꾸어 주도록 더욱 자주 보낸다. 아이는 말하자면 한 가지의 불쾌밖에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밖에는 안 가졌다. 기관들이 미완성 상태인 아이는 그 갖가지 인상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나쁜 것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고통의 감각밖에는 주지 않는다.

거의 주의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들 생각하는 이 울음으로부터, 인간 주위의 모든 것과의 첫 관계가 생겨난다. 사회 질서를 이루는 그 긴 사슬의 첫 고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가 울 때는 불편한 데가 있는 것이며, 스스로 채울 줄 모르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 욕구를 살피고 찾으며, 찾아 내면 채워 준다. 찾아 내지 못하거나 채울 수가 없으면 울음은 계속되고 사람은 시달린다. 그치게 하려고 아이를 달래고, 재우려고 어르고 노래해 준다. 고집을 부려대면 지겨워져 으르댄다. 팔팔한 유모

들은 가끔 아이를 때린다. 이견 일생의 초입치고는 별난 훈계다.

이런 식으로 유모에게 얻어맞는 성가신 울보들을 본 것을 나는 영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이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겁에 질린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엄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말을 듣지 않는 비굴한 인간이 되겠지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틀렸었다. 가엾은 아이는 화가 나 숨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얼굴이 퍼레지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에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 나이의 원한과 노여움과 절망의 모든 표시가 그 음조에 들어 있었다. 그 흥분으로 죽지 않나 싶어 염려스러웠다. 정의와 부정에 대한 감정이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것임을 설사 내가 의심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이의 예 하나가 그런 의심을 풀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손에 우연히 떨어진 타고르는 숯덩이도, 가볍기는 하나 분명 해치려는 생각에서 가해진 그 손찌검보다는 덜 따끔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아이들의 흥분, 분통, 노여움으로 내닫기 쉬운 이러한 성질은 극도로 조심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머리가 비례적으로 크고 신경 계통이 더 펼쳐져 있어 신경이 더욱 자극받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병은 대부분이 경련성의 것이라고 보르하베<sup>31\*</sup>는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을 성가시게 굴고 약올리고 안달하게 하는 하인들은 한껏 주의해서 아이들에게서 멀리 떼어 놓으라. 그들이 아이들에게는 공기나 계절이 주는 해보다도 백 배나 더 위험하고 불길하다. 아이들이 사물들에서만 저항을 느끼고 사람들의 의지에는 결코 저항을 느끼게 되지 않는 한, 잘 대들거나 성을 잘 내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더욱 건강을 유지하도록 될 것이다. 더욱 자유로워 될 매인 민중의 아이들이 왜 더욱 잘 기르겠다면서 노상 얹매기만 하는 아이들보다 대체로 덜 허약한가의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말대로 해 주는 것과 아이들을 얹매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의 첫 울음은 간청이다. 이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울음은 이내 명령으로 바뀐다. 자기를 돕게 하는 데서 시작하여 자기를 섬기게 하는 데서 끝난다. 그래서 애초에는 의존감이 말미암던 아이들 자신의 약함으로부터, 나중에는 권력과 지배

31\* Boerhaave(1668~1738)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학 교수.

의 관념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 관념은 아이들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시중에 의해 부추겨지는 것인 만큼, 자연 속에 그 직접 원인이 없는 도덕적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몸짓이나 울음을 강요하는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일이 이 초기서부터 왜 중요한가를 이미 알 수 있다.

아이가 말없이 손을 힘껏 내밀 때는, 거리를 짐작하지 못하는 만큼 그 물건에 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릇된 생각이다. 그러나 손을 내밀면서 울부짖을 때는 이미 거리를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더러 다가오라고, 아니면 여러분더러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첫 경우에는 아이를 천천히 한 걸음씩 그 물건 쪽으로 데려가라. 둘째 경우에는 알아들은 체도 하지 말라. 소리지를수록 더 듣지 말아야 한다. 아이는 사람들의 주인이 아닌 만큼 사람들에게도, 물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만큼 물건들에게도, 명령하지 않는 버릇을 일찌감치 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남도 주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을 아이가 바랄 때는, 그것을 아이에게 갖다 주기보다는 아이를 그것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경험에서 아이는 제 나이 나름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며, 이 결론을 암시해 줄 다른 방도라곤 없는 것이다.

생 피에르 신부<sup>32\*</sup>는 어른들을 큰 아이들이라 불렀었다. 거꾸로 아이들을 작은 어른들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격언으로서의 진리를 지니고 있다. 원리로서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흄스<sup>33\*</sup>가 악인을 튼튼한 아이라고 불렀을 때는 전혀 모순된 말을 했던 것이다. 악은 모두 약함에서 온다.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만 악한 것이다. 강하게 해 주면 착해질 것이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자는 결코 악한 짓을 하지는 않는다. 전능의 신의 온갖 속성 중에서도 선은, 그것 없이는 신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속성이다. 두 가지 근본을 인식한 모든 민족은 언제나 악을 선보다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은 터무니없는 가

32\* L'abbé de Saint-Pierre(1658~1743)는 《영구평화안(Projet de paix perpétuelle)》과 《복의회론(複會議論, Discours sur la polysynodie)》(1717)의 저자이다. 1695년에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으나, 나중에 저술에서 루이 14세 정부를 비난하다가 제명되었다.

33\* 흄스(1588~1679)는 영국의 유물론 철학자.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의 지지자.

정을 한 것이 된다. 나중에 <사보아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sup>34\*</sup>을 보도록 하라.

이성만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더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는 양심은, 비록 이성과는 따로 된 것이긴 하지만, 이성 없이는 발달될 수가 없다. 철들(이성의) 나이 이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선과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는 도덕성이라곤 없다. 우리와 관계있는 남의 행동에 대한 느낌 속에 때로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는 보이는 모든 것을 뒤틀어 놓으려 든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깨고 부서뜨린다. 돌을 움켜쥐듯이 새를 움켜잡아, 무슨 짓인지 알지도 못한 채 목 졸라 죽인다.

왜 그럴까? 먼저 철학은 타고난 악덕을 가지고 설명하려 든다. 인간의 오만·지배욕·자존심·악의를 가지고 말이다. 무력감(無力感)이 아이로 하여금 폭력 행위를 하여 자신의 힘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철학은 덧붙여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원을 돌아 어릴 때의 무력으로 되돌아간 허약하고 노쇠한 노인을 보라. 꼼짝 않고 조용히 하고 있을뿐더러 주위의 모든 것이 조용히 하고 있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하찮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불안해져, 전체적인 고요가 지배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본래의 원인이 바뀌지 않고서야, 같은 정념들과 맺어진 같은 무력 상태가 어떻게 두 시기에서 그렇듯 다른 결과를 낳겠는가? 또 그 원인의 다름은, 양자의 육체적 상태에서 말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양자에 공통된 활력원(活力源)이 한쪽에서는 발전하고 다른 쪽에서는 꺼져 가는 것이다. 하나는 형성되고 하나는 파괴되는 것이다. 하나는 삶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져 가는 활동력이 노인의 마음속에 엉겨든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넘쳐 밖으로 퍼진다. 말하자면 둘러싼 모든 것에 생기를 주고도 남을 생명력을 자신 속에 느끼는 것이다. 무엇을 만들건 부수건 상관없다. 사물의 상태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변화는 모두가 행동이다. 부수는 쪽에 더 쏠리는 것같이 보인다 해도, 악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드는 행동은 언제나 느리나 부수는 행동은 재빨라 아이의 활기에 더욱 알맞기 때문이다.

자연의 창조자는 아이들에게 이 활력원을 줌과 동시에, 그것이 그다지 해로운 것

34\* 본서 4부 참조.

이 되지 않도록 적은 힘만을 쓰게 하려는 주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보게만 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기 위해, 또 자신의 약함을 보충하기 위해 그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까다롭고 폭군적이고 건방지고 심술궂고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타고난 지배욕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지배욕을 아이들에게 주는 진보. 왜냐하면 남의 손을 빌어 행동하는 것이, 또 혀만 놀리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를 깨닫는 데는 그다지 오랜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자라나면서 사람은 힘을 얻어 덜 불안해지고 덜 들뜨게 되며, 생각이 더욱 자신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정신과 육체가 말하자면 균형이 잡히고, 자연도 우리의 보존에 필요한 운동밖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명령욕은 그것을 낳게 한 필요와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배가 자존심을 일깨워 비위에 맞춰 주고, 습관이 그 자존심을 복돋운다. 이리하여 변덕이 필요의 뒤를 잇고, 편견이 첫 뿌리를 박는다.

원칙이 일단 알려지고 나면 우리는, 자연의 길에서 벗어난 지점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자연의 길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기로 하자.

아이들은 남아도는 힘이 있기는커녕, 자연이 요구하는 모두를 채우기에 족한 힘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자연이 준 힘, 아이들이 남용할 줄 모르는 힘 모두를 쓰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첫째 격률(格率).

육체적 필요에 딸린 모든 일에 있어, 아이들을 도와, 머리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아이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둘째 격률.

아이들을 도와 주는 데 있어서는, 변덕이나 이유 없는 욕망에는 아무것도 응해 주지 말고, 실지로 필요한 것에만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변덕은 자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남이 생기게 해 주지 않는 한 그것에 아이들이 시달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셋째 격률.

속일 줄을 모르는 나이의 아이들의 욕망 중에서 직접 자연에서 생기는 것과 편견에서 생기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아이들의 말과 몸짓을 공들여 연구해야 한다. 넷째 격률.

이 규칙들의 정신은,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참 자유와 보다 적은 지배력을 주는 데 있으며, 제 힘으로 보다 많이 하고 남에게 덜 요구하도록 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일찍부터 자기 욕망을 자기 능력 안에 국한시키는 버릇이 든 아이들은, 제 힘으로 얻지 못할 것의 결핍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아이들의 몸과 손발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는 데 대한 새롭고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떨어질 위험에서 멀리해 주거나, 상처를 줄지도 모를 모든 것을 손에서 떼어 놓는 조심만은 별 문제지만.

몸과 팔이 자유로운 아이는 배내옷에 싸인 아이보다는 반드시 덜 울 것이다. 육체적인 필요밖에 모르는 아이는 괴로울 때밖에는 울지 않으며, 이는 아주 큰 이득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장에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이며, 가능하다면 도와 주는 데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도와 줄 수가 없거든, 달래려고 비위를 맞추지 말고 가만있으라. 달래어서 아이의 복통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이는 응석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뜻대로 남을 부릴 줄을 일단 알게 되면 아이는 주인이 된다. 볼 장 다 본 셈이다.

동작에 방해를 덜 받을수록 아이는 덜 울 것이다. 아이들 울음에 덜 시달릴수록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애도 덜 태울 것이다. 협박이나 아침을 덜 자주 받을수록 아이들은 겁이나 고집이 덜해져, 자연의 상태에 더욱 잘 머무르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탈장이 되는 것은, 울게 내버려 두어서라기보다는 달래느라 법석을 부리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는 제일 돌보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탈장에 덜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앞지르는 것이 중요하며, 울음소리로 아이들의 요구를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드는 시중이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도 좋게 보진 않는다. 울면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울지 않고 배기겠는가? 자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데 치르는 대가를 알고 나면, 여간해선 조용히 굴지 않게 된다. 나중에는 하도 비싼 값을 매겨 치를 수도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효과가 없어지자, 아이들은 애만 쓰고 힘이 빠져 울음을 그치게 된다.

매여 있지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불편도 없는 아이의 긴 울음은, 습관과 고집에서 오는 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울음은 자연의 소행이 아니고, 아이를 오늘 입 다물게 하면 내일은 더 울리게 된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성가신 것을 참을 줄을 몰라 성가신 것을 늘리기만 하는 유모 탓이다.

이런 버릇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다. 아무도 소용없는 고생은 좋아하지 않으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끈질기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이들보다 더 끈기가 있으면, 아이들은 지겨워져 다시는 그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울리지 않게 되며, 고통으로 마지못할 경우 말고는 눈물을 쏟지 않는 버릇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번덕이나 고집 때문에 울 때 그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우는 것도 잊게 할 만큼 눈을 끄는 재미있는 어떤 물건으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일이다. 대부분의 유모들은 이런 재주에 뛰어나 있으며, 잘만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기분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아이가 알아채지 못해, 남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즐기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모든 유모가 서투른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이들은 모두 너무 일찍 젖을 떼다. 젖 떼 시기는 이들이 돌아나는 것으로 알려지며, 돌아날 때는 대체로 아프고 괴롭다. 아이는 이때 기계적인 본능으로 손에 잡은 것은 죄다 자꾸만 입으로 가져가 씹는다. 상아나 이리 이빨 같은 단단한 것을 장난감 젖꼭지 삼아 주면 그 작용이 수월해진다고들 생각한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단한 것을 잇몸에 대면 잇몸이 물러지기는커녕 굳어져, 이가 날 때 더 아프고 괴로워진다. 언제나 본능을 본보기로 삼자. 강아지는 돌아나는 이빨을 나무나 가죽 누더기 같은 물려서 깨물리고 이빨 자국이 나는 것들에다 버르지, 돌맹이나 쇠붙이나 뼈에 갇다 대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젠 사람들이 무슨 일에 있어서나 간소해질 줄을 모르며, 아이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은방울 · 금방울 · 산호 · 다면 조각의 수정들 · 온갖 종류의 값진 젖꼭지. 얼마나 많은 유해무익한 허식들인가! 이런 것은 다 소용없다. 방울도 젖꼭지도 필요 없다. 열매와 잎사귀 달린 나무 잔가지들, 안에 든 씨가 찢랑거리는 양귀비

꼭지, 아이가 빨거나 깨물 수 있는 감초 줄기가 저 으리으리한 싸구려 장신구들 못지않게 아이를 기쁘게 해 줄 것이며, 나면서부터 사치에 물드는 폐단도 없애 줄 것이다.

밀가루 우유죽이 건강에 그다지 좋은 음식이 아님은 알려진 사실이다. 끓인 우유와 날 밀가루는 뱃속에 많은 앙금이 끼게 하여, 우리 위장에는 맞지가 않다. 밀가루 우유죽의 밀가루는 빵 밀가루만큼 익지 않을뿐더러 발효도 되지 않았다. 빵 수프나 쌀미음이 나아 보인다. 꼭 밀가루 우유죽을 쑤겠다면, 미리 밀가루를 약간 볶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볶는 밀가루도 아주 맛있고 몸에 좋은 수프를 쑤다. 고기 수프나 포타주(potage)도 되도록 적게 먹여야 할 변변찮은 음식이다. 아이들을 우선 씹는 데 익숙해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를 쉽게 하게 하는 진짜 방법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삼키기 시작하면, 음식에 섞인 침이 소화를 돕는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말린 과일이나 딱딱한 빵 껍질을 씹게 하겠다. 장난감으로는 작은 막대기 모양의 단단한 빵이나, 피에몬테 지방에서 ‘그리스(grisse)’라 부르는 빵과 비슷한 비스킷을 주겠다. 이 빵을 입 안에서 자꾸 녹이고 있으면 마침내는 얼마간을 삼키게 마련이다. 그러면 거의 알아채기도 전에 이빨이 나 있을 것이고, 젓도 떼고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대체로 위장이 아주 튼튼한데, 이런 방법만으로 젓을 뚫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남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남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듣기 전에, 아니 들리는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게 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말은 건다. 아이들의 아직은 둔한 기관은 남이 일러 주는 소리의 흉내를 조금씩밖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그 소리들도 처음에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만큼 분명히 아이들 귀에 전해지는지조차도 확실치가 않다. 유모가 노래나 아주 즐겁고 변화 있는 억양으로 아이를 어르는 데는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조밖에는 아무것도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용없는 수다를 유모가 떨어 아이를 노상 골탕먹이는 데는 반대다. 나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첫 발음들이 잣지 않고 쉽고 또렷하고 흔히 되풀이되기를 바라며, 또 그 발음이 나타내는 낱말들이 아이에게 당장 보여 줄 수 있는 감



각적인 대상에만 관련되는 것이었으면 한다.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에 쉽사리 만족해 버리는 딱한 버릇은 생각하기보다는 일찍 시작된다. 소학생은, 배 내옷에 싸여 유모의 수다를 듣던 식으로, 교실에서 담임 교사의 객설에 귀를 기울인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주 유익하게 교육하는 일이 될 것 같이 여겨진다.

언어의 형성과 아이들의 첫 이야기를 문제삼으려 들면 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어떻게 하건 아이들은 언제나 똑같은 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모든 철학적인 고찰들이 여기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

우선 아이들은 말하자면 제 나이 나름의 문법을 갖고 있으며, 그 구문(構文)법은 우리의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규칙들을 지니고 있다. 잘 주의해 본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유추(類推)를 쫓고 있느냐에 놀라게 될 것이며, 그 유추는 펍 엉성하다고 말할지는 모르나 매우 규칙적이어서 딱딱하거나 관습이 허용하지 않아서만 귀에 거슬릴 따름이다. 나는 최근에 어떤 아이가, Mon père, irai-je-t-y?(아버지, 제가 거기 갈까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엾게도 몹시 야단맞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문법학자들보다도 잘 유추를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겐 Vas-y(거기 가라)라고 들 하면서, 그 아이가 irai-je-t-y라고 말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더구나 그 아이가 irai-je-y나 y irai-je?같은 모음 중복을 얼마나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지에 주의하라. 우리는 이 한정 부사 y를 어찌할 줄을 몰라 위의 말귀에서 공연히 빼어 버린 계제에 이것이 이 가없는 아이의 잘못이겠는가? 때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 영락없이 고치게 될, 이런 관습에 어긋난 잔다란 잘못들을 일일이 기를 쓰고 고쳐 주려 드는 것은 성가신 현학(衒學) 취미고 가장 쓸데없는 참견이다. 아이들 앞에선 언제나 정확하게 말하라.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도록 만들 어라. 그래서 아이들 말은 여러분이 전혀 꾸짖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말을 본받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달리 중요할뿐더러 이에 못지않게 막기 힘든 잘못은, 마치 아이들이 혼자서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아

이들에게 말을 시키려고 너무 서둘러 대는 일이다. 조심성 없는 이러한 서두름은 구하는 결과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이들은 더욱 더디게, 더욱 엉성하게 말하게 된다. 아이들이 하는 말 모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아이들은 제대로 분명히 발음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그래서 입도 제대로 벌려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러는 발음상의 나쁜 버릇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한 말투를 평생 간직하게 된다.

나는 농민들 사이에서 오래 살아 보았지만, 남자도 여자도, 계집애도 사내애도 에르(r)를 목구멍에서 굴리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농민들의 기관이 우리 것과는 달리 만들어져서인가? 아니다. 달리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내 방 창문 맞은쪽에는 언덕이 있어 근처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다. 내게서 꽤 떨어져 있는데도 아이들이 하는 말은 죄다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으며, 이 저술을 위한 좋은 메모도 거기서 흔히 따온다. 아이들 나이에 대해 내 귀가 날마다 나를 속인다. 열 살 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린다. 보면 서너 살짜리 아이들의 키와 얼굴이다. 이런 경험은 내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나를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모두가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여섯 살이 되도록 방 안에서 가정부 나래 밑에서 자란 도시 아이들이, 제 말을 듣게 하려면 중얼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입술을 놀리기만 하면 남이 애써 들어준다. 아이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은 남이 일러 주고, 아이 말에 노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늘 아이들 주위에 있는 같은 사람들은, 아이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하고자 한 말을 알아채는 것이다.

시골서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농부의 아내는 아이 옆에 늘 붙어 있지 않아, 아이는 어머니에게 들려줄 말을 아주 분명하고 큰 소리로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들에 흠어져 아버지나 어머니나 딴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먼 데까지 들리게 하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과의 거리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발음을 배우는 방법이지, 주의해서 듣는 가정부 귀에다 모음 몇 개를 더듬거리서 될 일은 아니다. 농부 아이에게 무엇을 물으면 수줍어서 대답을 못 하는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는 말은 분명히 말한다. 한편

도시 아이는 식모가 통역 노릇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서는 입 안에서 중얼거리는 말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sup>35</sup>

자라나면서 사내아이들은 학교에서, 계집아이들은 수녀원에서 이런 결점을 고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남녀 아이들은 늘 집에서만 자란 아이들보다는 대체로 더 분명하게 말한다. 그런데 농민들만큼 또렷한 발음을 습득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많은 것을 외어야 하고 배운 것을 큰 소리로 암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은 괴발개발 써 대고, 아무렇게나 마구 발음하는 버릇이 드니까. 암송하는 결과는 더욱 나쁘다. 애써 단어를 찾아 내며, 음절을 질질 끌어 늘어뜨린다. 기억이 아물거릴 때는 말을 더듬거릴 수도 있다. 이래저래 발음상의 나쁜 버릇은 생겨나기도, 간직되기도 한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에밀은 이런 악습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적어도 그것을 같은 원인으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중이나 시골 사람들이 다른 극단에 빠진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거의 언제나 필요 이상의 큰 소리로 지껄이는 점, 너무 정확히 발음하느라고 조음(調音)이 강하고 거친 점, 억양이 너무 심한 점, 용어를 잘못 고르는 일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첫 법칙은 알아듣게 하는 일인 만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극단이 내게는 판 극단보다는 훨씬 덜 나빠 보인다. 억양이 없음을 뽐내는 것은 말귀에서 멋과 힘을 빼는 것을 뽐내는 일이 된다. 억양은 이야기의 뉘트로, 말에 감정과 진실미를 태워 준다. 억양이 말보다는 거짓말을 덜 한다. 잘 길러진 사람들이 그토록 억양을 꺼리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남을 눈치채지 못하게 빈정거리는 말투가 생겨난 것도 말을 다 같은 음조로 말하는 말투로부터다. 억양을 없애면,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우습고 부자연한 발음법이, 특히 궁정의 젊은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발음법이 뒤를 잇는다. 말과 태도의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이 대체로 프랑스인에게의

35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 않다. 처음에는 통 들리지도 않게 말하던 아이들도 나중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귀가 멍해지는 수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잔다란 일들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같은 잘못에서 생겨나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똑같이 나의 방법에 의해 고쳐진다는 점을 지각 있는 독자라면 다 알아야 한다. 다음 두 격률을 나는 때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늘 충분히.’ 그리고 ‘결코 지나치지 않게.’ 먼저 것이 제대로 되면 나중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다.

접근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꺼림칙하고 불쾌한 것으로 만든다. 말씨에 억양을 붙이는 대신 곡조를 붙인다. 이는 프랑스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아이들이 걸려들까 봐 그토록 염려하는 이런 잔다란 언어상의 결점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주 쉽사리 막거나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투를 흐릿하게, 애매하게, 소심하게 만들거나, 노상 어조를 비판하거나, 단어를 일일이 흠잡음으로써 아이들에게 태워 주는 결점들은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말하는 법을 안방에서만 배운 남자는, 군대의 선두에서 자기 말을 제대로 듣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폭동 속에서 군중에게 호령할 수도 결코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먼저 남자들에게 말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필요할 때에는 여자들에게도 제대로 말할 줄 알게 될 테니까.

시골에서 전원의 완전한 소박함 속에 자란 여러분의 아이들은 더욱 잘 울리는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도시 아이들의 분명치 않게 더듬거리는 말에 물들지는 않을 것이다. 마을의 말씨나 어조에도 물들지 않을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날 때부터 같이 살고 날이 갈수록 더욱 오로지 아이들하고만 사는 선생이 자신의 정확한 말씨로써 농민들의 말씨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지워 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한 말씨나 어조를 쉽사리 버리게 될 것이다. 예밀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순수한 프랑스어를 지껄이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분명히 말하고 훨씬 더 잘 발음하게 될 것이다.

말하려는 아이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기가 발음할 수 있는 단어만을 말해야 한다. 아이가 이 때문에 하는 노력은 아이더러 같은 음절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것을 더욱 분명히 발음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이가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하거나 그 말을 알아 내려고 너무 애매우지 말라. 알아들어 주도록 늘 우겨 대는 것 역시 일종의 지배이며, 아이에게 어떤 지배력도 행사해서는 못한다. 무척 주의해서 필요한 것을 대어 주지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더러 알아들게 만들어야 할 것은 아이의 할 일이다. 아이가 말하도록 서둘러 요구한다는 것은 더구나 덜 필요한 일이다. 말의 효용을 깨닫게 됨에 따라 제 말을 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더디게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탄 아이들만큼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더디게 말을 해서 기관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관이 묶여 태어났기 때문에 더디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왜 탄 애들보다 더디게 말하겠는가? 말할 기회가 덜해서? 남이 말을 덜 시켜서? 반대로, 이런 더딤이 주는 불안을 깨닫자마자, 사람들은 더 일찍 말을 한 아이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애를 태우며 말을 시키게 된다. 이 그릇된 서두름은, 덜 조금하게만 굴었어도 시간을 가지고 더욱 완성시킬 수 있었을 아이들의 말씨를 애매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너무 서둘러 말을 시키면 아이들은, 제대로 발음하는 법을 배울 시간도, 남이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선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절들을 연습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 몸짓으로 남이 짐작하는 어떤 뜻을 조금씩 거기에 곁들여,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제 말을 여러분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알아들은 뒤가 아니고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여러분의 말을 서둘러 쓰지 않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어떤 뜻을 그 말에 주고 있는지를 우선 잘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말들을 채택한다.

제 나이도 되기 전에 서둘러 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는 폐단의 가장 큰 것은, 아이들에게 해 주는 첫 이야기나 아이들이 말하는 첫 단어들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뜻도 갖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뜻과는 다른 뜻을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갖게 된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답하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아이들은, 우리말을 알아듣지도, 우리가 아이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태워 주는 관념을 결부시키지 않은 아이들 말을 듣고 놀라는 것은, 보통 이와 같은 모호한 말투 때문이다. 단어가 아이들에 대해 갖는 진짜 뜻에 대한 우리 쪽의 부주의가 내게는 아이들의 첫 잘못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 그 잘못된 고쳐지고 나서도 평생 그들의 말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 점을 밝힐 기회가 나중에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이의 어휘는 되도록 줄이라. 아이가 관념보다 많은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물에 대해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아주 딱한 일이다. 대체로 농민들이 왜 도시인들보다는 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 이유의 하나는 그들의 어휘가 덜 벌여져 있는 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농민들은 많은 관념은 갖고 있지 않으나 그것들을 씩 잘 비교한다.

유년기의 첫 발달들은 거의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아이는 말하고, 먹고, 걷는 법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배운다. 정확히 말해서 이것이 그의 일생의 제1기다. 여태까지는 어머니 뱃속에 있던 때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어서, 감정도 관념도 없으며, 겨우 감각이 있을 정도다. 자신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Vivit, et est vitæ nescius ipse suæ.

(그는 살고 있으나, 자기 생명을 깨닫지도 못한다.)<sup>36</sup>

36 오비디우스의 《슬픔》 1, 3.

## 제 2 부

이제는 생애의 제2기이며, 정확히 말해서 유년기(enfance)는 여기서 끝난다. 왜냐하면 ‘유년(infans)’과 ‘소년(puer)’은 동의어가 아니니까. 전자는 후자에 포함되며, ‘말하지 못하는 자(qui ne peut parler)’를 뜻한다. 그래서 발레리우스 막시무스<sup>1\*)</sup>에는 ‘말하지 못하는 소년(puerum infantem)’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명칭이 따로 있는 나이까지는 우리말의 관습에 따라 이 단어를 계속 쓰겠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덜 울게 된다. 이 진보는 자연스럽다.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뀐 것이다. 말을 써서 괴롭다고 말할 수 있게만 되면, 말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하지 않고서는 왜 울음소리로 말하려 들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운다면 이는 주위 사람들의 잘못이다. 에밀은 “나는 아파(j'ai mal)”라고 일단 말하게 되면, 고통이 여간 심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울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하도 약하고 민감해서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고 하더라도, 나는 그 울음소리를 소용없고 효과 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곧 그 근원을 말리고 만다. 아이가 우는 한 나는 그 옆에 가지 않는다. 그치자마자 달려가 준다. 그가 나를 부르는 방법은 울음을 그치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단 한 번 소리지르는 것으로 이내 바뀔 것이다. 아이들이 갖가지 표적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그 표적들의 눈에 띄는 결과에 의해서이며, 아이들에게는 그 밖의 아무런 약정(約定)도 없다.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들어주리라는 기대가 없고서는 우는 일은 썩 드물다.

아이가 넘어지고, 머리에 혹이 생기고, 코피가 나고, 손가락이 베이더라도, 나는 기겁을 해서 덤벼들지 않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태연하게 있겠다. 변은 이미 생긴 것, 아이는 그 필연을 견뎌 내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서둘러 본들 아이를 더욱 겁만 먹이고 그 감수성을 복돋을 따름인 것이다. 사실이지 다쳤을 때 고통을 주는 것은 상처보다도 두려움이다. 나는 이 나중 괴로움이나마 덜어 주겠다. 왜냐하면 아이는 틀림없이 그 상처에 대해 내가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판단할 테니까. 내가 불안해서 달려가 달래고 동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는 글렀다고 여길 것이다. 내가 냉정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는 이내 자신의 냉정을 되찾아 아

1\* 1세기 로마의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의 《기억할 만한 사실과 말들》 1권, 6장, 5.



품만 가지고 나면 나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용기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가벼운 고통을 겁 없이 참는 일이며 차차 큰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시기다.

나는 에밀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기는커녕, 한 번도 다치지 않고 고통을 모르고 자란다면 오히려 딱하게 여길 것이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가 맨 먼저 배워야 할 일이며, 잘 알아 두어야 할 일이다. 이런 중요한 공부를 위험 없이 하기 위해서만 아이들은 작고 약한 것만 같다. 아이는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막대기에 맞아도 팔이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칼날을 잡아도 너무 짝 쥐어 깊이 베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심성 없게도 아이를 높은 곳에 버려 두거나 불 옆에 혼자 두거나 위험한 연장을 손닿는 곳에 버려 두지 않는 한, 아이를 혼자 두어 제풀로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커서도 용기도 경험도 없이 고통에 찢쩍매기만 해, 바늘에만 찔려도 죽는 시늉을 하고 제 피 한 방울만 보아도 까무러치게 되도록, 고통에 대비해 아이를 온갖 조각들로 무장시키려고 그 주위에 주워 모으는 저 술한 장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현학적인 괴벽은 언제나, 아이들이 혼자서 훨씬 더 잘 배울 것을 가르쳐 주려 들고, 우리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잊고 있다는 일이다. 마치 유모가 등한해서 커서도 걸을 줄 모르는 자를 보기도 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고 하는 고생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있겠는가? 반대로 걷는 법을 잘못 가르쳐 주어 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에밀은 다치지 않게 쓰는 털모자도, 광주리 수레도, 걸음마 수레도, 걸음마를 시키는 끈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한 발을 딛 발 앞에 내놓을 줄만 알게 되면, 포장된 곳에서만 부족해 주어, 빨리 지나가게 해 줄 것이다.<sup>2</sup> 방 안의 흐린 공기 속에 죽쳐 있게 두지 말고, 날마다 들판에 데리고 가도록 하라. 거기서 달

2 어려서 너무 오래 끈에 끌려 걸음마를 배운 사람들의 걸음걸이보다 더 우습고 자신 없어 보이는 것은 없다. 이것 또한 한두 가지 아닌 뜻에 있어 옳은 사실들, 늘 옳다 보니 시시해진 사실들 중의 하나다.

리고 뛰놀고 하루에 백번이라도 넘어지게 하라. 좋은 일이다. 일어나는 법을 더욱 일찍 배우게 될 것이다. 자유의 즐거움이 상처를 많이 벌충해 준다. 내 학생은 자주 타박상을 입을 것이다. 그 대신 늘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의 학생들은 타박상은 덜 입더라도 노상 방해만 받고 얽매어 답답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낫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발달이 아이들에게 우는 소리를 덜 필요하게 해 준다. 그것은 아이들의 힘의 발달이다. 제 힘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은 남의 힘을 빌 필요가 덜 찾아진다. 힘과 더불어 그 힘을 바로 쓰게 해 주는 지식도 발달한다. 정확히 말해서 개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제2단계에서다. 자아의식을 갖는 것은 이때다. 자신의 존재의 모든 순간들에 대한 동일감(同一感)을 기억이 확대시킨다. 그는 정말로 하나의 동일한 인간이 되며, 따라서 이미 행복 또는 불행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그를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은 거의 인생의 가장 긴 끝과, 그 끝까지 가 닿을 가능성을 어느 나이에서나 생각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생애의 길이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장 긴 끝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얼마 없다. 생애의 가장 큰 위험들은 그 초기에 있다. 적게 산 사람일수록 살 가망도 적다. 태어난 아이들 중 기껏해야 절반이 청년기까지 간다. 여러분의 학생도 어른의 나이까지 이르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고, 온갖 속박을 아이에게 가하며, 아이가 영 즐기지 못할지도 모를 이른바 행복을 먼 앞날에 마련해 주기 위해 아이를 불쌍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는 저 무작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교육이 그 목적에 있어서는 온당한 것으로 내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멍에가 씌워져, 그 많은 고생이 언젠가는 보람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이 징역수처럼 노상 공부에만 시달리는 가여운 아이들을 어찌 분노 없이 바라보라! 즐거운 나이가 눈물과 벌과 위협과 종노릇 속에 지나간다. 불쌍한 아이를 그의 행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 자기들이 불러오는 죽음,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인 아이에게 덮쳐 들러는 죽음을 보지 못한다. 아버지나 교사의 엉뚱한 지혜의 희생이 되

어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라? 그런 지혜의 잔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다행한 일인 만큼, 그들이 아이들에게 시킨 고생에서 얻는 단 하나의 이득은, 고통밖에는 안 것이 없는 생애를 아쉬워하지 않고 죽는 일이다.

사람들이여, 인간다워지라. 이것이 당신들의 첫 의무다. 모든 신분의, 모든 나이의 사람들에게 대해, 인간과 무관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간다워지라. 인간성을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의 놀이와 기쁨과 귀여운 본능을 두둔해 주라. 여러분 중의 누가, 노상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늘 평화롭던 그 무렵을 때때로 그리워하지 않았겠는가? 왜 여러분은 이 죄 없는 꼬마들이 달아나는 짧은 시간을, 그들이 낭비할 줄 모르는 소중한 재산을 누리는 것을 앗으려 드는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수 없듯이 아이들에게도 돌아오지 않을 이 빨리 지나가는 첫 해들을 왜 쓰라림과 괴로움으로 채우려 드는가? 아버지들이여, 죽음이 당신네 아이들을 기다리는 순간을 알고 있는가? 자연이 아이들에게 주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빼앗음으로써 후회거리를 마련하지를 말라. 아이들이 사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 그것을 즐기게 해 주라. 하느님이 아이들을 언제 부르건, 삶을 맛보지도 않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라.

내게 반대하는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우리를 노상 우리 밖으로 몰아내고, 현재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며, 나아갈수록 멀리 도망치는 미래만 실 새 없이 쫓고, 우리를 우리가 있지 않은 곳으로 자꾸만 끌고 감으로써 우리가 결코 가 있지 않을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저 가짜 지혜의 아우성이 멀리서 들려온다.

그것은 인간의 나쁜 성향(性向)을 고치는 시기라고, 여러분은 내게 대꾸한다. 철들 나이에 가서 고생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 고생을 미리 많이 시켜야 하는 것은, 고생을 가장 덜 느끼는 유년기라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바로잡음이 모두 여러분 재량에 달린 일이라고 누가 말하며, 아이의 약한 정신을 짓누르는 그 근사한 교육 모두가 언젠가는 아이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여러분이 아이에게 마구 주는 슬픔에 의해 무엇인가를 덜어 주고 있다고 누가 보증하는가? 현재의 고생이 앞날의 짐을 덜게 된다는 보증도 없이

왜 아이의 힘이 감당하기에 벅찬 고생을 시키는가? 또 여러분이 고쳐 주겠다는 그 나쁜 성향이 자연에서 생겨나기보다는 여러분의 그릇된 참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내게 어떻게 증명해 줄 것인가? 한 인간을 언젠가는 행복해지게 해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희망 아래, 지금은 비참하게만 만드는 딱한 선택지명! 만일 이런 속된 억살쟁이들이 방종과 자유를, 또 행복하게 해 주는 아이와 버릇없이 키우는 아이를 혼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자.

영동한 것들을 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 조건에 알맞은 것을 잊지 말자. 인류는 만물의 질서 속에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는 인간 생활의 질서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생각해야 한다. 저마다에 제자리를 별러 주어 고정시키고, 인간의 정념을 인간의 체질에 따라 가다듬는 일,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두다. 나머지는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 외부의 원인들에 달려 있다.

절대적인 행복이나 불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승에서는 모두가 뒤섞여 있다. 어떤 순수한 감정도 맞볼 수 없고, 같은 상태에 두 순간을 머무르지도 못한다. 우리 마음의 쓸림은 우리 몸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 모두에 공통된 것이지만 그 정도가 차이가 있다. 가장 행복한 자는 가장 덜 고생을 당하는 자다. 가장 가여운 자는 가장 덜 기쁨을 느끼는 자다.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다. 이는 만인에게 공통되는 차이이다. 이승에서의 인간의 지복(至福)이란 따라서 부정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생의 최소량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고통감은 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분리될 수 없다. 기쁨의 관념은 모두 다 그것을 즐기려는 욕망과 분리될 수 없다. 욕망 모두는 부족을 전제로 삼고, 느껴지는 모든 부족은 괴롭다. 따라서 우리의 비참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 있다. 능력이 욕망과 맞먹는 감성적 존재는 완전히 행복한 존재일 것이다.

그럼 인간의 지혜는, 참 행복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우리 힘 아래 있다면, 우리 능력의 한 부

분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모두를 즐기지 못할 테니까. 우리의 능력을 넓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도 동시에 더 큰 비례로 넓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비참해질 뿐일 테니까. 따라서 그것은 능력을 넘는 욕망을 줄이는 데 있으며, 힘과 의지를 완전히 동등하게 하는 데 있다. 모든 힘이 활동하면서도 마음은 평온을 유지하고 인간이 제대로 가다듬어진 상태에 있게 될 것은 바로 이런 때뿐이다.

모두를 가장 좋은 것으로서 만드는 자연은 그래서 인간을 맨 먼저 마련한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당장에는 자기 보존에 필요한 욕망들과 그 욕망들을 채우기에 충분한 능력밖에는 주지 않는다. 탄 능력들은 인간의 마음 밑창에 예비로 두어 필요에 따라 거기서 자라나게 했다. 능력과 욕망의 균형이 발견되어 인간이 불행하지 않은 것은 이 애초의 상태에서뿐이다. 잠재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하자, 온갖 능력 중에서 가장 활발한 상상력이 눈에 띄는 능력들을 앞지른다.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좋게건 나쁘게건 우리를 위해 넓혀 주며, 따라서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 그 욕망들을 부추기고 복돋우는 것이 바로 이 상상력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이던 대상이 따라붙일 수도 없게 빨리 도망친다. 잡았다 싶으면 둔갑을 하여 우리 앞 멀리 나타난다. 이미 돌아다녀 본 나라는 눈에 들지도 않는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본다. 가 봐야 할 나라는 노상 커지고 넓어지기만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끝까지 가 닿지도 못하고 지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

반대로 타고난 조건 가까이 머물러 있을수록 능력과 욕망의 차이는 작아지고 따라서 행복에서도 덜 멀어진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제일 비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참은 무엇이 궁핍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니까.

현실 세계에는 한계가 있고, 상상의 세계는 무한하다. 전자를 넓힐 수가 없으니 후자를 좁히자.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고생은 오로지 이 두 세계의 차이에서만 생겨나는 것이니까 말이다. 힘과 건강, 그리고 자신이 착하다는 신념을 빼어 보라. 이승의 좋은 것 모두는 사람들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몸의 고통과 양

심의 가책을 빼어 보라. 우리의 나쁜 것 모두는 상상에 달려 있다. 이런 원칙은 케케묵은 것이라고 말하겠지. 나도 동감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천은 케케묵은 것이 아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실천뿐인 것이다.

인간은 약하다고 말할 때 그 뜻은 무엇인가? 이 약하다는 말은 하나의 관계를, 이 말이 적용되는 자의 어떤 관계를 가리킨다. 힘이 욕구를 넘는 자는 비록 곤충이나 벌레라고 하더라도 강자다. 욕구가 힘을 넘는 자는 코끼리나 사자라 하더라도, 정복자나 영웅이라 하더라도, 신이라 하더라도, 약자다. 제 본성을 무시한 반역의 천사는, 제 본성에 따라 조용히 산 행복한 인간보다 더 약했었다. 인간은 생긴 대로 살기에 만족할 때는 아주 강하다. 인간성을 넘어서려 들 때는 아주 약하다. 그러니 능력을 넓힘으로써 힘을 넓히겠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아라. 자만심이 능력보다 커지면 힘은 반대로 줄어든다. 우리의 원의 지름을 재어 보자. 그래서 거미가 제 그물 한복판에 머무르듯이 우리도 그 중심에 머무르자. 그러면 우리는 늘 자족하여, 자신의 약함을 한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약함을 결코 느끼지는 않을 테니까.

모든 동물은 자기 보존에 필요한 능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인간만이 능력의 여분을 갖고 있다. 이 군더더기가 인간의 비참의 연장이 되어 있다니 야릇하지 않은가? 어느 나라에서나 한 인간의 두 팔은 생활필수품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 이런 군더더기를 없어도 좋은 것으로 볼 만큼만 현명하다면, 인간은 여분의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게 될 테니까 따라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갖게 될 것이다. 큰 욕구는 큰 재산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며, 없는 것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진 것을 버리는 일이지가 일쑤라고, 파보리누스는 말했었다.<sup>3</sup> 우리는 행복을 늘리려고 너무 애를 쓰기 때문에 행복을 비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저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착하게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약해지는 것이 그에게는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우리가 만일 죽지 않는 존재라면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물론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다 나은 삶이 이승

3 아울루스-겔리우스의 《아타카의 밤》 9권 8장.

의 삶의 괴로움을 끝장내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불멸성을 준다 한들 누가<sup>4\*</sup> 그런 한심한 선물을 받고 싶어 하겠는가? 운명의 가혹이나 인간들의 부정과 맞설 어떤 방책, 어떤 희망, 어떤 위안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예견치 못하는 무식쟁이는, 삶의 값을 거의 깨닫지 못해 그것을 잃는 데 대해서도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식견 있는 사람은 더 값진 것들을 알아보고 이승의 삶의 값보다는 그쪽을 택한다. 우리의 눈길을 죽음까지만 돌리고 그 너머에는 돌려주지 않아, 죽음을 우리의 죄악의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얼치기 지식과 가짜 지혜밖에는 없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죽는 필연이 삶의 괴로움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그것을 한 번은 잃게 된다는 사실이 확실치가 않다면, 그것을 간직하는 값이 너무나 비싸게 먹을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모조리 생각 속에 있다. 단 하나 죄악만은 빼놓고, 죄악은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 육체적 고통은 스스로 멸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멸한다. 시간이나 죽음이 우리의 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해 낼 줄을 덜 알면 그만큼 더 많이 당하게 된다. 병을 견디려는 데보다도 병을 고치는 데 더 많은 고생을 사서 한다. 자연에 따라 살아가라, 참을성을 가지라, 그리고 의사들을 몰아내라. 당신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한 번밖에 겪지 않을 것인 데 반해, 의사들은 당신의 흐려진 상상 속에 죽음을 날마다 끌어들이며, 그들의 헛된 기술은 당신의 생명을 늘어 주기는커녕 그 생명을 즐기는 것마저 앗아 간다. 의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 혜택을 베풀 일이 있느냐고 나는 언제나 묻겠다. 의술이 고쳐 주는 사람들 중의 더러는 그냥 두면 죽을지도 모르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술이 죽이는 수백 만 명은 가만 두면 살아 있을 것이다. 지각 있는 사람아, 허탕이 너무 많은 이런 제비일랑 뽑지 말라. 당해 내라. 죽거나 낫거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살도록 하라.

인간이 이룩해 놓은 제도들에서는 모두가 잘못과 모순뿐이다. 우리는 생명이 가치를 잃어 갈수록 더 그 생명을 염려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생명을 아쉬워

4\*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C의 원주)

한다. 즐기려고 준비해 둔 것을 잃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예순이 되어서, 아직 살기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죽기란 정말 너무하다. 인간은 자기 보존에 강렬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이 애착이 태반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그럴 수단을 지니고 있는 동안밖에는 자기 보존을 위해 애태우지 않는다. 그럴 수단이 없어지면 곧 마음이 가라앉아 공연한 애를 태우지 않고 죽어 간다. 체념의 첫 법칙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미개인들은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 그다지 발버둥이치지 않고 거의 불평도 없이 받아들인다. 이 법칙이 깨어지면 이성에서 오는 판 법칙이 생긴다. 그러나 이 법칙을 이성에서 끌어낼 줄 아는 자는 얼마 없고 또 이런 억지 체념은 첫 체념만큼 온전하지도 않다.

예견! 노상 우리를 우리 너머로 끌고 가고, 우리가 가 닿지 못할 곳에 우리를 갖다 두기가 일쑤인 예견.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비참의 진짜 근원이다. 인간만큼 덧없는 존재가, 오기 힘든 먼 미래로만 노상 눈을 돌리고 확실한 현재는 소홀히 한다는 얼마나 야릇한 괴벽을 갖고 있는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곧 늘어만 가는 만큼 더욱 고약한 괴벽. 늘 의심하고 지레 짐작하고 인색한 노인들은 백 년 후에 군더더기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오늘 필요한 것을 아껴 쓰지 않기를 더 좋아하는 만큼 더욱 고약한<sup>5\*</sup> 괴벽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모든 것에 매달린다. 시간 · 장소 · 사람들 · 물건들 · 있거나 있게 될 모든 것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소중한 것이 된다. 우리 개인은 이미 우리 자신의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하게 된다. 저마다가 말하자면 지구 전체 위에 펼쳐져 이 거창한 표면 모두에 민감해지는 셈이다. 우리의 고통이 모든 지점에서 불어나 어디서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많은 군주가 가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잃고 상심하고 있는가! 인도를 건드리기만 해도 파리에서 우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연인가? 저마다가 자신의 운명을 남들에게서 배워 꼴찌로 알게 되기가 일쑤이며,

5\* ‘고약한’은 funeste(불길한)의 역어. 루소는 먼저 P에서 차례로, grave(중대한), nécessaire à guérir(고칠 필요가 있는), nécessaire à réprimer(억제할 필요가 있는)로 썼다가 지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죽어 가는데, 이것도 자연 탓인가? 싱싱하고 쾌활하고 힘차고 튼튼한 한 남자를 나는 보고 있다. 그가 있으면 즐거워진다. 눈은 만족과 안락을 나타내고 있다. 행복의 모습을 지니고 다닌다. 우체국에서 편지 한 장이 온다. 행복한 남자는 편지를 본다. 자기한테 온 것이다. 겹봉을 벗겨 읽는다. 갑자기 안색이 바뀐다. 파랗게 질려 까무러친다. 정신이 들자 그는 울고, 흥분해 울부짖고, 머리를 쥐어뜯고, 울음소리에 공기가 진동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킨 모양이다. 철부지여! 도대체 그 종이쪽지가 당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던 말인가? 그 종이가 손발이라도 부르뜨렸단 말인가? 무슨 죄라도 짓게 했던 말인가? 요컨대 지금 내가 보는 상태에 당신을 몰아넣기 위해 그 종이 당신을 무엇을 바뀐 놓았던 말인가?

그 편지가 분실되거나 어떤 인정스런 손이 불에 던져 버렸더라면 이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 인간의 운명은 어떠했을 것인지, 이걸 야릇한 문제 같아 보인다. 그의 불행은 실지였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좋다. 하지만 그는 그 불행을 느끼지는 않았었다. 그럼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그의 행복은 가공의 것이었었다. 알겠다. 건강 · 쾌활 · 안락 · 정신의 만족은 이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있지 않은 곳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것만 남아 있다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있겠는가? 오, 인간이여! 네 존재를 너 자신 속에 가두라. 그러면 다시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이 만물의 사슬 중에서 네게 별려 준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아무것도 너를 거기 빠져 나오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필연의 굳은 법칙엘랑 대들지 말라. 그것에 대들려다가 하늘이 너에게 준 힘을 써 없애지 말라. 네 존재를 넓히거나 연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늘의 뜻대로, 또 하늘의 뜻만큼만 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그 힘을 말이다. 너의 자유 · 너의 능력은 네가 타고난 힘만큼 밖엔 미치지 않으며,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 나머지 모두는 종노릇과 환상과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조차도 세상 의견에 매달려 있으면 종노릇이다. 왜냐하면 네가 편견으로 다스리는 자들의 편견에 너도 달려 있는 것이니까. 그들을 네 뜻대로 이끌려면 그들 뜻대로 너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만 바

꾸어도 너는 마지못해 행동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너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네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백성의 의견이나 너를 다스리는 충신들의 의견, 네 가족들의 의견, 네 자신의 의견을 다스릴 줄만 알면 된다. 저 대신들 · 궁정인들 · 신부들 · 병정들 · 하인들 · 경박한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가 너를, 설사 네가 테미스토클레스 같은 천재라 하더라도,<sup>6</sup> 군대에 둘러싸인 너를 아이처럼 끌고 가려 들 것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해 봤자 헛일, 너의 실지 권력은 너의 실지 능력보다 결코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다. 남들의 눈으로 보아야 하게 되면 그들의 의사로 바라야 한다. 내 백성들은 내 신하다 하고 너는 자랑스레 말한다. 그래, 그런데 너는 무엇인가? 네 대신들의 신하다. 그럼 이번에는 네 대신들은 무엇인가? 제 부하들의, 제 정부(情婦)들의 신하며, 제 종들의 종이다. 모든 것을 쥐라, 모든 것을 빼앗으라, 그리고 나서 돈을 마구 뿌려라, 포대(砲臺)를 세우라, 교수대며 차바퀴 처형대를 만들라, 법령을 내라, 스파이 · 병정 · 망나니 · 감옥 · 쇠사슬을 늘리라. 가엾은 소인들아, 이 모두가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당신들은 섬김을 더 받게 되지도, 도둑을 덜 맞지도, 덜 속지도, 더 절대적인 군주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여전히 말하겠지. 우리는 바란다고. 그러나 당신들은 여전히 남들이 바라는 바를 행하게 될 것이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만, 뜻대로 하기 위해 자기 팔 끝에 남의 팔을 이어 댈 필요가 없는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자유다.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아, 자기 마음에 드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격률이다. 이 격률을 어린 시절에 적용시키는 것만이 문제며, 교육의 모든 규칙은 여기서 말미암는다.

사회는 인간이 제 힘에 대해 지닌 권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힘을 인간에게 불충분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인간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욕망이

6 테미스토클레스는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었다. 저기 있는 소년이 그리스의 지배자야. 왜냐하면 그는 자기 어머니를 지배하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지배하고, 나는 아테네인들을 지배하고,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인들을 지배하니까. 군주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몰래 첫손을 쓰는 사람에게까지 내려간다면, 가장 큰 제국들에서도 흔히 얼마나 작은 지도자들이 발견될 것인가!

인간의 약함과 더불어 늘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며, 그래서 성년기에 비해 아이는 약한 것이다. 어른이 강하고 아이가 약한 것은, 어른이 아이보다 절대적인 힘을 더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은 본래 자급자족할 수 있으나 아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른은 더 많은 의지를, 아이는 더 많은 번덕을 갖게 마련이다. 여기서 번덕이란 말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욕망, 남의 도움 없이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 모두를 의미한다.

약함의 이와 같은 상태의 이유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으로 그것을 메워 준다. 그런데 이 애착에는 지나침이나 결함·남용이 있을 수 있다. 시민의 처지에서 살고 있는 부모는 아이를 나이도 차기 전에 그런 처지에 끌고 들어간다.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줌으로써 약함을 덜어 주기는커녕 늘려 준다. 뿐더러 자연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함으로써, 아이가 제 의지에 쓰기 위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힘을 자기네 의지에 따르게 함으로써, 아이는 약함 때문에 부모는 애착 때문에 엄매이는 상호 의존 상태를 양쪽 아울러 연속 상태로 바꿈으로써, 아이의 약함을 더욱 늘려 주는 것이다.

현명한 인간은 제자리에 머무를 줄 안다. 그런데 제자리를 모르는 아이는 제자리를 지킬 줄 모른다. 아이는 제자리에서 빠져 나올 술한 구멍을 우리 사이에 지니고 있다. 아이를 제자리에 붙들어 두는 것은 아이를 지도하는 자들이 할 일이나, 이 임무는 쉽지가 않다. 아이는 짐승이어도, 어른이어도 안 되고 아이여야만 한다. 제 약함은 깨달아야 하나, 그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의존은 해야 하나 복종해서는 안 된다. 요구는 해야 하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만 남들에게 따르게 되는데, 이는 아이에게 유용한 것, 자기 보존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것을 아이 자신보다는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아버지조차도, 아이에게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명령할 권리는 없다.

편견들과 인간이 하는 교육이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변질시키기 전에는, 아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전자에 있어서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 스스로 자급자족만 된다

면, 제가 바라는 바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다. 자연 상태에 사는 어른의 경우가 그것이다. 욕망이 제 힘을 넘어서면, 제가 바라는 바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지가 않다. 같은 상태에 있는 아이의 경우가 이것이다. 아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에서 어른들이 누리는 자유와 비슷한 불완전한 자유밖에는 누리지 못한다. 남들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되어 버린 우리는 저마다 이 점에 있어 도로 약해지고 비참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었다. 법률과 사회가 우리를 어린 시절로 되밀어 넣은 것이다.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임금들은 모두가 자기네의 비참을 위로해 주려고 남들이 기를 쓰고 덤비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조차 유지한 허영심을 끌어내며, 또 진짜 어른이라면 남들이 들어 주지도 않을 시중에 우쭐해지는 어린애들이다.

이러한 고찰은 중요하여, 사회 제도의 온갖 모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두 가지의 의존이 있다. 하나는 사물들에 대한 의존으로, 이는 자연에 말미암는다.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의존으로, 이는 사회에서 말미암는다. 사물들에 대한 의존은 아무런 도덕성도 없이, 자유를 해치지 않고, 악을 낳지도 않는다. 사람들에 대한 의존이란 무질서한 것이어서,<sup>7</sup> 온갖 악을 낳으며, 주인과 종이 서로 타락시키는 것이 이 의존 때문이다. 사회 속의 이런 악을 바로잡을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대신 법을 두는 일이며, 개인 의지 모두의 행위를 능가한 현실적인 힘으로써 일반 의지를 무장하는 일이다. 여러 나라의 법들이 자연의 법처럼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결코 이겨 낼 수 없는 불굴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이때 사람들에 대한 의존은 사물들에 대한 의존으로 되바꿀 것이다. 국가 안에서 자연 상태의 모든 이익을 시민 상태의 그것과 합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악덕을 면하게 해 주는 자유에다, 인간을 미덕으로 끌어올려 주는 도덕성을 합치게 될 것이다.

아이를 사물들에 대한 의존 속에만 붙들어 두라, 여러분은 아이의 교육의 진행에

7 나의 《정치법의 원리들(사회계약론)》에서는, 어떤 개인 의지도 사회 조직 속에서 질서를 얻을 수는 없음이 증명되어 있다.<sup>8\*</sup>

8\* P에서는 원주가 이렇다의 《국가 구성론》에서는, 어떤 개인 의지도 사회 조직 속에서 질서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 있다.

있어 자연의 질서를 따를 것이 될 것이다. 아이의 철없는 의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장애들밖에는, 또는 행동 자체에서 생겨나는 별, 아이가 그럴 때마다 생각날 별 밖에는 결코 대어 주지 말라.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도 그것을 막는 것만으로 족하다. 경험이나 무력(無力)만이 법을 대신해야 한다. 아이가 요구한다 해서 응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 응해 주도록 하라. 아이가 무엇을 할 때는 복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라, 아이에게 무엇을 해 줄 때는 지배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라. 아이가 행동하건 여러분이 해 주건 언제나 아이는 똑같이 제 자유를 깨닫게 하라. 아이에게 모자라는 힘에 대해서는, 아이가 오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해 주라. 여러분의 시중을 일종의 굴욕감을 가지고 받아들임으로써, 남의 시중 없이도 될 때를,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자량을 갖게 될 때를 고대하게 만들어라.

몸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 자연은,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될 항법들을 지니고 있다. 아이가 가고 싶어 할 때 가만있도록 강제하거나, 가만있고 싶어 할 때 가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의지가 우리의 잘못으로 명들어 있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쓸데없이 바라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그러고 싶다면, 뛰고, 달리고, 소리질러야 한다. 아이들의 모든 운동은, 강해지려고 애쓰는 체질의 요구들이다. 그러나 스스로 할 힘도 없이 바라는 것, 그래서 남들이 대신 해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는 진짜 필요 즉, 자연의 필요와, 생겨나기 시작하는 변덕스러운 필요나 내가 말한 바 있는 생명의 과잉에서만 오는 필요와를 조심스레 구별해야 한다.

아기가 이것저것이 갖고 싶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말했다. 다만 아이가 바라는 바를 말로 요구할 수 있게만 되거든, 또 그것을 보다 빨리 얻거나 거절을 이겨 내려고 그 요구를 눈물로 우겨 대게 되거든, 그런 요구는 영락없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말만을 덧붙여 두겠다. 만일 필요가 아이더러 말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채어 요구하는 바를 곧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눈물에 저서 뭔가를 준다는 것은, 눈물을 더 쏟게 부추기는 일이 되며, 아이더러 여러분의 선의를 의심하도록, 졸라 대는 것이 호의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믿도록 가르쳐 주는 일

이 된다. 아이는 여러분을 친절하다고 생각지 않게 되면 곧 짓궂어 질 것이다. 여러분을 약하다고 보게 되면 곧 추근추근해질 것이다. 거절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언제나 첫눈에 허락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거절하질랑 말라. 하지만 일단 거절한 것은 결코 취소하지도 말라.

제 주위의 모두를 자기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한, 또 마음에 드는 것을 당장에 얻기 위한, 마술의 말로서 필요할 때 쓰이게 되는 저 헛된 인사치레 말투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 부자들의 점잔 빼는 교육에서는,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과함으로써, 아이들을 영락없이 공손하면서 거만하게 만들고 만다. 부자 아이들은 사정하는 말투도 말씨도 없다. 제 말을 더욱 잘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탁할 때도 명령할 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거만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좋으시다면(s'il vous plaît)”이 “나는 좋소(il me plaît)”를, “부탁합니다(je vous prie)”가 “명령합니다(je vous ordonne)”를 의미한다는 것을 당장에 알 수 있다. 기껏해야 말의 뜻을 바꾸거나, 명령조를 빼고는 말도 못 하게 만드는 게 고작인 근사한 예절! 에밀이 거칠어지는 것보다는 거만해질까 봐 더 염려하는 나로서는, 에밀이 명령하면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부탁하면서 “이렇게 하시오(faites cela)”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가 쓰는 말투가 아니고 그가 그 말에 주는 의미다.

지나친 엄격과 지나친 관대가 있지만 둘 다 피해야 한다. 아이들이 쇠약하게 내버려 두면 그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여, 실지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너무 조심해서 굶은 것은 모조리 피하게 해 주면, 큰 불행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어, 아이들은 연약하고 과민해지며, 여러분이 어찌 했든 아이들이 언젠가는 되돌아가게 될, 인간들의 상태 밖으로 아이들을 끌어내는 셈이 된다. 자연의 어떤 불행에 아이를 내어 맡기지 않으려다가 여러분은, 자연이 주지도 않은 불행을 만드는 자가 된다. 결코 오지도 않을 먼 앞날을 생각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내가 비난한 바 있는 저 고약한 아버지들과 같은 처지에 나도 빠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천만에. 왜냐하면 내가 내 제자에게 주는 자유가, 제자더러 당하게 둔 가벼운 불편을 넉넉히 보상해 주고도 남으니까. 시퍼렇게 얼어서 손가락도 제대로 놀리지 못하는 개구쟁이들이 눈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생각만 있으면 불을 찌러 갈 수 있는 데도 통 그럴 기색이 없다. 그러도록 억지로 시키면 심한 추위보다 백배나 더 심한 속박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불만인가? 여러분의 아이가 당하고 싶어 하는 불편을 당하게 둔 것뿐인 내가 그 아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는가? 나는 아이를 자유롭게 둬으로써 현재 그를 행복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겪어야 할 고생에 대비해 무장시킴으로써 앞날의 행복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내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의 제자가 되느냐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이가 잠시나마 망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진짜 행복이 제 본질에서 벗어난 어느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인간을 제 동류의 모든 고생에서 면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을 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나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큰 행복을 깨달으려면 작은 고생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몸이 너무 좋아지면 정신은 썩는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성에 대한 감동도 연민의 왜감도 알지 못한다. 그 마음은 아무것에도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고, 사قم성 있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동류 사이에서 하나의 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아이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무엇이나 다 얻는 버릇을 들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쉽사리 채워지기에 아이의 욕망들은 노상 불어나, 조만간 여러분은 무력해져 마지못해 거절하게 되고 말 테니까. 그런데 이러한 느닷없는 거절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잃는 이상의 고통을 줄 것이다. 아이는 맨 먼저 여러분이 든 지팡이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이어 여러분의 시계를 달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나는 새를 바랄 것이다. 반짝이는 별을 바랄 것이고, 보이는 것 모두를 바라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를 만족시킬 것인가?

제 힘이 미치는 것 모두를 제 것으로 아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性向)이다. 이런 의미에서 흙스의 원칙은 어느 점까지의 진실이다. 우리의 욕망들과 함께 그것

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늘려 나가 보라. 저마다가 모두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바라기만 하면 다 얻는 아이는 우주의 소유자로 자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제 종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못해 무엇을 거절하게 되면, 명령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믿고 있는 아이는 그 거절을 배반 행위로 보게 된다. 추리가 되지 않는 나이의 아이에게 말하는 온갖 이유란, 아이 생각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아이는 도처에서 악의만 보게 된다. 부당하다는 느낌이 제 본성을 꼬드겨, 모든 사람을 밉게 보며, 좋게 해 주어도 만족하는 일 없이 반대에는 모조리 화를 내게 된다.

이렇게 노여움에 지배당하고 더할 수 없이 발끈하는 정념들에 시달리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행복하다고, 그런 아이기! 이걸 전제 군주다. 가장 천한 노예이고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어깨로 집을 밀어 쓰러뜨리라거나, 종탑 위에 보이는 수탑을 달라거나, 북소리가 더 듣고 싶어 행진하는 연대를 세워 달라거나 해서,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누구 말에도 귀를 주지 않고 찢어져라 하고 울어 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모두들 달려려고 법석을 떠나 헛일이었다. 그들의 욕망은, 쉽사리 얻을 수 있기에 더욱 까다로워져, 안 될 것도 얻으려고 우겨 댔지만, 도처에서 반대와 장애와 고생과 고통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노상 으르렁대고 노상 대들고 노상 화만 내는 그들은 울면서 투덜대면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인간들인가? 약함과 지배욕이 합치면 광기와 비참밖에는 낡지 않는다. 응석받이 두 아이 중 하나는 테이بل을 두들기고 또 하나는 바다를 매질시킨다. 아무리 매질하고 두들겨도 만족해서 살게는 되지 않는다.

이런 지배와 독재의 관념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비참하게 만든다면, 커서 남들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만 보아 버릇해 오다가, 세상에 나가자 모두가 저항하는 것을 깨닫고, 제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던 이 세계의 무게에 제가 짓눌리는 것을 보는 놀라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들의 건방진 태도며 유치한 허영심은, 굴욕과 멸시와 비웃음을 갖다 줄 뿐이다. 모욕을 몰마시듯 마시게 된다. 제 처지도 제 힘도 모르



고 있다는 사실을, 지독한 시련들이 이내 가르쳐 준다. 다 할 수가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낮은 술한 장애가 가로막고, 술한 멸시가 그들을 꺾어내린다. 비겁해지고 비굴해져 여태 자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던 만큼 더욱 자기 이하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애초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아이들을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만들었다. 자연이 그들을 복종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겠는가? 무섭게 보이도록 자연이 위엄 있는 태도와 매서운 눈과 거칠고 협박적인 목소리를 아이들에게 태워 주었던가? 사자의 울부짖음이 짐승들을 겁먹게 하며, 그 무서운 대가리만 보고도 떠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망측하고 얄밟고 가소로운 구경거리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답이라곤 우는 것과 침 흘리는 것뿐인 배내옷 아기 앞에 꿇어 엎드려 허풍을 떨어 대는, 우두머리를 앞세운 예복 차림의 벼슬아치들의 무리다. 아이 자체를 두고 본다면 세상에 아이보다 더 약하고 비참하고, 주위의 모든 것의 뜻대로 되는 존재가, 이토록 동정과 시중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또 있겠는가? 아이는 저에게 접근하는 모두가 자신의 약함에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 자기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만 그토록 귀여운 얼굴과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그러니 거만하고 고집 센 아이가 주위의 모두에게 명령하고, 죽이려면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될 사람들에게 면면하게도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보는 이상으로 눈에 거슬리고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있겠는가?

한편, 어릴 때의 약함이 아이들을 온갖 방식으로 얽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으며, 아주 제한되어 있어 아이들이 거의 남용할 수도 없거니와 빼앗아 본들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별 소용도 없는 자유를 아이들로부터 빼앗음으로써, 그러한 속박에다 우리의 변덕에서 오는 속박까지 덧붙이는 것은 잔인무도한 짓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거만한 아이만한 웃음거리가 없다면, 겁 많은 아이만큼 불쌍한 것도 없다. 철들 나이만 되면 시민으로서의 복종이 시작되는데,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복종이 그것을 앞질러야만 하겠는가? 자연이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은 이 속박을 생애의 한 시기나마 면하게 해 주자.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얻는 악덕들로부터 잠시나마 어린이를 떼어 놓는 그 타고난 자유를 행사하도록 두자. 저 엄한 교

육자들이나, 자기 아이들의 종이 되어 있는 아버지들은 그러니 모조리 그 하찮은 이의(異議)를 들고 나오라. 그리고 자기네 방법을 자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자연의 방법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실지 문제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의 아이가,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야 하며,<sup>9</sup> 복종 때문이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미 한 바 있다. 따라서 ‘복종하다’라는 말이나 ‘명령하다’라는 말은 아이의 사전에서 추방될 것이며, 의무니 책임이니 하는 낱말은 더구나 그렇다. 그 대신 힘 · 필요 · 무능력 · 구속 같은 낱말들은 그 사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철들 나이가 되기 전에는, 도덕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사회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념도 가질 줄을 모른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낱말들은, 아이가 그런 낱말들에다 맨 먼저 틀린 관념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우니,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한번 주어진 틀린 관념은 영 지울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말이다. 아이 머리에 들어간 틀린 첫 관념은, 아이 속에서 오류와 악덕의 씨가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첫 한 걸음이다. 아이가 감각적인 사물들의 자극밖에는 받지 않는 동안은, 아이의 모든 관념이 감각에 멈춰 있게 하라. 아이가 제 주위의 어디서나 물리적인 세계밖에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영락없이 아이가 여러분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거나, 여러분이 말하는 도덕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이 평생 지우지 못할 엉뚱한 관념을 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아이들과 함께 추리한다는 것이 로크의 으뜸가는 격률이었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유행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성과는 그 격률을 믿게 하기에 싹 알맞은 것 같지가 않다. 또 나로서는 어른과 그토록 추리해 온 아이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본다. 말하자면 인간의 탄 모든 능력들을 합친 것에 불과한 이성,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가장 늦게 발달하는 능력이다. 그런

9 괴로움이 흔히 하나의 필요성이듯이 기쁨도 때로는 하나의 필요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결코 들어 주어서는 안 될 아이들 욕망이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남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겠다는 욕망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특히 그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기에 대해서다. 아이들에게 실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들어 주라. 번덕에서만, 아니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거절하라.

데 첫 능력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이 능력을 쓰겠다니! 좋은 교육의 결작이란 이성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성에 의해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우거대다니! 이는 끝부터 시작하자는 것이고, 만든 것을 연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리를 안다면 교육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아이들에게 말함으로써, 아이들을 말로만 만족하고, 남이 하는 말 모두를 따지며, 자기 선생 못지않게 저도 현명하다고 자부하며, 말다툼을 좋아하는 반항아가 되게 길들이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동기들에 의해 아이들로부터 얻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그런 동기들에 언제나 끼어들게 마련인 부러움이나 겁이나 허영심 같은 동기들에 의해서밖에는 결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주거나 줄 수 있는 온갖 도덕 공부는 거의 모두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 |    |                         |
|----|-------------------------|
| 선생 | 그런 짓을 해서는 못쓴다.          |
| 아이 | 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
| 선생 | 그건 나쁜 짓이니까.             |
| 아이 | 나쁜 짓이라뇨? 무엇이 나쁜 짓인가요?   |
| 선생 | 금지된 일이지.                |
| 아이 | 금지된 짓을 하면 무슨 나쁜 일이 있나요? |
| 선생 | 말을 듣지 않았단 해서 벌을 받게 돼.   |
| 아이 | 아무도 모르게 하지요.            |
| 선생 | 누가 엿볼 거야.               |
| 아이 | 숨어서 하지요.                |
| 선생 | 너한테 누가 물어 보게 될 거다.      |
| 아이 | 난 거짓말을 하겠어요.            |
| 선생 | 거짓말을 해선 못써.             |
| 아이 |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

선생           그건 나쁜 짓이니까, 등등.

이것은 피하지 못할 순환논법이다. 여기서 빠져 나가 보라. 아이는 여러분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말 터이니, 바로 이것이 아주 유익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대화 대신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이지 알고 싶다. 로크 자신도 무척 당황했을 것이 틀림없다. 선과 악을 아는 일, 인간의 의무들의 깨닫을 깨닫는 일은, 아이가 할 일은 아니다.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아이이기를 바란다. 이 차례를 우리가 뒤집어 놓으려 들면, 익지 않아 맛있는, 금방 씹어 버릴 듯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린 박사나 늙은 아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있다. 그것을 우리의 방식과 바꿔치려 드는 이상으로 지각없는 일은 없다. 10살에 판단력이 있는 아이라면 키도 5자는 되어 주었으면 싶다. 사실이지 그 나이의 아이에 이성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성은 힘의 브레이크이고, 아이에게는 이런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

여러분은 자기 제자들에게 복종의 의무를 납득시키려다가, 그 자칭 설득이라는 것에다가 힘과 협박을, 아니면 더욱 고약한 아침과 약속을 덧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해 관계에 끌리거나 힘에 얽매인 아이들은 이성에 의해 납득당한 체한다. 여러분이 복종이나 반항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복종은 저한테 이롭고 반항은 해롭다는 것을 아이들은 썩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싫은 것만 요구하고 또 남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힘드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뜻대로 할 때는 숨어서 하게 되는 바, 그것은 불복종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으나, 드러나면 더 나빠질까 봐 겁이 나니 잘못을 곧 시인하겠다는 배짱에서다. 의무라는 이유는 아이들 나이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정말로 깨닫게 만들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별반을 걱정·용서받을 희망·성가신 채촉·대답하는 군색함이, 요구하는 자백 모두를 아이들로부터 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거북하게 만들거나 겁먹게 만든 것뿐인 걸 가지고 설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생겨나는가? 첫째로 아이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의무를 과함으로써

여러분은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압제에 대해 악감을 품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상을 앗아 내거나 벌을 면하기 위해 엉큼하고 거짓되고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 주는 셈이 된다. 끝으로, 숨은 동기(動機)를 뻔한 동기로 늘 뒤집어씌우는 버릇을 들임으로써, 노상 여러분을 속이는 수단을, 아이들의 진짜 성격을 알지 못하게 막는 수단을, 필요할 때마다 빈말로 여러분이나 남들에게 대꾸하는 수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대어 주게 된다. 법률이란 양심에는 비록 의무적인 것이긴 하나, 어른들에게도 역시 구속은 가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그렇다. 하지만 그 어른들이란 교육에 의해 망쳐진 아이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리 막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이들과는 힘을, 어른들과는 이성을 사용하라. 이것이 자연적인 질서다. 현자는 법이 필요 없다.

제자를 그 나이에 따라 다루라. 먼저 제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에 꼭 붙들고 있어, 빠져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제자는, 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제자에게 결단코 명령하지 말라. 무슨 일이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갖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다만 자기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하다는 사실만을 알게 하라. 자기 처지와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는 여러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그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라. 자연이 인간에게 씌우는 엄한 멍에, 끝 있는 존재 모두가 그 밑에 굽혀야 하는 필연의 무거운 멍에가 교만한 제 머리에 걸려 있음을 일찌감치 깨닫게 하라. 이런 필연을 사물들 손에서 찾아보게 하되, 결단코 사람들의 변덕<sup>10</sup> 속에서 보게 하지는 말라. 그를 붙드는 재갈은 힘이여야지, 권위이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삼가야 할 일을 그에게 금하질랑 말라. 설명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것을 하는 것을 막기만 하라. 허락해 줄 것은 첫마디에 주라. 사정하거나 비는 일이 없게, 특히 조건을 달지 말고, 기꺼이 주고, 거절은 싫은 얼굴로만 하라. 그런데 모든 거절은 취소될 수

10 아이란 자기 의지에 어긋나는 의지는 다 변덕으로 볼 것이고,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아이란 자기 변덕에 거슬리는 것 모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없어야 한다. 아무리 졸라 대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입 밖에 나온 “안 돼(non)”는 청동(靑銅)의 벽이어야 한다. 아이가 대여섯 번 제 힘을 써 없애지 않고도 그것을 깨뜨릴 엄두는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바란 것을 얻지 못할 때라도, 참을성 있고 꾸준하고 단념이 빠르고 태연한 아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사물에서 오는 필연은 끈기 있게 견뎌 내나, 남의 악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젠 없어(il n’y en a plus)”라는 말은, 아이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나 생각지 않는 한, 아이의 반발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대답이다. 더구나 여기서는 중간이란 없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거나, 처음부터 완전히 복종시키거나 해야 한다. 가장 나쁜 교육은, 아이더러 제 의지와 여러분의 의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두는 일이며, 그래서 여러분과 아이가 서로 이기려고 노상 말다툼하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이가 늘 이기는 편이 백배나 낫겠다.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참견하기 시작한 후로 그들을 이끌기 위한 연장으로 경쟁심 · 질투 · 시샘 · 허영심 · 탐욕 · 비굴한 겉 같은 가장 위험스러운 온갖 정념들, 가장 재빨리 괴어, 몸이 형성되기도 전에 영혼을 썩히기에 가장 알맞은 정념들밖에는 생각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야릇한 일이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 드는 때 이른 가르침 하나하나가 아이들 마음 밑바닥에 악덕을 심는다. 지각없는 교사들은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다가 아이들을 악하게 만들면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점잖게 말한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다. 당신들이 만든 인간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온갖 연장을 다 써 보았다. 영락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빼어 놓고, 그것은 제대로 가다듬어진 자유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범칙들만 가지고 아이를 바라는 곳으로 이끌 줄 모른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참견도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의 범위와 할 수 없는 것의 범위가 아이에게는 똑같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사람들은 뜻대로 아이 둘레에 하나는 넓히고 하나는 좁힌다. 필연이라는 밧줄만을 가지고, 아이가 투덜대지도 못하게, 아이를 엮매고, 밀어내고, 붙잡고 한다. 어떤 악덕도 아이 속에 싹틀 겨를이 없게, 사세(事勢)의 힘만 가

지고 이를 유순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정념들이란 그것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성질의 것인 한 결코 생기를 띠지는 않는 법이니까.

입으로 하는 어떤 유의 가르침도 제자에게 주지 말라. 아이는 그것을 경험에서밖에 받아서 안 된다. 어떤 유의 벌도 가하지 말라. 아이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코 용서를 빌게 하지도 말라. 아이는 여러분을 모욕할 줄을 모를 테니까. 제 행동에 도덕성이라곤 전혀 없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벌이나 꾸지람을 받을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검책은 독자가 이 아이를 우리 아이들과 견주고 있는 것이 벌써 보인다. 독자의 잘못이다. 여러분이 제자들을 엮매는 그 끝없는 거북함이 그들의 기운을 꼬드기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데서 거북하면 할수록 빠져 나오면 더 부산스럽다. 할 수만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가하는 그 엄한 속박의 별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 학생들이 온 마을의 젊은이보다도 한 고장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양반 아이와 농부 아이를 한방에 가두어 보라. 먼저 아이는 나중 아이가 제자리를 뜨기도 전에 죄다 뒤집어엎고 부술 것이다. 자기 자유에 늘 자신이 있는 농부 아이가 결코 서둘러 그것을 씹먹으려 들지 않는 데 비해, 양반 아이는 제멋대로 되는 순간을 기를 쓰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기가 어르거나 억눌러 기르기가 일쑤인 시골 아이들도, 내가 그래 주었으면 하는 상태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본성(자연)의 첫 충동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따질 여지없는 격률로 삼자.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인 악이라곤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어디로 해서 들어온 것인지 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악덕도 그 속에는 없다. 인간이 타고난 유일한 정념은 자신에 대한 사랑, 또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존심이다. 이 자존심은 그것 자체에 있어서나 우리와 관련되는 면에서는 선하고 유익하다. 또 그것은 남과는 필연적인 관계라곤 없는 것인 만큼, 이 점에서는 본래 이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의 적용이나 그것에 주는 관계에 의해서만 좋아도 지고 나빠도 진다. 자존심의 길잡이인 이성(이성)이 생겨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 아이는 남이 보거나 듣는다 해서, 한 마디로 말해 남들과의 관계 때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며, 자연(본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밖에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이가 결코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고, 제 몸을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손 닿는 곳에 값진 가구가 있어도 아마 부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나쁜 행위란 해치려는 의도에 달린 것이고 아이는 결코 그런 의도를 가질 리가 없는 만큼, 나쁜 짓이 되지 않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의도를 가진다면 볼 장은 이미 다 본 것이다. 아이는 거의 구할 도리 없는 악인이 될 것이다.

이성(理性)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구두쇠 눈에는 나쁘게 보인다. 아이들을 제멋대로 까불게 두려면, 손해 갈 만한 것은 모조리 멀리 두어, 망가지기 쉽거나 값진 것은 아무것도 손 닿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들 방은 허름하고 단단한 가구들로 차려지도록 하라. 거울이나 도자기나 사치한 물건들은 안 된다. 내가 시골에서 가르치는 에밀로 말하자면, 그의 방에는 농사꾼 방과 달리 보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얼마 있지도 않을 방을 공들여 꾸며서 무엇하랴? 그런데 나도 틀렸다. 그는 제 손으로 제 방을 꾸밀 것이고, 무엇으로 꾸미느냐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쩌다가 무슨 법석을 떨거나 무슨 긴요한 것을 부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홀을 가지고 아이를 벌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꾸지람은 한 마디도 듣지 않게 하라. 저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썩인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마치 가구가 절로 부서지길라도 한 것처럼 하라. 요컨대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않고 배길 수만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라. 여기서 나는 교육 전체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유익한 규칙을 감히 말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시간을 따는 일이 아니고 읽는 일이다. 일반 독자들이여, 내 역설(逆說)을 용서하라. 깊이 생각할 때는 역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편견을 가진 인간이기보다는 역설을 하는 인간이고 싶다. 생애의 가장 위험한 사이는 나서 12살까지의 사이다. 잘못이나 악덕들이, 아직은 그것들을 무찌를 아무런 연장도 없는 채 싹트는 시기다. 그리고 그런 연장이 생겨날 때에는 뿌리가 너무 깊어 이미 뽑을 수가 없게 된다. 아이들이 젓먹이에서 철들 나이로



단박 뛰어넘는다면, 베푸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알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진전에 따른다면 전혀 반대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영혼이 전 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아이들이 제 혼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눈뜨지 않는 동안은 여러분이 내미는 빛을 알아보지 못 하며, 가장 밝은 눈에도 이성이 희미하게만 가리켜 보이는 길을, 아이의 영혼이 관 념의 드넓은 들판에서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 첫 교육은 순전히 소극적이어야 한다. 첫 교육은 미덕이나 진리를 가르치 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악덕에서, 정신을 잘못에서 막아 주는 데 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게 두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제자를 오른손 과 왼손도 구별할 줄 모르는 채 건강하고 튼튼하게 12살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첫 수업에서부터 아이의 이해력의 눈은 이성을 향해 뜨게 될 것이다. 편 견도 습성도 없는 아이는 여러분의 보살핌의 효과를 방해할 만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여러분의 손에서 곧 가장 현명한 인간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교육을 한 것이 될 것이 다.

관례의 반대로 나가라. 그러면 거의 언제나 잘 한 일이 될 것이다. 아이를 아이로 만들 생각은 없고 박사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선생들이 아무리 일 짝부터 꾸짖고 바로잡고 징계하고 발라맞추고 올려대고 약속을 하고 가르치고 이 치를 따지고 해도 늦기만 했다. 더 잘 해 보라. 이치에 맞게 하되, 제자와는 이치를 따지지 말라. 싫어하는 것을 아이에게 동의시키기 위해서는 더구나. 왜냐하면 그 령게 이치를 늘 기분 나쁜 것들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치를 귀찮은 것으로만 여 기게 만들어, 아직은 이치를 이해할 처지에 있지 않는 머리더러 애초부터 이치를 불신하게 만들 따름이니까. 아이의 육체나 기관 · 감각들은 훈련시키되, 영혼만은 되도록 오랫동안 놀려 두라. 생각들을 평가하는 판단력이 생기기 전의 모든 생각 들을 두려워하라. 밖에서 오는 인상들은 가로막아 주라. 그리고 악이 생겨나는 것 을 막기 위해 선을 행하도록 서둘러 대지 말라. 선이란 이성이 밝혀 줄 때밖엔 선 일 수 없으니까 말이다. 모든 유예를 이득으로 보라.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크게 버는 것이 된다. 어린 시절이 아이들 속에서 익도록 두라. 요컨대 어떤 교훈이 아이들에게 필요해지더라도, 위험 없이 내일까지 미룰 수만 있다면 오늘 주는 것은 삼가도록 하라.

이 방법이 유익함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고려는, 어떤 정신 섭생이 아이에게 알맞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 두어야 할, 아이의 특수 천분에 대한 고려다. 정신에는 저마다 고유한 형태가 있어, 그것에 따라 정신은 다스려질 필요가 있다. 또 돌봐 주는 노력의 성공에는, 딴 형태가 아닌 바로 이 형태에 따라 정신이 다스려지는 일이 중요하다. 조심성 있는 인간이며, 본성을 오랫동안 염탐하라. 제자에게 첫 말을 하기 전에 제자를 잘 관찰하라.

우선 아이의 성격의 싹이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나도록 두라, 그것을 송두리째 더 잘 보기 위해 무엇으로건 강제하질랑 말라. 이런 자유의 기간이 아이에게 허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반대로, 가장 잘 쓰인 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귀중한 시기에 단 한 순간도 허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반대로, 해야 할 바를 알기도 전에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턱대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틀리기가 일쑤여서, 되돌아와야 할 것이다. 목적에 이르려고 덜 서둘러 댔던 경우보다도 더 멀리 목적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다가 더 잃는 구두쇠 같은 짓은 하지 말라. 첫 시기에는 시간을 희생하라. 나중 시기에 가서 이자까지 붙여 도로 따게 될 시간이니까. 현명한 의사는 첫눈에 경솔하게 처방을 내리지 않고, 병자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기 전에 우선 그 체질을 연구한다. 치료는 늦게 시작해도 병자는 낫는다. 너무 서두르는 의사가 병자를 죽이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무감각한 존재처럼, 자동인형처럼 기르려면, 그 아이를 우리는 어디다 둘 것인가? 달나라나 무인도에 붙들어 둘 것인가? 인류 모두로부터 떼어 둘 것인가? 아이는 세상에서 남의 정념의 광경이나 본보기를 계속 보지 않을 것인가? 제 또래의 딴 아이들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인가? 부모도, 이웃도, 유모도, 가정부도, 종도, 그리고 필경은 천사가 아닌 교사까지도 보지 않게 될 것인가?

이런 반대 주장은 강력하고 견고하다. 그런데 자연 교육이 손쉬운 일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는가? 오, 인간들아, 당신들이 좋은 것을 모조리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잘못인가? 그 어려움들은 나도 느끼고 있다. 그렇다. 어쩌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피하기에 전심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확실하다. 설정해야 할 목표를 나는 제시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목표에 가장 접근하는 자가 가장 성공하게 되리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감히 한 인간을 만들어 내기를 피하기 전에 자신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만들어 내려는 것의 본보기를 자신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아이가 아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동안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 모두가 보아도 좋은 것들밖에는 아이의 첫 시선에 띄지 않도록 마련해 줄 시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하라. 저마다가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도록 만들기 위해, 우선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어나라. 여러분은 아이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의 스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러한 권위는 미덕에 대한 존경심에 뿌리박지 않고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갑을 털어 돈을 마구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든 예를 나는 여태 본 적이 없다. 인색하거나 물인정해서는 안 되며, 도와 줄 수 있는 비참을 동정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금고만 열어서도 헛일일 것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지 않고서는 남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힌 그대로일 것이다. 주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정성·여러분의 애정이고, 여러분 자신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남은 늘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주기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실지로 더 유익한, 관심과 호의의 정표가 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자들과 병자들이 적선보다도 위로를 아쉬워하고 있는가! 돈보다는 보호가 소용되는 얼마나 많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가! 사이 나쁜 사람들은 화해시키고, 소송은 미리 막으라. 아이들은 의무로, 아버지들은 관용으로 이끌어 주라. 행복한 결혼은 권장하라. 남을 약올리는 짓은 가로막으라.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권력자에게 짓눌리는 약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제자의 부모들의 명망을 아낌없이 이용하라. 불행한 자들의 보호자임을 소리 높여 선언하라. 올

바르고 인간적이고 인정 있는 사람이 되라. 적선만 하지 말고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 행위는 돈보다도 더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 남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들에게 봉사하라,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에게 봉사할 것이다. 그들의 형제가 되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아이가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에밀을 시골에서, 주인 다음으로 인간말썹인 천한 종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기르고 싶어 하는 이유의 하나다. 겉치레로 뒤덮여 있어 아이들에게는 유혹적이고 전염성 있는 도시의 고약한 풍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다. 반대로 꾸밈없이 거친 그대로인 농민들의 악습은, 흉내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유혹하기보다는 퇴짜 맞기에 알맞다.

마을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평판이나 말이나 시범은, 도시에서는 얻지 못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저마다가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서 다투어 그를 돌봐 주려 들고, 그의 존경을 받으려 들고, 선생이 실지로 그래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대로 저마다가 제자 앞에 나타나려고 들 것이며, 설사 악덕은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창피한 짓은 삼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모두가 이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남을 탓하기를 그만두라. 아이들이 보는 악은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악보다는 아이들을 덜 타락시킨다. 노상 설교하고 노상 도덕적인 체 유식한 체하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관념 하나에 대해 쓸데없는 탄 관념 스무 개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된다. 여러분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꼭 차 버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빚어 내는 결과는 보지 못하게 된다. 쉴 새 없이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여러분의 그 장황한 수다 중에는 그래, 아이들이 잘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이들이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장황한 설명을 비판하고, 제 힘 나름의 체계를 만들 건더기를 그 속에서 찾아 내어,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과 맞설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가르쳐 온 어린애 말을 들어 보라. 제멋대로 수다를 떨고 질문을 하고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게 두어 보라. 여러분의 억설이 아이 머릿속에서 취한 괴상한 꼴에 놀라

게 될 것이다. 아이는 모두를 혼동하고 뒤엎으며, 여러분의 애를 태우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반대 주장으로 낙심시킨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거나 아이 입을 다물게 할 도리밖에는 없다.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이러한 침묵을 아이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이가 이런 승리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교육은 마지막이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끝나, 아이는 더 배우려 들지 않고, 여러분을 반박하려고만 들 것이다.

열심인 선생들이여, 단순해지고 신중해지고 조심성을 가지라. 남들이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밖에는 결코 서둘러 행동하지 말라. 나는 늘 되풀이하겠지만, 나쁜 교육을 주게 될까 봐 겁내어 좋은 교육은 되도록 뒤로 미루라. 자연이 인간의 첫 낙원으로 만든 이 지구 위에서, 천진한 아이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넣어 주려다가 유혹자 노릇을 하게 되거나 앓을까 두려워하라. 아이가 밖에서 본보기들에 의해 배우지 않게 막을 수는 없으니, 그런 본보기들이 아이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아이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는 데만 여러분의 주의 모두를 국한하라.

격렬한 정념은 아주 뚜렷이 드러나 아이를 자극해 주의를 쏟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므로, 그것을 목격하는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여움은 흥분 되면 하도 야단스러워서, 가까이 있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교육자에게는 근사한 연설을 시작할 찬스가 아닌가 하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천만에, 근사한 연설이 다 뭐냐! 아무것도, 단 한 마디도 소용없다. 아이더러 오게 두라. 보고 놀란 아이가 영락없이 여러분에게 까닭을 물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아이의 감각을 자극하는 대상물 자체에서 대답은 나온다. 아이는 상기된 얼굴이며 반짝이는 눈, 울러대는 몸짓을 보고, 고함 소리를 듣는다. 몸이 여느 때 상태가 아니라는 온갖 표적을 말이다. 감출 것 없이 태연하게 아이에게 말하라. 이 가엾은 인간은 병에 걸려 열이 나 있다고. 여러분은 여기서 병과 그 작용에 대한 관념을 아이에게 넣어 줄 찬스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자연에서 오는 것이며, 아이가 저도 묶여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필연의 밧줄의 하나니까.

틀리지 않은 이러한 관념에 비추어 아이는, 제가 병으로 보게 될 지나친 정념에 사

로잡히는 일에 대해 진작부터 어떤 반감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또 여러분은 제때에 주어진 이러한 지식이 가장 파분한 도덕 설교 못지않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지 말고 이러한 지식이 앞날에 가져올 결과를 보라! 우선 우리는 마지못할 경우 반항적인 아이를 병든 아이로 다루어도 좋게 된다. 아이의 병을 고쳐 주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분이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엄한 조치를 아이가 별로 여기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필요하다면 침대에 눕혀, 몸조리를 시키고, 씹트는 악덕들에 제가 겁을 먹게, 그것을 알맞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흥분된 순간에 여러분의 일에 필요한 냉정이나 절제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잘못을 아이에게 감추려고 들지는 말라. 오히려 부드러운 비난을 가하면서 솔직하게 아이에게 말하라. “얘야, 네가 나한테 병을 주었어”라고.

뿐더러 아이가 품고 있는 단순한 관념들이 아이 머릿속에서 빚어 낼 수 있는 온갖 천진난만함이, 아이 있는 데서 지적되거나 아이가 짐작할 수 있도록 인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경솔한 한바탕의 웃음이 여섯 달 동안 한 일을 망쳐 놓고, 평생 돌이키지 못할 해를 끼칠 수 있다. 아이의 스승이 되려면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충분치가 않다. 이웃 여자 둘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성이 더 난 여자 쪽으로 나아가 동정하는 말투로, “아줌마, 병이 나셨군요. 참 안됐습시다”라고 말하는 우리 꼬마 에밀을 상상해 본다. 이러한 기지는 영락없이 구경꾼들에게, 어쩌면 당사자들에게도 효과를 주지 않고는 두지 않을 것이다. 에밀이 그 효과를 알아챌 수 있기 전에, 아니면 적어도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웃거나 나무라거나 칭찬하지 않고 좋건 싫건 그를 데리고 나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해 줄 만 일들 쪽으로 얼른 마음을 돌리게 해 주는 것이다.

내 계획은 온갖 세부(細部)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격률들을 설명하고, 어려운 경우의 실례들을 보이는 일이다. 사회의 품 안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나 인간 행동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관념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12살 될 때까지 아이를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본다. 그러한 지식들이 되도록 나중에 아이에게 필요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족하며, 그것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단지 아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자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알지 못해서 남에게 마구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 지식들을 당장 소용되는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애초의 천진무구한 상태에 오래 두어도 위험이 없는 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잔인성이 일찍 발달해서, 마지못해 묶어 두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나운 성질의 아이들도 있다.

우리의 첫 의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다. 우리의 본래의 감정은 우리 자신에 집중된다. 우리의 타고난 충동 모두는 우선 자신의 보존이나 안락과 맺어진다. 그래서 첫 정의감은 우리가 해야 될 정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 주어야 될 정의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맨 먼저 그들의 의무 이야기만 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의 반대를, 그들이 알아들지 못할 것,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또한 일반 교육의 빛남의 하나다.

그러니 만일 내가 위에서 가정한 아이들의 하나를 지도해야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아이란 사람들<sup>11</sup> 아닌 사물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아이는 나이 나 힘에 있어 저를 능가하는 누구나를 존경하는 법을 경험에 의해 이내 배우게 된다. 그런데 사물들은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에게 주어야 할 첫 관념은 자유의 관념보다는 소유의 관념이다. 그리고 아이가 소유 관념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이의 옷가지나 가구나 장난감들을 아이에게 예로 들어 보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비록 그것들을 마음대로 쓰기는 하나,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알지 못하니까 말이다. 남이 주어서 가지게 되었다고 아이에게 말해 준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다.

11 아이가 어른들에게 덤벼드는 것을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손아랫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설사 하인이나 망나니라 하더라도, 감히 아이가 진심으로 누구를 때리거든, 반드시 맞은 이상으로 때려서 갚게 하라. 그럴 생각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조심성 없는 여가정교사들이 아이의 반항심을 꼬드겨 때리도록 부추기고, 자기들도 얻어맞으며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웃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화난 꼬마 생각으로는 그것이 살인 행위 못지않아, 어러서 남을 때리려는 자는 커서는 죽이려 들 것이라는 점은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주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 그것은 아이의 소유 이전의 소유다. 그런데 아이에게 설명해 주려는 것은 소유의 원리다. 무엇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인데 아이는 아직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셈에 넣지 않고 말이다.<sup>12</sup> 독자들이여, 이 예에서나 또 무수한 예에서나, 아이들 능력에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들만 아이들 머리에 쑤서 넣어 주면서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믿겠는가, 제발 이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 소유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소유의 첫 관념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니까. 시골에 살면 아이는 들일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는 눈과 여가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는 양쪽을 다 가질 것이다. 창조하고 모방하고 생산하고 싶어 하고, 능력과 활동력을 드러내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나이에거나 그렇지만 특히 아이 때의 소원이다. 밭을 갈고 씨 뿌려 채소가 돌아나 자라는 것을 두 번 보기도 전에 아이는 제 손으로 가꾸어 보고 싶어질 것이다.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 나는 아이의 소망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소망을 부추겨 주며, 아이의 기쁨보다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아이와 취미를 같이 하고 아이와 함께 일한다. 최소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이의 머슴이 된다. 아이 팔에 힘이 붙을 때까지 내가 대신 땅을 간다. 아이는 땅에 잠두콩을 심음으로써 그 땅을 차지한다.<sup>13\*</sup> 그리고 이런 소유는 정말이지,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sup>14\*</sup>가 남극 바다 해안에 국기를 세움으로써 스페인 왕의 이름으로 차지한 남미 점유 이상으로 신성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잠두콩에 물을 주고, 그것이 돌아나는 것을 보며 기뻐 어쩔 줄을 모

12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준 것을 되받으려 들며, 남이 돌려 주려 들지 않으면 운다. 선물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주는 일에 있어 더욱 신중해진다.

13\* 이것은 로크의 이론이다(《시민 정제론》): “나는 내 노동이 만들어 낸 것의 임자다. 감지 않은 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만 무엇인가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마땅히 씨 뿌리고 기를지게 한 자에게만 속한다.”

14\* Vasco-Núñez de Balboa, 1513년에 처음으로 태평양에 도달한 스페인의 탐험가.



른다. 나는 아이에게 “이건 네게 딸린 것이다”라고 말해 줌으로써 이 기쁨을 더욱  
 늘려 준다. 그리고 그때 이 “딸린다”라는 말을 설명해 줌으로써, 제 시간과 노동과  
 고생을, 요컨대 제 자신을 거기에 쏟아 놓았음을 그에게 깨닫도록 해 준다. 마치  
 억지로 그를 붙잡으려는 남의 손에서 그가 제 팔을 떼어 낼 수 있듯이, 어느 누구  
 에 대해서나 버젓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이 그 땅속에 있음을 말이  
 다.

어느 날 그는 물부리를 손에 들고 바쁜 걸음으로 거기에 온다. 오, 이 무슨 꼴이람!  
 오, 마음 아프게도! 잠두콩은 모조리 뿔히고 땅은 온통 파헤쳐져, 자리조차 알아볼  
 수가 없다. 아, 내가 한 일, 내가 가꾼 것, 내 정성과 땀의 열매는 무엇이 되었는  
 가? 누가 내 재산을 앗아 갔는가? 누가 내 잠두콩을 훔쳐 갔는가? 어린 가슴은 꿈  
 틀거린다. 부정(不正)에 대한 첫 감정이 가슴에 쓰라린 슬픔을 쏟아 놓는다. 눈물  
 이 마구 흘러내린다. 비탄에 잠긴 아이의 울부짖음에 공기가 진동한다. 그의 괴로  
 움과 노여움에 나도 공감해 준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수색을 해 준다. 마침내 머슴  
 이 한 짓이라는 게 밝혀진다. 그를 오게 한다.

그런데 틀린 것은 바로 우리다. 왜 투덜대는지를 안 머슴이 우리보다 더 큰 소리  
 로 투덜대기 시작한다. 뭐라고요, 도련님! 제가 해 놓은 일을 이렇게 망쳐 놓은 것  
 은 도련님인가요? 제가 보물 얻듯이 얻은 말타 멜론 씨를 여기다 심어 두었거든입  
 쇼. 저는 또 그 열매가 익으면 도련님께 한턱 쓸 생각이었습쇼. 그런데 이게 뭐니  
 까. 그 형편없는 잠두콩을 심느라고 벌써 죄다 돌아난 멜론을 파헤쳐 놓았으니, 다  
 시는 구할 수도 없는 제 멜론을 말입니다. 제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쳐 주  
 셧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기막힌 멜론을 맛보실 기쁨을 스스로 놓쳐 버리신 거  
 예요.

장 자크      미안해, 로베르. 자네는 여기다 자네의 노동과 고생을 쏟아 놓았어.  
 자네 일을 망쳐 놓은 잘못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우리는 말  
 타 멜론 씨를 얻어 주겠고, 앞으로는 누가 먼저 손을 대었는지 알기

- 전에는 땅을 갈지 않도록 하겠네.
- 로베르 오, 좋습니다! 그럼 가만 계시면 돼요. 갈지 않은 땅이라곤 이제 없으니깐요. 저는 제 부친이 개간한 땅을 갈고 있거던입쇼. 누구나라 그러고 있으니, 보시는 땅은 죄다 오래전부터 주인이 있습쇼.
- 에밀 로베르, 그럼 멜론 씨가 못 쓰게 되는 수가 흔히 있겠군?
- 로베르 용서하세요, 도련님. 도련님만큼 경솔한 도련님들이 그리 흔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도 이웃 사람 밭을 건드리지는 않으니깁쇼. 자기 일이 안전하려면 남들의 일도 다들 존경하거든요.
- 에밀 하지만 내겐 밭이 없잖아.
- 로베르 그게 제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 밭을 망쳐 놓게 되면 이젠 걸어나시지도 못하게 할테니깁쇼. 왜냐고요? 저도 헛고생은 하고 싶지 않으니깐요.
- 장 자크 착한 로베르한테 이런 타협안을 내 놓을 수는 없을까? 수확의 반은 주인이 갖는다는 조건으로 밭 한구석을 내 꼬마 친구와 나에게 갈도록 허락해 주기로 말일세.
- 로베르 그건 무조건 받아들이지요. 하지만 제 멜론에 손만 대시면, 잠두콩은 파헤쳐 버릴 테니 알아 두셔야 해요.

시초의 관념들을 아이들 머리에 넣어 주는 방법에 관한 이와 같은 시도에서 우리는, 소유 관념이 어떻게 해서 절로 노동에 의한 첫 소유자의 권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를 알게 된다.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순하여, 언제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소유권이나 교환까지는 한 걸음의 상거밖에는 없지만, 그다음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두 페이지 안에 써 넣은 설명이, 실천에는 아마 한 해가 걸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관념들의 길에서는, 너무 느리게 나아간다가나, 한 발 한 발을 너무 힘주어 디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젊은 스승들이여, 제발 이 본보기를 잘 생각해 달라. 그래서 만사에 있어 여러분의 가르

침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제가 한 말이나 남이 해 준 말은 곧잘 잊어 먹지만, 제가 한 일이나 남이 해 준 일은 그렇지 않으니깐.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이의 얌전하거나 떠들썩한 성질이 그 필요를 앞당기느냐 늦추느냐에 따라 일찍 또는 늦게 주어져야 한다. 주는 방법은 뻔하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기로 하자.

여러분의 까다로운 아이가 만지는 것은 모조리 망가뜨린다. 화내지 말라. 망가뜨릴 만한 것은 손 닿지 않는 곳에 두라. 제가 쓰는 가구들을 부순다. 서둘러 탄 가구를 주지 말라. 없어져서 받는 손해를 깨닫게 두라. 제 방의 창문을 깨뜨린다. 감기 걱정일랑 말고 바람이 밤낮으로 불어 닥치게 두라. 바보가 되기보다는 감기 드는 편이 나으니깐. 아이가 가져오는 불편에 대해 투덜대지 말고, 아이가 먼저 그것을 느끼게 해 주라. 나중에 가서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유리를 갈아 끼워 준다. 그것을 또 깨뜨릴까? 그때는 방법을 바꾸라. 아이에게 통명스럽게, 그러나 화는 내지 말고 말하라. 유리는 내 것이다. 내가 공들여 깬 것이다. 나는 유리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는 아이를 창 없는 어두운 곳에 가두라. 이 뜻하지 않은 방법에 아이는 소리를 질러 법석을 떨기 시작한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윽고 아이는 지쳐 태도를 바꾼다. 하소연을 하고 끔끔거린다. 하인이 나타나고, 개구쟁이는 내어 달라고 사정한다. 하인은 그러지 못하는 핑계를 꾸며 대려 들지 말고, 그저 “저도 간수해야 할 유리창이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가 버린다. 결국은 아이가 거기서 몇 시간을, 지겨워져 기억에 남을 만큼 오래 있고 난 뒤에, 다시는 유리를 깨지 않겠으니 놓아 달라고 여러분에게 제의하도록 누가 아이에게 귀뜸해 주도록 하라. 아이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누구를 시켜 여러분에게 와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여러분은 가 주라. 아이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당장 받아들이라.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에게 다 득이 될 거야. 이런 좋은 생각을 왜 진작 하지 않았지! 그리고는 아이더러 서약도 약속의 확인도 요구하지 말고, 엄숙한 선서라도 행한 듯이 그 합의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보고,

아이를 기꺼이 호응해 주며 곧 제 방으로 데리고 가라. 이러한 방법에 있어 아이는 약속의 성실성과 그 효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버린 아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지도에도 끄떡 않는 아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일부러 창문을 깨뜨릴 엄두를 내는 아이가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틀렸다.<sup>15</sup> 이 모든 연줄을 좇아 생각해 보라. 꼬마 심술쟁이는 잠두콩을 심을 구멍을 파면서, 제 지식이 이내 저를 가두게 될 감옥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도덕의 세계에 와 있다. 여기에 악덕 쪽으로 열린 문이 있다. 약속이나 의무와 더불어 속임수나 거짓말이 생겨난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 있게 되자,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은 감추려 든다. 이해 관계가 약속을 맺게 만들자, 더 큰 이해 관계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게 만든다. 이젠 탈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꾀는 절로 생겨난다.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다. 악덕을 미리 막지 못한 우리는, 어느새 악덕을 별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과실(過失)과 더불어 시작되는 인생의 비참이다. 아이들에게는 벌이 별도로 주어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제가 한 나쁜 짓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나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 그러니 거짓말에 대해 야단치지 말라. 거짓말을 했다고만 해서 별하질랑 말라. 그보다도, 사실을 말해도 남이 믿어 주지 않는다든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아무리 변명해도 비난받는다든가 하는, 거짓말의 온갖 고약한 결과가, 거짓말을 했을 때 제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해 주라.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15 더구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의무감이 그 보람의 무게에 의해 아이 머릿속에서 굳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싹트기 시작하는 내면 감정이 그것을 하나의 양심의 법칙으로서 아이에게 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적용되는 지식만 얻어지면 당장 발달하는, 하나의 타고난 원리로서 말이다. 이러한 첫 특징은 사람들의 손으로 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의(正義)의 창조자가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다. 약속의 본래의 법칙과 그 법칙이 과하는 의무를 없애어 보라.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이 된다. 자기 이익 때문에만 약속을 지키는 자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약속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며, 아니면 기껏해야 그 약속을 어길 가능성으로 묶이는 게 고작일 것이다. 마치 핸디캡을 더욱 유리하게 이용할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만 그 이용을 늦추는 경기자들이 그 핸디캡으로 묶이듯이, 이 원리는 더없이 중요해 철저히 규명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모순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니까.

거짓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과거와 관련되는 사실의 거짓말과, 미래와 관련되는 당위(當爲)의 거짓말이다. 먼저 것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때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겨 댈 때, 일반적으로 일부러 사실과 어긋나게 말할 때 생겨난다. 나중 것은 지킬 생각도 없는 것을 약속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지닌 의도와 반대되는 의도를 보여 줄 때 생겨난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은 때로 하나 속에 섞이는 수도 있다.<sup>16</sup>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것으로 보기로 한다.

남들의 도움을 빌 필요를 느끼는 자, 노상 남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자는, 그들을 속일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남들이 잘못 생각해서 제 손해나 되지나 않을까 겁이 나, 그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 주었으면 하는 점에 뚜렷한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사실의 거짓말이 아이들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보다도 복종은 힘들어 남몰래 그것을 되도록 피할뿐더러, 별이나 책망을 면하려는 다급한 관심이 진실을 말하려는 동떨어진 관심보다는 앞서는 만큼, 거짓말할 필요를 낳는 것은 바로 복종의 계율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교육에서는 여러분의 아이가 왜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겠는가? 여러분에게 감출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이를 전혀 꾸짖지 않고, 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말이다. 제가 한 일을, 조무래기 친구들에게 말할 때만큼 천진하게 여러분에게 왜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백에서 아이는 친구 쪽에서나 여러분 쪽에서나 아무런 위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겠다느니 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약속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유에 어긋나는 계약 행위인 만큼, 당위의 거짓말은 더구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뿐더러, 아이들의 한정된 시야(視野)는 현재를 넘어설 수가 없어, 약속을 하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약속은 모두가 그것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는 약속할 때도 거의 거짓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장 궁지에서 빠져 나올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에게는, 당장의 효과가 없는 수단은 모두

16 못된 것을 고발당한 죄인이, 자기는 성실한 인간이라면서 자기변명을 하는 경우처럼, 이때는 사실에 있어서도 당위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 마찬가지로 되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더라도 아이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이 되며, 아직 잠자고 있는 그의 상상력은 저러는 존재를 다른 두 시간에 걸쳐 펼칠 줄을 모른다. 내일 창문에서 몸을 던질 약속을 해서 매질을 피하거나 봉봉(bonbon) 한 봉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이는 당장에 그런 약속을 할 것이다. 법률이 아이들의 약속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더욱 엄한 아버지나 선생들이 아이더러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때도, 이는 다만 아이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야 할 일에만 국한된다.

약속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는 그러니 약속을 해도 거짓말하게 될 수는 없다. 약속을 어길 때는 갇지가 않으며, 이것 역시 일종의 소급될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 약속을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다.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그는 사물의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약속을 어기더라도 제 나이의 이성애 어긋나는 짓을 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로서 아이들의 거짓말은 모두가 선생 탓이 되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쳐 주려는 것은 거짓말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열성 속에서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방편은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근거 없는 격률이나 이유 없는 규범을 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려 들고, 아이들이 몰라서 참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가르침을 알아듣고 거짓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제자들에게 실용적인 가르침밖에는 주지 않고, 아이들이 박식하기보다는 선량하기를 더 바라는 우리로서는, 아이들이 진실을 숨기게 되거나 앓을까 겁이 나서 그들에게 아예 진실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어길 마음이 생길 만한 약속은 아예 시키지도 않는다.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했는지 모를 궂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에밀을 나무라거나, “너지(est-ce vous)?”<sup>17</sup> 하고 따지는 일은 삼가겠다. 왜냐하면

17 이러한 질문만큼 지각없는 것은 없다. 아이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더구나. 제가 한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여러분이 울가미를 씌우려 든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에 대해 반감을 품게 하고야 만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 나는 내 잘못을 드러내어야만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경솔한 질문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짓말에의 첫

그럴 경우 나는 그에게 부인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밖엔 무엇이 되겠는가? 설사 그의 성질이 까다로워 무슨 약속을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런 제의가 언제나 그쪽에서 오지 내 쪽에서는 결코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그가 약속했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장 뚜렷한 이익이 되게 해 주고, 그것을 어기기라도 하면, 그 거짓말이 해를 가져오게 하되, 그것이 교사의 양심에서가 아니라 사물의 질서 자체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그런 지독한 미봉책이 필요하기는커녕 오히려, 에필이 나중에 가서 거짓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리라는 것을, 또 거짓말이 무엇에 소용되는지 알지도 못하던 그가 그것을 알고 놀라리라는 것을, 나는 거의 확신한다. 내가 그의 안락을 남들의 의지나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해 줄수록, 거짓말하려는 관심 모두를 없애 주는 셈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가르치기에 급급하지만 앓는다면, 서둘러 요구할 것도 없어, 제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 나가면 된다. 그때에 가서 아이는 조금도 버린 데 없이 절로 형성된다. 그런데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경솔한 교사가 분별도 구별도 절도도 없이 노상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약속시키게 되면, 그런 온갖 약속에 짓눌려 지쳐 버린 아이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 먹고 마침내는 업신여기며, 헛된 형식으로 보고는 장난삼아 약속을 하고 어기고 하게 된다. 그러니 아이가 약속에 충실하기를 바라거든 조심성을 가지고 요구하라.

거짓말에 관해 내가 방금 언급한 세목들은 많은 점에 있어, 아이들에게 알맞고도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서만 과해지는 만 온갖 의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미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온갖 악덕을 좋아하게 만들고 있다. 악덕을 갖는 것을 금하면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신앙심 깊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데리고 가 싫증만 나게 한다. 노상 기도를 중얼거리게 하다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만 갈망하게 만든다. 자비심을 넣어 주려고, 마치 자기가 주변 창피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를 시켜 동냥을 준다. 천만에! 주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고 선생이다. 자기 제자에 대해 아무리 애착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명예는 사

유혹인 것이다.

양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 나이로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판단케 해야 한다. 적선은 자기가 주는 것의 가치와 자기 동포가 느끼는 아쉬움을 아는 어른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아이로서는, 주는 일이 아무런 잘 한 일도 될 수가 없다. 자비심도 친절도 없이 주는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예나 여러분의 예를 근거 삼아, 적선하는 것은 아이들밖에 없고 어른이 되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일은 거의 창피한 노릇이다.

아이더러 주게 하는 것은, 아이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호주머니 속에 지닌, 또 아이에게는 그런 쓸모밖에는 없는 쇠붙이 조각들뿐이라는 점에, 아이는 과자 한 개보다는 차라리 100루이짜리 금화를 기꺼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험푼 분배자더러 장난감이나 봉봉이나 결두리 같은 제게 소중한 물건을 주도록 권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아이를 정말로 인심 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의 여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 그것은 곧 제 손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모두를 주는 버릇이 들도록, 아이가 준 것을 당장에 아이에게 돌려 주는 일이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다음 두 가지의 선심밖에는 본 일이 없다. 저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주는 일이나, 곧 돌려받을 자신이 있는 것을 주는 일의 두 가지다. 가장 인심 후한 자는 언제나 가장 많이 나누어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경험에 의해 납득하도록 만들라고 로크는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곁으로 인심 좋게, 실상은 인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리하여 아이들은 선심 쓰는 습관이 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그렇다. 소 한 마리를 얻으려고 달걀 하나를 주는, 고리 대금업자 같은 선심의 습관 말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런 습관은 잘 가거라이다. 남이 돌려 주기를 그만둘 때, 아이들도 곧 주기를 그만둘 것이다. 손의 습관보다는 정신의 습관에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다른 모든 미덕들도 이것과 비슷하며, 이런 굳건한 미덕들을 가르쳐 주느라고 아이들의 어린 나날을 침울 속에서 소모시키고 있다. 유식한 교육이 아니고 무엇인가!

스승들이여, 걸치레를 그만두라. 덕 있고 착한 인간이 되라. 여러분이 보이는 본보



기가 제자들 가슴속에 스며들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그들의 기억에 새겨지도록 하라. 나는 서둘러 내 제자에게 자선 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보는 데서 스스로 그것을 행하겠으며, 또 그것을 그의 나이에는 맞지도 않는 명예로 알고 내 흉내를 낼 수단조차도 그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의무를 그냥 아이들의 의무로만 여기는 버릇이 들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만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그가 보고 그 까닭을 묻는다면, 그리고 대답할 때가 되면,<sup>18</sup>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애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있기를 바랐을 때는 부자들도, 재산으로도, 노동으로도 살아 나갈 길이 없는 사람들 모두를 먹여 살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야”라고.

“선생님도 그럼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하고 그는 말을 이을 것이다. “아암, 나는 내 손에 들어오는 재산의 소유에 붙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그 재산의 임차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알아듣고 나서도 (아이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게 할 수 있느냐는 이미 본 바 있지만), 에밀 아닌 탄 아이는 내 흉내를 내어 부자로서 행세하려 들지 모른다. 이런 경우 나라면 적어도 자랑삼아 한 것이 되지는 않게 할 것이다. 나로서는 그가 내 권리를 빼앗아 숨어서 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는 그의 나이에 있을 법한 속임수이며, 내가 묵인할 수 있는 유일한 속임수이다.

이런 흉내 낸 미덕 모두가 원숭이의 미덕이라는 것, 또 어떤 선행도 남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행으로서 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아직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나이에서는, 그 습관을 넣어 주고 싶은 행위를 아이들이 선에 대한 사랑이나 분별에 의해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런 행위를 흉내 내게 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흉내쟁이이고, 동물도 그렇다. 흉내의 취미는 질서 있는 자연에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서는 악덕으로 변질된다. 원숭이는 제가 겁내는 인간을 흉내 내고, 제가 깔보는 동물들은 흉내

18 나는 그의 의문들을, 그에게 좋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좋을 때에 풀어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어, 교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제자への 예측 상 태에 몸을 두게 될 것이다.

내지 않는다. 저보다 나은 존재가 하는 것은 좋게 보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온갖 유의 어릿광대들이, 품위를 깎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것을 흉내 낸다. 그 천한 감정 속에서 저를 저보다 나은 것과 맞세우려고 든다. 자기들이 우러러 보는 것을 흉내 내려고 애쓰는 경우에도, 대상의 선택에는 흉내쟁이의 가짜 취미가 엿보인다. 즉 자신을 보다 낮게 보다 현명하게 만들기를 바라기 보다는, 남들을 속이거나 자기 재능이 갈채받기를 더 바란다. 우리들 사이에서 흉내의 동기는 늘 자기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에서 온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에밀은 확실히 이런 욕망은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욕망이 낳는 걸치레의 선은 없이 지내야 한다.

여러분의 교육의 모든 규칙을 파고들어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죄다 거꾸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특히 미덕이나 풍습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말이다. 어린 시절에 알맞은 유일한 도덕상의 교훈일뿐더러, 모든 나이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구에게도 결코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일이다. 좋은 일을 하라는 교훈마저도 위의 교훈에 팔려 있지 않고서는 위험하고 가짜이고 모순이다. 누가 좋은 일을 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다 한다. 악인도 마찬가지다. 악인은 불쌍한 백 사람을 희생시켜 행복한 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의 온갖 재앙이 여기서 온다. 가장 숭고한 미덕은 소극적이다. 그것은 또한, 뽐내는 일이 없을뿐더러, 남을 우리에게 대해 만족하게 만드는 기쁨,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달콤한 저 기쁨마저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자기 동포들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 그 사람은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얼마나 큰 선을 행하고 있는 셈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용감한 정신과 얼마나 힘찬 성격이 필요한가! 그것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격률을 두고 따짐으로써가 아니라, 그 실천에 노력함으로써만 될 일이다.<sup>19</sup>

19 결코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에는, 인간 사회에는 되도록 얹매이지 말라는 교훈이 따른다. 왜냐하면 사회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이익이 반드시 딴 사람의 손해가 되게 마련이니까, 이러한 관계는 사물의 본질에 말미암고 있어 무엇에도 바뀌지 않는다. 이 원리에 비추어, 사회적인 인간과 고독한 인간의 어느 쪽이 나은가를 살펴보도록 하라. 혼자 있는 자는 악인밖에 없다고 어느 유명한 저술가는 말하고 있다.<sup>20</sup> 나로서는, 혼자 있는 자는 선인밖에 없다고 말하겠다. 이 명제는 먼저 것보다는 덜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이나 남을 해치게 두거나, 특히 나중에 가서는 고치기 힘든 나쁜 버릇이 들게 두지 않기 위해 때로는 마지못해 훈시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때, 가져 주었으면 하는 조심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위에 대충 들어 두었다. 그러나 말 안 듣고 심술궂고 거짓말 잘 하고 욕심 많은 아이로 만드는 악덕의 씨를 마음속에 심어 주지 않고서는 그런 아이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을 것임을 확신하라.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내가 한 말은 원칙보다는 예외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들은 아이들이 제 환경을 벗어나 어른들의 악덕에 물들 기회가 많아질수록 잦아진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에게는, 외딴 곳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에게보다도 더 이른 훈시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그러니 외파로 하는 교육은, 설사 어린이에게 제대로 성숙할 시간을 줄 뿐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다.

복을 타고난 사람 손에 제 나이보다 앞서게 길러진 아이들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만 종류의 예외가 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를테면 어린 시절을 거치지 않는, 거의 나면서부터 어른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 딱한 것은 이 나중 예외가 썩 드물어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이고, 어머니는 저마다 아이가 신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이도 그렇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머니들은 한술 더 떠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낚새들, 말하자면 활발 · 기지 · 경솔 · 놀라운 순진성 같은 것을 비범한 것인 양 생각한다. 아이는 결국 아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 때의 모든 특징들을 말이다. 말을 많이 하게 두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을뿐더러 어떤 고려나 예절에도 매이지 않는 아이가, 어쩌다가 한 번 요행수를 만난다 해서 그게 놀라운 일인가? 그 아이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마치 별점쟁이가 거짓말 천 번에 사실 하나도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하도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에

격언조이지만, 더 옳고 더 이치에 맞는다. 악인이 혼자 있다면 무슨 나쁜 짓을 하겠는가? 악인이 남들을 해치려고 꾀를 꾸미는 것은 사회에서다. 이 논법을 선인에게 역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주(註)가 딸린 본문을 가지고 답하겠다.

20\* 디드로(Diderot)의 《사생아》 머리말에 나오는 말. 이 말이 그와 루소와의 불화의 씨가 되었다.

가서는 참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앙리 4세는 말했었다. 근사한 말을 찾아 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바보 같은 말을 자꾸 늘어놓기만 하면 된다. 칭찬받을 만한 판재간도 없는 시체 사람들은 화를 입지 말기를.

가장 값비싼 금강석이 아이들 손에 들어갈 수 있듯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 아이들 머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보다도 가장 좋은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나 금강석이 그 아이들 것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 아이에는 무슨 종류의 것이건 진짜 소유라곤 없다. 아이가 말하는 것들이 아이에게는 우리에게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으며, 아이는 그것들에 같은 관념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관념들은, 설사 아이가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이 머릿속에서는 줄거리도 관련도 없다. 아이가 생각하는 것 모두에는 고정되거나 확실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자칭 신동을 살펴보라. 어떤 때는 아주 발랄한 활동력, 날카로운 머리의 반짝임을 찾아볼 것이다. 그러나 흔히 그 같은 머리가 마치 짙은 안개에 싸여 있듯 맥이 빠져 무기력해 보인다. 때로는 여러분을 앞지르고, 때로는 쫓잡고 있다. 여러분은, 애는 천재라고 말하다가도, 이내 바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나 다 틀린다. 아이인 것이다. 쏘살같이 날아올랐다가도 이내 제 등우리로 되돌아오는 수리 새끼인 것이다.

그러니 외모야 어떠하건 제 나이에 따라 아이를 다루고, 지나치게 훈련시키려다가 아이의 힘을 빼게 되지 않나 염려하라. 어린 두뇌가 뜨거워지거든, 끓기 시작하는 기색이 보이거든, 우선 자유롭게 괴게 두어야지 결코 자극하지 말라. 모두가 발산해 버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첫 정기가 증발해 버렸을 때는, 모두가 해가 짐에 따라 생기를 주는 열과 진짜 힘으로 바뀔 때까지, 남은 정기는 잡아 두고 압축해 두라.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게 될 것이며, 한 일을 망쳐 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질없이 이 불붙기 쉬운 짐에 도취하고 나면, 남은 것은 김빠진 찌꺼기뿐일 것이다.

철부지 아이는 속된 어른이 된다.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확실한 관찰을 나는 알지 못한다. 어린이 속에서 진짜 어리석음을, 강한 정신을 예고하는 저 거죽만의 가짜 어리석음과 구별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일은 없다. 두 가지의 극단이 그렇듯 닮

은 표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진짜 관념도 아직 갖지 않은 나이에서는, 천분을 타고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보이는 차이란, 후자는 틀린 관념만 받아들이고, 전자는 틀린 관념밖에는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뿐이니까. 그러니 한 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딴 쪽은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 바보를 닮은 것이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늘 마찬가지인데 반해 후자에게는 그 이해력이 미치는 어떤 관념을 제공할 수 있는 우연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젊은 카토는 어릴 때 줄곧 집에서는 바보처럼 보였었다. 말이 적고 고집이 세어, 이것이 그에 대한 판단의 전부였다. 실라 집 응접실에서야 비로소 그의 삼촌이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sup>21\*</sup> 그 응접실에 들어가지만 앉았어도 아마 그는 철들 나이까지는 천치로 통했을 것이다. 만일 카이사르가 살아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불길한 천재를 간파하고 그의 계획 모두를 그렇듯 일찌감치 예견한 이 카토도 언제까지나 망상이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오, 아이들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자들은 얼마나 틀리기가 심상인가! 아이보다도 더 아이이기가 일쑤다. 고맙게도 내게 우정을 베풀어 주던 어떤 사람이<sup>22\*</sup> 꽤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서 막힌 인간으로 통하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있다. 그 뛰어난 머리는 말없이 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는 철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후세가 그에게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이론가나 가장 심오한 형이상학자들 사이에 명예롭고 뛰어난 자리를 줄 것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존중하라. 그리고 좋게건 나쁘게건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 예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기 전에, 그것들이 절로 드러나 증명되고 확인되도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라. 자연이 하는 일들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자연 대신 무엇을 하려 들기 전에 자연이 행하는 대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라. 여러분은 말한다.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 허비하고 싶지가 않다고? 시간을 잘못 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으로 시간 허비가 된다는 것. 또 잘못 교육받은 아이는

21\* 플루타르코스의 《우티카의 카토의 생애》 I 참조.

22\* 감각론 철학자 콩디아크(Etienne Bonnot de Condillac, 1715~1780)를 두고 한 말.

전혀 교육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지혜에서 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첫 시기를 아무것도 앎고 소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걱정한다고! 천만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종일 뛰고 놀고 달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평생에 이만큼 바쁠 때는 다시없을 것이다. 그토록 엄하다고들 생각하는 플라톤은 그 《국가》에서, 아이들을 잔치나 놀이·노래·오락만으로 기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즐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놓았을 때, 그는 할 일을 다 한 것같이 보인다. 또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젊은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늘 서 있었고, 앉아서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sup>23\*</sup> 그래서 그들은 어른이 되어 쓸모가 덜 했던가? 그러니 소위 이런 무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겁내지 말라. 전 생애를 이용하려고 통 자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랴 말할 것인가?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겠지. 그는 시간을 즐기지 않고, 스스로 버리고 있다. 잠을 피해 죽음을 뒤쫓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어린 시절은 이성의 수면기라고 생각하라. 배우기가 쉬워 보인다는 생각이 아이들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쉽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는 증거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아이들의 미끄럽고 반드러운 두뇌가 남이 보여 주는 물건들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는다. 아이는 낱말들만 기억하고, 관념들은 반사만 한다. 아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듣는데, 아이만이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과 추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이긴 하지만, 한쪽은 딴 쪽과 함께가 아니고는 진정한 발달을 하지 못한다. 철들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는 관념이 아니라 인상을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인상은 감각되는 대상들의 순전한 그림에 불과하나, 관념은 그 대상들의 개념, 온갖 관계에 의해 정해진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인상은 저를 보는 머릿속에 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관념 모두는 딴 관념들을 전제로 한다. 사람이 상상할 때는 보는 데 불과하다. 이해할 때는 비교한다. 우리의 모든 지각(知覺)이나 관념이, 판단하는 능동적 근원에서 생겨나는

23\*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의 편지들》, 88.

데 반해, 우리의 감각들은 순전히 수동적이다. 이는 나중에 가서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은, 아이들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기억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소리 · 형상 · 감각들은 기억하나, 관념들을 기억하는 일은 드물고, 그 관념들의 관계를 기억하는 일은 더욱 드물다. 아이들이 기하학의 어떤 원리들을 배우고 있다는 반응을 내게 들어 보임으로써 내 주장을 꺾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들 믿고 있다. 그런데 실은 반대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추리할 줄 알기는커녕, 남의 추리를 기억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꼬마 기하학자들의 방법을 따라가 보라. 아이들이 도형의 정확한 인상과 증명의 용어들밖에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까. 조금만 탄 말이 나와도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한다. 도형을 뒤집어 보라. 어쩔 줄을 모를 테니까, 그들의 지식 모두는 감각 속에 있어, 이해력까지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릴 때 말로만 배운 사물들을 커서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인 만큼, 아이들의 기억 자체도 탄 능력들보다 더 완전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은 어떤 유의 추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아니다.<sup>24</sup>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당장 눈에 뚜렷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썩 잘 추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아이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거나, 이해할 줄도 모르는 것에 대해 추리하게 하거나 해서 우리가 잘못에 빠지는 것은, 아이들의 지식에 관해서다. 아이들의 앞날에 올 이해

24 긴 저술에서는 같은 단어에 늘 같은 뜻을 주기가 불가능하다고, 나는 쓰면서도 여러 번 생각해 왔다. 우리의 관념들이 가질 수 있는 변화들만큼의 용어나 표현이나 문장들을 대 줄 정도로 풍부한 언어란 있지도 않다. 온갖 용어들을 정의해, 정의된 것 대신 정의를 노상 사용하는 방법은, 근사하지만 되지 않을 방법이다. 왜냐하면 순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정의를 하기 위해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정의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나는 명석하게 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빈약한 우리 국어에서조차도, 같은 단어에 늘 같은 뜻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에 주어지는 뜻이 그 뜻과 부합되는 관념에 의해 충분히 한정되도록,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이를테면 그 단어의 정의 구실을 하도록 함으로써 말이다. 나는 때로는 아이들이 추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꽤 정밀하게 추리를 시키기도 한다. 그 때문에 내가 관념에 있어 모순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표현에 있어서도 모순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관계라든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행복, 커서 남으로부터 받을 존경 같은, 어느 모로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문제들에 주의를 쏟게 만들려다가도 또한 잘못에 빠진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늘어놓는 연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데 이 가엾은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모든 공부는, 아이들 머리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상들을 노리고 있다. 아이들이 그런 것에 얼마나 주의를 쏟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라!

자기 제자에게 주는 가르침을 야단스럽게 떠벌여 보이는 교사들은, 딴 말을 늘어놓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이 하는 짓으로 보아, 그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결국 무엇을 가르치는가? 말이고, 또 말이고, 늘 말이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정말로 쓸모 있는 것은 사물에 대한 학문이어서 성공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를 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아는 것 같아 보이는 학문들, 문장(紋章)학 · 지리학 · 연대(年代)학 · 어학 등등만 택한다. 인간과는, 특히 아이와는 하도 동떨어져, 그중 한 가지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쓸 데가 있다면 놀라울 정도인 그런 온갖 공부들을 말이다.

내가 어학 공부를 교육상의 무용지물 속에 넣는 데는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는 유년기의 공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누가 뭐라고 말하건 나는, 12살 내지 15살까지는, 신동을 빼고는 어떤 아이도 두 가지 언어를 진정으로 배운 일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만일 언어 공부가 낱말들의 공부, 이를테면 그 낱말들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이나 소리의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 공부가 아이들에게 적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나도 시인한다. 그러나 언어는 기호를 바꿈으로써 제가 나타내는 관념도 바꾼다. 머리들은 언어에 맞추어 형성되고, 생각들은 관용어법의 색조를 띤다. 이성만은 공통이나 각 언어의 정신은 저마다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부분적으로 여러 국민성의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는 차이를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민에 있어 언어가 풍습의 변천을 뒤따르고 있으며, 풍습처럼 유지되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의 하나를 습관이 아이에게 주는 바, 이는 아이가 철들 나이가 될 때까지 간직하는 유일한 형태다. 그중의 둘을 가지려면, 아이는 관념들을 비교할 줄 알아야만 한다. 관념을 이해하기도 힘든 상태의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비교하겠는가? 하나하나의 사물이 아이에게는 천 가지의 다른 기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관념은 하나의 형태밖에는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아이는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것밖에는 배울 수가 없다. 하지만 아이는 몇 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지 않은가 하고 누가 내게 말한다. 나는 그것을 부인한다. 대역섯 나라 말을 말한다고 자신하는 그런 신동들을 나는 본 일이 있다. 독일어 · 라틴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를 차례로 지껄이는 것을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대역섯 가지 사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늘 독일어밖에는 지껄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흡족할 만큼의 동의어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보라. 낱말들은 바꾸나 언어는 바꾸지 못한다. 아이들은 하나의 언어밖에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기피하지 못할 심판자가 이미 없는 사어(死語)를 즐겨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은, 이런 점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다. 사어의 상용은 오래 전부터 사라져 없어, 책에 쓰인 것을 흉내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언어를 지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이런 것이라면, 아이들의 그것은 따져 보나 마나다! 아이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입문서를 간신히 암기하고 나면, 우선 불문(佛文)을 라틴어로 옮기는 공부를 시킨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키케로의 문장을 산문으로, 베르길리우스의 발채를 운문으로 꺾매도록 가르친다. 이때 아이들은 라틴어를 지껄인다고 생각한다. 누가 와서 대들겠는가?

어떤 공부에 있어서건, 표현된 사물에 대한 관념 없이는, 표현하는 기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기호가 표현하는 사물들은 하나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노상 기호만 아이에게 가르친다. 지구의 광경 묘사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도 보는 법밖에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여 주는 종이 위 말고 딴 곳에 존재한다고는 이해도 가지 않는 도로나 나라나 강 이름만 가르치고 있다. “세계란 무엇인가? 마분지로 만든 공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지리책을 어디선가 본 생각이 난다. 아이들

의 지리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실지로 나는, 2년 동안 지구와 우주학을 배우고 나서도, 배운 규칙에 따라 파리에서 생드니까지 갈 줄 아는 10살짜리 아이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자기 아버지의 정원 도면을 보고 그 에움길들을 길 잃지 않고 더듬어갈 수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 이스파한(Isfahān) · 멕시코, 그리고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을 척척 알고 있다는 저 박사들이란 이런 것이다.

눈밖엔 필요하지 않은 공부만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이 들린다. 눈만 있으면 되는 그런 공부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부를 알지 못한다.

훨씬 더 우스운 잘못이지만,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고들 있다. 역사란 사실들을 모은 것에 불과하니 아이들의 이해가 미칠 수 있는 것이려니들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역사상의 사실들을 결정하는 관계들은 파악하기가 하도 쉬워 그 관념들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쉽사리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건들에 대한 진짜 지식이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역사적인 것이 정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따로따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행동에서 외부적인 순전히 물리적인 움직임밖에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된다. 흥미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공부는 기쁨도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그 정신적인 관계에서 평가하고 싶거든, 그런 관계를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보라. 그러면 역사가 그들 나이에 맞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독자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가 학자도 철학자도 아닌, 당파도 체계도 없는 단순한 인간, 진리의 벗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라. 사람들과 사귀는 일이 별로 없어, 그들의 편견에 물들 기회는 적고 그들과 사귀면서 느낀 바에 대해 속고할 시간은 많은, 외로운 인간이라는 점을 말이다. 나의 추리는 원리들보다는 사실들에 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추리들을 내게 암시해 주는 관찰에서 얻은 어떤 실례를 여러분에게 자주 들어 보이는 이상으로, 여러분더러 그

추리들에 대해 판단하게 해 드리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시골에 가서 며칠 동안, 아이들과 그 교육에 정성이 대단한 어느 어진 어머니 집에서 지낸 일이 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만아들의 수업에 입회했었는데, 그 아이에게 고대 역사를 착실하게 가르쳐 온 가정 교사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기를 꺼내었다가, 저 그림에도 그려져 있지만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의사 필리포스의 유명한 행위로 말머리를 돌렸다.<sup>25\*</sup> 재사인 그 교사는 알렉산드로스의 대답성에 관해 몇 가지 생각을 말했고, 나는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제자 머릿속에서 선생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반박은 피했다. 식탁에서는 프랑스식을 따라 어린애더러 수다를 떨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나이에 마땅한 생기와 영락없이 칭찬받으리라는 기대가 아이더러 술한 덜 된 말을 뇌까리게 했으나, 그중에는 가끔 잘 된 말도 더러 튀어나와 그 나머지를 잊게 만들곤 했다. 마침내 의사 필리포스 이야기가 나왔다. 아이는 분명하고도 썩 멋있게 그 이야기를 해치웠다. 어머니가 요구하고 아들이 기대하던 그 흔히 있는 칭찬의 선물이 있는 뒤에, 아이가 한 말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다. 태반은 알렉산드로스의 무모를 비난했다. 몇 사람은 교사를 본받아 그의 깨끗함과 용기를 칭찬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의 누구 하나도 그 일화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채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로서는 알렉산드로스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용기나 깨끗함이 엿보인다면, 그것은 엉뚱한 짓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그러자 다들 한패가 되어 그것이 엉뚱한 짓이라는데 동의했다. 내가 발끈해서 대꾸를 하려고 했을 때, 내 곁에 있으면서 입을 연 일이 없는 한 부인이 내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잠자코 있어요, 장 자크. 이 사람들은 당신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

식사 후에, 우리 꼬마 박사는 제가 그렇듯 잘 이야기한 것을 통 이해하지 못하고

25\* 이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생애》 20과, 퀸투스 쿠르치우스의 Ⅲ, 6에 나온다. 몽테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의사 필리포스(Philippos)가 다리우스(Darius)의 돈에 매수되어 자기를 독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르메논의 편지로 알고 난 알렉산드로스는, 그 편지를 필리포스에게 읽도록 줌과 동시에 그가 내놓은 물약을 삼켰다(《에세》 I, 23).”

있는 것 같은 몇 가지 낱새를 눈치챈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거리낌 없이 물어 본 결과, 알렉산드로스의 그토록 찬양받는 용기에 누구보다도 더 감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용기를 그가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알겠는가? 오로지 맛이 고약한 물약을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주저 않고 단숨에 삼킨 점에서만 보았던 것이다. 2주일도 되기 전에 약을 먹여 말 못 할 고생 끝에 그것을 삼킨 이 가엾은 아이는, 아직도 그 쓴 뒷맛이 입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죽음이나 독살도 그의 머리에는 기분 나쁜 감각으로밖에 통하지 않았고, 그로서는 쉰나(senna) 이외의 독약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웅의 굳센 행동이 그 어린 마음에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과, 다음에 약을 삼켜야 할 경우에는 저도 알렉산드로스가 될 결심을 단단히 했다는 사실은 밝혀 두어야겠다. 나는 분명 그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설명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가혹한 마음가짐을 두둔해 주었으며,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나 선생들의 뛰어난 지혜에 혼자 미소를 금치 못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임금 · 제국 · 전쟁 · 정복 · 혁명 · 법률 같은 말들을 아이들 입에 넣어 주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뚜렷한 관념을 결부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면, 머슴 로베르가 한 말과 이러한 설명 모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잠자코 있어요, 장 자크”에 불만인 몇몇 독자가 내게 물을 것만 같다. 요컨대 내가 알렉산드로스의 행위에서 아름답게 보는 바가 무엇이냐고? 딱도 한 친구들! 그 말을 내가 해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알렉산드로스가 미덕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기 목과 목숨을 걸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위대한 혼이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오, 그 삼킨 약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던가! 천만에, 일찍이 인간이 이토록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한 일은 없다. 현대의 알렉산드로스가 어디 있거든, 같은 행위를 통해 내게 보여 주기 바란다.

말의 학문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적합한 공부도 없다. 아이들이 진짜 관념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짜 기억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감각적인 것만을 간직하는 기억은 기억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나타내어 보이

지 않는 기호들의 목록을 그들 머리에 적어 준들 무슨 소용이라? 사물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기호는 배우지 않는단 말인가? 왜 그것을 두 번씩이나 배우는 헛수고를 아이들에게 시키는가? 더구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들을 학문으로 보게 만듦으로써, 얼마나 위험한 편견을 넣어 주기 시작하는 것인가! 아이의 판단력이 망가지는 것은, 아이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첫마디 말부터며, 스스로 그것의 쓸모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배우는 첫 사물에서부터다. 이런 손실을 배우게 되기 전까지는, 아이는 바보들 눈에 오래 뛰어나 보일 것이다.<sup>26</sup>

천만에, 온갖 인상을 받아들이 수 있게 해 주는 이러한 순응성을 자연이 아이 머리에 태워 주는 것은, 어둡고 메마른 어린 시절을 괴롭히는 임금들 이름이나 날짜, 문장(紋章), 천구(天球), 지리의 술어들 같은, 아이 나이에 아무런 뜻이 없을뿐더러 어떤 나이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들을 아이 머리에 새겨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아이에게 쓸모 있는 온갖 관념들이, 아이의 행복과 관련이 있고 언젠가는 아이에게 제 의무를 밝혀 줄 모든 관념들이, 일찍부터 아이 머리에 지우지 못할 글자로 새겨져, 아이가 평생을 제 존재와 능력에 알맞게 처신하는 데 소용되게 하기 위해서다.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해서, 아이가 지닐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이 높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 모두, 듣는 것 모두가 아이를 자극하며, 아이는 그것을 기억한다. 아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말을 자신 속에 적어 둔다. 그래서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책이 되어, 판단력이 기억을 이용하게 될 때까지 아이는 그 책 속에서 기억을 저도 모르게 줄곧 살피워 나가는 것이다. 아이의 이러한 기본 능력을 북돋우

26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자들도 대부분이 그렇다. 박식은 술한 관념들에서보다는 술한 이미지들에서 말미암는다. 날짜·고유 명사·장소, 파로파로이거나 관념이 없는 모든 대상들은 오로지 기호들을 기억함으로써만 기억되어, 그것이 나온 페이지의 ‘겉면’이나 ‘뒷면’, 또는 그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맨 처음에 본 그림도 동시에 보지 않고서는, 그중의 어떤 것이 생각나기란 드문 일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판을 치던 학문이란 거의 이런 것이었었다. 우리 세기의 학문은 판판이다. 이제는 연구도 관찰도 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으며, 잠 못 이루는 밤에 꿈들을 철학이라면서 점잖게들 내놓는다. 나도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겠지.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딴 사람들은 할 엄두도 내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꿈은 꿈으로서 내놓는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는 독자에게 알아보도록 맡기고 말이다.

어 주는 진짜 기술은, 그러한 대상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아이가 알 수 있는 대상들은 노상 보여 주고 알아서 안 될 대상들은 숨겨 주는 배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젊어서는 교육에 소용되고 모든 시기를 통해 처신에 소용되는 지식의 광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도록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술에 의해서다. 사실 이런 방법이 신동을 만들어 내거나, 가정부나 가정 교사를 빚내어 주지는 않는다. 그 대신 올바르게 튼튼하여 몸도 이해력도 건전한 인간, 어려서는 칭찬받지 않더라도 커서는 존경받는 인간을 만들어 낸다.

에밀은 아무것도, 우화조차도, 아무리 소박하고 매력 있는 라퐁텐(Jean de La Fontaine, 1621~1695)의 우화라 하더라도 외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의 말이 역사가 아닌 이상으로 우화의 말은 우화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어쩌서 우화를 아이들의 수신책이라 부를 만큼 눈이 멀 수 있는가? 그런 교훈 이야기가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면서 실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거짓말에 속은 아이들은 진실을 놓치고 만다는 사실, 가르침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화는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별거송이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진실에 탈을 씌워 주면 벌써 아이들은 애써 그것을 벗기려 들지는 않는다.

모든 아이들에게 라퐁텐의 우화들을 배우게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이해하게 된다면 더욱 나쁘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교훈은 하도 뒤범벅이고, 아이들 나이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어서, 미덕보다는 악덕으로 이끌어 주니까. 이것 또한 역설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좋다. 어쨌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리 우화를 단순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써도, 거기서 끌어내고 싶어 하는 교훈이 아이가 잠을 수 없는 관념들을 억지로 그 속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또 시의 표현법 자체가 우화를 아이에게보다 기억하기 쉽게 해 주면서도 이해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만들어 주므로 결국은 명료함을 팔아 재미를 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남이 시켜 배우는 우화들을 통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겐 알 수도 없고 소용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도 같이 배우게 하고 있는 그런 술한 우화들은 따오지 말고, 작자가 특히 아이들을 위해 지은 것 같은 우화들로만 만족하자.

라퐁텐의 우화집 중에서 옛된 천진난만이 두드러지게 빛나는 것이라고는 대여섯 개밖에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대여섯 개 중에서도 나는 책 맨 첫머리 것을<sup>27\*</sup> 보기로 들겠는데, 그것은 이 우화의 교훈이 어느 나이에나 가장 알맞을뿐더러, 아이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가장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작자도 즐겨 책 첫머리에 내놓은 우화이기 때문이다. 실지로 아이들에게 이해되고 마음에 들고 가르침을 주는 제재를 갖고 있는 점에서 이 우화는 분명 그의 걸작이다. 그러니 내가 이 우화의 줄거리를 밝히 나가면서 몇 마디로 검토해 보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 우화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 선생이, 앓아, 나무에

선생 (Maître)! 이 말은 그것 자체로서는 무슨 뜻인가? 고유 명사 앞에서는 무슨 뜻인가?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까마귀란 무엇인가?

“앓아, 나무”란 무엇인가? “앓아, 나무에”라고는 하지 않는다. “나무에 앓아”라고 말한다. 따라서 시의 도치법(倒置法)에 대해 말해야 한다. 산문은 무엇이고 운문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부리에 치즈를 물고 있었다.

무슨 치즈인가? 스위스 것인지, 브리(Brie) 것인지, 네덜란드 것인지? 아이가 까마귀를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인가? 본 일이 있다면, 까마귀들이 부리에 치즈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언제나 자연에 따라 모습을 그려 내도록 하자.

27\* “포르메이 씨가 썩 잘 지적했듯이 이것은 둘째 것이지 첫째 것은 아니다.” (C의 원주)

그 냄새에 홀린, 여우 선생이,

또 선생! 그러나 여우한테는 어울리는 칭호다. 그 길의 재주치고는 뛰어난 선생이다. 여우란 어떤 것인가를 말해야 하고, 그 진짜 성질을 우화에서 갖는 인습적인 성격과 구별해야 한다.

“홀린(alléché).” 이 단어는 통용되지 않는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젠 운문에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 한다. 왜 운문에서는 산문에서와 달리 말하느냐고 아이가 물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치즈 냄새에 홀린!” 나무에 앉은 까마귀가 문 치즈를 덩불이나 굴에 있는 여우가 맡아 알려면 그 냄새가 대단했을 것이다! 확실한 것밖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말에서 진실과 거짓말을 가려낼 줄 아는 이런 비판 정신을 여러분의 제자에게 길러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까마귀더러 대충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이라고! 그럼 여우는 말을 하는가? 까마귀와 같은 말을 지껄인단 말인가? 현명한 교사여, 조심하라. 대답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라. 이 대답은 당신이 생각한 이상으로 중요하다.

야! 머슈 까마귀, 안녕하세요!

“머슈!” 그것이 경칭임을 알기 전부터 조롱삼아 쓰인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는 칭호다. “머슈 뒤<sup>28\*</sup> 까마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뒤”를 설명하기 전에 판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당신은 참 예뻐요!<sup>29\*</sup>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군요!

운을 맞추기 위한 억지스러운 말, 쓸데없는 군더더기다. 같은 것을 판 말로 되풀

28\* 뒤(du)는 귀족 성(姓)의 표시.

29\* “예뻐요(charmant).” 루소는 기억만으로 인용하고 있다. 라퐁텐의 시구에서는 joli이다.



이하는 것을 보고 아이는 영성하게 말하는 버릇을 배운다. 여러분이 이런 군소리도 작자의 기교라고 말하거나, 온갖 말로 칭찬을 늘리려는 여우의 속셈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변명이 내게는 상관없겠지만 내 제자에게는 부당할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만일 당신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럼 때로는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여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의 깃털과 맞먹는다면,

“맞먹는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목소리와 깃털만큼 성질이 판이한 것들을 비교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쳐 보라. 아이가 여러분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숲 손님들 중의 봉황새이겠지요.

“봉황새!” 봉황새(phénix)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느닷없이 허망한 고대(古代) 속에, 거의 신화의 세계 속에 던져진다.

“이 숲 손님들!” 얼마나 비유적인 말인가! 아침꾼은 말을 고상하게 꾸미고, 말을 더 매력 있게 만들려고 말에다 더욱 품위를 준다. 이런 잔피를 아이가 이해하겠는가? 고상한 문체와 저속한 문체가 무엇인가를 아이는 알고 있거나 한가, 알 수가 있는가?

이 말에, 까마귀는 기쁨에 저를 잊고,

속담식의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면 강렬한 정념들을 겪고 난 뒤라야 한다.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이 시구와 이 우화 전체를 이해하려면, 까마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부리를 딱 벌려, 먹이를 떨어뜨린다.

이 시구는 근사하며, 그 하모니만으로 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벌려진 흥한 큰 주둥이가 보인다. 치즈가 가지들 사이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런 유의 아름다움은 아이들에게는 막무가내다.

여우가 그것을 집어 들고, 말한다: 이 양반아,

그러니 여기서는 선량함이 어리석음으로 둔갑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분명 시간 낭비는 아니다.

알아 뉘요, 아침꾼은 모두가

일반적인 격언. 이제 우리는 맥을 못 춘다.

제 말에 솔깃한 자를 뜯어먹고 사는 법.

10살 난 아이가 일찍이 이 시구를 이해한 일은 없다.

이 교훈은 분명 치즈 한쪽 값은 되고도 남죠.

이것은 알 수 있고, 생각도 썩 좋다. 그런데도 교훈을 치즈와 비교할 줄 아는 아이, 치즈를 교훈보다 좋아하지 않을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비웃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지나친 잔재주냐!

부끄럽고 창피한 까마귀는,

또 중복법. 그런데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걸려들지 않기로 맹세했다, 약간 뒤늦게.

“맹세했다!” 맹세가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감히 설명할 어리석은 선생이 있겠는가?

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우화 속의 모든 관념들을 분석하고 다시 그것들을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관념들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충분할 정도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는 누가 생각하겠는가? 한 아이의 처지에 자신을 갖다 놓을 줄 알 만큼 철학자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이젠 도덕 문제로 옮겨가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알랑대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10살 난 아이들에게인지? 나는 묻고자 한다. 꼬마들을 놀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허영심을 몰래 비웃는 빈정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고작일 것이다. 그런데 치즈가 죄다 망쳐 놓는다. 제 아가리에서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남의 아가리에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가르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둘째 역설이며, 먼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우화를 배우는 아이들을 뒤따라가 보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언제나 작자의 의도와는 반대되게 생각하기 일쑤며, 고쳐 주거나 예방해 주려는 결점에 대해 조심하기는커녕, 남들의 결점을 이용하는 데 써먹는 악덕을 좋아하는 경향을 갖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위의 우화에서 아이들은 까마귀를 비웃지만, 다들 여우를 좋아하게 된다. 그다음 우화에서 여러분은 매미를 본보기로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만에, 아이들이 택하는 것은 개미다. 아무도 머리 숙이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정해 놓고 근사한 배역을 맡으려 들 것이다. 이는 자존심에서 오는 선택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데 어린이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교훈인가? 온갖 괴물 중에서도 가장 밍살스러운 괴물이, 남이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개미는 한술 더 떠서, 거절하면서 비웃도록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

사자가 등장하는 모든 우화에서는 대체로 가장 빛나는 역을 맡기 때문에, 아이는 여축(餘蓄)없이 제가 사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노느매기를 주관할 때는, 사자를

본받은 아이는 모조리 독차지하려고 안달한다. 그런데 파리가 사자를 골탕먹이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때 아이는 이미 사자가 아니고 파리다. 당당히 대들 엄두가 나지 않는 상대를 가시로 찔러 죽이는 법을 언젠가는 배우게 된다.

여윈 이리와 살찐 개의 우화에서는, 작자가 주겠다는 절제의 교훈 대신 방종의 교훈을 배운다. 온순하라는 타이름만 늘 받아 오다가 이 우화를 읽고 상심한 소녀가 몹시 우는 것을 본 일이 있지만, 나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는 까닭을 알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알아 내었다. 가엾은 아이는 묶여 지내는 게 지겨워, 목의 살이 사슬에 벗겨진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이리가 되지 못해 울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에 든 첫 우화의 모럴은, 아이에게는 가장 천한 아침의 교훈이다. 둘째 것의 모럴은 몰인정의 교훈이다. 셋째 것은 부정(不正)의 교훈. 넷째 것은 빈정거림의 교훈. 다섯째 것은 자립정신의 교훈이다. 이 마지막 교훈이 내 제자에게는 군더더기라 해서,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더 알맞은 것은 아니다. 서로 어긋나는 훈계들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정성에서 기대할 열매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만 빼어 놓으면, 내게는 우화들에 반대하는 건더기 구실이 되어 주는 이 모럴이 어찌면 그 우화들을 보존하는 이유도 제공해 줄지 모른다. 사회에는 말로 된 모럴과 행동상의 모럴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전자는 교리 문답 속에 있고, 그 속에 버려져 있다. 후자는 아이들을 위한 것은 라퐁텐의 우화들 속에, 어머니들을 위한 것은 그의 콩트들 속에 들어 있다. 한 작자가 다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라퐁텐 씨여, 타협하자. 나로서는 기꺼이 당신 작품을 읽고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 우화에서 배우기로 약속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우화들의 목적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니까. 그러나 내 제자에게는, 제가 반의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도 좋다는 것을 당신이 내게 증명해 줄 때까지는 단 하나도 배우게 두지 않겠으니 용서하라. 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서도 그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속은 자를 보고 자신을 고치기는커녕 사기꾼을 닮게 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말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모든 과제를 덜어 주면서 나는, 그들의 가장 큰 비참의 연장인 책

도 앓아 버린다. 독서는 어린 시절의 재앙이지만, 아이에게 줄줄 아는 거의 유일한 일거리이기도 하다. 에밀은 12살이 되어도 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읽을 줄은 알아야 한다고들 말하겠지. 그렇다. 독서가 유익해질 때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독서가 그를 귀찮게 굴 따름이다.

복종시켜서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해서 안 되는 것이라면, 재미있는 것이건 실리 있는 것이건 당장의 이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결과로 된다. 달리 어떤 동기가 아이들을 배우게 만들겠는가? 눈앞에 없는 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재주나, 멀리서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의지·욕망을 중개자 없이 전달하는 재주는, 그 효용을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재주다. 이렇듯 유익하고 기분 좋은 재주가 어떤 기적에 의해 어린이에게는 고통으로 바뀌었을까? 어린이더러 마지못해 그 일에 전심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며, 어린이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이란 자기를 괴롭히는 연장을 완성시키는 일에는 그다지 호기심을 갖지 않는 법이다. 차라리 그 연장이 아이의 즐거움에 소용되게 해 주라. 그러면 이내 아이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읽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내는 것을 큰일로 삼고 있다. 글자 맞추기 상자나 카드를 만들어 낸다. 아이 방을 인쇄 공장으로 만든다. 로크는 아이가 주사위를 가지고 읽기를 배우기를 바란다. 이거야말로 근사한 발명이 아닌가? 딱하기도 하지!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데도 잊기가 일쑤인 방법은 배우려는 욕망이다. 아이에게 이 욕망을 주라. 그리고 나서 글자 맞추기 상자나 주사위를 두어 두라. 모든 방법이 아이에게는 다 좋을 것이다.

당장의 이해 관계, 이거야말로 어김없이 성공시키는 크고 유일한 원동력이다. 에밀은 때때로 아버지나 어머니·친척·친구들로부터 만찬·산책·뱃놀이·명절 놀이 구경의 초대장을 받는다. 이런 초대장들은 간단명료하게 잘 쓰여 있다. 읽어 줄 누군가를 찾아 내어야 한다. 그 누군가가 제때에는 늘 곁에 있지 않거나, 아이가 전날에 그렇게 한 양감으로 쌀쌀하게 응수하거나 한다. 그래서 기회와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나중에 누가 읽어 주지만, 이미 때는 늦다. 아! 제가 읽을 수 있

었더라면! 판 초대장들을 또 받는다. 얼마나 짝박한가! 사연도 재미있어 보이고! 읽어 보고 싶어진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받는 수도 있고 거절당하는 수도 있다. 갖은 애를 써서 마침내 반쯤 읽어 낸다. 내일 크림을 먹으러 간다는 사연이다…… 어디로 누구하고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나머지를 읽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는가? 에밀에게 글자 맞추기 상자가 필요하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젠 쓰기에 대해 말할까? 천만에, 교육론에서 이런 시시한 일로 노닥거리기는 창피한 노릇이다.

하나의 중요한 격률이 되는 다음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그것은, 얻으려고 서둘러 대지 않는 것은 보통 아주 확실하고도 빨리 얻게 된다는 말이다. 나는 에밀이 10살 이전에 완전히 읽고 쓸 줄 알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는데, 이는 바로 그가 15살 이전에 그럴 줄 알게 되는 것을 내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각 같아서는 에밀이, 이 읽는다는 지식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모두를 팔아서 이 지식을 사기보다는 전혀 읽을 줄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읽는 것이 영 진저리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독서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아직은 그가 좋아할 수 없는 공부라 그에게 알미운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일단 나타난 이러한 싫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가 지난 뒤에도 그가 그 공부를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sup>30</sup> (Id in primis cavere oportebit, ne studia, qui amare nondum poterit, oderit, et amaritudinem semel perceptam etiam ultra rudes annos reformidet.)

내가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강조할수록, 반대 주장도 더욱 강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만일 당신의 제자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게 되면, 남들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미리 막아 주지 않으면, 당신 제자는 거짓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주게 될까 봐 염려하는 편견들을 제자는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받아들일 것이며, 그 편견들은 그의 모든 감각을 통해 스며들 것이다. 그래서 이성을 채 형성이 되기 전에 망가뜨리든지, 오래 놀아 둔해진 머리가 물질 속에 삼켜 들어가든지 할 것이다. 어려서 생각하는 버릇이 들지 않으면, 평생 생각

30 쿠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의 《웅변술》 1권 1장.

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이의에는 쉽사리 응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왜 노상 대답해야만 하는가? 내 방법이 스스로 반대 의견에 답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답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방법이다. 계속하겠다.

여러분이 내가 굿기 시작한 도면대로, 기성 규칙과는 전혀 반대되는 규칙들을 지켜 나간다면, 또 여러분의 제자의 머리를 멀리 끌고 가서, 딴 곳, 딴 풍토, 딴 시대에서, 땅 끝에서, 하늘에서까지 노상 해매게 하지 말고, 그 머리가 늘 제 자체 속에 머무르도록, 직접 저에게 닿는 것에만 주의하도록 보살피 준다면, 여러분은 그 머리가 지각하고 기억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조차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감각력 있는 존재는 활동적인 것이 되어 감에 따라 점차로 제 힘에 걸맞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자기 보존에 필요한 힘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만 비로소, 그 남는 힘을 딴 용도에 쓰는 데 알맞은 사변(思辨) 능력이 자신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은 제자의 지능을 기를 생각인가? 그 지능이 다스려야 할 힘을 길러 주라. 그 몸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라. 그를 현명하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라. 일하고, 행동하고, 달리고, 외치고, 늘 움직이게 하라. 기력으로 어른이 되게 하라. 곧 이성으로도 어른이 될 테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도 만일 여러분이 아이를 노상 통제하고, “가라”, “오라”, “가만있으라”, “이러라”, “그러면 안 된다” 따위의 말만 노상 한다면, 아이는 미련통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이 팔을 늘 이끌어 주면, 아이 머리는 소용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한 약속을 잊지 말라. 여러분이 현학자(街學者)에 불과하다면 애써 내 책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몸의 단련이 정신의 작용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딱한 잘못이다. 마치 이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한쪽이 딴 쪽을 늘 통제해서는 안 되길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늘 몸만 부러먹어 혼을 가꿀 생각은 똑같이 별로 하지 않는 두 가지 사람이 있으니, 즉 농부와 미개인이다. 전자는 상스럽고 거칠고 서투르다. 대단한 감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후자는 그 정신이 예민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농부보다 미련한 것도 없고, 미개인보다 예민한 것도 없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남이 시키는 일이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일, 어려서부터 자기가 해 온 일만 늘 하는 전자가, 오로지 버릇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늘 같은 일에만 파묻혀 거의 기계적인 그의 생활에서는, 습관과 복종이 이성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개인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아무 곳에도 매여 있지 않고, 명령받은 아무런 임무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밖에는 딴 법이라곤 없는 그는, 생활의 행동 하나마다에 추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리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지 않고서는, 단 한 번 움직이지도, 단 한 발자국을 내딛지도 않는다. 그래서 몸을 부릴수록 정신은 더욱 깨우쳐진다. 힘과 이성이 한꺼번에 자라 서로 도우며 번어간다.

박식한 교사여, 우리 제자들 중의 어느 쪽이 미개인을 닮았고 어느 쪽이 농부를 닮았는지 살펴보자. 노상 무엇을 가르치려는 권위에 전적으로 따르는 여러분의 제자는 말에 따라서밖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감히 먹지 못하고, 즐거워도 감히 웃지 못하고, 슬퍼도 감히 울지 못하고, 한 손 대신 딴 손을 감히 내놓지도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밖에는 감히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규칙대로밖에는 감히 숨도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 대신 모든 생각을 다 해 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마련해주는 데 안심한 그에게 무슨 마련이 필요하겠는가? 자신의 보호와 안락을 여러분이 맡고 있음을 아는 그는, 그런 염려에서는 풀려 나온 것으로 느낀다. 그의 판단력은 여러분의 그것에 기대고 있다. 여러분이 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건 해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하게 된다. 그가 비를 미리 알아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왜 있겠는가? 자기 대신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안다. 산책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그는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를 내버려 둘까 봐 염려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못 먹게 막지 않는 한 그는 먹는다. 막으면 안 먹는다. 제 위장 의견은 듣지 않고 여러분 의견만 듣는다.



그의 몸을 놀려서 무르게 해 주어 봤자 헛수고, 그래서 그의 이해력이 더 연해지지는 않는다. 전혀 반대로, 그가 지닌 얼마 안 되는 이성마저, 제 눈에 가장 무익해 보이는 것들에 써 없애게 함으로써,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신용만 잃게 만들어 주고 만다. 이성이 무엇에 소용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는, 마침내 그것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잘못 추리하는 데서 오는 가장 고약한 결과는 꾸지람 듣는 일이 되겠지만, 그는 하도 자주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통 하지 않는다. 그런 혼해빠진 위험에는 이미 겁먹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제자에게서 약간의 재간은 발견하며,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그런 말투로 여자들과 지껄여 대는 재능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몸소 일을 당해 내어야 할 처지, 어떤 힘든 고비를 만나 결심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 가장 막된 상놈의 아들보다 백 배나 더 열 빠지고 미련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 아니 자연의 제자로 말하자면, 일찍부터 되도록 자급자족하도록 훈련받은 그는, 노상 남들에게 매달리는 버릇, 더구나 제 박식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버릇은 전혀 없다. 그 대신 직접 제게 관계있는 모든 일에 있어 제가 판단하고 예견하고 추리한다. 수다는 떨지 않고, 행동한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알지 못하지만, 제게 맞는 일은 썩 잘 할 줄 안다.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관찰하고 많은 결과를 알지 않을 수가 없다. 일찍부터 풍부한 경험을 얻는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공부를 한다. 가르쳐 주겠다는 의도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 만큼 더욱 잘 스스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동시에 단련된다. 남의 생각 아닌 자기 생각에 따라 늘 행동하는 그는, 두 가지 활동을 노상 하나로 묶는다. 몸이 강하고 튼튼해질수록 지각 있고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견비될 수 없는 것으로들 생각하나 거의 모든 위인들이 견비한 육체의 힘과 영혼의 힘, 현자의 이성과 장사의 기운을 언젠가 아울러 갖게 되는 방법이다.

젊은 교육자여, 나는 힘드는 기술을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훈계 없이 지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 하는 기술이다. 하긴 이 기술은 당신 나이에는

맞지 않다. 당신 재능을 당장에 빛나게 하는 데도, 아버지들에게 뽑내어 보이는 데도 알맞지 않다. 그러나 성공하는 데는 알맞은 유일한 기술이다. 먼저 개구쟁이를 만들지 않고서는 결코 현자를 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스파르타인들의 교육이었다. 책에 붙들어 매어 두기는커녕, 제 음식을 훔치는 일부러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은 커서 거칠었던가? 그들의 날렵한 말대꾸의 힘과 기지를 누가 모르는가? 언제나 이기도록 생겨난 그들은 온갖 전쟁에서 적을 무찔렀지만, 수다스러운 아테네인들은 그들의 공격만큼이나 그들의 말도 두려워했었다.

가장 공들이는 교육에서는 선생이 명령하면서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스리고 있는 것은 실상은 아이다. 아이는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당신에게서 얻기 위해 당신이 저한테 요구하는 바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 시간의 부지런에 대해 제 몇대로 굴 수 있는 한 주일을 당신더러 치르게 할 줄을 늘 알고 있는 것이다. 노상 아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식으로 제의하지만 아이는 제 식대로 실행하게 되는 이런 계약들이란 언제나 아이 변덕에 유리하도록 바뀌게 마련이며, 더구나 교환 조건으로서 과해지는 바를 아이가 이행하진 않건 간에 얻을 자신이 있는 것을, 서투르게도 아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삼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이는 보통 선생이 아이 마음을 읽어 내는 것보다는 훨씬 잘 선생 머리를 읽어 낸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몸의 보전에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아이라면 씹먹게 될 총명모두를, 폭군의 사술에서 자신의 타고난 자유를 구해 내는 데에 아이가 씹먹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일에 그다지 절실한 관심이라곤 없는 선생이, 때로는 아이의 게으름이나 허영심을 묵인해 두는 편이 오히려 안성맞춤이라고 보는 데 반해서 말이다.

당신 제자와와는 반대되는 길을 취하라. 아이는 제가 늘 선생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선생은 늘 당신이도록 하라. 자유의 외관을 지닌 예측만큼 완전한 예측은 없다. 그래서 의지까지도 사로잡는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엾은 아이는 당신 뜻대로 될 것이 아닌가? 아이에 관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당신 마음

에 들도록 아이 마음을 얼마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아이의 공부도 놀이도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가 아이도 모르게 당신 손아귀에 쥐여 있지 않은가? 물론 아이는 제가 바라는 것밖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했으면 하고 당신이 바라는 것밖에는 아이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예측한 것 말고는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고서는 아이가 입을 벌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가 정신을 둔화시키지 않고도, 제 나이가 요구하는 육체 훈련에 몰두할 수 있게 될 것은 바로 이 때다. 귀찮은 지배를 피하려고 약은 피를 부리기는커녕, 현실의 안락에 가장 유리한 것을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은 바로 이 때다. 제 손이 가닿는 모든 대상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또 남의 의견의 도움 없이 사물을 진짜로 즐기기 위한, 아이의 교묘한 재주에 놀라게 될 것도 바로 이 때다.

이렇게 제 의지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해서 그 변덕을 조장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게 알맞은 일밖에는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는 이내 제가 해야 할 일밖에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도, 눈앞의 뚜렷한 이익이 문제인 한, 그가 가질 수 있는 이성 모두가 순수 이론 공부에서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훨씬 더 제게 알맞도록 발달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얹매려고 노리는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을 전혀 경계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숨길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거짓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낌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 줄 것이다. 당신은 아이를 마음대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이가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주고자 하는 가르침들을 아이 둘레에 차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깨기 좋아하는 질투심을 가지고 당신의 소행을 염탐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잘못을 잡아 은근히 기뻐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피하는 이러한 불편이란 아주 중대하다. 아이들의 첫 관심사의 하나는,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 내는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심술로 나아가지만, 심술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귀찮게 구는 권위를 피하려는 욕구에

서 오는 것이다. 과중한 굴레가 씌워진 아이들이 그것을 떨쳐 버리려 드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들에게서 찾아 내는 결점들이 그러기 위한 좋은 수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의 결점을 살피는 습관, 그것을 찾아 내어 좋아하는 습관이 생긴다. 여기서도 에밀의 마음속에서 악덕의 근원이 또 하나 막히게 됨은 분명하다. 내 결점을 찾아 내려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는 그것을 내게서 찾으려 들지 않을뿐더러, 딴 사람들에게서 찾으려는 생각도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런 일의 실행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인 만큼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려울 리가 없다. 당신이 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당신은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마땅하다. 당신은 사람 마음의 타고난 겹층겉이를 알고 있다고, 인간과 개인을 살펴볼 줄 안다고 우리는 짐작해야 한다. 그 나이에 흥미 있는 온갖 것을 당신이 제자 눈앞에 보여 줄 때, 그 의지가 무엇에 나부끼는가를 당신은 미리 알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연장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아이의 변덕을 반증으로 들겠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아이들의 변덕은 결코 자연의 소산이 아니고 못된 훈련 탓이다. 아이들이 복종하거나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쪽도 필요 없다는 말을 나는 백 번도 더 했다. 그러니 당신 제자는 당신이 주는 변덕밖에는 갖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제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고 당신은 말하겠지? 이것 또한 보다 나은 지도와 많은 인내심으로 될 수 있다.

만사를 제 마음대로 할뿐더러 모든 사람더러 제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버릇이 든 아이, 따라서 변덕투성이인 아이를 나는 몇 주일 동안 맡아 본 일이 있다.<sup>31\*</sup> 첫날부터 아이는 나의 친절을 시험해 보기 위해 밤중에 일어나려고 했다. 내가 잠이 한창일 때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실내 옷을 입고는 나를 부른다. 나는 일어나 촛불을 켜다. 그 이상 바라지는 않았다. 15분 후에는 졸려서 다시 눕는다. 시험 결과에 만족해서, 이를 후에 같은 시험을 되풀이해 같은 성과를 얻는데, 나도 애태우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누우려고 내게 뽀뽀할 때 나는 아주 침착하게

31\* 뒤팡(Dupin) 부인이 자기 아들의 교육을 잠시 루소에게 맡긴 일이 있음이, 《고백》Ⅶ에 나타나 있다.

말했다. 애야, 잘 돼 가는 모양이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이 말이 그의 호기심을 끄드려, 다음날에 당장, 내가 어떻게 감히 제 말에 거역하는가를 약간 알고 싶어진 그는, 같은 시각에 다시 일어나 나를 부르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안됐군” 하고 말을 잇고는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촛불을 켜 달라고 사정했다. “뭇 하리?” 나는 꼼짝도 않았다. 이 간명한 어조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부시를 찾으러 더듬어 가서는 치는 시늉을 했는데, 제 손가락을 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부시를 내 침대로 가져왔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돌아누웠다. 그러자 아이는 소리지르고, 노래하고, 법석을 떨고, 조심조심 탁자와 의자를 치며 야단스레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게 불안을 주고 싶어서 연상 고향을 질러 대는 것이었다. 이 모두가 소용없었다. 심한 혼계나 노여움만을 기대한 아이가 이런 냉정에는 전혀 대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그럼에도 고집을 부려 대어 내 참을성을 정복하기로 결심한 아이는 계속 법석을 떨어 끝내는 성공, 나는 바깥 달아올랐다. 그런데 당장은 흥분으로 죄다 망쳐 놓게 되리라고 깨달은 나는 탄 식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시 있는 데로 갔으나 보이지 않았다. 아이에게 물어 보니, 마침내 나를 이겨 낸 기쁨에 우쭐대며 그것을 내게 준다. 나는 부시를 쳐서 촛불을 켜고는, 꼬마의 손을 잡고 태연스레, 덧문이 잘 닫혀 있을뿐더러 부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옆방으로 데리고 간다. 불도 켜 주지 않고 아이를 그 방에 둔다. 이어 문에 열쇠를 채우고는 한 마디 말도 해 주지 않고 돌아와 눕는다. 당장에 어떤 법석이 벌어졌는가는 물을 필요도 없고, 나도 기대한 바다. 나는 전혀 동하지 않았다. 마침내 잠잠해진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가라앉은 것을 알자, 안심한다. 다음날 날이 밝아서 나는 그 방에 들어간다. 어린 반항자는 소파에 누워 깊은 잠이 들어 있는데, 그토록 피곤했으니 잠이 올 만도 하다.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밤의 3분의 2를 침대 밖에서 보낸 사실을 어머니가 알았다. 당장에 만사는 글렀고, 아이가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복수의 종

은 찬스로 본 아이는, 별수 없으리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피병을 앓았다. 의사가 불러 왔다. 어머니에게는 딱하게도 그 의사는 익살꾼이어서, 어머니가 겁먹는 것이 재미있어 겁을 더 먹게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귀에다 대고는 말했다. 내게 맡겨 두시오, 약속하지만 아이는 얼마 안 가서 피병 앓는 응석이 고쳐질 테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절식(節食)과 안정의 처방이 내리고, 약을 먹으라는 지시였다. 그 가엾은 어머니가 나만 빼놓고 주위의 모두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한숨이 나왔으나, 내가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여자는 나를 미워했다.

꽤 심한 책망을 하고 나서 그 여자는, 내게 자기 아들이 몸이 허약하며, 집안의 유일한 상속인인 만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소중히 해 주어야 하며, 그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점에서는 나도 동감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의 뜻을 거스른다는 말의 뜻을 모든 일에 있어 아이 말에 따르지 않는 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꽤 냉정하게 말했다. 부인, 저는 상속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게다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댁에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얼마 동안은 내가 필요했었다. 아버지가 모든 일을 가라앉혔던 것이다. 어머니가 가정 교사에게 얼른 돌아오도록 편지를 써 보내었다. 그리고 내 잠을 어지럽히거나 피병을 부려 본 댁자 아무 소득도 없음을 안 아이는 마침내 혼자 자기로, 건강을 돌이키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 꼬마 폭군의 얼마나 술한 이런 응석이 가련한 선생을 복종시켰던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왜냐하면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자기 상속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어머니 눈앞에서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이가 어떤 시간에 외출하고 싶건, 데리고 나갈, 아니 따라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고, 또 아이는 언제나 선생이 제일 바쁜 줄을 제가 아는 시간을 일부터 골라잡을 필요가 있었다. 내게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고, 밤에 내게 주지 않을 수 없던 휴식에 대해 낮에 복수하려 한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나 기꺼이 응해주었고, 제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나를 보는 기쁨을 나는 그 눈에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아이의 응석을 고쳐 주는 것이 문제가 되자 나는 달리 해치웠던 것이다.

우선, 그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란 눈앞의 일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나는, 앞을 내다본다는 편한 이점을 이용했다. 그가 아주 좋아하는 줄을 내가 아는 놀이를 옥내에서 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는 가장 열중해 있다고 본 순간에 곁으로 가서 산보를 한 바퀴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우겨 대었고, 아이는 듣지 않았다. 내가 질 도리밖에 없었고, 아이는 이러한 복종의 표시를 마음속에 소중하게 새겨 두었다. 다음날은 내 차례였다. 아이는 심심해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반대로 나는 굉장히 바빠 보였다. 아이를 결심시키는 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 자기를 당장 산보에 데리고 가게 하려고 내 일을 중지시키려 오지 않고는 못 배겼다. 나는 거절했다. 그는 고집을 부렸다. 아이에게 말했다. “안 돼, 네가 네 맘대로 하는 데서 나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배웠어. 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아이가 다부지게 대꾸했다. “좋아요, 저 혼자 나가겠어요.” “좋도록 하게나.” 그리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내가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을 보고 약간 불안해진 아이는 혼자 옷을 갈아입는다. 나갈 차비가 된 아이는 내게 와서 인사를 한다. 제가 가려는 길 이야기로 나를 걱정시키려고 애쓴다. 그 말대로라면 세계의 끝까지라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한다. 아이는 더욱 어리둥절해진다. 그런데도 아이는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나가면서 종복더러 따라오도록 이른다. 미리 통해 둔 종복이, 틈이 없다고, 내가 시킨 일로 바쁜 자기로서는 아이 말보다도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번에는 아이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남들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자처해, 하늘도 땅도 자기를 보전해 주려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를 혼자 외출하게 내버려 둔다고는 어떻게 생각조차 하겠는가? 어쨌든 그는 제가 약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혼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한다. 제가 무릅쓰게 될 위험을 지레 짐작한다. 고집만이 아직도 그를 뒷받침해 준다. 그는 몹시

당황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무슨 곳은일이라도 생기면 내 탓으로 돌려질 것이라는 기대에 얼마간 위안을 느끼며 아이는 마침내 골목으로 들어선다.

내가 기대하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일종의 공개 무대와도 같은 것이었기에, 아버지의 동의를 미리 얻어 두었던 것이다. 채 몇 걸음도 내디디기 전에 아이는, 좌우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아저씨, 예쁜 도련님이군요! 저렇게 혼자서 어디 가는 걸까요? 길을 잃으려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사정하고 싶군요. 아주머니, 조심하셔야지요. 몹쓸 짓만 하다가 집에서 쫓겨난 꼬마 놈팡이란 걸 모르시나요? 놈팡이를 끌어들여선 안 되죠.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럼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곳은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요.” 아이는 좀 더 가다가 저와 거의 같은 또래의 장난꾸러기들을 만나 놀림과 비웃음을 받는다. 더 가면 갈수록 태산이다. 보호자 없이 외톨이인 그는 제가 모든 사람의 놀림감임을 깨닫고, 견장이나 금박 장식의 저를 더 존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몹시 놀란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알지 못하나 내가 감시를 부탁해 둔 내 친구 하나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밟아 가다가 됐다 싶을 때에 아이에게 다가갔다. 《푸르소냐크 씨》에 나오는 스브리가니<sup>32\*</sup> 역과도 비슷한 이 역에는 재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연기는 완벽했다. 너무 질감을 먹여 아이를 겁쟁이로 만들지 않고도 그는 아이가 자신의 무모한 짓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시간 후에는 순해지고 창피해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는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왔다.

원정의 실패의 마무리로서, 아이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에 외출하려고 내려오던 아버지가 계단에서 아이와 마주쳤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인지, 왜 내가 동반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야만 했다.<sup>33</sup> 가엾은 아이는 땅속을 100자라도 내려가고 싶었을 것

32\* 몰리에르(Molière, 1622~73)의 희극 〈푸르소냐크 씨(Monsieur de Pourceaugnac)〉 1막 3장에서, 푸르소냐크를 미행해 오다가, 파리에 와서 시골뜨기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그를 편드는 체하는 스브리가니(Sbrigani).

33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진실을 요구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도 자기가 진실을 감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뿐더러, 감히 거짓말을 하더라도 당장 거짓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다. 아버지는 즐겨 긴 꾸지람을 늘어놓지는 않고,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통명스럽게 말했다. “혼자 나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부랑배를 집에 두고 싶지는 않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나로서는 책망이나 비웃음 없이, 약간 진중한 태도로 아이를 맞았다. 일어난 일 모두가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눈치챌까 봐서, 그날은 산보에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다. 다음날 나는, 어제 혼자인 그를 만나 놀리던 같은 사람들 앞을 그가 우쭐대며 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다. 다시는 나 없이 혼자 외출하겠다고 올려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내가 그 아이와 같이 지낸 얼마 안 되는 동안, 아무런 명령도 금지도 설교도 권고도 하지 않고도, 공연한 교훈으로 귀찮게 굴지 않고도,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을 하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방법 및 그 밖의 비슷한 방법들에 의해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동안 아이는 만족했었다. 그러나 내 침묵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무언가가 잘 되어 가지 않음을 그는 이해했었고, 언제나 교훈은 사물 자체로부터 주어졌었다. 그런데 본제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이렇게 자연의 지도에만 맡겨진 끊임없는 이런 훈련은, 몸을 튼튼히 해 주면서도 정신을 둔화시키지 않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반대로, 어릴 때 갖게 마련이고 어떤 나이에도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이성을 우리 속에 형성시켜 주기도 한다. 우리 힘의 사용법, 우리 몸과 주위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어 우리의 기관에 알맞은 자연의 연장들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노상 방 안에서 어머니 슬하에서만 자란 아이, 무게가 무엇이고 저항력이 무엇인지도 몰라 큰 나무를 뽑거나 바위를 들어올리려 드는 아이의 어리석음에 비길 만한 어리석음이 또 있겠는가? 제네바 시외에 처음 나갔을 때 나는 질주하는 말을 뒤쫓아가려 했었고, 20리나 떨어져 있는 살레브(Saleve) 산에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었다. 온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던 나는 그들 눈에는 진짜 천치였었다. 18살이 되면 사람들은 과학에서 지레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12살 난 농부 아들치고, 아카데미의 일급 기계 학자보다 낮게 지레를 쓸 줄 모르는 아이란 없다. 아이들이 학교 마당에서 서로 배우는 공부는 교실에서 듣는 모든 것보다 백배도

더 쓸모가 있다.

방에 처음 들어가는 고양이를 보라. 살피고 바라보고 냄새 맡고 하여 잠시도 가만 있지 않으며, 죄다 조사해서 알고 난 다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 이를테면 세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아이도 이렇게 한다. 차이라고는, 아이와 고양이에 공통된 시각에다, 살펴보기 위해 아이는 자연이 준 손을, 고양이는 자연이 베풀어 준 예민한 후각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뿐이다. 이러한 기관이 제대로 가꾸어지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익숙해지기도 서툴러지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가벼워지기도 하고, 경솔해지기도 신중해지기도 한다.

인간이 타고난 첫 움직임이란 따라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과 겨루어 보는 일이고, 눈에 띄는 대상물 하나하나 속에서 자기와 관계될 수 있는 감각적 성질 모두를 시험해 보는 일인 만큼, 인간의 첫 공부는 자기 보존에 관한 실험 물리학과도 같은 것인데, 이론 공부라는 것 때문에, 이승에서의 제 위치도 미처 알아보기 전에 방해를 받는다. 섬세하고 연한 기관들이 작용해야 될 물체들과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동안이, 아직은 순수한 감각들이 착각을 면하고 있는 동안이 바로, 그 기관과 감각들을 그 고유의 기능을 위해 훈련시킬 때다. 사물들이 우리에게 대해 갖는 감각적인 관계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인 것이다. 인간의 이해력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인간의 첫 이성도 감각적인 이성이다. 지적인 이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첫 과학 선생은 우리의 발·손·눈이다. 이 대신 책을 쓰는 것은, 이성으로 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성을 써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셈이다. 많이 믿도록,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도록 가르쳐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어떤 기술을 써먹으려면 먼저 그 연장들부터 마련해야 하며, 그 연장들을 보람 있게 쓸 수 있게 하려면 써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려면 따라서, 우리의 지능의 연장인 팔다리·감각·기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 이런 연장들을 되도록 온전하게 이용하려면, 그것을 대어 주는 육체가 튼튼하고 건전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이성은 육체와 상관없이 형성되기는커녕, 정신의 작용을 용이하고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훌륭한 체질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긴 여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보여 주면서 나는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들 말하겠지. 당신 자신이 비난하던 바에 빠져들어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는 것만 가르치는 알콧은 공부이군. 노상 저절로 배워져 고생도 주의도 할 것 없는 교육에 왜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 12살 난 아이치고 당신이 당신 제자에게 가르치려는 것, 더구나 저희 선생들이 이미 가르쳐 준 것을 누가 다 모르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 제자에게, 여러분의 제자들은 분명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시간 걸리는 힘든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식꾼이 되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식은 아주 작은 것으로 귀착되고 마는 법이니까. 여러분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 나로서는 지식을 얻는 데에 알맞은 연장 생각뿐이다. 어느 날 베니스 사람들이 스페인 대사에게 산마르코대성당의 보물을 야단스레 보여 주었는데, 테이블 밑을 보고 난 대사는 인사말로써 그제 “뿌리가 없군요(Qui non c'è la radice)”라고만 대꾸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말이 하고 싶어지는 일 없이는, 어느 교사가 자기 제자의 학식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모두가, 현대인과의 뚜렷한 차이인 그 힘찬 육체와 정신을 체조 훈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몽테뉴가 지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그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온갖 말로써 노상 되풀이해 이 문제에 언급하고 있다. 그는 한 아이의 교육에 대해 말하면서, 그 정신을 굳세게 하려면 근육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를 일에 익혀 주면 고생에도 익숙해진다. 탈구(脫臼)·복통·그 밖의 온갖 모진 고통과 맞서게 해 주려면, 모진 훈련에 익혀 주어야 한다. 만 모든 문제에서는 그렇듯 의견이 다른, 현명한 로크, 어진 롤랭, 박식한 플뢰리, 현학적인 꼬루자도,<sup>34\*</sup> 아이들

34\* Rollin(1661~1741): 대학 총장이며, 《연구론(Traité des Etudes)》, 《고대사(Histoire ancienne)》, 《로마의 역사(Histoire romaine)》의 저자.

의 몸을 많이 단련해야 한다는 이 점에서만은 모두가 일치다. 이는 그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다. 이는 언제나 가장 등한시되고 있고, 또 등한시될 가르침이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충분히 말했을 뿐더러, 이 점에서는 로크의 책에 나오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도 더 사려 깊은 규칙들도 줄 수가 없는 만큼, 나는 염치불고하고 그것들에 약간의 사건을 덧붙이고는, 그 책으로 미루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자라는 몸의 사지는 옷 안에서 혈령해야 한다. 그 운동이나 성장을 아무것도 막아서는 안 되며, 너무 맞거나 몸에 달라붙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동여매는 것도 못 쓴다. 어른들에게도 답답하고 해로운 프랑스식 옷차림은, 아이들에게는 특히 해롭다. 순환이 막혀 괴인 체액은, 활동 없는 불박이 생활이 늘려 주는 휴식 속에서 상하고 썩으며, 그 옷 입고 사는 방식이 예방해 주던 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으나 우리들 사이에서는 날로 번져만 가는 괴혈병(壞血病) 같은 병을 일으킨다. 경기병 옷차림은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늘려, 아이들에게 동여매기를 면해 주려고 온몸을 죄어 댄다. 보다 나은 것은 되도록 오랫동안 재킷을 입혀두는 일이고, 다음에는 아주 풍성한 옷을 주는 일이며, 몸매를 뒤틀어지게만 하는 그 몸매 드러내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아이들의 몸과 정신의 결합은 거의 모두가 같은 원인에서 온다. 제때가 되기 전에 어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다. 밝은 색이 아이들 구미에 더 맞는다. 그들에게 더 잘 어울리기도 한다. 이 점에 있어 이토록 자연스러운 적합을 참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값지다고 해서 어떤 천을 택한다면, 그 마음은 벌써 사치에, 남의 의견의 온갖 변덕에 넘어간 것이다. 또 그러한 구미는 분명 아이들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옷의 선택이나 그 선택의 동기가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눈먼 어머니들이 자식

Fleury 신부(1640~1723): 루이 14세의 손자들의 교육을 맡은 페늘롱(Fénelon)을 도와, 법률과 역사에 관한 저술을 했으며, 《교회의 역사(Histoire ecclésiastique)》는 그 주저.

Jean-Pierre de Crouzas(1663~1748): 스위스의 철학자·수학자. 베이일(Bayle)의 회의론과 라이프니츠(Leibniz)의 독단론을 비판했다.

들에게 상으로서 패물을 주기로 약속할뿐더러, 지각없는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별로서 더 변변찮고 수수한 옷을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일조차 있다. 공부를 더 잘 하지 않으면, 옷을 더 소중히 하지 않으면, 저 농사꾼 아이처럼 입혀 줄 테야.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인간은 옷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네 가치는 뭇땅 네 옷에 있다는 점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현명한 가르침이 젊은이들에게 이익을 주어, 그들이 패물밖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죽만 보고 가치를 판단한다 해서 놀라야 하겠는가?

만일 내가 이렇게 멍든 아이 머리를 돌이켜 줄 입장이라면, 가장 값진 옷이 가장 불편한 옷이 되게 해서, 온갖 수단을 써서 아이가 늘 거북하게, 얹매이게, 꼼짝 못 하게 해 주겠고, 그 화려 앞에서 자유와 기쁨이 도망가도록 해 주겠다. 더 수수하게 입은 단 아이들의 놀이에 그 아이가 끼어들려고 들면, 모두들 당장에 놀이를 그만두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끝으로 나는 아이를 성가시게 굴어 제 겹치레에 진저리가 나게, 제 금빛 옷의 노예가 되게 해 줌으로써 그것이 제 생활의 골칫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아이는 가장 검소한 감옥도 제 옷치장보다는 덜 끔찍해 보이게 될 것이다. 아이를 우리의 편견에 복종시키지 않는 한,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언제나 아이의 첫 소망이다. 가장 수수하고 가장 편안해 가장 덜 졸라매는 옷이 언제나 아이에게는 가장 값진 옷이다.

훈련에 알맞은 몸 버릇이 있는가 하면, 무위에 더 알맞은 다른 버릇도 있다. 체액이 고르고 한결같이 흐르게 두는 후자는, 공기의 변화로부터 몸을 막아 줄 것이다. 몸을 쉴 새 없이 운동에서 휴식으로, 더위에서 추위로 옮겨가게 하는 전자는 공기의 변화에 몸이 익숙해지게 해 줄 것이다. 죽이기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느 계절에나 또 하루의 어느 시간에도 한결같은 온도 속에 몸을 두기 위해 늘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바람과 태양과 비를 무릅쓰고 왔다 갔다 하여, 활동이 많고 시간의 태반을 “한데(sub dio)”서 보내는 사람들은, 공기의 온갖 변화나 온갖 온도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익숙해지기 위해 언제나 가볍게 입어야 한다. 나는 양쪽에게 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꾸지 말도록 권하고 싶고, 또 이것은 우리 에밀의 꾸준한 실천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밀이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들처럼 겨울에도 여름옷을 입는다는 말이다. 이는 기사 뉴턴<sup>35\*</sup>이 평생 지닌 습관이며, 그는 80년을 살았다.

어느 계절에나 모자는 거의 또는 전혀 쓰지 말 것. 고대 이집트인들은 언제나 맨머리였었다. 페르시아인들은 머리에 커다란 관을 썼었고, 게다가 큰 터번을 덮는데, 샤르댕<sup>36\*</sup>에 의하면 이 나라의 공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가 싸움터에서 페르시아 인과 이집트 인의 두개골에서 인정한 차이에 대해 나는 단 곳<sup>37</sup>에서 지적해 둔 일이 있다. 따라서 뇌를 비단 상처에 대비해서만이 아니라 감기나 염증이나 공기의 온갖 영향에 대비해서도 보다 낮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머리뼈들이 더욱 단단하게 속이 차서 영성하게 속이 비지 않게 되어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낮없이 늘 맨머리로 있는 데 익숙해지게 하라. 만일 깨끗이 하거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해 주기 위해 밤에 아이들에게 모자를 씌우고 싶다면, 바스크(Basque)인들이 머리카락을 싸는 그 그물 비슷한 얇고 사이가 뜬 천의 보네로 하도록 하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내 이야기 보다는 샤르댕의 관찰에 충격을 받아, 도처에 페르시아의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시아인을 만들기 위해 유럽 인 제자를 택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아이들에게는, 특히 유년기에는 너무 많이들 입힌다. 더위보다는 오히려 추위에 아이들을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심한 추위에도 일찍부터 당하게 두면 아이들은 병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부드럽고 영성해 땀이 너무 잘 나는 아이들의 피부 조직은, 지독한 더위에는 아이들이 진이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 그래서 다른 어느 달보다도 8월에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뿐 더러, 심한 더위보다는 심한 추위를 견뎌으로써 더욱 튼튼해진다는 것은, 북방 민

35\* 만유인력의 발견자 Newton(1642~1727)을 두고 한 말.

36\* Jean Chardin(1643~1713): 인도·페르시아를 여행하고, 《페르시아와 동인도에서의 기사 샤르댕의 일기(Journal du Chevalier Chardin en Perse et aux Indes orientales)》를 출판했다.

37 《달랑베르에의 연극 서한》(초판), p. 189.

족과 남방 민족의 비교에 의해서도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 섬유가 강해져 감에 따라 차츰차츰 태양 광선을 무릅쓰는 데도 익게 하라.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위험 없이 열대 지방의 혹서에도 끄떡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그 힘차고 사려 깊은 가르침들 속에서 로크는, 그만큼 빈틈없는 이론가치고는 뜻밖인 모순에 빠져 있다. 아이들이 여름에 냉수욕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아이들이 더울 때 찬 것을 마시거나 습기 있는 땅바닥에 눕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그는 아이들 구두가 노상 물에 젖어 있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아이가 더울 때는 덜 젖겠으며, 또 그가 손과 비해서 발에 대해, 얼굴에 비해서 몸에 대해 하는 같은 귀납을, 발에 비해서 몸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는가? 만일 당신이 인간이 온통 얼굴이기를 바란다면, 인간이 온통 발이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서 왜 나를 비난하는가?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하겠다.

아이들이 더울 때 물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마시기 전에 빵 한쪽을 미리 먹는 버릇을 들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괴상한 일이다. 나는 차라리 아이가 배고플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첫 욕망들은 하도 제멋대로여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는 나는 납득당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면 인류는 자기 보존을 위해 해야 할 바를 배우기도 전에 백번이나 멸망했을 것이다.

에밀이 목마를 때마다 마실 것을 주기를 나는 바란다. 아무런 손도 가하지 않은 순수한 물을, 설사 땀에 흠뻑 젖었다 하더라도, 또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데우기조차 하지 않은 물을 그에게 주었으면 한다. 내가 권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주의는 물의 질을 알아 내는 일이다. 시냇물이라면 시내에서 길어 낸 그대로 당장에 주라. 샘물이거든 마시기 전에 얼마 동안 공기 속에 두어야 한다. 더운 계절에는 시냇물이 더워져 있다. 공기와의 접촉이 없는 샘물은 같지가 않다. 대기의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겨울에는 반대로 샘물이 시냇물보다 이 점에서 덜 위험하다.

38 마치 농사꾼 아이들이 앞거나 드러누우려고 잘 마른 땅을 고르기라도, 또 땅이 젖어서 그중의 누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 점에 대해 의사들 말을 들으면, 미개인들은 다 류머티즘으로 몸이 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겨울에 특히 한데서 땀을 내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흔하지도 않은 일이다. 노상 피부를 자극하는 찬 공기가 땀을 안으로 소산시켜 땀이 마음대로 나가도록 땀구멍이 열리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에밀이 겨울에 따뜻한 불 앞에서 운동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밖에서, 들 한복판에서, 얼음 속에서 하라는 것이다. 눈덩이를 만들고 던져서만 몸이 더워지는 것이라면, 목이 마르거든 마시도록 내버려 두라. 마시고 나서도 운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어떤 사고도 염려하질랑 말자. 만일 땀 운동으로 땀이 나 목이 마르더라도, 그때도 찬물을 마시게 하라. 다만 멀리로 천천히 데리고 가 제가 물을 찾도록 해 주라. 예상되는 추위 때문에 그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물을 마실 만큼 충분히 몸이 식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심은 특히 그가 눈치채지 않게 하도록 하라. 그가 노상 제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가끔 병에 걸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아이들은 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긴 잠이 필요하다. 한쪽이 땀 쪽의 중화제 구실을 한다. 그래서 양쪽이 다 아이들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휴식의 시간은 밤 시간이며, 그것은 자연이 정해 놓은 바다. 해가 지평선 아래 있는 동안 잠이 더 평온하고 달콤하다는 것, 햇볕에 데워진 공기가 우리의 감각을 그다지 큰 안정 상태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건강에 가장 좋은 습관은 해와 함께 일어나고 눕고 하는 일이다. 우리의 풍토에서 사람이나 온갖 동물이 대체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오래 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은, 이러한 단조로움이 필요한 것이 될 정도로 그 단조로움에 사람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할 만큼 단순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변동이나 사건들에서 벗어나 있지도 않다. 분명 규칙에는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으름가는 규칙은, 필요할 경우에는 위험 없이 그 규칙들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중단당하지 않는 단잠의 계속 속에서 경솔하게도 여러분의 제자를 나약하게 만들려 들지는 말라. 우선 그를 구속 없이 자연의 법칙에 내어 맡기라.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서<sup>39\*</sup> 그는 이 법칙을 넘어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느닷없이 깨워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여러 밤을 서서 새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일찍부터 이렇게

39\* “우리들 사이에서”란 “사회 상태(l'état civil)에서”의 뜻.



해서 늘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이미 되어 버린 자를 그렇게 하면 그 체질을 파괴하는 바로 그 사물들에 의해 체질은 단련되는 것이다.

먼저 불편하게 자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쁜 침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는 방법이다. 대체로 힘든 생활은 일단 버릇만 들면 쾌감을 늘려 주는 법이다. 편한 생활은 불쾌감을 한없이 마련한다. 너무 애지중지 자란 사람들은 깃털 이불에서밖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널빤지 위에서 자기 버릇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잘 잔다. 누우면 잠이 드는 자들에게는 딱딱한 침대라곤 없다.

깃털이나 솜털 속에 사람이 파묻히게 되는 폭신한 침대는 이를테면 몸이 녹아 문드러지게 한다. 너무 뜨듯하게 감싸인 허리는 뜨거워진다. 여기서 결석(結石)이나 그 밖의 탈들이 생겨나기가 일쑤고, 또 그것들을 복돋우는 허약한 체질이 생겨난다.

가장 좋은 침대는 가장 좋은 잠을 마련해 주는 침대다. 에밀과 내가 낮에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침대다. 우리 침대를 차리기 위해 페르시아의 노예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도 좋다. 땅을 갈면서 우리는 우리 요를 깔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거의 마음대로 재우고 깨울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아이가 누워서 수다를 떨어 하녀를 성가시게 굴 때, 하녀는 “자세요”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아이가 아플 때 “몸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재우는 진짜 방법은 아이 자신을 성가시게 구는 일이다. 아이가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지껄여 대라. 그러면 곧 잠들 테니. 설교란 언제나 어딘가 쓸모가 있다. 잔소리해 주는 것은 옳어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수면제를 밤에는 사용하더라도 낮에는 사용을 삼가도록 하라.

나는 에밀을 가끔 깨우겠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 자는 버릇이 들까 봐 염려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갑자기 깨움을 당하는 일에게까지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뽀뽀러 만일에 내가 그를 스스로 잠이 깨게 만들 줄을, 이를테면 내가 한 마디 하지 않고도 내 뜻에 따라 그가 깨게 할 줄을 모른다면, 나는 내 직무에 대한 재능이 거의 없는 셈이 될 것이다.

그가 충분히 자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이 따분하리라는 것을 지레짐작하도록 해

주며, 저 자신도 잠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득 본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무 오래 자면, 잠이 깨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장난을 보여 준다. 일정한 시각에 깨우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 둔다. 내일 아침 6시에 낚시질하러 가게 돼 있어, 어디로 산책가게 돼 있어, 같이 가겠니? 그는 동의하고, 나더러 깨워 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필요에 따라 약속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가 너무 늦게 깨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다. 스스로 잠에서 깨는 법을 당장 배우지 않으면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또 드문 일이긴 하지만, 게을러빠진 아이가 나태에 빠지는 버릇이 있을 때는, 완전히 굳어 버릴지도 모를 그런 버릇은 내버려 두지 말고, 깨어나게 하는 어떤 자극제를 주어야 한다. 아이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도해 줄 어떤 욕망에 의해 아이 마음이 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자연의 질서 중에서 택해진 그 욕망은 우리를 한꺼번에 두 가지 목적으로 이끌어 준다.

약간만 머리를 써도, 아이들에게 허영심이나 경쟁심·질투심이 끼어들지 않게 취미를, 아니 열중까지도 붙여넣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는 통 생각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기와 모방심만으로 족하다. 더구나 틀림없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연장인데도 교사는 알아낼 줄 모르는 아이들의 그 타고난 쾌활성,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장난에서 아이들은, 딴 경우에는 눈물을 마구 쏟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지 못할 것도, 불평 없이, 웃기조차하면서 참아 내는 것이다. 오랜 단식·상처·화상·온갖 유의 피로가 다 어린 야만인의 재미가 된다. 고통에도 그 쓰라림을 털어 줄 수 있는 양념이 들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러한 진미를 요리하는 재주는 모든 선생들에게 딸린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상을 찌푸리지 않고 맛보는 것도 아마 모든 제자들에게 있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또다시 나는 조심하지 않으면 예외들 속에 길을 잃게 된다.

참지 못할 것은 그러나 고통·인류의 불행·사고·생명의 위험·그리고 죽음에의 인간의 굴복이다. 인간을 이런 온갖 관념에 익게 할수록, 고통에다 고통을 견디는 조바심을 덧붙이는 귀찮은 감수성을 더욱 고쳐 주게 될 것이다. 인간을 해칠 수 있

는 고통들에 익숙해지게 만들수록, 몽테뉴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고통들의 별난 아픔<sup>40\*</sup>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그의 혼도 더욱 드세어질 것이다. 그의 몸은 급소를 찌를지도 모를 온갖 화살을 막는 갑옷이 될 것이다. 죽음의 접근 자체가 죽음은 아닌 만큼, 그가 죽음을 그대로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어느 한쪽일 것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몽테뉴가 모로코의 어느 왕에 대해 말했듯이,<sup>41\*</sup> 아무도 죽음 속에 그만큼 파고들어 살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해서다. 꾸준함과 꾀꾀함은 다른 미덕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의 산 공부거리다. 그러나 미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이름들을 배워 주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맛보게 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는 문제를 두고, 천연두의 위험에 관해서는 우리 제자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릴 때 접종시킬 것인지, 아니면 절로 걸리도록 기다릴 것인지? 우리 습관에 더 맞는 첫 방침은, 생명이 가장 덜 값진 나이를 걸어서 생명이 가장 값진 나이를 위험에서 막아 준다. 단 제대로 주어진 접종에도 위험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둘째 것은, 자연이 혼자 하기를 좋아해서 사람이 끼어들려고만 들면 당장 그만두는 그 배려대로 자연이 만사를 알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원칙에 더욱 합치된다. 자연의 인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선생에게 접종받도록 내버려 두자. 그가 우리보다는 그 시기를 잘 택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접종을 비난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들지는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제자더러 접종을 피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제자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의 교육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려들 때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어쩌다가 천연두가 오게만 두면 아이들은 죽고 말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접

40\* “별난 아픔”은 la peinture de l'étrangeté의 번역. 루소는 몽테뉴의 《에세》I, 20의 다음 구절들을 생각한 것 같다. “죽음의 별난(l'étrangeté)을 없애어 보자.” “바늘에 조금 찔려도 되새겨 보자: 그래,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면?”

41\* 임종 때까지 군대를 지휘한 모로코 왕의 이야기도, 《에세》II, 21에서 인용된 것이다.

종이 필요해질수록 더욱 그 집종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에밀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은 별로 없다. 때와 장소와 사정에 따라 그는 점종받든지 안 받든지 할 것이다. 그에게는 거의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그에게 우두를 넣어 주게 되면 병을 미리 보고 아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가 절로 그것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는 의사로부터 그를 지켜 준 것이 되며, 이는 더욱 괜찮은 일이다.

그것을 받은 자들을 민중과 구별하려고만 드는 배타적 교육은 언제나, 가장 보편적인 또 그래서 가장 유용한 교육보다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을 택한다. 그래서 공들여 길러진 젊은이들은 모조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마를 배운다. 그러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을뿐더러 장인바치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헤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은 거의 하나도 수영은 배우지 않는다. 그런데 도장에 다니지 않은 나그네도, 말에 올라타고 매달려 아쉬운 대로 제법 말을 부린다. 그러나 물에서는 헤엄칠 줄 모르면 빠지고, 배우지 않고서는 헤엄은 되지 않는다. 또한 그토록 자주 직면하는 위험을 피할 자신은 아무도 없는 데 반해, 목숨을 걸고 꼭 말을 타야 할 일은 없다. 에밀은 땅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어느 원소 속에선들 왜 살 수 없겠는가! 공중을 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나는 에밀을 독수리로 만들겠다. 불에 단련할 수만 있다면, 에밀을 불도마뱀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이가 헤엄을 배우다가 물에 빠지거나 않을까 봐 염려들 한다. 배우다 빠지긴, 배우지 않아 빠지긴, 필경은 여러분의 잘못이 될 것이다.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것은 허영심뿐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모한 사람은 없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어도 에밀은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습이 위험과 꼭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그는 자기 집 정원의 수로(水路)에서 헬레스폰트 해협 횡단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에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위험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바 있는 수련의 기본적인 부분의 하나다. 게다가 그의 힘에 따라 위험을 조절할뿐더러 늘 위험을 그와 함께 하려고 애쓰는 내가, 자신의 보전에 치르는 배려에 따라 그의 보전에도 배려를 하게 되면, 경솔한

짓을 저지를 염려는 통 없을 것이다.

아이는 어른보다 작다. 어른의 힘도 이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른 못지않게,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보고 듣고 한다. 어른보다 덜 섬세하기는 하나 못지않게 민감한 미각을 지니고 있고, 어른과 똑같은 관능을 느끼지는 못하나 못지않게 냄새를 식별한다. 우리 속에서 맨 먼저 형성되어 완성되는 기능(機能)은 감각이다. 그러니 맨 먼저 가꾸어야 할 기능들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유일한 기능 아니면 가장 돌보지 않는 기능이 바로 이것이다.

감각을 훈련하는 일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며, 이를테면 느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대로밖에는 만질 줄도, 볼 줄도, 들을 줄도 모르니까 말이다.

판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는 일 없이 몸을 튼튼히 만드는 데 소용되는, 순전히 자연적이고 기계적인 운동이 있다. 헤엄치기 · 달리기 · 뛰기 · 땡이치기 · 돌 던지기. 이런 것은 모두가 썩 좋다. 그러나 우리는 팔다리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가? 눈 · 귀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힘만 훈련하지 말고, 그 힘들을 조종하는 모든 감각을 훈련하라. 감각 하나하나를 되도록 이용하라. 그리고는 한 감각의 인상을 딴 감각에 의해 검토하라. 재어 보고, 세어 보고, 달아 보고, 비교하라. 저항을 평가해 본 다음이 아니고서는 힘을 쓰지 말라. 언제나 결과의 평가가 수단의 사용에 앞서도록 하라. 모자라거나 쓸데없는 노력은 결코 하지 않도록 아이를 부추겨 주라.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결과를 예견하고, 경험에 의해 제 잘못을 바로잡도록 버릇을 들이면, 아이는 행동할수록 더욱 판단이 정확해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어떤 큰 덩어리를 움직이는 것이 문제라고? 아이가 너무 긴 지렛대를 쓰면 너무 큰 운동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너무 짧은 것을 쓰면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필요한 막대기를 정확하게 택하는 법을 경험이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지혜는 따라서 아이 나이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나를 수 있는 무게만큼만 들고 싶어 들어올릴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눈으로 그 무게를 재어 볼 도리밖에 없지 않을까? 아이가 같은 물질의 크기 다른 덩어

리들을 비교할 줄 안다면, 다른 물질의 크기 같은 덩어리 중에서 택하도록 하라. 아무래도 아이는 그 덩어리들의 비중을 비교하는 데 전심해야만 할 것이다. 굵은 떡갈나무 지저귀가 가득 든 들통이 물이 꽉 찬 같은 들통보다 덜 무겁다는 사실을, 시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으려고 들지 않던, 교육을 썩 잘 받은 한 젊은이를 나는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똑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깨어 있는 동안은 그 작용이 결코 중지되는 일이 없는 촉각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고하려고 끊임없이 망보는 감시인인 양, 우리 몸의 온 표면에 펼쳐져 있다. 그것은 또한 그 계속적인 연습에 의해 그 경험을 우리가 좋건 싫건 가장 빨리 얻게 되는 감각이며, 또 따라서 특별한 연마를 가할 필요도 덜한 감각이다. 그런데 시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장님들은, 우리에게는 시각이 주는 판단을 촉각으로부터만 끌어내는 법을 배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고 예민한 촉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어둠 속을 걷고, 손 미치는 물체를 알아보고, 주위의 대상물들을 판단하는 훈련을,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눈 없이 낮에 하는 모든 것을 불빛 없이 밤에 하는 훈련을 시켜 주지 않는가? 해가 반짝이는 동안 우리는 그들보다 유리하다. 어둠 속에서는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의 안내자다. 우리는 일생의 절반이 소경이다. 진짜 장님은 언제나 걸어들 줄을 아나 우리는 한밤에는 감히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못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불빛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지. 뭐라고! 또 연장 이야기인가! 그것이 필요할 땐 어디서나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누가 보증해 주는가? 나로서는 예밀이 양초 가게보다는 손가락 끝에 눈이 있는 것이 낫겠다.

밤에 어느 건물에 갇혔거든 손을 두들겨 보라. 그 장소의 방향을 들어서,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를, 제가 복판에 있는지 구석에 있는지를 알아채게 될 것이다. 벽에서 반걸음 되는 데서는, 덜 둘러싸 더 반사되는 공기가 얼굴에 색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그 자리에 가만있으라. 그리고 차례로 몸을 사방으로 돌려 보라. 만일 열린 문이 있으면, 가벼운 바람이 그 문을 가리켜 줄 것이다. 배를 타고 있다면, 바람

이 얼굴을 어떻게 스치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물론, 물살이 느린지 빠르지조차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 및 그 밖의 비슷한 술한 관찰들은 밤에밖에는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대낮에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려 들어도, 시각의 도움이나 방해로 받아 관찰은 허탕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여기서는 아직 손도 막대기도 없다. 얼마나 많은 눈에 의한 지식을 우리는 촉각에 의해 얻을 수 있는가, 그나마 전혀 아무것도 만져 보지 않고도 말이다!

많은 밤놀이를, 이 충고는 보기보다 중요하다. 밤에는 물론 사람들이, 때로는 짐승들도 겁을 먹는다.<sup>42</sup> 이성·지식·정신·용기도 이 얽매임에서 사람을 풀어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나는 이론가·자유사상가·철학자·대낮에는 대담한 군인들이 밤에 여자들처럼 나뭇잎 소리에 떠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공포를 유모들의 이야기 탓으로 돌린다. 틀린다.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귀머거리들을 의심 많게 만들고, 민중더러 미신을 믿게 만드는 같은 원인, 즉 우리 주위의 사물들이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무지다.<sup>43</sup> 멀리서 물건들을 알아

42 이러한 겁은 심한 일식(日蝕) 때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3 내가 그의 책을 자주 인용하고 있고, 또 그 훌륭한 견해들이 더욱 자주 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한 철학자에 의해 충분히 설명된 또 하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질 수가 없을 때는, 그래서 대상물들을 각도의 크기에 의해서밖에는, 아니 그보다도 그것들이 우리 눈에 비치는 영상의 크기에 의해서밖에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을 때는, 그것들의 크기를 아무래도 잘못 보기가 일쑤다. 밤길을 가면 가까이 있는 덩불이 먼 데 있는 큰 나무로 보이고, 먼 큰 나무가 가까이 덩불로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 본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상물의 형태를 알지 못해 거리에 대한 아무런 관념도 가질 수가 없으면, 역시 잘못 생각하게 되기가 일쑤다. 우리 눈에 바로 앞을 빨리 지나가는 파리는 이 경우, 먼 곳을 지나가는 새로 보일 것이다. 들 복판에 가만있어, 예컨대 양과 같은 자세로 있는 말은 그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은 큰 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인 줄을 알게 되면 당장에 말처럼 크게 보여, 우리는 곧 첫 판단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에 거리를 짐작할 수가 없고 어두워서 물건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낮은 곳에 있게 되면 번번이, 나타나는 대상물들에 대해 내리는 판단에 있어 노상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이다. 밤의 어둠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두려움과 마음속의 겁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술한 사람들이 보았다는 도깨비나 거창하고 무서운 형상들이 바로 여기서 말미암는다. 그러한 형상들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들 보통 말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지로 눈에 비칠 수가 있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본 경우도 얼마라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물을 그것이 눈에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을 때는 번번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낮은 대상물이 불어나 커지게 마련이니

보아 그 인상을 미리 예견하는 버릇이 든 내가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 나를 해칠 수 있을뿐더러 내가 막아 낼 수도 없는 천 가지 존재, 천 가지 움직임이 거기에 있다고 어찌 상상하지 않겠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헛일, 그곳을 눈앞에 보는 만큼 제대로는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전히 낮에는 없던 걱정거리가 있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만 물체가 어떤 소리로 저를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노상 나는 얼마나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가! 원인 모를 하찮은 소리에도 나의 자위에 대한 관심은 우선 나더러, 나를 가장 경계하게 만드는 모든 것, 따라서 나를 겁먹게 하기에 가장 알맞은 모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소리 없이도 내게 덮쳐들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사물들을 전에 그랬던 그대로, 지금도 그래야 할 그대로 상상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동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이내 그 상상력을 견잡을 수가 없게 되어,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 노릇 모두가 나를 더욱 불안케 할 따름이다. 소리

까, 그래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보이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짐작하지도 못하는 사람 눈에 그것이 불쑥 나타났을 때는, 내 말은 이삼십 걸음의 거리에 있을 때 몇 자 높이로 나타났다면 몇 자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 있을 때는 몇 길 높이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대상물을 가서 만져 보거나 알아보게 될 때까지는 놀라 겁을 먹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당장에 그 거창해 보이던 대상물이 갑자기 작아져 실지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피해가거나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때는 그 대상물에 대해, 그것이 눈에 비취는 영상에서 오는 관념밖에는 딴 관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래서 그 크기와 모양이 무섭거나 거창한 형상을 실지로 본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깨비에 대한 억측은 자연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철학자들이 믿고 있듯이 오로지 상상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박물지》 6권, p.22).

어떻게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늘 상상에 달려 있는가를, 나는 본문에서 밝혀 보이려고 애썼으며, 이 인용문에서 설명된 그 원인으로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대상물들이 모양의 닮음과 거리의 차이 때문에 우리 눈에 비치게 되는 갖가지 허울들을 분간해 보는 법은, 밤길을 걷는 습관이 가르쳐 주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물의 윤곽을 알아볼 만큼은 아직은 밝을 때는, 거리가 멀면 사이에 끼어드는 공기도 더 많기 때문에 대상물이 멀수록 그 윤곽도 덜 뚜렷이 보이게 마련이며, 이러한 사실은, 습관만 쌓는다면 뷔퐁(Georges-Louis Leclerc de Buffon, 1707~88) 씨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실수를 막아 주기에 충분하니까. 따라서 어떤 설명을 택하건 내 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이고, 또한 경험에 완전히 확인해 주는 바이기도 하다.



를 들으면 도둑의 발자국으로 들린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허깨비가 보인다. 나를 지키려는 조심에서 오는 경계심이 걱정거리밖에는 안겨 주지 않는다. 나를 안심시켜 줄 모든 것은 내 이성 속에밖에는 없는데, 더 강한 본능이 이성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내게 한다. 그러니 할 아무 일도 없으니 염려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랴?

병의 발견된 원인은 약을 가리켜 준다. 만사에 있어 습관은 상상력을 죽인다. 상상력을 일깨우는 것은 새로운 것들밖에 없다. 날마다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작용하는 것이 상상력이 아니고 기억력이다. “정념은 습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Ab assuetis non fit passio*)”는 공리(公理)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 왜냐하면 정념은 상상력의 불로만 불붙는 것이니까. 그러니 어둠에 대한 겁을 없애어 주고 싶은 사람과는 이치를 따지지 말라. 그를 어둠 속으로 자주 데려가라. 그리고 철학의 온갖 논증들도 이런 습관을 당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지붕 이는 일꾼은 지붕에 올라가 눈이 돌진 않으며, 어둠 속에 있기 버릇한 사람치고 어둠 속에서 겁먹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밤놀이에겐 첫 이득에 또 하나의 이득이 덧붙여진 셈이다. 그런데 이 놀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쾌활을 아무리 권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어둠만큼 쓸쓸한 것은 없다. 아이를 감옥에 가두려 들지는 말라. 어둠 속에 들어갈 때는 아이가 웃도록 해 주라. 어둠에서 나오기 전에 다시 웃도록 해 주라. 거기 있는 동안은, 두고 온 재미와 곧 되찾게 될 재미 생각이 그를 찾아올지도 모를 엉뚱한 상상을 막도록 해 주라.

어느 때를 넘어서면 나아가면서도 뒷걸음질하게 되는 그러한 생애의 한 시기가 있다. 나는 그 시기를 지난 것으로 느껴진다. 이를테면 나는 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고 있다. 내게도 느껴지게 된 중년기의 공허감이 어린 시절의 그리운 때를 내게 회상시켜 준다. 늙어 가면서 나는 다시 아이가 되어, 30살때 한 일보다도 10살때 한 일을 더 기꺼이 회상한다. 독자들여, 그러니 때로는 나 자신의 예를 드는 것을 허용하라. 이 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기쁜 마음으로 써야 하니까 말이다.

시골에서 랑베르세 씨라는 목사 집에 기숙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아버지 슬하를

떠난 나는 가엾은 고아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속자 대접을 받던 나보다 부자인 사촌 하나가 친구로 있었다. 내 사촌 형 베르나르는 유난히 겁쟁이였었는데, 특히 밤에는 더 했었다. 그 겁을 내가 하도 놀려 대는 바람에 내 제 자랑에 지쳐워진 랑베르세 씨가 내 용기를 시험해 볼 생각이 났다. 몹시 어둡던 어느 가을 저녁, 그는 성당 열쇠를 주면서 설교단에 두고 온 성서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내 명예심을 충동하려고 나를 망설이지 못하게 만드는 말 몇 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등불 없이 떠났다. 그게 있었더라면 더 나뻐올지도 모른다. 묘지를 지나가야만 했다. 나는 대담하게 건너질러 갔다. 왜냐하면 한테 있다고 느껴지는 한 나는 밤에 겁먹는 일은 통 없었으니까.

문을 열자, 사람 목소리 비슷하게 여겨지는 울림이 천장에서 들렸으며, 그것이 나의 로마인파도 같은 굳센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문이 열려 나는 들어가고자 했다. 그런데 채 몇 걸음도 못 가서 나는 섰다. 그 널따란 곳에 감도는 짙은 어둠을 보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나는 뒷걸음질쳐, 빠져 나와, 바들바들 떨며 뺑소니치기 시작한다. 안마당에서 설땅이란 이름의 강아지를 만났는데, 그것이 비벼 대는 바람에 마음이 놓였다. 자신의 겁에 부끄러워진 나는 되돌아서긴 했지만, 설땅을 데리고 가려는데 따라오려 들지를 않았다. 나는 후닥닥 문턱을 걸터 넘어 성당 안으로 들어선다. 되돌아서자 다시 겁에 질렸는데, 이번에는 하도 심해 머리가 핑 돌았다. 그래서 설교단은 오른쪽에 있었는데도,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잘못 돌아 한참 동안을 왼쪽에서 찾았고, 결상들에 걸려 찢찢매었으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설교단도 문도 찾아 낼 수 없게 된 나는 말도 못 할 혼란에 빠졌다. 마침내 문을 알아 내고 성당을 빠져 나오기에 성공해, 낮이 아니면 다시는 혼자서 돌아오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고는 먼젓번처럼 거기서 물러간다.

집에까지 돌아온다. 막 들어가려는데, 절절 웃어 대는 랑베르세 씨 소리가 들린다. 나 때문이라고 지레짐작한 나는 얼굴을 내놓기가 창피스러워 문 여는 것을 망설인다. 그러는 동안 랑베르세 양이 내 걱정을 해 하녀더러 초롱을 갖고 오라고 이르는 소리와, 랑베르세 씨가 그 대담한 사촌형의 호위를 받아 나를 찾으러 갈 차비를 하

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원정의 명예는 고스란히 사촌에게 넘어갈 것이 틀림없다. 당장에 겁이 모조리 사라지고, 뽕소니치다가 들키지 않나 하는 겁밖에는 남지 않는다. 나는 달린다. 성당으로 날아간다. 길을 틀리지도 더듬지도 않고 설교단에 가 닿는다. 올라가 성서를 쥐고는 아래로 뛰어내린다. 세 걸음을 뛰어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문을 닫는 것조차 잊어 먹었다. 혈레벌떡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있긴 했으나 내게 돌려졌던 구조를 피한 기쁨에 가슴 두근거리며 성서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친다.

내가 이 사실을 따라야 할 하나의 본보기로서, 이런 유의 훈련에서 내가 요구하는 쾌활의 하나의 예로서 내놓는 것이냐고 묻겠지? 아니다. 다만 옆방에 모인 사람들이 태연스레 웃고 지껄여 대는 것을 듣는 이상으로 밤의 어둠에 겁먹은 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증거로서 내놓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서 제자와 즐기지 말고, 저녁마다 유쾌한 아이들을 많이 모았으면 하고 바란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보내지 말고 몇 씩 같이 보내도록, 그다지 겁먹지 않으리라 하는 확신이 미리 서지 않고서는 어느 아이도 완전히 혼자서 모험하게 하지는 말도록 하라.

꽤 있게 마련해 줄 생각만 있다면 이런 놀이만큼이나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널따란 방에 테이블이며 안락의자·결상·칸막이들을 가지고 미로 비슷한 것을 만들겠다. 그 미로의 뒤엎힌 꼬부랑길들에다, 8 내지 10개의 속임 상자 속에 봉봉이 가득 든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상자를 놓겠다. 그 보물상자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분명하고도 간결한 말로 가리켜 주겠다. 아이들보다는 더 주의 깊고 덜 경솔한 사람들이라면 그 상자를 알아 내기에 충분한 정보를 대어 주겠다.<sup>44</sup> 그리고 꼬마 경쟁자들에게 제비를 뽑히고는, 그 보물상자가 발견될 때까지 한 사람씩 차례로 보내겠다. 내가 일부러 아이들 재주로는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말이다.

44 아이들에게 주의력을 훈련시키려면, 잘 들으면 당장 뚜렷하게 이로운 것들밖에는 말해 주지 말라. 더구나 길어서는 안 되고, 군소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에 흐릿하거나 애매한 점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손에 상자를 들고 원정에 우쭐해서 돌아오는 꼬마 헤라클레스를 상상해 보라. 상자는 테이블에 놓여져, 점잖게 열려진다. 기대하던 썸 대신 이끼나 솜 위에 아주 깔끔하게 차려 놓은 풍뎡이, 달팽이, 숯, 도토리, 순무 또는 비슷한 판 물건이 나올 때, 유쾌한 패가 터뜨리는 웃음과 환성이 벌써 들린다. 어떤 때는 새로 흰 칠한 방 벽 가까이에 장난감이나 작은 세간 같은 것을 매달아 놓고, 벽에 손대지 말고 그것을 찾아오게 한다. 가지러 간 아이가 돌아오자, 조금이라도 조건을 어겼다면 허영게 된 모자 가장자리나 구두코 · 옷자락 · 소매가 실수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유의 놀이의 본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니 지나칠 정도인 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에게 죄다 말해야 한다면, 아예 내 책을 읽지도 말라.

이렇게 자란 사람은 밤에 판 사람들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어둠 속에서 굳어진 발과, 주위의 온갖 물체에 십사리 가당게 훈련된 손이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예사로 그를 이끌어 줄 것이다. 어린 날의 밤놀이들로 가득 찬 그의 상상력은 좀처럼 겁나는 대상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절 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요정들의 그것이 아니라 옛 친구들의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모임을 생각하게 되면 그에게는 그것이 마녀의 잔치가 되지 않고 가정 교사 방이 될 것이다. 즐거운 생각 밖에는 그에게 주지 않는 밤이 결코 무서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밤을 두려워 하기는커녕 좋아하게 될 것이다. 군대에서 원정을 가게 되더라도 그는, 혼자서나 부대와 같이서나 언제라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사울의 군영으로 들어가 길 잃지 않고 돌아다니며, 아무도 깨우지 않고 왕의 천막에까지 갔다가 들키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sup>45\*</sup> 레수스의 머리카락을 잘라 와야 한다면, 염려 말고 그에게 부탁하라. 달리 자란 사람들 중에서는 올리스스 하나를 찾아 내기 힘들 것이다.<sup>46\*</sup> 기습으로 아이들을 밤에 아무것도 겁내지 않게 길들이려고 드는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있다. 이 방법은 아주 나쁘다. 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45\* 다윗이 물단지와 빵을 훔치러 사울 왕의 텐트로 기어들어갔다는 에피소드(〈사무엘 전서〉 26장)를 두고 한 말.

46\* 올리스스가 트로이 장수 레수스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10권에서의 인용.

언제나 아이들을 더욱 겁쟁이로 만들 따름이다. 그 정도도 종류도 알 수 없는 눈 앞의 위험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또 흔히 겪은 일 있는 기습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성도 습관도 안심시켜 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당신 제자더러 이런 사고를 영락없이 면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것을 미리 피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나은 충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에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정당방위의 경우에 놓인 거다. 왜냐하면 공격자는 너를 해치려는 건지 겁먹게 하려는 건지 너더러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또 그가 유리한 태세를 취한 만큼 도망조차도 네게는 피신이 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사람이건 짐승이건 상관 말고 밤에 너를 기습하는 자는 사정없이 붙잡아라. 힘껏 그 놈을 움켜잡아라. 발버둥치거든 두들겨 패라. 조금도 사정보지 말고 말이다. 그리고 녀석이 무슨 말 무슨 짓을 하건 그 정체를 알아 내기 전에는 놔 주지 말라. 밝혀지면 염려할 만큼 대단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너는 아마 알게 되겠지만, 장난꾼에 대한 이런 식의 응수는 물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

촉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끊임없이 쓰는 것이긴 하나,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 판단은 판 어느 감각의 그것보다도 불완전하고 조잡한 채로 있는 바, 그것은 우리가 촉각을 쓸 때는 언제나 시각도 쓰게 마련인데, 눈은 손보다 빨리 대상물에 이르기엔 머리가 거의 언제나 손 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촉각의 판단은, 가장 제한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 손이 가닿는 거리만큼밖에 뻗치지 않는 촉각의 판단은, 보이는 것은 다 제대로 보는 촉각과는 판판으로 보일까 말까한 대상에까지 멀리 달려가는 판 감각들의 경솔을 고쳐 주니까. 게다가 마음이 내키면 우리는 근육의 힘을 신경 작용과 합쳐, 동시 감각에 의해 온도나 크기나 형태의 판단에다 무게와 견고성의 판단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모든 감각 중에서, 외부 물체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인상을 가장 잘 알려 주는 감각인 촉각은, 가장 자주 쓰여, 우리의 자기 보존에 필요한 지식을 가장 직접 공급하는 감각이다.

소리도 촉각에 느껴지는 진동을 소리나는 물체에서 일으키는 만큼, 훈련된 촉각은 시각을 별충하듯이 청각도 어느 정도까지는 왜 별충하지 못하겠는가? 첼로에다

한 손을 얹으면, 눈이나 귀의 도움 없이도 나무통이 진동하는 방식만으로 그것이 내는 소리가 낮은지 높은지를, 제1현에서 나오는지 저음현에서 나오는지를 가려 낼 수 있다. 이런 차이에 감각을 훈련시키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한 곡 전체를 손가락으로 들을 정도로 민감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귀머거리들에게 음악으로 쉽사리 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음절 발음과 목소리보다 규칙적인 배합에 덜 맞을 것도 없는 가락과 박자도 마찬가지로 말의 요소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촉각을 더욱 무디게 드는 훈련이 있다. 반대로 탄 훈련들은 촉각을 별려 더 섬세하고 날카롭게 만든다. 단단한 물체들의 계속적인 인상에서 술한 운동과 힘을 결합시키는 전자는, 피부를 거칠게 못이 생기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없앤다. 후자는 같은 느낌을 가볍고 잦은 접촉에 의해 변화시키는 훈련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상들에 주의 깊은 정신은 그 온갖 변화를 쉽사리 판단하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악기의 사용에 있어 뚜렷하다.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의, 바이올린까지의 명들 것 같은 딱딱한 터치는 손가락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면서 그 끝을 굳게 한다. 클라브생의 매끄러운 터치도 손가락을 부드럽게 만드나 동시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 점에서는 클라브생이 바람직하다.

피부는 공기의 영향에 튼튼해져 그 변화를 무릅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두를 지켜 주는 것이 바로 피부니까. 이것 말고는, 같은 일들에 너무 노예처럼 얽매인 손이 굳어져 버리는 것도, 또 거의 빠져버린 손의 피부가, 닿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려 줄뿐더러 때로는 어둠 속에서 접촉의 종류에 따라 우리를 갖가지 식으로 소스라치게 하는 그 쾌감을 잃게 되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왜 내 제자는 발밑에 늘 소가죽을 달고 있도록 강요당해야만 하는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발 가죽이 구두창 노릇을 해서 나뻐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는 피부의 연함이 아무 소용이 없을뿐더러 해를 주기가 일쑤라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에서 한겨울 밤중에 적의 기습으로 잠이 깬 제네바 시민들은 구두보다는 총을 먼저 찾아 내었다. 그중의 하나라도 맨발로 걸을 줄을 몰랐더라면, 제네바가 점령당하지

않고 배겼을는지 누가 알라?<sup>47\*</sup>

뜻하지 않은 사고들에 대비해 인간을 늘 무장시키자. 에밀은 어느 계절에도 아침마다 맨발로 방이며 계단이며 뜰을 뛰어다닌다. 그것을 꾸짖기는커녕 나도 따라하겠다. 다만 유리 조각은 치우도록 주의하겠다. 손일이나 놀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게다가 몸의 발육을 돕는 온갖 걸음걸이 하는 법을, 어떤 자세에서도 편하고 끔찍없는 몸가짐을 취하는 법을 그는 배워야 한다. 멀리, 높이 뛸 줄을, 나무에 기어오르고 담을 뛰어넘을 줄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의 온갖 운동과 몸짓은 역학이 균형의 법칙들을 그에게 설명하러 들기 오래전에 그 법칙들에 따라 가다듬어져야 한다. 발을 땅에 놓고 몸을 가누는 방식에 따라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한다. 안정된 앉음새는 언제나 멋이 있고, 가장 단단한 자세는 또한 가장 맵시가 있다. 마르셀<sup>48</sup>의 원숭이 흉내는 그가 그 짓을 하는 나라에서는 좋겠지만, 내가 춤 선생이라면 그런 짓은 통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 제자더러 끝없이 춤을 시키지 말고 바위 밑으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나는, 우툴두툴하고 거칠고, 가파른 좁은 길을 가벼이 걸어가려면, 오르거나 내리면서 바위 끝에서 끝으로 뛰어넘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몸과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동작을 해야 하며, 때로는 발 때로는 손을 어떤 식으로 놓아야 하는가를 가리켜 보이겠다. 나는 그를 오페라 극장의 무용수보다는 노루의 적수로 만들 생각이다.

촉각이 작용을 인간 둘레에 집중시키는 그만큼, 시각은 작용을 인간 밖으로 펼친다. 시각 작용에 속임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평선의 절반이 한 눈에 들어온다. 동시에 느끼는 이 술한 감각과 그것들이 꼬드쳐 일으키는 술한 판

47\* 필리프 2세의 사위인 사바 공(公) 샤를 에마뉼엘 1세가, 1602년에 제네바를 사탕다리진법으로 기습했으나 실패한 일이 있다.

48 파리의 이름난 춤 선생으로, 자기 손님들을 잘 알고 있어 속임수로 엉뚱한 짓을 했으며, 자기 재주를 굉장히 뽐내어,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보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때문에 그를 더없이 존경했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에 못지않게 시시한 판 재주로 어느 배우가 역시 뽐내고 어릿광대 노릇을 해 못지않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틀림이 없다. 더욱 단 순하고 속임수가 덜한 진짜 재능은 여기서는 성공을 거두는 일이 없다. 여기서는 겉허가 바보의 미덕이다.

단에서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각은 가장 널리 펼쳐지고, 탄 감각들을 훨씬 앞서는 그 작용이 너무 재빠르고 넓어 탄 감각들의 수정을 받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다. 뿐더러 공간을 인식해 그 부분들을 비교하기에 성공하려면 원근의 착각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빗보이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먼 데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크기와 빛의 점층(漸層) 없이는 어떤 거리도 잴 수 없을 것이고, 아니 우리에게는 거리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같은 키의 두 그루 나무 중에서 백 걸음 떨어진 데 있는 나무가 열 걸음 떨어진 데 있는 나무와 똑같이 크게 똑같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두 그루를 나란히 늘어놓는 셈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물체들의 온갖 크기를 재 진짜 치수로 알아보게 된다면 어떤 공간도 보이지 않아 모조리 우리 눈 위에 나타날 것이다.

물체들의 크기와 거리를 판단하기 위해 시각은 하나의 같은 척도, 즉 그것들이 우리 눈 속에서 이루는 각도밖에는 지니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각도는 복합된 원인의 단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판단은 하나하나의 원인을 확정되지 않은 채 두거나 아니면 그 판단이 필연적으로 틀리기 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한 물체를 탄 물체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각도가, 그 물체가 실제로 더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더 멀리 있어서 그런지를 보기만 해서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여기서는 먼저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감각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겹치게 하며, 늘 탄 감각에 의해 검토하고, 시각 기관을 촉각 기관에 종속시켜, 말하자면 시각의 성급함을 촉각의 느리고 고른 발걸음으로 억제하는 일이다. 이런 식을 따르지 않고서는 눈대중은 아주 부정확하다. 높이 · 길이 · 깊이 · 거리를 판단함에 있어 눈대중으로는 아무런 정확성도 없다. 또 그것이 감각 자체보다는 그 사용의 잘못이라는 증거로서, 제작 기사나 측량사 · 건축가 · 석수 · 화가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훨씬 확실한 눈대중을 지니고 있어, 공간에 있는 크기들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 까닭은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얻기를 소홀히 하는 경험을 그들의 직업에서 얻는 그들은, 각도를 동반할뿐더러 그 각도의 두 원인의 관계를 그



들 눈에 더욱 정확하게 결정지어 주는 눈짐작에 의해 각도의 애매함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몸을 얹매지 않고 몸에 움직임을 주는 모든 것은 언제나 아이들이 얻기에 손쉽다. 거리를 재고 식별하고 짐작하는 일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만드는 방법은 얼마라도 있다. 저기 아주 높은 벚나무가 있다. 버찌를 따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광의 사다리면 되겠는가? 아주 넓은 개울이 있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안마당에 있는 널빤지가 양쪽 독에 걸리겠는가? 창문가에서 성관 해자의 고기가 낚고 싶다. 낚시줄은 몇 발이면 될까? 저 두 나무 사이에 그네<sup>49\*</sup>를 매달았으면 한다. 두 길저리 밧줄이면 족할까? 판 집에서는 우리 방이 25자 평방이 되리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가? 이 방보다 클 것인가? 굉장히 시장하다. 저기 마을이 둘 있다. 어느 쪽에 가면 점심을 더 일찍 먹겠는가? 등등이다.

군인직에 나갈 처지인데도 달음박질도 판 어떤 훈련도 스스로 하려 들지 않는 게 올려빠진 아이더러 달음박질 훈련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는 나도 모르나 그 아이는 저 같은 신분의 사람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아무 일도 알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귀족 신분이 온갖 재능을 대신하고 팔다리를 대신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양반을 날쌔 발의 아킬레우스로 만드는 데는 케이론의 재간을 가지고도 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50\*</sup> 더구나 나는 그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명령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어려움은 더욱 컸었다. 격려 · 약속 · 협박 · 경쟁심 · 남의 눈에 띄려는 욕망 따위를 나는 나의 권리에서 내몰아 버렸던 것이다. 달리고 싶은 욕망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줄 것인가? 나 자신이 달린다는 것은 거의 효과도 없거니와 오히려 탈이 생기기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신체 기관의 작용과 판단력의 작용이 늘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르침이 되는 어떤 건더기를 그 훈련에서 끌어내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치웠는가는 다음과 같다. 나란 말하자면 이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자다.

49\* balançoire, C에는 escarpolette로 나와 있다.

50\* 케이론(Chiron)은 아킬레우스를 맡아 가르친, 말 몸통이에 사람 머리의 괴물(《일리아드》).

오후에 그와 산책하러 갈 때 나는 때때로 호주머니 속에 그가 무척 좋아하는 과자 두 개를 넣곤 했다. 우리는 산책길<sup>51</sup>에서 하나씩을 먹고는 아주 만족해서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내가 과자 셋을 갖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아채었다. 그는 여섯 개라도 배탈 없이 먹었을 것이다. 제 것을 얼른 먹어치우고는 셋째 것을 달라 그런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나 혼자서도 넉넉히 먹겠지만 나누어 먹어도 좋아. 그보다도 저기 있는 두 사내아이가 경주로 따 먹게 하는 게 낫겠군. 나는 두 아이를 불러 과자를 보이고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들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과자는 큰 돌 위에 놓여 결승점 구실을 했다. 길이 정해졌다. 우리는 가서 앉았다. 신호가 내리자 꼬마들은 출발했다. 이긴 아이가 과자를 집어 구경꾼과 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먹어치웠다.

이 놀이는 과자보다도 나았었지만,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나는 낙담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교육이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잃을 줄도 알아야 하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는 산책을 계속했다. 과자를 셋, 때로는 넷을 갖기가 일쑤여서 이따금씩 하나 또는 둘까지가 경주자들에게 주어지곤 했다. 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걸고 다투는 자들도 야심가는 아니었다. 상을 딴 아이는 칭찬과 축하를 받았다. 모두가 근사하게 행해졌다. 변화를 주거나 흥미를 돕기 위해 길을 더 멀리 정하고, 여러 경쟁자를 넣어 주기도 했다. 그들이 경주장에 들어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죄다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것이었다. 갈채와 환성과 박수가 부추겨 주었다. 하나가 결승점에 가까워지거나 남을 앞지르려고 할 때는 가끔 우리 꼬마 양반이 몸을 자지러뜨리거나 일어서거나 소리지르는 것이 보였다. 그에게는 올림픽 경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속임수를 쓰는 수도 가끔 있었다. 서로 붙잡거나 넘어뜨리거나 남이 지나가는 길에 조약돌을 차 넣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이들을 갈라놓고, 결승점의 거리는 같으나 각기 다른 지점에서 출발케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51 곧 알게 되겠지만, 시골의 산책길이다. 도시의 공중 산책로는 남녀 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는 다 해롭다. 아이들이 허영심이 생겨, 남이 봐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다. 웃음거리가 되어 온 유럽에서 놀림과 미움을 받게 하는 그 건방진 태도를 파리의 양가의 젊은이들이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룩상부르(Luxembourg)나 뒤킬리(Tuileries), 특히 뽀레와얌에서다.

와 같은 예비의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중대한 일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도 몹시 탐나는 과자를 눈앞에서 노상 남이 먹는 것을 보고 답답해진 기사 도련님은 마침내, 잘 달리는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다리가 둘 있음을 안 그는 남몰래 시험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체했다. 그러나 나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은 알았다. 내가 저보다 먼저 제 생각을 읽어 내었지만, 그는 꽤 자신이 생기자 남은 과자를 얻으려고 나를 조르는 시늉을 했다. 나는 거절한다. 그는 우겨 댄다. 그러다가 끝내는 화난 얼굴로 말한다. 좋아요! 과자를 둘 위에 놓아요. 길을 정해요. 어디 두고 봅시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그래! 기사님도 달릴 줄 아나? 시장기만 더해졌지, 배 채울 것을 따지는 못할 걸. 빈정거림에 약이 오른 그는 죽자하고 달려, 내가 미리 경주로를 짧게 해 주고 일부러 제일 잘 뛰는 아이를 제쳐놓았던 만큼 쉽사리 상을 따게 된다. 이 첫 걸음이 내어 디터지고 나서는 그를 다그치기가 얼마나 손쉬웠는지는 짐작이 가리라. 이내 그는 그 훈련에 하도 재미를 붙여, 봐주지 않아도, 길이 아무리 멀더라도, 경주에서 거의 언제나 영락없이 개구쟁이들을 이겨 낼 정도였다.

이렇게 얻어진 이득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판 이득을 가져왔다. 상을 드문드문 팔 때에는 제 경쟁자들도 그랬듯이 거의 언제나 혼자 먹어치우곤 했다. 그런데 이기는 일이 잦아지자 인심이 후해져진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가 일쑤였다. 여기서 나 자신 하나의 도덕적인 관찰을 얻게 된 나는 너그러움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저마다가 동시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을 판 곳애다 정하는 일을 그와 같이 계속하다가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들을 다르게 했는데, 그래서 남보다 먼 길을 달려야 하는 아이는 같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데 두드러지게 불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 제자더러 골라잡게 두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이용할 줄을 몰랐었다. 거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늘 아름다운<sup>52\*</sup> 길을 고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을 쉽사리 짐작한 나는 거의 내 마음대로 과자를 잃게도 따게도 할 수 있었다. 또

52\* F, P, G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le plus beau chemin)”로 되어 있다.

이런 찢는 한 가지 목적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 의도는 그가 거리의 차이를 알아채게 하는 데 있었던 만큼, 그 차이가 눈에 띄게 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만있을 때는 게으르면서도 놀이에서는 하도 날쌔뽀뽀러 나를 의심하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만드는 데는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성공했다. 그가 그 때문에 나를 탓한 것이다. 나는 받아넘긴다. 뭐가 불평이지? 내가 생각해서 해주는 일이니 조건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잖니? 누가 너를 달리게 하는 거지? 경주로 길이를 똑같이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던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냐? 제일 짧은 길을 택해요, 아무도 막진 않을 테니. 내가 두둔하고 있는 게 너라는 사실을, 또 네가 투덜대는 그 불공평도 내가 이용할 줄만 안다면 고스란히 네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너는 어째서 알지 못해? 그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는 이해했고, 골라잡기 위해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으로 세고자 했다. 그런데 아이 발걸음으로 재기란 느리고 틀리기가 십상이다. 게다가 나는 하루에 달음박질을 여러 번 시킬 생각이 났다. 그래서 놀이가 일종의 도락이 되자 경주로를 달리는 데 쓰일 시간을 재는 데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었다. 팔팔한 아이는 그런 느린 짓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더 잘 보고 눈으로 거리를 더 잘 재는 연습을 했다. 그러자 나는 그런 취미를 북돋우어 길러 주는 데 거의 힘이 들지 않았다. 몇 달 동안의 연습과 착오의 교정은 마침내 그에게 근사한 눈자를 만들어 주어, 내가 말로만 멀리 떨어진 어떤 물건 위에 과자를 놓는다고 일러도 그의 눈대중은 거의 측량사의 측쇄만큼이나 정확한 것이었다.

시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정신 판단과 가장 떼어 놓을 수 없는 감각이므로, 보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감각 중의 먼저 것으로 하여금 형태나 거리를 우리에게 충실히 알리도록 길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랫동안 시각을 촉각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촉각 없이는, 점진적인 운동 없이는, 세상없이 날카로운 눈도 우리에게 어떤 공간 관념도 주지 못할 것이다. 구조개에게는 우주 전체도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인간의 혼이 그 굴속에 갇힌다손 치더라도 우주가 굴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크기를 평가하

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걸어 보고 만져 보고 세어 보고 재어 보고 해서만 되는 것이다. 뿐더러 노상 재고만 있어도, 감각은 연장에만 기대어 어떤 정확성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아이가 측정에서 단번에 어림짐작으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 처음에는 재가 단번에는 비교할 줄 모르는 것을 부분적으로 비교하기를 계속해서, 정확한 부분을 평가한 부분으로 바꿔 쳐야 하며, 노상 손으로 재지 말고 눈만으로 재는 버릇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제 착오를 바로잡고, 감각 속에 어떤 틀린 인상이 남아 있으면 보다 나은 판단에 의해 그것을 고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첫 셈들을 실물의 척도를 가지고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어느 곳에서도 거의 같은 자연의 척도를 사람들은 갖고 있다. 사람의 발 넓이 · 팔 길이 · 키 따위가 그것이다. 아이가 집 높이를 셈할 때 교사는 측정기 노릇을 해 줄 수가 있다. 종탑 높이를 셈할 때는 집들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하라. 길 이수(里數)가 알고 싶다면 걷는 시간을 셈하면 된다. 특히 아이 대신 해 주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하며, 아이 스스로가 하도록 하라.

물체들의 형태를 알고 그것들을 본떠 그리는 법까지 배우지 않고서는, 그 물체의 넓이와 크기를 제대로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경 그러한 모사란 완전히 원근법에 달려 있을 따름이니까. 그래서 이 원근법을 얼마간 알고 있지 않고서는 공간을 그 겉모습만으로는 짐작할 수가 없다. 대단한 모방자인 아이들은 모두가 그러 보려고 든다. 나도 내 제자가 이 기술을 닦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분명 기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이 정확해지고 손이 날렵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연습에서 얻는 감각의 예민함과 몸의 좋은 습관을 그가 얻기만 한다면, 그가 어떠한 것을 잘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따라서 나는, 모사한 것만 모사시키고 데생만 보고 데생시키는 그런 그림 선생을 그에게 붙여주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자연 말고는 판 선생을, 물체 말고는 판 모델을 그가 갖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가 시시한 까짜 모사를 진짜 것으로 보지 말고 물체와 그 겉모습을 제대로 관찰하는 버릇이 들려면, 눈앞에 실물을 그린 종이 말고 실물 자체를 두기를, 집을 보고 집을, 나무를 보고 나무를, 사람을 보고 사람을 그리기를 나는 바란다. 잦은 관찰로 대상물의 정확한

형태가 그의 상상 속에 제대로 새겨질 때까지는, 대상물 없이 기억만으로는 아무 것도 그리지 못하게 막겠다. 사물의 진상 대신 알궂고 엉뚱한 형상을 그림으로써, 균형에 대한 지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을 잃게 되거나 앓을까 염려가 되어서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가 오랫동안 알아볼 만한 것은 통 그리지 못하고 괴발개발 그려 댈 것이며, 화가들의 멋진 윤곽이나 날씬한 선을 빨리 터득하기 힘들 것이고, 회화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안식이나 데생에 대한 좋은 안목은 아마 터득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 대신 보다 정확한 눈대중과 보다 어김없는 손, 동물이며 식물이며 자연의 물체들 사이에서 보이는 크기와 형태의 진정한 비례에 대한 지식, 배경의 농간에 대한 보다 재빠른 경험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한 바가 바로 이것이며, 내 의도는 아이가 대상물들을 모사할 줄 알기보다는 안식할 줄 알게 하는 일이다. 그가 애컨더스 나무를 내게 보여 주는 편이, 원기둥 머리의 잎가지 조각 따위는 덜 잘 그리는 편이, 나는 오히려 낫겠다.

뽀뽀러 온갖 판 연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습에서도 내 제자가 혼자서 재미 보게 할 생각은 없다. 나는 노상 그와 재미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재미를 더욱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가 나 아닌 판 경쟁자를 갖기를 나는 바라지 않으며, 내가 실 줄 모르는 위험 없는 경쟁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질투심을 일으키는 일 없이 그가 하는 일에 흥미를 넣어 줄 것이다. 나는 그를 본따 연필을 잡겠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서투르게 놀릴 것이다. 내가 설사 아펠레스(Apelles) 같은 화가이더라도 엉터리 화가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먼저 종들이 벽에 그려 대듯이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겠다. 팔 하나하나를 막대기로, 다리 하나하나도 막대기로, 손가락을 팔보다 굵게 그릴 것이다. 한참 지나서야 우리 둘 중의 어느 쪽이 그 불균형을 알아챌 것이다. 다리에는 두께가 있을뽀뽀러 그 두께가 다 같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게 될 것이다. 팔에는 몸에 비해서 정해진 길이가 있다는 사실 등에 말이다. 이와 같이 진보하는 도중에 나는 그와 나란히 나아가는 것이 고작이거나 아니면 앞선 댕자 얼마 되지 않아 나를 따라붙이거나 어쩌다가 앞지르기가 언제나 쉬울 것이다. 그림 물감과 붓도 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상물들의 빛깔과 전체의 겉모습을 그 형상만큼 제대로 묘사하도록 애쓸 것이다. 색칠해서 그리고 마구 발라 댈 것이다. 괴발개발 그러 대면서도 자연을 살피는 일은 그만두지 않겠다. 이 스승이 보는 데서밖에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방의 장식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여기서 죄다 찾아 낸 셈이다. 나는 우리 그림들을 틀에 넣게 한다. 남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넣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저마다 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관심을 갖도록, 예쁜 유리로 덮게 한다. 집이 모양 없는 네모꼴에 불과하던 때부터, 그 정면이나 옆모습 · 균형 · 그림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그려질 때까지, 데생 하나하나가 스무 번 서른 번 되풀이해 그려져 저마다가 그린 사람의 진보를 보여 주는 그림들을 차례로 방 둘레에 배열한다. 이러한 점진법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흥미롭고 남들에게는 신기한 그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뿐더러, 노상 우리의 경쟁심을 더욱 부추겨 주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 데생들 중에서 가장 변변찮은 처음 것들은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굉장히 번쩍대는 금빛 그림틀에 넣는다. 그런데 모사가 더욱 정확해져 데생이 정말로 훌륭해지면 아주 간소한 검은 그림틀에밖에는 끼워 주지 않는다. 그런 그림은 자체 이외의 판 장식이 이미 필요 없으며, 제재가 끝 주의에 틀이 끼어든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민짜 그림틀을 자랑으로 바라게 된다. 또 한쪽이 상대편 데생을 깔보고 싶을 때는 금빛 그림틀에 넣어 준다. 아마 언젠가는 그 금빛 그림틀이 우리 사이에서 속담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틀에 집어넣음으로써 켜켜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이다.

기하학이 아이들 힘에는 겹다는 말은 이미 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잘못이다. 아이들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서 추리의 기술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보는 기술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위 방법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방법을 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하학을 배우는 방식은 추리력의 일인 만큼이나 상상력의 일이기도 하니까. 명제를 말하게 되면 그 증명을 생각해 내어야 하고, 이를테면 이

미 알려진 어떤 명제의 귀결이어야 하는가를 찾아 내어야 하며, 그 같은 명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귀결 중에서 바로 문제되는 귀결을 골라 내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추리자도 발명의 재간이라도 없이는 역시 힘이 딸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더러 증명을 찾아 내게 하는 대신 우리에게 증명을 일러 주게 된다. 우리에게 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선생이 우리 대신 추리하며 우리의 기억력밖에는 훈련시켜 주지 않는다.

정확한 도형들을 그리라, 그것들을 짜 맞추라, 서로 겹치게 놓으라, 그것들의 비(比)를 검토하라. 관찰만 거듭해 나아가면, 정의도 예제도, 단순한 겹쳐 놓기 이외의 어떤 증명 형식도 문제삼지 않고도 초보 기하학 모두를 찾아 내게 될 것이다. 나로서는 에밀에게 기하학을 가르칠 생각은 통 없고, 그것을 내게 가르쳐 줄 것이 바로 그다. 나는 비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발견시키도록 나는 구할 테니까. 예컨대 나는 원을 그리기 위해 컴퍼스를 쓰지 않고 하나의 축을 중심삼아 도는 실 끝의 바늘로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반지름을 서로 비교해 보려 들면, 에밀은 나를 놀려 댈 것이고, 늘 팽팽한 같은 실이 같지 않은 거리를 긋고 갔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내게 이해시켜 줄 것이다.

60도의 각이 재고 싶으면 나는 그 각의 장점에서 호 아닌 원 전체를 그린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는 아무것도 알겠지 하고 빠뜨려서는 안 되니까. 각의 두 변 사이에 끼인 원 부분이 원둘레의 6분의 1임을 나는 발견한다. 그 다음에 나는 같은 점에서 더 큰 판 원을 그리고, 그 호도 제 원둘레의 6분의 1임을 발견한다. 셋째 중심원을 그리고 같은 시험을 한다. 그리고는 내가 어리석은 데 화가 난 에밀이, 같은 각 사이에 끼인 호는 크건 작건 모두가 그 원둘레의 6분의 1이라는 사실 등등을 내게 알려 줄 때까지 새 원들을 그려 가며 같은 시험을 계속한다. 이어서 우리는 이내 분도기를 쓸 수 있게 된다.

짜을 이론 각들은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의 원을 그린다. 나는 전혀 반대로 에밀이 먼저 그것을 원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나서 말해 준다. 원과 직선들을 없애면 각들이 크기를 바꿀 것인가? 등등으로.

사람들은 도형의 정확성은 소홀히 하면서 그러리라 짐작하고 증명에만 열중한다.



우리 둘 사이에서는 반대로 증명이 문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요긴한 일은 아주 곧고 정확하고 똑같은 선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아주 반듯한 정방형을 만들고 아주 동그란 원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도형의 정확성을 살피기 위해 우리는 그것의 눈에 띄는 온갖 성질들에 의해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 날마다 그것의 새로운 성질을 발견할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직경에서 두 개의 반원으로 접겠다. 대각선에서 두 개의 반쪽 정방형으로. 가장자리들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따라서 가장 잘 그려진 도형을 알아 내기 위해 두 개의 도형들을 비교하겠다. 이렇듯 똑같은 짝개는 일이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따위에서도 언제나 가능한지의 여부를 토론할 것이다. 때로는 실험하기 전에 실험 결과를 예측해 보려들 것이다. 이유들을 찾아 내려고 애도 쓸 것이다, 등등.

내 제자에게는 기하학이 자와 컴퍼스를 제대로 사용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이런 기구의 어느 쪽도 쓰지 않을 데생과 이 기하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와 컴퍼스는, 마구 그려 대는 버릇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채워 간수되어 드물게, 그나마 잠시 동안밖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도형들을 산책에 갖고 나가, 우리가 한 것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토리노에서 한 청년을 만난 일을 나는 영영 잊을 수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그에게 날마다 온갖 기하학적 형상의 둘레에 같은 와플 케이크를 주어 골라잡게 함으로써 윤곽과 표면의 비(比)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꼬마 식충이는 먹을 것이 제일 많은 것을 찾아 내기 위해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기술을 바닥내고 만 것이다.

아이가 제기차기를 할 때는 눈과 팔의 정확성을 훈련한다. 팽이를 돌릴 때는 힘을 씹으로써 힘은 늘지만 아무것도 배우는 것은 없다. 아이들에게는 왜 어른들이 하는 숨쉴 드는 놀이를 시키지 않는가 하고 나는 가끔 물어 본 일이 있다. 정구 · 방망이 · 공놀이 · 당구 · 활쏘기 · 축구 · 악기 연주 따위를 말이다. 이런 놀이들 중의 어떤 것들은 아이들 힘에 부치고, 만 것들에는 아이들의 팔다리나 기관의 발육이 모자란다는 대답들이었다. 내가 보기에 이따위 이유들은 당치가 않다. 아이는 어

른 키를 갖지는 않았어도, 어른 옷처럼 지어진 옷을 입지 못할 것은 없다. 그가 석 자 높이의 당구대에서 우리 패와 함께 논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정구장에 공을 치려간다는 말도, 그 작은 손에 정구채를 잡힌다는 말도 아니다. 유리창을 막은 방에서 놀게 하라. 처음에는 무슨 공박에는 쓰지 않게 하라. 정구채도 처음에는 나무, 다음에는 양가죽, 익숙해짐에 따라 마지막에는 창жат줄 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아이가 덜 피로하고 위험도 없다 해서 제기차기를 택한다. 이 두 가지 이유는 틀렸다. 제기차기는 여자들 놀이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에 도망치지 않는 여자는 하나도 없다. 여자들의 흰 살갗은 멍들어 굳어져서는 안 되고, 그 얼굴이 기대하는 것은 타박상이 아니다. 그러나 강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고생 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통 공격받지 않는다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서투리도 위험 없는 놀이는 아무렇게나 하게 마련이다. 떨어지는 제기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머리를 가려야 할 때만큼 팔을 날쌔게 하는 것은 없고, 눈을 막아야 할 때만큼 눈대중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방 한끝에서 탄 쪽 끝으로 뛰어가기, 아직 허공에 있는 공의 바운드를 판단하기, 그 공을 세고 틀림없는 손으로 되던져 보내기. 이런 놀이들은 어른에게 알맞다기보다는 어른을 만드는 구실을 한다.

아이의 섬유는 너무 무르다고들 말한다. 탄력성은 덜하지만 그래서 더 나긋나긋하다. 아이 팔은 약하지만, 필경은 팔이다. 그 차이만 고려한다면, 비슷한 탄 연장으로 하는 일은 다 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 손에는 아무런 익숙함도 없다. 그래서 그 손에 익숙함을 주기를 나는 바란다. 아이들처럼 별로 훈련받지 않은 어른도 더 익숙할 것이 없다. 우리는 기관들을 써 본 다음이 아니고는 그 쓰는 법을 알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랜 경험밖에 없고, 이 경험이야말로 아무리 일찍 시도해도 이를 수가 없는 진짜 공부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재간 있고 날썸한 아이들의 팔다리가 어른 못지않게 날썸 것을 보는 만큼 흔한 일은 없다. 거의 모든 장터에서 아이들이 줄을 타고, 손 바닥을 짚어, 줄 위에서 뛰고 춤추는 것이 보인다. 아동극단들이 그 발레로 얼마나 여러 해 동안 구경꾼들을 이탈리아 극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던가? 독일에서나 이탈리아에서나, 유명한 니콜리니의 팬터마임 극단 이야기를 누가 듣지 않았겠는가? 기성 무용가들보다 덜 익숙한 동작, 맴시가 덜 한 자세, 덜 정확한 귀, 덜 경쾌한 춤을 그 아이들에게서 누가 본 적이라도 있는가? 애초에는 손가락이 뭉툭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포동포동한 손은 거의 아무것도 짚 수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아이들은, 만 아이들이 연필도 펜도 아직 짚 줄 모르는 나이에 곧잘 쓰거나 그릴 줄을 알지 않는가? 열 살 때 클라브생 연주에서 기적을 행하던 영국 소녀를 파리 사람들은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다.<sup>53\*</sup> 나는 어느 관리 집에서, 쟁반들 한복판의 조상(彫像)처럼 디저트 테이블에 세워진 8살 난 어린애인 그 집 아들이, 거의 제 키만 한 바이올린을 켜서 그 연주로 예술가들까지도 놀라게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이러한 모든 실례와 만 무수한 예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아이들은 못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어떤 일에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훈련시킨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내게는 여겨진다.

아이들의 정신면에서 내가 비난하는 올된 교육의 잘못에, 내가 여기서는 육체면에서 빠지고 있다고 말하겠지.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한쪽 진보는 외관에 지나지 않지만 또 한쪽은 현실이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죄다 실지로 하고 있는 반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재능은 실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나는 이미 증명한 바 있다. 더구나 이 모두가 조금이라도 강제해서 일로 바꾸어서는 안 될 놀이, 자연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운동의 자발적인 손쉬운 방향, 자기네 놀이를 더욱 즐겁게 만들려고 다양화시키는 기술에 불과하거나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료를 삼을 수 없는 어떤 놀이를 그들이 즐기겠는가? 또 내가 그러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들만 거리낌 없이 즐기고 시간만 간다면, 무슨 일에서의 진보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야 할 경우

53\* “그 후에, 7살 난 소년은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C의 원주).” 1763~64년 겨울에 누이와 함께 파리 궁정에 등장한 모차르트(1756년생)를 두고 한 말.

에는, 무슨 짓을 하건 강제나 불만, 지겨움 없이는 성공은 언제고 불가능하다. 가끔 끊임없이 소중하게 쓰는 두 가지 감각에 대해 내가 말한 바는 탄 감각들을 훈련하는 방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시각과 촉각은 정지한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에 똑같이 쓰인다. 그런데 청각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공기의 진동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뿐이다. 그래서 모두가 정지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마음 내키는 만큼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밤에는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귀를 가다듬는 것이 문제며, 우리를 자극하는 감각에 의해 그 감각을 일으키는 물체가 큰가, 작은가를,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그 진동이 심한가 약한가를 말이다. 진동당한 공기는, 그 공기를 반사하는 반향, 메아리를 만들고 감각을 되풀이해 울리거나 소리 내는 물체를 탄 곳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반향들을 낳게 마련이다. 들이나 골짜기에서 귀를 땅에 갖다 대면 사람소리나 말발굽 소리가 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멀리서 들린다.

시각을 촉각과 비교했으니 이번에는 청각과도 비교해서, 한 물체에서 동시에 나온 두 가지 인상 중 어느 쪽이 그 기관에 더 일찍 이르는가를 아는 것도 좋다. 대포의 불꽃이 보일 때는 그 앞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늦어 포탄은 벌써 와 있다. 천둥치는 거리는 번개와 벼락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경험을 아이가 알도록 해 주라. 아이 힘이 미치는 경험은 다 시키고 탄 것들은 귀납법에 의해 발견하도록 해 주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말로 해 주어야 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고 있는 편이 백배나 낫다.

우리는 청각과 맞서는 기관 하나를 갖고 있으니, 발성 기관이 그것이다. 시각과 맞서는 기관은 없어, 소리처럼 빛깔을 내지 않는다. 능동적 기관과 수동적 기관을 서로 훈련시킴으로써 청각을 복돋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이것이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말하는 목소리 또는 음절 있는 목소리, 노래하는 목소리 또는 선율적인 목소리, 그리고 정념의 말로 쓰여 노래와 말에 생기를 주는 감동적인 목소리 또는 강조된 목소리다. 아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목소리를 다 갖고 있으나 어른처럼 그것들을 섞어 쓸 줄은 모른다. 우

리처럼 웃음·울음·탄식·외침·울부짖음이 다 있으나 억양을 탄 두 가지 목소리에 섞을 줄은 모른다. 완벽한 음악은 이 세 가지 목소리를 가장 잘 합친 음악이다. 아이들은 이런 음악은 할 수가 없어 그 노래에는 통 뚫이 들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아이들 언어에는 억양이 없다. 소리지르지만 억양을 붙이지는 못한다. 또 이야기에 억양이 별로 없듯이 목소리에도 힘이 별로 없다. 우리 제자는 아직 깨지 않은 정념이 제 언어를 그의 언어에 뒤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수하고 단순한 말씨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비극과 희극의 배역을 낭송시키거나 이른바 낭독법을 가르쳐 줄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라. 그는 충분한 지각을 가질 것이기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어떤 어조를, 경험할 리도 없는 감정에 표현을 줄 줄은 모를 것이다.

단조롭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한 마디 한 마디를 똑똑히 말하도록, 꾸밈없이 정확히 발음하도록, 문법적인 억양과 바른 음조를 알아 이에 따르도록, 언제나 남이 알아들을 만큼 소리를 내되 결코 필요 이상의 소리는 내지 말도록, 그에게 가르쳐 주라.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결점이다. 만사에 있어 군더더기는 금물이다.

마찬가지로 노래에서도 목소리가 정확하고 고르고 탄력 있고 잘 울리게 해 주라. 귀는 박자와 하모니에 민감하게 만들어 주되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모방적이거나 연극적인 음악은 그의 나이에 맞지가 않다. 그가 가사를 노래하는 것조차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가 꼭 그것이 노래하고 싶다면 그 나이에 흥미롭고 그의 생각만큼 단순한 노래들을 따로 내가 지어 주도록 하겠다.

그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기를 그토록 서두르지 않는 내가 음악 읽기를 가르쳐 주는 일도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이 갈 일이다. 너무 힘드는 주의력 모두를 그의 두뇌에서 멀리 해 주자, 그래서 그의 머리를 인습적인 기호들에 잡아매려고 서둘러 대질량 말자. 자백하지만 이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문자에 대한 지식이 말할 줄 알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도 음보에 대한 지식이 노래할 줄 알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같은 우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비해 노래할 때는 남의 생각밖에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생각을 나타내려면 그것을 읽어 내어야만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첫째로 남의 생각은 읽는 대신 들을 수가 있으며, 노래는 눈보다도 귀에 훨씬 더 충실히 전해진다. 뿐더러 음악을 제대로 알려면 음악을 표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음악을 창작해야 하기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하며,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음악을 알 수는 없다. 먼저 여러분의 꼬마 음악가더러 아주 규칙적이고 율동적인 소악절들을 만드는 훈련부터 시키라. 그리고 나서 그 소악절들을 아주 단순한 전조에 의해 서로 연결하도록, 끝으로 그 소악절들의 갖가지 관계를 정확한 구두법으로 표현하도록 훈련하라. 이는 종지와 휴지를 잘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괴상한 노래, 비장한 것, 발상이 많은 것은 안 된다. 언제나 부르기 쉽고 단순하며, 언제나 조(調)의 기본적인 화음에서 나오는 멜로디, 언제나 저음을 뚜렷이 보여 주어 쉽사리 잡아 반주할 수 있는 멜로디. 왜냐하면 목소리와 귀가 훈련되면 클라브생 반주로밖에는 노래해서는 안 되니까.

음들이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음을 하나하나 잘라서 똑똑히 발음한다. 어떤 음절 철자들을 가지고 계명창하는 버릇은 여기서 온 것이다. 음정들을 구별하려면 그 음정들에, 또 그것들의 고정된 갖가지 관계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건반의 건과 음계의 음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음정 이름과 자모 글자 이름은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언제나 같은 건들에 의해 소리 나는 ‘다(C)’와 ‘가(A)’는 고정된 불변화음을 가리킨다. ‘도(ut)’와 ‘라(la)’는 다르다. ‘도’는 줄곧 장조의 주음이거나 단조의 제3음이다. ‘라’는 줄곧 단조의 주음이거나 장조의 제6음이다. 이리하여 자모 글자는 우리의 음악 조직의 연속 관계들의 변함없는 관계를 나타내고, 음절 철자는 여러 가지 조에서 비슷한 연속 관계들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 자모 글자는 건반의 건을, 음절 철자는 음계의 음정을 가리킨다. 프랑스 음악가들은 이러한 구별을 이상하게 뒤섞어 놓았다. 음절 철자의 뜻과 자모 글자의 뜻을 혼동한 것이다. 건의 기호를 공연히 겹치게 해서 음도의 화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남겨 두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도’와 ‘다’가 늘 같다. 그렇지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 그럼 ‘다’는 무엇에 쓰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계명창법으로는 예컨대 ‘도’와

‘미’의 두 음절 철자가 장3도, 단3도, 중3도, 감3도를 다같이 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무런 쓸모도 없거니와 또렷한 아무런 관념도 머리에 주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어렵기만 하다. 어떤 알곳은 불운 때문에 음악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들이 쓰이는 나라가 바로 음악을 가장 힘들게 배우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제자하고는 더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을 따르자. 그에게는 그 연속 관계가 늘 같아 늘 같은 음절 철자로 표시되는 두 가지 음계밖에 없는 것으로 하라. 그가 노래를 하건 악기를 연주하건 주 조음이 되어 줄 수 있는 12가지 조의 하나하나로 자기 음계를 정할 줄 알게 하고, ‘라’나 ‘다’나 ‘사’ 등등으로 전조하더라도 종지음은 그 음계에 따라 언제나 ‘라(la)’나 ‘도(ut)’가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는 언제나 여러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노래하거나 연주하기 위한 음계의 주요 연속 관계들이 늘 그의 머리에 들어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연주는 더욱 분명해지고, 진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프랑스인들이 자연스럽게 계명창(階名唱, 계이름부르기)한다고 일컫고 있는 것보다 더 괴상한 것은 없다. 이는 사물에 대한 관념들을 물리치고 어리둥절케만 할 따름인 엉뚱한 관념들로 바뀌치는 셈이다. 음계가 이조될 때는 이조에 의해 계명창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그런데 음악에 대해 너무 말한 것 같다. 음악이 언제고 재밌거러이긴만 하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음악을 가르쳐 주라. 이제 우리는 우리 몸과 관련된 외부 물체들의 상태 · 그 무게 · 모양 · 색 · 단단하기 · 크기 · 거리 · 온도 · 정지 · 운동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접근해도 좋을 것들이나 멀리해야 될 것들, 그것들의 저항을 이겨 내기 위해서나 그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 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를 배웠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몸은 노상 소모되고 있어, 노상 갱신되어야만 한다. 비록 우리는 탄 물질들을 우리 자신 것으로 바꿀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 선택은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인간의 먹이는 아니다. 또 먹이가 될 수 있는 물질들 중에도, 인류의 신체 조직이나 사는 풍토 · 개인 체질 · 그 신분이 명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더 알맞고 덜 알맞은 것이 있다.

알맞은 먹이를 택하기 위해, 그것을 알아 택하는 법을 경험이 가르쳐 줄 때까지 기

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굶거나 중독되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감성을 지닌 존재들의 쾌감을 가지고 그들의 자기 보존의 연장으로 삼아 준 신의 자애는 우리에게, 구미에 맞는 것을 위에도 맞는 것으로 알려 준다. 본래 인간에게는 제 식욕보다 미더운 의사라곤 없다. 인간을 원시 상태에 두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장 맛있게 생각되던 먹이들이 몸에도 가장 좋은 먹이었을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조물주는 비단 자신이 우리에게 채워 주는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필요까지도 채워 준다. 우리의 구미가 생활 방식과 더불어 바뀌고 변질되게 한 것은, 필요 곁에 늘 욕망을 두기 위해서다. 자연의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우리는 타고난 구미를 잃게 된다. 아니 그보다도 습성이 우리에게 둘째 자연을 만들어 주고, 우리는 우리 중의 아무도 첫 자연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첫 자연과 바꿔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구미는 또한 가장 단순한 구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쉽사리 바뀌는 구미니까. 이에 반해 우리의 변덕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자극을 받고 하면 구미는 다시는 바뀌지 않는 형태를 취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딸리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나라의 관습에도 쉽사리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은 이미 딴 나라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모든 의미에 있어서 진실인 것 같고, 더구나 엄밀한 의미의 입맛에는 더욱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의 첫 먹이는 젖이다. 우리는 강한 맛에는 점차적으로밖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우리 비위에 거슬린다. 과실·채소·풀 그리고 끝으로 양념도 소금도 치지 않은 어떤 구운 고기가 첫 인간들의 잔치를 이루었다.<sup>54</sup> 미개인이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상을 찌푸리고 내버린다. 우리 사이에서도 스무살이 되도록 발효 음료를 맛보지 않고 지낸 자는 그것에 맞들이지 못하고 만다. 어릴 때 포도주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구미는 단순할수록 더 보편적이다. 가장 흔히들 싫어하는 것은 복

54 파우사냐스의 《아르카디아》를 참조하라.<sup>55\*</sup> 그리고 다음에 옮겨 적은 플루타르코스의 글도.

55\* 파우사냐스는 《아르카디아》 1장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진 너도밤나무 열매를 먹고살도록 가르치는 Peslage를 보여 주고 있다.



잡한 음식이다. 누가 물과 빵을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길이며, 따라서 우리의 규범이기도 하다. 아이에게는 되도록 그 첫 구미를 간직해 주자. 그 음식은 흔하고 단순한 것이도록, 그 입은 별로 질지 않은 맛에만 익도록, 그래서 가려 먹는 버릇이 통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생활 방식이 건강에 더욱 좋은지 아닌지의 여부를 내가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생활 방식을 택하는 데는, 그것이 자연에 가장 합치되며, 만 모든 생활 방식에도 가장 쉽사리 순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만 알면 나는 족하다. 아이들을 커서 먹게 될 음식물에 익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추리하고 있지 않은 것같이 내게는 보인다. 아이들의 생활 방식은 그토록 편이한테 음식물은 왜 같아야 하는가? 일과 걱정과 고생에 지친 어른은 두뇌에 새로운 생기를 갖다 주는 맛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뛰놀다가 온 아이, 몸이 자라는 아이는 많은 유미(乳糜)를 만들어 주는 푸짐한 음식이 필요하다. 뿐더러 어른은 이미 자기의 신분과 일과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운명이 아이에게 무엇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누가 확실히 알라? 만사에 있어 아이에게는, 너무 정해져 있어 필요에 따라 바꾸는 데 골탕먹는 그런 격식일랑 주지 말자. 프랑스인 숙수를 도처에 끌고 다니지 않고서는 만 나라에서 굶어 죽게는, 또 프랑스에서밖에 음식해 먹을 줄을 모른다는 말을 언젠가 하게는 만들지 말자. 여담이지만 이거야말로 우스운 칭찬! 나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음식해 먹을 줄 모르는 것은 프랑스인들밖에 없다고 말하겠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데 그토록 특별한 솜씨가 필요하다니 말이다.

미각은 우리의 갖가지 감각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각들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몸을 둘러싸고만 있는 물질들보다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될 물질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더 관심이 크다. 술한 것들이 촉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에는 아무래도 좋은 것들이다. 그러나 미각에 아무래도 좋은 것이라곤 거의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이 미각의 활동은 아주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다. 상상력에는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감각, 아니 적어도 상상력이 가장 덜 끼어드는 감각이다. 모방과 상상이 정신적인 것을 만 모든 감각의 인상에는 뒤섞

기가 일쑤인 데 반해서 말이다. 그래서 보통 판 감각에는 움직이기 쉬운 다정다감한 사람들, 정열적이고 정말로 감수성 많은, 성격들도 미각에는 딱 미지근하다. 미각을 판 감각들 밑에 두어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는 경향을 더욱 천한 것으로 만드는 것 같은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나는 반대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들을 입에 의해 끌고 가는 일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겠다. 감각에 직접 걸려 있는 계절은 자연의 욕망이지만, 사람들의 변덕과 온갖 잘못에 좌우되는 허영심은 세론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동기는 그래도 후자의 동기보다는 낫다. 계절은 어린 시절의 정념이다. 이 정념은 어떤 정념 앞에서도 버티지 못한다. 하찮은 경쟁에도 꿈무늬 뺨다. 자아, 내 말을 믿어라! 아이는 먹는 것 생각은 너무 일찍 그만두게 될 테니. 그리고 마음이 판 일로 벅차게 될 때는 입이 마음을 차지하는 일은 통 없을 것이다. 아이가 크면 술한 격한 감정들이 계절을 속이고 허영심만 자극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허영심이라는 정념만이 판 정념들을 이용하며, 끝내는 그것들을 모조리 삼켜 버리니까. 미식을 중요시해 잠이 깨면서 그날 먹을 것을 생각하며, 폴리비오스<sup>56\*</sup>가 어느 전투를 묘사하는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식사를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더러 살펴본 일이 있다. 그런 자칭 어른들 모두가 기력도 기골도 없는 마흔 살 난 아이, “땅의 열매들을 먹어 없애려고 태어난(fruges consumere nati)” 가없는 인간<sup>57\*</sup>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계절은 재간이라곤 없는 사람들의 악습이다. 계절쟁이의 뉘은 뭇땅 입속에 있다. 먹기 위해서밖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인간이다. 어리석고 무능해 식탁의 제자리밖에는 있지 않으며, 요리밖에는 알아볼 줄 모른다. 그런 일은 미련 없이 그에게 맡겨 두자. 그를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판 일보다는 그 일이 그에게는 낫다.

계절이 쓸모 있는 아이에게 뿌리박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소인의 걱정이다. 어릴 때는 먹는 것 생각밖에는 앓는다. 청년기에는 이미 그런 생각은 앓게 되어, 뭐든지 다 좋다는 식으로 되며, 판 술한 일들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천한 동기를 뻔뻔스레 이용하려 들거나, 훌륭한 행위를 하는 명예를 미식으로 뒤

56\* Polybios(c. 200~118 B.C.): 그리스의 역사가.

57\*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alccus, 65~8 B.C.)의 《서한 시집(Epitres)》I, 2, 27의 인용.

받침하려 드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 아니다. 다만 어린 시절 전체가 놀이와 절없는 장난에 불과하거나 불과해야만 하는데도 순전히 육체적인 훈련들이 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한 마조르카섬 아이가 나무 위의 광주리를 보고 팔매질로 그것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그것을 제 맘대로 하는 것은, 그것을 얻느라고 들인 힘을 근사한 점심 식사가 별충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 아닌가?<sup>58</sup> 한 스파르타 아이가 매를 백 번 맞는 위험을 뚫고 용케 부엌으로 기어들어간다고 하자, 거기서 산 여우 새끼를 훔쳐 내어 옷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활귀고 물려 피투성이가 되나, 들켜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배를 찢겨도 눈살을 찌푸리지도 소리 한 마디 지르지도 않고 가만있다고 하면, 아이가 받침내는 그 약탈물을 제 맘대로 하는 것은 그것에게 먹히고 나서 그것을 먹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닌가? 근사한 식사가 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들인 공의 결과가 되어서는 왜 안 되는가? 에밀은 내가 돌 위에 놓은 과자를 잘 달린 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자를 가지는 단 하나의 방법이 남보다 빨리 거기 가닿는 일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

이는 내가 조금 전에 간소한 음식에 관해 내세운 주장들과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식욕을 돋우는 데는 그들의 관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 주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또 그것은 아이들의 미각을 세련시키려 들지만 않으면 가장 흔한 것들로도 된다. 성장의 요구가 끊임없이 자극하는 아이들의 식욕은 만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확실한 양념이다. 과실 · 유제품들 · 여느 빵보다 약간 더 맛있는 오븐에 구운 과자, 특히 이런 것 모두를 절제 있게 주는 재간. 이것이 강한 맛에 대한 구미를 붙여 주거나, 입을 물리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 없이, 아이들의 군대를 세계의 끝까지 데리고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고기에 대한 구미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증거의 하나는, 아이들의 이 음식에 대한 무관심과, 아이들 모두의 유제품이나 과자나 과실 따위 같은 식물성 음식에 대한 기호다. 이 본래의 구미를 변질시키지 않는 일, 아이들을 육식 동물로 만들지 않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

58 마조르카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을 잃은 지가 여러 세기 전이다. 팔매군들로 이름을 떨치던 시대다.

라도 그들의 성격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경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체로 판 사람들보다 잔인하고 사나운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는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영국인의 야만성은 알려져 있다.<sup>59</sup> 조로아스터 교도들<sup>60\*</sup>은 반대로 가장 순한 사람들이다.<sup>61</sup> 모든 미개인은 잔인하다. 그들의 풍습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잔인성은 음식에서 온다. 그들은 사냥가듯이 전쟁을 하러 가고 사람들을 끔처럼 다룬다. 영국에서도 백정은 외과 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sup>63\*</sup> 심한 악당은 피를 마심으로써 살인에 예사가 된다. 호메로스는 고기를 먹는 애꾸 거인 큐클로페스들을 끔찍한 인간으로, 아프리카의 연꽃 먹는 종족들<sup>64\*</sup>을 하도 상냥해서 그들과 사귀기만 시작하면 제 나라도 잊고 같이 살고 싶어지는 민족으로 만들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왜 짐승고기 먹기를 삼갔던가 하고 너는 내게 묻지만,” 하고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었다. “반대로 나는 네게, 인간으로서 맨 먼저 상처 입은 고기를 입에 가져간 자, 숨져 가는 짐승의 뼈를 이빨로 부스러뜨린 자, 죽은 시체, 송장을 자기 앞에 차려 놓게 하고, 조금 전만 해도 울고 짓고 견고 보곤 하던 사지를 제 위장 속에 삼킨 자는 어떤 용기를 가졌던 것인가라고 묻겠다. 그 손이 어떻게 감성을 지닌 생물의 심장에 칼을 박을 수 있었는가? 그 눈이 어떻게 살생을 보고 참을 수 있었는가? 저항 없는 가엾은 동물의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내는

59 영국인들이 자기네의 인정과, “사람 좋은 국민(good natured people)”이라고 자칭하는, 그 국민의 어진 천성을 무척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 대어 봤자 헛일, 아무도 따라 외쳐 주지는 않는다.

60\* Gaures의 역어. Guèbres라고도 함. 페르시아·힌두스탄(Hindustan)·코카서스(Caucasus)에 퍼져 있던 조로아스터 교도들.

61 조로아스터 교도들보다 더 엄하게 육식 모두를 금하는 바니아족들<sup>62\*</sup>은 거의 그들 못지않게 순하다.

그러나 그 도덕은 덜 순결하고 그 신앙은 덜 합리적이어서 그다지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다.

62\* 바니아족(Banians)은 인도인으로 바라문 교도.

63\* “이 책의 영역자 한 사람이 여기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둘이 다 그것을 고쳤다. 백정과 외과 의사들은 증인으로 서지만, 전자는 형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고, 후자는 될 수 있다(C의 원주).”

64\* Lotophages, 북아프리카 카베스만 연안에 사는 종족.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꿈틀거리는 살을 보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그 냄새에 어떻게 구역질이 나지 않았는가? 어쩌다가 그 상처의 지저분한 것을 만지거나 상처를 뒤덮어 엉킨 검은 피를 닦아 내거나 했을 때 어떻게 진저리나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가?

벗긴 살가죽은 땅을 기고,  
꼬치에 꿰인 살은 불에 울부짖고 있었다.  
소름끼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어.  
뱃속에서도 울부짖음이 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그 끔찍한 식사를 하기 위해 자연을 극복했을 때, 처음으로 산 짐승에 식욕을 느꼈을 때, 아직 풀을 뜯고 있는 동물을 먹이로 삼고자 했을 때, 자기 손을 찢는 양을 목 조르고 살을 저며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가 말했을 때, 그가 상상하고 느껴야만 했던 바다. 사람들이 마땅히 놀라야 할 것은 이런 잔인한 잔치를 시작한 자들에 대해서지, 그것을 그만둔 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다. 또한 그것을 시작한 자들은 자기네의 야만성을, 우리의 야만성에는 그럴 여지도 없어 우리를 그들보다 백 배나 더 야만하게 만드는 변명으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 사랑받는 인간들이여, 시대를 비교해 보라.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보라! 하고 그 원시인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갓 만들어진 땅과 김이 가득 찬 허공은 아직 계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었다. 강들의 갈팡질팡하는 흐름은 도처에서 독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못이며 호수며 깊은 늪들이 세계 표면의 4분의 3을 물 담고 있었다. 나머지 4분의 1은 메마른 나무숲에 뒤덮여 있었다. 땅은 쓸 만한 열매하나 맺지 못했다. 우리는 땅을 갈 연장 하나 없었다. 그것을 쓰는 기술도 몰라, 아무것도 씨 뿌리지 않은 자에게 수확기가 올 리 만무했었다. 그래서 굶주림이 떠날 새가 없었다. 겨울이면 이끼와 나무껍질이 우리의 주

식이었다. 갯보리나 히스(heath)의 푸른 뿌리 얼마가 우리에게는 성찬이었다. 그러다가 너도밤나무 열매나 호두나 도토리라도 찾아 내게 되면 땅을 젖어미나 어머니라고 불러 대면서 떡갈나무나 너도밤나무를 둘러싸고 소박한 노랫소리에 맞추어 신나게 춤추는 것이었다. 이것만이 그들의 잔치였었다. 하나뿐인 놀이였었다. 나머지의 인간 생활 모두는 괴로움과 고생과 비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혈벗겨 벌거숭이가 된 대지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대어 주지 않게 되자,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던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패들과 함께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잡아먹기로 했다. 그러나 잔인한 인간들아, 누가 당신들더러 피를 쏟도록 강요하는가? 얼마나 넘치는 재화들이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는가 보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대지가 당신들에게 맺어 주고 있는가! 얼마나 큰 부를 밭과 포도밭이 당신들에게 주고 있는가! 얼마나 술한 동물들이 당신들을 먹여살리려고 젖을, 입혀 주려고 털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이상의 무엇을 그것들에게 요구하는가, 재산이 남아돌고 먹을 것이 넘칠 판인데 무엇에 화가 나서 그 많은 살육을 하게 되는가? 어머니에게 먹여살려 주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거짓말은 왜 하는가? 거룩한 법칙을 만들어 낸 케레스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친절한 바코스에 거역해서 왜 죄를 짓는가? 마치 그들이 아낌없이 주는 선물들이 인류의 유지에 족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맛난 열매들과 해골을 식탁 위에 섞어 놓고, 젖과 젖을 주는 짐승들의 피를 같이 먹을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당신들이 맹수라고 부르는 표범이나 사자들은 마지못해 본능에 따라 살기 위해 탄 동물들을 죽인다. 그런데 그보다 백배나 더 사나운 당신들은 잔인한 쾌락에 빠지기 위해 공연히 본능과 싸우고 있다. 당신들이 먹는 동물들은 탄 동물들을 먹는 동물이 아니다. 당신들은 저 육식 동물들은 먹지 않고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당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죄 없는 짐승들에밖에는 식욕을 느끼지 않아, 그 봉사의 대가로서 그것들을 잡아먹는 것이다. “오, 자연에 거역하는 살해자여, 살과 뼈로 되어 너처럼 감수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생물인 네 동물들을 잡아먹도록 자연이 너를 만들었다고 끝내 우겨 대겠다면,

그 끔찍한 식사에 대해 자연이 네게 느끼게 하는 그 혐오감도 없애 버려라. 네 자신이 동물들을 죽이도록 하라. 쇠 연장이나 식칼 없이 네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는 말이다. 사자나 곰이 하듯이 네 손톱으로 찢어라. 그 소를 물어뜯어 토막을 내라. 그 살갗에 네 손톱을 찢어라. 그 아기 양을 산 채로 먹고, 그 뜨거운 살을 뜯어 먹고, 그 피와 함께 그 혼도 마셔라. 너는 부들부들 떠다. 너는 감히 이(齒) 사이에서 산 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용기는 없나? 가엾은 인간아! 너는 먼저 동물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먹으니, 두 번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뿐이 아니다. 죽은 살은 또한 너를 소름끼치게 하며, 네 창자는 그것을 견뎌 낼 수가 없다. 불로 모양을 바꾸어야 하고, 끓이거나 구워야 하고, 양념을 발라 변장시켜야 한다. 그러한 변장에 속은 미각이 이상야릇한 것을 계워 내지 않고,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송장을 즐겨 맛보기 위해서는, 살해의 공포를 없애 주고 죽은 육체를 요리해 줄 푸주한이나 숙수, 굶는 사람 같은 인간들이 네게는 있어야 한다.”

이 글이 내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나는 그것을 옮겨 쓰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나를 나무랄 독자도 별로 없을 줄 안다.

제다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어떤 유의 섭생을 시키건, 간단한 보통 음식밖에는 먹여 비롯하지 않게만 해 준다면, 제멋대로 먹고 뛰고 놀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과식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는 것은 믿어도 좋다. 그런데 노상 굶겨 두어 아이들이 여러분의 눈을 피하는 법을 찾아 내게 되면, 기를 쓰고 별충하려 들어 배가 차 터지도록 먹여 댈 것이다. 우리의 식욕은 자연의 법칙이 아닌 탄 법칙들을 우리가 식욕에다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만 도를 넘기는 것이다. 노상 조절하고 규제하고 덧붙이고 덜어 내고 하는 우리는, 손에 저울을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저울의 기준은 우리의 변덕이지 우리 위장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는 역시 실례를 들겠다. 농가에서는 빵 그릇이나 과일 광주이 늘 열려 있지만, 아이들도 어른들도 소화불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 방법대로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아이가 과식하는 수가 있다면, 아이 구미에 맞는 장난으로 그것을 막기란 하도 손쉬운 일이어서, 아이 모

르게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다. 이토록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을 어째서 모든 교사들은 알아채지 못할까? 헤로도토스 이야기로는,<sup>65\*</sup> 지독한 기근에 절박한 리디아(Lydia)인들은, 굶주림을 잊고, 여러 날을 먹을 생각도 않고 지내게 해 주는 경기나 탄 오라들을 궁리해 내었다고 한다.<sup>66</sup> 여러분의 유식한 교사들은 아마 이 대목을 백 번은 읽었을 텐데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중의 어떤 교사는, 아이란 공부하러 가기 위해 기꺼이 식사를 그만 두지는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선생, 당신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장난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후각의 미각에 대한 관계는 시각의 촉각에 대한 관계와 같다. 후각은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미각을 자극하게 되는가를 미각보다 앞질러 알아 미각더러 주의시켜, 미리 받는 인상에 따라 그것을 바라거나 피하도록 해 준다. 미개인들의 후각은 우리 후각과는 전혀 달리 자극되며, 좋은 냄새와 고약한 냄새를 전혀 달리 판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로서는 충분히 그러리라 믿는다. 냄새란 그것 자체로서는 약한 감각이다. 냄새는 감각 기관보다는 상상력을 더 건드려, 제가 주는 것보다는 제가 기대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 자극한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생활 방식 때문에 탄 사람들 미각과는 아주 달라진 미각은 맛에 대해, 따라서 또 맛을 예고하는 냄새에 대해 전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이 틀림없다. 타타르인은 구린내 나는 죽은 말 다리 냄새를 맡고 우리나라 사냥꾼이 반쯤 썩은 자고새 냄새 맡는 것만큼이나 좋아할 것이다.

화단의 꽃향기가 절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게으른 감각들은, 걷기만 해서 산책은 좋아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일하지 않아서 쉬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늘 굶주린 사람들은 먹을 만한 아무것도 알려 주지

65\* 《헤로도토스》 I, 94.

66 고대의 역사가들은, 실사 틀린 사실에 관한 것이더라도 역시 이용은 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 이용할 줄을 모른다. 마치 어떤 유익한 교훈만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사실이 꼭 정말이었어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중학적인 비평이 모두를 삼켜 버린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역사를, 그 가르침이 사람 마음에 꼭 맞는 우화들로 짜인 하나의 피륙으로 보아 마땅하다.



않는 향수 냄새에서는 큰 기쁨을 느낄 줄 모를 것이다.

후각은 상상력의 감각이다. 신경에 더욱 강한 힘을 주는 후각은 뇌를 크게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후각이 기분에 잠시 생기를 주다가 나중에는 지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후각은 연애에서도 잘 알려진 효과를 지니고 있다. 화장실의 기분 좋은 향기는 생각하는 만큼 약한 듯이 아니다. 애인이 가슴에 꽃은 꽃향기에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이 없는 둔감한 현인을 축복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후각은, 아직은 정념에 별로 자극받지 않은 상상력이 감동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한 감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딴 감각으로 미리 알아볼 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는, 그다지 활발할 수가 없다. 또 이러한 결과는 관찰에 의해 완전히 인정되는 바다. 그래서 이 감각이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둔해 거의 명칭할 정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아이들의 감각이 어른들만큼, 어쩌면 어른들 이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감각에다 어떤 판단념도 결부시키지 않는 아이들이 그 기쁨이나 고통의 감정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아 우리처럼 그것에 흐트러하거나 언짢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론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양성(兩性) 비교해부학의 힘을 빌지 않고도, 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냄새에 더 세게 자극받는가의 이유가 쉽사리 발견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캐나다의 미개인들은 젊어서부터 후각이 하도 예민해, 개가 있는데도 사냥에는 즐겨 쓰지 않고 자신이 개 구실을 할 정도라고 말한다.<sup>67\*</sup> 아닌 게 아니라 개가 사냥감을 알아채듯이 제 식사를 알아채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이들의 후각도 그 정도까지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이들로 하여금 이 감각의 미각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 말고는, 아이들을 위해 이 감각에서 그다지 쓸모 있는 용도를 끌어낼 수 있다고는 나는 결국 보지 않는다. 자연은 애써 우

67\* 《최고법원 변호사, 르 보 씨의 모험들(Avantures du Sr. C. Le Beau, avocat en Parlement, ou Voyage curieux et nouveau, parmi les sauvages de l'Amérique septentrionale)》(1738)을 두고 한 말.

리더러 그러한 관계들을 알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해 준 것이다. 자연은 미각과 후각의 기관을 이웃이 되게 하고 이 두 가지 사이의 직접적 연락을 입 안에 두어, 따라서 냄새 맡지 않고는 아무것도 맛볼 수 없게 함으로써, 미각 작용을 후각 작용과의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약의 쓴 뒷맛을 기분 좋은 향료로 덮거나 해서 아이를 속이기 위해, 이 자연적인 관계들을 변질시키지 말기를 나는 바랄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두 감각의 불화가 너무 커서 아이를 속일 수가 없을 테니까. 보다 활동적인 쪽의 감각이 또 한쪽의 작용을 삼켜 버리기 때문에 아이는 덜 싫어서 약을 먹게 되지는 않는다. 이 싫증은 저를 동시에 자극하는 감각들에 다 퍼진다. 약한 쪽의 감각만 있어도 아이의 상상력은 또 한쪽도 불러 일으켜 준다. 썩 달콤한 향기도 그에게는 싫은 냄새가 되고 만다. 이리하여 우리의 실없는 조심성은 기분 좋은 감각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불쾌한 감각들의 양을 불러 나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감각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탄 감각들의 정상적인 사용에서 생겨나, 사물들의 온갖 외관들의 힘을 빌려 그 사물들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공통 감각이라 불리는 그 일종의 육감(六感)의 연마에 대해 제3부 이후에서 말할 일이 내게는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육감은 별도의 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두뇌 속에밖에는 있지 않아 순전히 내부적인 그 감각들은 지각 또는 관념이라 불린다. 우리의 지식의 넓이가 재어지는 것은 바로 이 관념들의 수효에 의해서다. 정신의 정확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관념들의 명확성과 명료성이다. 인간의 이상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 관념들을 비교하는 재주다. 그래서 내가 감각적인 이성 또는 유치한 이성이라 부르던 것은, 몇몇 감각들의 힘을 빌려 단순한 관념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그리고 내가 지적인 이성 또는 인간의 이성이라 부르는 것은 몇몇 단순 관념들의 힘을 빌려 복합 관념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그러니 내 방법이 자연의 방법이고, 그 적용에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제자를 감각의 나라들을 지나 유치한 이성의 끝간 데까지 데려온 셈이다. 그 너머에서 우리가 내디디려는 첫걸음은 어른의 한 걸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새 길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눈을 우리가 막 지나온 길로 던져 보자. 일생의 각

시거나 각 상태는 저마다 알맞은 완성과, 고유한 제 나름의 성숙을 지니고 있다. 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들어 왔다. 그런데 된 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구경거리가 우리에게는 보다 새로운 것이 될 것이며, 아마 덜 재미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끝 있는 것들의 존재란 하도 보잘것없고 하도 한정된 것이어서, 있는 것만을 보아서 우리는 결코 감동되지 않는다. 실지의 대상물들을 꾸미는 것은 바로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것마다 상상력이 매력을 덧붙여 주지 않고서는,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 없는 기쁨이 기관에서만 그쳐 마음은 언제나 무심한 그대로다. 가을의 보물들로 장식된 대지가 호화로운 부(富)를 펼쳐 보이고 눈이 그것에 감탄한다. 그러나 그 감탄은 전혀 감동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에서보다는 성찰에서 오는 감탄이다. 봄에는 거의 헛발은 들이 아직은 아무것에도 덮여 있지 않고, 숲은 그늘을 주지 않고, 푸른 풀은 눈밖에 돌아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그 모습에 감동된다. 자연이 그렇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생기가 돋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쁨의 모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저 쾌락의 동반자, 달콤한 감정 모두와는 언제나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저 기분 좋은 눈물이 벌써 우리 눈언저리에 솟아 있다. 그런데 포도 수확철의 모습은 아무리 활기 있고 번잡하고 기분 좋아 보여도 헛 일, 사람들은 언제나 마른 눈으로만 바라본다.

왜 이렇게 다를까? 상상력이 봄 경치에다 다음에 올 계절들의 경치를 붙여 주기 때문이다. 눈이 알아보는 저 부드러운 새순들에다 꽃이며 열매며 녹음을, 때로는 그 녹음이 숨길지도 모를 비밀들을 곁들여 주는 것이다. 상상력은 뒤이어 올 시간들을 한 점에 모아, 대상물들을 실지로 그럴 대로보다는 제가 바라는 대로 본다. 대상물들을 고르는 것은 저한테 달린 일이니까 말이다. 가을에는 반대로 있는 것 밖에는 이미 볼 것이 없다. 봄으로 가고 싶어도 겨울이 가로막으며, 얼어붙은 상상력은 눈과 서리 위에서 숨진다.

성숙기의 완성에서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데서 발견되는 매력의 근원도 그런 것이다.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언젠가?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애를

저슬러 올라가게 할 때, 이룰테면 그를 우리 눈에 되짚어지게 할 때다. 만일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보거나 그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야 한다면, 기울어지는 자연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기쁨 모두를 지워 없애고 만다. 한 인간이 제 무덤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을 보며 느낄 기쁨이라곤 없으며, 죽음의 모습은 모두를 보기 흉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이치고는 제대로 장성해 건강하고 힘찬 10살 내지 12살 난 아이를 내가 머리에 그러 볼 때는, 그 현재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기분 좋지 않은 관념은 생겨나지 않는다. 마음을 쯤먹는 근심도 없이, 오래고 힘든 앞날 걱정도 없이, 현재 상태에 온몸을 내어 맡겨, 자기 밖으로 번어 나가려는 것 같아 보이는 넘치는 생명을 즐기는, 꿰어오를 듯이 발랄하고 생기 있는 아이를 나는 본다. 아이 속에서 날로 자라나 순간마다 새로운 표적을 보이는 감각과 정신과 힘을 부려 쓰는, 나중 나이 때의 그를 나는 예견한다. 아이인 그를 바라보면, 그는 내 마음에 흡족하다. 어른이 된 그를 상상해 보면 더욱 흡족하다. 그의 꿰는 피가 내 피를 뜨겁게 해 준다. 그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느낌, 그의 활기가 나를 되짚어지게 한다.

시계가 친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가! 당장에 그의 눈은 흐려지고 쾌활함은 사라진다. 기쁨아 잘 있거라, 신나는 놀이들이 잘 있거라. 엄하고 성난 남자가 그의 손을 잡고 점잖게 말한다. “자아, 도련님,” 그리고는 데리고 간다. 그들이 들어가는 방에는 책들이 엮보인다. 책들! 그 나이에는 얼마나 서글픈 실내 장식인가? 가없는 아이는 끌려가고, 주위의 모든 것에 섭섭한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고는, 감히 쏘지도 못하는 눈물로 부풀은 눈과 감히 내쉬지도 못하는 한숨으로 벽찬 가슴으로 떠나간다.

오, 이러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너, 생활의 어떤 시간도 거북하거나 따분한 시간이 아닌 너, 낮은 불안 없이, 밤은 조바심 없이 오는 것을 보는 너, 네 기쁨에 의해서밖에는 시간을 세지 않는 너, 행복하고 귀여운 내 제자야, 이리 와서 저 불쌍한 아이가 떠나 섭섭한 우리를 위로해 달라. 오라…… 그는 오고, 그가 다가오자 나는 기쁨이 용솟음침을 느끼고, 그도 이 기쁨을 같이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은 바로 제 친구, 제 놀이 친구한테다. 그는 나를 보자 재미있는 장난

이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결코 서로 매여 있진 않으나 늘 마음이 맞으며, 판 누구하고도 이만큼 잘 지낼 수는 없다.

그의 얼굴과 자세와 태도가 자신과 만족을 보여 준다. 건강이 얼굴에서 빛난다. 단단한 발걸음은 힘찬 느낌을 주고 있다. 바래지 않고 아직은 연한 얼굴색에는 여자처럼 야들야들한 빛은 통 없다. 대기와 태양이 남성의 명예로운 자극을 이미 그 속에 찍어 놓은 것이다. 아직은 동글동글한 근육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용모의 몇몇 윤곽을 드러내어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의 불이 아직은 좋아하지 않는 두 눈이 적어도 타고난<sup>68</sup> 맑음은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오랜 비애에 흐려진 적이 없고, 끝없는 눈물이 불을 타고 내린 일도 없다. 재빠르면서도 틀림없는 그의 동작에서 그 나이의 활기를, 굳센 자주성을, 술한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보라. 터놓아 자유스러우면서도 무례하지도 뽐내지도 않는 태도다. 책에 처박힌 적이 없는 얼굴은 배 위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고개를 들라”라고 말해 줄 필요도 없다. 부끄럽거나 두려워 위 고개를 떨어뜨린 일은 일찍이 없으니.

모임 한복판에 그를 앉혀 보자. 여러분, 그를 살펴보라, 마음 놓고 질문해 보라. 귀찮게 굴거나 수다를 떨거나 경솔한 질문을 걸어 올라 봐 염려하질랑 말라. 여러분을 붙들고 독차지해 풀려 나올 수 없게 되거나 않을까 걱정하지는 말라.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서 귀에 솔깃한 화제를 기대하지도, 내가 일러 준 대로 말하리라고 기대하지도 말라. 꾸밈도 양념도 허영도 없는 소박 단순한 진실밖에는 기대하지 말라. 그는 제가 한 말이 여러분에게 미칠 어떤 결과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했거나 생각하는 나쁜 짓을 좋은 일 못지않게 아주 자유로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제가 받은 초기 교육의 그 소박 그대로 말을 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앞날은 좋게 점치기를 좋아하는 법, 그래서 어쩌다가 아이들 헛바닥 위에 굴러 떨어진 어떤 재수 좋은 말에서 끌어내려 드는 희망을 거의 언제나 뒤집어 놓는 그 술한 미련한 짓에는 섭섭해지게 마련이다. 내 아이는 설사 그러한 희망을 주는 일은 드물더라도 그러한 섭섭함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쓸

68 Natia, 이 낱말을 나는 이탈리아 말뜻으로 사용한다. 프랑스어에서는 같은 말을 찾아 내지 못해서, 내 말을 알아들어만 준다면, 설사 내가 틀렸더라도 상관없다.

데없는 말은 통 하지도 않아, 남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저도 아는 수다로 머리를 써 없애지는 않으니까. 그의 관념들은 한정은 되어 있어도 명확하다. 아무것도 머리에 외어 두지는 않았어도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다. 우리네 책은 판 아이만큼 잘 읽지 못하더라도 자연이라는 책은 더 잘 읽는다. 그의 정신은 혀 속에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다. 기억력보다는 판단력을 더 갖고 있다. 하나의 언어밖에는 말할 줄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은 알고 있다. 남들이 말하는 것만큼 잘 말하지는 못해도 그 대신 남들이 행하는 것보다는 잘 행한다.

관례 · 관용 · 습관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한다. 제가 어제 한 일이 오늘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69</sup> 결코 공식에 따르지 않으며, 권위에도 본보기에도 굴하지 않아, 제게 알맞도록밖에는 행동하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에게서는 남이 일러 준 말투나 꾸며 낸 태도를 기대하지 말고, 제 생각에 충실한 표현과 제 버릇에서 생겨나는 행실만을 늘 기대하라.

여러분은 그의 현재 상태와 관계있는 도덕관념 조금을 그에게서 찾아 보겠지만, 어른들의 상대적인 상태에 관한 관념은 하나도 없다. 아이는 아직도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은 아닌 만큼, 그런 관념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유나 소유권에 대해, 또 인습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해 보라.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 왜 제 것은 제 것이고, 제 것 아닌 것은 제 것이 아닌지를 알고 있다. 여기서 넘어서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의무나 복종에 대해 말해 보라,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는 알지 못한다. 뭔가를 명령해 보라, 여러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 주면 판 기회에 갚아 주겠다고 말해 보라. 당장에 여러분의 비위에 맞도록 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제 영역을 넓히는 것은, 불가침임을 저도 알고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서 얻는 것은 제가 본래 바라던 바니까. 어떤 지위를 차지

69 습관의 매력은 인간이 타고난 게으름에서 생겨나고, 이 게으름은 습관에 젖어서 늘어난다. 이미 해본 일은 하기가 더 쉽고, 다녀 본 길은 가기가 더 쉽다. 그래서 습관의 힘은 늙은이나 느림보들에게는 사뭇 크고, 젊은이나 꾀한 사람들에게는 사뭇 작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버릇은 약한 자들에게밖에는 맞지가 않아 그들을 날로 더 약하게 만든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유일한 습관은 사물의 필연성에 쉽사리 따르는 일이고, 어른들에게 유익한 유일한 습관은 이성에 쉽사리 따르는 일이다. 단 습관은 다 악습이다.

하고, 한 몫 끼어 들고, 뭔가를 인정받는 것도 아마 그는 싫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허영의 온갖 문을 미리 잘 막아 준 것이 되지는 않는다. 마지막 동기를 갖게 되면 그는 이미 자연에서 벗어난 것이니, 여자아이 쪽에서 어떤 도움이 아쉽다면, 닥치는 대로 아무한테나 부탁할 것이다. 제 몸종에게 그러듯 임금에게도 부탁할 것이다. 제 눈에는 아직도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이다. 그가 부탁하는 태도로 보아, 상대방이 제게 신세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된다. 제가 청하는 것이 하나의 은혜임을 저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인정은 그것을 들어 주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표현은 간결하다. 목소리와 시선과 몸짓은 친절에도 거절에도 똑같이 익숙해진 사람의 그것이다. 노예와 슬슬 기는 비굴한 복종도, 주인의 명령적인 어조도 아니다. 그것은 제 동료에 대한 겸허한 신뢰며, 자유로우나 강하고 친절한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자유로우나 민감하고 약한 사람의, 귀하고도 애처로운 상냥함이다. 그가 청하는 바를 들어 주어도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빚을 졌다는 것은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이 거절해도 그는 투덜대거나 졸라 대지는 않을 것이, 그래 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거절당했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되지 않을 일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잘 아는 필연성에는 결코 대들지 않는 법이다. 그를 혼자 자유롭게 두어 보라. 그가 행동하는 것을 아무 말도 말고 보고 있으라. 그가 하는 바를,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하라. 제가 자유임을 밝혀 보일 필요가 없는 그는 경솔하게는, 또 단지 제 힘을 보이기 위해서만은 결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제가 언제나 제 임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날쌔고 가볍고 발랄하다. 동작들은 그 나이의 활기를 완전히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중에서 목적 없는 동작은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하고 싶어도 제 힘을 넘어서는 일은 아무것도 피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은 제 힘을 잘 시험해 보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이 언제나 계획과 알맞아, 성공할 자신 없이 행동하는 일은 보기 드물 것이다. 주의 깊고 정확한 눈을 그는 가질 것이다. 제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 바보처럼 노상 남들에게 물어 대지는 않을 것이다. 남에게 묻기 전에 자신이 그 것을 살펴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내려고 애쓸 것이다. 뜻하지 않은 어려

움에 빠져도 딴 아이보다는 덜 당황할 것이다. 위험이 있어도 역시 겁을 덜 낼 것이다. 상상력이 아직도 높고 있는 형편이고 나도 그것을 자극할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있는 것밖에는 보지 않고, 위험도 제값으로밖에는 평가하지 않아, 항상 냉정을 잃지 않는다. 필연성이 너무나 자주 놀러 대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아직은 반항하지 못한다. 나면서부터 필연성의 멍에를 쓰고 있어 이제 그는 그것에 아주 예사가 되고 말았다. 모든 일에 대한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이다.

일을 하건 놀건 그에게는 다 마찬가지다. 놀이가 바로 일이어서 그는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않는다. 정신의 재치와 지식의 영역을 한꺼번에 보이면서, 남을 웃기는 관심과 남을 기쁘게 해 주는 자유를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쏟는다. 한 귀여운 아이가 생기고 밝은 눈, 만족한 명랑한 표정, 활짝 열린 웃는 얼굴로, 놀면서도, 아니 가장 시시한 장난에 아주 열중되어서도 가장 진지한 일을 하듯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광경, 매력 있고 기분 좋은 광경이 아닌가?

이번에는 비교에 의해 그를 평가해 보겠는가? 딴 아이들과 섞어서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보라. 누가 정말로 가장 잘 자랐는지, 누가 그 나이에 맞는 완성에 가장 가까운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도시의 아이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보다 재치 있는 아이가 없으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농부 아이들 중에서는, 그는 힘에서는 그들과 맞서고 재치에서는 앞선다. 어린이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일에서 그는 그들 모두보다 낮게 판단하고 추리하고 예측한다. 행동하고, 달리고, 뛰고, 물체들을 흔들고, 큰 덩어리를 들어올리고, 거리를 재고, 놀이를 궁리해 내고, 상을 타고 하는 것이 문제겠는가? 자연이 그의 명령 하에 있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 쉽사리 모든 것을 제 의지에 따르게 만들 줄을 알고 있다. 제 포대를 이끌어 다스리도록 된 아이다. 그에 있어서는 재능과 경험이 권리와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이나 이름을 그에게 주라, 대단할 것이 없다. 그는 어디서나 으름갈 것이고, 어디서나 딴 아이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가 자기네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명령할 생각을 먹지 않아도 그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복종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도 복종할 것이다.



그는 어린이의 성숙에 이르렀으며, 아이의 생활을 살아와, 제 행복을 팔아서 제 완성을 사지는 않았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해 온 것이다. 제 나이의 이성을 고스란히 얻으면서 제 체질이 허락하는 만큼은 행복했고 자유로웠다. 설사 숙명의 낫이 이 아이에게서 우리의 희망의 꽃을 베어 버리더라도 우리는 그의 삶과 죽음을 한꺼번에 슬퍼할 것은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준 고통이 생각나서 우리의 고통을 격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혼잣말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제 어린 시절을 즐겼다. 자연이 그에게 준 것을 우리가 잃게 만든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이다.

이 초기 교육의 큰 불편은, 이 교육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밖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이토록 정성들여 기른 아이에게서도 평범한 눈은 개구쟁이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는 제자의 이해 관계보다는 자기 이해 관계를 더 생각한다. 자기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에게 주어지는 돈을 제대로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늘어놓기 쉬워 언제라도 보여 줄 수 있는 지식을 제자에게 마련해 준다.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 쉽사리 남의 눈에 띄기만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고 앎고는 문제가 안 된다. 제자의 기억력 속에 백 가지 잡동사니를 마구 분별도 없이 쌓아올린다. 아이를 시험해 봐야 할 때는 재고품을 펼쳐 보이게 한다. 아이는 그것을 늘어놓고, 사람들은 만족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보따리를 다시 싸고는 가 버린다. 내 제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펼쳐 보일 보따리가 없고, 저 자신밖에는 보여 줄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금방 들여다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성격의 특징들을 첫 눈에 파악할 줄 아는 그런 관찰자들이 어디 있는가? 있기는 하나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들 십만 명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질문이 너무 갖가지면 누구나 지겨워 진저리를 내며, 하물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의 주의력은 몇 분 후에는 지쳐, 검질긴 질문자가 묻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대답도 아무렇게나 해치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시험하는 것은 헛되고 현학적이다. 슬쩍 붙잡은 한 마디 말이 긴 객설 이상으로 아이들의 센스와 재치를 나타내는 수가 흔히 있다. 그런데 그 한 마디 말이 남이 일러 준 것이거

나 어찌다가 나온 것이 아니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이의 판단력을 평가하려면 자신이 풍부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죽은 하이드 경<sup>70\*</sup>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3년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친구 하나가 9살인가 10살 난 아들의 진보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어느 날 저녁에 가정 교사와 아들과 함께 소학생들이 연을 날리며 놀고 있는 들로 산책을 간다. 아버지가 지나가며 아들에게 말한다. “저기 그림자가 있는 연은 어디 있지?” 아이는 주저 없이 고개도 들어보지 않고 말한다. “도로 위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하이드 경은 도로가 해와 우리 사이에 있었다고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뽀뽀를 해 주고, 시험을 그것으로 끝마치고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이튿날 그는 가정 교사에게 보수 이외에 종신 연금 증서를 보내었다. 이런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가! 또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인가!<sup>71\*</sup> 질문이 그 나이에 아주 알맞다. 답은 아주 간결하다. 그런데도 그 답이 얼마나 명확한 아이디어인 판단력을 엿보이고 있는가를 알라! 어떤 말 조교사도 길들이지 못한 저 이름난 준마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sup>72\*</sup>가 길들인 것도 이렇게 해서다.

70\* Henry Hyde(1710~53): 영국의 정치가·작가. 말에서 낙상, 파리에서 죽었다.

71\* 아버지는 벨리르(Belle-Isle) 원수이고, 아들은 지조르 백작(Louis-Marie Fouquet, comte de Gisors, 1732~58), 크레펠트(Crefeld)에서 전사.

72\*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말 이름은 Bucéphale(플루타르코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생애》 9).

### 제 3 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전체는 비록 무력의 시기이긴 하지만, 이 첫 시기 동안에는, 힘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넘어섬으로써, 아직은 완전히 약하나 자라는 동물이 상대적으로는 강해지는 시점이 있다. 그 욕망들이 다 발달되지가 않아, 그의 현재의 힘이 그가 느끼는 욕망들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아주 약할지 모르나 아이로서는 아주 강한 것이다.

인간의 무력함은 어디서 오는가? 제 힘과 욕망들 사이에 있는 불균등에서 생긴다. 우리의 정념을 만족시키려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상의 힘이 있어야 할 것인 만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념이다. 그러니 욕망들을 줄이라. 그것은 마치 힘을 늘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제가 바라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남는 힘을 지닌 셈이다. 그는 분명 아주 강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셋째 상태며, 내가 지금 말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상태. 그것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용어가 없으므로 계속 어린 시절이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직은 사춘기가 아니면서도 청년기에는 접근하고 있으니까.

12~13살에 아이의 힘은 제 욕망들보다 사뭇 더 빨리 발달된다. 가장 사납고 가장 무서운 욕망은 아직도 그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기관도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제 의지가 강요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이 보인다. 공기나 계절의 해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그는 그것을 예사로 견뎌 내며, 돌아나기 시작하는 체열이 옷 구실을 해 준다. 식욕이 양념 구실을 해 준다. 양분이 될 수 있는 것 모두가 이 나이에는 맛나다. 줄리면 땅바닥에 드러누워 잔다. 어디서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에 제가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된다. 상상에서 오는 어떤 욕망에도 시달리지 않는다. 남의 의견이 그에게는 맥을 추지 못한다. 욕망들이 그의 팔에 더 멀리 가지는 않는다. 제 힘으로 자족할뿐더러 제게 필요한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평생에서 이런 처지에 있게 될 단 하나의 시기다.

의의가 나올 것만 같다. 내가 태워 주는 이상의 욕망들을 아이가 갖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내가 태워 주는 힘을 아이가 갖고 있음을 부인할 것이다. 내 말은 내 제자를 두고 하는 것이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여행하고, 상자 속에서 발 갈고, 마분지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저 이동 인형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들 앓을 것이다. 성년의 힘은 성년이 되어야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내게 말하겠지. 적당한 혈관들 속에서 가다듬어져 온몸에 퍼진 생명의 정기만이, 진짜 힘이 생겨나는 단단함과 활동력과 기운과 탄력을 근육들에 줄 수 있다고 말이다. 이는 서재의 철학이다. 그런데 나는 경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골에서 세찬 아이들이 자기네 아버지와 꼭 마찬가지로 땅을 갈고 일구고 쟁기를 잡고 포도주통을 채우고 수레를 끌고 하는 것을 나는 본다. 그 목소리만 아니더라도 어른으로 잘못 알 것이다. 우리네 도시들에서도 대장장이나 날붙이 직공·제철공 같은 어린 노동자들은 거의 주인 못지않게 튼튼해, 제때에 훈련만 시켰더라면 주인보다 솜씨가 덜 익숙하지도 앓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나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어른의 극성스러운 욕망들과 아이의 한정된 욕망들과의 차이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을 나는 되풀이해 말하겠다. 더구나 여기에는 육체적인 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고 이끄는 정신의 힘과 역량이 문제인 것이다.

개인이 제가 바라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은, 비록 그 개인이 가장 큰 절대적인 힘을 갖는 시기는 아니더라도, 이미 내가 말한 대로 가장 큰 상대적인 힘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기, 한 번밖에는 오지 않는 시기다. 아주 짧은 시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보다 보람 있게 써야 하는 만큼 더욱 짧은 시기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가졌으나, 나중에는 모자라게 될 이 남아돌아가는 능력과 체력으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필요할 때 자신에게 유리할지도 모를 일들에 그것을 쓰려고 애쓸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자신의 여분을 미래로 따돌려 둘 것이다. 튼튼한 아이가 약한 어른을 위해 저축해 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창고를 도둑맞을지도 모를 금고 안에도 외딴 헛청 안에도 세우지는 앓을 것이다. 얻은 것을 정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넣어 두게 된 곳은 바로 제 팔, 제 머릿속, 제 자신 속이다. 그러니 이제야말로 일과 공부와 연구의 시기며, 이런 선택을 멋대로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점,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바로 자연 자체라는 점에 주의하라.

인간의 지능에는 한도가 있어, 한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을뿐더러 남들이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완전히 알 수조차도 없다. 틀린 명제 하나하나의 반대 명제는 진리인 만큼, 진리의 수효는 오류의 수효와 마찬가지로 무진장이다. 그러나 사물들을 배우기에 알맞은 시기에 선택이 있듯이 가르쳐야 할 사물들에도 선택은 있다. 우리 힘이 미치는 지식들 중에서도, 더러는 틀리고, 더러는 쓸모없고, 더러는 그 지식을 지닌 자의 자존심을 복돋우기만 한다. 우리의 행복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적은 수효의 지식만이 현명한 인간의, 따라서 현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이의 연구에 값한다.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다.

이 적은 수효 중에서 여기서는 다시, 이해되려면 이미 이루어진 이해력을 요구하는 진리들은 빼어야 한다. 아이는 얻을 수 없는 인간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진리들을 말이다. 그것 자체로서는 진리지만, 경험 없는 혼으로 하여금 만 문제들에 관해 그릇 생각하게 만드는 진리들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사물들의 존재에 비해 아주 작은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원도 아이의 정신의 척도에는 얼마나 드넓은 영역을 이루고 있는가! 인간의 이해력의 암흑이며, 어떤 무모한 손이 감히 네 베일에 손대었던가? 우리의 헛된 학문들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심연이 이 불쌍한 아이 둘레에 파이는 것을 나는 보는가! 오, 이 위험한 오솔길로 아이를 이끌려는 너, 아이 눈앞에 자연의 거룩한 막을 치려는 너는 두려워 떨어라. 맨 먼저 아이 머리와 네 머리가 확인해 두라. 어느 한쪽이, 어찌면 양쪽이 다 머리가 멍해지지 않는지 걱정하라. 거짓말의 허울 좋은 매력과 자만심을 도취케 하는 허황됨을 겁내라. 일찍이 무지가 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것을, 실수만이 불길하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노상 명심하라.

기하학에서의 아이의 진보가 여러분에게는, 그의 지능 발달의 증거나 확실한 척도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쓸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가 가려낼 수 있게 되자마자, 그를 이론적인 연구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조심과 기술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그가 두 직선 사이의 비례 중항(中項)을 구하기를 바라는가? 먼저 주어진 장방형과 같은 면적의 정방형을 찾아 낼 필요가 있도록 해

주라. 만일 두 개의 비례 중항이 문제라면, 먼저 흥미를 끄는 입방체의 겹치기 문제를 그에게 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등등.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관념들에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가를 보라!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법칙에 대해서는 필연의 법칙밖에는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쓸모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린다. 머지않아 우리는 알맞고 좋은 것에 도달할 것이다.

같은 본능이 인간의 갖가지 능력을 부추긴다. 자라나려고 애쓰는 몸의 활동을, 배우려고 애쓰는 정신의 활동이 뒤잇는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저 움직이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호기심이 생긴다. 제대로 이끌어진 이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한 시기의 원동력이다. 자연에서 오는 경향들을 세론에서 오는 경향들과는 늘 구별하자. 유식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만을 바탕으로 삼은 지식욕이 있다. 가깝건 멀건 흥미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타고난 호기심에서 생기는 탄 지식욕도 있다. 안락에 대한 타고난 욕망과 이 욕망 충족의 불가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안락에 이바지할 새로운 수단을 노상 찾게 만든다. 호기심의 첫 근원이란 이런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절로 있는 근원, 그러나 그것의 발달은 우리의 정념과 지식에 비례해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장들이며 책들과 함께 무인도로 귀양 가, 혼자 거기서 여생을 보내게 된 한 철학자를 상상해 보라. 세계의 체계니 인력의 법칙, 미분법 따위에 머리를 썩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마 평생 책 한 권도 열어 보지 않을 것이나, 그 섬이 아무리 크더라도 구석구석까지 살살이 찾아보는 일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절로 좋아하지는 않는 지식들은 우리의 첫 공부에서는 물리치고, 본능이 우리더러 찾게 하는 지식들에만 국한하자.

인류의 섬은 대지다. 우리 눈에 가장 뚜렷한 대상은 태양이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관찰은 이 두 가지 위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미개 민족의 철학은 오로지 대지의 가상(假想)의 구분이나 태양의 신성(神性)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빛나감이니! 이렇게들 말하겠지.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몸에 닿는 것, 직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밖에는 문제삼지 않았었다. 그러던 우리가 갑자기 지구를 쏘다니고 우주의 끝간 데로 뛰어오르다니! 이러한 빛나감은 우

리의 힘의 발달과 정신의 경향의 결과다. 무력과 부족의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의 배려가 우리를 우리 안에만 집중시킨다. 능력과 힘의 상태에서는 자기 존재를 넓히려는 욕망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어 되도록 멀리 내던진다. 그런데 지능의 세계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낯선 것인 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 눈보다 더 멀리 가지는 않으며, 우리의 이해력은 제가 채는 공간과 더불어밖에는 벗어나가지 못한다. 우리의 감각들을 관념으로 바꾸자. 그러나 감각적인 대상들에서 지능적인 대상으로 단번에 뛰어넘질랑 말자. 우리가 나중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은 먼저 것을 통해서다. 정신의 첫 작용들에서는 감각들이 언제나 그 안내자이게 하라. 세계 아닌 다른 책이나, 사실 아닌 다른 가르침은 주지 말아야 한다. 읽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으며, 읽기밖에는 하지 않는다. 배우는 것도 없이 말만 배운다.

여러분의 제자를 자연 현상들에 주의하게 만들라. 그러면 그는 이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을 길러 주려면 결코 서둘러 그것을 채워 주지 말라. 그의 힘이 미치는 문제들을 내놓고 스스로 풀도록 두라. 무엇이건 여러분이 말해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했기 때문에 알도록 해 주라. 학문을 배우지 말고 생각해 내도록 해 주라. 만일 여러분이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을 권위로 바꿔치게 되면 그는 다시는 추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남들의 의견의 장난감에 불과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지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지구의니 천구의니 지도들을 갖다 주려 한다. 얼마나 많은 연장들인가! 무엇 때문에 이 온갖 대용품들을? 무슨 이야기인지나마 아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먼저 대상 자체를 보여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겐 저녁 나절에 확 트인 지평선으로 지는 해가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곳으로 산책을 나가, 해지는 지점의 눈대중이 되는 것들을 보아 둔다. 다음날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같은 곳으로 간다. 해가 제 앞에 던지는 불의 화살들을 가지고 멀리서 자신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불이 늘어나 동쪽이 온통 타오르는 것 같다. 그 광채를 보고 해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기다린다.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다. 마침내 해가 보인다. 번쩍이는 한 점이



번개처럼 솟더니 당장에 온 공간을 채운다. 어둠의 장막이 사라진다. 인간은 제가 사는 땅을 알아보고 그것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푸른 들이 밤사이 새로운 생기를 얻었다. 그것을 비추는 태어나는 낮, 그것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첫 광선들이, 빛과 색을 눈에 반사하는 이슬의 반짝이는 그물에 뒤덮인 푸른 들을 보여 준다. 합창하는 새들이 모여 일제히 생명의 아버지에게 인사한다. 이 순간에는 단 한 마리도 잠자코 있지는 않는다. 새들의 아직은 약한 지저귀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보다는 더 느리고 다정스러워, 편한 잠에서 깨어난 나른함이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영혼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상쾌한 인상을 감각에 가져온다. 아무도 물리치지 못할 황홀의 반시간<sup>1\*</sup>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토록 거창하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광경은 누구도 냉정하게 두지는 않는다.<sup>2\*</sup>

자신이 느끼는 감동에 가슴 벅찬 선생은 그것을 아이에게도 전해 주고 싶다. 그는 자신이 감동된 감각들에 아이의 주의를 쏟게 함으로써 아이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전히 어리석은 생각! 자연의 광경의 생명이 있는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다. 그 광경을 보려면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 아이는 대상물들은 알아보지만, 그것들을 맺는 관계를 알아보지는 못하며, 그것들의 합주(合奏)의 달콤한 하모니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감각에서 동시에 생겨나는 복합적인 인상을 느끼려면, 아이가 아직 얻지 못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가 아직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필요하다. 메마른 들판을 오래 돌아다녀 본 일이 없는데, 뜨거운 모래에 발이 데여 본 일이 없는데, 햇볕 내리쬐는 바위들의 숨막힐 듯한 반사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아침의 시원한 공기를 맛볼 수가 있겠는가? 꽃들의 향기며 푸른 들의 매력, 이슬의 젖은 김, 잔디밭을 걷는 부드러운 감촉이 어떻게 그의 감각을 매혹시키겠는가? 사랑과 쾌락의 어조(語調)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새들의 노래에 관능적인 감동이 솟겠는가? 아름다운 하루를 채우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그의 상상력이 자신에게 그려 보일 줄도 모르는데, 어떤 감격을 가지고 그 하루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겠는가? 요컨대 자연의 광경의 아름다움을 어느

1\* C에서는 반의반 시간(15분).

2\* 루소가 쓴 가장 아름다운 글의 하나로서 유명한 대목.

손이 애써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움에 감동될 수 있겠는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지는 말라. 묘사도 웅변도 비유도 시도 소용없다. 지금은 감정도 취미도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냉정한 그대로 계속하라. 다른 말씨로 말할 때가 너무 일찍 오고야 말 테니까.

우리의 격률의 정신 속에서 길러져, 자신의 모든 연장을 자신에게서 끌어내도록, 자기 힘이 모자람을 확인한 다음이 아니고는 결코 남의 힘을 빌리지 않도록 버릇이 든 그는, 새로운 대상을 대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것을 살펴본다. 곧잘 생각에 잠기면서도 캐어 묻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대상물들을 제때에 그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나서 그의 호기심이 충분히 쏠려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간결한 질문을 해서 그것을 푸는 길에 아이가 들어서도록 해 주라. 이번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돌는 해를 잘 바라보고 나서, 그쪽의 산들과 근처의 딱 대상물들을 눈여겨보게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제멋대로 지껄이게 두고 나서, 잠시 동안 꿈꾸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키라, 그리고 말해 주라. 나는 엿저녁에 해가 저기서 졌다가 오늘 아침에 저기서 돌아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말라. 아이가 묻더라도 답해 주지 말라. 딱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혼자 내버려 두라. 그러면 그가 스스로 그 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

아이가 주의 깊어져 어떤 감각적인 진리에 주의가 끌리도록 하려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 며칠 동안 그것이 아이에게 불안을 주어야만 한다. 그래도 아이가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란 문제를 뒤집는 일이다. 해가 졌다가 어떻게 돌아오르게 되는가는 모르더라도, 돌아올랐다가 어떻게 지게 되는가는 알고 있으며, 이는 눈으로 보기만 해서 알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 첫 문제를 나중 문제로써 해명해 주라. 여러분의 제자가 아주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유추(類推)는 너무나 분명해서 아이가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다. 이것이 그의 우주학의 첫 공부다.

우리는 감각적인 관념에서 감각적인 관념으로 언제나 천천히 나아가기 때문에, 한 관념과 오랫동안 친숙해진 다음에야 딱 관념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또 결국은 우

리 제자더러 주의를 기울이도록 결코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첫 공부에서 해의 운행이나 지구의 형상에 대한 지식까지는 멀다. 그러나 천체들의 눈에 띄는 모든 움직임은 같은 원리에 말미암고 있어 첫 관찰이 딴 모든 관찰로 통하기 때문에, 비록 해의 하루의 회전에서 일식(蝕)의 계산에 이르려면 낮과 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력은 덜 든다.

해는 세계의 둘레를 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모든 원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중심은 지구 한복판에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과 통하는 맞보는 두 점을 표면에다 찍을 수는 있다. 이 세 점을 지나 양쪽에서 하늘까지 늘어날 하나의 꼬치는 세계의 굴대, 해의 하루의 운행의 굴대가 될 것이다. 그 끝에서 도는 하나의 둥근 팽이는 그 굴대로 도는 하늘을 나타낸다. 팽이의 두 끝이 양극이다. 아이는 그중의 하나를 알고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작은곰자리 꼬리에서 가리켜 보여 준다. 이것은 밤의 재미다. 차츰 별들과 친해지며, 유성들을 알아보고 성좌들을 관찰하는 첫 취미가 여기서 생겨난다.

우리는 해가 도는 것을 성자 요한의 날에 보았다. 크리스마스나 다른 개인 겨울날에도 보러 간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는 잠꾸러기가 아니며, 추위를 무릅쓰는 것이 놀이가 되니까. 나는 이 두 번째 관찰도 짐짓 첫 관찰을 한 같은 곳에서 하도록 한다. 주의를 돌우기 위해 얼마간의 피를 쓰면 둘 중의 하나가 이렇게 외치지도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오, 오! 그거 재미있군! 해가 이젠 같은 곳에서 뜨질 않네. 여기가 전에 우리가 본 곳인데, 이젠 저기서 떠올랐어, 등등…… 그러니 여름의 동녘과 겨울의 동녘이 있는 셈이군, 등등…… 젊은 선생이여, 이제 당신은 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예들이 당신에게는 세계를 세계로서, 해를 해로서, 천체를 아주 분명히 가르치는 데 족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식물을 보여 줄 수 없을 때 말고는 그것을 기호로 바꿔치질랑 말라. 왜냐하면 기호는 아이의 주의력을 빼앗아 제가 나타내는 실물을 잊게 하니까.

혼천의(渾天儀)<sup>3\*)</sup>는 짜임새가 나빠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은 기계처럼 여겨진다.

3\*) 혼천의(la sphère armillaire)란, 금속과 나무와 보드지로 되어 하늘과 별들의 운행을 나타내는 몇 개

그 뒤엎힌 고리들과 거기에 보이는 괴상한 꼴들이 아이들의 정신에 겁을 주는 마술 글자의 인상이다. 지구는 너무 작고 천공(天空) 고리들은 너무 크고 너무 많다. 분지경선(分至經線) 같은 어떤 고리들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고리마다가 지구보다 더 넓다. 보드지의 두께가 단단한 느낌을 주어 마치 실지로 있는 고리 더미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그 고리들이 가공의 것이라고 말해 주어도 아이는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뭐가 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는 아이들 위치에 자신을 놓을 줄을 통 모른다. 아이들 생각 속에 파고들지는 않고 우리 생각을 그들에게 빌려 준다. 노상 자신의 논리만을 뒤쫓는 우리는 진리들의 사슬을 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 엉뚱한 것과 오류밖에는 쌓아올리지 않는다. 학문 연구에는 분석과 종합의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대해 논쟁들을 한다. 택할 필요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같은 연구 속에서도 분해하고 구성할 수가 있어, 아이는 분석만 한다고 생각할 때도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아이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서로가 증명 구실을 할 것이다. 반대되는 두 지점을 동시에 떠나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않는 아이는, 한데 만나게 되어 무척 놀라겠지만, 이 놀람은 아주 기본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가령 이 두 가지 끝에 의해 지리학을 예로 들어, 자기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부분들의 측정을 지구의 공전(公轉) 공부와 결합시켜 보았으면 한다. 아이가 천구를 연구하느라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그를 지구의 구분으로 끌어내려 맨 먼저 제가 사는 곳을 보여 주라.

그의 지리학의 첫 두 지점은 제가 사는 도시와 아버지의 시골 별장이 될 것이고, 다음은 그 중간에 있는 곳들, 이어 근처의 강들이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태양의 겹모습과 방향을 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가 바로 합류점이다. 이 모든 것의 지도를 제 손으로 그리게 하라. 처음에는 두 가지만으로 된 아주 간단한 지도지만, 그 거리나 위치를 알거나 짐작함에 따라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덧붙여 나간다. 아이 눈에다 자를 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이득을 아이에게 미리 마련해 준 것이 되는지는 여러분도 벌써 알 것이다.

의 고리를 조립한 것으로, 그 북판에 지구를 나타내는 작은 공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조금은 아이를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도록 아직 적게. 아이가 틀리더라도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며 잘못을 고쳐 주지 말고, 제가 그것을 알아채어 제 손으로 고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 아니면 기껏 해서 적당한 기회에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어떤 수만 쓰라. 틀리는 일이 전혀 없다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것이다. 더구나 아이가 제 고장의 지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배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문제다. 지도가 나타내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 그리는 데 쓰이는 기술에 대한 뚜렷한 관념만 가지고 있다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느냐는 대단할 것이 없다. 여러분의 제자들의 지식과 내 제자의 무식 사이에는 벌써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라! 그들은 지도를 알고 있고, 내 제자는 지도를 만든다. 이것도 그의 방을 꾸밀 새로운 장식품들이다.

나의 교육 정신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옳고 분명한 관념들밖에는 들어가게 두지 않는 것임을 늘 명심해 달라. 아이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으며, 또 그가 진리 대신 배우게 될지도 모를 오류로부터 그를 지켜 주기 위해서만 나는 그의 머리에 진리를 넣어 주는 것이다. 이성이나 판단력은 천천히 오고, 편견들은 때를 지어, 달려온다. 그를 막아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편견들로부터다. 그런데 학문을 그것 자체로서만 본다면, 바닥도 언덕도 없이 암초투성이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거기서 결코 빠져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지식애에 빠진 사람이 그 매력에 끌려 그칠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을 뒤쫓는 것을 보면 나는, 해변에서 조개껍질들을 주워 처음에는 몸에 지녔다가 새로 보는 것에 또 마음이 끌린 아이가, 그 너무 많은 수효에 짓눌릴 때까지 버리고 줍고 하다가 이젠 고를 줄도 모르게 되어, 마침내는 모조리 팽개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느낌이다.

첫 시기 동안은 시간이 길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못 쓸까 봐 겁이 나서 허비하지 않으려고만 애썼다. 이제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쓸모 있는 모든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정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들이 문을 두들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제자는 그것들에밖에는 주의를 쏟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평온한 지성(知性)의 시기는 하도 짧아 하도 빨리 지나갈뿐더

러, 따로 써야 할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아이를 유식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문을 사랑하는 취미를 붙여 주고 그 취미가 더욱 발달되었을 때 학문을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이 모든 좋은 교육의 근본 원칙이다. 이 시기는 또한 아이더러 같은 대상물에 꾸준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차츰차츰 붙여 주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주의를 낳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나 욕망이어야지, 강제이어서는 안 된다. 주의가 아이를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성가신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항상 지켜보고 있으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지겨워하기 전에 집어치우라. 왜냐하면 아이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아이가 마음에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은 결코 중요한 일이 못 되니까.

아이 자신이 질문을 걸어오거든, 호기심을 채워 줄 만큼이 아니라 복돋우어 줄 만큼만 답해 주라. 특히 알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허튼 수작으로 되지도 않은 질문들을 해서 여러분을 골탕먹이려 든다는 것이 뻔하거든, 이럴 때 아이는 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질문에 여러분을 굴복시킬 생각뿐임이 분명하니, 당장에 중지하라. 아이가 입 밖에 내는 말보다는 말하게 만드는 동기에 더 유의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덜 필요하던 이러한 주의가, 아이가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없이 중요한 것이 된다.

일반적인 진리들을 엮는 하나의 사슬이 있어, 모든 학문은 이 사슬로 공통 원리들에 매달려 연달아 발전한다. 이 사슬이란 철학자들의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슬이 아니다. 전혀 다른 사슬이 있어,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가 이 사슬로 판것을 끌어당겨 제 다음 것을 노상 보여 준다. 그것들 모두가 요구하는 주의를 꾸준한 호기심으로 복돋우는 이 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순서이며,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순서다. 우리는 지도를 그리려고 방향을 정하면서 자오선들을 그어야만 했다. 아침과 저녁의 똑같은 그림자들 사이의 두 교차점은 13살짜리 천문학자에게는 훌륭한 자오선이 되어 준다. 그런데 이 자오선들은 지워지므로 굿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늘 같은 곳에서 일하도록 강제한다. 그 술한 배려와 불편

에 아이는 마침내 싫증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레짐작했었다.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또다시 길고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독자들이여, 여러분의 투덜거림이 들리지만 무릅쓰기로 한다. 여러분의 조바심 때문에 이 제3부의 가장 유익한 부분을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다. 긴 이야기에 대한 각오를 하라. 나로서도 여러분의 불평에 대한 각오는 했으니까.

오래전부터 내 제자와 나는 호박·유리·밀초 따위의 여러 가지 물체가 마찰되면 짚을 끌어당기고, 판것들은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었다. 어찌다가 우리는 훨씬 더 기묘한 힘을 지닌 물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좀 떨어진 데서, 마찰되지 않고도 줄 밧이나 판 쇠 부스러기를 잡아당긴다. 그 이상 더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면서도 이러한 성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흥미를 끄는가? 마침내 우리는 그 성질이 어느 방향으로 자화(磁化)된 쇠 자체와도 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어느 날 우리는 장에 간다.<sup>4\*</sup> 한 요술쟁이가 빵조각을 가지고 대야 물에 뜬 밀초 오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우리는 무척 놀랐는데도, 이건 마술사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마술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원인을 모르는 결과들에 노상 놀라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려고 서둘러 대지는 않으며, 무지에서 빠져 나올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무지 속에 그냥 가만히 머무른다.

집에 돌아와 시장의 오리 이야기를 한참 한 끝에 우리는 그것을 흉내 내어 만들 공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제대로 자화된 알맞은 바늘 하나를 집어와 흰 밀초로 싸서, 바늘이 오리 몸을 꿰뚫어 바늘 머리가 부리가 되도록 해서 정성껏 오리 모양을 만든다. 오리를 물 위에 놓아 열쇠고리를 부리에 가져가면, 시장의 오리가 빵조각

4\* “이 토막 이야기에 대한 포르메이 씨의 날카로운 비평을 읽고 나는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어린애한테 셈이나 그 교사를 점잖게 타이르는 이 요술쟁이는, 에밀 같은 사람들 세계의 인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작은 사건이 짜고 한 일이며, 그 요술쟁이에게는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 주었던 것이라는 점을, 영리한 포르메이 씨는 짐작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실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대신 나는 몇 번이나, 모조리 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말했는가?” (C의 원주)

포르메이의 글의 인용은 정확하지가 않다. “어린애” 앞에, “심한 책망을 하려 드는”이 빠져 있다(《앙띠 에밀》, 베를린 판(1763), p. 104).

에 끌려가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오리가 열쇠에 끌려가는 것을 누구나 쉽사리 이해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오리를 물 위에 정지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서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번에 할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대상 물에 몰두되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곧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는 빵을 포켓에 넣어 가지고 시장으로 다시 간다. 요술쟁이가 재주를 해 보이자 간신히 참고 있던 우리 꼬마 박사가 그 재주는 어려운 것이 없어 저도 그만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받아들여진다. 아이는 당장에 속에 쏙조각이 감추어진 빵을 포켓에서 꺼낸다. 테이블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떨다시피 하면서 빵을 내놓는다. 오리가 와서 빵에 끌어당긴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지르고 소스라친다. 구경꾼들의 박수갈채에 얼떨떨해 제정신이 아니다. 당황한 요술쟁이는 그래도 곁으로 가서 껴안고 칭찬하면서,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 솜씨에 갈채를 보내도록 해 줄 테니 다시 와 달라고 간청한다. 우쭐해진 우리 꼬마 자연 과학자는 수다가 떨고 싶지만 나는 당장에 그 입을 막고 칭찬들에 겨운 그를 데리고 간다.

아이는 다음날이 되도록 우스우리만큼 애를 태우며 시계 바늘을 들여다본다. 만나는 사람 모두를 초대한다. 온 인류가 제 영광의 목격자였으면 하는 기분이다. 시간을 안타까이 기다리다가 시간을 앞지르고 만다. 약속 장소로 날아간다. 자리는 이미 차 있다. 들어서면서 어린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다른 요술들이 먼저 있게 마련이다. 요술쟁이는 제 실력을 넘어서서 놀라운 짓들을 해치운다. 이런 것이 모조리 아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상기되어 땀을 흘리고 숨이 가쁘다. 감질이 나서 떠는 손으로 포켓 속의 빵조각을 만지작거리느라고 시간이 다 간다. 마침내 차례가 온다.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구경꾼에게 소개해 준다. 아이는 약간 수줍어하며 나아가 빵을 꺼낸다…… 세상일의 새로운 뒤바뀐! 어제만 해도 그토록 순하던 오리가 오늘은 버릇이 없어졌다. 부리를 내놓기는커녕 꼬리를 돌려 뺄소니친다. 빵과 빵을 내미는 손을 전에 따라갈 때만큼 기를 쓰고 이번에는 피해 달아난다. 골백번을 해 보아도 헛일, 노상 야유만 당한 아이는 투덜거리면서, 속았다, 먼저 오리와 바꿔친 다른 오리라고 말하며, 이 오리를 끌어당겨 보라고 요술사에게



대든다.

요술쟁이는 대답도 없이 빵조각을 집어 오리한테 내민다. 당장에 오리는 그 빵에 끌려 뒤로 물러나는 손을 따라온다. 아이는 그 같은 빵조각을 집어 든다. 그러나 먼저보다 잘 되기는커녕 오리가 그를 비웃으며 대야 돌레를 맴돌기만 한다. 마침내 창피할 대로 창피해져 물러나고 다시는 아유 앞에 감히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자 요술쟁이는 아이가 갖고 온 빵조각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도자기 빵과 똑같은 성공을 거둔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빵 속의 쇠를 꺼내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불리한 폭소가 터진다. 이어 그는 속을 빼낸 그 빵을 가지고 먼저 와 다름 없이 오리를 끌어당긴다. 여럿 앞에서 제삼자를 시켜 자른 판 빵조각을 가지고도 똑같이 하고, 장갑이나 손가락 끝으로도 같은 짓을 한다. 마침내는 방 복판으로 가더니 이런 사람들다운 허풍떠는 말투로, 오리가 자기 몸짓 못지않게 자기 목소리에도 따라온다고 선언하고는 오리에게 말을 거니 그대로 따른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돌아 그러면 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인다. 배가된 박수갈채가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모욕이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빠져 나와, 모두에게 해 줄 생각이던 성공 이야기는 하려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리 방에 죽치고 들어앉는다.

다음날 아침 누가 문을 두들긴다. 내가 열어 준다. 그 요술쟁이다. 우리의 처사에 대해 조심조심 불평을 늘어놓는다. 자기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자기 재주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밥벌이감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느냐고? 밀초 오리를 끌어당기는 재주 속에 그래 한 성실한 인간의 생계를 희생시켜서라도 명예를 사야 할 만큼 대단한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어르신네들, 저도 먹고살기 위해 무슨 판 재간만 있어도 결코 이런 재간을 자랑으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재주를 평생을 두고 닦아 온 사나이가 잠시밖에는 해 보지 않은 맥들보다는 그 점에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쯤은 아셔야 할 텐데요. 제가 처음부터 비장의 숨씨를 내놓지 않았던 것은, 알고 있다고 해서 경솔하게도 서둘러 다 늘어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죠. 저는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제일 나은 재주들을 애써 늘 감추어

왔기 때문에, 어제 그것 말고도 실없는 젊은 애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 탄 재주쯤은 얼마라도 갖고 있거든입쇼. 게다가 제가 온 것은, 어제 그토록 맥들을 골탕먹인 그 비밀을 기꺼이 가르쳐 드릴 테니 부디 그것으로 저를 방해하는 데 악용하질랑 마시고 다음번에는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 주십사 하고 사정 드리려는 거입쇼.

그리고는 자기 연장을 보여 주는데, 그것이 테이블 밑에 숨은 아이가 몰래 움직이는 아주 강한 지남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놀라자빠진다.

사나이는 그 연장을 챙겨 놓는다. 고맙다는 인사와 사과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에게 선물이 주고 싶어진다. 그는 사양한다.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제가 선물을 받을 만큼 맥들을 좋아할 것은 없습니다. 맥의 생각이야 어떻건 제게 신세를 진 것으로 해 두겠습니다. 이것만이 저의 복수이니깁쇼. 어떤 신분의 사람에겐 아량은 있다는 걸 알아 두십시오. 저는 재주 값은 받아도 수업료는 받지 않으니깁쇼.”

그는 나가면서 특히 나를 큰소리로 꾸짖는다. 저 아이는 저도 기꺼이 용서합쇼.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따름이니깁쇼. 하지만 선생계신 아이의 잘못을 아셔야 할 분이 왜 그러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두 분은 같이 사시는 만큼 손윗사람으로서 선생은 마땅히 아이를 돌봐 주고 충고도 해 주어야 합쇼. 선생의 경험이 아이를 이끌어 주어야 할 권위가 되는 겁쇼. 아이는 커서 어릴 때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주의시켜 주시지 않은 데 대해 영락없이 선생을 책망하게 될 겁니다.<sup>5\*</sup>

그는 떠나가고 아주 창피해진 우리 둘만 남는다. 나는 자신의 허술한 경솔을 자책한다. 다음부터는 아이를 위해 이런 짓은 말 것을,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주의시켜 줄 것을 아이에게 약속한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바뀔 때가, 선생의 엄격이 친구의 호의를 뒤이을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변화는 점차로 와야 한다. 모든 것을 예견해야 하며, 그나마 아주 멀리서부터 모든 것을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5\* “이러한 꾸짖음에서, 교사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마디 한 마디 일러 준 말을 깨닫지 못할 만큼 미련한 독자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야만 했던가? 나 자신이 이런 말을 요술쟁이에게 예사로 시킬 만큼 미련한 자로 생각되어야만 했던가? 나로서는 그래도, 사람들더러 자기 신분에 맞는 머리로 말하게 하는 기간이 내게는 별로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는 여기고 있었다. 다음 대목의 끝도 보라. 포르메이 씨만 빼놓고는 모두에게 할 말은 다 한 셈이 아니었던가?” (C의 원주)

다음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요술을 다시 보러 시장에 간다. 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품고 우리의 요술쟁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간다. 우리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기도 겸연쩍다. 그는 갇은 친절을 베풀면서 특별석에 앉혀 주어 우리는 더욱 부끄러워진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술을 한다. 그런데 오리 요술에서는 펍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자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즐기며 우쭐댄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진 않는다. 만일 내 제자가 감히 입만 열더라도 혼꾸멍넌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실례의 세부 모두는 보기보다는 중요하다. 단 한 가지 속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들어 있는가! 허영심의 첫 충동이 얼마나 술한 욕보이는 뒤탈을 가져오는가! 젊은 선생이여, 이 첫 충동을 조심조심 지켜보라. 당신이 거기서 이렇게 창피와 망신<sup>6\*</sup>을 끌어낼 줄만 안다면 그런 일이 오랫동안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어도 좋다. 얼마나 대단한 준비인가! 당신은 이런 말을 하겠지. 나도 동의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자오선 구실을 해 줄 나침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남철이 판 물체들을 꿰뚫고 작용한다는 것을 배운 우리는 우리가 본 그 연장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이상으로 시급한 일은 없다. 속을 도려 낸 테이블, 그 테이블에 맞춘 아주 얇아 약간의 물로 넘치는 대야, 좀 더 공들여 만든 오리 등등이다. 대야 둘레를 자주 눈여겨보는 우리는 마침내 정지한 오리가 늘 거의 같은 방향을 잡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 실험을 계속해서 그 방향을 살펴본다. 그것이 남북임을 발견한다. 더 해 볼 것도 없다. 우리의 나침반은 발견된 셈이고, 아니더라도 발견된 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제 물리학에 들어선 셈이다.

지구 위에는 갖가지 풍토가 있고, 그 풍토들에는 또 갖가지 기온이 있다. 계절들의 변화는 극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뚜렷하다. 모든 물체는 주위에 오그라들고 열에 부풀어 난다. 이러한 작용은 액체들에서 더욱 잘 측정되어지며, 알코올 액체들

6\* “이 창피와 망신은 따라서 내가 준 것이지 요술쟁이가 준 것은 아니다. 포르메이 씨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 책을 가로채어, 내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붙이기만 해서 인쇄시키려고 했던 만큼, 그것을 쓰는 수고는 몰라도 읽는 수고나마 했어야만 했다.” (C의 원주)

에서 더욱 뚜렷하다. 여기서 온도계가 생겨난다.<sup>7\*)</sup> 바람이 얼굴을 친다. 그러니 공기도 하나의 물체, 하나의 유동체다. 그것을 볼 아무런 방법도 없지만, 느껴지기는 한다. 컵을 뒤집어 물속에 넣어 보라. 공기가 빠져 나갈 틈을 남겨 두지 않고서는 물이 컵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기에는 저항이 있다. 컵을 더 눌러 보라. 물이 공간에서는 공기를 몰아 내겠지만 그 공간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압축이 된다. 압축 공기로 채운 공은 탄 물질로 채운 때보다 잘 된다. 그러니 공기는 탄성체(彈性體)다. 욕탕 안에 누워 팔을 물 밖에 수평으로 올려 보라. 팔에 엄청난 무게가 걸려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공기는 무게 있는 물체다. 공기를 탄 유동체들과 균형 상태에 놓아 보면 그 무게를 잴 수 있다. 청우계(晴雨計) · 사이펀(siphon) · 공기총(空氣銃) · 공기 펌프는 여기서 생겨난다. 정력학(靜力學)과 수력학(水力學)의 모든 법칙은 이와 똑같이 영성한 실험들에 의해 발견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물리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 아니다. 그러한 기구나 기계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과학적인 공기가 과학을 죽인다. 그러한 온갖 기계들은 아이를 질리게 하지 않으면, 그 모양들이 아이가 그 작용들에 쏟아야 할 주의를 반타거나 몽땅 앗아 가 버린다.

나는 우리 기계를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 또 실험도 하기 전에 기계부터 만들고 싶지는 않다. 실험을 우연히 한 것처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할 기구를 점차로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기구들이 그다지 완전하거나 정밀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거기서 생겨날 작용들에 대해 더욱 분명한 관념들을 갖는 편이 오히려 낫다. 정력학의 첫 수업을 위해 나는 저울을 찾으러 가는 대신 막대기를 의자 등에 모로 놓고 균형 잡힌 막대기의 두 부분의 길이를 재고, 양쪽에 때로는 같고 때로는 같지 않은 무게를 가한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막대기를 당기거나 밀어 마침내, 균형이 중량과 지렛대 길이 사이의 상관 비율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기서 내 꼬마 물리학자는 저울을 보기도 전에 벌써 고칠 수 있게 된다.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스스로 배우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남이 가르쳐 주어 아는

7\*) 레오뮴르(Réaumur, 1683~1757)의 온도계가 만들어진 것은 1730년이다.

사물들에 대해서보다 사뭇 더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 또 제 이성을 권위에 맹종시키는 버릇이 들지 않을뿐더러, 마치 노상 하인들이 옷 입혀 주고 신을 신겨 주고 시중을 들어 주며 말만 타고 다녀 마침내는 팔다리의 힘과 용처를 잃고 마는 사람의 몸처럼, 남이 주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다가 정신이 태만 속에 주저앉고 마는 경우보다는, 관계들을 찾아 내고 관념들을 묶고 기구들을 만들어 내는 일에 더욱 익숙해진다. 부알로는 힘들여 시를 짓도록 라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자랑하곤 했다.<sup>8\*</sup> 학문 연구를 짧히는 그 많은 근사한 방법들 중에서, 애써 배우는 방법을 누가 우리에게 일러 주는 것이 크게 긴요한 일일 것이다.

이 더디고 힘든 연구의 가장 뚜렷한 이득은, 이론 연구 도중에도 몸의 활동성이나 손발의 유연(柔軟)성을 그냥 유지해, 손을 노동에, 인간에 유익한 일에 쓰이도록 노상 훈련하는 일이다. 실험에서 우리를 이끌고 감각들의 정확성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 내어진 연장들이 감각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만든다. 측각기가 각의 크기를 대중잡지 않아도 되게 해 준다. 거리를 정확히 재던 눈이 제 대신 재어 주는 측량줄만 믿게 된다. 천평칭(天平秤)이 그것으로 아는 무게를 손으로 판단하는 일을 면해 준다. 우리의 연장들이 정교해질수록 우리의 기관들은 엉성해지고 서툴러진다. 우리 둘레에 기계들을 너무 주워 모으다 보니 이제 우리 자신 속의 기계는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러나 그 기계들 구실을 해 주던 재주를 그것들을 만드는 데 쏟는다면, 기계 없이 지내는 데 필요하던 총명을 그것들을 만드는 데 쓴다면, 우리는 하나 잃는 것 없이 따는 것이며, 자연에다 기술을 곁들이는 것이며, 덜 익숙해지는 일 없이 더 영리해지는 것이다. 아이를 책에만 붙박이게 하지 말고 공작소에서 일거리를 주면, 그 손은 제정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 철학자가 되면서도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훈련에는 내가 나중에 말하게 될 판 보람들이 있다. 철학의 유희에서 인간의 진짜 구실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를 거기서 알게 될 것이다. 순전히 이론적인 지식들이 아이들에게는, 청년기에 가까워지는 아이들에게도 결코 맞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론 물리학에 너무 깊이 파고들

8\* 17세기의 비평가 Boileau(1636~1711)와 극작가 Racine(1639~99).

게는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온갖 경험이 어떤 연역(演釋)에 의해 서로 맺어지도록은 해 주어, 그 사슬에 힘입어 아이들이 제 경험들을 머릿속에 차례로 배치해 두고 필요할 때 기억해 낼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고립된 사실들은, 또 고립된 추론(推論)들까지도, 그것들을 기억으로 끌고 갈 무슨 실마리가 없으면, 기억 속에 오래 붙잡아 두기란 힘드는 일이니까.

자연 법칙들의 탐구에서는 언제나 가장 흔하고 가장 뚜렷한 현상들서부터 시작하되, 그 현상들을 이치로 보지 말고 사실로 보는 버릇을 여러분의 제자에게 붙여 주라. 나는 돌 하나를 집어 허공에다 놓는 시늉을 한다. 손을 벌리면 돌은 떨어진다. 내가 하는 짓에 주의하는 에밀을 보다가 말한다. 왜 이 돌은 떨어졌지?

어느 아이가 이 질문에 말이 막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에밀도 마찬가지다, 답할 줄 모르도록 내가 애써 미리 무슨 수를 써 두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돌이 무거워서 떨어진다고 다들 말할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무거운가? 떨어지는 것이 무겁다. 그렇다면 돌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인가? 여기서 내 꼬마 철학자는 영요지부동이다. 이것이 그의 이론 물리학의 첫 수업이며, 이따위 일에서 그가 이득을 보건 안 보건, 이것은 언제나 양식(良識)의 공부는 될 것이다.

아이의 지능이 진보함에 따라 판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하는 일들을 더욱 엄선해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 안락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만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제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판단할 만큼 광범한 관계들을 잡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일과 장난의 차이를 깨달아 장난을 일의 휴식으로밖에 보지 않게 된다. 이때 실리 있는 대상들이 그의 공부 속에 끼어들어가 단순한 장난에 기울이던 이상으로 꾸준한 열성을 기울이도록 아이를 엮낼 수 있게 된다. 노상 되살아나는 필연의 법칙은 인간에게, 더욱 불쾌한 악을 피하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하도록 일찍부터 가르쳐 준다. 선견지명의 보람이란 이런 것이다. 이 선견지명이 제대로 가다듬어지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의 모든 지혜나 비참이 생겨난다.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자연인의 행복은 그 생활만큼이나 단순하다. 그것은 괴로워하지

않는 데 있다. 건강 · 자유 · 필수품이 그것을 이룬다. 윤리적인 인간의 행복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행복은 아니다. 아이들의, 특히 허영심이 일깨워지지 않고 미리 편견의 독에 상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육체에 딸린 것들밖에 없다는 말을 나는 아무리 되풀이해도 모자라겠다.

필요를 느끼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아이들의 지능은 이미 상당히 발달된 것으로, 시간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는 쓸모 있는 대상물들에, 그것도 그 나이로서, 그 지식의 정도로서 느껴지는 쓸모를 지닌 것들에 시간을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 질서나 사회 관례에 속하는 것 모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당장 아이들에게 내놓아서 안 된다. 아이들에게 막연히 이익이 된다고 말해 주지만 아이들은 그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물들, 커서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아이들은 그 이른바 이득에 당장은 아무런 관심도 없을뿐더러 잘 알지도 못할 그러한 사물들에 전념하도록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이가 말만 믿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라. 아이가 좋다고 느끼는 것밖에는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아이를 제가 지닌 지식보다 노상 앞서게 하면서 선견지명이라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선견지명이 없다. 아마 아이가 평생 써 보지도 않을 그런 헛된 연장들을 아이에게 갖추어 주려고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만능인 연장, 곧 양식을 아이에게서 빼앗고 있다. 노상 남에게 끌려다니도록, 남의 손에 움직이는 기계밖에는 되지 못하도록 아이를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이가 어릴 때 순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커서 잘 믿어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는 셈이다. 여러분은 노상 말한다.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은 죄다 네 이익을 위해서야. 그런데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네가 하건 안 하건 그제 내게 무슨 상관인가? 네가 공부하는 건 너만을 위해서인데,” 아이를 온순하게 만들려고 지금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런 근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장차, 환상가나 연금술사 · 돌팔이 · 험잡꾼이나 온갖 유의 미치광이가 그를 함정에 끌어 넣거나 제 광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

에게 말하게 될 이야기들의 성공을 미리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가 그 쓸모를 이해하지 못할 많은 사물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른이 알아야 할 것 모두를 아이가 배워야 한다거나 배울 수가 있겠는가? 아이에게는 제 나이에 소용되는 것 모두를 가르쳐 주도록 애쓰라. 아이의 시간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여러분은 왜 아이에게 오늘 알맞은 공부를 망쳐 가며 아이가 가당게 될지 확실치도 않은 나이의 공부만 시키려 드는가? 여러분은 말하겠지, 알아야 할 것을, 그것을 써먹을 때가 오고 나서 배우는 것이 제때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을 더 일찍 배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스승은 경험과 느낌이며, 인간은 제게 알맞은 것을 제가 그 속에 넣어 있는 관계들 안에서밖에 결코 제대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제가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났음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상태에 대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관념이 아이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된다. 그런데 제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한 관념들에 대해 아이는 완전한 무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 저술 모두는 이러한 교육 원리의 계속되는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

‘쓸모 있는(utile)’이라는 낱말의 관념을 우리 제자에게 줄 수 있게 되자마자 우리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큰 실마리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이 낱말이 아이에게는 제 나이에 관계되는 의미밖에는 갖지 않아 그것과 현재의 자신의 안락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만큼, 이 낱말이 아이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 낱말에서 전혀 인상을 받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 힘이 미치는 관념을 그들에게 넣어 주도록 여러분이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판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소용되는 것을 대어 주는 일을 늘 가로막아 스스로 그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기에 쓸모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에 좋은가?’ 이것이야말로 앞으로는 거룩한 말,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에 있어 그와 나 사이에서 결정해 주는 말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모든 질문에 영락없이 뒤따르는 나의 질문이며, 어떤 이득을 끌어내기 위해서보다 주위 사람 모두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아이들이 공연히 성가시게 굴어 마지않



는 그 시시하고 귀찮은 술한 질문에 재갈 구실을 하는 질문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서 쓸모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들지 말도록 배운 자는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한다. 그는 남이 답하기 전에 자기에게 물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질문의 이유를 스스로 알지 않고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제자를 움직이기 위해 여러분 속에 내가 얼마나 힘센 연장을 잡혀 주는가를 알라. 아무런 까닭도 알지 못하면서 제자는 여러분이 바랄 때는 언제나 거의 입을 다물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고 말며,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내놓는 것 모두의 쓸모를 제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큰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지 말라. 이 질문을 아이에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아이더러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일이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놓을 모든 것에 대해 제자도 여러분을 본받아 영락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에 좋습니까?’

교사에게는 피하기에 가장 힘든 함정이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만일 아이의 질문에 발뺌할 생각밖엔 없는 여러분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이유를 단 하나라도 내놓는다면, 여러분이 아이의 관념 아닌 자신의 관념에 대해 추리하고 있다고 보는 아이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이에는 좋으나 제 나이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가 다시는 여러분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만사는 글러진다. 그런데 말문이 막힌 채 제 잘못을 시인하려 드는 선생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들 자기가 저지른 잘못조차도 시인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 나로서는 내 이유들을 아이에게 이해시키지 못할 때는, 내가 저지르지 않을 잘못도 시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아이 머리에도 늘 분명한 내 처사가 결코 수상쩍게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나는 남들이 그것을 감춤으로써 얻는 이상의 신용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을 여러분이 내놓아야 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하라. 그것을 바라고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아이 힘이 미치는 데 놓아 주어, 능란하게 그 욕망이 생겨나게 해 주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단을 대어 주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질문은 잘못이 없고 잘 선택되

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아이에게보다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질문이 더 많을 것이기에, 여러분이 당할 경우는 언제나 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더욱 잦을 것이다. ‘네가 내게 묻는 것은 알아 무슨 소용이 있지?’

게다가 제가 배우는 것과 배우는 것의 쓸모만 잘 알고 있다면, 아이가 어느 것을 배우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이 아이에게 하는 말에 관해 아이에게 좋은 어떤 해명을 해 줄 필요가 없어지거든, 전혀 해명을 해 주지 말라. 거리낌 없이 말해 주라. 네게 해 줄 좋은 답이 내겐 없어. 내가 틀렸으니 그냥 넘어가자. 만일 여러분의 가르침이 실지로 빛나간 것이었다면, 몽땅 버려서 나쁠 것이 없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약간의 배려로써 그 쓸모를 깨닫게 해 줄 기회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로 하는 설명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주의하지 않아 기억해 두는 일도 없다. 실물들, 실물들! 우리는 말에 너무 힘을 주고 있다고 내가 아무리 되풀이해도 충분치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수다스러운 교육을 가지고는 수다쟁이들밖에는 만들어 내지 않는다.

내가 제자와 같이 태양의 운행과 방향 잡는 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가 갑자기 나를 가로막고 이런 것이 다 무엇에 쓰이느냐고 물었다고 가정하자. 나는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함으로써 나는 얼마나 많은 사물을 가르쳐 줄 기회를 잡게 될 것이며, 우리 이야기를 같이 들을 사람들이 있다면 더구나 그렇다!<sup>9</sup> 여행의 보람 · 장사의 이득 · 각 풍토 특유의 산물 · 갖가지 민족의 풍습 · 달력의 이용 · 농업을 위한 계절 순환의 계산, 항해술 · 바다에서 자기 위치를 몰라도 방향을 잡아 정확하게 뱃길을 따라가는 방법 등에 대해 나는 말해 줄 것이다. 정치 · 박물학 · 천문학 · 도덕이나 국제법까지도 내 설명에 들어가, 이 모든 학문에 대한 큰 관념과 그것을 배울 큰 욕망을 내 제자에게 넣어 주도록 할 것이다. 다 말하고 나면 진짜 현학자를 과시한 것이 되겠지만, 아이는 단 한 가지 관념도 이해

9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보다도 거기 있는 어른들에게 들려줄 생각을 더 하는 것을, 나는 자주 본 일이 있다.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 나는 아주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그러한 관찰을 했으니까.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방향 잡는 것이 무엇에 쓰이느냐고 여전히 내게 묻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화낼까 봐서 감히 그러질 못한다. 억지로 들려준 것을 알아들은 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근사한 교육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순박하게 길러지고, 또 우리가 그토록 애써 무딘 이해력을 주고 있는 우리 에밀 같으면, 그런 것에는 일체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말만 나오면 당장 뺄소니쳐, 방에서 까불어 대며 나 혼자 긴 연설을 늘어놓게 내버려둘 것이다. 더 엉성한 해답을 찾아보자. 나의 학문적인 걸치레가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우리는 몽모랑시(市) 북쪽에서 숲의 위치를 관측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성가신 질문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이건 무엇에 쓰이지요?” 내가 말했다. 네 말이 옳아. 천천히 그 생각을 해 봐야겠군. 만일 이 공부가 아무 소용도 없음이 밝혀지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꾸나. 쓸모 있는 장난이 우리에게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기로 하고 그날은 지리를 다시는 문제삼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나는 산보를 한 바퀴 하자고 제안한다. 그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아이들이란 언제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 아이는 다리가 튼튼하다. 우리는 숲 속을 기어오르고, 샹포<sup>10\*</sup>를 쏘다니다가, 길을 잃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해도 길을 되찾아 낼 도리가 없다.

시간은 지나가고, 더위는 지고, 배는 고프다. 서둘러 대어 이쪽저쪽을 헤매나 헛일, 있는 것이라곤 도처에 숲과 돌산과 들뿐,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낼 만한 길잡이라곤 하나도 없다. 덥고 기진맥진하고 배고픈 우리는 아무리 걸어도 더욱 해매게 될 뿐이다. 쉬며 공리해 보려고 마침내 주저앉는다. 판 아이와 마찬가지로 길러졌다고 가정한다면, 에밀은 공리해 보기는커녕 울고 있다. 우리가 몽모랑시 어구에 있으나 다만 덩불 하나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덩불이 그에게는 숲, 그 키의 인간은 덩불 속에도 묻히고 만다.

10\* les champeaux, 냇가의 풀밭에 대한 들판의 풀밭이나 언덕. 몽모랑시 말(語).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내가 불안한 듯이 말한다. “얘, 에밀아, 여기서 빠져 나가려면 어떡하지?”

에밀 (땀에 흠뻑 젖어, 글썽거리며) 저는 통 모르겠어요. 지쳐 빠졌어요.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 이젠 꼼짝도 못 하겠는 걸요.

장 자크 나는 뭐 너보다 나은 줄 아니? 울어서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난들 안 울 줄 아니?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있는 곳을 알아 내는 게 문제야. 네 시계를 보자꾸나. 몇 시지?

에밀 오정인데요, 그러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장 자크 정말로 오정이군, 그래서 나도 시장하군.

에밀 오, 선생님도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장 자크 딱하게도 점심이 여기까지 찾아오진 않을 거야. 오정이라? 어제 우리가 몽모랑시에서 숲의 위치를 관측하던 바로 그 시각이군. 그때 처럼 숲에서 몽모랑시의 위치를 관측할 수만 있다면?……

에밀 그래요. 하지만 어젠 숲이 보였는데, 여기서 시가지가 보이질 않아요.

장 자크 그게 탈이야…… 시가지는 안 보여도 그 위치만 알 수 있다면……

에밀 오, 그래요, 선생님!

장 자크 우린 말하지 않았던가, 숲은……

에밀 몽모랑시 북쪽에 있다고요.

장 자크 그렇다면 몽모랑시는 마땅히……

에밀 숲 남쪽에 있어야죠.

장 자크 정오에 북쪽을 찾아 내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에밀 그럼요, 그림자의 방향으로요.

장 자크 그런데 남쪽은?

에밀 어떡하지요?

장 자크 남쪽은 북쪽의 반대지.

에밀 정말 그래요. 그림자 반대쪽만 찾으면 돼요. 오, 저게 남쪽이에요, 저게 말예요! 몽모랑시는 영락없이 이쪽이군요.

장 자크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숲 속의 오솔길로 가보자꾸나.

에밀 (손뼉을 치고, 기뻐 소리지르며) 아, 몽모랑시가 보여요! 바로 우리 앞에 환히 보여요. 자, 아침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요. 빨리 뛰어가요. 천문학교 쓰일 데가 있군요.

설사 이 마지막 말을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리라는 점에 유의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기만 하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날의 공부를 그가 평생 잊지 않으리라는 것은 믿어도 좋다. 그 대신 내가 만일 이 모두를 방 안에서 짐작케만 해 주었더라면 내 이야기는 다음날에는 벌써 잊힐 것이다. 되도록 행동에 의해 말해야 하며, 실행할 수 없는 일밖에는 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한 가지 공부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할 정도로 내가 독자를 깔보고 있다고는 독자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더러 무엇이 문제이건 제자의 능력에 따라 증명을 잘 가감하도록 하라는 권고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탈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으니 말이다.

어떤 아이에게 화학에 대한 취미를 붙여 주고 싶어 몇 가지 금속의 침전을 보여 준 다음, 잉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던 생각이 난다. 그 검정빛은, 황산염에서 분리되어 알칼리 액에 침전된 아주 잔 철분에서 생겨날 따름이라고 나는 말해 주고 있었다. 나의 박학한 설명이 한창인데, 그 꼬마 배반자가 내가 가르쳐 준 질문을 가지고 느닷없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나는 잠시 궁리를 하고 나서 결심했다. 그 집주인 지하실의 포도주와 술 가게의 싸구려 포도주를 가져오게 했다. 일정한 알칼리 용액을 작은 병에 부었다. 그리고는 그 다른 두 가지 포도주가 든 컵 둘을 앞에 놓고,<sup>11</sup> 이렇게 말했다.

11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려 들 때마다, 어떤 잔다란 연장을 미리 내놓으면 주의를 끄는 데 힘이 된다.

사람들은 실지보다 나아 보이게 하려고 몇 가지 식료품을 위조하고 있지. 그러한 가짜가 눈과 혀를 속이고 있지만, 몸에 해롭고, 또 보매는 근사해도 그 물건을 애초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

음료수나 포도주는 더구나 위조가 많지. 속임수를 알아 내기는 더욱 힘들고 이익은 더 생기기 때문이야.

뽕거나 신 가짜 포도주는 밀타승을 섞어서 만들어. 밀타승에는 납이 들어 있던 말이야. 산화된 납에서는 아주 맛 좋은 염(鹽)이 생겨 포도주의 뽕은 맛을 없애 주지만,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독이야. 그러니 꺼림칙한 포도주는 마시기 전에 밀타승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 두는 게 중요하지. 그럼 그것을 알아 내려면 어떻게 따져 나가나.

포도주 액에는 거기서 걸러 내는 증류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연성 알코올만이 들어 있는 건 아니야. 식초나 주석(酒石)도 걸러 내는 걸 보아 알 수 있듯이 산도 들어 있거든.

산은 금속 물질들과 관계가 있어 용해에 의해 금속과 결합하면 합성 염(鹽)이 생기지. 예컨대 공기나 물에 포함된 산에 용해한 철분에 지나지 않는 녹이라든가, 초에 용해된 구리석에 지나지 않는 녹청 같은 것들이 말이다.

그런데 이 산은 금속 물질보다도 알칼리 물질과 더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한 합성 염들 속에 알칼리 물질들이 끼어들면, 산은 저와 결합된 금속을 버리고 알칼리와 붙지 않을 수가 없거든.

이때 금속 물질은 저를 용해시켜 놓은 산을 벗어나 침전, 액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말아.

그러니 만일 이 두 가지 포도주 중의 하나에 밀타승이 들어 있다면, 그 산이 밀타승을 용해시켜 놓은 거지. 거기다 알칼리 액을 쏟으면, 산은 분리되어 알칼리와 결합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이젠 용해 상태가 아닌 납이 다시 나타나 액을 흐리게 하고는, 마침내는 컵 밑바닥에 침전하고 말 거야.

포도주 속에 납도<sup>12</sup> 어떤 금속도 없다면, 알칼리는 탈 없이 산과 결합해<sup>13</sup> 모두가 용

12 파리의 포도주 가게들에서 소매하는 포도주는, 다 밀타승이 들어 있지는 않더라도 납이 없는 것은 드

해된 채 있을 거고, 어떤 침전도 생기지 않겠지.<sup>13</sup>

이러고 나서 나는 알칼리 액을 연달아 두 컵에 쏟았다. 그 집 포도주 컵은 맑고 투명한 그대로였다. 또 하나는 당장에 흐려져, 한 시간 후에는 컵 밑바닥에 침전된 납이 분명히 보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것은 저질로 되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포도주이고, 이걸 독이 되는 가짜 포도주야. 네가 그 쓸모를 묻던 바로 그 지식에 의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거다. 잉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짜 포도주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보여 준 실험에 나는 무척 만족스러웠지만, 아이는 전혀 감명받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었다. 내가 어리석은 것밖에는 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12살 난 아이가 내 설명을 따라올 수 없었다는 말은 그만두고라도, 두 가지 포도주를 맛보고 양쪽이 다 좋다고 보는 아이로서는 내가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하던 그 위조란 낱말에 어떤 관념도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실험의 보람이 그의 머리에는 파고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에 해롭다’니, ‘독’이니 하는 말들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뜻도 없어, 이 점에서는 아이는 의사 필리포스 이야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모든 아이들의 경우가 다 그런 것이다.

그 관련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인과 관계들이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갖고 있지 않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 느껴 본 적도 없는 필요성 따위는 우리에게서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더러 그것들과 관계되는 무엇을 할 흥미가 나도록 만들 수는 없다. 30살에 천국의 영광을 보듯, 15살에는 한 현자의 행복을 본다.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것들을 얻으

물다. 가게의 카운터에 이 금속이 입혀져 있어, 저울로 쏟아지는 포도주가 그 납 위를 지나거나 거기에 고여서 그것을 얼마간 녹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뚜렷하고 위험한 잘못을 경찰이 묵인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하기가 이런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 넉넉한 사람들이 그 독을 마실 염려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13 식물성 산은 사뭇 약하다. 만일 그것이 광물성 산이고 덜 번져 있다면, 끓어오르지 않고서는 결합되지 않을 것이다.

려고 그다지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설사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바라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제게 알맞은 것들로 느끼지 않고서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아이더리 타이르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아이를 납득시킬 줄을 모른다면 타이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냉정한 이성인 우리더리 동의하거나 비난하게 만들어 보았자 소용 없다.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정념밖에 없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이해 관계에 어떻게 열중하게 되겠는가?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이에게 보여 주지 말라. 인간성이 아이에게 거의 낯선 것인 동안은 그를 인간의 상태로 높일 수는 없는 만큼, 인간을 아이의 상태로 끌어 내려 주라. 나중에는 쓸모 있을지도 모를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이가 당장에 그 쓸모를 알아보는 것밖에는 말해 주지 말라. 더구나 판 아이들과의 비교는 절대로 말아야 하며, 아이가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심지어 달음박질에서도 적수나 경쟁 상대 생각은 말아야 한다. 질투나 허영심에서만 배우게 될 그런 것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편이 백배나 낫다. 나는 그저 해마다 아이가 거둔 진보를 표해 두겠다. 그것을 다음 해에 거둔 진보와 비교하겠다. 그리고는 말해 주겠다. 너는 여러 모로 성장했어. 저건 네가 뛰어넘던 도랑, 짙어지던 짐이야. 이젠 네가 돌팔매 질하던 거리, 단숨에 달리던 길이고, 등등.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꾸나. 나는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도 시기하게 만들지 않고 아이를 부추긴다. 아이는 저를 넘어서려 들 것이고, 또 그래 마땅하다. 아이가 제 자신의 적수가 된다 해서 아무런 지장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책들을 미워한다.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하도록밖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헤르메스는 자기가 발견한 것들이 대홍수를 피하게 하려고 학문의 요소들을 돌기둥에 새겼다고들 말한다. 사람들 머릿속에 잘 새겨 두었더라면 구전(口傳)에 의해 보존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제대로 마련된 두뇌는 인간의 지식이 가장 확실하게 새겨지는 문화재다.

그 많은 책들 속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가르침들을 끌어모아, 알기 쉽고 따라가기에 재미있어 이 나이에든 자극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근한 대상물에 몽똥그릴 수



는 없겠는가? 인간의 타고난 온갖 요구가 아이 머리에도 또렷하게 드러나 그것을 채워 줄 방법들도 쉽사리 연달아 펼쳐지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아이의 상상력에 첫 훈련을 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의 생생하고 소박한 묘사에 의해서다.

극성맞은 철학자여, 당신의 상상력이 벌써 불붙어 오르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다. 공연한 수고는 하지 말라. 그러한 상태는 발견되어 있으며,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당신 자신이 그러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잘, 적어도 더 진실하고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무래도 책은 꼭 있어야 하는 만큼, 내가 보기에 자연 교육의 가장 잘 된 개론을 제공하는 책이 한 권은 있다. 그것은 우리 에밀이 읽을 첫 책이 될 것이다. 그것만이 오랫동안 그의 장서 모두를 이룰 것이고, 나중에도 여전히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자연 과학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 모두가 그 주석 구실밖에는 못 할 그러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줄곧 우리의 판단력의 정도를 시험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또 우리의 구미가 상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읽기가 늘 즐거울 것이다. 도대체 이 근사한 책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플라니우스인가, 뷔퐁인가? 아니다. 《로빈슨 크루소》다.

자기 섬에서 동포들의 도움도 온갖 기술의 연장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도 생존과 자기 보호에 대비할뿐더러 일종의 안락마저 얻는 로빈슨 크루소, 이거야말로 모든 나이에 흥미로운 일이며,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재다. 애초에 내게는 비교로 쓰이던 무인도를 우리가 실현시키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 상태가 사회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아마 에밀의 상태가 될 수도 없다. 다만 그가 다른 모든 상태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에 비추어서다. 편견을 초월해서 사물들의 진짜 관계에 대한 자기 판단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립된 인간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그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듯이 판단하는 일이다.

온갖 잡동사니를 없애 버린다면, 그 섬 근처에서의 로빈슨의 파선에서 시작되어 그 섬에서 구해 내려 오는 배의 도착으로 끝나는 이 소설은, 여기서 문제삼는 시기 동안은 줄곧 에밀의 재미와 공부가 동시에 되어 줄 것이다. 그가 이 소설에 열중해

서 자기 저택이나 염소나 나무들에 노상 몰두하기를 나는 바란다. 비슷한 경우에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책 속에서가 아니라 실물에 의해 배우기를 바란다. 제가 바로 로빈슨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몸에 털가죽을 걸치고, 커다란 모자에 장검, 필요 없을 양산만 빼놓고는 그림에 나오는 야릇한 행색 모두를 갖춘 자기를 스스로 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나 저것이 없어졌을 때 해야 할 조심을 생각하기를, 주인공의 처사를 검토하기를, 아무것도 빠뜨린 것은 없는지, 더 잘 해야 할 것은 없었는지 찾아보기를 바란다. 주인공의 실수들을 주의 깊게 표해 두기를,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자신은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용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건설을 하려 갈 생각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필수품과 자유 이외의 행복이라곤 알지 못하는 이 팔자 좋은 나이 때의 진짜 공중누각이다.

이러한 철없는 생각은, 그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만 생겨나게 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방편인가! 자기 섬을 위한 저장 창고 만들기에 바쁜 아이는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열심히 배울 것이다. 쓸모 있는 것 모두를 알리고 들 것이며, 또 그것밖에는 알리고 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를 이끌 필요가 없어져, 붙들고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 행복을 제 섬에만 국한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서둘러 그를 그 섬에 살게 해 주자. 왜냐하면 거기서 더 살고 싶어도 혼자서는 살고 싶지 않을 날이, 지금도 그를 감동시키는 일이라곤 없는 ‘프라이데이’만으로는 오래 족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 사람만으로 할 수 있는 자연 기술들의 연마는, 여러 손의 협력이 필요한 공업 기술들을 구하게 만든다. 전자는 외톨이나 미개인들도 할 수 있다. 후자는 사회에 서밖에는 생겨날 수가 없으며, 사회를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육체적인 필요밖에 알지 못하는 동안은 저마다 스스로 자족한다. 군더더기가 끼어들어 노동의 노느매기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계밖에 벌지 못하지만, 힘을 모아 일하는 100사람은 200사람을 살게 할 만한 것을 벌 것이니까. 그러니 일부 사람들이 쉬게 되자마자,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은 팔들이 아무 일도 않는 자들의 나태를 벌충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의 가장 큰 조심은, 제자의 이해력 밖에 있는 사회관계들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제자의 머리에서 멀리 떼어 놓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식들의 연결 때문에 마지못해, 사람들의 상호 의존 상태를 아이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는, 도덕면에서 그것을 보여 주지 말고 맨 먼저 아이의 주의 모드를, 사람들을 서로 상대방에 유용하게 만드는 공업과 기계 기술 쪽으로 돌려주라. 아이를 공장에서 공장으로 데리고 다니되, 어떤 작업도 제가 손대 보지 않고 보기만 한다거나,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아니면 적어도 제가 본 모든 일의 이유를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나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해 도처에서 본 보기를 보여 주라. 그를 장인바치로 만들기 위해 도처에서 계시가 되어 주라. 그리고 한 시간의 작업은 하루의 설명에서 얻는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리라는 점을 명심하라.

온갖 기술에는 그 실지 쓸모와는 반비례되게 주어진 평가란 것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 무익함과 정비례하기조차 하는데, 이는 당연하다. 노동자의 수효는 사람들의 요구와 비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동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값에 머무르게 마련이므로, 가장 쓸모 있는 기술은 가장 덜 버는 기술이다. 반대로 한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해 장인바치 아닌 예술가로 불리는 저 잘난 사람들은, 자기네가 만든 하찮은 것들에다 제멋대로의 값을 매긴다. 또 그 헛된 작품들의 가치는 남의 의견 속에밖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가치의 일부를 이루어, 값나가는 데 비례해서 평가받게 마련이다. 부자가 그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은 그것의 쓸모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민중이 탐낼 수 있는 것들밖에는 갖고 싶지 않다(Nolo habere bona nisi quibus populus invidet).”<sup>14</sup>

여러분이 만일 제자더러 이런 어리석은 편견을 품게 둔다면, 여러분 자신도 그 편견을 두둔해 준다면, 예컨대 여러분이 자물쇠 가게에 들어갈 때보다는 더한 경의를 가지고 금방(金房)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처에서 실지의 쓸모에서 나온 값과 상치되는 엉뚱한 값만 보게

14 페트로나우스(Petronius Arbiter)의 《사티리콘(Satyricon)》p. 100.

되고, 물건이 값이 나갈수록 가치는 덜 해 진다면, 그들은 기술의 참된 가치와 사물의 진짜 가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이러한 관념이 아이 머리에 들어가게 여러분이 내버려 두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교육은 집어치우라. 여러분이야 어쨌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길러질 것이다. 여러분은 14년 동안 헛수고한 것이 되고 만다.

제 섬을 차릴 생각인 에밀은 달리 보게 될 것이다. 로빈슨은 사이드<sup>15\*</sup>의 온갖 싸구려 장신구보다는 날뿔이 장수 가게를 사뭇 더 소중히 알았을 것이다. 날뿔이 장수는 아주 존경할 만한 인간으로, 사이드는 시시한 험잡꾼으로 보였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살도록 태어났다. 현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미치광이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애는 그들의 광기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 광기에 이끌리고 싶어 하니까. 사물들에 대한 실지 지식도 좋겠지만, 사람들이나 그들의 판단에 대한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계장은 인간이고, 가장 현명한 자는 이 연장을 가장 잘 써먹는 자이니까. 아이들아, 이미 되어진 것으로 보아 그것에 따라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게 될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가공의 질서에 대한 관념을 아이들에게 주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들에게는 맨 먼저 현명해지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나서 남들이 어떤 점에서 미쳐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가르쳐 주라.”

바로 이런 허울 좋은 방침에 따라 아버지들의 그릇된 조심성이 아이들을 편견의 노예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며, 아버지들은 그 편견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뿐더러 자신들마저 자기네의 정념의 연장으로 삼고자 생각하는 지각없는 어중이떠중이의 장난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을 알게 되는 데에는 인간에 앞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인간은 현자의 마지막 공부인데도, 여러분

15\* 사이드(Saïd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문맥으로 보아서는 분명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성서》(《이사야》 23장 2절, 《요엘》 3장 4~5절)가 그 부를 암시하고 있는 시돈(Sidon)일 수도 있겠다.

은 그것을 아이의 첫 공부로 삼으려 들다니! 우리의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그것을 평가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라. 미친 짓을 옳다고 보는 것이 그 래 미친 짓을 알아보게 되는 길일까? 현명해지려면 현명하지 못한 것을 가려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아이는 사람들의 판단을 판단할 줄도, 사람들의 잘못을 분간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알아보겠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니 먼저 사물들이 그것 자체로서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나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눈에는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라. 그래야만 아이는 사람들 생각을 진실과 비교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속된 대중을 넘어설 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편견을 받아들이면 편견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민중을 닮게 되면 민중을 이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 세상 사람 의견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전에 그 의견부터 먼저 가르쳐 주어서는,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쓰건 그 의견은 아이의 의견이 되고 말아 다시는 깨뜨릴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라. 요컨대 젊은이를 사리 밝게 만들려면 우리 판단을 강요하지 말고 제 판단을 제대로 복돋우어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겠다.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내 제자에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통 말하지 않았고, 또 그는 충분한 양식이 있으니 그런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동류(同類)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저를 통해 남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자신 밖에는 인간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아직은 멀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얼마 내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판단밖에는 내리지 않는다. 남들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제 처지는 깨달아 그 속에 머무른다.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회 법칙 대신 필연의 사슬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묶어 놓았다. 그는 아직도 거의 물리적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 계속 그를 그런 대로 다루자. 그가 자연의 온갖 물체며 인간들의 온갖 노동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과 자신의 실리·자기 안전·자기 보존·자신의 안락과의 뚜렷한 관계를 통해서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쇠가 금보다도, 유리가 금강석보다도 사뭇 더 값진 것이어야 한

다. 마찬가지로 그는 랑프뢰 르, 르블랑<sup>16\*</sup> 같은 사람이나 유럽의 모든 보석 상인보다도 구두 장수나 석수를 훨씬 더 소중히 한다. 그의 눈에는 과자 장수가 특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 롱바르 거리의 하찮은 캔디 장수하고라면 과학 아카데미의 전 회원과도 바꿀 것이다. 금은 세공사·조각사·금박 도장공·수놓는 사람 따위는 그가 보기에 전혀 쓸모없는 놀이나 즐기는 게으름뱅이에 지나지 않는다. 시계 장수도 대단케 여기지는 않는다. 이 행복한 아이는 시간의 종이 되지 않고 시간을 즐긴다. 시간을 이용하면서도 그 값은 알지 못한다. 그를 위해 시간의 흐름을 늘고르게 해 주는 정념의 잔잔함이 필요할 때 시간을 재는 연장을 대신해 준다.<sup>17</sup> 그를 울릴 때<sup>18\*</sup>와 마찬가지로 그가 시계를 가졌다고 가정할 때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 내 말을 알아듣게 만들려고, 흔해빠진 그런 에밀을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에밀로 말하자면, 딴 아이들과는 그토록이나 판이한 그런 아이는 아무런 본보기도 되어 주지는 않을 테니까.

못지않게 자연적이면서도 사뭇 더 올바른 하나의 질서가 있어, 이 질서에 의해 사람들은 가장 독립된 기술들을 첫째에 놓고 가장 많은 딴 기술들에 의존하는 기술들을 마지막에 놓아, 그 기술들을 맺는 필연 관계에 따라 그 기술들을 고려한다. 일반 사회의 질서에 관해서도 중요한 고려를 제공해 주는 이 질서는, 먼저 든 것과도 비슷해,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똑같이 뒤집혀지고 만다. 그 결과 원료의 사용은 명예도 없고 이득도 거의 없는 직업들에서 행해지며, 원료가 사람 손을 많이 거칠수록 일손은 값이 늘고 고귀해진다. 원료들을 사람들의 소용에 닿게 바꾸는 첫 노동에서보다도 그 원료들에 마지막 형태를 주는 정밀한 기술에서 숨씨는 더욱 대단하고 보다 많은 보수에 값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어떤 일에 있어서나 가장 널리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술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술이며, 딴 기술들을 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자립

16\* Jean-Daniel Lempereur와 Sébastien-Louis Leblanc은 18세기의 이름난 보석상.

17 우리의 정념이 제멋대로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려 들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기준을 잃게 된다. 현재의 시계는 기분의 한결같음과 마음의 평화다. 현자는 늘 제시간을 지키며, 제시간을 알고 있다.

18\* 본서 p. 243, 22행 참조.

에 가까운 만큼, 가장 종속된 기술들보다는 사뭇 존경받을 만하다는 말만 해 두겠다. 이것이 기술과 솜씨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다. 나머지 모두는 제멋대로여서 사람들 의견에 달려 있다.

모든 기술 중에서 으뜸가는 가장 존경할 만한 것은 농업이다. 나는 대장간 일을 둘째, 목수 일을 셋째 등등으로 두었으면 한다. 속된 편견에 물들지 않은 아이라면 영락없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에밀은 얼마나 술한 중요한 생각을 제 ‘로빈슨’으로부터 끌어내지 않고 배기겠는가! 기술들이란 세분(細分)되어 저마다 연장을 한없이 늘려 나감으로써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고 그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는 혼잣말하겠지. 저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도 영리해. 제 팔이나 손가락이 무엇에 쓰이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것 없이 지내려고 술한 연장을 만들어 내거든. 단 한 가지 기술을 부러먹으려고 술한 판 기술에 얽매어 있던 말이야. 일꾼 하나하나에 도시 하나씩이 있어야 해. 내 친구나 나로 말하면, 우리의 수호신은 우리의 솜씨 속에 있지. 우리는 스스로 연장들을 만들고 그것을 어디나 몸에 지니고 갈 수가 있어. 파리에서는 제 재주를 뽐내는 저 사람들도 다 우리 섬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의 계사가 될 거다.

독자여, 여기서 우리 제자의 몸의 훈련과 손의 재주만 보질랑 말라. 이런 옛된 호기심에 우리가 어떤 지도를 가하는가도 아울러 생각해 보라. 감각·창의성·선견지명을 주시해 달라. 우리가 그에게 어떤 머리를 만들어 주려 드는가를 생각하라. 제가 보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모두를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모두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연장에서 연장으로 언제나 맨 첫 연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다. 가정(假定)만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니지 않은 예비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배우기를 거부할 것이다. 용수철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강철이 광산에서 어떻게 채굴되었나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상자 쪽 맞추는 것을 보면 나무가 어떻게 베어졌나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스스로 일하게 되면 제가 쓰는 연장 하나하나를 보고 혼잣말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이 연장이 없다면 비슷한 것을 만들기 위해, 또는 이것 없이도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선생이 열중하는 일에서 피하기 힘든 잘못은 아이도 같은 흥미를 늘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일의 재미에 끌려들어갈 때는, 아이가 싫증은 내면서도 차마 내색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아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이에 몰두해, 눈치채지 못하게 노상 아이를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하며, 그의 생각 모두를 미리 짐작해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은 앞질러 막아 주어야 하며, 필경은 제가 그 일에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자부할뿐더러 제가 하는 일이 무엇에 쓰이는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그 일을 즐겨 하게 되도록 시켜 주어야 한다.

기술의 사회는 솜씨의 교환에서, 장사의 사회는 물건의 교환에서, 은행의 사회는 어음과 돈의 교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념 모두는 서로 관련이 있고, 그 기본 개념들은 이미 얻어져 있다. 우리는 정원사 로베르의 도움을 받아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의 토대를 쌓아 두었다.<sup>19\*</sup>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그것 자체로서 생각되어지고, 또 각국 특유의 산물에 관한 자세한 박물지(博物誌)나 항해에 관한 자세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장소의 떨어짐이나 육지·바다·내 따위의 위치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는 운송의 불편 등에 의해 뚜렷해진 거래의 형편을 아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 같은 관념들을 일반화시켜 보다 많은 실례들로 확장시키는 것밖에 없다.

어떤 사회도 교환 없이는, 어떤 교환도 공통되는 척도 없이는, 어떤 공통 척도도 평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건 사물들에 있어서건 인습적인 어떤 평등을 으뜸가는 법칙으로서 가지고 있다.

자연적인 평등과는 판이한 사람들 사이의 인습적인 평등은 실정법(實定法), 즉 정부와 법률을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아이의 정치 지식은 분명해야 하고 한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얼마간의 관념을 갖고 있는 소유권에 관련되는 것밖에는 알아서는 안 된다.

사물들 사이의 인습적인 평등은 돈을 발명케 했다. 왜냐하면 돈이란 갖가지 물건의 가치에 대한 비교의 표적에 지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뜻에서 돈은 사회의 진짜

19\* 본서 제2부의 에밀과 정원사 로베르와의 대화 참조.



굴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돈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가축이 돈이었고, 지금도 몇몇 민족에서는 조개껍질이 돈이다. 스파르타에서는 쇠가, 스웨덴에서는 가축이 돈이었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금과 은이 돈이다.

나르기에 보다 손쉬운 금속이 대체로 모든 교환의 중매 개념으로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교환마다에서 크기나 무게를 재는 번거로움을 덜려고 그 금속이 돈으로 바뀌었다. 돈의 거죽 표시는 그렇게 표시된 화폐가 그만한 무게라는 증명에 불과하니 말이다. 그리고 군주만이 한 국민 사이에서 자기의 보증이 권위를 갖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군주만이 돈을 주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면 이 발명의 쓸모는 어떤 바보에게도 이해될 수 있다. 성질이 다른 것들을, 예컨대 모직물을 밀과 바로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공통되는 척도, 즉 돈을 찾아 내었을 때는 제조업자와 경작자에게는, 자기가 교환하고 싶은 물건의 가치를 그 공통 척도에 맞춰 보기란 쉬운 일이다. 어떤 양의 모직물이 어떤 액수의 돈과 맞먹고 어떤 양의 밀이 같은 액수의 돈과 맞먹는다면, 자기 모직물을 주고 그 밀을 받는 상인은 공정한 교환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갖가지 재물이 같은 단위로 셈되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돈에 의해서다.

이 이상 나가질랑 말고, 이러한 제도의 도덕적인 결과의 설명에도 들어서지 말라. 만사에 있어 남용을 보여 주기 전에 그 쓸모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표적이 어떻게 실물을 잇게 만드는가를, 돈에서 어떻게 여론의 온갖 환영이 생겨났는가를, 돈 많은 나라가 어째서 모든 점에서 가난해져야만 하는가를 설명하려 든다면, 그 아이들을 비단 철학자로만이 아니라 현자로도 대하는 셈이 될 것이고, 철학자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 드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자의 머리가 미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관련들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도, 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관념도 그의 머리에 떠오르게 두지 않고서도, 그의 호기심을 얼마나 푸짐한 흥미 있는 대상들로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선생의 기술이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하찮은 것들에 대해 제자가 관찰을 쌓아 나가도록 두지 말고, 시민 사회의 좋고 나쁜 질서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언젠가

는 알아 두어야 할 큰 관계들이다 그를 끊임없이 접근시켜 나가는 일이다. 제자가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주어진 기질에 맞출 줄을 알아야 한다. 판 아이의 주의력은 스쳐가지도 못할 어떤 문제가 에밀을 6달 동안 괴롭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부잣집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 연회 준비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하인들, 술한 접시, 멋있고 알뜰한 시중을 보게 된다. 쾌락과 잔치의 이 모든 걸치레에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머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모두가 내 어린 제자에게 미칠 효과를 나는 지레짐작한다. 식사가 길어지는 동안, 음식이 연달아 나오는 동안, 식탁 둘레에 술한 떠들썩한 화제가 판치는 동안, 나는 그의 귀 가까이 가서 말한다. 이 식탁 위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는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술한 생각을 일깨워 주는가! 도취의 들뜬 기분이 당장에 싹 가신다. 그는 생각에 잠겨 반성하고 따져 보고 불안해진다. 술에, 어쩌면 곁의 여자들 때문에 신바람이 난 철학자들이 황설수설하고 아이처럼 법석을 떠는 동안, 구석에서 혼자 철학을 하고 있는 그, 내게 질문한다. 나는 대답을 거부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그는 안절부절못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고, 나와 마음대로 이야기하려고 식탁을 벗어날 생각뿐이다. 그의 호기심에는 얼마나 근사한 소재인가! 그를 가르치기에 얼마나 근사한 텍스트인가! 세계의 온갖 지방이 정발당했다는 것, 아마도 2천만의 손이 오랫동안 일해 왔다는 것, 아마 수천 명이 그 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모두가 그가 저녁이면 변기에 갇다 버리게 될 것을 오정 때 자기 앞에 으리으리하게 차려 내놓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될 때, 아무것에도 이지러질 수 없던 그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는 사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관찰로부터 그가 마음속으로 끌어내는 은밀한 결론들을 조심스레 엿보라. 만일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를 잘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만찬을 차리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협력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의 방향을 돌려 자신을 세상의 중요 인물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설사 이러한 생각이 예감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쉽사리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인상을 당장 지워 버릴 수는 있다. 아직은 사물들을 물질적인 향락을 통해서밖

에는 받아들이 줄 모르는 그는 그것들이 제게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도 감각적인 관련들에 의해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 운동이 마련하고 시장기와 자유와 기쁨이 양념을 친 간소한 시골식 점심과 그토록 어마어마하고 딱딱한 연회의 비교는 그로 하여금, 연회의 걸치레 모두가 자기에게 실질적인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았으며, 자기 위장은 농부의 식탁에서도 재산가의 식탁에서 일어설 때 못지않게 만족하는 만큼, 진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한쪽 식탁보다 딴 쪽에 조금도 더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족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교사가 제자에게 할 수 있을 말을 상상해 보자. 그 두 가지 식사 생각을 잘 해 봐, 그리고 어느 쪽을 더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속으로 정해 봐. 어느 쪽에서 더 즐거움을 느꼈는지? 어느 쪽에서 더 맛있게 먹었고, 더 즐겁게 마셨고, 더 흥겹게 웃었는지? 어느 쪽이 지겹거나 다른 음식들로 자꾸 바뀌질 필요 없이 더 오래 계속되었는지? 게다가 그 차이를 생각해 봐요. 네게 그렇게 맛 좋던 그 검정 빵은 그 농부가 거둬들인 밀로 만든 거야. 거무스름하고 거칠지만 갈증을 꺼 주고 몸에 좋은 그 포도주는 자기 포도밭에서 나온 거고, 식탁보는 자기 부인이나 딸, 혹은 하녀들이 겨울 동안에 자기들 삼실로 짠 거지. 자기 가족 외의 어떤 손도 식탁 차리는 데 끼어들지는 않았거든. 제일 가까운 방앗간과 근처의 시장이 그에게는 세계의 끝이 되어 있던 말이야. 멀리 떨어진 땅과 여러 사람들의 손이 딴 식탁에 차려 준 더 많은 것 모두에서 도대체 너는 실지로 무엇을 즐겼는가? 그 모두가 너더러 더 나은 식사를 하게 해 주지 않았다면 그 풍성한 것에서 너는 무슨 이득을 봤지? 거기에는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있었니? 설사 네가 그 집주인이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 모두는 네게 더욱 관계없는 것이었을 거야, 하고 선생은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즐거움을 남들 눈에 떠벌려 보이려는 배려가 네 즐거움을 앗아 가고 말 테니까. 너는 애만 쓰고 기쁨은 남들이 가지게 될 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썩 근사할지도 모르지만, 에밀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의 이해력을 넘어설뿐더러 그가 할 반성을 남이 일러 주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더 단순하게 말하라. 그 두 가지 경험을 한 뒤 어느 날 아침에 말해 주라.

우리는 오늘 어디서 점심을 먹을까? 식탁의 4분의 3을 뒤덮은 그 은접시 산더미와, 디저트 때 거울 위에 차리는 그 종이꽃 화단 둘레, 너를 꼭두각시처럼 다루고 너더러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지껄이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엄청나게 불룩한 치마 차림의 여자들 속으로 아니면 여기서 이십 리 떨어진 마을, 우리를 그토록 즐겁게 맞아 그토록 맛난 크림을 먹여 주는 그 어진 사람들 집으로? 에밀의 선택은 뻔하다. 그는 수다스럽지도 헛되지도 않으니까 말이다. 거북한 것을 참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값진 온갖 진미가 통 맘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늘 들을 뛰어다닐 생각뿐이며, 맛 좋은 과실이며 채소, 크림과 어진 사람들을 무척 좋아한다.<sup>20</sup> 걸어가다가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그 어마어마한 식사를 차리느라 일하는 사람 떼는 헛수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즐거움 같은 건 생각해 주지도 않는 것 같다.

내가 든 좋은 예들이 어떤 테마에는 좋으나 또 다른 술한 테마에는 나쁠지도 모른다. 그 정신만 취한다면 필요에 따라 예는 얼마라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은 아이 하나하나에 고유한 천분의 연구에 달렸고, 그 연구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표시의 기회에 달렸다. 우리가 여기서 써야 할 서너 해 동안에 설사 가장 행복하게 태어난 아이에게라도, 언젠가 제가 그것을 배우기에 충분한 온갖 기술과 온갖 자연 과학에 대한 관념을 넣어 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꼭 알아야 할 온갖 것들이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제 취미와 재능을 발전시키고 제 천분이 저를 이끄는 대상물 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상태에, 자연을 돕기 위해 그에게 열어 주어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리켜 줄 수 있는 상태에 그를 놓아 주게 된다.

한정되긴 했어도 정확한 지식들의 이와 같은 연결의 또 하나의 이득은, 그 지식들

20 내 제자가 시골에 대해 가질 것으로 짐작되는 취미는, 그가 받은 교육의 자연적인 열매다. 더구나 여자들의 환심을 그토록 사는 그 아니꼽게 선뜻부리는 태도라고는 전혀 없는 그는, 만 아이들만큼 환영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여자들과 같이 있기를 덜 좋아하고, 그 매력을 아직은 깨닫지도 못하는 여자 교제에서 타락하는 일도 덜하다. 나는 짐짓 그에게, 여자 손에 키스하고, 싱거운 청찬을 늘어놓도록, 심치어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먼저 둘러 마땅한 경의를 표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그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불가침의 법칙으로 삼아 왔으며, 또 아이에 대해서는 남자를 여자와는 달리 대해야 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다.

을 그 이어진 관련에 따라 아이에게 보여 주어, 아이의 평가에 있어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아 준다는 점이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가꾸는 재능을 두둔하고 제가 버린 재능은 무시하기가 일쑤인 그 편견을 미리 막아 주는 점이다. 전체의 질서를 제대로 보는 자는 각 부분이 있을 위치도 안다. 한 부분을 제대로 보아 그것을 속속들이 아는 자는 학식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 먼저 사람은 분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나겠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학문보다는 판단력이다.

하여튼 내 방법은 내가 든 예들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내 방법은 인간의 나이에 따른 그때그때의 능력의 측정과, 그때그때의 능력에 알맞은 일의 선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 잘 해 나갈 것 같은 판 방법이 쉽사리 발견될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나 나이나 성(性)에 덜 알맞은 방법이라면, 같은 성공을 거둔다는 의심스럽다.

이 제2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비해 남아돌아가는 힘을 이용하다가 우리 밖으로 나가 버렸다. 하늘로 솟아올랐던 것이다. 우리는 땅을 재었다. 자연의 법칙들을 거둬들였으며, 한 마디로 말해 섬 전체를 돌아다녔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집을 막 차지하려는 적이 아직은 점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집에 들어서면서 발견한다면 지나친 다행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모두를 관찰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 모두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바꾸는 일과 우리의 안락을 위해 우리의 호기심을 이용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느 것이 필요하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유의 연장들을 장만해 왔다. 어쩌면 우리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소용이 없어 남들에게 쓰이게 될지도 모른다. 또 이번에는 남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교환에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데 교환을 하려면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하며, 저마다가 남이 가진 것 중에서 제게 필요한 것과 대신 제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마다 열 가지씩의 필요를 가진 사람 열 명이 있다 하자. 저마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열 가지 일에 전심해야 한다. 그런데 천분과 재능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중의 어떤 일에서 될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에서 그럴 것이다. 저마다 다른 일에 알맞은 10사람 모두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모두가 제대로 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10사람으로 하나의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마다가 저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나머지 9사람을 위해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종류의 일에 전심하게 하자. 저마다가 마치 저 혼자서 모든 재능을 다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저마다가 계속적인 연마로 자기 재능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된 10사람이 다 판사람들을 위한 여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제도의 표면상의 원칙이다. 그 결과들을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내 주제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판 글<sup>21\*</sup>에서 한 일이 있다.

이 원칙을 따르자면,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족한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려는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을 부지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온통 네 것과 내 것으로 덮여 있어 자기 것이라고는 제 몸뚱이밖에 없으니, 제게 필요한 것을 어디서 끌어내겠는가? 우리는 자신이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동포들더러도 거기서 벗어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아무도 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 상태에서 살 수도 없는데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실지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첫 법칙은 자기 보존의 배려니까.

이리하여 아이가 실지로 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기도 전에 그 머릿속에서는 사회관계에 대한 관념들이 조금씩 형성된다. 예밀은, 제가 쓸 연장들을 가지려면, 제게 필요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교환으로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남들이 쓰는 연장들도 제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쉽사리 그를 이끌어 이러한 교환의 필요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 줄 수 있다.

“대감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어느 불우한 풍자 작가는 제 친한 직업을 책망하는 대신에게 말했었다. “나는 그럴 필요를 인정할 수 없네” 하고 그 고관은 쌀쌀

21\* 《인간 불평등 기원론》

하게 받아넘겼다.<sup>22\*</sup> 대신의 말치고는 훌륭한 이 대답도, 탄 입에서 나왔더라면 지독하고도 틀린 말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은 다 살아야 한다. 저마다가 자기가 지닌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힘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반박할 여지없는 것으로 내게는 여겨진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싫은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죽음에 대한 그것이며, 그 결과로서 살기 위해 가능한 탄 아무런 수단도 없는 자에게는 자연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유덕한 사람이 생명을 가볍게 여겨 자기 의무를 위해 희생하도록 배울 경우의 원칙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시적인 단순성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노력 없이도 착할 수 있고 덕 없이도 올바를 수 있는 민족은 행복하기도 하다! 저마다 악을 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시민들이 마지못해 사기꾼이 되는 그런 어떤 형편없는 나라가 세계에 있다면, 목매달아야 할 것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자다.

생명이 무엇인가를 에밀이 알게 되자마자 내가 맨 먼저 할 배려는 그 생명을 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나는 신분·지위·재산 따위를 구별 지은 일이 없다. 사람은 모든 신분에서 같은 것인 만큼, 앞으로도 더 구별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위장이 더 큰 것도, 더 잘 소화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주인 팔이 종의 팔보다 더 길거나 센 것도 아니니까. 양반이 상민보다 키가 더 큰 것도 아니니까. 요컨대 자연적인 욕구란 어디서나 같은 만큼 그것을 채워 주는 수단도 어디서나 동등해야 할 것이니 말이다. 인간 교육을 인간에 맞추라, 인간 아닌 자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은 인간을 어떤 신분에만 맞게만 들려고 애쓰다가 탄 신분에는 다 소용없는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팔자가 바뀌면 그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쓴 것밖에는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거지가 되어 비참 속에서도 태생에서 오는 편견은 간직하고 있는 귀족보다 더 가소로운 것이 또 있겠는가? 가난해지자 가난에 대한 멸시가 생각나서 제가 인간말짜가 되었음을 깨닫는 부자보다 더 치사스러운 것이 또 있겠는가? 살길 모두

22\* 켈(Kehl) 판의 주석에 의하면 기요 테스퐁텐 신부(l'abbé Guyot-Desfontaines, 1685~1745)와 다르장송 백작(le comte d'Argenson).

로서 한쪽은 공공연한 사기꾼 노릇을, 한쪽은 “저도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근사한 말을 뇌까리며 굽실거리는 하인 노릇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회의 현행 질서가 불가피한 혁명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아이들이 당할지도 모를 혁명을 여러분이 미리 짐작하거나 막아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질서만 태산같이 믿고 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고, 군주가 신하가 되는 것이다. 불운이란 여러분이 면하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이나 보기 드문 일인가? 우리는 위기 상태와 혁명의 세기에 다가들고 있다.<sup>23</sup>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만든 것은 다 사람들이 망가뜨릴 수 있다. 자연이 새긴 글자들밖에는 지우지 못할 글자라곤 없으며, 자연은 왕족도 부자도 귀족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귀하도록만 가르친 그 원님 양반<sup>24\*</sup>은 천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호사하게 살 줄밖에 모르는 그 재산가는 가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써먹을 줄 몰라 자기란 존재를 저와 상관없는 것에만 내어 맡기는 그 호사하는 숙맥은 다 잃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자기를 버리고 가는 신분을 버리고 불운을 무릅쓰고 인간으로 남을 줄 아는 자는 행복하기도 하다! 미쳐서 자기 왕좌의 산산조각 밑에 묻히기를 바라는 저 패전의 왕을 마음껏 찬양하라. 나로서는 그를 멸시한다. 그가 왕관에 의해서밖에 존재하지 않아, 왕이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왕관을 잃고 왕관 없이도 지내는 자는 왕관보다 높이 있는 자다. 그는 비겁자나 악인이나 미치광이도 다 마찬가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부터,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이 차지할 줄 아는 인간의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때 그는 운명을 이겨 내고 운명을 무릅쓴다. 누구에게도 힘입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밖에는 보여 줄 것이 남지 않게 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다. 무엇인가다. 그렇다, 자기가 지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그 가련한 타르퀴니

23 유럽의 큰 군주국들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 모두가 변영했고, 변영하는 국가는 다 내리막에 있다. 내 견해에는, 이 격언보다 더 특수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말할 계제가 아니고, 또 누군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유들이기도 하다.

24\* Satrape의 역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태수.



우스 같은 사람보다는 코린트(Corinth)에서 학교 선생이 된 시라쿠사 왕이나, 로마에서 법원 서기가 된 마케도니아 왕을 나는 백배도 더 좋아한다.<sup>25\*</sup> 이미 제 힘을 벗어난 왕 노릇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그 비참한 꼴에 욕설을 퍼붓는 자들의 장난감이 되어, 궁정에서 궁정으로 헤매어 다니며 도처에서 도움을 청하여 창피만 당하던 저 왕들 중의 왕의 아들인 상속인<sup>26 27\*</sup> 보다는 말이다.

인간이고 시민인 자는 누구이건 자기 자신밖에는 사회에 내놓을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른 재산 모두는 그가 뭐라건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한 인간이 부자일 경우는, 그가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공중도 그 부를 함께 누리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첫째 경우에는 자기가 쓰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서 훔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경우에도 그는 남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으로밖에 치르고 있지 않는 한 사회적인 빛은 고스란히 그에게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재산을 별면서 사회에 봉사했으니…… 좋다, 당신 아버지는 자기 빛을 치렀다, 그러나 당신 빛을 치른 것은 아니다. 당신은 복받고 태어난 만큼 재산 없이 태어난 경우보다 더 많은 빛을 남들에게 지고 있다. 한 사람이 사회를 위해 한 일이 딴 사람의 사회에 대한 빛을 덜어준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가진 것 모두가 빛인 각자는 자기를 위해서밖에는 치를 수가 없으며, 어떤 아버지도 자기 동포에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권리를 아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으

25\* 타르퀴니우스(Tarquin le Superbe)는 로마의 마지막 왕으로 혁명에 의해 쫓겨났다. 본 페이지의 13행의 “저 패전의 왕”도 이 사람을 가리킨 것 같다.

시라쿠사 왕은 디오니시우스 2세(Denys le Jeune(BC 4세기)).

마케도니아 왕은, 페르세우스(Persée) 왕의 아들 알렉산드로스(Alexandre, BC 2세기).

26 파르티아(Parthes) 민족의 왕 프라테스 4세(Phraates IV)의 아들 보노네스 1세(Vonones I).<sup>28\*</sup>

27\* l'héritier et le fils d'un Roi des Rois의 역어로, 초판본에 나중에 삽입된 단어들이다. 삽입되지 않은 초판본에서는, “세 왕국 소유자의 상속자(l'héritier du possesseur de trois Royaumes)”로 되어 있다. 이는 영국 왕 제임스 2세의 손자 찰스 에드워드(1722~88)를 가리킴.

28\* 파르티아(Parthes)는 기원전 3세기에 히르카니아(Hyrcania, 페르시아의 한 지방)에 정착한 스키타아(Scythes) 민족으로, 아르사케스(Arsakès)가 기원전 250년에 왕국을 세워 기원후 226년까지 존속했다.

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아버지는 노동의 증거이고 값인 자기 부를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벌지 않은 것을 놀며 먹는 자는 그것을 훔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않으면서 나라 돈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내 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어먹고 사는 불한당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사회 밖에 있어 아무한테도 신세진 것이 없는 고립된 사람은 제멋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남들의 신세를 지며 살게 마련인 사회 안에서는 노동으로 제 생활비를 남들에게 갚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일하는 것은 사회인에게는 피치 못할 의무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강자이건 약자이건, 놀고먹는 시민은 다 사기꾼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생활 수단을 대어 줄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손일이다. 모든 신분 중에서 운명과 사람들로부터 가장 독립된 것은 장인바치의 신분이다. 장인바치는 자기 노동에밖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로우며, 농부가 노예인 만큼이나 반대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농부는 자기 밭에 매달려 있고 그 수확은 남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적이나 왕족, 권력 있는 이웃, 소송이 그 밭을 빼앗을 수 있다. 그 밭을 가지고 갇은 수단으로 그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런데 장인바치를 괴롭히려 들면 어디서나 당장 보파리가 꾸러진다. 자기 팔만 가지고 떠나간다. 그런데도 농업은 인간의 으뜸가는 업이다. 인간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보람 있는, 따라서 가장 고귀한 업이다. 나는 에밀터러 농업을 배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농업을 알고 있다. 전원의 일은 다 그에게는 익숙하다. 그가 맨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일이고, 그가 노상 되돌아가는 것도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한다. 네 조상들의 땅을 갈아라. 하지만 네가 만일 그 땅을 잃거나 그런 땅을 가지지 않았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의 직업을 배우라.

내 아들에게 직업을요! 내 아들이 장인바치라고요! 선생, 진정으로 그러세요? 부인, 아드님을 경(卿)이나 후작이나 공작밖에는 될 수 없게,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못하게 만드실 생각이신 부인보다는 제가 더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가 잃을 수 없는 지위, 어느 시대에나 그를 존경하

게 하는 지위를 그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를 인간의 상태로 올려 주고 싶은 겁니다. 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아드님은, 부인한테서 얻을 모든 타이틀보다는 이 인간이라는 타이틀에서 동등한 자를 덜 갖게 될 겁니다.

글자는 죽이고 정신은 살린다.<sup>29\*</sup> 한 직업을 알기 위해서보다는, 그 직업을 멸시하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을 배우는 것이 더 문제다. 여러분은 먹고살기 위해 마지못해 일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참! 딱하게도, 여러분에게는 딱한 일! 하지만 상관없다. 필요에서 일하지는 않더라도 명예를 위해 일하라. 자기 신분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장인바치의 신분으로 몸을 낮추라. 운명과 사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것들로부터 독립하라. 공론에 의해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부터 지배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 하나의 참된 직업이며, 손이 머리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기술, 재산은 안겨 주지 않더라도 재산 없이도 살 수 있게 해 주는 순전히 기계적인 기술이다. 땀 걱정에서는 사뭇 동떨어진 집들에서도 아버지가 먼 앞날까지 내다 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정성이다, 만일의 경우에도 살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마련해 주는 정성을 곁들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선견지명 있는 이런 아버지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들 믿고 있다. 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아이들에게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살길이라는 것도, 아이더러 극복케 해 주려는 바로 그 우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근사한 온갖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써먹기에 알맞은 상황에 있지 않고서는 마치 아무런 재능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궁해서 죽고 말 것이다.

잔피나 술책이 문제라면,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것을 쓰는 것 못지않게, 가난 속에서 자기 첫 상태로 되올라가게 해 주는 건더기를 되찾는 데도 그것을 써야 한다. 예술가의 명성에 따라 성공하는 그런 예술을 여러분이 닦고 있다고 하자. 여러분이 남의 두둔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직무에 알맞은 사람이 된다면, 세상이 싫

29\* La lettre tue et l'esprit vivifie. 《신약》〈고린도후서〉 3장 6절 참조. 새 번역판의 역문: "기록된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저 성공에 없지 못할 수단들을 여러분이 멸시하게 될 바로 그때, 그런 것 모두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여러분은 정치를, 왕족들의 이해 관계를 연구했다. 그것은 썩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신이나 궁녀나 국장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의 환심을 살 비결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기꾼을 아무도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여러분은 건축가나 화가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주게 만들어야 한다. 느닷없이 살롱에 작품을 전시하러 갈 생각인가? 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걸!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야 한다. 거기 벽 구석의 희미한 자리 하나를 얻는 데도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 자나 붓은 버리라, 합승 마차를 집어타고 이 문저 문으로 뛰어들라. 그래야만 명성은 얻어진다. 그런데 그 이름난 집들의 문에는 어디나 손짓으로만 알아들어 귀가 손에 달린 수위나 문지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싶은가, 그래서 지리나 수학·어학·음악, 데생의 선생이 되려는가? 그러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따라서 칭찬해 주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능란하기보다는 허풍 센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밖에는 알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니 그 근사한 살길들이라는 것이 다 얼마나 단단하지 못한가를, 또 그것들을 이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판 살길들이 또 필요한가를 알아라. 뿐더러 그런 비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는가? 겹치는 실패가 여러분을 깨우쳐 가지는 않고 천하게만 만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장난감이 된 여러분이 어떻게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 운명의 지배자가 되겠는가? 살기 위해 필요한 비열과 악덕을 어떻게 멸시하겠는가? 부에만 의존하던 여러분이 이제는 부자들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노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빈곤을 덧붙였을 따름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도 없이 가난하다. 이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다.

그런데 육신 아닌 영혼을 기르기 위해 생겨난 그 고상한 지식들을 살기 위해 쓰지 말고, 필요할 때 자기 손을 쓰고, 제가 이용할 줄 아는 것을 쓰게 되면 온갖 어려움은 사라지고 온갖 술책은 소용없어진다. 살길은 언제나 써먹을 준비가 되어 있

다. 청렴이나 명예가 이젠 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미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 지거나 거짓말할 필요도, 사기꾼 앞에서 순해져 슬슬 길 필요도, 모든 사람에 대한 천한 아침쟁이가 될 필요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의 마찬가지인 빚꾸 러기나 도둑이 될 필요도 이젠 없다. 남들의 의견도 여러분에게는 아랑곳없다. 아무한테도 굶질거릴 것이 없고, 아침해야 될 바보도, 몸을 숙여야 할 문지기도, 돈을 치르거나, 더 고약한 일이지만 칭찬해 주어야 할 논다니 계집도 없다. 불량배 들이 나랏일을 이끌어 가도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다. 여러분이 미미한 생활 속에서 성실한 인간이 되고 빵을 얻게 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배운 직업의 가계에 닥치는 대로 여러분이 들어간다. 주인 양반, 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직공, 거기서 일해요. 점심시간이 오기도 전에 여러분은 점심값을 벌었다. 부지런 하고 절약하면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다음 일주일 살 것을 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건강하고 참되고 부지런하고 올바르게 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버는 것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다.

에밀이 하나의 직업을 배우기를 나는 꼭 바란다. 적어도 어엿한 직업을, 하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대중에게 유익한 직업은 다 어엿한 것이 아닌가? 그가 로크의 도련님처럼 자수공(刺繡工)이나 금박공이나 칠장이가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음악가나 배우나 저술가가 되기도 바라지 않는다.<sup>30\*</sup> 이런 직업이나 그와 비슷한 직업들만 뽐내고는 제가 바라는 것을 택했으면 한다. 무슨 일에서나 그를 얼마 생각은 없다. 시인보다는 구두 장수가 되는 것이 낫다. 자기에 꽃 그리는 것보다는 도로 포장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순경이나 스파이나 망나니도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지. 그들이 쓸모가 없는 것은 정부 탓이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자. 내가 틀렸었다. 쓸모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그 직업이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더러 밍살스러워 인간성과 용납되지 않는 소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야만 한다. 그래서 먼저 말로 되돌아가, 어엿한 직업을

30\*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내게 대들겠지. 자백하지만 딱하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속죄했다고 생각하는 내 잘못들이, 남들에게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내 실수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이 그것을 흉내 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다.” (C의 원주)

취하기로 하자. 그런데 쓸모없이 어엿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 두자. 거창한 계획과 잔다란 견해들로 그 저서가 가득 차 있는 금세기의 한 이름난 저자<sup>31\*</sup>는, 자기 교단의 모든 신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아내를 갖지 않기로 맹세한 바 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간통에 대해 남들보다는 더 세심하다고 자처한 그는 예쁜 하녀들을 두기로 결심했으며, 그 무모한 서약으로 인류에 가한 모욕을 자녀들과 함께 힘껏 벌충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국에 다른 시민들을 대어 주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라에 바치는 조세로 장인바치 계급을 번식시키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자 그는, 게으르거나 무익하거나 유행을 잘 타는 직업, 예컨대 결코 필요하지가 않아 자연이 머리카락을 대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가발사 직업 같은 것만 빼고는, 저마다의 취미에 맞는 직업을 그 모두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

에밀의 직업 선택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하긴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에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의 머리에 스며든 격률(格率)들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당연한 멸시를 간직하게 하므로 그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제 시간을 쓰려 들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는 사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 현실적인 쓸모의 가치밖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섬에서 로빈슨이 써먹을 수 있던 그러한 직업이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자연과 기술의 산물들을 하나하나 아이더러 살펴보게 함으로써,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끌려가는 그를 뒤쫓아 감으로써 아이의 취미와 기질과 성향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아이가 분명한 어떤 천분을 가졌으면 그것의 첫 불꽃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흔히 있는 잘못은, 어찌다가 생겨난 결과를 발랄한 재능 탓으로 돌리는 일이며, 또 인간과 원숭이에 공통되어 남이 하는 것만 보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양쪽에 나게 하는 그 모방 정신을, 어떤 기술 쪽으로 쏠린 뚜렷한 기질로 보는 일이다. 세상에는 자기가 종사하는 기술에 타고난 재능도 없으면서, 다른 편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기술을 먼저 보았더라면 그쪽으

31\* 생 피에르 신부(l'abbé Charles-Irénée Castel de Saint- Pierre, 1658~1743)를 두고 한 말.

로 쓸리게 했을지도 모를 거죽만의 열성에 속아서인지, 어려서부터 그 일에 끌려 들어간 그러한 장인바치, 특히 예술가가 수두룩하다. 누구는 복소리만 들어도 장군으로 자부한다. 누구는 집 짓는 것만 보아도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한다. 저마다가 제가 보는 직업이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마음이 끌린다.

자기 주인이 그림을 그리고 태생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어느 하인을 나는 안 적이 있다. 그는 이 결심을 하자 당장 연필을 잡아, 붓을 잡게 될 때까지는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 붓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배우는 일도 화법도 없이 아무거나 닦치는 대로 태생하기 시작했다. 삼 년 동안은 고스란히 그 서투른 그림에 달라붙어 보냈는데, 시중드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그림에서 손 떼게 하지는 못했고, 변변찮은 소질이라 별 진보가 없었는데도 주저 물리 않는 일도 없었다. 그가 몹시 더운 여름에 여섯 달 동안을 줄곧, 지나만 가도 숨이 막히는 작은 남향 방에서 종일을 하나의 지구의 앞에서 의자에 앉아, 아니 못 박혀서, 그것을 그리고 다시 그리고, 자기 일에 만족할 만큼 돈을새김이 드러날 때까지 끄떡 않는 옹고집으로 노상 시작하고 되시작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마침내 주인의 도움과 어느 예술가의 지도를 받게 된 그는 하인 제복을 벗고 화필로 살아 나가기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까지는 끈기가 재능을 벌충해 준다. 그 정도까지는 다다랐으나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성실한 친구의 꾸준함과 경쟁심은 칭찬받을 만하다. 언제나 그 부지런함과 충직함과 품행에 의해 존경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 위쪽 장식밖에는 그리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 열성에 속아 열성을 진짜 재능으로 보지 않았겠는가? 어떤 일을 즐겨 하는 것과 그 일에 맞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소질보다는 욕망을 더 드러내어 보이는 아이, 또 그 소질을 연구할 줄을 몰라서 그 욕망에 의해 늘 판단받게 마련인 아이의 진짜 천분과 진짜 취미를 확실히 알아 내기 위해서는, 생각하기보다는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어느 사려 깊은 사람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관찰하는 기술론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그 기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나 선생들은 아직 그 기술의 원리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직업의 선택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손일만이 문제인 만큼, 그 선택이 에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그에게 시켜 온 훈련에 의해 그의 계시 노릇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난 셈이다. 그가 무엇을 하기로 여러분은 바라는가? 그는 무엇이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별짜 쟁기나 팽이도 다룰 줄 안다. 갈이기계나 망치·대패·줄도 쓸 줄 안다. 온갖 직업의 연장들이 그에게는 이미 손익다. 이제 남은 문제라고는 같은 연장을 쓰는 뛰어난 일꾼들과 같이 재빨라질 만큼 그 연장들을 날렵하고 능란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일밖엔 없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그는 누구보다도 유리한데, 그것은 쉽사리 온갖 자세를 취하고 힘들지 않게 온갖 동작을 오래 끌고 나갈 만한 날쌔 몸과 날렵한 손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대로 훈련된 정확한 기관들을 갖고 있다. 기술들의 기계학도 그에게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주인으로서 일할 줄 알게 되는 데에는 습관밖에는 모라지는 게 없고, 습관은 시간이 가야만 얻어진다. 그 선택이 우리의 할 일로 남아 있는 어느 직업에 도대체 그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민첩해질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뿐이다.

남자에게 그 성에 알맞은 직업을, 젊은이에게는 그 나이에 알맞은 직업을 주라. 몸을 여자처럼 나약하게 만드는, 앉아서 하는 불박이 일은 그의 마음에 들지도 않거니와 그에게 알맞지도 않다. 일찍이 젊은 사내아이가 스스로 재단사가 되기를 바란 일은 없다. 남성을 위해 생겨나지 않은 그러한 여자 직업에 남성을 끌고 들어가는 데는 기교가 필요하다.<sup>32</sup> 바늘과 같은 같은 손에 다루어질 수는 없다. 내가 만일 주권자라면 바느질이나 바늘로 하는 직업은 여자들이나 여자들처럼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절름발이들에게밖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시를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내시를 일부러 만드는 동양 사람들은 정말 당췌아 보인다. 자연이 만든 자들, 자연이 심장을 잘라 낸 저술한 비겁한 남자들만으로 그들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필요하면 그 밖에도 있을 것이다. 힘없고 허약하고 겁 많은 남자는 다 자연에 의해 앉아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 남자는 여자들과 함께, 또는 여자들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여자에게 알맞은 직업의 하나에 종사하도록 하라. 상관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내시가 꼭 있어야 한다면, 남성

32 고대에는 테일러(재단사)가 없었다. 남자 옷은 집에서 여자들이 지었었다.



맞지 않는 직무를 택해 남성을 망신시키는 남자들을 그러한 상태에 끌어들이도록 하라. 그들의 선택은 자연의 실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실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라. 잘 한 일밖에는 되지 않을 테니.

내 제자에게는 몸에 해로운 직업들은 금하나, 힘드는 직업도 위험한 직업도 금하지는 않는다. 그런 직업은 힘과 용기를 한꺼번에 단련한다. 남자들에게만 적합한 직업이다. 여자들은 바라지도 않는다. 여자들이 하는 일을 침범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창피하지 않은가?

*Luctantur paucae, comedunt coliphia paucae.*

*Vos lanam trahitis, calathisque peracta refertis*

*Vellera…….*

(힘을 겨루는 여자는 얼마 없고, 역사(力士)의 땀을 먹는 여자는 얼마 없다. 그 런데 당신들은 털실을 잣고 있고, 일이 끝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갖고 온 다…….)<sup>33</sup>

이탈리아에서는 상점에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나 영국의 거리들에 눈익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의 거리들을 바라보는 이상으로 쓸쓸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양품점 주인들이 리본이나 술·헤어네트·장식용 실 따위를 부인들에게 파는 것을 본 나는, 대장간 불이나 불이고 모루나 두들기도록 만들어진 커다란 손에 든 그 섬세한 장신구들이 우스꽝스럽게만 보였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양값음으로 칼을 갈거나 무기를 파는 가게를 열어야 할 거라고. 정말이지, 저마다 자기 성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 팔아야 할 거라고! 무기를 알려면 그것을 써 봐야 하니까.

젊은이여, 네가 하는 일에 남자 손자국을 찍으라. 역센 팔로 도끼나 톱을 다루고, 들보를 네모로 깎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고, 용마루를 엮고, 살대나 이음보로 그것을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는 누이가 제 레이스 뜨개질을 해 달라고 네

33 유베날리스(Decimus Junius Juvenalis)의 〈풍자시〉Ⅱ.

게 말하던 것처럼 너도 누이더러 와서 네 일을 거들어 달라고 소리지리라.

나는 상냥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고, 나도 그것은 느끼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 나는 결론의 힘에 끌려들어가기 일쑤다. 누구이건 손도 끼를 들고 가족 앞치마를 띠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일하는 것을 창피스러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일을 하고도 남이 성실한 사람을 비웃기만 하면 금방 빨개지는 그러한 세론의 노예밖에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판단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은 모조리 아버지들의 편견에 양보하자. 유익한 직업을 다 존중하기 위해 그것을 다 해 볼 필요는 없다. 어느 직업도 자기한테 미흡하다고만 보지 않으면 된다. 선택할 수가 있고 다른 결정적인 이유만 없다면 왜 같은 계열의 직업들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즐겁고 기질에 맞고 편리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쇠붙이를 다루는 일은 유익하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유익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없다면 나는 여러분의 아들을 제철공이나 자물쇠공이나 대장장이로 만들지는 않겠다. 그가 키클로페스<sup>34</sup> 같은 얼굴로 대장간에 있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석수로, 더구나 구두장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모든 직업은 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를 수 있는 자는 깨끗함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세론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점에서는 감각이 우리더러 결정케 한다. 끝으로 숨씨도 없이 거의 자동적인 일꾼들이 같은 작업에만 손을 쓰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직업들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방직 직공 · 양말 직공 · 돌 쪼개는 직공 따위가 그것이다. 사려분별 있는 사람들을 이런 직업에 써서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기계다.

모든 점을 잘 생각해서 내 제자의 성미에 맞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소목장이의 그것이다. 깨끗하고 유익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몸을 충분히 놀리게도 해 준다. 일꾼더러 숨씨와 재간을 요구하며, 그 용도로 결정되는 작품 형태에는 멋과 취미도 없지 않다.

혹시 여러분의 제자의 천분이 아무래도 이론적인 학문 쪽으로 쏠린다면 그 기질에 걸맞은 직업을 주더라도 나는 탓하지 않겠다. 예컨대 수학 기구나 안경, 망원경 등

34 Cyclope, 그리스 신화의 외눈의 거인.

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라.

에밀이 제 직업을 배울 때는 나도 같이 배울 생각이다. 우리 둘이서 같이 배우는 것밖에는 그가 제대로 배우지 않을 것같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둘이 다 계시 노릇을 시작할 것이며, 신사로서가 아니라, 우스개 아닌 진짜 계시로서 대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포르트 대제는 공사장에서는 목수, 자기 군대에서는 고수였었다. 그래 이 군주가 태생이나 공적에 있어 여러분만 못하단 말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에밀한테가 아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 누구인지 늘 몰라도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딱하게도 우리는 모든 시간을 작업대에서만 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일군계시가 아니고 인간계시다. 또 이 나중 것의 계시 노릇이 먼저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춤 선생을 모시듯이 대패 선생을 하루 한 시간씩 모실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계시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고 말 테니까. 우리의 야심은 소목 일을 배우기보다는 소목장이 신분으로 자신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내 의견은 우리가 매주 적어도 한두 번은 장색 집에 가서 종일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그에 앞서 일을 시작하며, 그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영광을 가진 뒤에 바라다면 집에 돌아와 우리의 딱딱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직업을 한꺼번에 배우게 되고, 또 다른 계시 노릇을 소홀히 하지 않고서도 손일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단순해지자. 허영심을 물리치려는 배려 때문에 허영심이 되생겨 나게 하질랑 말자. 편견을 극복했다고 뽐내는 것은 편견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들 말로는 오토만(Ottoman) 집안의 옛 관습에 따라 터키 황제는 자기 손으로 일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왕의 손으로 된 작품들은 걸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그 걸작들을 궁정의 고관들에게 뽐내며 나눠 준다. 작품 값은 만든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지불된다. 여기서 내가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이른바 골탕 먹이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일이니까 말이다.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을 자기와 같이 나눠 가지도록 고관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군주는 그만큼 덜 백성

들로부터 직접 약탈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제 정치에는 필요한 하나의 완화로, 이것 없이 그 무서운 정부는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습의 진짜 폐단은, 그 관습이 그 가없는 인간의 값어치에 관해 그에게 주는 관념이다. 그는 미다스(Midas) 왕처럼 제가 만지는 것이 죄다 금으로 바뀌는 것은 보지만, 그것이 어떤 귀들을 생겨나게 하는가는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 에밀 에게는 짧은 귀를 간직케 해 주기 위해 그 푸짐한 재능으로부터 그의 손을 지켜 주자. 그가 만드는 것의 값이 제작자로부터가 아니라 작품에서 나오게 하라.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뛰어난 장색의 작품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결코 남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자. 그의 일은 그의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의해 평가받도록 하라. 잘 된 것에 대해서는 말해 주라. “이건 잘 된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걸 만들었지?” 하고 덧붙이지말라. 만일 그가 우쭐해져서 “이걸 만든 건 나요”라고 말하거든 쌀쌀하게 덧붙여 말해 주라. “너이건 탄사람이건 상관없어. 어쨌든 이걸 잘 된 일이야.”

어진 어머니여, 남이 당신에게 하려 드는 거짓말에 특히 조심하라. 당신 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 그가 아는 것 모두에 대해 의심하라. 당신 아들이 불행히도 파리에서 자랐고 또 부자라면 그는 볼 장 다 보았다. 그곳에 유능한 예술가들이 있는 동안은 그들의 온갖 재능을 그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는 재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파리에서는 부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가난뱅이밖에는 무식자가 없다. 이 수도에는 기욤 씨<sup>35\*</sup>가 그 색채들을 발명하던 것처럼, 자기네 작품을 만드는 예술 애호가들이, 특히 예술 애호 여성들이 수두룩하다. 이 점에 있어 나는 남자들 중에 세 사람의 존경할 만한 예외를 알고 있다. 그 밖에도 더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나는 알지 못하며, 또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명성이란 보통 예술에서도 관복(官服)에서처럼 얻어진다. 법학박사나 법관이 되듯이 예술가나 예술 심판자가 되는 것이다.

35\* 브뤼에이(l'abbé D.-A. de Bruey)의 소극 〈변호사 파틀랭(l'Avocat Patelin)〉(1706)에 나오는 인물.

“기욤 씨, 당신이 정말 이 색을 생각해 내었소?” 하고 묻는 파틀랭에게, 기욤이 대답한다.

“예, 예, 저희 염색업자하고요.”

그러니 하나의 직업을 아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사실이 일단 밝혀지고 나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 직업을 배우지 않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취리히 시의원들처럼 장색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sup>36\*</sup> 에밀에게는 이러한 예식이 통 필요 없다. 걸치레는 말고 언제나 실속이다. 알고 있다는 말은 듣지 말고 잠자코 배우도록 하라. 걸작은 언제나 만들어라. 그러나 거장은 결코 되지 말라. 제 타이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일에 의해서 장인마치임을 보여 주라.

여태까지의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그의 잔잔한 정념에서 생겨질 게으름을 벌충해 주기 위해 내가 몸의 훈련의 습관 및 손일의 습관과 아울러 내 제자에게 반성과 명상에 대한 취미를 어떻게 던지시 넣어 주고 있는가도 이해해야 한다. 미개인처럼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농부로서 일하고 철학자로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의 큰 비결은 언제나 몸의 훈련과 정신의 훈련이 서로 상대 쪽의 피로를 풀어 주는 구실을 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더욱 성숙한 정신을 요구하는 지식을 앞당겨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에밀은 제가 처음에는 보기밖에는 하지 못한 신분의 불평등을 몸소 느끼지 않고서는 오래 장인마치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준 바 있는, 또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격률들에 따라 그가 이번에는 나에게 따지려 들 것이다. 모든 것을 나한테서만 받고 있는 그, 자신이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운 상태에 있음을 아는 그는, 왜 내가 거기서 동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거친 질문을 느닷없이 걸어올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부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도 보아 알고 있어요. 부자도 사회에 대해 일할 의무가 있지요. 부자도 인간이니까 말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회를 위해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요?” 이런 질문에 훌륭한 교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베푸는 정성 이야기를 아이에게 할 만큼 어리석을지도 모른다. 나로 말하면 작업장이 나를 궁지에서 건져 준다. “에밀, 그건 썩 좋은 질문이군. 네가 만족할 만한 답을 네 스스

36\* 1483년에서 89년까지 취리히 시장을 지낸 한스 발트만(Hans Waldmann)은 길드들에게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들은 길드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래서 의원은 권력을 행사하려면 어느 직업 조합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했다.

로 하게 될 때 나로서도 답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두지. 그때까지는 내가 가진 남은 것을 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또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책상이나 결상 하나를 만들어 내도록 해 보겠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왔다. 마침내 우리의 아이는 아이이기를 그만 둘 준비가 되어 자기라는 개체로 되돌아간다. 그는 이제 자신을 사물들과 맺어 주는 필연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낀다. 먼저 그의 몸과 감각을 훈련시키고 난 우리는 그 정신과 판단력을 훈련시켰다. 마침내 우리는 그의 손발 사용을 그의 능력의 사용과 합쳐 놓았다.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사랑할 줄 아는 민감한 존재를 만드는 일, 이를테면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완성시키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물 질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빠져 나오고 있는 질서에 눈을 던져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되도록 정확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제자는 애초에 감각들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관념들을 지니고 있다. 느낄 줄밖에 모르다가 이제 판단한다. 왜냐하면 연달아,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몇 가지 감각의 비교로부터, 또 그것들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으로부터, 내가 관념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혼성 감각이나 복합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니까.<sup>37\*</sup>

관념들을 형성하는 방식이 바로 인간 정신에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인 관련들에 관해서만 관념을 형성하는 정신은 튼튼한 정신이다. 피상적인 관련들에 만족하는 정신은 알팍한 정신이다. 관련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신은 올바른 정신이다. 관련들을 잘못 평가하는 정신은 틀린 정신이다. 현실성도 외관도 없는 가공의 관련들을 날조하는 자는 미치광이다. 비교하지 않는 자는 바보다. 관념들을

37\* P에서는 다음 두 단락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에피쿠로스학파가 옳다. 감각이 우리를 잘못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만, 그 감각을 낳는 원인이나 그 감각이 우리더러 알아보게 해 주는 대상들의 본성에 대해, 또는 그 감각들 서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즐겨 내리는 판단들을 통해서만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에피쿠로스학파가 틀린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 판단을 낳는 것이다.”

비교하고 관련들을 찾아 내는 능력의 크고 작음이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크게도 작게도 만든다, 등등.

단순한 관념은 비교된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단순한 관념이라 부르는 복잡한 감각 속 못지않게 단순한 감각 속에도 판단은 있다. 감각 속의 판단은 순전히 수동적이어서, 느껴지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입증한다. 지각(知覺)이나 관념 속의 판단은 능동적이다. 감각이 결정짓지 못하는 관련들을 접근시켜 비교하고 결정짓는다. 이것이 차이 모두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다.

8살 난 아이에게 얼어붙은 치즈를 먹이는 것을 나는 본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푼을 입에 가져가다가 차가움에 놀라 소리치른다. “아잇, 뜨거워!” 아이는 아주 심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불의 뜨거움보다 더 심한 감각을 알지 못해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는 틀렸다. 차가움의 쇼크는 아프게는 해도 데이게는 하지 않는다. 또 이 두 가지 감각을 겪어 본 사람들은 혼동하는 일이 없는 걸로 보아서도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아이를 속이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아이가 그것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거울이나 광학 기계를 처음으로 볼 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깊은 지하실에 들어갈 때,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찬 손을 미지근한 물에 담글 때, 엇걸린 두 손가락 사이로 작은 공을 굴릴 때 등등도 마찬가지다. 제가 알아보는 것, 느끼는 것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판단은 순전히 수동적이기에 틀릴 수가 없다. 그러나 겉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게 되면 그는 능동적이어서,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관련들을 귀납적으로 비교하고 설정한다. 이때 그는 틀리거나 아니면 틀릴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거나 미리 막으려면 그에겐 경험이 필요하다.

밤에 여러분 제자에게 달과 자기 사이를 지나가는 구름 떼를 보여 주라.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달이고 구름은 가만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는 작은 것이 큰 것보다는 대체로 더 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며, 제가 그 거리를 짐작할 수 없는 달보다는 구름 떼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성급한 귀납에 의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저어 가는 배 안에서 언덕을 좀 떨어져서 바라볼 때는, 제가 움직인

다고는 느끼지 않는 그는 배·바다(海)나 내(川)·지평선 전체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전체로 보고 달려가는 것이 보이는 언덕이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육지가 달려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속에 반이 잠긴 막대기를 처음으로 볼 때 아이는 꺾어진 막대기로 본다. 감각은 옳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각은 여전히 옳다. 그러나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아이는 꺾어진 막대기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은 옳은 것이, 그가 꺾어진 막대기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음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자기 판단에 속은 아이가 한술 더 떠서 막대기가 꺾어져 보인다고 말하고 나서 보이는 것이 실지로 꺾어진 막대기라고 다시 우겨 댄다면, 그때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경우 그는 능동적이어서 제가 느끼지도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납에 의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가 하나의 감각에 의해 받는 판단은 탄 감각에 의해서도 확인될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의 오류는 다 우리의 판단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면 배울 필요도 전혀 없어지리라는 것은 뻔하다. 우리는 결코 틀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알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상으로 몰라서 행복해질 것이다. 무식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말 술한 진실한 것들을 학자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은 진리에 더 가까이 있는가? 전혀 반대로, 그들은 나아갈수록 진리에서 멀어지기만 한다. 판단하려는 허영심이 지식보다는 훨씬 더 발달하므로 그들이 배우는 진리 하나하나가 백 가지의 그릇된 판단과 함께밖에는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학자 단체들이 공개적인 거짓말 학교들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휴런<sup>38\*</sup> 민족 전체에보다는 과학 아카데미에 더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

사람들은 더 알수록 더 틀리게 마련이니, 오류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지다.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틀리는 일이 없을 테니. 이는 자연의 가르침인 동시에 이성의 가르침이다. 사물들이 우리하고 가지는 극소수의 아주 뚜렷한 직접적 관련들 말고는 본래 우리는 그 나머지 모두에 대한 깊은 무관심밖에는 갖고 있지

38\* 휴런(Hurons)은 북아프리카 인디언의 한 부족.



않다. 미개인은 가장 근사한 기계의 돌아가는 형편이나 전기의 온갖 신기함을 보러 가려고 발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 무슨 상관인가?’ 이는 무식쟁이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현자에게 가장 알맞은 말이다.

그런데 딱하게도 이 말이 우리에게서 이미 맞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된 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요긴하다.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함께 커져 간다. 내가 철학자에게서는 아주 큰 호기심을 보나 미개인에게서는 보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미개인에게서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철학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중에서도 특히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가 자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누가 말하겠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은 제 연장들과 규칙을 남의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택한다. 그런데 필요는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바뀐다. 자연 상태에서 사는 자연인과 사회 상태에서 사는 자연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밀은 무인지경에 귀양 보낼 미개인이 아니고 도시에 살도록 태어난 미개인이다. 그는 도에서 제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내고 그 주민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는 살아야 한다.

그가 의존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관련들 한복판에서 그는 아무래도 판단해야만 될 것인 만큼,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로 하자.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의 경험들을 되도록 단순화하여 필경은 경험 없이도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배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서 감각들의 관련을 서로 떼 감각에 의해 오랫동안 살펴본 다음에도 각각 하나하나의 관련을 떼 감각에 힘입을 필요 없이 그 감각 자체에 의해 살펴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때 감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 하나의 관념으로 바뀔 것이며, 그 관념은 언제나 진리와 일치할 것이다. 바로 이런 종류의 체험을 가지고 인생의 이 제3기를 채워 주려고 나는 애써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얼마 안 되는 선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심과 조심성을 요구하며, 그것 없이는 제자가 결코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할 것이다. 예컨대 제자

가 막대기를 보고 꺾어졌다고 잘못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 막대기를 얼른 물에서 꺼내어 잘못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쳐 주게 되겠는가? 제 스스로 이내 배우게 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 아님데!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 진리를 언제나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더 문제다. 보다 잘 가르쳐 주려면 당장 잘못을 깨닫게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에밀과 나를 예로 들어보자.

첫째로, 가정된 두 가지 중의 둘째 질문에 대해 보통으로 교육받은 아이는 다 영락 없이 긍정하는 대답을 할 것이다. 그 막대기는 분명히 꺾어져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에밀이 같은 대답을 할지는 사뭇 의심스럽다. 유식하거나 유식해 보일 필요를 통 느끼지 않는 그는 결코 서둘러 판단하지는 않는다. 명백한 것에 대해서밖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더구나 단순한 원근법에서조차 외관에 의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착각에 빠지기 쉬운가를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런 경우에 그런 명백한 것을 찾아 낼 리 만무하다.

게다가 내가 하는 가장 시시한 질문에도 언제나 제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대답하는 버릇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질문에 대해 의심하고 주의를 쏟아, 대답하기 전에 조심조심해서 그것을 검토한다. 제가 만족하는 대답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게 답하지 않으며, 또 만족시키기란 힘드는 노릇이다. 요컨대 우리는 그도 나도 사물의 진리를 아는 것을 자랑삼지 않고 잘못에 빠지지 않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는다. 맞지 않는 이유에 만족하는 것을, 이유를 전혀 찾아 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피스러워 할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해요”는 우리 둘에게 하도 잘 맞고 또 우리가 하도 자주 써서 이제 조금도 괴롭게 여기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경솔한 대답이 그의 입 밖으로 새어 나오건, 아니면 우리의 편리한 그 “나는 알지 못해요”로 그가 그것을 피하건 간에, 내 대꾸는 마찬가지다. 그래, 검토해 보자꾸나.

물속에 반이 잠긴 그 막대기는 수직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보며 그렇듯이 정말로 꺾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물에서 꺼내거나 손을 갖다 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 보아야 하는가?

1. 우선 우리는 막대기 둘레를 돌아보고, 그 꺾인 부분도 우리처럼 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 꺾인 부분을 바꾸는 것은 우리 눈뿐인데, 시선이 물체를 움직이는 법은 없다.

2. 막대기의 물 밖에 나온 꼬트머리에서 수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에는 구부러져 있지 않아, 우리 눈 쪽의 끝이 반대쪽 끝을 고스란히 가려 보이지 않게 한다.<sup>39\*</sup> 우리 눈이 막대기를 바로잡아 놓았던 말인가?

3. 수면을 휘저어 본다. 막대기가 여러 쪽으로 접어지고, 톱니 모양으로 움직이고, 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우리가 물에 주는 움직임이 이렇게 막대기를 꺾고 흐느적거리게 하고 눅게 하기에 족하단 말인가?

4. 물이 흘러나게 하면 물이 줄어들수록 막대기가 조금씩 발라지는 것이 보인다. 사실을 밝히고 굴절을 발견하는 데는 이것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시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시각 탓으로 돌리는 오류를 바로잡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런 실험 결과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아이가 있다 하자. 촉각더러 시각을 돕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막대기를 물 밖에 꺼내지 말고 제자리에 그냥 두라. 아이더러 손으로 끝에서 끝까지 만져 보게 하면 각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기는 꺾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단지 판단만이 아닌 버젓한 추리도 들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이 관념들에게까지 이르면 판단이 다 추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감각을 깨닫는 것은 다 하나의 명제, 하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을 딴 감각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곧 추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하는 기술과 추리하는 기술은 똑같은 것이다.

에밀은 광선 굴절학을 알 리가 없겠지만, 알게 된다면 이 막대기 둘레에서 그가 그

39\* “그 후에 나는 더욱 정확한 실험으로 그 반대 사실을 발견했다. 굴절은 등글게 작용하고 있어 막대기는 물속에 있는 끝이 다른 끝보다 더 굵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추리의 올바름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 결과가 그래서 덜 옳지도 않다.” (C의 원주).

것을 배우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곤충들을 해부해 본 일은 없을 것이다. 태양의 흑점을 세어 본 일도 없을 것이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의 박식한 제자들이 그의 무식을 비웃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장들을 쓰기 전에 나는 그가 만들어 내도록 할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일찍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이 갈 테니 말이다.

이상이 이 부분에서의 나의 방법 전체의 정신이다. 아이가 엇걸린 두 손가락 사이로 작은 공 하나를 굴려 공이 두 개인 줄 안다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이가 납득하기 전에는 그것을 보게 두지는 않겠다.

내 제자의 머리가 여태까지 거두어 온 진보와 그 진보가 밟아 온 길을 뚜렷이 표시하는 데는 이러한 설명으로 족하리라고 생각된다.<sup>40\*</sup>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제자더러 살펴보게 한 사물들의 수효에 질릴지도 모른다. 내가 수많은 지식으로 그의 머리를 짓누르지나 않나 하고 염려한다. 전혀 반대다. 그 지식들을 알도록보다는 모르도록 나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평탄하기는 하나 길고 넓어 다 가지에 시간이 걸리는 학문의 길을 그에게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그 어구를 알아보도록 첫걸음을 내디디게 하는 것이지, 멀리 가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배우도록 강요당하는 그는 남의 이성 아닌 자기 이성을 씹먹는다. 왜냐하면 남의 의견을 무시하려면 권위도 무시해야 하니까. 또 우리의 잘못의 대부분은 우리보다는 남들한테서 더 온다. 노동과 피로에 의해 몸에 주어지는 활기와도 비슷한 정신의 활기가, 이와 같은 끊임없는 훈련에서 생겨날 것이 틀림없다. 또 하나의 이득은 자기 힘에 비례해서만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몸과 마찬가지로 정신도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밖에는 갖지 않는다. 이해력이 사물들을 기억력에 맡기기 전에 제 것으로 만든다면, 나중에 그 기억력에서 끌어내는 것은 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해력이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에 너무 짐을 지우면 제 것이라고는 거기서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만다.

에밀은 별로 지식을 갖지 않았지만 가진 지식은 진짜로 제 것이다. 반쯤 아는 것은

40\* 이 문장이 G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가 알뿐더러 제대로 알고 있는 적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는 많은 것이, 딴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평생 알지 못하고 말 더욱 많은 것이, 또 어떤 사람도 영영 알지 못할 무수한 다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얻는 능력에 의해 만능의 정신을 갖고 있다. 개방적이고 총명해서 모든 것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신, 몽테뉴 말처럼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도 배워 알 수 있는 정신을 말이다.<sup>41\*</sup> 제가 하는 모든 것에서 “무엇에 좋은가”를, 제가 믿는 모든 것에서 “어째서”를 그가 찾아 낼 줄만 안다면 나는 족하다. 다시 한 번 말해서 나의 목적은 그에게 학문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학문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며, 학문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고, 진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는 일이니까.<sup>42\*</sup> 이 방법으로 하면 진보는 적어도 헛걸음은 한 발자국도 하지 않으며, 마치 못해 뒷걸음질할 것도 없다.

에밀은 순전히 물질적인 자연의 지식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역사라는 이름조차도,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기본 관계는 알고 있지만, 인간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 관념을 일반화하거나 추상(抽象)할 줄도 거의 모른다. 어떤 물체들에 공통된 성질은 알아 보지만 그 성질 자체에 대해 추리하지는 않는다. 기하학도 형 덕분에 추상적인 공간은 알고 있다. 대수학 기호 덕분에 추상적인 양(量)은 알고 있다. 이러한 도형과 기호들이 그 추상들의 뒷받침이며 그의 감각들은 이것들에 기대고 있다. 그는 사물들을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흥미를 끄는 관계들에 의해서만 알려고 든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밖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평가는 정확하고 확실하다. 거기에는 변덕이나 인습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 제게 더욱 쓸모 있는 것을 더욱 존중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결코 버리지 않

41\* “훌륭한 정신이란 만능이고 개방적이고 모든 것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신,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도 배워 알 수 있는 정신이다.” (《에세》Ⅱ, 27).

42\* P에서는 이 문장이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해서 나의 목적은 그에게 학문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알게 해 주는 일이며, 필요할 때 학문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며, 결국은 학문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고, 진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는 일이니까.

는 그는 남의 의견을 무시한다.

에밀은 부지런하고 자제력이 있고 참을성 있고 깨끗하고 용기에 차 있다. 결코 흥분되지 않는 그의 상상력은 그에게 위험을 키워 보여 주지 않는다. 운명에 대들도록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고통에도 예사며 꾸준히 참아 나갈 줄 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필연의 법칙은 반항 없이 받아들이는 버릇이 들어 있어,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울부짖거나 몸부림치지 않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싫어하는 그 순간에 자연이 허용하는 것 모두다. 자유롭게 살며 인간적인 것들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죽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에밀은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미덕은 다 갖고 있다. 사회적인 미덕도 가지려면, 그것을 요구하는 관계들을 아는 일만이 그에게는 남았다. 그의 정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지식들만이 그에게는 모자라는 것이다.

그는 남들 생각을 하는 일 없이 자기를 생각하며, 남들이 자기 생각을 통 해 주지 않아도 예사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혼자며 자기 혼자밖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에 기대할 권리를 누구보다도 더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이로서는 될 만큼은 다 된 아이니까. 그는 잘못이라고는 없으며, 있어도 우리에게 불가피한 잘못들밖에는 없다. 악덕이라곤 갖지 않았으며, 가져도 아무도 막지 못할 악덕밖에는 갖지 않았다. 그는 건강한 몸, 날씬 팔다리, 편견 없는 올바른 정신, 정념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심정을 지니고 있다. 모든 정념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존심도 그의 심정 속에서는 아직 미지근하다. 누구의 휴식도 어지럽히는 일 없이, 자연이 허락하는 한 만족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15살이 된 아이가 지나간 해들을 허비한 것으로 보겠는가?

## 제 4 부

우리는 이 땅덩어리 위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생애의 첫 4분의 1은 그 쓸 데를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린다. 마지막 4분의 1 또한 그것을 즐기기를 그만둔 다음에 흘러간다. 처음에는 살 줄을 모르고, 나중에는 살 수가 없게 되고 만다. 또 이 쓸모없는 두 끄트머리 사이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4분의 3은 잠과 일과 고통과 속박과 온갖 유익의 고생으로 소비된다. 생애는, 그 계속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그것을 맛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짧은 것이다. 죽는 순간이 태어나는 순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보았자 헛일, 그 사이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사람의 한평생이란 여전히 너무나 짧은 것이다.<sup>1\*</sup>

우리는 이를테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또 한 번은 살기 위해. 한 번은 인류로서, 또 한 번은 성(性)으로서. 여자를 미완성의 남자로 보는 자들은 분명 틀렸다. 그러나 겉모습이 닮은 점은 그들 생각을 두둔해 준다. 혼기가 되기까지 남녀 아이들을 보면 구별될 아무것도 없다. 같은 얼굴, 같은 몸매, 같은 안색, 같은 목소리, 모두가 같다. 소녀들도 아이고 소년들도 아이다. 이토록 닮은 존재들은 같은 이름으로 죽는다. 나중에도 성의 발달이 막히는 남성은 이 닮은 점을 평생 간직해, 언제나 큰 아이지만, 이 닮은 점을 잃지 않는 여성은 많은 점에 있어 결코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남자는 대체로 늘 아이로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연이 지시하는 시기에 거기서 벗어난다. 이 위기는 꽤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 영향을 미친다. 바다의 으르렁거림이 태풍에 앞서듯이 이 어수선한 변동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념들의 증열거림으로 예고된다. 어렴풋한 괴어오르는 소리가 위험이 다가옴을 경고한다. 기분의 변화, 잦은 흥분, 잇닿은 정신의 동요가 아이를 거의 다루기 힘든 것으로 만든다. 아이를 순종하게 만들던 목소리에도 귀가 어두워진다. 열병에 걸린 사자다. 지도자를 무시해 이젠 지도받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바뀌는 기분의 정신적인 징후에 얼굴의 뚜렷한 변화가 곁들여진다. 용모가 틀이

1\*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I 참조. “생애의 대부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지나가고, 상당한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지나가고, 생애 전체는 해야 할 일 아닌 만 일을 하며 지나간다.”



잡혀 특징이 새겨진다. 볼 아래서 자라나는 성긴 부드러운 솜털이 갈색이 되며 단단해진다. 목소리가 변한다. 아니 잃고 만다. 아이도 어른도 아니어서 그 어느 쪽의 음색도 낼 수가 없다. 여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 영혼의 기관인 눈이 하나의 언어와 표정을 갖게 된다. 볼어 오르는 불길이 눈에 생기를 주며, 더욱 생생해진 눈길에는 아직 청순함은 있으나 애초의 흐릿함은 이미 없다. 눈이 너무나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 눈을 낮추고 얼굴을 붉힐 줄을 알기 시작한다. 느끼는 것을 알아 내지 못하면서도 곧잘 느끼게 된다. 그럴 까닭도 없이 불안해진다. 이 모두는 천천히 나타나 여러분에게 시간 여유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활기가 너무 성급해지거든, 흥분이 열광으로 바뀌거든, 금방 발끈해지고 감동하고 하거든, 괜히 눈물을 쏟거든, 그에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대상물을 가까이서 맥박이 높아지고 눈이 이글거리거든, 제 손 위에 여자 손이 놓여 소스라치거든, 여자 곁에서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든, 울리시시여, 오 현명한 울리시시여, 조심하라. 당신이 그토록 조심스레 달고 있던 가죽 부대가 열린 것이다. 바람이 이미 풀려 나온 것이다. 이젠 잠시도 키를 놓지 말라. 안 그러면 볼 장 다 보게 된다.<sup>2\*</sup>

내가 말한 두 번째 태어남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이 정말로 인생에 태어나 인간적인 것치고 그와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 여태까지의 우리의 뒷바라지는 아이들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비로소 그것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 보통 교육이 끝나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국면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더 거슬러 올라가 그것과 관련되는 사태를 살펴보자.

우리의 정념들은 자기 보존의 으뜸가는 연장이다. 그러니 정념을 쳐부수고자 하는 것은 우습고도 헛된 노릇이다. 자연을 단속하는 짓이고, 하느님이 만든 것을 뜯어고치는 짓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는 정념들을 없애라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말한다면, 하느님은 바라면서 바라지 않는 것이 된다.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것

2\* 온갖 방향의 바람이 든 가죽 부대를 이용해 고향 이타케(Ithace) 가까이 온 울리시스(오디세우스)가 깡박 잠이 든 사이에, 부하들이 보물이라도 든 줄 알고 그 부대를 열어 보다가, 심한 바람이 불어 나와 울리시스는 마침내 고향에 가닿지 못하게 되었다는, 《오디세이아》 10권에 나오는 이야기.

이 된다. 그런 지각없는 분부를 내린 일은 결코 없으며 비슷한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적혀 있지는 않다. 인간이 행하도록 하느님이 바라는 바는, 다른 사람을 시켜 말하게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인간에게 말하며,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그것을 적는다.

그런데 나는 정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 드는 자를 그것들을 없애려 드는 자 못지않게 어리석게 보겠다. 여태까지의 내 계획을 그러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영락없이 내 말을 아주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념들을 갖는 것이 인간의 자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신 속에 느끼고 남들에게서 보는 정념들을 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으려 든다면, 제대로 추리하는 것이 되겠는가? 정념들의 원천이 자연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밖에서 온 무수한 시내가 그 원천을 키워 놓았다. 노상 불어나 애초의 물 몇 방울을 찾아보기도 힘든 큰 강물이다. 우리의 타고난 정념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유의 연장들이며,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를 억누르고 파멸시키는 모든 정념은 다른 데서 온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가로막고 가로채는 것들이다.

우리의 정념들의 원천으로서, 또 다른 모든 정념들의 근원과 시초로서, 인간과 함께 태어나 인간이 살아 있는 한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정념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다른 모든 정념에 앞서는, 타고난, 원시적인 정념이며, 판 정념은 다 어느 의미에서 그 변형에 불과하다. 굳이 말한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정념이 다 자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변형된 것들의 대부분은, 그것 없이는 생겨났을 리 만무한, 밖에서 오는 원인을 지니고 있다. 또 그러한 변형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는커녕 해롭다. 그것들은 애초의 목표를 바꾸어 제 근원에 거역한다. 인간이 자연 밖으로 벗어나 자신과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며 언제나 질서에 따른다. 저마다가 자신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배려는 노상 이 일에 주의하는 일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일에 주의하게 되겠는가?

그러나 자신을 보존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sup>3\*</sup> 이 감정의 직접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을 사랑한다. 아이는 다 유모에 애착을 느낀다. 로물루스는 젖 먹여 준 암이리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sup>4\*</sup> 이러한 애착은 처음에는 순전히 기계적이다. 어느 개인의 안락을 돕는 것은 그 개인을 끌어당긴다. 그를 해치는 것은 그의 싫증을 산다. 이는 맹목적인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본능을 감정으로, 애착을 사랑으로, 싫증을 미움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아니면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이 되려는 뚜렷한 의도다. 남이 주는 충동밖에 따르지 않는 무감각한 존재들에 사람은 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의향이나 의지에 따라 좋거나 궂은일을 할 것이 기대되는 자들, 우리를 위하거나 반대해서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우리더러 불러일으킨다. 우리에게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는 찾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피한다. 그러나 우리를 해치기를 바라는 것은 미워한다.

아이의 첫 감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첫 감정에서 갈라져 나온 둘째 감정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놓인 약한 상태에서 아이는 제가 받는 도움과 보살핌에 의해서밖에는 아무도 알게 되지는 않으니까. 유모나 가정부에 대한 애착도 처음에는 습관에 불과하다. 제게 필요하고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니까 그녀들을 찾는 것이다. 정이라기보다는 알음알이다. 그녀들이 자기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그러한 그녀들을 그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때다.

따라서 아이는, 제게 접근하는 것 모두가 자기를 도우려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보고 제 동류에 대해 호감을 갖는 버릇이 들기 때문에, 자연히 정이 쏠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의 관계들이나 욕구들,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의존 상태를 그가 넓혀 나감에 따라, 남과의 유대감이 눈을 떠 의무감과 호감을 낳는다. 그러면 아이는 건방지고 시새우고 속이고 양심을 품게 된다. 복종시키려 들

3\* C에는 이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의)”가 덧붙여져 있다.

4\* Romulus는 전설상의 로마 건설자. 암이리 젖으로 자랐다 함.

면, 시키는 일의 쓸모를 알 리 없는 아이는, 그것을 번덕이나 저를 골탕먹이려는 속셈 탓으로 보고 고집을 부린다. 이쪽에서 순종해 주면, 누가 조금만 거슬러도 반향으로, 일부러 저한테 대드는 것으로 본다. 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의자나 테이블을 친다. 자기밖에 문제삼지 않는 자애심은 자기의 진짜 욕구들이 채워질 때 만족한다. 그러나 자기를 남과 견주어 보는 자존심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또 그럴 줄을 모르는데, 그것은 남들보다 자기를 좋아하는 이 감정이 남들도 자기네보다 우리를 좋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되지 않을 일이다. 부드럽고 다정한 정념들이 자애심에서 생겨나고, 양심 깊고 성 잘 내는 정념들이 자존심에서 생겨나는 것은 이렇게 해서다. 그래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것은, 욕구를 별로 갖지 않는 일이고, 또 자기를 남들과 별로 비교해 보지 않는 일이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욕구를 갖는 일이고, 또 남의 의견에 많이 집착하는 일이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모든 정념을 좋게 또는 나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기란 쉬운 일이다. 늘 혼자 살 수 없는 그들이 늘 착하게만 살기는 힘든 노릇이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어려움 자체도 그들의 인간관계와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사회의 위험들은 우리더러 인간의 새로운 욕구들에서 생겨나는 타락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예방하는 기술과 배려를 더욱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인간에게 알맞은 연구는 자신의 온갖 관련들에 관한 연구다. 육체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밖에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은, 사물들과의 관련에 의해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어릴 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신적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련에 의해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지금 도달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평생을 두고 할 일이다.

짜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이미 외판 존재가 아니며, 그 마음은 이미 외롭지가 않다. 인류와의 모든 관계, 자기 혼의 모든 애정이 그 짝과 더불어 생겨난다. 그의 첫 정념이 이내 다른 정념들을 괴어오르게 한다.

본능의 경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쪽 성(性)은 다른 성에 끌리며, 이것이 자연의 충동이다. 선택, 좋아하기, 개인적인 애착은 지식 · 편견 · 습관의 소산이다. 사랑

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판단하고 나서밖에 사랑하지 않고, 비교하고 나서밖에 가려잡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현실적인 것도 아니다. 참사랑은 누가 뭐라 말하건 언제나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사랑의 흥분은 우리를 갈팡질팡케 하고, 사랑을 느끼는 마음에서 알미운 성질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성질을 남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 없이는 사랑을 느낄 형편도 되지 못할 그러한 훌륭한 성질도 사랑은 늘 전제로 삼는 것이니까. 이성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들 보는 저 선택도 실은 이성에서 생겨난다. 사랑은 우리보다 눈이 나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관련들도 보기 때문에 사랑을 장님으로 만든 것이다. 재질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여자면 다 똑같이 좋아 처음 만난 여자가 언제나 가장 귀여운 여자가 될 것이다. 사랑은 자연에서 생겨나기는커녕 자연의 여러 경향들의 규범이고 브레이크다. 사랑받는 대상 말고는 이성(異性)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남을 좋아해 주면 남도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란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 해져야 한다. 택함을 받으려면, 적어도 사랑하는 대상자의 눈에는 만 사람보다 만 누구보다 더 사랑받을 만 해져야 한다. 동류에게 던져지는 첫 시선이 여기서 비롯된다. 동류들과의 첫 비교가 여기서 비롯된다. 경쟁심 · 적대감 · 질투가 여기서 비롯된다. 어떤 감정이 넘치는 가슴은 털어놓기를 좋아한다. 애인의 필요가 이내 친구의 필요를 낳는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를 깨닫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할 것이나, 많은 불평 분자 없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바랄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랑 · 우정과 함께 불화 · 반목 · 증오가 생겨난다. 이 많은 갖가지 정념들 한복판에서 나는 세론(世論)이 군건한 왕좌를 쌓아올리는 것을, 또 그 위력에 복종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생활을 남의 판단 위에밖에는 쌓아올리지 않는 것을 본다.

이 관념들을 넓혀 보라. 그럼 우리가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의 형태가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알게 될 테니. 그리고 절대적인 감정이기를 그만둔 자애심이 어떻게 위대한 영혼들 속에서는 교만으로, 작은 영혼들 속에서는 허영으로

바뀌어, 모든 영혼들 속에서 노상 옆 사람의 희생으로 살찌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 마음속에 싹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유의 정념들은 거기서 절로 싹틀 수는 없다. 싹을 거기에 갖다 주는 것은 우리뿐이며,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밖에는 거기에 뿌리를 박은 일이 없다. 그런데 청년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미 그렇지 않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건 우리완 아랑곳없이 싹틀 것이다. 그러니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다.

여기서 문제되는 위기 상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고찰부터 시작하자. 어린 시절에서 사춘기로 올라가는 시기는 자연에 의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에 있어서는 기질에 따라, 국민에 있어서는 풍토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 관해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 사이에 인정되는 차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격한 기질이 다른 기질들보다 일찍 형성된다는 것도 저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원인에 관해서는 잘못 생각해서 정신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을 육체 탓으로 보는 수가 흔히 있다. 우리 세기 철학의 가장 잦은 오류의 하나다. 자연의 가르침은 뒤지고 느리다. 인간들의 가르침은 거의 언제나 일된다. 먼저 경우에는 감각들이 상상력을 일깨운다. 나중 경우에는 상상력이 감각들을 일깨운다. 상상력은, 처음에는 개인들을, 나중에는 인류 자체를 기를 꺾어 약하게 만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올된 활동력을 감각들에 준다. 풍토의 영향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확실한 사실은, 사춘기와 성(性)능력이 무지 미개한 국민들보다는 교양 있는 문명국민들에 있어 언제나 일된다는 것이다.<sup>5</sup> 아이들은 예절의 온갖 원숭이 흉내를 통해 그 속에 숨은 나쁜 풍습을 간파

5 뷔퐁 씨는 말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 집에서는 아이들이 푸짐하고 맛 좋은 음식만 먹어 버릇해서, 이러한 상태에 더 일찍 도달한다. 시골에서는, 그리고 가난한 민중 속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발육이 뒤진다. 이삼 년은 더 있어야 한다(『박물지』 4권, p. 238).” 나는 이러한 관찰은 시인하나 그 설명은 시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골 사람이 아주 잘 해 먹고 많이 먹는 고창에서도, 예컨대 발레 지방이나 이탈리아의 프리올리 같은 산악지방에서도, 사춘기는 남녀가 똑같이 도시 한복판에서보다는 뒤지니까,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먹는 것은 극도로 절약하기가 일쑤여서, 속담에도 있듯이 태반이 ‘빌로드 옷에 배는 밀기울’로 채우고 있는 도시 보다는 말이다. 그런 두메에서는 어른처럼 건장하고 큰 사내아이들이 아직도 목소리가 날카롭고 턱에 수염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처녀들이 아주 성숙했으면서도 여성의 주기적인 증상이 통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놀라게 된다. 내게는 이러한 차이가 오로지, 순박한 풍습 속에서는 더 오래 평온하고 잠잠한 상상력이, 피를 보다 늦게 끓게 하고 체질을 덜 조속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으로만

하는 특이한 총명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에게 일러 주는 세련된 말씨, 아이들에게 하는 예절의 교훈, 아이들 눈앞에 치는 체하는 신비의 베일은, 아이들 호기심에는 그만큼 자극제다.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아이들에게 감추는 체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아이들에게 주는 온갖 가르침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다.

경험에 비추어 보라, 이 지각없는 방법이 얼마나 자연이 하는 일을 재촉해 기질을 망쳐 놓는가를 알게 될 테니, 이것이야말로 도시에서 인류를 퇴화시키는 주된 원인들 중의 하나다. 일찍부터 맥 빠진 청년들은 작고 약하고 발육 나쁜 그대로, 마치 봄에 열매 맺게 한 포도나무가 가을도 오기 전에 시들어 죽듯이, 자라지는 않고 늙어만 간다.

행복한 무지가 아이들의 순진을 몇 살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거칠고 소박한 국민들 속에서 살아 본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나라에서 마음의 불안이라곤 모르는 남녀가 어릴 때의 순진한 놀이를 나이와 아름다움이 한창일 때까지 계속하며, 상냥함 자체가 순수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감동적이고도 우스운 광경이다. 이런 사랑스러운 젊은이가 마침내 결혼하게 되면, 서로 싱싱한 몸을 바치는 부부는 그래서 더욱 서로 다정하다. 건강하고 힘찬 술한 아이들이, 무엇에도 변치 않는 결합의 보증이 되고, 젊은 날의 지혜의 열매가 된다.

사람이 자기 성을 깨닫는 나이가 자연의 작용 못지않게 교육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라면,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에 따라 그 나이를 재촉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또 이 발전을 늦추거나 재촉하는 데 따라 몸의 튼튼함을 얻기도 잃기도 하는 것이라면, 애써 그것을 늦출수록 청년은 더욱 활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결과도 된다. 나는 아직 순전히 육체적인 결과 이야기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의 대상에 관해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밝혀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적당한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 나은가는, 이 자주 말썹이 된 문제의 해답을 나는 이러한 고찰에서 끌어낸다. 나는 어느 쪽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겨진다.

다. 첫째로, 이 호기심은 원인만 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것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로, 꼭 풀지 않아도 될 문제들은 그 질문을 하는 자를 속이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거짓말로 답해 주기보다는 입 다물게 하는 편이 낫다. 아무래도 좋은 일에서는 잠자코 따르도록만 시켜 둔다면, 이런 명령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끝으로 답해 주기로 결심한다면 숨김없이, 당황하거나 미소 짓는 일 없이 되도록 솔직하게 답해 주라. 아이의 호기심은 자극하기보다는 채워 주는 데 위험이 훨씬 덜하다.

여러분의 대답은 언제나 망설이는 기색 없이 정중하고 간단하고 단호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해야 한다는 말은 덧붙일 필요도 없다. 어른들로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더욱 큰 위험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어른들에게 거짓말하는 위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선생이 제자에게 한 거짓말이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되면 교육의 열매는 다 영영 망쳐지고 말 것이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지가 어찌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늘 감출 수도 없는 것은 일찌감치 가르쳐 주도록 하라. 아이들의 호기심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든지, 아니면 호기심이 위험해질 나이가 되기 전에 호기심이 채워지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 점에 있어 여러분의 자기 제자에 대한 처신은, 제자의 개인적인 처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그가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등에 많이 달렸다. 아무것도 무턱대고 주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만일 성의 차이를 16살 때까지 모르게 해 둘 자신이 없거든 10살 이전에 가르쳐 주도록 하라.

사물을 진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피하려고, 애써, 아이들에게 너무 세련된 말을 쓰거나, 아이들은 금방 알아챌 것을 괜히 예들러 말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품행방정한 사람은 이런 문제에 있어 언제나 펍 솔직한 법이다. 그런데 악덕에 더럽혀진 상상력은 귀를 민감하게 만들고, 노상 표현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 거친 말씨는 문제되지 않는다. 멀리해야 할 것은 추잡한 관념들이다.

수줍음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긴 하나 아이들이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수줍음은 악을 알아 비로소 생겨난다. 악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서도 안 될 아이들이 어떻게 그 결과인 감정을 갖게 되겠는가? 수줍음이나 정직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부정직한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셈이며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은근한 욕망을 태워 주는 셈이 된다. 조만간 아이들은 그 욕망을 채우게 되며, 상상력을 건드리는 첫 불꽃은 영락없이 감각의 불에 부채질하게 마련이다. 얼굴이 빨개지는 자는 다 이미 죄가 있다. 정말로 결백한 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감각에 거슬리는 지저분한 것은 하게 마련인 아이들이, 이러한 추종만으로부터 예절에 대한 같은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다. 은근한 쾌락의 기관들과 불쾌한 욕구의 기관들을 한 곳에 두어, 때에 따라 다른 관념에 의해 다른 시기에도 같은 배려를 우리더러 하게 하는 자연의 정신을 따르라. 어른일 때는 조심이라는 관념에 의해, 아이일 때는 깨끗함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말이다.

아이들더러 순결을 간직케 하는 좋은 방법을 나는 하나밖에 알지 못한다. 그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순결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리 애써 조심해 봤자 조만간 통겨지고 만다. 하나의 미소, 하나의 눈짓, 하나의 뜻하지 않은 몸짓이 애써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죄다 말해 주고 만다.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채는 데는, 자기들에게는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이들은 가져서 안 될 지식이 있다고 보고, 점잖은 사람들이 서로 쓰는 섬세한 말씨나 표현은 아이들과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의 단순함을 정말로 존중할 때는,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알맞은 말씨를 쉽사리 찾아 내게 된다. 순진한 사람에 어울리고 순진한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소박한 말씨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위험한 호기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옳은 말씨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 주면 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의심은 주지 않는다. 처진 말에는 그것에 알맞은 불쾌한 관념을 붙여 주면 상상의 첫 불길을 꺼 줄 수 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거나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아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만 나도 싫어지게 해 주면 된다. 또 이와 같

은 소박한 자유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 끌어내어 해야 할 말을 늘 말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느낀 대로 늘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쉬운 난처함을 면하게 해주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이들에게는 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지만, 그 답이 경솔한지 신중한지가 때로는 아이들 평생의 품행과 건강을 좌우하기도 하는 난처한 질문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속이지 않고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생각해 내는 제일 간단한 수는 아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아무래도 좋은 질문에는 그러도록 길들여 놓았다면, 또 그런 판이한 어조에서 아이가 무슨 비밀이라도 눈치채지만 앓는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여기서 그치는 일이란 드물다. “그건 결혼한 사람들의 비밀이야” 하고 어머니는 말할 것이다. “조그마한 놈들이 그렇게 캐고 들면 못써.” 이것은 어머니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에는 아주 괜찮은 대답이다. 그러나 이런 멸시의 말투에 자극받은 소년이 결혼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 내기 전에는 잠시도 마음 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또 머지않아 그 비밀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내가 들은 바 있는 판이한 대답을, 태도 못지않게 말씨가 겸손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또 미덕을 위해, 남의 비난에 대한 공연한 염려나 익살꾼들의 히튼소리쯤은 무시할 줄 아는 어느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만큼 더욱 감명 깊었던 대답을 인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아이 오줌에 작은 결석이 섞여 나와 요도가 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지나간 아픔은 잊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경솔한 꼬마가 말했다. “애야, 여자들은 목숨을 잃는 수도 있을 만한 고통을 느끼며 아이들을 오줌 누듯이 낳는 거야” 하고, 어머니는 주저 없이 대답한다. 미치광이들은 웃고, 바보들은 얼굴을 찡그러라. 그러나 현자들은 이보다 더 현명하고 더 목적에 맞는 답이 있을지 찾아보라.

아이가 아는 자연적인 필요의 관념이 우선 신비한 작용의 관념을 따돌린다. 고통과 죽음의 종속적인 관념들이 상상력을 꺾고 호기심을 누르는 슬픔의 베일로 그런 관념을 가려 준다. 모든 것이 정신을 출산의 결과로 쏠리게 하지, 그 원인에 쏠리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 본성의 약점들, 진저리나는 대상물들, 고뇌의 모습들, 이

것들이야말로 그 답에 진력하면서 아이도 감히 설명을 구할 때 그 대답이 가져올 설명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면 욕망의 불안이 생겨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고도 여러분이 알듯이 진실은 조금도 망그러지지 않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대신 속일 필요도 전혀 없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독서를 한다. 읽지 않았으면 갖게 되지도 않을 지식들을 독서에서 얻고 있다. 공부를 하면 서재의 고요 속에서 상상력이 자극받아 날카로워진다. 사교계에서 살면 야릇한 횡설수설을 들어 놀라운 본보기들을 보게 된다. 저도 남자라는 사실을 하도 남이 믿게 만들었기에, 제가 보는 앞에서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는 이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게도 맞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게 된다. 남의 판단이 자기 법칙이 된다면 남의 행동은 자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팔려 있게 마련이어서 아이들 관심만 사려 드는 하인들은, 아이들 품행 같은 것은 제쳐놓고 알랑거리기만 한다. 웃기 잘 하는 가정부들은, 가장 뻔뻔스러운 여자가 15살 난 아이에게도 감히 하지 못할 말을 4살짜리에게도 지껄여댄다. 그녀들은 제가 한 말을 이내 잊어버린다. 그러나 아이는 제가 들은 말을 잊지 않는다. 추잡한 이야기는 방중한 품행을 빚어 낸다. 고약한 종은 아이를 난봉꾼으로 만든다. 그리고 한쪽의 비밀이 다른 쪽의 비밀의 보장이 된다.

제 나이에 따라 길러진 아이는 외톨이다. 애착이라고는 습관의 애착밖에는 알지 못한다. 제 시계처럼 누이를, 제 개처럼 친구를 사랑한다. 자기가 어떤 성(性)이고 어떤 유(類)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남자도 여자도 그에게는 똑같이 아랑곳없다. 그들이 행하거나 말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 그런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거나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도 그들의 본보기 이상으로 그의 흥미를 끌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모두가 그를 위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는 이 방법에 의해 그에게 주어지는 약빠른 잘못이 아니고 자연의 무지다. 같은 자연이 자기 제자에게 애써 설명해 줄 때가 온다. 자연이 자기가 주는 가르침을 제자가 위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세부 규칙들은 내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딴 문제들을 위해 내가 내놓는 방법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도 역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썩뜨기 시작하는 정념들에 질서와 규칙을 주고 싶은가? 그럼 그것들이 생겨남에 따라 정리되는 시간을 주기 위해 그것들이 발달하는 기간을 늘려 주라. 그렇게 되면 정념들을 정리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자연 자체가 된다. 여러분의 보살핌은 자연이 제 일을 정리하도록 두는 일뿐이다. 여러분의 제자가 혼자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두가 그의 상상력에 불을 지른다. 편견들의 여울물이 그를 휩쓸어 간다. 그를 붙잡으려면 그를 반대쪽으로 밀고 가야 한다. 감정이 상상력을 옅매어야 하고, 이성인 사람들이 의견을 입다물게 해야 한다. 모든 정념의 근원은 감수성이며, 상상력이 정념들의 경향을 결정한다. 제가 관련된 것들을 깨닫는 존재 모두는, 그 관련들이 변질될 때와 자기 본성에 보다 알맞은 관련들을 생각해 내거나 생각해 내었다고 믿을 때에는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한정된 모든 존재들의 정념을, 천사들에게도 정념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악덕으로 바꾸는 것은 상상력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어떤 관련들이 자기네 본성에 가장 알맞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의 본성을 알아야만 할 테니까.

그러니 정념들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지혜 모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1. 인류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인간의 진짜 관련들을 깨닫는 일. 2. 이 관련들에 따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정리하는 일.

그런데 인간은 이러저러한 관련들에 따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가? 자기 상상력을 이러저러한 대상 쪽으로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거나, 그 상상력에 이러저러한 습관을 마음대로 붙여 줄 수만 있다면, 분명 그럴지도 모른다. 더구나 여기서는 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자를 놓는 환경의 선택에 의해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자연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에 알맞은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말하는 것이 된다.

그의 감수성이 자기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동안은 그의 행동에 도덕적인 아무것도 없다. 감수성이 자기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자기를 정말 인간으로, 인류의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선악의 감정을, 이어 선악의

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관찰을 고정시켜야 할 것은 이 첫째 점이다.

관찰을 하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실례들을 물리치고, 잊닿은 발전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례들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찰은 어렵다.

제가 받은 올된 교육을 써먹을 능력밖엔 기다리지 않는, 머리가 약삭빠른 아이는 그 능력이 제게 다가오는 시기를 잘못 알아보는 일이 없다. 기다리기는커녕 빨리 오도록 재촉해, 자기 피를 올되게 괴어오르게 하며, 욕망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그를 부추기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몰아대는 것이 그다. 자연은 그를 어른으로 만들 때 그에게 가르쳐 줄 아무 것도 이미 없다. 실지로 어른이 되기 훨씬 전에 생각으로는 어른이었던 것이다.

자연의 진짜 발걸음은 더 차근차근하고 더 느리다. 조금씩 피는 뜨거워지고, 기력은 다듬어지고, 체질은 형성된다. 제작을 지휘하는 현명한 장인바치는 자기의 모든 연장을 사용하기 전에 공들여 완성부터 시킨다. 오랜 불안이 첫 욕망들에 앞서고, 오랜 무지(無知)가 그 욕망들을 속인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바란다. 피가 괴어올라 끓는다. 남아돌아가는 생명이 밖으로 뱉어 나려고 든다. 눈이 생기를 띠고 탄 존재들을 두루 살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자기가 혼자서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마음이 인간적인 애정 쪽으로 열려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심스레 길러진 청년이 느끼게 마련인 첫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다. 그의 싹트는 상상력의 첫 행위는 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며, 인류가 성(性)보다도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 따라서 무지(無知) 상태의 연장에는 또 하나의 이득이 있다. 그것은 인정의 첫 씨앗들을 젊은이의 마음속에 뿌려주기 위해 싹트기 시작하는 감수성을 이용하는 일이다. 이는 일생 중에서도 같은 보살핌이 진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만큼 더욱 값진 이득이다.

일찍 타락해 여자들과 방탕에 빠진 청년들이 몰인정하고 잔인하다는 사실을 나는 늘 보아 왔다. 극성맞은 기질이 그들을 참을성 없고 복수심이 강하고 사나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단 한 가지 일로만 차 있는 그들의 상상력이 나머지 모두

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정도 자비도 알지 못한다. 자신의 하찮은 쾌락을 위해서는 부모·우주 전체도 희생시켰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순박 속에서 자라난 청년은 자연의 첫 충동에 의해 부드럽고 다정한 정념들 쪽으로 끌리게 마련이다. 인정스러운 그의 마음은 동포들의 괴로움에 움직인다. 친구를 다시 만나면 반가워 소스라치고, 그의 팔은 정다운 포옹을 찾아볼 줄 알고, 그의 눈은 감동의 눈물을 쏟을 줄 안다. 그는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부끄러움과 남의 비위를 거스른 뉘우침에 민감하다. 타오르는 피가 그를 성나 흥분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시 후에는 쏟아져 나오는 뉘우침에서 그의 착한 마음씨가 엿보인다. 자기가 준 상처를 보고는 울고 신음한다. 제 피를 바쳐서라도 제가 쏟게 한 피를 보상해 주고 싶어 한다. 자책감 앞에서는 흥분이 모조리 가시고 자존심도 다 꺾이고 만다. 자신이 모욕당한 때는 어떤가? 한창 화가 나 있어도 사과 한 마디에 누그러지고 만다. 제 잘못을 씻을 때 못지않게 기꺼운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 청년기는 복수의 나이도 증오의 나이도 아니고, 동정과 자애와 관용의 나이이다. 그렇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며, 경험에 의해 내 주장이 꺾일 염려도 없다. 악하게 태어나지 않고 20살 때까지 결백을 간직한 아이는 이 나이에 가장 너그럽고 가장 어질어 누구보다도 인정스럽고 귀엽다. 여러분은 일찍이 이런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학교의 온갖 부패 속에서 교육받은 여러분의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알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인간을 사قم성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다. 우리 마음에 인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비참이며,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면 인정에 힘입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애착은 다 부족함의 표시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남들이 아무런 필요도 없다면 그들과 합쳐질 생각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 자체로부터 우리의 가냘픈 행복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말로 행복한 존재는 고독한 존재다. 하느님만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린다. 하지만 우리 중의 누가 그런 행복의 관념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불완전한 존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을 그는 누리게 될 것인가? 그는 외로워지고 비참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는 자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 동포들의 기쁨보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들에게 더 애착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본성과의 일치와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애착의 보증을 사뭇 더 잘 보게 되니까. 우리의 공통된 욕구가 이해 관계로 우리를 뭉치게 한다면, 우리의 공통된 비참은 애정으로 우리를 뭉치게 한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남들에게 사랑보다는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가 자기에게 없는 권리를 가로채어 혼자만의 행복을 얻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싶어질 것이다. 또 자존심은 우리더러 그 사람에겐 우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 괴로워하게 된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는 불행한 사람은 누가 가엾게 여기지 않겠는가? 바라기만 해서 될 일이라면 그를 불행에서 건져 내어 주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상상력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의 위치보다는 비참한 사람의 위치에 놓는다. 이 두 가지 상태 중의 하나가 딴것보다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괴로워하는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면 그래도 자기는 그 사람처럼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는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동정은 기분 좋은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부러워하는 자를 자기 위치에 놓아 주기는커녕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서운한 생각만 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부러움은 쓰라린 것이다. 한쪽은 자기가 겪는 불행을 우리더러 면하게 해 주고, 또 한쪽은 자기가 즐기는 행복을 우리에게서 앗아 가는 것만같이 여겨진다.

그러니 여러분은 싹트는 감수성의 첫 움직임들을 청년의 마음속에서 부추기고 북돋우어 그 성격을 선행과 친절 쪽으로 돌리기를 바라는가? 사람들의 행복의 거짓 모습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허영심과 시새움이 싹트게 해 주질랑 말라. 처음에는 그의 눈앞에 긍정의 화려나 대궐의 호사, 구경거리들의 매력을 펼쳐 보이지 말라. 서클이나 화려한 모임에 데리고 다니지 말고, 상류 사회를 그것 자체로서 평가하게 해 준 다음이 아니고는 그것의 겉모습을 보여 주지 말라. 인간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세상을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은 그를 도야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시키는 것이 된다. 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타고나기로는 왕도 귀족도 궁정인도 부자도 아니다. 모두가 별거승이로

가난하게 태어나, 인생의 비참, 온갖 근심 걱정과 불행과 궁핍과 고통을 다 당하게 마련이다. 필경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처지다. 이거야말로 어떤 인간도 면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서 그것과 가장 떼어 놓을 수 없는 것부터, 인간성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연구하도록 하라.

16살이면 청년은 괴로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해 보았으니까. 그러나 다른 존재들도 괴로워한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을 느끼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못 되며, 내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남들이 느끼는 바를 통 짐작하지 못하는 아이란 불행이라고는 제 불행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각의 첫 발달이 그의 상상력에 불을 댕기면 그는 동포들 속의 자신을 깨닫기 시작해 그들의 하소연에 감동되고 그들의 고통에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괴로워하는 인류의 서글픈 정경이, 그가 일찍이 맛보지 못한 첫 감동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이러한 시기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서는 알아보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를 책망하겠는가? 여러분이 하도 일찍 그들에게 감정을 희롱하도록 가르쳐 주고 감정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늘 같은 어조로 말하는 그들은 여러분의 가르침을 여러분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역용하며, 그들이 언제 거짓말을 그만두고 제가 말하는 바를 깨닫게 될지를 가려볼 방법을 여러분에게 통 넘겨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에밀을 보라. 내가 저를 이끌어 준 시기에 그는 깨달은 적도 거짓말한 적도 없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 방에, 또한 앓는 가정 교사 방에 들어갈 때 취할 몸가짐에 대해 지시받은 일도 없다. 제가 느끼지도 않는 슬픔을 꾸며 보이는 재주를 배운 일도 없다. 누가 죽어도 헛웃음을 운 적은 없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관심이면 태도도 무관심이다. 만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말고는 만사에 무관심한 그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다른 점이라고는, 관심을 가진 체해 보이며 들지 않는다는 점, 만 아이들처럼 거짓말하지는 않는다는 점뿐이다.

감성(感性) 지닌 존재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에밀은, 괴로워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하소연이나 부르짖음이 그의 동정심을 건드리기 시작할 것이다. 피 흐르는 것을 보면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죽어 가는 동물의 경련을 보면, 이 새로운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도 전에 어떤 알지 못할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여전히 미련하고 무정하다면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을 알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관념들을 비교해 보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비교해 보지는 않은 것이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대적인 첫 감정, 즉 동정심은 이리하여 생겨난다. 감수성과 동정심이 깊어지려면 아이는, 제가 괴로워한 것을 괴로워하며, 제가 느낀 고통과 저도 느낄지 모를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관념을 제가 갖고 있을 때 고통들을 느끼는, 저와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밖으로 나가 괴로워하는 동물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그의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떠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는 동정심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괴로워한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만큼밖에는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서지 우리를 생각해서는 아니다. 따라서 상상력이 활기를 띠어 자신을 자신 밖으로 데려가기 시작할 때밖에는 아무도 인정스러워하지는 않는다.

썩트기 시작하는 이 인정을 부추겨 복돋우려면, 그것을 이끌어 주거나 그 자연스러운 경향 속에서 그것을 뒤쫓으려면, 청년의 심정의 번어 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대상물들, 그의 심정을 부풀어 오르게 해 준 존재들 위에 펼쳐 주며 도처에서 자기 밖에서 자기를 알아보게 해 주는 대상물들을 청년에게 대어 주는 일과, 그의 심정을 좁히고 억누르며 인간의 자아의 용수철을 켜기는 대상들을 멀리해 주는 일이 아니고 또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바꾸어 말해서 친절 · 인정 · 동정심 · 자비심 같은 사람들 마음에 절로 드는 매력 있고 다정한 온갖 정념들을 그의 마음속에서 부추겨 주는 일과, 시샘 · 탐욕 · 증오 같은, 이를테면 감수성을 무능하게 만들 뿐더러 소극적으로 만들어 그것을 느끼는 자를 괴롭히는 싫고 잔인한 온갖 정념들이 썩트지 않도록 막아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위의 고찰은 모두, 정확하고 명백해 알아듣기 쉬운 2~3개의 격률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 격률

인간의 마음은 저보다 행복한 자들의 처지가 아니라, 저보다 불쌍한 자들의 처지에만 자기를 놓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격률에 예외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현실적인 것이기보다는 허울만의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애착을 느끼는 부자나 귀족의 처지에 자기를 놓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애착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안락의 한 부분을 가로챌 따름이다. 그가 불행에 빠졌을 때 사랑받는 수는 있겠지만, 잘 사는 한 그에게 진짜 친구라고는, 허울에 속지 않아 아무리 잘 산대도 부러워하기보다는 가엾게 여기는 자밖에 없다.

어떤 상태, 예컨대 전원의 목가적인 생활의 행복에는 감동된다. 그 행복하고 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매력은 시샘으로 잡쳐지는 일이 없다. 그들에게는 진정 흥미를 갖게 된다. 왜 그럴까? 그 평화롭고 순박한 상태에는 언제라도 내려가 같은 행복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고 바라기만 하면 당장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생각밖에는 주지 않는 임시변통수다. 제 밀천을 보는 것은, 제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는 것은, 당장 쓸 생각이 없는 경우라도 언제나 기쁜 일이다.

따라서 청년더러 인정을 느끼게 만들려면, 남들의 빛나는 처지에 감탄하게 하지 말고 그 서글픈 면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분명한 결과로서 그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는 판 행복예의 길을 스스로 터야만 한다.

## 둘째 격률

사람은 저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남의 불행밖에는 동정하지 않는다.

Non ignara mali, miseris succurrere disco.

(불행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들을 도와 줄 줄 안다.)<sup>6\*</sup>

이 시구만큼 아름답고 뜻 깊고 감동적이고 참된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왕들은 왜 신하들에게 무정한가? 인간이 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그토록 지독한가? 가난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귀족은 왜 서민들을 그토록 멸시하는가? 귀족이 평민이 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터키 사람들은 왜 대체로 우리보다 인정 많고 사람 대접을 잘 하는가? 개인들의 영달이나 재산이 언제나 덧없이 흔들리는 아주 전제적인 정부 밑에 사는 그들은, 낙척(落拓)이나 가난을 자기와 상관없는 상태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 저마다 내일에는, 오늘 자기가 도와 주는 자의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양 소설에 노상 나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매마른 교훈의 온갖 사탕발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감동을 준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자에게는, 불쌍한 자들의 고통이나 가난한 자들의 고생을 영광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버릇을 들이지 말라. 또 그가 그들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면, 그들을 동정하도록 가르쳐 줄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불행한 자들의 운명이 자기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들의 불행이 모조리 자기 발밑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불가피한 뜻밖의 슬한 사건들이 단박에 자기를 그 속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도록 하라. 태생도 건강도 부도 믿지 말도록 가르쳐 주라. 행운의 온갖 변전을 보여 주라. 자기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그 불행한 자들보다 더 낮은 상태로 굴러 떨어진 사람들의 노상 흔해빠진 예를 찾아 주라. 그들의 잘못 때문이건 아니건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6\*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Enéide)》I, 630.

7 이런 일이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다. 신분들이 더욱 굳어져, 사람들도 더 매정해진 것 같다.

나마 그가 알겠는가? 그의 인식의 질서를 침범하지 말고, 그의 힘이 미치는 지식으로만 밝혀 주라. 한 시간 후에 자기는 살아 있을 것인지 죽어 갈 것인지라는 물음에는 인간의 지혜를 다해도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그가 대단한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신장염의 고통이 밤이 되기 전에 그의 이를 갈게 하지 않을 것인지, 한 달 후에 그는 부자가 될 것인지 가난해질 것인지, 어쩌면 일 년 후에는 알제의 갤리선에서 쇠심줄에 얻어맞으며 노 젓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따위의 물음에 말이다. 더구나 이런 모든 말을 교리 문답처럼 냉정하게 그에게 말해 주려 들질랑 말라. 인간의 재앙들을 그가 보고 느끼게 해 주라. 모든 사람을 항상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로 그의 상상력을 흔들어 겁내게 해 주라. 이러한 온갖 심연들을 자기 둘레에서 보게 해 주고, 그것들을 그려 보이는 여러분 말을 듣고 거기 빠져들까 봐 겁이나 여러분에게 달라붙도록 해 주라. 우리가 그를 소심한 겁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선 그를 인간으로 만들기로 하자.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 셋째 격률

남의 불행에 대해 갖는 동정은, 그 불행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는 자들이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에 따라 가감된다.

불행한 사람은 동정받을 처지에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만 동정받는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육체적인 느낌은 보기보다는 더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를 정말로 가엾게 만드는 것은, 고통의 계속을 느끼게 해 주는 기억력과, 고통을 미래로 펼치는 상상력에 의해서다. 공통된 감수성이 똑같이 우리를 동물들과 다름없게 만든데도,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동물들의 고통에 우리가 더 무정해지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짐수레 말이 풀을 먹으면서, 얻어맞은 매나 저를 기다리는 고역을 생각한다고는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고 동정하는 일은 없다. 양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이 곧 목 졸

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제가 제 운명을 예견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도 동정받지는 않는다. 더 넓혀서 생각하자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사람은 마찬가지로 무정해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미련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네가 주는 고통에 대해 자위한다. 대체로 나는, 저마다가 자기 동포들의 행복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그들에 대해 갖는 것 같아 보이는 존경의 도에 의해 판단한다. 자기가 깔보는 사람들의 행복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정치가들이 민중에 대해 그토록 멸시조로 말한다고 해서, 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그토록 악하게만 들려고 든다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인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민중이다. 민중 아닌 자는 한줌도 안 되니 문제삼을 것도 없다. 인간은 모든 신분에 있어 같다. 그렇다면 가장 사람 수효 많은 신분들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차별이 사라진다. 그는 상놈에게서도 명사(名士)에게서도 같은 정념, 같은 감정을 본다. 그들의 말씨, 많건 적건 꾸며 보이는 얼굴빛밖에는 분간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그들을 갈라놓는다면 더 많이 속인 쪽이 불리하게 마련이다. 민중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어 상냥하지가 않다. 그런데 사교계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어야만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어 보인다면 끔찍해 소름이 끼칠 것이다.

모든 신분에는 같은 분량의 행복과 고생이 들어 있다고, 우리의 현자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지지할 수 없는 고약한 격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애태울 필요가 있겠는가? 저마다가 현재 그대로 있어야 한다. 노예는 학대받아야 하고, 병신들은 고생해야 하고, 거지는 죽어야 한다. 신분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이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자들은 부자의 고생을 늘어놓으며 그 헛된 쾌락의 부질없음을 보여 준다. 얼마나 엉성한 궤변인가! 부자의 고생은 그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설사 가난뱅이보다 더 불행하다손 치더라도, 그 불행은 모조리 자기 탓이고, 또 행복해지는 것도 자기한테만 달렸으니, 조금도 동정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불쌍한 자의 고생은 사태(事態)에서, 그를 짓누르는 가혹한 운명에서 온다. 피로와 쇠약과 허기의 육체적인 느낌을 그에게서 없애어 줄 수 있는 습관이라곤 없다. 뛰어난 머리로 지혜도 그의 처지의 불행을 면해 주기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에픽테토스는 주인이 자기 다리를 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한데서 무슨 이득인가? 그래서 다리를 덜 꺾겠는가? 그 고통에 지레 짐작에서 오는 고통만 겹친다.<sup>8\*</sup> 우리가 미련하다고 보는 민중이 설사 지각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와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겠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라. 말씨는 달라도 그들이 여러분 못지않은 재치와 여러분 이상의 양식(良識)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테니. 그러니 여러분의 인류를 존경하라. 인류는 주로 민중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왕들과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떨어져나가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사태가 더욱 나빠질 리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제자에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자기를 어떤 계급에도 두지 말고 모든 계급 속에 있도록 해 주라. 제자 앞에서는 인류에 대해 감동을 가지고, 연민조차 가지고, 그러나 결코 떨시는 갖지 말고 말하라. 인간아, 인간을 욕되게 하질랑 말라.

어린 청년의 마음속에서 자연의 첫 충동들을 자극해 그 마음을 동포들 위에 널리 펼치게 하기 위해 그 마음속에 파고들어가는 데는, 이미 트인 길들과는 아주 반대인 이런 길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길들로 해서 가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인 이해 관계는 되도록 그 충동들에 섞여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 둔다. 더구나 허영심 · 경쟁심 · 명예심 같은,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섞여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교는 설사 우리 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만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우열을 다투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분별을 잃거나 화를 내어, 심술쟁이나 바보가

8\* 에픽테토스(Epictète)는 1세기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 소아시아에 태어나 노예로서 로마로 끌려갔다. 주인이 어느 날 그의 다리를 괴롭히자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제 다리를 꺾을 생각이군요.” 정말로 꺾이자 그는 확인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군요.”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은 애써 피하자. 그토록 위험한 정념들은 조만간에 어차피 생겨나고 말 것이라고 누가 내게 말한다. 나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만사에는 제때와 곳이 있다. 나는 다만 그것들이 생겨나도록 도와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따름이다.

이것이 취해야 할 방법의 정신이다. 성격의 거의 무한한 구분이 시작되는 때라. 내가 예를 들어 봤자 그 하나하나는 10만에 하나에도 맞아 들어갈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예나 세부 설명은 소용없다. 유능한 스승에 있어서는, 심정을 형성하는 일에서 심정을 파고들어 살피는 기술을 터득한 관찰자나 철학자의 진짜 구실이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청년이 자신을 숙일 생각을 아직 하지 않는 동안은, 또 그것을 아직 배우지 않은 동안은, 그에게 보여 주는 대상을 하나하나에서 그가 받는 인상을 그 태도나 눈·몸짓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의 마음의 온갖 움직임이 그 얼굴에서 읽혀지는 것이다. 그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을 미리 알아채어 마침내는 그것들을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

파·상처·울음소리·신음·고통스러운 수술의 기구 같은, 고통의 대상을 감각에 가져오는 것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 일찍, 보다 널리 사로잡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파괴의 관념은 더욱 복잡해서 같은 감명은 주지 않는다. 죽음의 이미지는 더 늦게 더 약하게 오는데, 그것은 아무도 죽어 본 경험을 스스로 갖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단말마(斷末魔)를 느끼려면 송장을 본 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일단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새겨지고 나면, 그때 그것이 감각을 통해 주는 완전한 파괴의 관념 때문에, 또는 그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분명 피할 도리 없는 그 상태에 더욱 심하게 마음이 동요된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광경은 없게 된다.

이 갖가지 인상들에는, 각 개인의 개성과 먼저의 습관에 딸린 변화와 단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인상들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완전히 면한 사람은 없다. 민감한 사람들에게 더욱 알맞은 더 늦게 오고 덜 일반적인 인상들이 있다. 정신적 고통이나 내면적 고민, 근심, 우울, 슬픔에서 받는 인상들이다. 울음소리나 눈물로밖에 감동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비탄에 죄인 가슴의 길고 은근한 신음이 그들

에게서 한숨을 자아낸 적은 없다. 기가 죽은 태도, 험쵸하고 파리한 얼굴, 이젠 울지도 못하는 꺼진 눈을 보고 그들이 운 적은 없으며, 마음의 고통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을 알아도 그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서는 사정없는 엄격, 냉혹, 잔인밖에는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청렴 공정할지는 몰라도 너그럽고 인정스러울 수는 없다. 사람이 자비심 없이도 공정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공정할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청년들을 조급하게 판단하질랑 말라. 특히 제대로 교육을 받아 남이 느끼게 해 준 일이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갖고 있지 않은 청년은 더구나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말하지만, 그런 청년은 제가 알고 있는 고통밖에는 동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지 못해서만 생기는 이러한 표면상의 무관심은, 인간 생활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술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곧 감동으로 바뀐다. 우리 에밀로 말하자면, 어릴 때 솔직함과 양식을 가졌다면 청년기에는 인정과 감수성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참된 감정은 옳은 관념에서 말미암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를 여기에 끌어내는가? 내가 애초에 한 결심들과 내가 내 제자에게 약속한 바 있는 한결같은 행복을 잊었느냐고 나를 책망할 독자가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과 죽어 가는 사람들, 고통과 비참의 광경들이라니!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린 마음에 이 무슨 행복과 기쁨인가! 그토록 즐거운 교육을 그에게 약속하던 그 한심한 교사가 그를 괴롭히려고만 들다니. 이런 말들을 하겠지. 하지만 내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로 약속했지 행복해 보이도록 만들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여러분이 항상 허울에 속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다 해서 그게 내 잘못이겠는가?

첫 교육을 마치고 정반대인 두 문으로 해서 세상으로 들어서는 두 청년을 생각해 보자. 하나는 느닷없이 올림포스에 올라가 가장 빛나는 사교계에 뻗질나게 드나든다. 궁정에, 고관대작들 집에, 부자들 집에, 아름다운 여자들 집에 끌려다닌다. 나는 그가 도처에서 환영받는다 가정하고, 그러한 환대가 그의 이성에 미치는 결과는 문제삼지 않겠다. 이성이 그것에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한다. 쾌락들이 그의 앞



에 날아들어 날마다 새로운 일이 그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흥미를 느끼며 그는 모든 것에 몸을 내어 맡긴다. 여러분은 호기심에 차 눈을 부릅뜨고 바빠 돌아가는 그를 보게 된다. 그의 첫 감탄 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울린다. 여러분은 그가 만족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 여러분은 그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가 눈을 떠서 맨 먼저 알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알지 못하던 무수한 가짜 행복, 그 대부분이 잠시밖에는 손아귀에 들지 않아 마치 빼앗긴 아쉬움을 안겨 주기 위해서만 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행복들이다. 그가 궁전 안을 거닐 때는 그 들뜬 호기심만 보아도, 자기 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앓을까 하고 자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질문은 다 그 집주인과 자기를 노상 비교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며, 그 비교에서 발견되는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그의 허영심을 꼬드쳐 부추긴다. 자기보다 잘 입은 청년을 만나면, 자기 부모의 인색에 대해 몰래 투덜거리는 것이 보인다. 다른 청년보다 더 차려입었어도, 그 청년의 태생이나 재치에 자기가 무색해져 금빛 치장이 수수한 옷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을 보면 괴로워진다. 어떤 모임에서 자기만이 빛나더라도, 보다 낮게 보이려고 발돋움을 하더라도 그렇다. 아니꼬운 젊은이의 잘난 체하는 건방진 콧대를 꺾어 놓겠다는 숨은 생각을 누가 하지 않겠는가? 이내 짜기라도 한 듯이 모두가 뭉친다. 젊잖은 사람의 불안케 하는 눈초리, 매서운 사람의 빈정거리는 말이 머지않아 그에게 오고 만다. 비록 단 한 사람에게만 깔보여도 그 사람의 멸시가 탄 사람들의 칭찬을 당장 잡쳐 놓는다. 그에게 몽땅 주자. 애교며 재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자. 잘 생기고 재치가 넘치고 상냥하다고 하자. 여자들의 환심을 사게 되겠지. 그러나 여자들은 그가 사랑하기도 전에 그의 환심을 사려 들으므로 그를 애인보다는 미치광이로 만들 것이다. 그는 행운을 갖게 되겠지. 그러나 그 행운을 맛보기 위한 걱정도 정열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욕망들은 노상 앞지름을 당해 생겨날 기회가 통 없기 때문에, 쾌락의 품 안에서도 그는 지루한 갑갑증밖에 느끼지 않는다. 남성의 행복을 위해 생겨난 성이 그의 싫증을 사 물리게 한다. 그가 그 성을 잘 알기도 전에 말이다. 그 래도 계속해 이성을 만난다면 그것은 이미 허영심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설사

정말 좋아서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젊고 재주 있고 상냥한 것이 자기만은 아닐 것이기에 애인들에게서 기적적인 정숙만을 늘 찾아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에서 떼어 놓지 못할 온갖 유의 안달·배반·비열·늪우침 따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겠다. 사교계에 그런 일이 지천할 만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첫 환상에 얽힌 골칫거리들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여태까지 가족과 친구들의 품속에 갇혀 있어 그들의 온갖 주의의 유일한 대상으로 자처해 온 자에게는, 자기가 거의 중요시되지 않는 새 사태로 갑자기 들어가는 일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 테두리의 중심이던 자가 남의 테두리 속에 빠져든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들, 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싹터 자라난 이 편견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잃게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술한 모욕과 창피를 그는 받아야만 하는가! 아이때는 모두가 그에게 양보해 주었고, 모두가 친절을 다해 주었다. 청년이 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칫 자기를 잊고 옛날 태도를 간직하기라도 하면, 얼마나 호된 교훈들이 그를 반성시키려 들 것인가! 바라는 것을 손쉽게 얻는 습관이, 그로 하여금 많이 바라게 만들어 노상 공함을 느끼게 한다. 그를 기쁘게 해 주는 것 모두가 그를 찌른다. 남들이 가진 것은 다 갖고 싶어 할 것이다. 모두를 탐내고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며, 어디서나 지배하려 들 것이다. 허영심이 그를 졸먹고, 굴레 벗은 사나운 욕망들이 젊은 마음에 불을 지른다. 질투와 증오가 그것들과 함께 생겨난다. 불타는 정념 모두가 한꺼번에 용솟음친다. 그 불안을 그는 사교계의 법석 속에 끌고 다닌다. 그 불안을 저녁마다 되갓고 온다. 자신과 남들에 불만해서 돌아온다. 천가지의 헛된 계획을 안고, 천 가지 변덕에 시달리며 잠들어, 그의 자만심은 꿈속에서 깨지도, 그가 갖고 싶어 안달이지만 평생 갖지 못할 엉뚱한 행복을 자신에게 그려 보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제자다. 내 제자를 보기로 하자.

그의 눈에 띄는 첫 광경이 슬픔의 대상이더라도 그의 첫 반응은 기쁨의 감정이다. 얼마나 많은 불행을 면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행복함을 깨닫는다. 그는 동포의 괴로움을 나누어 가진다. 그런데 이 분담은 자발적이어서 기분 좋은 것이다. 그는 그들의 불행에 대해 느끼는 동정과, 그런 불행을 면한

요행을 동시에 즐긴다. 우리를 우리 밖으로 넓혀 우리의 안락에서 남아돌아가는 활동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 주는 힘의 상태에 자기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다. 남의 불행을 동정하려면 분명 그 불행을 알고는 있어야 하나 느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괴로워해 본 적이 있거나 괴로워하게 될까 봐 염려할 때는 괴로워하는 자들을 동정한다. 그러나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밖에는 동정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만인이 삶의 비참에 묶여 있어 아무도 당장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감수성밖에는 남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라면, 연민은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일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무정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남의 괴로움에 베풀 만큼 남아돌아가는 감수성을 그에게 통 넘겨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을 외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행복이 가장 작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 쾌활은 행복의 아주 애매한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쾌활한 사람이란 흔히 애써 남들을 속이고 자신을 잊으려는 불행한 자에 불과하기가 일쑤다. 모임에서는 그토록 흥겹고 명랑하고 마음 편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는 거의 모두가 침울하고 잔소리가 많아, 그 하인들은 주인이 사교계에 베푸는 재미의 뒤치다꺼리 고생만 하게 된다. 진짜 만족감은 쾌활하지도 악살맞지도 않다. 그토록 기분 좋은 감정이 대견스러워, 그것을 맛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그것이 발산해 버릴까 봐 염려하게 마련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말하거나 웃는 법이 없다. 이를테면 행복을 자기 마음 둘레에 집중시킨다. 떠들썩한 놀이나 들뜬 기쁨은 불쾌와 권태를 감추고 있다. 그런데 멜랑콜리는 쾌락의 벗이다. 감동과 눈물은 가장 기분 좋은 즐거움을 따르고, 극도의 기쁨 또한 부르짖음보다는 오히려 울음을 자아낸다.

실사 첫눈에는 다양하고 수많은 오락이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결같이 단조로운 생활이 파분해 보이더라도, 더 잘 보면 반대로 영혼의 가장 기분 좋은 습관이, 욕망이나 불쾌에 거의 걸려들지 않는 즐거움의 절제 속에 있음을 알아 보게 된다. 욕망의 조바심이 호기심을, 번덕을 낳는다. 들뜬 기쁨의 헛됨이 권태를 낳는다. 더 기분 좋은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자기 상태에 싫증나지는 않는

법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 중에서 미개인들은 호기심과 권태가 가장 적다. 그들은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사물들을 즐기지 않고 자신을 즐긴다. 평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나 지겨워하는 법이 없다.

사교인은 온통 가면 속에서 산다. 자기 자신으로 있는 수가 거의 없어 늘 남으로 있으며, 마지못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오히려 거북하다. 그에게는 자기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다.

앞서 내가 말한 청년의 얼굴에서는, 꾸밈없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방지고 아양 떨고 꾸며 낸 그 무엇을, 그리고 내 제자 얼굴에서는, 영혼의 참된 고요, 즉 만족감을 보여 주는 매력 있고 솔직한 표정을,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정을 주기 위해 우정의 발로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나는 스스로 그려 보지 않고는 못 배긴다. 표정이란 자연이 이미 점찍은 윤곽선의 단순한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나로서는 그러한 확대 말고도, 한 인간의 얼굴의 윤곽선들이, 영혼의 어떤 움직임들의 잣고 습관적인 인상에 의해 모르는 사이에 절로 형성되어 어떤 얼굴상(相)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그 움직임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습관으로 바뀌면 얼굴에 항구적인 인상들을 남기게 마련이다. 얼굴상이 성격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지식을 전제로 삼는 신비로운 설명들을 구하지 않고도 상으로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뚜렷한 두 가지 감정, 즉 기쁨과 고통밖에 없다.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것이다. 중간적인 감정들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는 노상 이 두 가지 감정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이 끊임없는 번갈음이, 그 감정들이 아이 얼굴에 변함없는 어떤 인상도 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얼굴이 어떤 특징을 띠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나 아이가 더욱 민감해져 더욱 깊이 아니면 더욱 꾸준히 감동받는 나이가 되면, 더욱 깊은 인상들이 지우기에 더욱더 힘든 자국들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적인 상태로부터, 시간이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윤곽선들의 배열이 생겨난다. 하긴 나이에 따라 얼굴 모습이 바뀌는 사람들도 보기 드물지는 않

다. 나도 그런 예를 더러 보았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습관적인 정념들 역시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는 늘 발견했다. 제대로 확인된 이 관찰만으로도 내게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또 마음의 움직임들을 외부적인 표시들에 의해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교육론에서도 이 관찰은 넣어 어색할 것이 없다.

인습적인 방식들을 흉내 내는 법과 제가 갖지 않은 감정을 꾸며 보이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나의 젊음이 더 귀여울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그가 더 인정스러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자신밖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들에 대한 애착에서 새로운 행복감을 끌어내는 사람만큼이나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감정을 속일 수 있다고는 정말 믿기 힘들다. 그런데 이 행복감 자체를 두고 말하자면, 이 점에 관해 지각 있는 독자를 이끌어 갈 만큼은, 그리고 내가 모순된 말을 하지 않았음을 납득시킬 만큼은 이미 충분히 말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 방법으로 되돌아와 말하겠다. 위험한 나이가 다가오거든 청년들에게 그들을 제지해 주는 것들만 보여 주고 그들을 자극하는 것들은 보여 주지 말라. 그들의 관능에 불 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억눌러 주는 대상물들로 그들의 싹트는 상상력을 속여 주라. 여자들의 몸치장과 뻔뻔스러움이 자연의 가르침을 앞당기거나 앞지르는 대도시들, 청년들이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가거나 알아야 될 쾌락들만 청년들에게 보여 주는 대도시들에서 그들을 멀리해 주라. 시골의 소박함이 그들 나이의 정념들을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그들의 애초의 거처로 그들을 도로 데려다 주라. 만일 그들의 예술 취미가 그들을 여전히 도시에 붙들어매거든, 바로 그 취미를 가지고 위험한 무위도식을 미리 막아 주라. 그들의 교제 · 일 · 쾌락을 조심스레 선택해 주라. 그들을 끄드기지 않고 감동시키며, 그들의 관능을 건드리지 않고 감수성을 북돋우는, 감동적이면서 수수한 그림들밖에는 그들에게 보여 주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어떤 지나침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과, 지나친 정념은, 피하고자 하는 해 이상의 해를 언제나 끼친다는 사실도 명심하라. 여러분의 제자를 간호인이나 자선회 수도사로 만드는 것이, 괴롭고 아픈 것을 노상 보여 그의 눈을 슬프

게 해 주는 것이, 병자에서 병자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그레브 광장<sup>9\*</sup>에서 감옥들로 그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비참한 광경들을 보고 그가 감동하도록 해야지 냉혹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광경에 오래 눈이 젖으면 그 인상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습관은 모든 일에 예사가 되게 한다.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상상해 보지도 않게 되며, 우리더러 남의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은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부나 의사는 죽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하도 많이 보아 냉혹해진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자는 인간의 운명과 동포의 비참을 알게 하라. 그러나 너무 자주 보게는 하지 말라. 잘 선택해서 적당한 때에 보여 준 단 하나의 대상물은 한 달 동안의 감동과 반성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보는 것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보는 것 자체보다는 본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또 그가 어떤 대상물에서 받는 인상은, 그 대상물 자체에서보다는 그것을 그에게 상기시키는 관점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례나 교훈이나 이미지들을 잘 안배해 줌으로써 관능의 자극을 오랫동안 무디게 해 줄 수 있고, 자연 자체의 방향을 좇음으로써 자연을 속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지식을 얻게 될수록 그것과 관련된 관념들을 선택해 주라. 그의 욕망이 불타오를수록 그것을 억누르기에 알맞은 그림들을 선택해 주라. 그 품행으로도 용기로도 뛰어난 어느 늙은 군인이, 자기가 어릴 때 싹트는 정욕이 자기를 여자들에게 빠지게 하는 것을 본 지각 있고도 매우 신앙심 깊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내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온갖 정성도 보람 없이 아들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고야 말게 되었다고 깨달은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매독 환자 병원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불쌍한 패거리가 끔찍한 치료를 받으며 자기네를 거기에 몰아넣은 방탕 생활을 속죄하고 있는 병실로 들어가게 했다.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곤두서는 그 흥측한 모습에 청년은 소스라칠 뻔했다. 그때 아버지는 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자아, 불쌍한 난봉꾼아, 너를 끌고 가는 그 천한 버릇을 따라가라. 머지않아 너를 이 방에서 받아 주어 너는 무척도 기쁘겠군 그래. 가장 창피한 고통에 희생된 네가 이 아비더러 네 죽음을

9\* la Grève, 파리 시청 근처의 광장. 실업자들이 몰려들고, 처형이 집행되고 하던 곳.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 이 방에서 말이다.”

청년의 가슴을 찢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곁들여진 이 짙막한 말이 그에게 영영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주었다. 신분상 청년기를 병영에서 보내게 된 그는, 동료들의 방탕을 흉내 내기보다는 그들의 갖은 놀림을 받기를 좋아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남자였지요, 약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창녀를 두려움 없이 볼 수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스승이여! 말은 별로 필요 없다. 그 대신 장소·시간·인물들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는 당신의 교훈 모두를 실례로서 보여 주라.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져도 좋다.

어린 시절을 무엇에 쓰느냐는 대단찮은 일이다. 거기 끼어드는 약에는 약이 없지도 않다. 또 거기서 생기는 선은 나중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살기 시작하는 이 첫 시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시기는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할 만큼 오래 계속되는 일이 없을뿐더러, 그 중요성이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한다. 이 시기를 연장시키는 기술을 내가 역설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잘 가꾸는 가장 좋은 규범의 하나는 모두를 되도록 늦추는 일이다. 느리고 확실히 나아가게 하라. 어른이 되기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는, 청년이 되지 못하게 막아 주라. 몸이 자라는 동안, 피에는 방향(芳香)을, 근육에는 힘을 주도록 마련된 정기가 생겨나 가다듬어진다. 여러분이 만일 그 정기더러 다른 길을 가게 한다면, 그래서 한 개체를 완성시키도록 마련된 것이 다른 것을 만드는 데 쓰인다면, 두 가지가 다 무력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자연이 하는 일은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변질이 이번에는 정신 작용에도 미친다. 그래서 몸 못지않게 약한 뇌가 무력하고 맥 빠진 기능밖에는 갖지 않게 된다. 굵고 튼튼한 팔다리가 용기도 재간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체를 잇는 기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뇌의 힘이 육체의 힘에 뒤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된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아무리 제대로 되어 있더라도, 기계의 모든 용수철에 힘을 주고 기름을 쳐 주는 이 실체를 잃어 맥없이 메말라 빠진 피부에는 원동력으로서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관들은, 여전히 약하게만 움직일 것이다. 대체로 말해서, 난봉에 빠질 수 있게 되자 난봉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젊어서 올된 타락을 면한



사람들에게서 녀의 힘이 더 많이 엿보인다. 좋은 풍습을 지닌 국민이 그렇지 못한 국민보다는, 양식에 있어, 또 용기에 있어 대체로 뛰어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후자는 오로지 자기네가 재치니 총명이니 섬세니 하고 부르는 그 뉘치 모를 알팍한 잔재주로만 뛰어나 있다. 그러나 훌륭한 행위며 미덕, 진짜 유익한 일들로 인간을 높여 돋보이게 하는 저 지혜와 이성의 위대하고 고귀한 기능들은 전자에게 밖에는 없다.

스승들은 이 시기의 열정이 젊은이를 말 듣지 않게 만든다고 투덜거리고 있고, 나 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들이 그 열정더러 일단 관능에 따라 흘러가게 두기만 하면 다시는 달리 흘러가게 할 도리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가? 현학자의 장황하고 냉정한 설교가 그 제자의 머리에서 그가 맛을 안 쾌락의 모습을 지우게 될 것인가? 그를 괴롭히는 욕망을 그의 마음에서 내쫓아 주게 되겠는가? 그가 쓸 줄 알게 된 성욕의 불을 꺼줄 수 있겠는가? 그의 머리를 차지한 유일한 행복을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그가 화내지 않겠는가? 또 그에게 이해시키지는 못하고 그에게 뒤집어씌우기만 하는 엄한 규칙에서 그는, 자기를 괴롭히려 드는 한 인간의 변덕과 증오 말고는 또 무엇을 보게 되겠는가? 그가 대들고 이번에는 그가 그 인간을 미워하게 된다 해서 이상할 것이 있는가?

자신이 너그러워지면 보다 무난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외관상의 권위를 유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억제해 주어야 할 악덕들을 오히려 부추겨 주지 않고서는 자기 제자에 대해 유지되지 않는 권위 라면 그게 무슨 소용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마치 화난 말을 진정시키려고 마부가 그 말을 낭떠러지로 뛰어들게 하는 것과도 같다.

청년의 이러한 열정은 교육의 장애이기는커녕, 교육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열정에 의해서다. 청년이 여러분보다 덜 강하지는 않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고삐를 여러분에게 잡혀 주는 것이 바로 이 열정이다. 그의 첫 애정들은 여러분더러 그의 마음의 온갖 움직임을 이끌게 해 주는 고삐다. 자유롭던 그가 이제는 순종하게 된 것이다. 그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던 동안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요



구예박에는 얽매어 있지 않았었다. 사랑하기 시작하자 제 애착에 얽매이게 된다. 그를 인류와 결합시키는 첫 유대가 이리하여 생겨난다. 싹트기 시작하는 그의 감수성을 인류 쪽으로 이끌어 주기만 하면 그 감수성이 당장 모든 사람을 껴안게 되리라고는, 그래서 인류라는 이 단어가 그에게 어떤 뜻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천만에, 그 감수성은 처음에 제 동류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다. 그래서 동류들이란 그에게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있는 자들, 습관에 의해 다정해지거나 필요해진 자들, 저와 공통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갖고 있음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 제가 겪은 고통에 처해 있고 제가 맞은 기쁨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자들, 한 마디로 말해서 본성의 닮은 점이 보다 뚜렷해 서로 사랑할 생각이 더욱더 나게 해 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개념들을 인류라는 추상 관념 속에 하나로 묶게 되고, 자기를 자기 동류와 하나가 되게 해 줄 수 있는 애정을 자신의 개인적인 애정과 합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제 천성을 여러모로 가꾼 다음, 자신의 감정들과 남들에게서 관찰될 감정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다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그는 남들의 애착에도 민감해지며,<sup>10</sup> 그래서 그 애착의 표시에도 주의 깊어진다. 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지 알겠는가? 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의 마음 둘레에다 여러분은 얼마나 술한 쇠사슬을 둘러친 셈인가! 눈을 떠 자신을 보고 저를 위해 여러분이 해 놓은 일을 알아채게 될 때에는 그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자기를 같은 또래의 또 청년들과 비교하고, 여러분을 또 가정 교사들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될 때에 말이다. 그가 알아채게 될 때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말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이 말해 주고 나면 그가 알아채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쏟아 준 정성의 대가로서 그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는 체하면서 자기에게 빚을 지게 하고 자기가 동의한

10 애착은 보답 없이도 지탱될 수 있지만, 우정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우정은 하나의 주고받기며, 단 계약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계약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계약이다. '친구(ami)'라는 낱말에는 단 상관어가 없다. 자기 친구의 친구가 아닌 사람은 다 영락없이 사기꾼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정에 보답하거나 보답하는 체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적 없는 계약으로 자기를 묶을 속셈이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고 덧붙여 본들 헛일이다. 어쨌든 여러분은 요구하고 있는 셈이고, 그의 동의 없이 여러분이 해 준 일을 내세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가난뱅이가 남이 거저 주는 체하는 돈을 받고 군에 징집된다면 여러분은 그 부당함을 비난한다. 여러분의 제자가 인정하지도 않은 뒷바라지의 값을 청구하는 여러분은 이보다 더 부당하지 않은가?

비싼 이자를 붙여 베푸는 은혜들이 덜 알려졌만 있어도 배은망덕은 더욱 드물어질 것이다. 자기에게 잘 해 주는 자를 사랑하게 마련이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사람 마음속에 배은망덕은 없지만 이기심은 있다. 타산적인 은인들보다는 은혜를 입고 잇는 자들이 적다. 여러분이 선물을 내게 팔겠다면 나는 값을 흥정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제값으로 팔려고 거저 주는 체한다면 여러분은 사기를 하는 것이 된다. 선물이 귀중해지는 것은 공짜이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은 자신의 법칙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들면 놓아주게 된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붙잡게 된다.

낙시꾼이 물에 미끼를 뿌리면 고기가 와서 방비도 않고 그 둘레에 머무른다. 그러나 미끼 속에 감추어진 바늘에 걸리면 낚싯줄이 당기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고 애쓴다. 낚시꾼은 은인이고, 고기는 배은망덕자인가? 은인에게 잊힌 사람이 은인을 잇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그는 늘 기꺼이 은인 이야기를 하고, 감동 없이는 은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어떤 뜻하지 않은 봉사로써 자기가 진 신세를 잊지 않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 줄 기회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마음의 만족을 느끼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가! 얼마나 달콤한 기쁨을 느끼며 자기를 알아보게 하는가! 얼마나 감격해서 말하는가. 이번엔 제 차례군요! 라고. 이거야말로 정말이지 자연의 목소리다. 참된 은혜가 배은망덕자를 만든 적은 일찍이 없다.

그래서 고마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인 만큼, 그 효력을 여러분의 잘못으로 망쳐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성에 여러분 자신이 값을 매기지만 않는다면, 그 정성의 값을 알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제자가 그것을 고맙게 여길 것은, 그래서 그 정성이 무엇에도 깨뜨려질 수 없는 권위를 제자의 마음속에 태워 주게 될 것은 틀림없

다고 보라. 그런데 이러한 이득이 확실해지기도 전에 제자 앞에 공을 내세워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의 공을 자랑하는 것은 그에게 그 공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된다. 공을 잇는 것이 그 공을 생각나게 해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를 어른으로 대하게 될 때까지는, 그가 여러분에게 진 신세가 문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의 자신에 대한 의무가 문제되어야 한다. 그를 순하게 만들려면 완전한 자유를 주라. 여러분을 찾도록 만들려거든 여러분이 숨으라. 그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만 말해 줌으로써 그의 넋을 고귀한 감사의 감정으로 높여 주라. 남이 해 주는 일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은, 그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남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더라면 그는 여러분의 예측 상태밖에는 보지 않아 여러분을 자기 하인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그는 어떤 정다운 밋줄이 한 사람을 제가 사랑하는 것과 맺어 줄 수 있는가도 깨닫고 있다. 그래서 노상 그를 돌보게 하는 여러분의 열성에서 그는 이제 종의 애착 아닌 한 친구의 애정을 보고 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잘 알려진 우정의 목소리만큼 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친구도 틀리는 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친구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친구의 충고를 거역하는 수는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도덕의 질서로 들어간다. 인간의 둘째 단계를 우리는 막 지나 왔다. 여기가 그럴 자리라면 나는 마음의 첫 움직임들로부터 양심의 첫 목소리들이 어떻게 솟아오르며, 사랑과 미움의 작정들로부터 선악의 첫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밝혀 보겠다. 정의와 선이 그저 추상적인 말, 이해력에 의해 이루어진 도덕적인 순수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원시적인 감정의 제대로의 진보에 불과한, 이성이 비춰 주는 빛의 진짜 감정임을 보여 주겠다. 양심과는 관계없이 이성만으로는 어떤 자연의 법칙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자연의 권리도, 사람 마음의 자연적인 요구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서는 다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다.<sup>11</sup> 그런데 내가 여기서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에 관한 논설도, 어떤 유의 강의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의 질서와 진보를 우리의 정신 형성과 관련시켜 지적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여기서 지적만 하는 것을 아마 딴 사람들이 증명해 주겠지.

우리 에밀은 여태까지 자기 자신밖에는 보지 않았지만, 자기 동포들에게 그가 던지는 첫 시선은 자기를 그들과 비교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비교가 그의 마음속에 자아내는 첫 감정은 첫 자리를 바라는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애심이 자존심으로 바뀌는 시점이고, 그러한 비교와 관계되는 온갖 정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정념들 중 그의 성격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할 정념들이 인간적이고 다정한 것일는지 아니면 잔인하고 해로운 것일는지, 호의와 동정의 정념들일지 아니면 시새움과 탐욕의 정념들일지를 정하려면, 자기가 사람들 사이의 어느 자리에 있다고 그가 느낄 것인가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자리에 도달하려면 어떤 유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추구에서 그를 이끌어 주려면, 인류의 공통되는 우발 사건들에 의해 사람들을 그에게 보여준 다음, 이번에는 사람들의 다른 점들에 의해 그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자연적인 불평등과 사회적인 불평등의 척도, 사회 질서 전체의 일람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11 남이 나에게 그래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에도, 양심과 감정밖에는 진짜 근거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남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할 뚜렷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더구나 내가 같은 처지에는 결코 있게 되지 않을 것을 도덕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에는 말이다. 또 이 격률만 충실히 지키면 남도 나에게 대해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나에게 보증해 줄 것인가? 악인은 옳은 사람의 성실함과 자기 자신의 부정을 이용한다. 그는 자기만 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사람이면 대만족이다. 위와 같은 약조는, 누가 뭐라 그러건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가 않다. 그러나 넘치는 어떤 빛의 힘이 나를 내 동류와 동화시켜, 이를테면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느끼게 될 때는, 그가 괴로워하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위의 가르침의 근거는 따라서, 내가 어디 있다고 깨닫긴 나의 안락을 바라게 만드는 자연 자체 속에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자연법칙의 가르침들이 이성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 가르침들에는 더 확고한 근거가 있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은, 인간 정의(正義)의 원리다. 복음서에는 법칙의 요약으로, 윤리학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

사람들을 통해 사회를, 사회를 통해 사람들을 연구해야 한다. 정치학과 윤리학을 따로따로 다루려는 자들은, 그 어느 쪽에서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먼저 원시적인 관계들에 눈을 돌리면, 사람들이 어째서 그 영향을 받아야 하며, 거기서 어떤 정념들이 생겨나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 관계들이 늘어나고 긴밀해지는 것이 반대로 정념들의 발달에 의해서임을 알게 된다.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완력보다도 마음의 절제다. 적은 것을 바라는 자는 누구나 적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의 헛된 욕망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늘 혼동해 육체적인 필요를 인간 사회의 토대로 삼은 자들은, 늘 결과를 원인으로 보아 자기네의 모든 추리에서 빗나가기만 해 왔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 사이의 단순한 차이가 하나를 또 하나에게 예측시킬 만큼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는 깨뜨리지 못할, 사실상의 평등이 있다. 사회 상태에는 터무니없는 헛된 권리의 평등이 있는데, 그것은 이 평등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수단 자체가 이 평등을 깨뜨리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자를 억누르기 위해 최강자에게 주어진 국가 권력이, 자연이 양자 사이에 둔 일종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sup>12</sup> 사회 질서 속에서 겉보기와 실지 사이에 보이는 모든 모순이, 이 첫 모순에서 생겨난다. 언제나 다수는 소수에, 공공 이익은 개인 이익에 희생될 것이다. 정의나 종속(從屬)이니 하는 저 허울 좋은 말들이 언제나 폭력의 연장으로, 부정의 무기로 쓰일 것이다. 그 결과로서, 탄 계급들에 유익하다고 자칭하는 특별 계급들도 실은 탄 계급들을 희생시켜 제 계급 자체에만 유익할 따름이다. 정의와 이성에 따라 그런 계급들에 치르게 되어 있는 존경은 이런 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처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얻은 지위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행복에 보다 유리한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2 모든 나라의 법률에 보편적인 정신은 언제나, 약자에 대해 강자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에 대해 가진 자를 두둔하는 일이다. 이러한 폐단은 불가피하고, 또 예외도 없다.

탈을 씌워 인간을 청년들에게 보여 주는 것만이 문제라면, 인간을 애써 보여 줄 필요도 없이 그들은 늘 필요 이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탈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걸치레가 인간을 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려 보여 주려거든 있는 그대로를 그려 보여 주라.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동정하도록, 그들을 닮을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잘 된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태껏 따라온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잡는 것이, 그래서 청년을 제 경험보다는 남의 경험에 의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를 속이면 그는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위해 주면 그는 그들이 서로 속는 것을 보고 동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광경은 올림픽 경기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피타고라스는 말했었다. 더러는 거기에 가게를 내어 자기 이문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 더러는 거기에 몸을 바쳐 명예를 추구한다. 또 더러는 경기를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데, 이자들이 제일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청년이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교제 상대를 골라주었으면 한다. 세상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 주어,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인간은 나면서 착하다는 것을 그가 알아,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 옆 사람을 판단케 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질 타락시키는가를 그는 알아보아야 한다.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그들의 온갖 악덕의 근원을 그는 찾아 내어야 한다. 그는 개인 하나하나를 존경하게 되어야 하나 군중은 경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거의 같은 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하나, 얼굴을 가린 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백해야겠지만 이 방법에는 불편한 점들도 없지 않아 실천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일찍부터 관찰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로 하여금 남의 행동을 너무 가까이서 살피도록 훈련하게 되면, 그를 욕 잘하고 잘 비꼬게, 판단에 있어 단정적이고 성급하게 만들게 될 것이니까. 그는 만사에 있어 험상궂은 해석을 찾아 내고 좋은 일조차도 좋게 보지 않는 데서 알미운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

는 악덕을 보는 데 예사가 되어, 마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심 없이 보는 데 예사가 되듯이 악인들을 두려움 없이 보는 데 예사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일반 적인 패덕이 그에게는 교훈보다는 핑계거리가 될 것이다. 인간이 이렇다면 자기도 달리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를 원칙대로 가르치고 싶어, 우리의 성향을 악덕으로 쏠리게 하는 외부 원인들의 적용을 인간의 마음의 본성과 함께 그에게 이해시키려 든다면, 이렇게 감각적인 대상물에서 지적인 대상물로 그를 단번에 옮겨 줌으로써, 여러분은 그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교훈 비슷한 교훈을 주는 불편,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자신의 경험이나 그의 이성의 진보를 승의 경험이나 권위와 바뀌치는 불편, 여태껏 그토록 조심해 피해 온 불편에 여러분은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 제 마음을 해칠 위험 없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나는 그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여 주고 싶으며, 만 시대나 만 곳에 있는 그들을 보여 주어 그 무대는 볼 수 있으나 거기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 주고 싶다. 바야흐로 역사를 가르칠 시기가 온 것이다. 그가 철학 공부 없이도 사람들 마음을 읽게 될 것은 바로 역사에 의해서다. 이해 관계도 정념도 없이 단순한 구경꾼으로서, 그들의 공범자나 고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보게 될 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인 것이다.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교계에서는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말솜씨는 보여 주나 행동은 감춘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 행동이 드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하게 된다. 그들의 말까지도 그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짓과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가와 꾸며 보이고자 하는 바를 동시에 알아보게 되니까. 그들이 변장을 할수록 더 잘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딱하게도 이 연구에는 한두 가지 아닌 위험과 불편이 있다. 같은 인간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에 자신을 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의 큰 결점의 하나는 사람들을 좋은 면보다는 사뭇 더 나쁜 면에 의해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

란 혁명이나 큰 변들에 의해서만 흥미 있는 것이므로, 한 국민이 평화스러운 통치의 평온 속에서 성장하고 번영하는 동안은 역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국민이 이젠 자족할 수가 없어져 이웃 나라 일에 참견하거나, 이웃 나라가 그 나라 일에 참견하게 될 때밖에는 역사는 말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 국민이 이미 내리막 길에 있을 때밖에는 빛나게 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란 모두가 끝나야 할 데서 시작되고 있다. 서로 죽이는 국민들의 역사는, 우리는 아주 온전하게 갖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번식하는 국민들의 역사다. 역사가 해 줄 말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들은 행복하고 현명하다. 또 실상 우리 시대에도 가장 잘 꾸려 나가는 정부들은 가장 텅 입에 오르내리는 정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나쁜 일밖에는 알지 못한다. 좋은 일이 한 시대를 금 굶는 일은 거의 없다. 유명해지는 것은 악한 자들밖에 없고, 선한 자들은 잊히거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철학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노상 인류를 중상하고 있다.

뿐더러 역사에 서술된 사실들은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의 정확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어렵도 없다. 사실들은 역사가의 머릿속에서 모습이 바뀌며, 그의 이해 관계에 맞도록 빚어지고 그의 편견에 따라 채색된다. 한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보도록 누가 독자를 그 무대가 된 곳으로 어김없이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무지나 편파심이 모든 것을 변장시킨다. 역사상의 어떤 윤곽은 왜곡시키지 않고도 그것에 관련되는 상황을 늘이거나 줄이면 얼마나 판이한 양상이 그 윤곽에 주어질 수 있는가! 같은 대상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 두고 보라. 아무래도 같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보는 사람의 눈밖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의 사실을 실지로 일어난 것과는 판이하게 내게 보여 주면서 그 사실을 내게 말해 주는 것으로 진실을 존중하기에 족하겠는가? 한 그루 더 있거나 덜 있는 나무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하나의 바위가, 바람으로 인 먼지의 회오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전투의 결말을 지은 일이 그 몇 번인가? 그런데도 역시 역사가는 다 가 본 것만큼이나 확신을 가지고 때때나 승리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여전히 내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들이 그것 자체로서 내게 무슨 소용인가? 또 그 진짜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에서 내가 무슨 교훈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역사가가 그 이유 하나를 내게 주지만, 그는 그것을 조작하고 있다. 또 사람들이 그토록 떠들어 대는 비평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하는 기술 몇 가지 거짓말 중에서 진실을 제일 닮은 것을 골라잡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나 《카산드라》<sup>13\*</sup>, 아니면 그런 유의 판 책들을 읽은 적이 없는가? 작자는 알려진 사건 하나를 골라잡아 가지고는, 그것을 자기 의도에 맞추고, 자기가 생각해 낸 디테일들과 존재한 적도 없는 인물들, 가공의 인물 묘사들로 그것을 꾸며 댐으로써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만들려고 허구를 쌓아올린다. 나는 이러한 소설들과 여러분의 역사 사이에 차이를 별로 발견하지 못한다. 다만 소설가는 자신의 상상에 더 몰두하고, 역사가는 남의 상상에 더 얽매일 따름이다. 남이 바라다면 나는, 전자는 좋건 나쁘건 어떤 도덕적인 목적을 내세우지만 후자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말을 덧붙여 두겠다.

역사의 충실성은 풍속이나 성격의 진실성보다 흥미를 덜 끈다고 말하겠지.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그려져 있기만 하다면 사건들이 충실하게 보고되어 있는가는 별로 대단치가 않다고 말이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하겠지. 왜냐하면 요컨대 2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대수인가?라고. 인물 묘사가 자연 그대로 잘 되어 있다면 그 말도 옳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역사가의 상상 속에밖에는 그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피하고자 하던 불편에 다시 빠져들어, 스승의 권위에서 빼앗고자 하던 바를 작가들의 권위에 돌려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내 제자가 상상의 그림들만 보아야 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것들이 남의 손보다는 내 손으로 그려지는 편이 낫겠다. 적어도 그에게는 더 알맞은 그림이 될 것이다.

청년에게 가장 고약한 역사가들은 판단을 내리는 역사가들이다. 사실들만, 그리고는 제자 자신이 판단하게 하라. 그래야만 그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저자의 판단에 늘 끌려다닌다면 그는 남의 눈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 눈만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만다.

현대의 역사는 따돌리겠다. 그것은 비단 현대사에는 이미 특징이 없어 우리 시대

13\* 라 칼프르네드(La Calprenède, c. 1609~63)의 소설. 루소는 어릴 때 이 소설들을 읽었다(《고백》1부 참조).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로지 빛날 생각밖엔 하지 않는 우리 시대 역사가들이, 흔히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기가 일쑤인, 강렬하게 채색된 초상화들을 그릴 생각밖엔 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4</sup> 옛사람들은 대체로 초상화는 덜 그리며, 자기네 판단 속에 보다 적은 재치와 보다 많은 양식(良識)을 넣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밀한 선택은 필요해, 처음에는 가장 정확한 사람들 말고 가장 단순한 사람들을 골라야 한다. 나는 한 청년 손에 폴리비오스도 살루스티우스도 잡혀 주고 싶지 않다. 타키투스는 노인들 책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 사람 마음의 밑바닥을 파고들기 전에 그 첫 표현들을 인간의 행동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격언들을 읽어 내기 전에 사실들을 제대로 읽어 낼 줄 알아야 한다. 격언들로 된 철학은 경험에밖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젊은이는 아무것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에게 주는 교육은 다 개별적인 규칙들로 되어 있어야 한다.

투키디데스는 내가 보기에 역사가의 진짜 본보기다. 그는 사실들을 판단하지 않고 보고만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더러 그것을 판단케 하는 데 필요한 정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죄다 독자 눈앞에 놓아 준다. 사건들과 독자들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기는커녕 숨어 버린다. 이견 읽는 기분이 아니라 보는 기분이다. 딱하게도 그는 늘 전쟁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의 이야기들에서는 세상에서도 가장 덜 교육적인 것, 이를테면 전투들밖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만 명의 후퇴》와 《카이사르 사기(史記)》는 거의 같은 지혜와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인물 묘사나 격언 없이도 유창하고 소박하며, 가장 흥미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디테일들로 차 있는 좋은 헤로도토스는 그 디테일들이, 젊은이의 취미를 복돋우기보다는 망쳐 놓기에 더 알맞은 그 유치한 고지식으로 곧잘 바뀌지만 않는다면

14 다빌라, 구이차르디니, 스트라다, 솔리스, 마키아벨리를 보라. 또 때로는 드 투도, 베르토는, 인물 묘사를 하지 않고도 묘사할 줄 알던 거의 유일한 역사가다.<sup>15\*</sup>

15\* Enrico-Caterino Davilla(1576~1631), Francesco Guicciardini(1483~1540), Famiano Strada(1572~1649)는 이탈리아의, Antonio Solisy Ribadeneyra(1610~86)는 스페인의, le Président de Thou(1553~1617), l'abbé de Vertot(1655~1735)는 프랑스의 역사가. Machiavel(1469~1527)는 《군주론(Traité du Prince)》(1514)의 저자.

아마 가장 나은 역사가가 될 것이다. 그를 읽으려면 이미 판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티투스 리비우스(Titus Livius)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겠는데, 그의 차례도 올 것이다. 다만 그는 정치가이고 수사학자며, 이 나이에는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다.

통사(通史)는, 이름·장소·날짜로 고정시킬 수 있는 뚜렷이 두드러진 사실들밖에는 적지 않는다는 점에서 흠이 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의 느리고 점진적인 원인들은, 같은 식으로 제시될 수는 없어 늘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기거나 진 어떤 전투에서, 그 전투가 있기도 전에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던 혁명의 이유가 발견되는 수가 흔히 있다. 전쟁은, 역사가들이 여간해서 알아볼 줄 모르는 도덕적인 원인들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일들을 드러내어 보여 줄 따름이다.

철학 정신이 이 세기의 몇몇 작가들의 고찰을 이 방향으로 돌려주었다. 그런데 진실이 그들의 일에서 덕을 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체계에 대한 열의가 그들 모두를 사로잡고 있어, 아무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는 보려 들지 않고 자기 체계와 일치하도록 보려고만 한다.

역사는 사람들을 어떤 선택된 순간에나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밖에는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사람들보다는 행동을 사뭇 더 많이 보여 준다는 사실을, 위의 모든 고찰에 덧붙여 생각해 보라. 역사는 남에게 보이려고 몸단장을 한 공변된 인간밖에는 내놓지 않는다. 역사가 그 사람의 집이나 서재, 가족이나 친구들 속 에까지 그를 따라가는 일은 없다. 역사는 그가 무엇을 대표할 때밖에는 그를 그려 주지 않는다. 역사가 그리는 것은 그의 사람됨보다는 그의 웃이다.

인간의 마음의 연구에는 오히려 개인의 전기를 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간이 아무리 숨어도 헛일, 역사가는 그를 어디까지라도 뒤쫓게 되니까. 역사가는 그에게 숨 돌릴 순간도, 구경꾼의 캐고 드는 눈을 피할 어느 구석도 남겨 주지 않는다. 그가 용케 숨었다고 생각할 때 역사가는 그를 더욱 잘 알게 해 준다. 몽테뉴는 말하고 있다.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사진보다는 충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안에서 나오는 일을 더 좋아하는 만큼 더욱 내게는 알맞다. 그러기 때문

에 모든 점에서 플루타르코스는 내게 알맞은 사람이다.”<sup>16\*</sup>

균중이나 국민의 기질이 개인의 성격과 판이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집단에서도 검토해 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아주 불완전하게 아는 것이 되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해 판단하려면 우선 사람의 연구부터 해야 한다는 것, 또 각 개인의 성향을 완전히 아는 자는 그 성향의 국민 전체 속에 배합된 모든 작용도 예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 또한 못지않게 사실이다.

내가 이미 말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또한 비근하면서도 참되고 독특한 디테일들이 모조리 현대의 문제에서는 쫓겨나, 사람들은 개인 생활에서도 세계의 무대에 선 것 못지않게 우리 저자들 손으로 화려히 차려입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고대인들에게 힘입어야 한다. 글에서도 행동에서 못지않게 까다로운 예절은, 공중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밖에는 공중 앞에서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또 사람들을 언제나 대표자로서밖에는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책에서도 우리의 연극에서보다 더 사람들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왕들의 전기를 백번 쓰고 고쳐 써도 헛일, 우리는 수에토니우스 같은 역사가를 다시는 갖지 않게 될 것이다.<sup>17</sup>

플루타르코스는 우리가 이제 감히 그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같은 디테일들에 의해 뛰어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을 잔다란 사실들 속에서 그려 내는 데 있어 흉내 내지 못할 매력을 그는 지니고 있다. 표현법의 선택에도 하도 능란해, 흔히 한 마디 말, 한 가닥 미소, 하나의 몸짓이 주인공을 특징짓기에 족할 정도다. 한 마디 농담으로 한니발은 겁먹은 군대를 안심시켜, 이탈리아를 그에게 넘겨주게 될

16\* 몽테뉴의 《에세》Ⅱ, 10, 루소의 인용에는 틀린 데가 두 군데 있다. “안에서 나오는(part du dedans)”을 “안에서 일어나는(se passe au dedans)”으로 옮겨 썼고, “모든 점에서(en toutes sortes)”를 빠뜨렸다.

17 큰 윤곽에서 타키투스를 모방한 현대의 유일한 역사가<sup>18\*</sup>는, 세부에서는 감히 수에토니우스를 모방했고, 때로는 코미노<sup>19\*</sup>를 베끼기도 했는데, 그의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우리 사이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18\* 뒤클로(Charles Duclos, 1704~72)를 두고 한 말, 루소는 《고백》7부에서도 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내가 문인들 중에서 가진 유일한 진짜 친구다.”

19\* Comines(1445~1509)의 《회상록(Mémoires)》의 저자.

전투에 웃으며 진군하게 한다. 막대기에 걸터앉은 아게실라오스는 나로 하여금 대왕의 정복자를 좋아하게 만든다.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며 친구들과 지껄이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대등한 자밖에는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간사한 자를 무심코 가려 낸다. 알렉산드로스는 약을 삼키고 단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아리스티데스는 자기 이름을 조개껍질에 써서 자기 별명을 정당화한다. 필로포이멘은 망토를 벗어 던지고 집주인의 부엌에서 장작을 켜다. 이거야말로 그려 내는 진짜 솜씨다. 사람 얼굴은 위대한 일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고, 성격도 위대한 행동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하찮은 일들 속에서다. 국가적인 일들은 너무 흔하거나 너무 부자연스럽게 마련인데, 현대의 품위가 우리 저자들더러 엄두에 두도록 허락하는 것은 거의 이런 일들 뿐이다.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의 하나는 분명히 튀렌 씨다. 그를 이해시켜 사랑하게 만드는 잔다란 디테일들을 가지고 그의 전기를 흥미롭게 만들 엄두를 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이해시키고 사랑하게 만들었을 디테일들을 얼마나 많이 떼먹어야만 했던가. 그중의 하나만을 예로 들겠는데, 이는 출처가 확실한 이야기로, 플루타르코스라면 별 생각이 전혀 없었겠지만, 램지<sup>20\*</sup>는 알았어도 쓸 생각이라곤 없었을 것이다.

무척 더운 어느 여름날, 튀렌 자작은 짧은 흰 윗도리에 챙 없는 모자 차림으로 자기 집 응접실 창가에 있었다. 하인 하나가 불쑥 들어와서는 그 옷차림에 속아 저와 친한 숙수로 잘못 본다. 가만가만 뒤로 다가가서 날씬하지도 않은 손으로 궁둥이를 뽐나 갈긴다. 얻어맞은 사람이 얼른 돌아선다. 하인은 떨면서 주인의 얼굴을 본다. 어쩔 줄을 몰라 꿇어앉는다. “마님, 저는 조르주인 줄로만 알았습죠! 조르주라 하더라도 그렇게 호되게 때릴 건 없지 않은가” 하고, 튀렌은 엉덩이를 문지르며 소리지른다. 하찮은 사람들아! 이건 당신들이 엄두도 못 낼 말이 아닌가? 그러니 영영 자연스러운 마음씨도 인정도 없는 인간으로 있으라. 당신들의 무쇠 같은 마음

20\* Ramsai(1686~1758): 스코틀랜드 사람. 프랑스어로 《튀렌 자작 이야기(Histoire du vicomte de Turenne)》(1735)를 썼다.

을 천한 예절 속에 담가 굳히라. 품위 덕분에 멸시받을 인간이 되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고, 그 첫 충동에서조차 보이는 부드러운 마음씨를 고스란히 감동하며 느끼는 착한 청년 너는, 자기 태생이나 성이 문제가 되자 이 위대한 사람도 켜켜해 진다는 사실도 읽으라. 자기 조카아이가 최고 권력 집안의 우두머리임을 보여 주기 위해 어디서나 그 아이에게 앞자리를 양보하는 체하던 바로 그 같은 튀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 대조적인 일들을 비교해 보라. 자연을 사랑하고 편견을 멸시하라.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지도된 독서가 청년의 뜻내기 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어려서부터 책들 위에서 무디어져 생각지도 않고 읽는 버릇이 든 우리는, 사람들의 역사나 전기에 가득 찬 정념과 편견들을 이미 자신 속에 지니고 있어, 자연을 벗어나 있고 우리에 의해 남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 모두가 우리 눈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만큼 더욱 읽는 것이 감명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 격률들에 의해 교육된 청년을 상상해 보라. 18년 동안의 꾸준한 보살핌이 오로지 그에게 공정한 판단력과 건전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 삼아 온 나의 에밀을 생각해 보라. 막이 오르자 세상이라는 무대에 처음으로 시선을 던지는 그를. 아니 그보다도 무대 뒤에 자리잡고 배우들이 의상을 입고 벗는 것을 바라보고, 그 엉성한 마술이 관중의 눈을 속이는 밧줄이나 도르래를 세고 있는 그를 상상해 보라. 그의 첫 놀라움에 이어 자기 동류에 대한 수치와 경멸의 감정이 곧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속은 온 인류가 이런 어린애 장난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그는 분개할 것이다. 자기 형제들이 꿈같은 일들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것을 보고,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 서글퍼할 것이다.

제자의 타고난 소질과 함께 선생이 독서에 조심성과 선택만 베풀어 준다면, 독서에서 끌어낼 심사숙고의 길에 그를 들어서게만 해 준다면, 이러한 혼란이 그에게는 틀림없이 실천철학의 강의가, 우리네 학교들에서 청년들의 머리만 혼란시키는 그 온갖 헛된 공리공론보다는 분명 낮고 더 잘 된 강의가 되어 줄 것이다. 피로스

<sup>21\*</sup>의 꿈같은 계획을 들고 난 키네아스가, 그에게 그러한 세계 정복이 실지로 어떤 행복을 갖다 줄 것이냐고, 그토록 고생하지 않고도 행복을 지금 당장 즐길 수는 없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그럴듯한 말밖에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에밀은 제가 처음 한 것이 될 아주 현명한 고찰을 거기서 보게 될 것이며, 그 고찰은 그 인상가로 막을 수 있는 어떤 편견도 그의 머리에서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서 결코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어 이 주책바가지의 전기를 읽어, 그의 거창한 계획 모두가 필경은 한 여자의 손에 죽으려고 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그 이른바 영웅적인 행위에 감탄하기는커녕, 그렇듯 위대한 장군의 모든 무훈에서, 그렇듯 위대한 정치가의 모든 책략에서, 그의 생애와 계획을 창피한 죽음으로 끝장내게 될 그 불길한 기왓장을 찾아 그만큼이나 멀리 갔다는 사실 말고는 무엇을 알아보게 될 것인가?

모든 정복자가 다 맞아 죽은 것은 아니다. 모든 찬탈자가 다 모사에 실패한 것은 아니어서, 더러는 속론에 물든 사람들 눈에는 행복하게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허울에 끌리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자는, 그들의 성공에서도 그들의 비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짓찢는 욕망과 걱정들이 그들의 행운과 더불어 늘어나고 커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가닿지는 못하면서 나아가느라고 숨만 찬 그들을 보게 될 것이며, 처음으로 알프스 산맥에 덩벼들어 산 하나를 넘을 때마다 산맥을 다 넘은 것으로 생각하나, 꼭대기에 올라서면 앞에 더 높은 산들을 발견하고는 낙담하는 저 경험 없는 나그네들과도 비슷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적수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일찍이 있었던 가장 큰 제국을 40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나 전멸된 자기 군단들을 돌려 주도록 바루스에게 요구하느라고 자기 머리로 벽을 치고 그 널따란 궁전이 쩡

21\* 플루타르코스의 《피로스의 생애(Vie de Pyrrhus)》에서의 인용. 피로스는 무모한 정복자의 전형이나, 아르고스에서 한 노파가 지붕에서 던진 기왓장에 맞아 죽었다. 키네아스(Cynéas)는 그의 현명한 신하.

정 올리도록 소리지르는 것을 그 거대한 권력이 막아 주던가?<sup>22\*</sup> 고생이 온갖 자기 둘레에서 노상 생겨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를 죽일 궁리만 하고, 모든 근친들의 파렴치나 죽음에 그는 눈물을 쏟아야만 하던 판에, 설사 그가 모든 적을 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헛된 승리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이 불우한 사나이는 세계를 다스리고자 했지만, 자기 집을 다스릴 줄도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태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자기 조카와 양자와 사위가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것을 보았다. 그 손자는 비참한 생애를 몇 시간 더 연장시키려고 침대 속 털을 먹어야만 했다. 딸과 손녀는 창피한 짓으로 그를 망신시키고는, 하나는 무인도에서 굶핍과 굶주림으로, 또 하나는 감옥에서 옥사정 손에 죽었다. 불우한 집안에 마지막 살아남은 그 자신도 마침내는 자기 아내 때문에 후계자로서 괴물 하나밖에 남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 명예와 행운으로 그토록 찬양받던 이 세계의 지배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었다. 그 명예와 행운을 찬양하는 자들 중의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은 값을 치러 그것을 얻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되는가?

나는 야심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인간의 온갖 정념은, 자신을 알고 죽은 자들을 희생시켜 현명해지려고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비슷한 교훈들을 제공해 준다. 안토니우스의 생애가 아우구스투스의 그것보다 청년에게 더 가까운 가르침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에밀은 새로운 공부를 하는 동안 그의 눈을 놀라게 할 이상한 대상들 속에서 자기 모습을 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념들이 생겨나기 전에 그것들의 환상을 미리 멀리할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정념들이 사람들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그는, 설사 자기가 그것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것이 자기를 눈멀게 할 수 있을 방법을 미리 알아채게 될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교훈들이 그에게 알맞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아마 필요할 때는 그 교훈들이 뒤늦은, 불충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공부에서 내가 끝

22\* 수에토니우스의 《아우구스투스의 생애》 23. 몽테뉴의 《에세》 I, 4에 인용되어 있다.

23\* “정념들의 극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끄드기는 것은 언제나 편견이다. 있는 것밖에는 보지 않고, 자기 아는 것밖에는 평가하지 않는 자는, 열광하는 일이 결코 없다. 우리의 판단의 잘못이 우리의 모든 욕망의 극성을 낳는다.” (P의 원주).



어내고자 한 것이 이러한 교훈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나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른 목적을 꾀하고 있었다.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선생의 잘못이 될 것이다.

자존심이 발달하자마자 상대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그리고 청년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남들을 관찰하지 않아, 자신을 그들과 비교한다는 점을 생각하라. 그러니 동류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들 사이의 어떤 자리에 자신을 두게 될까를 아는 것이 문제다. 청년들에게 역사를 읽히는 방식을 보고 나는, 그들을 이룰테면 그들이 보는 온갖 인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키케로로, 때로는 트라야누스로, 때로는 알렉산드로스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자기 생각을 할 때 낙담하게 만들려고 말이다. 자기밖에 되지 못한 아쉬움을 저마다에게 느끼게 해 주려고 말이다. 이 방법에는 나도 부정하지 않는 어떤 이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 예밀로 말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아닌 판 사람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비교를 하는 일이 있다면, 설사 그것이 소크라테스이건 카토이건 만사는 다 실패한 것이다. 자기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자는 이내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된다.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철학자들은 아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의 편견을 통해 서밖에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 편견을 이만큼이나 가진 상태를 나는 통 알지 못한다. 미개인도 철학자가 하는 것보다는 더 건전하게 우리를 판단한다. 철학자는 자기 악덕을 깨닫고 우리의 악덕에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한다. 우리는 다 악인이라고. 미개인은 감동하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들은 미치광이라고. 그의 말이 옳다. 왜냐하면 아무도 악을 위해 악을 행하지는 않으니까. 내 제자는 이러한 미개인이다, 다만 더 많이 생각하고 관념들을 더 많이 비교해 보고 우리의 잘못을 더 가까이서 본 예밀이 자신을 더욱 경계하고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밖에 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남들의 정념에 대해 우리를 꼬드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념이다. 우리더러 악인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 관계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미움보다는 동정심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악

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그들이 자신에게 끼치는 해를 우리더러 잊게 한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그들의 악덕을 얼마나 심하게 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만 있어도 우리는 그들의 악덕을 더욱 쉽사리 용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는 느끼나 벌은 보지 않는다. 이득은 드러나 보이나 고통은 속에 숨어 있다. 자기 악덕의 열매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보다 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바뀌어도 불안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행운을 보여 주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어도 헛일, 그들의 행동이 그들 모르게 그 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기 위해 비슷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도 같이 느끼는 정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의 이해 관계를 건드리는 정념들이 우리를 꼬드키며, 그 정념들이 우리에게 가져 오는 모순 때문에 우리는 제가 흉내 내고 싶어 하는 바를 남들에게서는 비난한다. 자기도 그 처지라면 하게 될 악을 자기가 마지못해 당하게 될 때는 반발과 착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큰 관심,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큰 공정성, 인간의 모든 정념들을 이해할 만큼 민감하고 그 정념들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잔잔한 마음. 이러한 연구에 알맞은 시기가 일생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에밀을 위해 선택한 시기다. 더 이르면 사람들이 그에게는 생소했을 것이고, 더 늦으면 그가 사람들과 비슷해졌을 것이다. 그가 그 농간을 보는 여론이 아직은 그를 지배할 힘을 얻지 못했다. 그가 그 결과를 느끼는 정념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 일도 없다. 그는 인간이며, 자기 동포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공정하며, 자기 패들을 판단한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제대로 판단한다면 분명 자기를 그들 중의 누구와도 바꾸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서 하는 온갖 고생의 목적은, 그는 갖지도 않은 편견들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에게는 허공에 뜬 목적으로만 보일 테니까. 그에게는 그가 바라는 것 모두가 손 닿는 데 있다. 스스로 자족해 편견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가 누구에게 의존하겠는가? 그는 팔을, 건강을,<sup>24</sup> 절도(節度)를 갖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욕망과

24 나는 건강과 좋은 체질을, 그가 교육에서 얻은 이득 속에, 아니 오히려 교육 때문에 그가 간직해 온 자연의 선물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채울 방법을 갖고 있다. 가장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은 예측이다.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자 모두의 노예인 저 불쌍한 왕들을 그는 동정한다. 헛된 명성에 묶여 있는 저 가짜 현인들을 그는 동정한다. 자기들의 호사의 순교자인 저 어리석은 부자들을 동정한다. 기쁨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온 평생을 권태 속에 빠져 사는 저 허울뿐인 난봉꾼들을 동정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적도 동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의 악의 속에서 적의 비참을 그는 보게 될 테니까. 그는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저 사나이는 나를 해칠 필요를 스스로 궁리해 냄으로써 제 운명을 내 운명에 예측시키고 말았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목적에 가닿는다. 자존심은 쓸모 있으면서도 위험한 연장이다. 그것을 쓰는 손에 상처를 입히기가 일쑤며, 곳은일 없이 좋은 일만 하는 일은 드물다. 에밀은 인류 속의 자기 지위를 생각하고 자신이 그토록 유리하게 놓인 것을 알고는, 여러분의 이성이 한 일을 자기 이성의 명예로 삼고, 자신의 행운의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그는 혼잣말하겠지. 나는 현명하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 자신을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는 그는 행복할 자격이 더 있다고 자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잘못인데, 그것은 가장 고치기 힘든 잘못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온갖 정성에서 그가 얻은 것이 얼마 없게 될 것이고, 만일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면, 교만의 착각보다는 편견의 착각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뛰어난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뛰어난을 알아보고 깨닫지만, 그래서 덜 겸손하지는 않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에게 없는 것 모두도 더 잘 안다. 우리보다 높이 있음을 뽐내기보다는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겸손해진다. 좋은 것들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그런 선물을 자랑하기에는 너무도 분별이 있다. 덕 있는 사람은, 그 덕이 자기 것이므로 그것을 자랑삼을 수 있다. 그런데 재사는 무엇을 자랑삼는가? 라신은 프라동이 되

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가? 부알로는 코탱이 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가?<sup>25\*</sup>

여기서는 이것 역시 전혀 딴 문제다. 언제나 평범 속에 머물러 있기로 하자. 나는 내 제자 속에 뛰어난 천재도 아둔한 지능도 가정한 일은 없다. 교육이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바를 보여 주려고 나는 보통 머리들 중에서 그를 택했다. 드문 케이스들이란 다 규칙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에밀이, 내가 돌봐 준 결과로서 자신의 살고, 보고, 느끼는 방식을 남들의 그것보다 좋아한다면, 에밀은 옳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천성을 가졌다고, 더 행복하게 태어났다고 자부한다면, 에밀은 틀렸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하며, 그보다도 실수를 미리 막아 주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는 너무 늦어 그것을 고쳐 주지 못하게 될지 염려가 되니 말이다.

미치지만 앓은 사람이라면 깨우쳐 줄 수 없는 광기란 없다, 허영심만 빼놓고, 허영심으로 말하자면, 경험밖에는 아무도 고쳐 줄 자가 없다, 그나마 고쳐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말이다.<sup>26\*</sup> 그것이 생겨날 때에는 적어도 자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그러니 청년더러 그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니 같은 약점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공연한 추리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랑 하려 들지 말라. 그더러 그것을 깨닫게 해 주라. 아니면 영 알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 또한 여기서는 본래의 내 규칙들에서는 벗어나는 케이스다. 그가 우리보다 더 현명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그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온갖 사건들에다 내 제자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케이스다. 요술쟁이의 모험이 가지각색으로 되풀이될 것이고, 아침꾼들 더러는 선수를 치게 두는 셈이 될 것이다. 주책바가지들이 어떤 엉뚱한 짓에 그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험잡꾼들이 노름에서 그에게 덤벼들면 나는 그를 그들에게 내맡겨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sup>27</sup> 그들이 그를 슬슬 구슬려 옴아 내고 털어먹도록 내버려 두겠

25\* Nicolas Pradon(1632~98)과 Charles Cotin(1604~82)은, Boileau가 야유한 작가와 설교가.

26\* C에서는 “깨우쳐 줄(désabuser) 수 없는……”이 “고쳐 줄(guérir) 수 없는……”으로, 둘째 줄과 셋째 줄의 “고쳐 줄……”의 guérir가 corriger로 정정되어 있다.

27 하기와, 술한 재미있는 일들에 둘러싸여 있어 여태껏 따분하게 여겨 본 적이 없고, 또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도 알지 말지 한 내 제자가, 그런 함정에 걸려들 리는 만무하지만,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두

다. 그러다가 빈털터리로 만들고 나서 그를 비웃게 되면, 나는 아직 그들이 있는 앞에서 그들이 베풀어 준 교훈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내가 조심해서 막아 주게 될 함정들은 창부들의 함정뿐일 것이다. 그를 위해 내가 갖게 될 조심은, 그로 하여금 무릅쓰게 둘 온갖 위험과 받게 둘 온갖 모욕을 나도 나누어 가지는 일뿐일 것이다. 나는 원망도 책망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입 밖에 내는 일 없이 잠자코 모든 일을 견뎌 낼 것이며, 이런 꾸준한 조심만 가지고 나가면, 그가 보게 될, 내가 자기를 위해 겪는 모든 고생이 그가 스스로 한 고생보다는 더한 인상을 그의 마음에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라.

여기서 나는, 어리석게도 현자 노릇을 하려고 자기 제자를 깎아 내리고, 늘 아이로만 대해 무슨 일을 시키건 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만 드는 가정 교사들의 그 거짓 위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젊은 용기를 꺾지 말고, 그들의 넋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라.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라. 아직은 여러분 높이에 달할 수가 없다면 부끄러움이나 꺼림 없이 그들 있는 데로 내려가도록 하라. 여러분의 명예가 이미 여러분 속이 아니고 제자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라. 제자의 잘못을 고쳐 주려거든 그 잘못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제자의 수치를 씻어 주려거든 그 수치를 같이 뒤집어쓰도록 하라. 자기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도 불러 모을 수가 없자, “저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부대장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부하들 선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저 용감한 로마인<sup>28\*</sup>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는 명예가 깎였던가? 천만에, 자기 명예를 그렇게 희생시킴으로써 오히려 명예를 높였던 것이다. 의무의 힘과 미덕의 아름다움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동감을 부추

가지 원동력은 이해 관계와 허영심인 만큼, 바로 이 두 가지 힘은 나중에 그들을 가로채려는 창부나 협잡꾼들에게도 소용되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욕심이 보수나 상으로 꼬드겨지는 것을 보면, 10살 때, 교내 행사에서 갈채받는 것을 보면, 20살이 되면 어떻게 지갑을 도박장에서 털고 건강을 갈보집에서 버리게 되겠는가를 알게 된다. 반에서 제일 재주 있는 아이가 노름이나 난봉도 제일 잘 하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그런데 어릴 때 쓰이지 않은 방법은 청년기에도 악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의 한결같은 격률이,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악덕을 애써 예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그것을 가정해 보는 것이다.

28\* 플루타르코스의 《카이우스 마리우스의 생애》, 40에 나오는 카툴루스(Catulus) 장군.

져 우리의 지각없는 편견을 뒤집어 놓는다. 나는 에밀을 위한 내 직책을 완수하다가 설사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 따귀에 앙갚음을 하기는커녕 어디에 가서나 그것을 자랑하겠다. 또 그래서 나를 더욱 존경해 주지 않을 만큼 비열한 사람<sup>29\*</sup>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제자가 스승을 자기 못지않게 좁은 지식과 자기와 똑같이 유혹에 잘 넘어가는 어수룩함을 지닌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것도 볼 줄도 비교할 줄도 몰라 모든 사람을 자기와 능력이 같은 것으로 보고 실지로 그럴 줄 아는 자들밖에는 믿지 않는 그런 아이에게는 괜찮다. 그러나 에밀 또래로 에밀 만큼이나 지각 있는 청년은 이미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도 않거니와 또 그래서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교사에 대해 가져야 할 신뢰는 유가 다르다. 그 신뢰는 이성의 권위에, 지식의 뛰어남에, 청년도 이해할 수 있어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함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이득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지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지도자가 자기의 행복을 바라며 그것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현명하고 식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스승도 제자처럼 잘 속아 넘어간다면, 제자에게 존경을 요구하고 교훈을 줄 권리를 잃고 말 것이다. 하물며 제자가, 스승이 자기를 일부러 뒷에 걸려들게 두며, 단순한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탈을 동시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낮고 자연스러운 것은, 제자처럼 단순하고 진실해지는 일이다. 그가 빠져드는 위험을 경고해 주는 일이다. 과장이나 흥분·현학적인 과시 없이, 더구나 충고가 명령으로 바뀌어 명령적인 어조가 꼭 필요해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충고를 명령으로 주는 일 없이, 그 위험들을 그에게 분명하게 뚜렷이 보여 주는 일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러고 나서도 그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때는 아무 말도 더 해 주지 말라. 제멋대로 내버려 두라, 그를 뒤따르고 그의 흥내를 내라. 그것도 꽤활하고 숨김없이 말이다. 가능하다면 그와 똑같이 몰두하고 즐기라. 결과가 너무 중대

29\* “내가 틀렸다. 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 발견했다. 포르메이 씨다.” (C의 원주).

해지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가로막을 태세가 되어 있다. 더구나 여러분의 선견지명과 친절의 목격자인 청년이, 얼마나 동시에 그 선견지명에 놀라고 친절에 감동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의 모든 잘못은 바로 필요할 때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그가 여러분에게 잡혀 주는 고빠다. 그런데 여기서 스승의 가장 큰 숨씨가 되는 것은, 그를 결코 너무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어디서나 경험의 교훈으로 둘러싸 주기 위해서는, 청년이 언제 말을 듣고 언제 고집을 부릴지를 자기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훈계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가 잘못에 빠져들기 전에 경고해 주라. 빠져들었을 때는 나무라지 말라. 그의 자존심을 불질러 꼬드길 뿐일 테니까. 반항하게 만드는 교훈은 이될 것이 없다. “내가 너한테 그 말을 그토록 해 두었는데.” 이 말보다 더 얼빠진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해 준 말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을 잊어버린 체해 보이는 일이다. 반대로 여러분 말을 믿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보이거든, 좋은 말로 그 부끄러움을 가만가만 지워 주라. 자기를 위해 여러분이 저를 잊는 것을 보고, 자기를 짓밟아 버리지 않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의 상심에다 꾸지람을 끼얹어 주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충고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이 여러분 말에 다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투 또한, 그가 그것을 교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만큼 더욱 그에게는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술한 판 사람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에게 말해 주면, 그의 의표를 찌르게 된다. 여러분은 그를 동정해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를 고쳐 주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판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자부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본보기 삼아 자위한다는 것이 정말 굴욕적인 핑계이니까. 자기가 바랄 수 있는 것이 기껏해서 남들이 자기보다 낫지도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되고 만니까 말이다.

잘못의 시기는 우화의 시기다. 잘못된 자에게 엉뚱한 탈을 씌워 트집 잡음으로써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도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진리에 의해 그 우화가 거짓말이 아님을 이해한다. 칭찬에 속아 본 적이 없는 아이는, 내가 앞서 검토해 본 우화<sup>30\*</sup>에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알랑쇠 한테 금방 속아 넘어간 출랑이는 까마귀가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썩 잘 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사실에서 하나의 격률을 끌어낸다. 그리고 그가 이내 잊어버릴 경험이 우화 덕분에 그의 판단력 속에 새겨진다. 남의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 얻어질 수 없는 도덕 지식이라곤 없다. 이 경험이 위험스러운 것일 경우에는, 몸소 경험하지 않고도 역사에서 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 시련이 대단한 것이 아닐 때는 청년이 당하도록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알려진 특수 케이스들이 우화에 힘입어 격률로 요약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격률들이 부연되거나 딱 떨어지게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다. 대부분의 우화들을 마무리는 그 교훈만큼 헛되고 아리송한 것은 없다. 마치 그 교훈이 우화 자체 속에서 독자에게 감지될 수 있도록 펼쳐져 있지 않거나 펼쳐져서는 안 되되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도대체 그러한 교훈을 왜 끝마다 덧붙여서 그것을 스스로 찾아 내는 기쁨을 독자로부터 빼앗는 것일까. 가르치는 재능이란 제자더러 그 가르침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좋아하게 되려면, 그의 머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에 언제나 너무 수동적이어서,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 할 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 스승의 자존심은 언제나 제자의 자존심에 얼마간의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파고든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배우고 있다고, 제자가 혼잣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희극의 판탈로네를 따분하게 만드는 것의 하나는, 누구나 이미 너무도 잘 아는 시시한 것들을 관람석에 설명해 주려고 판탈로네가 쓰는 애다.<sup>31\*</sup> 가정 교사가 판탈로네가 되는 것은, 더구나 작자가 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 아니다. 자기 말을 언제나 알아듣게는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늘 다 말해 버려서는 안 된다. 다 말해 버리는 자는 하찮은 것밖에 말하지 못한다. 끝에 가서는 이미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말이다. 배를 부풀리는 개구리의 우화에 라퐁텐이 곁들이는 저 시구는

30\* 본서 제2부에 나오는 〈까마귀와 여우〉.

31\* 판탈로네(Pantalone)는, 아를르퀼(Arlequin)에게 노상 속아 넘어가는, 구두쇠인 색골 노인.



무엇을 뜻하는가? 그 우화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인가? 이 위대한 화가도, 자기가 그리는 것들 밑에다 그 이름들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 교훈을 일반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수화시켜, 이를테면 든 예들에다 교훈을 한정시켜 남이 다른 예들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남이 따르지 못할 작가의 우화들을 한 청년의 손에 넘겨주기 전에, 그가 재미있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온 바를 또 애써 설명하고 있는 그 결론들을 모조리 삭제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제자가 만일 설명의 도움 없이는 우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명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청년의 감정과 지식의 발달에 보다 알맞은, 보다 교육적인 차례를 이 우화들에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필요도 기회도 생각하지 않고 이 책의 번호 차례만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만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맨 먼저 까마귀, 다음에 매미,<sup>32\*</sup> 다음에 개구리, 그다음에 두 마리의 노새 등등으로 말이다. 나는 이 두 마리의 노새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그것은 재정가가 되도록 교육받아 앞으로 맡게 될 일로 노상 야단만 맞던 한 아이가, 그 주어진 직업에 대해 조금도 반감을 느끼는 일 없이 이 우화를 읽고 배우고 말하고 백번 천번 다시 말하는 것을 본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이 제가 배우는 우화들을 꾸준히 응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누가 아이들더러 그러한 응용을 시키려고 드는 것도 본 일이 없다. 이러한 공부의 구실은 도덕 교육이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이의 진짜 목적은, 아이가 우화를 암송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의 주의를 아이에게 쏠리게 하는 일뿐이다. 그러기에 아이가 자라서 이젠 그 우화들을 암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일 때에는 그것들을 모조리 잊고 만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화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젠 에필을 위해서도 시작할 때다.

좋은 길에서 벗어나는 길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것들을 멀리서부터 보여 주겠다. 왜냐하면 나도 다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가 가리킨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제자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되도록 싼 값으

32\* “여기서도 포르메이 씨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매미, 다음에 까마귀, 등등.” (C의 원주).

로 사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운명의 꾀받는 자들의 팔자를 부러워하는 일 없이 운명의 장난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자기를 남들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일 없이 자신에 만족할 수 있는 지점에 여러분이 그를 놓아주게 되리라고 말이다. 여러분은 또한 그를 관객으로 만들기 위해 배우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끝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관람석에서는 대상물들이 나타나는 그대로 보이지만, 무대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전망 지점에 몸을 두어야 한다. 세부를 보려면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청년은 무슨 자격으로 세상일들에 개입하게 될 것인가? 그 캄캄한 신비 속에 끼어들 어떤 권리를 그는 갖고 있는가? 쾌락의 음모들이 그의 나이의 관심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아직 자기 자신밖에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마치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다. 인간은 가장 값싼 물건이며, 우리의 소중한 소유권들 중에서 인권은 언제나 가장 하찮은 권리다.

가장 활동적인 나이에 청년들이 순이론적인 공부에만 갇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나서 조금도 경험이 없이 단박 세상에, 세상일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 나는, 사람들이 자연 못지않게 이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행동하는 기술이 전혀 무시되는 판에, 머리가 어떻게 묘하게 돌아갔기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많은 무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를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저마다 독방에서 혼자 생각하거나, 상관없는 사람들과 허공에 뜬 문제들을 논하는 데 일생을 보내어야 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몸을 어떻게 비트는 법이나 무의미한 말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또한 내 에밀에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더구나 제 빵을 벌 줄 아는 법을 나는 그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상에서 살아 나가려면 사람들과 수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휘어잡는 연장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민 사회에서의 개인 이해 관계의 작용과 반작용을 계산해야 하고,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적어도 성공하기 위해 언제나 가장 나은 방법은 취한 것이 되도록, 사건들을 똑바로 예측해야 한다. 법률은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자

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규정된 나이가 되도록까지 아무런 경험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배려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기다려 봤자 아무 이득도 없어, 25살이 되어도 15살 때와 똑같이 풋내기일 것이다. 무지로 눈이 멀거나 정념에 속은 청년이 자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이 때나 남에게 친절할 수는 있는 것이고, 어느 나이 때나 현명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 의지가치없는 불쌍한 자들을 보호할 수는 있다.

유모나 어머니들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정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애착을 갖게 된다. 사회적인 미덕의 실천이 인류애를 사람들 마음 밑창에 심어 준다. 사람이 착해지는 것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제자더러 힘 닿는 모든 선행은 다 하도록 시키라. 극빈자들의 이해 관계가 바로 그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해 주라. 지갑만 가지고가 아니라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돕도록 해 주라.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자기 몸과 시간을 그들에게 바치게 하라. 그들의 대리인이 되게 하라. 그가 평생 이보다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미덕의 실천에서 얻어지는 그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들을 위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따지게 되면, 누가 귀담아 들어준 적도 없던 얼마나 술한 피압제자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그가 귀족이나 부자들 집 문을 밀치고 들어가게 되면, 또 필요하다면, 가난해서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뿐더러 해를 입고도 벌받을까 봐 겁이 나 감히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 달라고 왕의 옥좌 밑까지도 그가 나아가게 되면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에밀을 떠돌이 기사나 험객, 험사로 만들 것인가? 나랏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고관대작이나 군주 앞에 가서 현자나 법의 수호자가 되고, 법정의 판사나 변호사 앞에서는 청원 운동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은 사물들의 본질을 전혀 바꿔 놓지 않는다. 그는 유익하고 좋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의 첫 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행동에 있어 조심성이 있어

야 한다는 것, 손윗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해야 한다는 것, 까닭도 없이 지껄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 아무래도 좋은 일에서는 겸손하나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담대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공직을 맡는 것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정의를 섬기고 좋은 풍습을 보호함으로써 자기 교육을 한다는 목적 외의 또 목적 없이, 죄악을 몰아 내고 죄 없는 자들을 옹호하는 일로 젊은 날을 보내던 저 유명한 로마인들이 그랬었다.

에밀은,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법석이나 싸움은 좋아하지 않는다.<sup>33</sup> 그는 두 마리 개를 싸우도록 꼬드긴 적이 없다. 개더러 고양이를 몰아 대개 한 적이 없다. 이러한 평화 정신은,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부추기지 않아 지배나 남의 불행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게는 만들지 않은 교육의 결과다.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그도 괴로워한다. 이는 자연 감정이다. 청년이 몰인정해져 감각 지닌 생물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약삭빠른 허영심이 자기는 지혜나 높은 지위 때문에 같은 고생들은 면제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 때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난 자는 그 생각의 소산인 악덕에 빠질 줄을 모를 것이다. 에밀은 그

33 그러나 누가 그에게 싸움을 걸어 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결코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싸움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하겠다. 그럼 또 되겠지. 하지만 부랑배나 술주정뱅이의, 또는 사람 죽이는 재미를 보려고 창피부터 주기 시작하는 깡패의 따귀나 시비를 누가 면할 수 있느냐고? 그것은 또 문제다. 시민의 명예나 생명이 부랑배나 술주정뱅이나 깡패 손에서 놀아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고란 기왓장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도리도 없는 것이다. 따귀나 시비를 당하고 참게 되면, 아무리 현명해도 미리 막을 수 없고 어떤 법정도 창피당한 자의 복수를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결과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자주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는 창피를 준 자와 자기 사이의 유일한 사법관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 자연법의 유일한 해석자·집행자로서 스스로 재판할 의무가 있을뿐더러 자기만이 재판할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 그랬다고 해서 벌을 줄만큼 물상식한 정부는 지구 위에 하나도 없다. 맞붙어 싸워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엉뚱한 것이니까. 스스로 재판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내가 만일 군주라면, 결투를 금하는 그 술한 소송 없는 법령 없이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따귀를 치거나 시비 거는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는 것을 장담하며, 그나마 법정은 참견도 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다. 어쨌든 에밀은 그런 경우에 스스로 재판을 해야 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굳센 사람도 누가 모욕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모욕한 것을 오래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는 것이다.

래서 평화를 사랑한다. 행복의 모습이 그를 즐겁게 하며, 그가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은 또한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불쌍한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 대해, 구해 줄 수도 있는 그 불행을 동정만 하고 그 만두는 헛되고 잔인한 동정심밖에는 그가 갖지 않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마음이 더 냉혹했더라면 얻지도 못했을 거고 얻어도 훨씬 나중에 가서야 얻었을 지식을, 그의 적극적인 자선심이 그에게 곧 태워 준다. 자기 친구들 사이에 불화가 감도는 것을 보면 그는 화해시키려고 애쓴다. 상심하는 자들을 보면 그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을 보면 그 반목하는 원인을 알고자 한다. 피압제자가 세도가나 부자에게 골탕먹어 신음하는 것을 보면 그 골탕이 어떤 수작으로 가해지는가를 살펴본다. 모든 불쌍한 자들에 대해 그가 갖는 관심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끝장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는 결코 무관심하지가 않다. 그럼 이러한 성향들을 그의 나이에 알맞게 이용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의 배려와 지식을 가다듬어 주는 일이고, 그것을 늘리는 데에 그의 열성을 이용하는 일이다.

나는 아무리 되풀이해 말해도 지치지 않는다. 청년들의 모든 공부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게 하라. 경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책에서는 배우지 말게 하라. 말할 아무런 까닭도 없이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납득시킬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정념의 말의 힘과 설득술의 힘 모두를 학교 걸상 위에서 깨닫게 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엉뚱한 짓인가! 수사학의 온갖 가르침도, 그것을 자신에게 이되게 쓰는 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순전한 객설에 불과해 보인다. 한니발이 자기 병정들에게 알프스를 넘어갈 결심을 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를 아는 것이 학생에게 무슨 대수인가? 그런 거창한 연설 대신, 학생 감더러 자기에 휴가를 줄 마음이 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말해 준다면, 그는 여러분의 규칙에 더욱 주의 깊어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라. 온갖 정념이 이미 발달된 어느 청년에게 내가 만일 수사학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나는 그의 정념들을 기쁘게 해 주기에 알맞은 대상들을 노상 그에게 보여 주겠고, 남들더러 그의 욕망들을 들어줄 생각이 나게 하려면 그가 어떤 말씨로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가를 그와 함께 살펴보겠다. 그런데 나의 에밀은 변론술에는 그다지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거의 육체적인 필요에만 매여 있는 그는, 남들에게 그가 필요한 만큼도 그에게는 남들이 필요하지가 않다. 자기를 위해 남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바가 그의 마음을 아주 움직여 놓을 만큼 그에게 절실하지는 않다. 그 결과로서 그의 말씨는 보통 별로 꾸밈없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그는 대개 말의 본뜻대로, 남이 알아듣도록만 지껄인다. 자기 관념들을 일반화시키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드름피우는 일이 별로 없다. 정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미지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석처럼 냉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나이도 습관도 취미도 그러도록 두지는 않는다. 청년기의 열정 속에서는, 그 핏속에 고여 증류된 생명의 정기가 젊은 가슴에 열기를 안겨 주며, 그 열기는 그의 눈길에 반짝이고 그의 말에서 느껴지고 행동에서 엿보인다. 그의 말씨는 억양을, 때로는 열을 띠게 되었다. 그를 부추기는 고귀한 감정이 말에 힘과 품위를 준다. 부드러운 인류애가 배어든 그는 말하면서 자기 혼의 움직임을 전한다. 그의 빼어난 솔직함에는 남들의 약빠른 웅변보다 더 매혹적인 뭔가가 있으며, 아니 그보다도 그는 자기가 느끼는 바를 듣는 이들에게 전하려면 그것을 그냥 입 밖에 내어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이 정말로 웅변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렇게 자선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서 그 원인에 관한 반성을 끌어내고 한다면, 청년의 머릿속에 가꾸어질 수 없는 유익한 지식이라곤 별로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지식 모두와 함께, 그것의 실생활에의 응용인 보다 중요한 학식까지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자기 동포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는 그가, 그들의 행동과 취미와 쾌락을 헤아려 평가하는 법과, 사람들의 행복을 돕거나 해칠 수 있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 남을 위해서는 손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대체로 더욱 정당한 가치를 주는 법을, 일찍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일밖에 다루지 않는 자들은, 너무 자신에 열중해 사물을 건전하게 판

단하지 못한다. 만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해, 선악의 관념을 자기 이익에만 맞추는 그들은, 머리가 술한 우스꽝스러운 편견들로 차 있어, 자기 이익을 조금만 해치는 것이 있어도 당장 우주 전체가 뒤집혀지는 것으로 본다.

자존심을 탄 존재들 위로 펼치자.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을 미덕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그 미덕이 뿌리박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란 없어진다.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직접 우리 자신과 덜 관련이 될수록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서 오는 그릇된 생각도 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된다. 이 이해 관계는 일반화시킬수록 더욱 공정해지며, 인류애란 우리에게 있어 정의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밀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바라는가, 그가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가?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를 늘 자기 자신에서 멀리 붙들어 두자. 그의 배려가 남의 행복에 바쳐질수록 그것은 보다 밝고 현명해질 것이고, 그만큼 선하거나 악한 것에 대해 덜 그릇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둔이나 부당한 선입관에만 근거를 둔 눈먼 편애만은 그에게 허용해 주지 말자. 무엇 때문에 그가 한 사람에게 잘 해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것인가? 그가 만인의 최대 행복에 협력만 한다면, 가장 큰 행복의 몫이 누구 손에 떨어지는가는 그에게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현자의 첫째 관심사다, 사사로운 관심 말고는. 왜냐하면 저마다가 인류의 부분이지 어느 한 개인의 부분은 아니니까.

동정심이 약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따라서 동정심을 일반화시켜 인류 모두 위에 펼쳐야 한다. 그러면 정의와 일치되는 만큼만 동정심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온갖 미덕 중에서 정의가 사람들의 공동 행복에 가장 많이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치로 보나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보나, 우리 이웃보다는 인류에 대해 더 많은 동정심을 가져야 하며, 악인들에 대한 동정은 사람들에게 대한 아주 큰 잔인성이 된다.

게다가 내가 내 제자를 이렇게 그 자신 밖으로 던지기 위해 쓰는 이 모든 방법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결과로서 내면적인 기쁨이 생겨날뿐더러, 남들을 위해 그를 인정 많게 만듦으로써 나는 그 자신의 교육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그 결과를 보여 주겠다. 얼마나 큰 견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정리되어 가는 것을 나는 보는가! 얼마나 고상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잔다란 정념들의 싹을 얹누르고 있는가! 얼마나 명확한 판단력! 얼마나 올바른 이성이, 그의 연마된 성향에 의해, 위대한 녀의 소원을 가능한 좁은 한계 속에 집중시켜, 남들보다 뛰어났으나 그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더러 그들 수준으로 내려갈 줄 알게 해 주는 경험에 의해, 그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가는 것을 나는 보는가! 정의의 참 원리들, 아름다움의 진짜 본보기들, 존재들의 모든 도덕적 관련, 질서의 온갖 관념들이 그의 이해력 속에 새겨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물의 자리와, 그것을 거기서 떼어 놓는 원인을 그는 보고 있다. 선이 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있다. 인간의 정념들을 느끼적 없이 없으면서도 그는 그것의 착각과 농간은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세에 끌려 나아가지만, 독자들 판단에 내 생각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환상의 나라에 있는 나를 보고 있다. 나로서는 언제나 편견의 나라에 있는 그들을 보고 있다. 속된 의견들에서 아주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그 의견들을 내 염두에 두기를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것들을 따르거나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리의 저울에 달아 보기 위해, 나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 곰곰 생각한다. 추리가 나더러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강요할 때마다, 경험으로 아는 나는 그들이 나를 본뜨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명심하고 있다. 자기가 보는 것밖에는 끝내 상상하려 들지도 않는 그들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청년을 엉뚱한 상상의 존재로밖에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청년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길러져 정반대되는 감정이 주어지고 아주 달리 교육받은 그가 그 청년들을 닮았다면 내가 가정하는 대로 되는 이상으로 훨씬 놀라운 일이겠기에, 그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이 비교해 보는 그 청년들과 그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인간이 아니고, 자연의 인간이다. 분명 그들 눈에는 그가 아주 낯설 도리밖에 없다.

이 저작을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관찰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정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출발하는 하나의 점,



이를테면 인간의 출생 같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나는 자연을 가꾸기 위해, 여러분은 자연을 망가뜨리기 위해 나아갈수록, 더욱 우리는 서로 멀어져 간다. 6살 때의 내 제자는, 여러분이 채 비뚤어지게 할 시간도 없던 여러분의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었다. 이제 그들은 닳은 데라고는 하나 없으며, 내 제자가 다가가는 성인의 나이가 되면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 틀림없다. 나의 온갖 배려가 헛되지만 앎으면 말이다. 얻은 것의 양은 양쪽이 다 비슷할지 모른다. 그러나 얻은 것들은 전혀 비슷하지가 않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이 그 작은 싹조차 갖고 있지 않은 고상한 감정들을 그에게서 발견하고는 놀란다. 그런데 에밀은 아직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또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기도 전에, 딴 아이들은 이미 다 철학자나 신학자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잘 생각해 보라.

누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당신이 가정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들에게는 이리이러한 정념이 있다. 그들은 이리저러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는 마치 우리 정원에는 난쟁이 배나무 밖엔 보이지 않으니 배나무는 큰 나무가 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토록 트집 잡기에 성급한 심판자들에게 내가 당부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나도 그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또 아마도 내가 더 오래 생각해 봤을 것이라는 점, 그들을 속일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는 나로서는 내가 어떤 점에서 틀렸는가를 찾아 낼 시간이나마 가져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인간의 구성을 잘 살펴 달라는 것이고, 한 개인이 교육의 힘에 의해 딴 사람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러한 상황에서의 마음의 첫 발달을 뒤쫓아 보라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내 교육을 내가 그것에 준 성과와 비교해 보고, 어떤 점에서 내가 잘못 추리했는가를 말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대답할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나를 보다 단정적이게 만드는 것은, 또 내가 믿기로는 그래도 괜찮게 해 주는 것은, 내가 체계의 정신에 빠져들지 않고, 되도록 추리에 의하지 않고 관찰에만 의지한다는 점이다. 상상한 것어가 아니라, 본 것에 입각하는 것이다. 내가 내 경험들

을 어느 도시의 성벽을 속에도, 단 하나의 인간 계층 속에도 가둔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온갖 계급과 민족을 관찰하며 보낸 생애에서 내가 볼 수 있었던 만큼의 계급과 민족들을 다 비교해 보고 나서, 어떤 민족에는 있으나 다른 민족에는 없는 것, 어떤 신분에는 있으나 다른 신분에는 없는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서 버리고, 어느 시대, 어느 계급, 어느 국민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밖에는 분명 인간에 딸린 것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아 남의 권위나 의견에 되도록 관심을 덜 가질 한 청년을 어릴 때부터 줄곧 보아 나간다면, 내 제자나 여러분의 제자들 중의 어느 쪽을 그가 더 닮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겨야말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알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다.

사람은 쉽사리 생각하기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작만 하고 나면 그만둘 줄을 모른다. 생각해 본 사람은 다 늘 생각하게 될 것이고, 반성하는 버릇이 한 번 든 이해력은 이미 쉬고 있을 줄을 모른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이해력을 과대 아니면 과소하게 보고 있다고, 인간의 정신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재빨리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또 그 정신이 갖고 있지도 않은 능력들을 내가 정신에 주고 나서 정신이 이미 넘어섰을 관념의 테두리 속에 정신을 너무 오랫동안 가두어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의 인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미개인으로 만들어 숲 속 깊숙이 몰아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어도, 사람들의 정념이나 의견에 끌려 다니지만 않으면,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자신의 이성적 권위 말고는 어떤 권위에도 지배당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점을 똑바로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러한 처지에서는, 그의 눈에 띄는 술한 대상물들이, 그가 자주 품는 감정들이, 자신의 실지 요구들을 채워 줄 갖가지 수단들이, 그가 영감받지 못하고 말거나 더 늦게야 얻게 될 많은 관념들을 그에게 주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의 자연적인 발달은 가속되지만 거꾸로는 아니다. 숲 속에서는 바보로만 있을 사람도, 도시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되면 분별 지각 있는 사람이 된다.

끼어들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미친 짓들만큼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기엔 알맞은 것은 없고, 또 끼어든 자라 하더라도 그것에 속지 말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의 그릇된 생각만 갖지 않는다면 역시 배우는 것이 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눈에 띄는 사물들에만 얽매어 있는 우리가, 철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순전히 지적(知的)인 관념들에는 거의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도록 하라.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우리가 그토록 세계 묶여 있는 육체에서 풀려 나오든지, 아니면 대상물에서 대상물로 천천히 점진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거인의 걸음으로 얼른, 거의 단숨에 그 사이를 뛰어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이에게는 되지 않을 일이지만 어른들도 일부러 만들어진 긴 사다리다리가 있어야만 될 일이다. 첫 추상관념이 그 사다리다리의 첫 가로장이지만, 그것을 만들 엄두를 어떻게 낼지는 나도 알기 힘들다.

만물을 포용해 세계에 움직임을 주고 존재들의 체계 모두를 형성하는 저 불가해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 우리의 모든 감각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일은 보이나 그 일손은 숨어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까스로 알아 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르러, 그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머리는 뒤죽박죽으로 갈팡질팡해 생각할 바를 모르게 되고 만다.

로크는 정신의 연구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물체의 연구로 옮겨가도록 바라고 있다. 이것은 미신의, 편견의, 오류의 방법이다. 이성의 방법도, 가다듬어진 자연의 방법도 아니다. 보는 법을 배우려고 제 눈을 가리는 셈이다. 정신에 대한 참 개념을 얻으려면,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이라도 하려면, 물체를 오래 연구해 두어야 한다. 반대의 순서는 유물론을 만들어 내는 데밖에는 소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감각들이 우리의 인식의 첫 연장이므로, 형체가 있어 눈에 띄는 존재들만이 우리가 직접 그것에 대한 관념을 갖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이 '정신'이라는 말은 철학해 보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뜻도 없다. 정신도 민중이나 아이들에게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외치고 지껄이고 때리고 떠들어 대는 정신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팔과 혀가 달린 정신들이 육체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육체 있는 신들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유대인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성령이니, 삼위일체니, 인격이니 하는 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도 대부분은 진짜 신인동형동성론자(神人同形同性論者)다. 하느님은 도처에 있다고 말하도록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나도 시인하지만, 우리는 또한 적어도 대기권 내에서는 공기가 도처에 있다고도 믿고 있으며, ‘정신(esprit)’이라는 말 자체도 본래는 ‘입김’과 ‘바람’이라는 뜻밖에 없다. 말들을 그 뜻도 모르면서 쓰는 버릇을 사람들에게 들여놓기만 하면, 시키고 싶은 말을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른 물체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의 자각이 처음에는 우리더러, 그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도 우리가 그것들에 작용할 때와 비슷한 식이라고 믿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작용이 느껴지는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존재들의 힘의 한계를 알지 못해 그 대부분을 자기보다 강하게 느낀 인간은, 그 힘을 무한한 것으로 보고, 그것들에 육체를 부여함과 동시에 신(神)들로 삼았다. 원시시대에는 내내, 만물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죽은 것이라곤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에 있어서는 물질의 관념이 정신의 관념보다 형성이 덜 느리지도 않았으니, 그것은 이 처음 관념 자체도 하나의 추상(抽象)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우주를 감성 지닌 신들로 가득 채웠다. 별·바람·산·강·나무·도시들·집들까지도 다 제 혼, 제 신(神), 제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 라반의 꼬마 인형들, 인디언들의 마니투신(神)들, 흑인들의 마스크트들, 자연과 사람들의 모든 작품들이 인간의 첫 신들이었다. 다신교가 그들의 첫 종교였고, 우상 숭배가 그들의 첫 예배였다. 자기들의 관념들을 차츰 일반화시켜, 첫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존재들의 체계를 모조리 단 하나의 관념 아래 묶어, 알고 보면 가장 큰 추상인 ‘실체(substance)’라는 말에 하나의 뜻을 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유일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 아이는 다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인(神人) 동형 동성론자다. 그리고 상상력이 하느님을 한번 보고 나면 이해력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일은 썩 드물다. 이것이 바로 로크의 순서가 끌어들이는 오류다.

어떻게 해서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실체라는 추상 관념에 도달하게 되면, 유일한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생각과 공간 넓이처럼 하나는 본질적으로 분할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서로 배척해 양립될 수 없는 성질들을 그 실체가 가졌다고 가정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뿐더러 생각이라는 것은, 느낌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제가 팔려 있는 실체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본원(本源)적인 성질이고, 제 실체와의 관련에서는 공간 넓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의 하나를 잃는 존재들은 그 성질이 팔려 있는 실체를 잃게 되며, 따라서 죽음이란 실체들의 분리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이 뭉쳐 있는 존재들은 이 두 가지 성질이 팔려 있는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럼 이제는, 두 개의 실체의 개념과 신성(神性)의 개념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몸에 대한 우리 혼의 작용이라는 불가피한 관념과 모든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작용이라는 관념 사이에 말이다! 창조 · 전멸 · 무소부재 · 영원 · 전능 따위의 관념들, 하느님의 속성의 관념들, 하도 애매 모호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나,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민중에게는 모호하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온갖 관념들이, 아직은 감각들의 첫 작용들에 매여 있어 몸에 닿는 것밖에는 생각할 줄도 모르는 어린 머리들에 어떻게 제 있는 힘, 즉 애매모호함을 다 가지고 떠오를 수 있겠는가? 무한의 심연들이 우리 둘레 사방에 입을 벌리고 있어 봤자 헛일이다. 아이는 그것에 겁먹지는 않는다. 그 약한 눈이 그 깊이를 헤아리지는 못한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한이다. 아무것도 한계를 둘 줄을 모른다. 너무 긴 것을 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짧은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제가 알고 있는 크기들의 바깥쪽보다도 안쪽에서 더 무한을 깨닫는 것을 나는 본 일까지 있다. 그들은 눈보다는 발로 공간을 더 넓은 것으로 볼 것이며, 그들에게는 그 공간이 볼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 누가 하느님의 힘 이야기를 해 주면, 거의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센 힘으로 짐작할 것이다. 만사에 있어 자기 지식이 그들에게는 가능한 것들의 척도이기 때문에, 남이 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늘 작게만 판단한다. 무지나 약한 정신에 있게 마련인 판단들이란 이런 것이다. 아약스는, 아킬레우스를 알고 있었지만 주피터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와 겨루는 것은 두려워했겠으나 주피터에게는 싸움을 건다. 사람들 중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자처하던 어느 스위스 농부는, 왕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 애써 설명해 주니까, 그 왕이 그래 산에 암소 백 마리라도 갖고 있는냐고 거드름부리며 묻더라는 것이다.

내가 제자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도 않고 그 소년기를 고스란히 넘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놀랄 것인지, 짐작이 간다. 15살 때 그는 자기가 혼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었는데, 아마 18살이 되어도 아직은 그것을 배울 때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일찍 배우게 되면, 영영 알지 못하고 마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니까.

내가 만일 딱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림에 그려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사를 그리겠다. 내가 만일 한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아이더러 제가 교리 문답 때 하는 말을 설명시켜 보겠다.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은 신비이므로, 사람의 머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사람 아니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누가 반박하겠지. 나는 대답하겠다. 첫째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도 없는 신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본댔자, 일찍부터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말고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신비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이러한 생각마저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덧붙여 말하겠다. 모든 것이 신비인 나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비란 없는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 이 그릇된 교리는 피비린내 나는 편협의 근원이고, 말로만 때워 넘기는 버릇을 들임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저 온갖 헛된 교육의 원인이다. 물론 영원한 구원을 받을 만하게 되려면 잠시도 버려서 좋을 순간이라곤 없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몇 마디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만 족하다면, 하늘을 아이들로 채우는 것 못지않게 찌르레기나 까치들

로 채워서 안 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믿는 의무는 그 의무의 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있다. 믿지 않는 철학자는, 자기가 닦아 온 이성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물리치는 진리들을 이해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다는 아이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나, 남이 시켜서 하는 말을 자기도 통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반대되는 말을 해 주면 그 말도 역시 기꺼이 받아들여질 정도다. 아이들이나 많은 어른들의 신앙은 지리에 딸린 일이다. 메카 아닌 로마에 났다 해서 상 받을 것인가? 한 사람더러 마호메트는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말해 주면 그 사람은 마호메트가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말한다. 딴 사람더러 마호메트는 사기꾼이라고 말해 주면 그 사람은 마호메트가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둘이 자리가 바뀌었더라면 저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두 사람의 소질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천국으로 또 하나는 지옥으로 보낼 수야 있겠는가? 한 아이가 자기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때, 그가 믿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 불리는 그 무엇이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는 베드로(Pierre)나 요셉(Jacob)이다. 그는 에우리피데스식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오, 주피터!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 저는  
이름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sup>34</sup>*

철들 나이 이전에 죽은 아이는 아무도 영원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설사 하느님 이야기를 전혀 들은 일이 없더라도 영세만 받은 아이라면 다 그렇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 받는 경우가 있는 셈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릴 때이건 정신착란 상태에서이건, 인간의 머리가 신성(神性)을 알아보기에 필요한 작용을 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여기

34 플루타르코스의 《연애론》, 자크 아미요(Jacques Amyot, 1513~1593)의 번역, 비극 〈메날리페〉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었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의 아우성 때문에 에우리피데스(Euripides, c. 484~406 B.C.)는 이 허두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보이는 차이란, 여러분은 아이들이 7살이면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나는 15살이 되어도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점뿐이다. 내가 틀렸건 옳건 여기서 문제인 것은 신앙의 조목이 아니고 단순한 박물학적 사실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 노년에 이른 사람도, 그 청맹과니가 자진해서 된 것만 아니라면, 또 내 말은 청맹과니가 늘 자진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저승에서 살 권리를 빼앗기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같은 원리에 의해 분명하다. 병 때문에 정신 기능은 빼앗겼으나 인간으로서의 성질은, 따라서 조물주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잃지 않은 지각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아주 격리되어, 사람들과의 사귄에서밖에는 얻어지지 않는 지식도 없이 전혀 야생적인 생활을 보내었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가?<sup>35</sup> 그러한 야생인이 자기 생각을 참된 하느님의 인식으로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의지에 말미암은 잘못에 의해서밖에는 벌받지 않으며, 막무가내인 무지가 그 사람의 죄로 돌려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성 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결과로서 영원한 정의 앞에서는, 필요한 지식만 가졌으면 믿게 될 사람은 다 믿는 것으로 간주되고, 진리에 대해 마음이 닫힌 자들밖에는 벌받을 불신자는 없을 것이다.

진리를 알아들을 처지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것은 삼가자. 왜냐하면 진리를 오류와 바꿔치려는 것이 되니까. 신성(神性)에 값하지 않는 천하고 환상적이고 모독적인 관념들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신성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갖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가 덜하다. 플루타르코스는 옳지 않고 셈과 시기심이 많으며 하도 폭군이어서 할 힘을 남겨주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플루타르코스 따위는 세상에 있지도 않다고 남이 생각해 주는 편이 나는 오히려 낫겠다고, 훌륭한 플루타르코스는 말하고 있다.<sup>36\*</sup>

35 사람의 정신의 타고난 상태와 그 진보의 느낌에 관해서는, 《불평등론》 1부를 참조하라.

36\* 플루타르코스의 《미신론》 27.



신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들을 아이들 머리에 넣어 주는 일의 큰 폐단은, 그것들이 평생 머리에 남아 있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애송이들 하느님 말고는 딴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격률을 하도 믿어 자기 아들에게 어러서는 종교를 가르치려 들지 않은, 어질고 독실한 한 어머니<sup>37\*</sup>를 나는 스위스에서 만난 일이 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조잡한 가르침에 만족해서 철들 나이가 되어 더 나은 가르침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공손한 태도로밖에는 하느님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 들기만 하면, 마치 그에게는 너무나 고상하고 위대한 문제인 양, 입을 다물도록 강요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지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의 자존심은, 남이 그토록 조소스레 감추는 그 신비를 알 때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느님 이야기를 덜 해 줄수록,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덜 허락해 줄수록, 아이는 더욱 하느님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을 도처에서 보고 있었던 셈인데, 이렇게 억지로 꾸며 낸 신비에서 내가 염려하는 바는, 청년의 상상력을 너무 자극하다가 머리를 해쳐 마침내는 신자를 만드는 대신 광신자를 만들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자기 힘을 넘어서는 것에는 언제나 주의를 쏟지 않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는 나의 예밀에 대해서는, 비슷한 걱정은 통 하지 않기로 하자. 이걸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고 그가 말하기 버릇해 온 것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쯤 더 늘어도 그는 당황하지 않는다. 또 그가 이런 큰 문제들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은 남이 그 문제들을 내놓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식의 진보가 그의 탐구를 그쪽으로 나아가게 할 때인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의 정신이 어떤 길로 해서 이러한 신비들에 접근하는가를 우리는 보아 왔지만, 그 정신은 사회의 한복판에서도 더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절로 거기에 도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나는 기꺼이 시인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 사회에는 정념들의 발달을 재촉하는 피치 못할 원인들이 있다. 때문에 그 정념들을 통

37\* 루소가 제네바에서 알게 된 이 “어질고 독실한 어머니”는, 쥘리(《신엘로이즈》)와 소피(《예밀》)의 모델이 되었다.

제해 주는 지식의 발달도 같이 재촉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어, 균형이 깨어지고 말 것이다. 너무 빠른 어떤 발달을 마음대로 늦출 수가 없을 때는, 차례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사람이 그 생애의 모든 시기에 있어 어느 한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다른 능력들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발달과 일치되어야 할 다른 발달들도 같은 속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보는가! 그것이 사물들 자체 속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자들의 소심한 마음속에 있기에 더욱 커지는 어려움이 말이다. 우선 그 어려움을 제시할 엄두라도 내어 보자.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종교 속에서 길러지게 마련이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건 그것만이 진짜고 다른 것들은 다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것에 불가하다는 것을 노상 아이에게 증명해 보인다. 이 점에 있어 논증의 힘은, 완전히 그런 논증을 내놓는 나라에 달려 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를 그토록 우습게 보는 터키인은, 파리에 가서 마호메트교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라! 세론이 판치는 것은 특히 종교 문제에서다. 그런데 만사에 있어 세론의 멍에를 벗어나기를 바라고 권위를 통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 에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고 싶지 않은 우리는, 그를 어떤 종교 속에서 기를 것인가? 자연의 인간을 우리는 어느 교파에 가입시킬 것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이 교파에도 저 교파에도 가입시키지 말고, 자기 이성의 최상의 선용(善用)이 그를 이끌어 줄 그러한 교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그를 놓아줄 것이다.

*Incedo per ignes*

*Suppositos cineri doloso,*

가짜 재가 덮인 불 위를 나는 걸어간다.<sup>38\*</sup>

38\* 호라티우스의 《오드집(Odes)》II, 1, 7~8의 인용. 몽테뉴의 《에세》III, 10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 대목은, 〈사보아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의 끝머리에서 제기되는 참된 종교에 관한 문제를 예고하

상관없다. 열성과 성실이 나에게서는 여태까지 조심성을 대신해 왔다. 나는 이 보증인들이 필요할 때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독자들이여, 나에게 대해서는, 진리의 벗답지 않은 조심 따위는 염려하지도 말라. 나는 내 좌우명<sup>39\*</sup>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나 내 판단들에 대해 내가 의심해 보는 것은 내 자유다. 여기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독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각하던 바를 말하겠다. 이제 이야기하려는 사실들의 진실성을 나는 보증한다. 내가 옮겨 쓰려는 원고의 필자에게 실지로 있었던 일이다. 지금의 이 문제에 관해 다음 이야기에서 유익한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고 없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다. 나는 남이나 나의 의견을 기준으로서 내놓지는 않겠다. 여러분더러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0년 전,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한 망명 청년이<sup>40\*</sup> 막바지 궁지에 빠져 있었다. 칼뱅교도로 태어났으나, 덤병거리다가 도망자가 되어 외국에서 밥줄이 끊어지자 빵을 얻기 위해 종교를 바꾸었다. 그 도시에는 개종자들의 수용소가 있었다. 그는 거기에 수용되었다. 논쟁 형식의 교육을 받다가 여태 가져 보지 못하던 의혹을 얻게 되고, 알지 못하던 악을 배우게 되었다. 새로운 교리를 들었고, 더욱 새로운 풍습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 희생이 될 뻔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간히고 말았다. 불평을 말했으나, 그 불평 때문에 벌을 받았다. 죄에 넘어가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해서 압제자들 마음대로 죄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 폭력과 부정의 첫 시련이 경험 없는 젊은 마음을 얼마나 자극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심경을 짐작해 보라. 그는 분노의 눈물이 쏟아지고 노여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늘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탁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를 욕보이는 비열한 자에게 복종하는 천한 하인들이나, 그의 반항을 비웃으며 자기네를

고 있다.

39\* 루소가 좌우명으로 삼은 것은, 유베날리스의 시구, “Vitam impendere vero(진리에 몸을 바치다).”

40\* 루소 자신을 두고 한 말. 《고백》 II에서, 1728년에 자기가 토리노에 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p. 109 참조.

본받도록 코드기는 같은 죄의 공범자들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불일로 그 수용소에 온 성실한 성직자 하나가 있어 몰래 그에게 상의할 방안을 찾아 내었는데, 이 성직자만 없어도 그는 이미 가망이 없었던 것이다. 그 성직자는 가난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 피압제자는 그 이상으로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위험한 적을 만들 것을 무릅쓰고 그는 청년의 탈주를 거들어 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악덕을 빠져 나와 다시 곤궁 속에 빠져든 청년은 보람도 없이 운명과 싸웠다. 한 때는 운명을 이겨 낸 것으로 자부하기도 했다. 행운의 첫 섬광이 보이자 지난 고생도 자기 보호자도 잊었다. 이러한 배은망덕의 별을 그는 곧 받았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젊음도 힘이 되어 주지는 않았다. 그의 허황된 생각들이 만사를 망쳐 놓는 것이었다. 편한 길을 열어 나갈 만한 재능도 재주도 없고 절제를 지킬 줄도 약해질 줄도 모르던 그는, 하도 많은 것을 바라다가 아무것에도 성공할 줄을 몰랐다. 처음 궁지에 도로 빠져, 빵도 몸들 곳도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은인 생각이 다시 났다.

“그곳으로 되돌아가, 그를 만나니 그는 반겨 맞아 준다. 청년을 보자 성직자는 자기가 베푼 선행 생각이 난다. 이러한 기억은 언제나 마음을 기쁘게 해 준다. 이 사랑은 나면서부터 인정 많고 너그러웠었다. 자기 고생으로 남의 고생을 깨닫고 있어, 안락이 그의 마음을 무정하게 만든 일은 없었다. 요컨대 지혜의 가르침과 견식 있는 미덕이 그의 좋은 천성을 굳혀 놓았던 것이다. 그는 청년을 맞아들여, 숙소를 찾아 소개해 준다. 둘에게는 가까스로 족한 자기 필수품을 그와 나누어 가진다. 게다가 청년을 가르치고 위로해 주며, 역경을 끈기 있게 견뎌 내는 힘든 기술을 배워 준다. 편견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설마 이 모든 일을 한 신부에게서, 이탈리아에서 기대나마 했겠는가?

“이 성실한 성직자는, 젊은 날의 실수로 주교의 눈에 나 자기 나라에서는 구하지 못할 밥줄을 찾아 산맥을 넘어간, 사보아 태생의 가난한 보좌 신부였었다.”<sup>41)</sup> 재주

41 이 보좌 신부의 모델이 된 것은, 루소가 자기 생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두 신부, 즉 그가 토리노에서 만난 Jean-Claude Gaime(1692~1761)과 안시(Anncey) 신학교에서 만난 Jean-

도 교양도 없지 않은 데다 얼굴도 매력이 있어 보호자들을 찾아 내었고, 그들이 어느 대신 집에 이들을 가르치도록 넣어 주었다. 그는 의존보다는 가난을 좋아했었고, 고관대작 집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도 알지 못했었다. 그 집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거기를 나올 때도 인심은 잃지 않았지만, 현명하게 살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주교의 은총을 되찾으면 산속의 작은 신부 보직이라도 얻어 거기서 여생을 보낼까 하고 은근히 버리고 있었다. 그의 야심은 한껏 이런 것이었다.

“타고난 그의 성향으로 젊은 도망자에 관심을 가져 조심스레 살펴보게 되었다. 불운에 청년의 마음은 이미 시들고 치욕과 멸시에 용기는 꺾여 버려, 빠져린 원한으로 바뀐 청년의 자존심이 사람들의 부정과 냉혹 속에서 그들의 본성의 악과 미덕의 환영밖에는 자신에게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채었다. 종교는 이해 관계를 감추는 탈, 거룩한 예배는 위선을 감싸 주는 호위병 구실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청년은 알아보았던 것이다. 헛된 논쟁의 잔재주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말장난의 상이 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신성(神性)에 대한 본래의 숭고한 관념이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상상 때문에 뒤떨어졌음을 알았으며,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받은 판단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몽상들과 그 대상을 똑같이 멸시하게 되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물들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상해 보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깊은 멸시만 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은 무지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종교를 다 잊고 나니 인간의 의무도 잊게 되었다. 이러한 악화는 무신앙자의 마음 속에서 이미 반을 넘어서 있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다. 다만 무신앙과 가난이 그의 본성을 차츰차츰 목 졸라 냅다 파멸로 끌고 가고 있었고, 거지의 습성과 무신앙론자의 도덕밖에는 그에게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거의 피치 못할 악은 그러나 아주 거덜이 나 버린 것은 아니었다. 청년은 지식이 있었고, 교육이 허술했던 것은 아니다. 괴어오르는 피가 마음을 뜨겁게 해 주기 시

Baptiste Gâtier(1703~1760)(《고백》Ⅲ 참조).

작하면서도 관능의 발광에 말려들게 하지는 않는 그러한 다행한 나이였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탄력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타고난 수줍음과 소심한 성격이 속박을 대신해, 여러분이 제자를 그토록 애써 붙들어 두는 그 시기를 그를 위해 연장시켜 주는 것이었다. 심한 퇴폐나 매력 없는 악덕의 알미운 본보기가 그의 상상력을 꼬드기기는커녕 오히려 녹여 주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혐오감이 미덕 구실을 해 그의 순결을 지켜 주었다. 그 순결은 보다 달콤한 유혹들에밖에는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직자는 위험과 아울러 빠져 나갈 구멍도 보았다. 어려움들에도 켕기지는 않았다.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일을 끝마쳐, 자기가 창피에서 건져 준 희생자를 미덕으로 되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리부터 손을 썼다. 동기의 아름다움이 용기를 북돋우고, 그 열의에 값하는 방법들을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결과야 어떠한진,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다는 자신이 있었다. 좋은 일을 할 생각밖에 없을 때는 늘 성공하는 법이다.

“그는 우선, 자기가 베푸는 친절을 코에 걸지 않고, 성가시게 굴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자기를 늘 그의 힘닿는 곳에 두고, 그와 같아지기 위해 자기가 작아지곤 하여, 이 개종자의 신뢰부터 얻기 시작했다. 점잖은 사람이 부랑자의 친구가 되는 것을, 미덕이 방종을 보다 확실히 이겨 내기 위해 그것과 타협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감동적인 광경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털렁쇠가 와서 어리석은 실토를 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신부는 귀를 기울이며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에 관심은 갖는 것이었다. 조심성 없는 책망으로 그 객설을 가로막아 마음을 억누르는 일은 없었다. 자기 말을 남이 잘 들어준다고 자부하는 기쁨이 모든 것을 다 말할 때 얻는 기쁨을 늘려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백할 생각도 없이 전반적인 고백이 행해지고 말았다.

“그의 감정과 성격을 잘 살펴보고 난 신부는, 그가 자기 나이로서 무지한 것은 아니나 알아 두어야만 할 것을 죄다 잊어 버렸으며, 운명이 몰아넣은 창피한 처지가 선악에 대한 참된 지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녀이 생명을 빼앗겨 내면의 목소리가, 먹고살 생각밖엔 없는 자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그

러한 지력 저하의 단계가 있다. 불우한 청년이 다다른 이러한 정신적인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기 위해 신부는 먼저 자애심과 자존심을 일깨워 주기 시작했다. 자기 재능만 잘 살려 쓰면 보다 행복한 앞날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남의 아름다운 행위들을 이야기해 주어 인정스러운 열의를 가슴속에 되살려 주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함으로써 자기도 비슷한 짓을 할 욕망이 나게 만들었다. 일없는 떠돌이 생활에서 저도 모르게 벗어나게 해 주려고, 선택된 책들의 발췌를 만들게 했으며, 그 발췌들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여 감사라는 고상한 감정을 길러 주었다. 그 책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를 교육했던 것이다. 좋은 일에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눈에 자기가 비열한 자로 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려고, 꽤 좋은 자기 평가를 되찾게 해 주었다.

“이 착한 사람이 제자의 교육은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자의 마음을 비천한 데서 몰래 끌어올려 주려고 쓴 기술에 대해서는, 하찮은 이야기 하나가 짐작케 해 줄 것이다. 이 성직자의 청렴결백은 하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 분별력은 하도 확실했기 때문에, 더러는 도시의 부유한 신부들 손보다는 그의 손을 통해 적신을 하고 싶어 할 정도였다. 어느 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누가 얼마간의 돈을 그에게 준 일이 있는데, 청년은 비열하게도 자기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 달라고 나섰다. “안 돼”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형제고 자네는 내게 딸린 사람이니, 내가 쓰기 위해 이 말은 돈에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요구한 만큼의 돈을 자기 돈에서 주었다. 이런 유의 교훈들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청년의 마음속에서 무색해지는 일은 드물다.

“나는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지겨워졌고, 이젠 전혀 쓸데없는 조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친애하는 동국인이여, 이 불행한 도망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아채고 있으니까. 나는 내 젊은 날의 허랑방탕함을 감히 자백해도 좋으리만큼은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부하며, 나를 거기에서 건져 내어 준 손은, 내가 약간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은덕에 얼마간의 경의는 표할 가치가 충분하다.

“나를 가장 감동시키던 것은, 나의 훌륭한 스승의 사생활에서 위선 없는 미덕, 약

함 없는 인정, 늘 옳고 단순한 말, 그 말과 늘 일치되는 행동을 보는 일이었다. 자기가 도와 주고 있는 자들이 저녁 기도에 나가는지, 고해는 자주 하고 있는지, 정해진 날에 단식을 하는지, 육식은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가 애태우는 것도, 또 비슷한 다른 조건들, 그것 없이는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독신자들의 도움이라고는 기대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그들에게 과하는 것도, 나는 본 일이 없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나는, 뜻내기 개종자의 갈잡은 열성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이기는커녕, 내 사고방식을 그에게 감추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그래서 그가 더욱 상을 찌푸리는 일도 없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갓 들어간 신앙에 대한 나의 무관심을 그가 눈감아 주는 것은 내가 나면서 가진 신앙에 대해서도 무관심함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멀시는 당파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때때로 그가 로마 교회의 교리와는 반대되는 교리들에 찬동해, 로마 교회의 온갖 의식을 대단찮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했던가? 그가 경시하는 것 같아 보이던 그러한 의식을 덜 충실히 지키는 것만 보았더라도 나는 그를 가면 쓴 신교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어도 공중의 면전에서 못지 않게 어김없이 신부의 직무를 다하고 있음을 알던 나로서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전에 그의 불행을 가져왔던 그 실수, 그가 그다지 고쳐져 있지도 않던 그 실수만 빼놓는다면, 그의 생활은 모범적이었고, 품행은 나무랄 데 없었고, 말은 정직하고 정확했었다. 더할 나위 없는 친분 속에서 그와 함께 지내던 나는 날로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 많은 친절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나는, 그 특이한 생활의 일관성이 어떤 원리를 근거로 삼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를 야릇한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이내 오지는 않았다. 그는 제자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제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뿌린 이성과 선의 씨앗을 싹트게 하려고 애썼다. 내 마음속에 있던 가장 깨뜨리기 힘든 것은 교만한 괴팍성, 세상의 부자와 행복한 자들에 대한 어떤 원한이었다. 마치 그들이 나를 희생시켜 그렇게 되더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이



큰바 행복이 내 행복을 가로채어 된 것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굴욕에 반항하는 젊은 날의 어리석은 허영심이 나를 그 발끈하는 기질로만 쏠리게 했고, 내 스승이 내게 애써 일깨워 주려던 그 자존심은 나를 교만으로 몰아 사람들을 내 눈에 더욱 천하게 보이게 해, 그들에 대한 증오에 경멸을 덧붙여 줄 따름이었다.

“그는 이러한 교만과 직접 싸우지는 않고 그것이 박정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만 막았고, 내게서 자존심을 빼앗지는 않고 그것이 내 이웃 사람에게 덜 건방져 보이게만 했다. 헛된 겉치레를 늘 내게서 멀리해 주고 그 겉치레 속에 감추어진 실지의 불행들을 내게 보여 줌으로써 그는 나에게, 내 동포들의 잘못을 슬퍼하고 그들의 비참에 감동되며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동정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 때문에 인류의 약함에 대한 연민에 감동된 그는, 자신의 부덕과 남의 부덕에 희생된 사람들을 도처에서 보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굴레 밑에서, 부자들은 편견의 굴레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는 말하곤 했다. 내 말을 믿어 주게.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불행을 감추어 주기는커녕,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주고, 착각 없이는 우리가 느끼지도 않을 슬한 가짜 결핍들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불행을 늘려 주고 있네. 마음의 평화는 그것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 모두에 대한 멸시 속에 있는 결세. 생명을 가장 소중히 아는 자는 그 생명을 가장 덜 즐길 줄 아는 자이고, 행복을 가장 게걸스레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가장 비참하게 마련이야.

“아!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하고 나는 매섭게 외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면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며, 행복까지도 무시해야 한다면 누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나야, 하고 신부는 어느 날 대답했는데 그 어조에 나는 감동되었다. 행복하다고, 당신이! 그토록 복 없고, 가난하고, 쫓겨나고, 박해받는, 당신이 행복하다니! 그리고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무엇을 했던가요? 여보게, 나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해 주겠네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내 고백을 들었으니 자기 고백도 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내 마음이 느끼는 바를 모조리 자네 가슴에 쏟아 놓겠네, 하고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보는 그대로의 나는 보게 될 결세. 내

고스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왜 자신을 행복하다고 보는가를 자네는 알게 될 것이고, 또 만일 자네도 나와 같이 생각한다면 자네가 행복해지기 위해 해야 할 바도 알게 될 걸세. 하지만 이러한 자백은 잠시 동안에 되는 일은 아니야. 인간의 운명이나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 자네에게 털어놓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이런 이야기에 조용히 몰두하기에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택하도록 함세.

“나는 몹시 듣고 싶어 했다. 랑데부는 다음날 아침 이후로 미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여름이었다. 우리는 꼭두새벽에 일어났다. 그는 나를 시외로 데리고 나가, 포 강이 기슭을 지나가는 어느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갔으며, 거기서는 강물이 적셔 주는 기름진 유역을 가로질러 물줄기가 보였다. 멀리에는 알프스의 거창한 산줄기가 우뚝 솟아 있었다. 솟아오르는 햇빛이 벌써 들을 스쳐가, 나무며 언덕이며 집들의 긴 그림자를 밭에 던지며, 사람 눈에 떨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광선의 온갖 효과를 가지고 장식하고 있었다. 마치 자연이 우리 이야기에 텍스트를 제공하려고 제 화려함을 모조리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이러한 것들을 얼마 동안 잠자코 바라보고 나서 이 평화의 인간이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다.”

#### 사보아 태생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

여보게, 나한테서 유식한 이야기나 깊이 있는 이론을 기대하질랑 말게. 나는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생각도 없네. 다만 나도 때로는 양식(良識)이 있고, 또 늘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자네와 논쟁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네를 설복할 생각도 없네.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자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는 족하네.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네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게 다야. 설사 내가 틀렸더라도 그건 선의에서 오는 잘못이네. 내 잘못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족하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자네가 틀리게 되

더라도 그래서 나쁠 것은 별로 없겠지. 내 생각이 옳다면, 이성은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다 똑같이 이로운 거야. 자네라고 해서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나는 가난한 농사꾼으로 태어나, 신분으로는 땅을 갈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신부직에서 빵을 버는 게 더 낫다 해서 내게 공부를 시킬 방법을 궁리해 낸 거지. 물론 부모도 나도 공부에서 좋고 참되고 유익한 것을 찾아 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성직에 임명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을 공부할 생각뿐이었어. 내가 배우도록 남이 바라는 것을 나는 배웠고, 내가 말하도록 남이 바라는 것을 나는 배운 거야. 시키는 대로 서약을 하고 나는 신부가 되었지. 그런데 나는 인간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내가 지킬 수 있는 이상의 약속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

양심은 편견의 소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지. 그런데 나는 양심이 사람들의 온갖 법에 거슬러 가면서도 기어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려 한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 우리더러 이것저것을 금해 본들 헛일, 질서정연한 자연이 우리더러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물며 자연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가 뉘우쳐 자책하는 일이 늘 미약하단 말이야. 오! 착한 젊은이여, 자연은 아직도 자네 관능에는 아무 말도 건 적이 없어. 자연의 목소리가 바로 순결의 목소리가 되는 행복한 상태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게. 자연과 싸울 때보다도 자연을 앞지를 때 훨씬 더 자연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죄가 되지 않고도 굴복할 수 있는 때를 알려면 저항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네.

젊어서부터 나는 결혼을 자연의 가장 으뜸가는 거룩한 제도로서 존경해 왔어. 그것에 따를 권리를 빼앗긴 나는,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지. 왜냐하면 내 계급이나 공부에도 불구하고 노상 한결같은 단순한 생활을 해 온 나는 타고난 밝은 빛을 고스란히 내 정신 속에 간직해 왔으니까. 세상의 격식들이 그것을 흐리게 한 적도 없거니와, 악덕의 궤변들을 일러 주는 유혹들을 가난이 내게서 멀리해 주었던 거야.

나를 파멸시킨 것이 바로 이 결심이었어. 남의 잠자리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내 실

수들을 드러나게 두었던 결세. 스캔들의 쪼갬을 치러야만 했어. 붙들려 직무 정지를 당하고 쫓겨난 나는, 나의 난봉보다는 나의 조심성의 희생이 되었던 것이며, 면직을 가져 온 그 비난들을 듣고는, 벌을 피하려면 잘못을 더 저지르기만 하면 되는 수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

이와 같은 경험이 생각 깊은 정신을 멀리 데리고 가는 일은 별로 없지. 정의나 성실성, 사람의 모든 의무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서글픈 관찰에 의해 뒤집히는 것을 본 나는, 내가 전에 받아들였던 견해들을 날마다 하나하나 잃어 가고 있었어. 내게 남아 있던 견해들만으로는, 제 힘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에 이미 족하지가 않게 되자, 원칙들의 명백성이 내 머릿속에서 차츰 흐려져 가는 것이 느껴졌고, 마침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 나는 지금 자네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처지에 다다르고 만 결세. 보다 성숙한 나이의 철학은 열매인 내 불신앙(不信仰)이 더 많은 고생으로 빚어져 깨뜨리기에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야.

데카르트가 진리 탐구에 필요하다고 보는 그 불확실과 유혹의 정신 경향 속에 나는 있었던 결세.<sup>42\*</sup> 이 상태는 견뎌 내도록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고 참기 힘들며, 우리를 그 속에 남아 있게 해 주는 것은 악덕에 대한 흥미나 혼의 게으름밖에 없지. 나는 그런 데서 만족할 만큼은 마음이 타락해 있지 않았고, 또 자기 운명보다 자기 자신에 더 만족하는 이상으로, 반성하는 습관을 잘 간직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공론의 바다 위에 키도 나침반도 없이 떠돌며, 제 길도 알아보지 못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험 없는 물길 안내인밖에는 길잡이도 없이 그 정명의 태풍에 몸을 내어 맡긴 인간들의 서글픈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나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어.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구나. 누가 그것을 내게 보여 주었으면, 그럼 나는 그것에 매달려 있겠다. 진리는 왜 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마음의 열성 앞에서 숨어야만 하는가?

42\*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 1부 4, 10.

나는 흔히 더 큰 괴로움을 겪은 일은 있지만, 노상 의혹에서 의혹으로 헤매어 오랜 명상에서도 나라는 존재의 원인과 내 의무들의 규칙에 대해 불확실과 애매 모순밖에는 얻어 내지 못하던 이 혼란과 불안의 시기만큼이나 줄곧 언짢은 생활을 보낸 적은 일찍이 없었어.

어떻게 사람이 성실하면서도 틀에 박힌 회의론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자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철학자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가 알아 두어야 될 사물들에 대한 의혹이란, 사람 머리에는 너무나 지독한 상태지. 사람 머리는 그 속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해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건 결단을 내리게 마련, 아무것도 믿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틀리기를 좋아하거든.

나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해 어떤 의혹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에 팔려 태어난 나는 단 한 가지만 거부당해도 나머지 모두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그 많은 엉뚱한 결정들을 시인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은 결정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이야. 나더러 다 믿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이어서, 나는 이제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를 몰랐었어.

나는 철학자들에게 물어 보았고, 그들의 책을 훑어보았고, 그들의 온갖 의견을 살펴보았지. 나는 그들이 죄다 교만하고 단정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것을, 더구나 모르는 것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못해 서로 비웃기만 하는 그 이른바 회의주의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으며,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 점에서만 그들은 다 옳은 것처럼 내게는 여겨졌어. 공격할 때 그들은 의기양양하지만 자신을 막을 때는 기가 죽거든. 자네가 그 이치들을 따지고 들면 그들은 파괴하기 위한 이치밖에는 갖지 않게 되지. 표를 세어 보면 저마다 제 표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논쟁하기 위해서밖에는 일치되지가 않아.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가 우유부단에서 빠져 나오는 방편은 아니었어.

인간 정신의 모자람이 견해들의 그 놀라운 다양성의 첫째 원인이고, 교만이 그 둘째임을 나는 깨달았어. 이 거창한 기계를 쥔 척도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들을 셈할 수도 없지. 그 기본 법칙들도 궁극 원인도 알지 못하거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행동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해. 인간이 단순 존재인지, 아니면 복합 존재인지도 알지 말지야. 헤아리지 못할 신비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말이야. 그것들은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 있어. 그것들을 간파하기 위해 우리는 지성(知性)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상력밖에는 가진 게 없거든. 저마다가 이 상상의 세계를 가로질러 좋다고 생각되는 길을 타고 있지. 자기 길이 목적지로 통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다 간파하고 싶고 다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야. 우리는, 아무도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자백하기보다는 무턱대고 마음을 정해 있지도 않은 것을 믿기를 더 좋아하거든. 그 한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의 큰 전체, 그 창조자가 우리의 어리석은 논쟁에다 내어 맡기고 있는 그 큰 전체의 작은 부분인 우리는, 그 전체가 그것 자체로서 무엇이며 그것에 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 짓기를 바라기에는 하찮은 존재야.

철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할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중의 누가 진리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자기 체계가 다른 사람들 체계보다 더 근거 있는 것이 아님을 저마다가 잘 알고 있거든. 다만 자기 체계니까 떠받들고 있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게 되어도, 남이 발견한 진리보다는 자기가 발견한 거짓을 택하지 않는 철학자는 하나도 없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기꺼이 인류를 속이지 않을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목적 아닌 딴 목적을 마음속에 몰래 품고 있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대중보다 높이 오르기만 한다면, 경쟁자들의 광채만 지우게 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또 바라는가? 요는 남들과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문제거든. 신자들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들 속에서는 신자가 될 거야.

이러한 고찰에서 내가 끌어낸 첫 열매는, 내 탐구를 내게 직접 관계되는 것에 국한시키는 법을 배운 일이야. 그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는 깊은 무지 속에서 만족하도록, 또 의혹이 있더라도 내가 알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밖에는 신경 쓰지 말도록 배운 일이었어.

나는 또한 철학자들이 나를 무익한 의혹에서 풀어 주기는커녕 나를 괴롭히는 의혹

들을 늘려 줄 뿐, 그 하나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딴 길잡이를 택하기로 하고 이렇게 혼잣말했지. 내면의 빛에 몰어 보기로 하자, 그 빛은 철학자들이 나를 헤매게 하는 것보다는 덜 헤매게 할 것이고, 설사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나 자신의 잘못이 될 것이며, 그들의 거짓말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나 자신의 착각을 쫓는 편이 덜 타락하겠지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를 차례로 끌고 다닌 갖가지 견해들을 내 머릿속에서 되살려 본 나는, 비록 그중의 어떤 견해도 직접 확신을 낳을 만큼 명백하지는 않았어도, 진실임직한 갖가지 단계는 갖고 있어, 내면의 동의가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와 같은 첫 관찰에 비추어, 그 견해들 중에서 온갖 다른 관념들을 편견 없이 비교해 본 나는, 가장 흔한 맨 처음 관념이 역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래서 동의표를 다 끌어모으기 위해 부족했던 것은 그것이 마지막에 내놓아졌다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옛날과 지금의 모든 철학자들이 힘들에 대한, 우연·숙명·필연·원자·생명 있는 세계·살아 있는 물질·온갖 유물론 등에 대한 그들의 엉뚱한 학설들을 먼저 다 털어 내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도 유명한 클라크<sup>43\*</sup>가 세계를 해명하고 마침내는 존재들 중의 존재, 만물의 분배자를 알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게. 이토록 위대하고 위안이 되고 고상하며, 녀을 향상시키고 미덕에 토대를 주기에 이토록 알맞은 이 새로운 학설은, 또 동시에 이토록 뚜렷하고 빛나고 단순하며, 부조리한 것들이 발견된 딴 어떤 학설보다도 불가해한 것들을 사람 머리에 덜 제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학설은, 얼마나 광범한 감탄과 만장일치의 갈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가! 나는 생각했었지. 해결하지 못할 반론(反論)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그것들을 품기에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설에 다 있게 마련이고, 특히 어떤 학설에 불리하게 반증하는 일도 없다. 그런데 직접적인 증명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위의 학설만이 다른 학설들 이상의 어려움만 갖고 있지 않다면, 택해져

43\* Samuel Clarke(1675~1729), 라이프니츠와의 편지 내용으로 특히 유명한 신학자로, 1705년에 《설교집》(하느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하여, 등)을 내어 명성을 떨쳤다.

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만을 유일한 철학으로 삼고, 번거로운 논쟁을 털어 주는 쉽고 단순한 규칙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은 나는,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지식들은 다 명백한 것으로, 이 지식들과 필연적인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일 지식들은 다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식들은 물리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천에 유익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애써 그것들을 밝히려 들지도 말고, 그냥 불확실한 채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고는, 위의 규칙에 비추어 내게 관계되는 지식들의 재검토를 시작한 걸세.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사물들을 판단할 어떤 권리를 나는 갖고 있으며, 또 무엇이 내 판단들을 결정짓는가? 내 판단들이 만일 내가 받는 인상에 끌려다니고 강제당한다면, 이런 탐구에서 공연히 지칠 것은 나뿐,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끼어들어 그런 탐구를 이끌어 주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쓰고자 하는 연장을 알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믿고 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을 나 자신으로 돌려야만 해. 나는 존재하고 있고, 또 느끼게 해 주는 감각들을 지니고 있어. 이거야말로 나를 감명시킬뿐더러 내가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으뜸가는 진리야.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고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느낌에 의해서밖에는 내 존재를 느끼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나의 첫 의문이고, 지금으로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지. 왜냐하면, 직접 또는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느낌들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 느낌들 이외의 그 무엇인지, 또 그 느낌들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나의 느낌들은 나더러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하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내가 좋건 싫건 내게 영향을 끼칠뿐더러 그것들을 낳는 것도 없애는 것도 내게 달린 일은 아니므로, 그것들의 원인은 내 밖에 있는 거야.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느낌과, 내 밖에 있는 그 원인이나 대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

이리하여 비단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딴 존재들, 이를테면 내 느낌의 대상들도



존재하는 것이며, 이 대상들이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념들이 내가 아님은 여전히 사실이지.

그런데 내가 내 밖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내 감각에 작용하는 것 모두를 나는 물질이라 부르며, 개별적인 존재들 속에 합쳐진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의 부분들 모두를 나는 물체라고 부르고 있어. 따라서 관념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의 논쟁은 다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 물체들의 외관과 실재에 대한 그들의 구별은 망상이고.

여기서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존재 못지않게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됐어. 이어 나는 내 느낌의 대상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그것들을 비교하는 능력을 내게서 발견하고는, 전에는 내가 가진 줄도 모르던 어떤 능동적인 힘을 타고났음을 깨닫게 되거든.

알아본다는 것은 느끼는 일이야. 비교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일이고. 판단한다는 것과 느끼는 것은 같은 게 아니지. 느낌을 통해서는 대상물들이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 따로따로 고립되어 내게 나타나. 비교를 통해서는 그것들을 내가 움직이고 옮겨 놓고, 말하자면 하나를 또 하나 위에 얹어 놓아, 그 다르거나 닮은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모든 관련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돼. 내 생각으로는, 능동적이거나 지적(知的)인 존재의 특유 능력은, 이 ‘있다’는 단어에 하나의 뜻을 줄 수 있는 일이야. 포개어 놓고는 결정을 내리는 이지적인 힘을 내가 순전히 감각적인 존재에서 찾아본들 헛일, 그런 존재의 본성에서 그러한 힘을 찾아보지는 못할 거야. 이런 수동적인 존재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로따로 느낄 것이고, 둘로 된 전체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하나를 또 하나 위에 포갤 만한 힘은 전혀 없어. 그것들을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고, 판단하는 일도 없을 거야.

두 개의 대상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그것들과 유사점을 알아보는 것도, 차이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지. 몇 개의 대상을 따로따로 알아보는 것은 그것을 세는 것이 되지는 않아. 나는 내 손가락들을 세어 보지 않고도 내 손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듯이, 큰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에 대한 관념을 같은 순간에 가질 수가 있거든, 두 개

를 비교하지 않고도, 하나가 또 하나보다 작다고 판단하지 않고도 말이야.<sup>44</sup>‘하나’, ‘둘’ 따위의 수효 관념과 마찬가지로, ‘보다 크다’, ‘보다 작다’라는 비교 관념은, 느낌이 있는 경우에만 내 머리가 낡는 관념이긴 하지만, 분명 느낌은 아니거든.

감각 있는 존재는 느낌들 사이에 있는 차이에 의해 그 느낌들을 각각 구별한다고 들 말하지. 이진 설명이 필요해. 느낌들이 다를 때는, 감각 있는 존재는 그 차이에 의해 그것들을 구별한다. 그것들이 비슷할 때는 따로따로 느끼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 개의 똑같은 대상을,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느낌 속에서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감각 있는 존재는 영락없이 그 두 개의 대상을 혼동해 같은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공간을 나타내는 느낌들은 넓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설에서는 말이다.

비교한 두 개의 느낌이 지각될 때는, 그것들의 인상이 이루어져, 대상 하나하나가 느껴지고, 두 가지가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야. 만일 그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느낌에 지나지 않아 오로지 대상으로부터 내 게로만 오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느끼는 바를 느낀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들이 나를 속이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런데 저 두 개의 막대기의 비율에 대해, 특히 그것들이 나란히 있지 않을 때, 나는 왜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 예컨대 작은 막대기가 큰 것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나는 3분의 1이라고 말하는가? 느낌인 이미지는 대상인 모델과 왜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은, 판단할 때 내가 능동적이어서, 비교하는 작용이 틀리기 쉬우며, 비율을 판단하는 내 판단력이 제 실수를, 대상물들밖에는 보여 주지 않는 느낌들의 진실에다 뒤섞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생각을 곁들여 보게나. 정말이지 자네도 생각해 보면 놀랄 테니. 그것은, 만일 우리가 제 감각들을 쓸 때 순전히 수동적이라면, 그 감각들 사이에는 아

44 라 콩다민 씨의 보고는,<sup>45</sup> 셋까지밖에는 셀 줄 모르는 민족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을 구성하던 사람들에게도 손은 있어, 다섯까지 셀 줄은 몰라도 자기 다섯 손가락은 자주 보았던 것이다.

45\* 아카데미 회원인 La Condamine(1701~74)는 남미 여행의 보고서를 1745년에 발표했다.

무런 연락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말이다. 우리가 만지는 물체와 보는 대상물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될 걸세.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그 동일성을 알아볼 아무런 방법도 없을 다섯 가지의 감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는 있게 될 거야.

나의 느낌들을 대조 비교하는 내 정신의 이와 같은 힘에는 어떤 명칭을 붙여도 좋다. 주의력 · 성찰 · 반성 또는 그 밖에도 좋을 대로 불러라. 어쨌든 이 힘이 내 속에 있지 사물들 속에 있지는 않다는 것은, 비록 대상들이 내게 인상을 줄 때밖에는 내가 그 힘을 낳지는 못하지만 그 힘을 낳는 것이 나뿐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니까. 느끼거나 안 느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바를 많건 적건 검토해 보는 것은 내 마음대로다.

그러니 나는 감각 있는 수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지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으로, 철학이 무슨 말을 하건<sup>46\*</sup> 나는 감히 생각하는 명예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겠어. 나는 다만, 진리가 사물들 속에 있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내 머릿속에 있지는 않으며, 사물들에 대해 내가 내리는 판단에 내 것을 덜 집어넣을수록 더욱 나는 진리에 접근할 자신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지.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자신을 내맡긴다는 나의 규칙은, 이성 자체의 확인을 받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나 자신을 확인한 내가 내 밖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던져져 길을 잃은 자신, 무수한 존재들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들이 저 희끼리는 무엇이고 나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통 알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는 소름이 끼치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는데, 그것들을 비교하려는 내 앞에 나타나는 첫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

내가 감각에 의해 지각하는 것은 다 물질이고, 물질의 온갖 본질적인 특성을 나는, 나더러 그 물질을 알아보게 해 줄뿐더러 그 물질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감각적인 성질에서 미루어 생각해 보거든. 물질이 때로는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가만있는 것을 보고,<sup>47</sup> 여기서 나는 정지도 운동도 그 물질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

46\* 엘베시우스(Helvétius)를 비롯한 백과전서파의 감각론자들을 가리킨.

47 이 정지는, 하기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에는 더하고 덜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을 내리게 돼. 그런데 운동은 하나의 작용인 만큼 어떤 원인의 결과며, 정지는 그 원인의 부재에 지나지 않아. 따라서 아무것도 물질에 작용하지 않을 때 물질은 움직이지 않으며, 물질은 정지에도 운동에도 무관심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의해, 물질의 자연적인 상태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야.

나는 물체들에서 두 가지 운동을 알아보거든. 즉 전달된 운동과 자발적 · 의지적인 운동이 그거야. 전자에서는 동인(動因)이 움직여지는 물체 밖에 있고, 후자에서는 물체 자체에 있지.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시계의 운동을 자발적인 것이라고 결론짓지는 않겠어. 왜냐하면 태엽 이외의 판 아무것도 태엽에 작용하지 않으면, 태엽은 풀리려 들지도 톱니바퀴를 움직이지도 않을 테니까. 같은 이유로 나는 액체에도, 액체의 유동성을 만드는 불에도 자발성을 인정하지는 않겠어.<sup>48</sup>

자네는 동물들의 운동이 자발적인지를 내게 묻겠지. 나는 이 점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나 유추(類推)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겠어. 자발적인 운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또 묻겠지. 나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겠네. 나는 내 팔을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지, 이 움직임에 내 의지 이외의 직접적인 원인 없이도 말이야. 내게서 이런 느낌을 없애려고 누가 따지려 들어 봤자 헛수고야. 이 느낌은 어떤 뚜렷한 사실보다도 더 뚜렷하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게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지.

사람들의 행동에도,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자발성이 전혀 없다면, 모든 움직임의 첫 원인을 상상하는 데 있어 더욱 난처해질 따름이겠지. 나로서는 물질의 자연적인 상태는 정지 상태여서 물질 자체로서는 행동할 아무런 힘도 갖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만 보면 당장에 그것이 생명 있는 물체라고, 아니면 그 운동이 밖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돼. 유기적이 아닌 물질이 스스로 움직인단가가 어떤 작용을 낳는다는 생각에는 내 머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단

두 극단 중의 하나인 정지는 아주 뚜렷이 이해되며, 하도 잘 이해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정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버릇조차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물질이 정지 상태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운동이 물질의 본질이라는 것은 옳지가 않다.

48 화학자들은 연소(燃素)나 불의 원소를, 밖에서 온 원인이 풀어 주고 모으고 움직이게 해 불로 바뀌 줄 때까지는, 제가 섞여 든 혼합물 속에 흩어져 꼼짝 않고 가만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말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우주는 물질이지, 제 전체 속에 통일·유기적 조직·생명 있는 한 물체의 부분으로서의 공통 의식 같은 것은 전혀 갖지 않고 흩어져 있는 죽은 물질이지.<sup>49</sup> 부분인 우리가 전체 속의 자신은 통 느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까 말일세. 바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항구적인 법칙들에 묶여 규칙적이고 한결 같은 그 움직임에는, 인간이나 동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나타나는 그러한 자유라곤 전혀 없거든. 그러니 세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큰 동물은 아니야. 따라서 그 움직임에는 밖에서 오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건데, 그걸 나는 알아보지는 못하거든. 그러나 내 마음속의 확신이 그 원인을 하도 뚜렷이 느껴지게 해 주기 때문에, 태양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밀어 주는 힘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구가 돈다면 그것을 돌려 주는 손이 느껴지는 것만 같단 말이야.

물질과의 본질적인 관련들이 내 눈에 띄지 않는 일반 법칙들을 시인해야 한다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현실적인 존재, 실체가 아닌 이 법칙들에는 그러니, 내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탄 근거가 있어야만 해. 경험과 관찰이 우리에게 운동의 법칙들을 알려 주었고, 이 법칙들은 원인들은 보여 주지 않고 결과들만 결정짓거든. 세계의 체계와 우주의 발걸음을 설명하기에는 족하지가 않아. 데카르트는 주사위들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내고 있었지만, 회전 운동의 도움 없이는, 그 주사위들에 첫 흔들림을 주지도 그의 원심력을 써먹지도 못했어. 뉴턴은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그러나 인력만으로는 우주를 이내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만들고 말거야. 천체들더러 곡선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출력(射出力)을 그 법칙에 덧붙여야만 했어. 데카르트는, 어떤 물리적 법칙이 그가 말하는 소용돌이들을 만들어 내었는지를 말해 보라. 뉴턴은, 혹성들을 제 궤도의 접선(接線) 위로 던진 손을 우리에게 보여 주도록 하라.

운동의 첫 원인들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은 아니야. 물질은 운동을 받아 전달은 하지

49 살아 있는 분자를 이해하려고 나는 갖은 노력을 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감각 없이 느끼는 물질이라는 관념이 내게는 이해될 수 없는 모순된 것으로만 여겨진다. 이 관념을 받아들이거나 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이해해야만 하겠는데, 자백하지만 내게는 그러한 행운이 없다.

만 운동을 낳지는 않아. 서로 작용하는 자연의 힘들의 작용과 반작용을 관찰할수록 나는 더욱, 첫 원인으로서 어떤 의지에까지, 결과들에서 결과들로 언제나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왜냐하면 원인들의 연속을 한없이 가정하는 것은 전혀 그것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만 운동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 운동은 다 자발적·의지적 행위에서밖에는 올 수가 없어. 생명 없는 물체들은 운동에 의해서밖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의지 없이는 진짜 행동이란 있을 수 없지. 이게 나의 제1원리야. 따라서 나는 하나의 의지가 우주를 움직이고 자연에 생명을 준다고 믿어. 이게 나의 제1교리, 제1신조일세.

하나의 의지가 어떻게 해서 유형(有形)의 물리적인 작용을 낳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지만, 의지가 그것을 낳는다는 것은 자신 속에서 느끼고 있어. 나는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해, 내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내 몸이 움직이고, 그러나 가만있는 생명 없는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운동을 낳는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거니와 그런 예도 없거든. 의지는 그 행위들에 의해 내게 알려지는 것이지, 그 본성에 의해서는 아니야. 나는 이 의지를 동인(動因)으로 알고 있지만, 운동을 낳는 물질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분명 원인 없는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며, 전혀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

내 의지가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내 느낌들이 어떻게 해서 내 혼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내게는 안 될 일이지. 이 두 가지 수수께끼 중의 하나가 왜 다른 것보다 더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지조차도 나는 알지를 못해. 나로서는 내가 수동적일 때이건 능동적일 때이건, 두 실체를 결합하는 방법이 내게는 전혀 불가해한 것으로만 여겨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불가해에서 출발해서 두 실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괴상한 노릇이야. 마치 이다지도 다른 본성들의 작용들이 두 가지보다는 한 가지뿐일 때가 더 잘 설명되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방금 세워 놓은 교리는 애매한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는 갖고 있으며, 이성에도 관찰에도 어긋나는 점은 하나도 없어. 유물론에 대해서도 이만큼 말할 수 있을까? 운동이 물질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물질과 떼어 놓을 수가 없고, 물

질 속에 늘 같은 정도로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물질의 부분마다에 늘 똑같이 있어 전달될 수도,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으리라는 것은, 그래서 가만있는 물질이란 생각해 볼 수도 없으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운동이 물질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좀 더 뜻이 있다면 반박하기도 더 쉬울 그러한 말로 나를 속이려는 수작이지. 왜냐하면 물질의 운동이 물질 자체에서 온다면 운동은 물질에 본질적인 것이고, 만 원인에서 온다면 동인이 그 물질에 작용하는 한에 있어서만 운동은 물질에 필연적인 것이라는 말이 되고 마니까. 우리는 애초의 난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념들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들의 근원이야. 형이상학의 형설수설은 일찍이 단 하나의 진리라도 찾아 내게 해 준 일은 없으면서, 그 떠벌인 말들만 벗겨 버리면 당장 창피해질 엉뚱한 것들로만 철학을 가득 채워 놓았어. 어디, 말 좀 해 보게. 자연 전체 속에 퍼져 있는 눈먼 힘에 대해 누가 자네에게 말할 때, 무슨 진짜 관념이라도 자네 머리에 넣어 주는 것이 되는가? 보편적인 힘이니 필연적인 운동이니 하는 그런 막연한 말들로 뭉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 운동의 관념이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의 관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떤 방향이 없는 운동이란 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가 동시에 모든 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물질은 필연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물질은 다 함께 일매진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원자 하나하나가 고유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따르면 우주 전체가 쪼개지 못할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하고, 나중 생각을 따르면 두 원자가 결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 우주는 제멋대로 흩어진 하나의 유체(流体)밖에는 이를 도리가 없지. 물질 전체의 그 공통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행해질 것인가? 똑바로,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물질의 분자가 저마다 특수한 제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방향과 차이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물질의 원자나 분자가 저마다 제 중심을 따라 돌 따름이라면, 하나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전달되는 운동이라는 것도 없어질 걸세. 그래도 역시 그 회전 운동은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거고. 물질에 운동을 추상적으

로 부여한다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되고, 물질에 정해진 운동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운동을 결정하는 어떤 원인을 가정하는 것이 돼. 특수한 힘들을 늘려서 생각할수록 나는 설명할 새로운 원인들이 더 많아지거든, 그것들을 지배하는 공통 동인(動因)은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나는 원소들의 우연한 협력 속에 어떤 질서를 상상할 수 있기는커녕 원소들의 싸움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 우주의 혼돈이란 내게는 우주의 조화보다도 더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세계의 메커니즘이 사람 머리에는 이해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나도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그것을 설명하려든 이상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해야만 해.

움직이는 물질이 하나의 의지를 내게 보여 준다면, 일정한 법칙들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은 하나의 지혜를 내게 보여 주거든. 이것이 나의 둘째 신조야. 행동하고 비교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지. 따라서 그 존재는 존재하는 거야. 그것이 어디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고 자네는 내게 묻겠지? 굴러다니는 하늘나라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 주는 천체 속에도 나 자신 속에만이 아니라 풀을 뜯는 양, 나는 새, 떨어지는 돌, 바람에 끌려가는 나뭇잎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걸세.

나는 비록 세계의 목적은 알지 못하나 세계의 질서는 상상해 보거든, 그 질서를 상상해 보는 데는 세계의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그것들의 협력과 관련을 연구해 그 조화를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나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보지 않고는 못 배기며, 우주를 이루는 존재들로 하여금 서로 돕게 해 주는 그 긴밀한 교류 관계를 엿보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 나는 마치 열려진 시계를 처음 보고, 그 기계의 사용법도 모르고 그 자판을 본 적도 없으면서도 만든 솜씨에는 감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과도 같지. 그는 말하겠지, 나는 이 전체가 무엇에 소용되는지는 몰라도 부분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 솜씨가 속속들이 미친 그 장인바치에 탄복하며, 나는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공동 목적을 위해서만 이 모든 톱니바퀴



들이 이렇게 합심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sup>50\*</sup>

개개의 목적들을, 수단들을, 질서 주어진 온갖 관련들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나서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자. 어떤 건전한 정신이 이 느낌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편견 없는 어떤 눈에 우주의 뚜렷한 질서가 지고(至高)의 지혜를 보여 주지 않으며, 존재들의 조화와, 만 부분들의 유지를 위한 각 부분의 놀라운 협력을 무시하려면 얼마나 술한 궤변들이 거듭되어야 할 것인가? 결합이나 우연 이야기는 하고 싶을 대로 해 보라.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나더러 입을 다물게 해 봤자 무슨 소용이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에 늘 반발하는 이 무의식적인 느낌을 어떻게 내게서 앗아 갈 것인가? 유기체들이 항구적인 형태를 갖기 전에 어찌다가 제멋대로 결합되었다면, 처음에는 입 없이 위장만이, 머리 없이 발만이, 팔 없이 손만이, 자기보존이 되지 않아 망해 버린 이 온갖 불완전한 기관들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엉성한 시작(試作)품들이 이제는 왜 하나도 우리 눈에 띄지 않으며, 자연은 왜 처음에는 따르지 않던 법칙들을 마침내는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어떤 일은 그것이 가능할 때 일어나고, 일어나기 힘든 일도 무수한 시도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놀라지 않으며, 그것은 나도 시인해. 하지만 나는 누가 와서 인쇄소의 활자들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아에네이스》를 고스란히 짜내었다고 말한다 해서 그런 거짓말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 한 발도 내딛지는 않겠어. 당신은 무수한 시도는 잊었느냐고 누가 내게 말하겠지.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로 진짜 결합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나는 상상해 보아야 하는가? 단 하나의 시도밖에 보지 않는 나로서는 거기서 생겨난 것이 결코 우연의 결과는 아니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 결합이나 우연은 결합된 원소들과 같은 성질의 것들밖에 결코 낳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 유기체나 생명이 원자들의 한 번의 시도에서 생겨나지는 않으리라는 것, 합성물을 배합하는 화학자가 그 합성물터러 도가니 속에서 느끼거나 생각하게 하는

50\* 시계에 대한 비유는 데카르트(방법 서설) V)나 라이프니츠도 쓰고 있고, 특히 볼테르의 이행시로 유명해졌다.

우주의 품 안에 있는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 장인이 없다고는. 《강신술》(1772) X, 182)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보게.<sup>51</sup>

나는 니우벤티트를 읽고 놀랐어,<sup>53\*</sup> 아니 분노했을 정도야.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창조자의 지혜를 보여 주는 자연의 불가사의들에 대한 책 한 권을 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책이 세계만큼이나 커져도 세계의 주제를 다 바닥내지는 못했을 것이고, 조금만 세부에 들어가면 가장 큰 불가사의, 즉 전체의 조화와 일치가 빠져 달아나거든. 살아 있는 유기체들의 생성만도 인간의 머리에는 심연이야. 갖가지 부류들이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자연이 그 사이에 친 넘지 못할 장벽이, 자연의 의도를 더할 나위 없이 뚜렷이 보여 주고 있어. 자연은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는 않아. 그 질서를 아무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미까지도 해 둔 걸 세.

우주에는, 어떤 점에서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공통 중심으로 간주될 수 없는 존재란 하나도 없어, 그것들 모두가 서로 상대적으로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 둘레에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말아야. 정신은 이 무한한 관련들 속에서 당황해 어리둥절하지만, 그 관련은 하나도 그 법칙 속에서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하지 않거든 우연히 움직이는 물질의 눈먼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조화 모드를 끌어내려면 얼마나 숭한 영동한 가정들을 해야 하는가! 이 큰 전체의 모든 부분들의 관련들 속에 나타나 보이는 의도의 일관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추상이니 배열 · 일반 원

51 그 증거가 없다면, 사람의 영동함이 여기까지 끌려갈 수 있다고 믿어지겠는가? 프로메테우스라도 되듯이, ‘줄리우스 카밀루스’가 연금술 지식으로 만들어 낸 1인치 키의 난쟁이가 유리컵에 갇혀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아마투스 루시타누스’는 장담했었다. 파라켈수스는 《물체 본성론》에서 그러한 난쟁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소인족 · 목신 · 반수신 · 님프들이 화학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의 가능성을 확증하려면, 유기 물질이 불의 열에 견디고 그 분자들이 반사로 속에서도 살아남는다고 우겨 대는 일 말고는, 또 무슨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sup>52\*</sup>

52\* Amatus Lusitanus(본명 Joannes Rodericus)는 16세기 포르투갈의 의사. Paracelse(1493~1541)는 난쟁이를 만들어 내었다는 전설을 지닌 연금술 학자.

53\* Nieuwentyt(1654~1718): 네덜란드의 의사. 《자연의 불가사의로 증명된 하느님의 존재》(1715, 프랑스어역 1725)로 명성을 떨쳤다. 루소는 샤프레트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다.

리·상징적인 용어 따위로 자기네의 횡설수설을 덮어 가려 본들 헛일,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건, 이토록 항구적으로 질서 지어진 존재들의 체계를, 그 체계에 질서를 주는 하나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겐 되지 않을 일이거든. 수동적인 죽은 물질이 살아 느끼는 존재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눈먼 숙명이 지능 있는 존재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존재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니 나는 세계가 힘 있고 현명한 어떤 의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믿어. 나는 그것을 보고 있고, 아니 오히려 느끼고 있으며, 안다는 것이 내게는 중요해. 그런데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낸 것인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은 있는 것인지? 둘이나 그 이상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의 본성은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또 그게 내게 무슨 대수인가? 그러한 지식들이 내게 흥미로운 것이 되어 감에 따라 그것들을 얻도록 나는 힘을 거야. 그때까지는, 내 자존심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행동에 소용도 없거니와 내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쓸데없는 문제들은 단념하기로 해.

나는 내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물질이 영원한 것이건 만들어진 것이건, 수동적인 어떤 원리가 있건 없건, 전체는 하나이어서 유일한 지혜를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틀림없거든. 왜냐하면 같은 체계 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목적, 즉 세워진 질서 속의 전체의 유지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나는 볼 수가 없으니 말이야. 바라고 행할 수 있는 이 존재, 스스로 능동적인 이 존재, 그가 무엇이건 요컨대 우주를 움직이고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 존재를 나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에다가 나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의 관념들을 몰아 결부시키고, 그것들의 필연적인 결과인 선(善)의 관념을 결부시키거든.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붙인 이 존재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은 아니야. 그는 내 감각에서도 이해력에서도 똑같이 숨어 있거든. 그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황하게 돼. 그가 존재한다는 것,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 내 존재가 그의 존재에 팔려 있다는 것, 내게 알려진 모든 것들도 완전히 같은 형편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나는 도처에

서 그의 일을 통해 하느님을 알아보거든. 나 자신 속에 그를 느끼고 내 둘레 사방에서 그를 보고 있어. 그러나 그를 그 자신으로서 바라보려 들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아 내려 들면 당장 그는 내게서 빠져 나가, 어리둥절해진 내 정신은 이미 아무것도 알아보질 못한단 말이야.

자신의 모자람을 뼈저리게 느끼는 나는, 그의 나와의 관련에 대한 의식이 나더러 강요라도 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본성에 관해 따지지는 않겠어. 그러한 추리는 언제나 무모한 짓이어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떨지 않고서는 못하게 마련, 자기가 그런 추리를 파고들게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지. 왜냐하면 신성(神性)에 대해 가장 모독적인 것은 진정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니까. 하느님의 속성들 중에서 나더러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나는 자신으로 되돌아와, 하느님이 다스리는 사물들, 또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사물들의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지. 인류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 첫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 왜냐하면 내 의지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연장들 때문에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체가 물리적인 충동만으로 나도 모르게 내게 작용하기 위해 갖는 이상의 힘을, 그것들에 작용하기 위해서나 그것들의 작용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나 피하기 위해 갖고 있으니까, 또 내 지능 때문에 나는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니까. 사람 말고는 이승의 어떤 존재가 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것들의 움직임이나 그 결과를 재고 계산하고, 예측할 줄 알며, 이를테면 공동 실존 의식을 자신의 개별 실존 의식에 결부시킬 줄을 아는가? 내가 모두를 자신에게 결부시킬 줄 아는 유일한 존재라면 모두는 나를 위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다지 어처구니없을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땅 위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길들이고, 제 재주로 원소들을 마음대로 다룰뿐더러, 지구에서는 사람만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고, 또 접근할 수 없는 천체들까지도 바라봄으로써 제 것으로 삼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불을 쓸 줄 알고 태양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딴 동물을 하나라도 대어 보라. 아무렴! 나는 존재들과 그것들의 관련들을 관찰 인

식할 수 있고, 질서 · 아름다움 · 미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고, 우주를 바라보며 그것을 지배하는 손에까지 자신을 높일 수가 있고, 선을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자신을 짐승들과 비교야 하겠는가? 졸렬한 놈 가진 자여, 너를 짐승들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의 그 한심한 철학이야. 아니 그보다도 네가 공연히 자신을 타락시키려 들어 봤자 소용없어. 네 천분이 네 주장을 반대하고 있고, 네 착한 마음이 네 주의(主義)를 저 바리고 있고, 네 능력의 악용 자체가, 네가 뭐라 하건 네 지능의 뛰어남을 증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지할 아무런 체계도 갖지 않은 나로서는, 어떤 당파의 열광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명예도 갈망하지 않아, 하느님이 나를 놓아 준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단순하고 성실한 인간인 나로서는, 하느님 다음으로는 인류보다 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설사 존재들의 질서 속에서 내 자리를 골라잡아야 한다면 치더라도, 인간이 되는 이상의 무엇을 골라잡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나를 뽐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동시켜. 왜냐하면 이 상태는 내가 골라잡은 것이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던 어느 존재의 공로에 힘입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또 나를 여기에 놓아 준 손을 축복하지 않고서는, 어찌 이렇게 뛰어난 나 자신을 볼 수 있겠는가? 나 자신으로 되돌아와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장에 내 마음속에는, 인류의 창조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감정이 생겨나고, 이 감정으로부터 자비로운 신성(神性)에 대한 나의 첫 존경심이 생겨나거든. 그 최고의 힘을 경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 이러한 신앙은 남이 내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자연 자체가 내게 일러 준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이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애심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그런데 이어서 인류 속의 나의 개인적인 자리를 알기 위해 그 갖가지 신분들과 그 신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무슨 광경! 내가 보던 질서는 어디에 있는가? 자연의 광경은 조화와 균형밖엔 보여 주지 않았었는데, 인류의 광경은 혼란과 무질서밖엔 보여 주지 않다니! 자연계의 요소들 사이에서는 협조가 군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있다니! 동물들은

행복한데, 그들의 왕만이 비참하다니! 오! 지혜여, 너의 법칙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 섭리여, 당신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인가? 자비로운 존재여, 당신의 권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땅 위에 악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여보게, 이런 서글픈 고찰과 뚜렷한 모순들로부터, 여태까지 내 연구에서 얻어지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숭고한 관념들이 내 정신 속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자네는 믿겠는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숙고함으로써 나는 거기에 판이한 두 가지 근원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을 영원한 진리의 연구나, 정의와 아름다운 도덕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현자의 더없는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지성 세계의 영역으로 높여 주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을 비열하게도 그 자신 속으로 되끌어내려 감각의 지배와 그 앞잡이인 정념들에 굴복시키고, 첫 근원의 감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 모두를 그 정념들로 가로막고 있었어.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움직임에 끌려다니며 시달리고 있다고 깨달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 인간은 하나가 아니야. 나는 바라면서 바라지 않고 있고, 자신이 동시에 노예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선을 알고 또 좋아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거든. 나는 이성에 귀를 기울일 때는 능동적이고, 정념에 끌려다닐 때는 수동적이며, 내가 저서 넘어갈 때의 가장 고약한 괴로움은, 버틸 수도 있었다고 깨닫는 일이란 말이야.

젊은이여, 믿고 들어주게, 나는 언제나 솔직할 테니. 양심이 편견의 소산이라면 분명 내가 틀린 것이고, 밝혀진 도덕도 없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고, 그러면서도 첫 정의감이 사람 마음에 선천적인 것이라면, 인간을 단순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이가 이러한 모순을 없애어 달라, 그러면 나는 하나의 실체밖에는 알아보지 않게 돼.

이 실체라는 단어에서 내가 뜻하는 바는 대체로 어떤 근원적인 성질을 타고난 존재이지, 개별적이거나 부차적인 변형들은 다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게. 그러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모든 근원적인 성질들이 같은 한 존재 속에 합쳐질 수 있다면, 하나의 실체밖에는 시인하지 말아야 하지만, 서로 배척하는 성질들이 있다면, 그러한 배척이 가능할 만큼의 갭까지 실체도 있는 셈이지. 이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생각해 보게나. 나로서는, 로크야 뭐라 그러건, 물질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넓이가 있어 분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하기만 하면 되고, 또 어느 철학자가 나한테 와서 나무들이 느끼고 바위들이 생각한다고 말해,<sup>54</sup> 그 교묘한 논법으로 나를 골탕먹이려 해 봤자 헛수고, 나는 그에게서, 인간에게 혼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돌에 감정을 주기를 더 좋아하는 불성실한 꾀변가밖에는 보지 않거든.

귀에 소리라곤 들어본 적이 없어 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 귀머거리를 생각해 보자. 내가 그 눈앞에 현악기를 갖다 대고 감추어 둔 판 악기로 동음을 공명시킨다. 귀머거리는 현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소리다, 하고 내가 말해 준다. 천만에, 현의 진동의 원인은 현 자체 속에 있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모든 물체에 공통된 성질이야, 라고 그가 대답한다. 그럼 이러한 진동을 판 물체들에서 보여 줘, 아니면 진동의 원인을 이 현에서라도 보여 달라고, 내가 말을 잇는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 하고 귀머거리가 대꾸한다. 그런데 이 현이 어떻게 진동하는가를 내가 모른다 해서 왜 내가 짐작도 하지 않는 당신네들의 그 소리를

54 요즈음 철학은, 바위들이 생각한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만 같다. 요즈음 철학은 자연에서 감각 존재들밖에는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말아, 사람과 돌 사이에 발견하는 차이라고는, 사람은 감동을 아는 감각 존재이고 돌은 감동 없는 감각 존재라는 점뿐이다. 그런데 물질이 다 느낀다는 말이 옳다면, 감각하는 단위체 즉 개별적인 자아를 나는 어디서 알아볼 것인가? 물질의 각 분자 속에서인가, 아니면 집합체들 속에서인가? 이러한 단위를 나는, 액체와 고체 속에, 혼합물과 원소 속에 똑같이 인정할 것인가? 자연에는 개체들밖에 없다고들 말하지만, 그 개체들이란 무엇인가? 이 돌은 개체인가, 개체의 집합체인가? 하나만인 감각 존재인가, 모래알들만큼의 감각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원자 하나하나가 감각 존재라면, 하나가 또 하나 속에서 자신을 느껴 '자아' 둘이 하나로 융합되게 하는 저 내면적인 교감이 이해될 도리가 있겠는가? 인력이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자연 법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질량에 따라 작용하는 인력에는 공간 및 가분성(可分性)과 양립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만은 이해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하는가? 느끼는 부분들은 퍼져 있지만 감각 존재는 불가분이어서 하나다. 나누어질 수가 없어 전체 아니면 무(無)다. 감각 존재는 그러니 물체가 아니다. 유물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더러 생각을 부정케 한 바로 같은 어려움들이 감정도 마땅히 부정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첫 발을 내딛던 그들이 왜 다음 발도 내딛게 되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힘들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느낀다고는 감히 우겨 대는가?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만 하는가? 이걸 애매한 사실을 더욱 애매한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셈이지. 당신네들의 그 소리를 나더러 느끼게 해 줘, 아니면 나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테니까.

사색에 대해, 인간 정신의 본성에 대해 내가 곰곰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유물론자들의 추리가 이 귀머거리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가 힘든 어조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머거리지. 기계는 생각하는 일이 없다. 기계에는 반성을 낳는 운동도 형상도 없다. 네 속의 무엇인가가 저를 얹매는 밧줄들을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 공간은 네 척도가 아니고, 우리 전체도 네게는 그다지 크지가 않다. 네 감정들, 네 욕구들, 너의 불안, 너의 교만조차가, 네가 그 속에 얹매여 있다고 느끼는 그 좁은 육체와는 근원이 다르다.

물질적인 어떤 존재도 스스로 능동적은 아닌데, 나는 다르다. 이 점에 대해 누가 내게 대들어 봤자 헛일,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내게 말해 주는 이 느낌이 대드는 이치보다는 더 강하단 말이야. 탄 물체들의 작용을 받고 또 탄 물체들에 작용하는 육체를 나는 갖고 있어. 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 그런데 내 의지는 내 감각들에서 독립되어 있어. 나는 동의하기도 저항하기도 하고, 지기도 이기기도 하며, 하고 싶어서 할 때나 내 정념에 저서 할 때나 내 마음속에서 그걸 완전히 깨닫고 있거든. 내게는 바라는 능력은 언제나 있지만, 실행하는 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유혹에 빠질 때는 외부 사물들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이러한 약함을 자책할 때는 내 의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고. 나는 내 악덕에 의해 노예이고, 뉘우침에 의해 자유인 거야. 내가 자유라는 느낌은, 내가 타락할 때, 영혼의 목소리가 육체의 법칙에 항의하는 것을 내가 가로막을 때밖에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거든.

나는 내 의지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밖에는 의지를 알지 못하며, 이해력도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아. 내 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 판단을 결정하는 원인은 무엇이냐고 되물게 되거든. 왜냐하면 이 두가지 원인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며, 인간이 판단에 있어서는 능



동적이고, 그 이해력이란 비교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자유도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에서 파생된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인간은 진실을 판단했기에 선을 택하는 것이며, 판단을 그르치면 선택도 잘못하게 돼. 그러니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판단이지. 그럼 그 판단을 결정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적 능력이고, 판단력이야. 결정하는 원인은 인간 자신 속에 있거든. 이걸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분명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을 자유도 없지만, 자신의 불행을 바랄 자유도 없어. 그런데 나의 밖에 있는 아무것도 나더러 결정하게 하는 일 없이, 내게 알맞은 것이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밖에는 내가 바랄 수 없다는 점, 바로 여기에 내 자유가 있는 걸세. 내가 나 아닌 남이 될 자유가 없다 해서 나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는가?

모든 행동의 근원은 자유로운 존재의 의지 속에 있으며, 이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말이지. 능동적인 근원에서 말미암지 않은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를 가정한다는 것은 바로, 원인 없는 결과를 가정하는 일이고, 순환 논법에 빠지는 일이야. 첫 충동이 없거나, 모든 첫 충동에 앞서는 원인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쪽이며, 자유 없이는 진짜 의지란 있지도 않은 거야. 따라서 인간은 어느 비물질적인 실체에 의해 이렇게 생명 주어진 자로서 그 행동에 있어 자유로운 거지. 이것이 나의 셋째 신조야.<sup>55\*</sup> 내가 계속해서 들지 않더라도 자네는 이 세 가지 기본 신조로부터 나머지 신조들을 다 쉽사리 끌어내게 될 걸세.

인간이 능동적이고 자유롭다면 스스로 행동해. 인간이 자유로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섭리가 정한 체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 섭리 탓으로 돌려질 수가 없어. 섭리는 자기가 주는 자유를 인간이 남용해 가며 행하는 악을 바라지는 않으나,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지도 않거든. 하긴 그토록 악한 존재가 하는 것이니 그 악이 섭리

55\* 세 가지 신조는 따라서: 1. 하나의 의지가 물질을 움직이고 있다. 2. 하나의 지성(知性)이 그 물질을 다스리고 있다(coordonner). 3. 자유는 영혼의 정신성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아니면 인간의 자유를 엮매지 않고서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킨다는 더욱 큰 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인지도 몰라. 인간이 선택해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섭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 거야. 자기가 태워 준 능력들을 인간이 제대로 써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걸세. 그런데 섭리는 인간의 힘을 아주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겨진 자유의 남용이 일반 질서를 어지럽힐 수는 없지.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야. 세계의 조직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인류 자체가 종전 싫건 존속하는 것을 막는 일도 없이 말이야. 악을 행하는 것을 하느님이 막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것은 인간을 뛰어난 본성을 갖게 만들었다 해서, 인간의 행동을 고귀하게 하는 도덕성을 그 행동에 곁들여 주었다 해서, 인간에게 미덕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고 해서 투덜거리는 셈이지. 최고의 기쁨은 자기만족에 있어. 우리가 땅 위에 놓고 자유를 타고난 것은, 정념들에 유혹당하면서도 양심의 제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만족을 얻을 자격을 갖기 위해서야. 신의 힘으로도 우리를 위해 이 이상의 무엇이 가능했겠는가? 우리의 본성에 모순을 넣어줄 수가,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능력이 없던 자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상을 줄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 인간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본능만 주어 짐승으로 만들어야만 했더라 말인가? 천만에, 내 혼의 하느님이며, 제가 당신처럼 자유롭고 착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려고 제 혼을 당신 모습에 따라 만들었다 해서 저는 결코 당신을 책망하지는 않겠어요.

우리를 불행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의 악용이야. 우리의 슬픔·걱정·고생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걸세.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그것을 우리더러 느끼게 만든 우리의 악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자연이 우리더러 갖가지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육체의 고통은 기계에 탈이 생겼다는 신호, 그것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아닌가? 죽음…… 악인들은 자기네 생명과 우리 생명을 독살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언제까지나 살기를 바라겠는가? 죽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대한 약이지. 자연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고생하도록은 바라지

않았던 거야. 원시적인 단순함 속에서 사는 인간은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병도 정념도 거의 없이 살며, 죽음은 예상하지도 느끼지도 않거든. 죽음을 느낄 때는 비참한 처지가 죽음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 주지. 그래서 죽음도 그에게는 이미 고통은 아니거든.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 만족한다면 우리 운명을 한탄할 것은 없을 걸세. 그러나 가공의 안락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술한 현실적인 고통을 사서 하고 있는 거야. 얼마간의 고통을 견뎌 낼 줄 모르는 자는 많이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해. 방종한 생활로 몸을 버리게 되면 약으로 돌이키려고들 들지. 느끼는 고통에다 두려워하는 고통을 덧붙이는 셈이지. 죽음에 대한 예상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들고 죽음을 재촉해. 죽음을 피하려고 들수록 더욱 죽음을 느끼게 되어, 자연을 어김으로써 제가 사서 만든 고통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 투덜거리 가면서 평생을 줄곧 두려움 때문에 죽어 가고 있는 거야.

인간아, 고통을 만드는 장본인을 더 찾지 말라, 그 장본인은 바로 너 자신이니까. 네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고통이나 네가 겪고 있는 고통 이외의 딴 고통이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고통은 양쪽이 다 네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거다. 일반적인 고통이란 물질서 속에밖엔 있을 수 없는데, 나는 세계의 조직 속에서 변함없는 질서를 보고 있어. 개별적인 고통은 그것에 시달리는 존재의 감정 속에밖엔 없고, 이 감정은 인간이 자연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준 거야.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어 회상도 선견지명도 없는 자에게는 고통도 맥을 추지 못하거든. 우리의 불길한 진보를 떨어 버리라, 우리의 착오와 악덕들을 없애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을 없애라, 그러면 모두가 좋아질 테니.

모두가 좋은 데서는 아무것도 부정하지가 않아. 정의는 선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선이란 어떤 무한한 능력의, 자신을 깨닫는 존재 모두에 본질적인 자기애의 필연적인 결과이거든. 모두가 가능한 이는 이를테면 자신의 존재를 만물의 존재와 함께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낳는다는 것과 유지한다는 것은 능력의 끊임없는 행위지. 능력은 있지 않은 것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은 아니야. 그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서는 파괴자나 악한 자가 될 수가 없을

거야. 모두가 가능한 이는 좋은 일밖에는 바랄 수가 없지.<sup>56</sup> 따라서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이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기에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옳아야 해. 그러지 않고서는 그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 왜냐하면 질서를 낳는 질서애가 ‘선’이라 불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애가 ‘정의’라 불리니까.

하느님은 자기가 만든 것들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들 말하지. 그것들에게 존재를 태워 주면서 당신이 약속한 것 모두에 대해 하느님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그것들에게 선의 관념을 주어 그것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선을 약속하고 있는 셈이거든. 내가 자기반성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영혼 속에 적힌 다음 말들을 더욱더 읽게 돼. “올바르게 살아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테니.” 그런데도 현 사태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악인이 잘 되고 옳은 사람은 여전히 박해만 받고 있거든. 이러한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심한 노여움이 불붙는가도 보라! 양심이 저를 만들어 준 자에게 대들며 투덜거리지.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울부짖으며 말아야.

내가 너를 속였다고, 이 무모한아! 누가 네게 그런 말을 했지? 네 혼은 없어지고 말았는가? 너는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는가? 오, 브루투스! 오, 내 아들이! 네 고귀한 생명을 끝장냄으로써 그 생명을 더럽히질랑 말라. 너의 희망과 명예를 네 육체와 함께 필리피 들에 내버리질랑 말라. 네 미덕의 대가를 받으려는 판에, 미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왜 하느냐? 너는 곧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천만에, 너는 이제부터 사는 거고, 내가 네게 약속한 모두를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sup>57\*</sup>

참을성 없는 인간들의 투덜거림을 듣자니, 마치 공로도 있기 전에 하느님이 상을 주어야 하고, 그들의 미덕에 미리 값을 치러야 하는 것과도 같군. 오, 먼저 선량해 지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행복해질 테니. 이기기 전에 상을, 일하기 전에 보수를

56 고대인들이 최고의 신을 ‘최대의 선(Optimus Maximus)’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옳은 말이다. 그러나 ‘선한 최대자(Maximus Optimus)’라고 말했더라면 더 정확했을 것이다. 그의 선은 그의 힘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는 위대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57\*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들에서 안토니우스의 군사와 싸우다가 패전한 브루투스(Brutus)는, “미덕이여, 너는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구나” 하고 외치며 자살했다.

요구하질랑 말자. 우리의 거룩한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은 경기장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경기장을 달리고 난 다음이라고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어.<sup>58\*</sup>

영혼이 비물질적인 것이라면 육신보다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살아남는다면 섭리는 정당해지는 거지. 영혼의 비물질성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서의 악인의 승리와 옳은 자의 박해 이외의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내가 의심하는 것은 막아 줄 거야. 우주의 조화 속의 이토록 거슬리는 부조화가 나더러 그 조화를 애써 해결하도록 해 줄 거야. 우리로서는 모두가 생명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의해 모두가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겠지. 인간이 느끼던 것이 다 망가지고 나서 인간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말이지 나도 당황하게 될 걸세. 이 문제도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실체를 알아보고 나면 이미 내게는 어려운 것은 아니야.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내 감각들에 의해서밖에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므로, 그 감각들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잡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주 뻔한 일이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깨어질 때 하나는 분해되나 또 하나는 보존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왜 하나의 파괴가 또 하나의 파괴를 가져오겠는가? 반대로 성질이 판이해 결합으로 오히려 억지 상태에 있던 이 두 가지는 그 결합이 끝나면 다 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살아 있어 능동적인 실체가 죽어 수동적인 실체를 움직이는 데 쓰던 힘을 고스란히 되찾는 거지. 아! 나는 자신의 악덕들에 의해 너무나 잘 깨닫고 있어. 인간은 평생 반박에는 살지 않으며, 영혼의 삶은 육체의 죽음에서밖에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일세. 그런데 이 삶은 무엇이고, 영혼은 본성에 의해 불멸한 것인가? 한정된 내 이해력은 무한정인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못하거든. 무한정하다고 불리는 것은 다 내게는 잡혀지가 않아. 나는 무엇을 부정하고 긍정할 수 있으며,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두고 어떤 추리를 할 수 있겠는가? 영혼은 질서를 유지할 만큼은 육신보다 오래 살아남는다고 나는 믿어.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만큼인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육체가 어떻게 낡아지고 그 부분들의 분해로 어떻게 파괴되는가는 나

58\* 플루타르코스의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따라 즐겁게 살 수는 없다》, 59에서 인용된 것.

도 이해가 가지만, 생각하는 존재의 그와 비슷한 파괴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나로서는 그것이 죽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밖에. 이러한 추측이 나를 위로해 주고, 또 거기에는 이치에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그것을 믿기를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자신의 영혼을 느끼고 있어. 나는 느낌과 생각을 통해 영혼을 알고 있지. 이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 내가 갖지도 않은 관념들을 두고 추리할 수는 없어. 내가 잘 알고 있는 바는, '나'의 동일성은 기억에 의해서밖에는 연장될 수 없으며, 실제로 같아지려면 내가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걸세. 그런데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느낀 일, 따라서 내가 한 일도 상기하지 않고서는 내 평생에 내가 어떠한가를 상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회상이 언젠가는 선인들의 기쁨과 악인들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이승에서는 불타는 술한 정념들이 내면의 감정을 삼켜 버리고 뉘우치는 마음을 속여 넘겨거든. 미덕의 실천이 가져오는 창피와 불운이 미덕의 온갖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거든. 그러나 육체와 감각들이 우리에게 빚어 주는 환상들에서 풀려 나와 최고의 존재와 그에게서 말미암은 영원한 진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즐기게 될 때, 질서의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의 온갖 능력을 건드릴 때, 우리가 한 일을 했어야 한 일과 비교해 보는 일에만 우리가 오로지 몰두하게 될 때, 양심의 소리가 제 힘과 지배력을 되찾게 될 것은 바로 그때야. 자기만족에서 생기는 순수한 기쁨과 타락한 데 대한 쓰디쓴 뉘우침이 무진장한 느낌들을 통해, 저마다가 마련해 둔 운명을 식별하게 될 것은 바로 그때지. 오, 친구여, 행복과 고통의 탄 근원들이 있을 것인지를 내게 묻질랑 말라. 나는 그걸 모르고, 또 내가 상상하는 근원들만으로도 나더러 현세에서 위안을 주고 내세에 기대를 걸게 하기에는 충분해. 선한 자들이 상 받게 되리라는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 일 말고 어떤 탄 행복을 뛰어난 존재가 얻을 수 있겠는가? 다만 그들은 행복할 것이라고만 말해 두겠어. 그것은 그들을 만든 이, 그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정의 전체의 창조자가 괴롭히려고 그들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또 땅 위에서 자기네의 자유를 악용한 일 없는 그들은 자기

잘못으로 자기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더구나 그들은 현세에서 고생했으며, 그러니 내세에서는 보상을 받게 되겠지. 이러한 생각은 그 근거를 인간의 가치에보다는, 신의 본질과는 떼어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선(善)의 개념에다 두고 있어. 내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다만 질서의 지켜진 법칙들과 스스로 영영 변치 않는 하느님뿐이지.<sup>59</sup>

악인들의 고통이 영원한 것인지도 내게 묻질랑 말게. 나는 그것 역시 알지 못하며, 무익한 문제들을 밝혀 보겠다는 헛된 호기심도 없어.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내게 무슨 대수인가? 그들의 운명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하지만 그들이 끝없는 고통을 받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믿기가 힘들어. 만일 최고의 정의가 양값을 한다면 이미 현세에서 하고 있는 거야. 오, 여러 나라 국민들아, 당신들과 당신들 잘못이 그 대행자가 아닌가. 최고의 정의는 당신들이 서로 저지르는 악을 써서 그 악을 가져온 죄들을 벌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의 가짜 변명 속에서도 양심 먹은 정념들이 당신들의 죄악을 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샘과 탐욕과 야심에 좀 먹혀 게걸들린 당신네 마음속에서야. 지옥을 찾아 구태여 내세까지 갈 필요가 무엇인가? 지옥은 이미 현세에서 악인들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덧없는 요구들이 끝날 때, 우리의 지각없는 욕망들이 그칠 때, 우리의 정념과 죄들도 그치게 마련이지. 순수한 정신들이 어떤 패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왜 악해지겠는가? 우리의 이 영성한 감각들이 없어져 자기네의 행복 모두가 존재들을 바라보는 데 있게 되면, 그 정신들은 좋은 일밖에는 바랄 줄을 모를 것이며, 또 악하기를 그만둔 자라면 누구건 영영 비참해질 수야 있겠는가? 이상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바이지만, 이 점에 대해 결단을 내릴 생각은 없어. 오, 관대하고 어진 존재여! 당신의 분부가 무엇이건 나는 그것을 우러러 받든다. 당신이 악인들을 벌한다면, 나는 당신의 정의 앞에선 내 무력한 이성을 버린다. 그러나 이 불쌍한 자들의 뉘우침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지게 마련이라면, 그들

59 주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 하느님이시여! 저희를 부활케 하소서! (〈시편〉, 115)

의 고통에도 끝이 있게 마련이라면, 언젠가는 똑같은 평화가 우리 모두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래서 당신을 찬양한다. 악인은 나의 형제가 아닌가? 나는 몇 번이나 그들과 같아지고 싶었던가? 자신의 비참에서 풀려 나온 그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악한 마음도 잃어버리기를, 그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의 행복은 내 질투심을 꼬드기기는커녕 내 행복을 늘려 주기만 할 테니. 이리하여 하느님을 그의 하는 일을 통해 바라보고, 그의 속성들 중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통해 그를 연구한 나는, 이 가없는 존재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처음에는 국한되어 불완전하던 관념을 차츰 넓히고 늘려 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이 관념은 설사 더욱 고귀해지고 더욱 위대해졌다 하더라도, 인간과 이성에는 더욱 맞지 않는 것이거든. 정신적으로 영원한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 광채에 눈이 부시고 어리둥절해진 나는, 나를 도와 그 빛을 상상하게 해 주던 온갖 현세적 개념들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제 하느님은 몸뚱이가 있어 느끼는 존재는 이미 아니지.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혜는 이미 세계 자체는 아니거든. 그 본질을 이해하느라고 내 정신을 아무리 높이고 지쳐 빠지게 해도 헛일이지. 생명체들을 지배하는 살아 능동적인 실체에 생명과 활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생각하면, 내 영혼은 영적이고 하느님은 하나의 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모독에 나는 분개해, 마치 하느님과 내 영혼이 같은 본성의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마치 하느님이 유일한 절대 존재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과 느낌과 활동력과 의지와 자유와 존재를 우리에게 태워 주며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정말로 능동적인 유일한 존재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일세. 우리가 자유롭기를 하느님이 바라기 때문에만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고, 설명될 수 없는 그의 실체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계는, 우리 영혼의 우리 육체에 대한 그것과 마찬가지로야. 물질 · 물체들 · 정신들 · 세계를 그가 창조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 창조의 관념은 나를 어리둥절케 하며 내 힘을 넘어서거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믿고 있어. 그러나 하느님이 우주와 존재하는 모두를 꾸며 내었다는 것, 모두를 만들고 모두에 질서를 주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하느님은 분명 영원해. 그런데 내 머리는 영원의 관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왜 나는 관념도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야 하는가? 내가 아는 바는, 하나님이 만물들 이전에 존재하고, 그것들이 존속하는 한 존재할 것이고, 언젠가 모두가 끝장이 나야 하더라도 그 후에도 그는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존재가 만 존재들에게 존재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애매하고 불가해 할 따름이야. 그러나 존재와 허무가 서로끼리 바뀌치기를 한다는 것은 뻔한 모순이고 분명한 부조리지.

하느님은 지혜로워.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운가? 사람은 추리할 때 지혜롭고 최고의 지혜는 추리할 필요가 없어. 최고의 지혜에게는 전제도 결론도 없고, 명제조차도 없어. 그 지혜는 순수하게 직관적이어서 있는 것 모두와 있을 수 있는 것 모두를 똑같이 보며, 그에게는 모든 곳이 단 하나의 점, 모든 시간이 단 하나의 순간에 불과하듯이 모든 진리도 단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거든. 인간의 능력은 수단들에 의해 작용하고, 선의 능력은 제 자체에 의해 작용해. 하느님은 바라기에 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의 의지가 그의 능력을 낳고 있어. 하느님은 선하며, 이보다 더 뚜렷한 것은 없지.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의 선은 동포에 대한 사랑이고, 하느님의 선은 질서에 대한 사랑이지. 왜냐하면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을 유지케 하고 각 부분을 전체와 결합시키는 것은 바로 질서에 의해서니까. 하느님은 옳아. 나는 그것을 믿고 있으며, 이는 그의 선의 하나의 결과야. 사람들의 부정은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 하느님이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야.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섭리에 불리하게 증언하는 도덕적 무질서도 내가 보기에는 섭리를 입증해 주는 것만 같아. 그런데 인간의 정의는 각자에게 딸린 것을 각자에게 돌려 주는 일이고, 하느님의 정의는 자신이 각자에게 준 것에 대한 책임을 각자에게 묻는 일이야.

내가 절대적인 관념을 통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속성들을 잇달아 발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귀결 때문이고, 내 이성의 선용 때문이지. 그런데 나는 그 속성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긍정하는 것이니, 결국은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는 셈이야. 하느님은 이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증명한다. 이런 말을 내가 속으로 해 봤자 소용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느님이 어째서 그런 것일 수 있는지를 내가 더 잘 알게 되지는 않으니까.

요컨대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애써 바라보면 볼수록 더욱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돼. 그래도 그것은 존재하며, 이것만으로도 나는 족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수록 나는 더욱 그것을 우러러보게 되거든. 나는 겸손해져 그에게 말하지. 존재들 중의 존재시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으며, 당신 생각을 노상 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의 근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됩니다. 내 이성의 가장 바람직한 작용은 당신 앞에서 겸허해지는 일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에 짓눌린 자신을 느끼는 것은, 내 정신의 황홀이고 나의 약함의 매력입니다.

이리하여 감각적인 대상물들의 인상과, 나더러 자신의 타고난 빛에 따라 원인들을 판단케 하는 내면 감정으로부터, 내가 알아 두어야 하던 주된 진리들을 끌어낸 다음에 내게 남은 할 일은, 내 행동을 위해 거기서 어떤 격률들을 끌어내어야 하고, 나를 땅 위에 놓아 준 이의 의도에 따라 여기서의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자신에게 과해야 하는가를 찾아 내는 거지. 여전히 내 방법에 따라, 나는 이 규칙들을 어느 고상한 철학의 원리들에서 끌어내지는 않고, 그것들이 자연의 손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글자들로 내 마음 밑창에 적혀 있음을 발견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나 자신과 상의하기만 하면 돼.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다 좋고,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다 나쁘거든. 모든 까뮈스트(casuiste)<sup>60\*</sup>들 중의 으뜸은 양심이며, 사람이 번거로운 추리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양심과 흥정할 때 뿐이지. 온갖 마음 씀 중의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야. 그런데도 내면의 목소리는, 남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해 주는가! 우리는 자연의 충동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역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 감각에 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해 주는 말은 무시하고 있지. 능동적인 존재가 순종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명령하고 있어. 양심은 영혼의 목소리고 정념은 육체의 목소리야.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자주 모순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또 이때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성엔 너무나 자주 우리를 속여, 이성을 거부할 권리를 우리는

60\* 결의론자(決疑論者). 특히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꾀변을 늘어놓는 자. 이성이나 교리를 내세워 따지는 꾀변론자.

너무 많이 얻었어. 그런데 양심은 결코 속이는 법이 없으며, 인간의 진짜 길잡이지. 양심의 영혼에 대한 관계는 본능의 육체에 대한 관계와 같거든.<sup>61</sup> 양심에 따르는 자는 자연에 순종하고 있어 길 잃을 걱정이 전혀 없어. 이 점은 중요해 하고, 내가 말을 가로막으려는 것을 본 내 은인은 말을 이었다. 좀 더 이 점에 대해 설명하겠으니 참아 주게.

우리의 행위들의 도덕성 모두는 우리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 내리는 판단 속에 있어. 좋은 일은 좋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밑창에서도 그것은 좋아야만 하고, 정의의 으뜸가는 상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되지. 도덕적인 선이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이라면, 인간은 제가 선한 만큼밖에는 정신이 건전할 수도 좋게 만들어질 수도 없을 거야. 만일 그렇지가 않아 인간이 나면서부터 악한 것이라면, 타락하지 않고서는 악하기를 그만둘 수 없으며, 선이란 인간에 있어 자연에 어긋나는 악덕에 지나지 않게 돼. 이리가

61 제가 설명하는 것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요즈음 철학은, 아무런 얻은 지식 없이도 동물들을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은 저 '본능'이라 불리는 모호한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의 한 사람에 의하면, 본능이란 반성이 없는, 그러나 반성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습성에 불과하며,<sup>62\*</sup> 그 발달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반성한다고 결론지어져야 한다. 애써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묘한 역설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따지기를 그만두고 물어만 보겠다. 내 개가 제가 먹지도 않는 두더지들과 싸울 때의 그 극성을, 때로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것들을 노리는 그 참을성을, 그래서 아무도 그런 사냥에 길들인 일도 없고 두더지 있는 곳을 가르쳐준 일이 없는데도, 그것들을 잡아 내고, 머리를 내미는 순간에 땅바닥으로 끌어 내고는 죽여서 두고 오는 그 능란한 솜씨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바로 그 개를 맨 처음에 올려대었을 때, 개가 왜 땅바닥에 벌렁 누워 다리를 접고는, 내 마음을 움직이기에 가장 알맞은 사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가? 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 그런 상태의 개를 때렸더라면 절대로 취하고 있지는 않았을 태도? 뭐라고! 잣 난 거나 다름없어 아직도 작은 내 개가, 벌써 도덕관념이 생겨 너그러움이나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라고? 어떤 지식을 얻었기에 그렇게 내 처분에 몸을 내맡겨 나를 달래기를 기대했던 것일까? 개는 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같은 짓을 하며, 또 나는 여기서 누구나 확인할 수 없는 말은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멀리 하듯이 본능을 부인하는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감각들의 작용과 감각들이 우리더러 얻게 하는 지식의 작용만 가지고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지각 있는 사람이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나는 아무 할 말도 없어, 본능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도 않겠다.

62\* 본능을 “반성 없는 습성(une habitude privée de réflexion)”이라고 정의한 콩디아크(Condillac)를 두고 한 말(콩디아크의 《동물론》Ⅱ, 5 참조).

제 먹이를 목 따 죽이도록 만들어졌듯이 제 동포들을 해치도록 만들어졌으면서 인정 있는 인간은, 동정심 있는 이리 못지않게 타락한 동물일 것이고, 미덕만이 우리에게 뉘우침을 남겨 주게 될 거야.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자. 오, 젊은 친구여! 개인적인 이해 관계는 모조리 제쳐놓고, 우리의 성향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살펴보자. 남의 고통과 행복 중의 어느 쪽의 광경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는가? 친절한 행위와 심술궂은 행위의 어느 쪽이, 행하기에 더 기분 좋고 행한 뒤에 더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가? 연극을 볼 때는 누구를 위해 신경을 쓰는가? 죄악에 기쁨을 느끼고, 그 죄악의 별받는 장본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가? 자기 이해 관계 말고는 다 아무래도 좋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그런데 전혀 반대로 따뜻한 우정이나 인정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든. 또 우리가 기쁠 때도,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외롭고 비참해질 거야.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아무것도 없다면,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저 열광적인 감탄, 위대한 혼에 대한 저 황홀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미덕에 대한 이 열광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나는 이저 우쭐대는 카이사르보다는 제 창자를 찢는 카토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없애어 보라. 삶의 매력은 다 없어지고 말 테니. 이 달콤한 감정들이 웅졸한 마음속에서 천한 정념에 목 졸려 버린 자. 자기 속으로만 기어들다가 자기밖에는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만 자는, 이미 감격이라곤 없어져, 얼어붙은 마음이 기쁨에 설레는 일도 없고 달콤한 감동에 눈이 젖는 일도 없으니, 이젠 아무것도 즐길 것이 없어. 이 불쌍한 자는 이미 느끼지도 않고, 살고 있지도 않아. 이미 죽어 있는 셈이지.

그런데 땅 위에 악인들의 수효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 이해 관계 말고는 옳고 좋은 것 모두에 무감각해진 송장 같은 영혼들은 얼마 없어. 사람은 부정을 제가 이용하는 만큼밖에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무고한 자가 보호받기를 바라거든. 골목이나 한길에 어떤 폭력 행위나 부정행위가 보이는가? 당장에 노여움과 분개의 충동이 마음속에 솟아나 우리더러 욕보는 자를 편들게 하거든. 다만 보다 힘찬 의무감이 우리를 말려, 무고한 자를 보호할 권리를 법률이 우리에게

서 앓아 가지. 반대로 어떤 관대하거나 자비로운 행위가 눈에 띄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찬양과 사랑을 우리더러 느끼게 해 주는가! 나도 저만큼 해 봤으면, 하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악했는가 옳았는가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아랑곳없는 일이지. 그런데도 고대사에서는 마치 그 모두가 오늘날 일어난 것과도 같은 관심을 우리더러 품게 하거든. 카틸리나<sup>63\*</sup>의 죄악들이 내게 어쩐다는 말인가? 그 희생이 될까 봐 내가 겁이라도 낸단 말인가? 대관절 나는 왜 마치 그가 나와 같은 시대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하는가? 악인들이 우리를 해친다고만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우리는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도 바라고 있어. 또 남의 행복이 우리 행복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 행복을 늘려 주기도 해. 요컨대 사람은 저도 모르게 불쌍한 자들을 동정하는 걸세. 그들의 고통을 보고는 괴로워하거든. 가장 악랄한 자들도 이러한 성향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는 없을 거야. 이 성향이 그들을 흔히 자가당착에 빠뜨리거든. 행인들의 껌데기를 벗기는 도둑도 햇빛은 가난뱅이에게 옷을 걸쳐 주고, 가장 사나운 살인자도 까무러치는 사람은 부축해 주거든.

숨은 죄를 몰래 벌하고 드러내어 보이기가 일쑤인 뉘우침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들 말하고 있어. 아! 우리 중의 누가 이 성가신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토록 고통을 주는 그 폭군 같은 감정을 목 졸라 버리고 싶을 거야. 자연에 순종하기로 하자. 자연이 얼마나 상냥하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자연의 말을 듣고 나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좋게 말하게 되는 데서 얼마나 큰 매력을 찾아보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테니. 악인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피하지. 자기 자신 밖으로 벗어나야 좋아하거든.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재미나게 해 주는 대상을 찾아 신랄한 빈정거림이나 모욕적인 비웃음 없이는 늘 심심하겠지. 비웃는 웃음만이 그의 기쁨이거든. 반대로 옳은 자의 평온은 내면적이야. 그의 웃음은 심술 아닌 기쁨의 웃음이며, 그 근원을 자기 자신 속에 지니고 있어. 사람들 한복판에서 나 혼자 있거나 똑같이 쾌활해. 자신의 만족

63\* Catilina, 로마 공화정치 말기에 키케로가 고발한 카틸리나 사건의 주모자.

감을, 자기를 가까이하는 자들에게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 주고 있던 말이야.

세계의 온갖 국민들에게 눈을 돌려봐. 온갖 역사들을 훑어보고, 그 술한 끔찍하고 알맞은 제식들, 그 놀라운 갖가지 풍습과 특색들 속에서, 정의와 성실에 대한 같은 관념들, 선과 악에 대한 같은 개념들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될 테니. 고대의 사교는, 최고의 행복의 그림으로서 저지를 죄악과 만족시킬 정념들밖에는 보여 주지 않는 신들, 이승에서라면 악당으로 벌받아 마땅한 그런 고약한 신들을 낳았어. 그러나 신성한 권위로 무장한 악덕이 하늘의 거주지에서 내려오곤 해 봤으나 헛일, 도덕적 본능은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곤 했으니. 주피터의 난봉을 축제로 기리면서도 사람들은 크세노크라테스의 금욕<sup>64\*</sup>에 감탄했었거든. 정숙한 루크레치아가 음란한 비너스를 숭배했었지. 용감한 로마인이 두려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사지를 자르고 자기 아들 손에 불평 없이 죽어 가는 신<sup>65\*</sup>에게 그 로마인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야. 가장 경멸받을 만한 신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어. 신들의 목소리보다 강한 자연의 거룩한 목소리가 땅 위에서는 존경을 받아, 죄를 죄인들과 함께 하늘로 귀양 보내는 것 같았었지.

그러니 혼의 밀창에는 정의와 미덕의 타고난 원리가 있어, 그 원리에 비추어 우리는 자신의 격률에 상관없이 자기 행동과 남의 행동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양심이라 이름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지. 그런데 이 말에 대해 자칭 현자들<sup>66\*</sup>의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려 오는 것 같아. 어린 시절의 틀린 생각이니, 교육에서 오는 편견이니 하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어. 인간의 정신 속에는 경험에 의해 들어 온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무엇이건 얻어진 관념들에 비추어서밖에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한술 더 뜨거든. 모든 국민들에 보편적이고 분명한 이 일치를 그들은 감히 물리치고, 사람들의 판단의 뚜렷한 부합에 반대해, 자기들만이 아는 애매한 어떤 예를 찾아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간단 말

64\* 그리스의 철학자 Xénocrate의 금욕 이야기는, 몽테뉴의 《에세》Ⅱ, 33에서 온 것.

65\* 아버지 엘리아누스(Elianus)의 사지를 자르고, 아들 제우스에게 죽은 사투르누스(Saturne).

66\* “자칭 현자들”이란, 피론학파, 몽테뉴, 스피노자, 특히 18세기의 유물론자들.

이야. 마치 자연의 모든 경향이 한 국민의 타락으로 전멸되길라도 한 것처럼, 기형들이 나오기만 하면 당장 그 종자도 아무것도 아니길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회의주의자 몽테뉴가 세계의 어느 한 구석에서 정의의 개념에 어긋나는 습관을 파내려고 쏟는 고생이 그에게 무슨 소용인가?<sup>67\*</sup> 그가 가장 이름난 저술가들에게는 주기를 거부하는 권위를 가장 수상쩍은 나그네들에게는 준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방적인 원인에서 말미암은 괴상아릇한 습관들이, 탄 모든 점에서는 상반되나 이 한 점에서 만은 일치되는 모든 국민들의 부합 일치에서 나온 일반적인 결론을 깨뜨리게 되겠는가? 오! 몽테뉴여! 솔직과 진실을 사랑하는 그대여, 성실하고 참되라, 만일 철학자도 그럴 수가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말해 달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비롭다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있는지를? 선인이 멸시받고 배신자가 존경받는 나라가?

각자는 자기 이해 관계 때문에 공익에 협력하는 거라고들 말한다. 그럼 의인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공익에 협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이해 관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밖에는 행동하지 않아. 그러나 고려해야 할 도덕선이 없다면, 자신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는 악인들의 행동밖에는 결코 설명되지 않을 거야. 그 이상은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덕행들에 어리둥절하게 될 그러한 철학, 덕행에도 비열한 의도나 덕 없는 동기를 뒤집어씌우지 않고서는 꾸려 나갈 도리가 없을 그러한 철학, 소크라테스를 욕하고 레굴루스를 헐뜯지 않고서는 못 배겨날 그러한 철학은, 너무나 고약한 철학이 아닐 수 없거든. 일찍이 이와 같은 학설들이 설사 우리 사이에 싹틀 수 있었다손 치더라도, 자연의 목소리와 이성의 목소리가 당장 그것에 반대하고 들고일어났을 것이며, 그래서 그 학파의 단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그것을 신봉한다는 변명을 하게 두지는 않았을 걸세.

67\* 《에세》I, 23. “자연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법칙들은 습관에서 생겨난다. 각자가 자기 주위에서 시인받아 받아들여진 세련과 습속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지니고 있어, 뉘우침 없이 는 그것들을 벗어날 수도, 칭찬받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적용할 수도 없다.”



나는 여기서 내 힘에도 자네 힘에도 겨운 형이상학적 논쟁에, 또 필경은 아무 소용도 없을 그러한 논쟁에 들어갈 생각은 없네. 나는 자네와 함께 철학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자기 마음과 상의하는 것을 거들어 줄 생각이라는 말은 이미 한 바 있지. 내가 틀렸다고 모든 철학자들이 증명한다 하더라도, 자네만 내가 옳다고 느껴 준다면, 너는 바라지도 않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네더러, 우리의 얻어진 관념들을 타고난 느낌들에서 구별하게만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전에 느끼는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곱은 것을 피하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지를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증오도 자기에처럼 우리가 나면서 타고나는 것이니까. 양심의 발로는 판단이 아니고 느낌이야. 비록 우리의 관념은 다 밖에서 오지만, 그 관념들을 평가하는 느낌들은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가 찾거나 피할 사물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합치나 불합치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바로 이 느낌들만에 의해서야.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느끼는 것이지. 우리의 감성은 영락없이 우리의 지성보다 먼저 있어, 관념 이전에 느낌을 가졌었어.<sup>68\*</sup> 우리 존재의 원인이 무엇이건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알맞은 느낌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보존되도록 마련해 주었으며, 적어도 그러한 느낌들이 선천적이라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여야. 개인을 두고 볼 때 그 느낌들이란, 자애심, 고통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락에의 욕구지. 그러나 이견 의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그 본성에 의해 사교적인 것이라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류와 관련된 다른 타고난 느낌들에 의해서밖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체

68\* “우리는 관념 이전에 느낌을 가졌었어”라는 부분과 다음 원주는, P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루소가 G에 옮겨 넣지는 않았지만, 어느 판 사람 손으로 C에는 옮겨져 있다.

“어떤 점에서는 관념(idée)이 느낌(sentiment)이고 느낌이 관념이다. 이 두 가지 명칭은, 우리더러 지각(perception)의 대상물과 그것에 감동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지각에 알맞다. 이러한 감동에 알맞은 명칭을 정하는 것은 그 감동의 차례밖에 없다. 먼저 대상물을 생각한 우리가 반성에 의해서만 우리 생각을 할 때는, 이는 관념이다. 반대로 받은 인상이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끄드기고, 그 인상을 주는 대상물은 반성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이는 느낌이다.”



적인 필요만을 생각한다면, 그 필요는 사람들을 결합시키기는커녕 분산시킬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양심의 충동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동포에 대한 이 이중 관계에서 이루어진 도덕 체계로부터거든. 선을 아는 것은 선을 사랑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선에 대한 지식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성이 선을 알게 해 주지만 하면 곧 양심이 사람더러 선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거든. 타고 나는 것은 바로 이 느낌이지.

친구여, 그래서 나는 이성에도 얽매이지 않는 양심의 직접 원리가, 우리의 본성의 결과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 설명이 정 불가능하다면 그 원리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걸세. 왜냐하면 온 인류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원리를 부인하는 자들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도 그들 못지않게 근거는 있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증거와 양심을 위해 증언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판단의 첫 섬광에 우리 눈이 부서 대상들을 얼른 가려볼 수가 없거든, 우리의 약한 눈이 힘을 돌이키도록 기다리자, 그러면 곧 그 대상들이 이성의 빛에 의해 우리 눈에, 애초에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 주던 그대로 다시 보이게 될 테니. 아니 그보다도 더욱 단순해지고 덜 잘난 체하자. 우리 자신 속에 발견되는 첫 느낌들로 만족하자. 연구가 우리를 길 잃게 하지 않는 한 연구는 우리를 언제나 이 느낌들로 되돌아가게 하니까 말이다.

양심, 양심! 거룩한 본능, 불멸의 하늘의 목소리, 무지 무능하면서도 지혜 있고 자유로운 존재의 확실한 길잡이. 인간을 하느님 비슷하게 만드는, 선악의 틀림없는 심판자여. 인간의 본성의 뛰어난과 그 행동의 도덕성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다. 네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기준 없는 이해력과 원칙 없는 이성에 힘입어 잘못에서 잘못으로 헤맨다는 한심한 특권 말고는, 나를 짐승들보다 높여 줄 아무 것도 느끼질 못해.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철학의 그 무시무시한 굴레에서 완전히 풀려 나왔어. 우리는 학자는 못 되어도 인간은 될 수 있어. 도덕 연구에 평생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된 우리는, 인류 사상의 이 가없는 미궁에서보다 확실한 길잡이를 험값으로 갖게 됐다. 그러나 이 길잡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가 않고, 그를 알아보고 따라갈 줄을 알아야 해.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해 주는데도 왜 듣는 사람은 그렇게도 적은가? 아무렴! 그는 자연의 말을 지껄이는데, 우리는 모든 것 때문에 그 말을 잊어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 양심은 수줍어서 숨어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거든. 사교계나 야단법석에는 질색이며, 양심이 거기서 생겨난다고들 말하는 편견들이야말로 양심의 가장 잔인한 적이어서, 그 앞에서는 피하거나 입 다물고 말지. 편견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양심의 목소리를 눌러 들리지 않게 막거든. 광선이 감히 양심의 탈을 쓰고 양심의 이름으로 죄악을 일러 주고, 하도 상대를 안 해 주니 양심도 마침내는 기가 죽고 말지. 다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돼.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도 않게 되며, 양심을 하도 오래 멸시하고 나서는 양심을 내쫓기에 힘들었던 만큼이나 다시 불러들이기도 힘들게 되지.

나는 이 연구를 하면서 자신 속에 느껴지던 미지근한 태도에 몇 번이나 진력이 났던가! 서글픔과 지겨움이 나의 첫 명상들에 독을 뿌려 그 명상들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적이 그 몇 번인가! 메마른 내 마음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 맥 빠지고, 미지근한 열의밖에 보여 주지 않았었지. 나는 혼잣말하곤 했어. 왜 나는 있지도 않은 것을 찾느라고 고심하는가? 도덕선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아. 감각의 기쁨들밖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 녀의 기쁨에 대한 취미를 한번 잃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취미를 일찍이 가져 본 적도 없을 때는, 그것을 갖기가 얼마나 사뭇 더 어려운가! 나중에 그 생각이 나면 자기만족을 느껴 살아왔다는 것이 무척 기뻐질 그러한 짓을 평생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는 일이 결코 없을 거고, 어떤 선이 자기 본성에 맞는지를 깨닫지 못해 늘 악할 도리밖에 없고 영영 불행할 거야. 하지만 좋은 일이 하고 싶은 유혹에 마음이 끌려 본 적이 통 없을 만큼 타락한 인간이 온 땅 위에 단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유혹은 하도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것이어서 늘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을 정도며, 그것이 한 번 안겨 준 기쁨의 기억만으로도 노상 그것 생각이 나게 하기에는 족하거든. 딱하게도 처음에는 이 유혹

에 따르기가 힘들어. 자기 마음의 쓸림에 거역할 이유는 얼마라도 있지. 그릇된 조심성이 마음을 인간 ‘자아’의 테두리 속에 가두거든. 감히 이 테두리를 뛰어넘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해. 좋은 일을 해서 기분 좋은 것은 잘한 데 대한 상이지만, 이 상은 받을 만한 짓을 한 다음이 아니고는 얻어지지 않아. 미덕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지만, 그런 줄을 알려면 그것을 가져 보아야 해. 미덕을 잡으려 들면, 미덕은 이야기에 나오는 프로테우스<sup>69\*</sup>를 닮아 처음에는 오만가지의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끝까지 잡고 놓지 않는 자들에게밖에는 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거든.

공익을 두둔하는 타고난 감정과 내 이익만 생각하는 이성애 노상 시달리던 나는, 새로운 빛들이 내 마음을 비취 주지만 않았어도, 내 생각을 굳혀 준 진리가 내 행동도 굳건히 해 주어 나를 나 자신과 일치시켜 주지만 않았어도, 평생을 선을 좋아하면서 악만 행해 늘 나 자신과 어긋나면서 그 끊임없는 양자택일 속에서 떠돌고 있었을 걸세. 이성만으로 미덕을 세우려 들어 봤자 헛일, 얼마나 단단한 토대를 줄 수 있겠는가? 미덕이란 질서에 대한 사랑이라고들 말하지. 그런데 이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나의 안락에 대한 사랑을 이겨 낼 수 있고 또 이겨 내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그쪽을 택하기에 충분하고 분명한 이유를 대어 달라. 알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원칙이란 순전히 말 재롱에 지나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판 뜻으로 잡아, 악덕은 질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감정과 지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어떤 도덕적 질서가 있는 법이야. 선인은 전체를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악인은 자기를 위해 전체를 가다듬는다는 점이 다르지. 후자는 자신을 만물의 중심으로 삼고, 전자는 자기의 반지름을 재어 보고 원둘레 위에 있게 돼. 그래서 선인은, 하느님인 공통 중심을 위해, 피조물들인 모든 동심원(同心圓)들을 위해 가다듬어지는 걸세. 신이 없다면, 제대로 파지고 있는 것은 악인밖에 없고, 선인은 철부지에 지나지 않게 돼.

오, 내 아들아! 사람들 생각의 헛됨을 다 알고 나서, 정념들의 쓴맛을 맛보고 나서 마침내 지혜의 길과 이승에서의 수고의 보람과 단념했던 행복의 샘을 바로 자기

69\* Protée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바다의 신. 자기가 아는 온갖 비밀을 감추려고 둔갑을 잘 했다.

결에서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가를 자네도 언젠가는 깨달아 주었으면. 자연법의 모든 의무들, 사람들의 부정 때문에 내 마음에서 거의 지워지고 없던 이 의무들이, 내게 그것들을 과하고는 내가 그것들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영원한 정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거든. 나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선을 바라고 선을 만드는 위대한 존재의, 그의 의지에의 내 의지의 협력과 나의 자유의 선용으로 나의 선을 만들어 줄 위대한 존재의 역사(役事)와 그 연장밖에는 느끼지 않아. 나는 그가 세우는 질서에 동의해,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 질서를 즐기고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왜냐하면 모두가 선인 체계 속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고 느끼는 이상으로 기분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괴로움에 사로잡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내 것 아닌 탄 육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꼭 참고 있어. 설사 내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선행을 해도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승에서의 내 행동을 저승을 위해 적어 두거든. 부정을 참으면서 혼잣말하지. 모두를 다스리는 옳은 존재가 제대로 보상해 주시겠지 하고. 내 육신의 아쉬움과 내 생활의 비참이 죽음의 관념을 더욱 참기 쉽게 해 주고 있어. 모두를 버려야 할 때에 가서 끊어야 할 밧줄이 그만큼 적어질 테니 말이다.

내 영혼은 왜 내 감각에 복종하고, 저를 억눌러 구속하는 이 육신에 얽매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없어. 내가 뭐 하느님의 뜻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던 말인가? 그러나 겸손한 짐작을 해 보는 것은 그다지 건방진 일은 아닐 것 같아. 나는 생각하거든. 만일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고 순수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보니 다 되어 있어 어지럽혀 볼 엄두도 나지 않을 질서를 사랑하고 지켜본들 무슨 공로가 있을 것인가? 행복하긴 하겠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행복에는 가장 높은 것, 미덕의 영광이나 자신의 선행 증거는 없을 걸세. 인간은 천사들 같은 것밖엔 되지 않을 것인데, 아무래도 덕 있는 인간이 천사보다야 낫겠지. 불가해하고도 힘찬 밧줄들로 죽어 갈 육체에 매여진 영혼더러, 그 육체를 보존하려는 배려가 제 이익만 생각하도록 꼬드겨 일반 질서에 어긋나는 이기심을 넣어 주지만, 영혼은 그래도 그 질서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가 있거든. 자신의 자유의 선용이 동

시에 공로도 되고 상도 되는 것이, 영혼이 땅 위의 정념들과 싸우고 초지(初志)를 관철함으로써 변치 않는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때지.

이승에 사는 동안 우리가 놓여 있는 타락의 상태에서도 우리의 원 성향들이 다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악덕이 다 우리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 악덕들에 눌러 지낸다고 해서 우리는 왜 투덜거리는가? 우리 스스로 악을 만들고, 우리 자신을 치도록 우리가 적들을 무장시켜 주면서 왜 조물주를 나무라는가? 아! 인간을 망가뜨리질랑 말자. 인간은 늘 고생 없이 선하고 뉘우침 없이 행복해질 테니! 마지못해 죄를 범했다는 죄인들은 악인 못지않게 거짓말쟁이야. 그들이 한탄하는 악함이 그들 자신이 빚어낸 것이고, 그들의 첫 타락이 그들의 의지에 말미암은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기를 노상 바랐기 때문에 마침내는 저도 모르게 넘어가, 유혹을 거역하지 못할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쩌서 알지 못할까? 악인이 나 약자이기를 그만두는 것은 분명 이제 그들에게 달린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일이었거든. 우리의 습관이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정신이 눈뜨기 시작할 때, 그 정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평가하려면 알아 두어야 하는 것들을 그 정신더러 연구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오, 우리는 얼마나 쉽사리 우리 자신과 우리 정념들의 지배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 남들 눈에 빛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본성에 따라 선하고 현명하기 위해, 자기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깨우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에게겐 따분하고 힘들어 보이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악덕으로 타락하고 이미 정념들에 사로잡히고 나서야 연구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선악을 알기 전에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고정시키며,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을 그 그릇된 척도에 갖다 대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제대로의 가치를 주고 있지를 못해.

아직은 자유로우나 불타고 있어 불안하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행복을 탐내는 마음, 호기심에 찬 불안감을 가지고 그 행복을 찾으나, 감각에 속아 마침내는 행복의 헛된 환영에 붙들려, 행복이 있지도 않은 데서 그것을 찾아 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있지. 이러한 착각들이 내게는 너무 오래 계속되었어. 딱하게도 나는

뒤늦게야 그것이 착각임을 알아채어 그것을 전혀 깨뜨릴 수가 없었어. 그런 착각들을 일으키는 이 죽어질 몸이 있는 한 그것들은 지속될 걸세. 하기가 이젠 그것들이 나를 피어 봤자 헛일, 내가 다시는 속아 넘어가진 않지만, 그 정체를 나는 알고 있어 따라가면서도 떨시는 하니까, 그 속에서 내 행복의 대상을 보기는커녕 행복의 장애물을 보거든.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 모순이나 분열이 없는 ‘내’가 되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만 있으면 될 때가 오기를 나는 고대하고 있어. 하긴 당장 이승에서도 나는 행복해, 그것은 내가 온갖 악을 문제삼지 않고, 이승의 삶을 내 존재에는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내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진짜 선 모두가 내게 달려 있기 때문이지.

그 행복과 힘과 자유의 상태로 되도록이면 자신을 미리 높여 두려고 나는 높은 명상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우주의 질서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 헛된 체계에 의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노상 찬양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현명한 창조자를 우러러보기 위해서 말일세. 나는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그의 거룩한 본질이 내 모든 능력에 스며들게 해. 그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의 선물에 감사하지만, 그에게 빌지는 않아.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나를 위해 만물의 운행을 바꿔 달라고, 내게 유리하도록 기적을 행해 달라고? 그의 지혜로 세워지고 그의 섭리로 유지되는 질서를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내가, 나를 위해 그 질서가 어지럽혀지기를 바라겠는가? 천만에, 그런 무모한 소원은 들어 주기보다는 벌받아 마땅할 걸세. 나는 좋은 일을 할 힘도 그에게 요구하지는 않아. 그가 내게 준 것을 왜 또 달라고 하겠는가? 선을 사랑하도록 양심을, 선을 알도록 이성을, 선을 택하도록 자유를 내게 주지 않았는가? 만일 내가 나쁜 짓을 한다면 내게는 핑계도 없어. 내가 바라서 하는 것이니까. 내 의지를 바꿔 달라고 그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내게 요구하는 바를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셈이지. 내 일을 그가 해 주고 그 보수는 내가 받기를 바라는 셈이거든. 내 처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이젠 바라지 않는 것, 지금 있는 것과는 딴 것을 바라는 것이고, 무질서와 악을 바라는 것이야. 정의와 진리의 샘인 관대하고 어진 하느님이시여! 당신을 믿는 제 마음의 다시없는 소원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

신의 뜻에 제 뜻을 결들이면서 저는 당신이 행하는 바를 행하고, 당신의 선함에 동의합니다. 그 상인 지복(至福)을 저는 미리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 마땅한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아니 그의 정의에 기대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길을 잘못 들고 또 그 잘못이 위험한 것일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 성실하다고 해서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내게는 가장 진실해 보이는 내 생각들도 어쩌면 틀렸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 만사에 있어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나를 속이는 착각이 나에게서 생겨난들 소용없지, 나를 고쳐 줄 수 있는 이는 하느님뿐이니까. 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했지만, 진리의 근원은 너무나 높여 있어. 더 멀리 갈 힘이 내게 없다 해서 내게 무슨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가와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인데 말이다.

어진 신부는 열띤 어조로 말했다. 그는 감동되어 있었고, 나도 그랬었다. 거룩한 오르페우스가 첫 찬가들을 불러 신들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그에게 내세울 이의는 얼마라도 있었다. 나는 하 나도 내세우진 않았다, 그것은 그 이의들이 주체스러웠던 만큼이나 확고한 것은 아니어서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양심에 따라 말해 나감에 따라 내 양심은 그가 말한 바를 나더러 인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다. 당신이 방금 말해 주신 생각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이 모른다고 자백하기 때문에 더욱 제게는 새로워 보이는군요,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한 생각에는 영락없이, 기독교도들이 정반대되는 교리인데도 무신론이나 무종교와 혼동하기 좋아하는 유신론이나 자연종교<sup>70\*</sup>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의 신앙 상태로는 당신 의견을 받아들이자면 내려가기보다는 되

70\* 18세기의 철학자들에게는, 유신론자(théiste)는 이신론자(déiste)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이신론(자연신론)자에게는 하느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도 불멸이 아니다. 유신론자에게는 섭리가 존재해 신은 내세에 보상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

올라가야 하며, 당신만큼이나 현명하지 않고서는 바로 당신이 있는 지점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당신만큼 성실해지기라도 하려고 저는 제 마음과 상의해 볼 생각입니다. 당신을 본받아 나를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은 내면 감정인데, 이 감정더러 오랫동안 입을 다물게 해 놓고 나서 다시 불려내기란 금방 될 일은 아니라고 당신 자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 말씀은 명심해 두지요, 곰곰 생각해 봐야겠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고 나서도 여전히 당신만큼이나 확신을 갖게 된다면, 당신이 저의 마지막 전도자가 될 것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의 입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할 것의 절반밖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계시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 시인도 부인도 할 줄을 몰라 노상 갈팡질팡하기만 해 온 그 애매한 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 아들이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해 주겠네, 하고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내 마음을 반만 열어 보이고 싶지는 않아. 다만 자네와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해도 무관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네가 내게 밝혀 보인 그 희망이 필요했었네. 나는 여태까지 자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나도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검토는 전혀 달라. 난처한 것, 불가사의한 것, 애매한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 자신이 없어 불안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 떨지 않고서는 결심할 수가 없으니, 내 의견이라기보다는 나의 의혹을 자네에게 말하는 걸세. 자네 생각이 더 안정되어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을 말하기를 망설이겠지. 그러나 지금의 자네 상태에서는 나처럼 생각하는 편이 나을 거야.<sup>71</sup> 게다가 내 이야기에서는 이성의 권위밖에는 인정하지 말게. 내가 틀렸는지를 나도 모르니 말이야. 토론할 때는 가끔 단정적인 어조를 취하지 않기가 힘들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단정이 다 의심할 이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게. 진리는 자네 자신이 찾게. 나로서는 성실하게 말할 것밖에는 약속하지 않으니.

자네는 내 설명에서 자연종교밖에 보지 않아. 딴 종교가 또 필요하다는 거야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그럴 필요를 어디서 인정하겠는가? 하느님이 내 정신에 주는 빛

71 이것이야말로 여진 보좌 신부가 지금은 대중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나는 믿는다.



들에 따라, 내 마음에 불어 넣어 주는 느낌들에 따라 하느님을 섬겨서 내가 죄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명확한 학설 없이는 내 능력의 선용에서도 끌어내지 못할 어떤 순수한 윤리를,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의 창조자에게도 영예로운 어떤 교리를 나는 그 학설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회의 복지를 위해, 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법에 의한 의무들에 덧붙여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 신앙의 결과가 아닌 새로운 신앙에서 어떤 미덕을 생겨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보여 줘. 신성(神性)에 대한 가장 큰 관념들은 이성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자연의 광경을 보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느님은 우리 눈에, 우리 양심에, 우리의 판단력에 다 말해 주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말할 것인가? 그들의 계시는 하느님에게 인간의 정념들을 태워 줌으로써 하느님을 격하시킬 따름이지. 내가 보기에는, 특수한 교리들이 위대한 존재에 대한 개념들을 밝혀 주기는커녕 복잡하게만 만들어 그 품격을 높여 주기보다는 떨어뜨리고만 있으며,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알지 못할 신비들에다 엉뚱한 모순들을 덧붙이고만 있어. 인간을 교만하고 웅졸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있으며, 땅 위에 평화를 이룩하기는커녕 칼과 불만 가져오고 있단 말이야. 이 모두가 무슨 소용인지를 스스로 물어 보나 나는 대답할 도리가 없어. 거기에는 사람들의 죄악과 인류의 비참박엔 보이지가 않으니.

어떤 식으로 섬겨 주기를 하느님이 바라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했다고들 말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야릇한 신앙들의 다양성을 그 증거로서 내세우지만, 그 다양성 자체가 계시들의 번덕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 민족들이 하느님에게 말을 시킬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마다 자기네 식으로 말을 시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말하게 했지. 만일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에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땅 위에는 하나의 종교밖에는 없었을 걸세. 일매진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고, 나도 정말이지 그것을 바라고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전지전능이 필요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던가? 종교 의식을 종교와 혼동하질랑 말자. 하느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야. 또 이 신앙은 진지하면 언제나 일매진 것이고, 하느님이 신

부의 옷차림이나 그가 발음하는 단어들의 차례, 그가 성단에서 하는 몸짓, 그의 온갖 굵실거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헛된 일이지. 자야! 여보게, 똑바로 서 있게. 그래도 자네는 충분히 땅 가까이 있게 될 테니. 하느님은 정신적으로, 진실되게 경배받기를 바라. 이 의무는 모든 종교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의무야. 곁에 드러나는 예식으로 말하자면, 격식을 차리기 위해 설사 그것이 일매져야 한다면 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치안 유지 문제지, 그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나는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야. 교육에서 오는 편견들과, 인간을 노상 제 테두리 위로 끌어올리려 드는 그 위험한 자존심에 끌려다니면서도, 나의 약한 이해력을 위대한 존재에까지 높일 수는 없던 나는, 그 존재를 나 있는 데까지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었거든. 그가 자기 본성과 내 본성 사이에 둔 무한한 거리를 나는 좁히고 있었던 거지. 보다 직접적인 교섭, 보다 특별한 가르침을 바랐던 것이며, 내 동포들 중에서 특권자가 되기 위해, 하느님을 인간 비슷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나는 초자연적인 빛들을 바랐던 것이며, 독점적인 신앙을 바랐었고, 하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적도 없는 말을, 나처럼 남들도 듣지 않았을 말을, 내게는 말해 주셨겠지 하고 바랐던 걸세.

내가 도달한 지점을 모든 신자들이 보다 분명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 출발하는 공통 지점으로 본 나는, 자연종교에서 종교 모두의 구성 요소들밖엔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땅 위에 널리 퍼져 서로 거짓말이다, 잘못이다 해서 비난하고 있는 교파들의 다양성에 대해 나는 생각해 봤지. “어느 것이 옳은 종교냐?” 하고 나는 물어보았어. 내 종교다.<sup>72</sup> 저마다가 대답하는 것이었어. 나만이, 우리 파만이 올바르게 생

72 어느 여직교 현명한 신부가 말하고 있다. “모두가 (형설수설 같은 말을 써서) 말한다. 그것을 사람들이거나 어떤 피조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믿고 있다고.

그러나 발라맞추거나 꾸미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뭐라 그러건 그것들은 사람들의 손과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그 첫 증거는, 종교들이 세상에 받아들여져 온 방식과 지금도 날마다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식이다. 국민·나라·장소가 종교를 준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갖는 종교에 속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자기가 인간임을 알기도 전에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 유대교도나 회교도나 기독교도가 되며, 종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증거는, 종교와는 그렇게도 합치되지 않는 생활과 풍습이다. 인간적이고 아주 하찮은 동

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저마다 말하는 것이었어. “그럼 당신 교파가 옳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은 누가 하던가? 그걸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가. 우리 목사가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는 자기와 다르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내게 확언해 주어, 나는 그자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지.

뭐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럼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내게 진실한 것이 당신네에게는 거짓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의 방법과 길 잃은 자의 방법이 같다면, 어떤 공적이나 어떤 과실을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갖게 되는가? 그들의 선택은 우연의 결과이니, 그것을 그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아 그것은 어떠한 나라에 났다 해서 상 주거나 벌하는 셈이지.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한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그의 정의를 모독하는 걸세.

모든 종교가 다 옳아 하느님 뜻에 맞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종교,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벌을 주는 종교가 하나 있어, 식별이 되도록, 유일한 진짜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뚜렷한 표적들을 그 종교에만 주었든지, 어느 한쪽이야. 그 표적들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공통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족과 빈민, 학자와 무식쟁이, 유럽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똑같이 뚜렷한 거지. 만일 땅 위에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형벌밖엔 없는 그러한 종교가 하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의 뚜렷함을 알아보지 못한 성실한 인간이 단 하나라도 세계의 어느 곳에 있었다면, 그 종교의 신은 가장 부당하고 가장 잔인한 폭군일 걸세.

그러니 우리는 성실하게 진리를 찾고 있는가? 타고난 권리라든가, 아버지나 목사

기로 자기 종교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샤롱의 《지혜론》(1601년 보르도 판) 2권 5장, p. 257).<sup>73\*</sup>

콩돔의 덕 있는 신학 교수의 진지한 신앙 고백이 사보아의 보좌 신부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73\* Charron(1541~1603)은 모렐리스트로 몽테뉴의 친구. 《지혜론(De la Sagesse)》으로 유명하다.

몽테뉴의 《에세》Ⅱ, 12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우리는 페리고르(Périgord) 사람이거나 독일 사람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독교도다.”

들의 권위는 문제삼지 말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들이 가르쳐 준 것 모두를 양심과 이성의 검토에 걸어보기로 하자. 네 이성을 억제하라고, 그들이 내게 외쳐도 소용없지. 나를 속이는 자도 그런 말은 할 수 있거든. 내 이성(raison)을 억제하려면 그만한 이유(raison)들이 내겐 있어야 해.

내가 우주를 살펴보고 내 능력을 선용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신학 모두는 내가 위에서 자네에게 설명한 바로 그치네. 더 알려면 특별한 방법들에 호소해야 해. 그 방법들은 사람들의 권위일 수는 없을 걸세. 왜냐하면 아무도 나와는 다른 유(類)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절로 아는 것은 다 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인간도 나 못지않게 틀릴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가 말하는 바를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사람들의 증언이란 결국 내 이성 자체의 증언에 지나지 않아, 하느님이 내게 준 그 타고난 진리 이해의 방법들에 아무것도 덧붙여 주지는 않거든.

진리의 사도여, 그러니 내가 여전히 그 심판자가 아닌 무슨 말을 내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 자신이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라. 이젠 딴 문제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분명 근사한 말이지.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왜 아무 말도 듣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자기 말을 당신에게 전해 주도록 딴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다. 알았어, 하느님이 말한 것을 내게 말해 주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군. 나는 오히려 하느님 자신에게서 들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더 수고하실 것도 없었을 것이고, 나도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느님은 자기 심부름꾼들의 사명을 밝힘으로써 당신을 유혹에서 지켜 주고 있다. 어떻게 밝히지? 기적들에 의해서. 그럼 그 기적들은 어디 있는가? 책들 속에. 그 책들은 누가 썼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 기적들을 봤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전히 또 사람들의 증언인가? 딴 사람들이 전한 것을 내게 전해 주는 것도 여전히 사람들이라니!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나 좋다. 살펴보자, 비교해 보자, 확인해 보자. 오, 하느님이 설사 이런 일 모두를 내게 면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덜 기꺼이 그를 섬겼겠는가?

여보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논쟁에 말려들었는가를 생각해 보게나. 가장 오랜 옛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넓은 학식이 내게 필요한가를 말아야. 예언들과  
제시들과 사실들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제시된 모든 신앙 문헌들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대조하려면, 그것들의 시대와 장소와 만든 사람들과 그 동기를 확정하러  
면 말일세! 진짜 문서들을 가짜 문서들과 구별하려면 얼마나 정확한 비판이 내게  
필요한가를 말아야. 반박들을 답변들과, 번역들을 원문들과 비교하려면, 증인들의  
공정함과 양식(良識)과 지식을 판단하려면, 삭제하거나 덧붙이거나 옮겨 놓거나  
바꿔치거나 날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를 알려면, 남아 있는 모순들을 제거하러  
면, 사실들을 내세우고 주장해도 가만있는 반대자들의 침묵이 얼마만한 무게를 가  
쳐야 하는가를 판단하려면, 그러한 주장들이 반대자들에게 알려졌는가를 판단하  
려면, 답변해 줄 만큼 그 주장들을 그들이 중요시했는가를 판단하려면, 우리 책들  
이 그들에게 입수될 만큼이나 책들이 흔했던가를 판단하려면, 그들의 책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퍼뜨릴 만큼,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반박들을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아  
들일 만큼 우리가 성실했던가를 판단하려면, 얼마나 정확한 비판이 내게 필요한가  
를 생각해 보란 말일세.

이 모든 문헌들이 의심할 여지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사명의 증명들로 옮겨가야 해. 어떤 예언이 기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우연의 법칙들과 실현될 수 있는 확률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 원  
어에 있어 예언인 것과 말치레에 지나지 않는 것과는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원어  
들의 특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해. 약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단순한 사람들 눈을  
호리고, 견식 있는 사람들마저도 놀라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  
실들이 자연의 질서에 맞고 어떤 다른 사실들이 그렇지 않은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하나의 기적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뽀뽀려 의심하는 자가 별받게 되  
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어떤 유의 것이어야 하고, 어떤 진실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탐구해야 해. 진짜 기적들과 가짜 기적들의 증거들을 비교해 보고, 그것들을 분간  
하기 위한 확실한 규칙들을 발견해야 해. 끝으로 하느님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하필이면 왜, 그것 자체도 굉장한 증명이 필요한 그런 수단들을 택하고 있는

가를 말해야 해. 마치 사람들의 어수룩함을 농락하고, 그들을 납득시킬 참된 수단들을 일부러 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뜻의 대변자로 삼을 만큼 하느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주시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대리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지도 않고 온 인류더러 그의 목소리에 따르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옳은 일인가? 신임장이라고는, 이름도 모를 몇 안 되는 사람 앞에서만 행해져 나머지 사람들 모두는 풍문으로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러한 몇 가지 사사로운 표적밖에는 그에게 주지 않는 처사에, 무슨 공정함이 있겠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민중과 단순한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기적들을 다 진짜로 여긴다면, 교파는 저마다 다 옳은 것이 될 것이고, 자연적인 사건보다 기적이 더 많아져, 광신자들이 박해 받는 곳에는 기적이 통 없다는 사실이 모든 기적들 중의 가장 큰 기적이 될 걸세. 최고의 존재를 제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자연의 변치 않는 질서야. 많은 예외들이 생겨난다면 나는 이미 생각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느님에게는 통 어울리지도 않는 그 많은 기적들을 믿기에는 너무도 하느님을 나는 믿고 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보라. 인간들아, 나는 아주 높은 분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 목소리에서 나를 보낸 분을 알아보라. 나는 태양더러 코스를 바꾸도록, 별들더러 탄 성좌를 만들도록, 산들에게는 편평해지도록, 물건들에게는 솟아오르도록, 땅더러는 다른 모습을 갖도록 명령한다. 이런 불가사의를 보면, 누가 자연의 지배자를 당장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자연은 사기꾼들 말을 듣지는 않거든. 그들의 기적은 네거리에서, 사막에서, 방 안에서 행해지며, 덮어놓고 믿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는 적은 수효의 구경꾼들을 그들이 쉽사리 구슬려 내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지. 기적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목격자가 있어야 하느냐고, 누가 감히 내게 말할 것인가? 당신네 교리를 증명하려고 행해진 당신네 기적들이 또 증명될 필요가 있다면, 그 기적들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기적들은 행해지지 않은 거나 다름없거든.

알려진 교조(敎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토가 끝으로 남아 있어.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승에서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악마도 때로는 그 흥내를 낸다고 주

장하기 때문에, 가장 잘 증명된 기적들이 있다 해도 우리는 전보다 더 전진한 것이 되지는 않으니까 말아야. 고대 이집트 왕의 미술사들은, 모세가 하느님의 엄명으로 하던 것과 같은 표시를 바로 모세가 보는 앞에서도 감히 하곤 했으니, 모세가 없을 때는 그와 똑같은 자격으로 같은 권위를 왜 내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기적을 가지고 교조를 증명하고 나면, 교조를 가지고 또 기적을 증명해야만 해,<sup>74</sup> 하느님의 소행을 악마의 소행으로 잘못 볼 염려가 있으니 말아야. 이 악순환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이 교조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해. 추리가 우리 정신에 그려 내는 어렴풋한 관념들을, 이 교조는 우리에게 밝혀 주어야 할뿐 더러, 하나의 신앙을, 윤리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만 하느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그 속성들에 알맞은 격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해야 해. 따라서 만일 이 교조가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것들밖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반감과 우리 자신에 대한 공포감밖에는 우리에게 넣어 주지 않는다면, 성 잘 내고 질투심과 복수심이 많고 불공평해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하느님밖에는, 노상 파괴하고 호통만 치려 들고 노상 고통과 고생 이야기만 해 무고한 자들까지도 벌주며 으스대는 그런 하느님밖에는 우리에게 그려 보여 주지

74 이런 일은 성서의 술한 곳에서 뚜렷하며, 그중에서도 <신명기> 13장에는, 이방의 신들을 알리는 예언자가 자기 말을 기적으로서 확증하고 예언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단케 보지 말고 그 예언자를 죽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낯선 하느님을 알리고 예언과 기적으로 자기 사명을 증명하는 사도들을 이교도들이 죽였다 하더라도, 이교도들이 당장 우리에게 뒤집어씌우지 못할 만큼 확고한 건터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한 가지뿐이다. 이치로 되돌아가 기적들을 돌보지 않는 일이다. 기적들에 기대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가장 단순한 양식(良識)이다. 사뭇 번거롭기만 한 구별을 자꾸 하기 때문에만 흐려지는 양식이다. 기독교의 번거로운 이론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단순한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한 것은 잘못인가?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그를 믿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토록 재치가 있어야 한다면, 그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치하하는 말로써 그의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시작한 것은 그럼 잘못인가? 내가 따라야 할 깨닭을 당신이 증명해 준다면 만사는 썩 잘 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증명해 주려거든 내가 알아들도록 말해 달라. 당신의 추리를 마음 가난한 자의 능력에 맞추어 달라,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을 당신의 스승의 진짜 제자로 볼 수가 없으며, 당신이 내게 알려 주는 가르침도 그의 가르침은 아니다.

않는다면, 내 마음은 그런 무시무시한 하느님 쪽으로 끌리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한 종교를 택하려고 자연종교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거야. 왜냐하면 아무래도 택일해야 하리라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네 하느님은 내 하느님은 아니요 하고, 나는 그 종파 신도들에게 말하겠지. 애초부터 한 국민만을 택하고 나머지 인류는 추방하는 그러한 자는 인류 공동의 아버지는 아니라고. 자기가 만든 자들의 대부분을 형벌에 처할 작정인 그런 자는 내 이성인 내게 보여 준 그 너그럽고 어진 하느님은 아니라고 말이다.

교리들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환하며, 명백해서 뚜렷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내 이성은 말해 주고 있어. 자연종교가 불충분하다면 그것은, 이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큰 진리들 속에 남겨 놓는 애매모호함 때문이야. 인간의 정신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진리들을 인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어, 이해시켜 믿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계시가 할 일이지. 신앙은 이해력으로 확고하게 굳혀지는 것이며, 온갖 종교 중에서 가장 나은 종교는 영락없이 가장 분명한 종교야. 자기가 나에게 권하는 예배에다 신비와 모순을 끌어넣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나더러 그 예배를 의심하도록 가르쳐 주는 셈이야. 내가 경배하는 하느님은 암흑의 하느님은 아니며, 그는 이해력을 쓰는 것을 금지하려고 이해력을 내게 준 것은 아니야. 내 이성을 굴복시키라고 나더러 말한다는 것은 그 이성을 만든 이를 모욕하는 거지. 진리의 대리자가 내 이성을 학대할 리는 없어. 그는 내 이성을 계발해 주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권위를 모조리 따돌려 버렸는데, 이 권위 없이는 한 인간이 부조리한 교조를 설교해서 판 인간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나로서는 알 수 없어. 잠시 이 두 사람더러 싸움을 붙여, 두 당파 사이에서는 예사인 그 심한 말투로 그들이 주고받게 될 말을 탐구해 보자.

영감받은 자 이성이 당신에게,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런데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전체보다 큰 것이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론가        하느님이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는 당신은 누구며, 이성에 의해 내게 영원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 하느님과, 그의 이름으로 내게 부조리를 알려 주는 당신 중의 어느 쪽을 나는 믿을 것인가?

영감받은 자    나를 믿어야지, 왜냐하면 내 가르침이 더욱 실증적이고, 또 나를 보낸 것이 바로 하느님임을 두말 못 하게 증명해 줄 테니까.

이론가        뭐라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당신을 보낸 것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증명해 주겠다고? 하느님이, 자신이 내게 준 이해력을 통해서보다는 당신 입을 통해 내게 말한다는 것이 더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나더러 납득시키려고 당신이 내놓을 증거들은 어떤 유의 것이겠는가?

영감받은 자    그가 당신에게 준 이해력이라고! 작고 교만한 인간아! 마치 당신이 죄로 타락한 이성 속에서 헤매는 첫 불신자이길라도 한 것처럼!

이론가        하느님의 인간아, 당신도 자기 사명의 증거 대신 교만을 내세우는 첫 사기꾼은 아니겠지.

영감받은 자    뭐라고! 철학자들도 욕지거리를 하는가?

이론가        때로는 하지, 성자들이 그 모범을 보여 줄 때는.

영감받은 자    오! 나야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지. 나는 하느님 이름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론가        당신의 특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신의 자격을 밝혀 보이는 게 좋을 텐데.

영감받은 자    내 자격은 진짜지. 땅과 하늘이 내편이 되어 증언해 주거든. 제발 나의 추리를 잘 들어 보라.

이론가        당신의 추리라고! 당신은 추리 생각은 하고 있지도 않아. 내 이성 이 나를 속인다고 내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당신에게 좋도록 내 이성이 내게 한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성을 물리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성을 쓰지 않고 납득을 시켜야만 해. 왜냐하면, 당신

이 추리를 해서 나를 납득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나더러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로 타락한 내 이성이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더구나, 당신의 증거나 증명이 깨뜨려야 할 공리(公理)보다 더 분명한 어떤 증거나 증명을 당신은 써먹을 수 있겠는가?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말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올바른 삼단논법이 거짓말이라는 말도 못지않게 믿을 만한 것이지.

영감받은 자 얼마나 판이한가! 나의 증거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지.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이론가 초자연이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걸.

영감받은 자 자연의 질서의 변화 · 예언 · 기적 · 온갖 유의 불가사의들을 뜻하는 거다.

이론가 불가사의, 기적들이라고!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영감받은 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 대신 보았지. 술한 증인들이…… 여러 민족들의 증언이……

이론가 민족들의 증언은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하는 것인가?

영감받은 자 아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모두가 인정할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이론가 이성의 원칙들보다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부조리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 한 번 더 말하지만,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보자. 왜냐하면 인류의 증언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니까.

영감받은 자 오, 돌대가리! 은총이 당신에겐 말해 주질 않느군.

이론가 내 잘못은 아니야. 당신 말대로 하면 은총을 구할 줄 알려면 은총을 이미 받았어야만 하니까. 그러니 은총 대신 내게 말하기부터 해 봐요.

영감받은 자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도, 당신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당신은 예언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이론가        나는 기적들을 본 일이 없는 이상으로 예언들도 들은 일은 없다고 먼저 말하겠소. 게다가 어떤 예언도 내게는 권위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겠소.

영감받은 자    악마의 줄개! 그런데 예언들이 당신에게는 왜 권위가 되지 않소?

이론가        예언이 권위를 가지려면, 합치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요, 이를테면, 내가 예언에 입회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일어난 일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이 그 예언과 우연히 일치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 내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의 세 가지요. 왜냐하면 설사 그 예언이 기하학의 어떤 공리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했다손 치더라도, 아무렇게나 행해진 예언의 분명함도 그 예언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으므로, 이루어진 그 실현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예언한 자에게 유리하게는 아무런 증명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론바 그 초자연적인 증거들, 그 기적들, 그 예언들이란 것이 무엇이 되고 마는가를 보라. 남의 말만 믿고 그런 것을 죄다 믿는 것이 되고 말며, 내 이성에 말하는 하느님의 권위를 사람들의 권위에 따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 정신이 생각하는 영원한 진리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면, 내게는 이미 어떤 유의 확실성도 남아 있지 않게 되어, 당신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고 믿기는커녕,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여보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모두도 아닐세. 서로 몰아대고 배척하는 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옳다고 한다면, 하나만이 옳은 종교야. 그 종교를 알아 내려면 한 종교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족하지가 않아,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보아야 하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건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

안 돼.<sup>75</sup> 반대 주장들을 증명들과 비교해 보아야 하고, 각 종교가 딴 종교들에 대해 내세우는 바와 답하는 바를 알아야 해. 하나의 견해가 증명된 것으로 보이면 보일 수록 우리는 더욱,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 내어야 해.

반대파의 이유들을 알려면 자기파의 박사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기 짝이 없어. 성실을 자랑하는 신학자들이 어디 있는가? 상대방의 이유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들을 약화시키려 들지 않는 신학자들이 어디 있는가? 저마다 자기편에서는 빛나지만, 자기 패들 사이에서는 증명으로 우쭐대는 자도, 딴 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같은 증명으로 대단한 바보가 되고 말거든. 책에서 배우겠다는 생각인가? 얼마나 엄청난 학식을 얻어야 하고, 얼마나 숭한 말을 배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뒤져보아야 하고, 얼마나 광범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선택에 있어서는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 한 나라에서는 반대파의 가장 나은 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고, 모든 파의 책들은 더구나 그렇지. 찾아보게 되더라도 당장에 반박당하고 말거야. 있지 않은 자가 언제나 잘못된 것이 되어, 자신 있게 말하는 틀린 이유들이 깔보며 설명하는 옳은 이유들을 쉽사리 지워 없애게 되지. 더구나 책만큼 속이는 것도, 그것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전해 주지 않는 것도, 없기가 일쑤거든. 자네가 보쉬에의 책으로 가톨릭 신앙을 판단해 보고자 했을 땐, 우리 사이에서 살아 보고 나서 글렀다는 것을 알았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답하기 위한 교리가 민중에게 가르쳐지는 교리는 아니며, 보쉬에

75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그 온갖 아릇한 역설들 속에서, 판단이 어긋날 때는 양쪽 말을 들어도 소용없다고 주장했었다는 말을, 플루타르코스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하는 쪽이 자기 말을 증명해 버렸거나 못 했거나 어느 한쪽이니까, 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이다. 증명을 했다면 말은 끝난 것이고, 상대방 쪽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니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배타적인 계시를 시인하는 자들 모두의 방법이 내게는, 이러한 스토아파 철학자들의 방법과 사뭇 닮은 것으로 여겨진다. 저마다 자기만이 옳다고 우겨 댈 때는, 그 많은 중에서 선택하려면 다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부당하다.<sup>76\*</sup>

76\* 이 주석은 플루타르코스의 《스토아파 철학자들의 이의(Contredits des philosophes stoïques)》 7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주석은 P에 첨가되었다.

의 책은 주일날 설교의 가르침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다는 것을 자네는 알았어.<sup>77\*</sup> 어떤 종교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종파 신봉자들의 책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해. 그건 아주 판이하거든. 종파마다 그 신앙의 뼈골을 이루는 자기네 전통과 사고방식과 습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판단하려면 이런 것들도 아울러 생각해야 해.

얼마나 많은 대민족들이 책을 찍어 내지도 않고 우리 책을 읽지도 않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우리가 그들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비롯고, 그들은 우리를 깔보고 있으며,<sup>78\*</sup> 우리의 여행자들이 그들을 놀리면 그들도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 있는 곳을 여행하기를 잊지 않거든.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 진리를 알려고만 애쓰는 지각 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진리의 빛인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어느 나라엔들 없겠는가? 다만 저마다 자기네 신앙 속에서 진리를 보고 탄 국민들의 신앙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따라서 그러한 외국의 신앙들이 우리가 여기는 만큼 엉뚱한 것이 아니거나,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찾아 내는 이유가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거나야.

유럽에는 주되는 세 가지 종교가 있지.<sup>79\*</sup> 하나는 한 가지 계시만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계시를, 또 하나는 세 가지 계시를 인정하고 있어. 저마다가 나머지 두 가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눈멀고 냉혹하고 완고하고 거짓말한다고 비난하고 있지. 먼저 이 종교들의 증명들을 잘 검토하고 그 이유들을 잘 들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공평한 인간이 감히 가려서 판단을 내리겠는가? 한 가지 계시밖에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가장 오래되어 가장 확실해 보이지. 세 가지를 인정하는 종교는 가장 새로워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계시를 인정하고 셋째 계시를 부인하는 종교는 가장 나은 것일지는 모르나 온갖 편견을 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 모순이 눈에 뚜렷하거든.

77\*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주교며 설교가인 보쉬에(Bossuet)의 《가톨릭교회의 교리 강론(Exposition de la doctrine de l'Eglise catholique)》을 두고 한 말.

78\* F와 P에서는 다르다. “우리는 그들을 비롯는다. 그들은 우리를 비롯는다. 그들은 우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며, 우리의…….”

79\*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트교를 가리킨 것.

세 가지 계시에 있어 거룩한 책들은, 그것에 따르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쓰여 있어. 유대인들은 이미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도들은 히브리 말도 그리스 말도 알지 못하고, 터키인들도 페르시아인들도 아랍 말을 알지 못하며, 현대 아랍인들 자신도 이미 마호메트의 말은 지껄이지 않거든.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늘 지껄인다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 책들은 번역된다고 말하겠지. 그럴듯한 대답! 그 책들이 정확하게 번역되고 있다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누가 내게 보증해 줄 것이며, 또 하느님이 어차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 바에야 어째서 통역을 대어야만 한단 말인가?

사람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책들 속에 들어 있다고는, 또 그 책들에도, 그 책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는 자가 본의 아닌 무지 때문에 별받게 된다고는 아무래도 나는 생각되지가 않아. 밤낮 책, 책! 예사로 돈 것이 아니거든. 유럽이 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유럽 사람들은, 지구의 4분의 3에서는 책을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책은 없어서 안 될 것으로만 보고 있단 말이야. 책은 다 사람들 손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은 제 본분을 알기 위해 책이 어째서 필요해지는 것이고, 또 그 책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 본분을 아는 어떤 수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인가? 인간은 그 본분을 스스로 배워 알게 되든가, 아니면 알지 않아도 되는 걸세.

우리의 가톨릭교도들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야단들이지만,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탄 종파들이 자기네 교리를 직접 세우기 위해 내세워야 하는 것 못지않게 거창한 증명들을 내세워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볼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교회가 결정하거든. 근사하게 증명된 권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서 벗어나 보게, 자네는 우리가 한 온갖 토론 속으로 되몰려들어가게 될 테니. 유대교가 자기네와 맞서 내세우는 바를 애써 면밀히 검토해 본 기독교도들을 자네는 많이 알고 있는가? 거기서 뭔가를 살펴본 사람이 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도들이 쓴 책에서 살펴본 거야. 상대방의 이유를 알아보는 근사한 방법이 지!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교를 공공연하게 두둔하는 책을 누가 우리 사

이에서 감히 출판한다면, 우리는 그 저자와 발행인과 출판사를 벌할 걸세.<sup>80</sup> 늘 옮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속이 편리하고 어김없거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리까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우리들 중에서 유대인들과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들도 더 나올 건 없어. 이가없는 사람들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 가해지는 압제에 그들은 질려 있어. 부정하고 잔인한 것이 기독교의 자비심에서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야. 모독이라는 호된 욕을 우리에게서 먹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그들이 감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탐욕에 몸이 달아 있으니, 너무나 부자인 그들이 틀린 사람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지. 가장 유식하고 가장 총명한 자들은 가장 조심성도 있게 마련이야. 돈에 팔려 제 종파를 욕할 그런 불쌍한 자나 개종시키게 되겠지. 굶쳐서 아침할 그런 천한 녀망장수들에게나 말을 시키게 되겠지. 그들의 무지나 비겁에는 이기겠지만, 그들의 박사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말없이 미소 지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들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손쉬운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합된다는 것이 소르본에서는 해를 보듯 분명한 일이지. 암스테르담의 유대교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예언들이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 못지않게 분명한 사실이고, 유대인들이 위험 없이 지껄이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나 학교들·대학들을 갖지 않는 한, 그들의 이유들을 제대로 들은 것으로는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말하려는 바를 알 수 있을 걸세.

80 알려져 있는 술한 사실들 중에는 주석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실도 있다. 16세기에 가톨릭 신학자들이 유대인 책들을 차별 없이 모조리 불태우기로 했을 때, 이 사건에 관해 문의를 받은 이름난 학자 로이힐린은, 단지 그 책들 중에서 기독교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거나 종교와는 상관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그냥 두어도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한 결과를 빚어 내어 파멸할 뻔했다.<sup>81\*</sup>

81\* 독일의 고전학자 Johann Reuchlin(1455~1522)은 유대인 책들을 옹호하다가 큰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다. 이 이야기는 신교 신학자 바나즈(Jacques Basnage, 1653~1723)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현재까지의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L'histoire et la religion des Juifs depuis Jésus-Christ jusqu'à présent)》(1706~1707)에 나와 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터키인들은 자기네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치에 맞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지. 거기서는 우리가 슬슬 기어야 할 차례야. 유대인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갖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우리가 믿지도 않는 마호메트에 대해 갖도록 터키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터키인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은가? 어떤 공정한 원칙에 비추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인류의 3분의 2는 유대교도도 마호메트교도도 기독교도도 아니고, 또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마호메트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몇 백만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도처에 간다고 우겨 댄다. 이런 말은 하기는 쉽다. 그러나 유럽 사람이 여태 들어가 본 적 없는 미지의 아프리카 북판에도 그들은 가는가? 외국인이라곤 얼씬도 안 해, 교황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달라이 라마도 알지 말지 한 유목민들을 말 타고 뒤쫓으러 내륙의 달단(타타르 족) 나라로 간단 말인가? 다른 세계 민족들이 자기네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실을 온 민족들이 아직 알고 있지도 않은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들에도 그들은 가는가? 그들의 책동 때문에 그들이 영영 쫓겨나고 만 나라, 그들의 선구자들이 슬며시 제국을 뺏으려고 엉큼한 열의를 갖고 온 약은 음모가들로밖에 새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본에도 그들은 가고 있는가? 가엾은 수천 명의 여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의 임금들의 하렘에도 가는가? 세계의 이 부분의 여자들이 무엇을 했기에 어느 선교사도 신앙을 전해 주지 못한단 말인가? 그녀들은 간혀 있었다 해서 모조리 지옥으로 갈 것인가?

복음이 온 지구상에 전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더 나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느 나라에 첫 선교사가 도착한 날의 전날에도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것은 틀림없거든. 그런데 그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 주겠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 단 한 사람을 위한 이의는 인류의 4분의 1을 위한 이의 못지않게 강력할 걸세.

복음의 전달자들의 설교가 먼 나라 국민들에게 들려졌다 하더라도, 그 말만 듣고



제대로 수궁이 가 더 이상 엄밀한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어떤 말을 했겠는가? 이 천 년 전에 세계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알지 못할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죽은 신이 있음을 내게 알려 주고는, 이 신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권위에만 의지해 얼른 믿기에는 이 건 정말이지 이상야릇한 일들이야! 왜 당신네 신은 나도 기어이 알고 있기를 자신이 바란 사건들을 내게서 그토록 먼 곳에서 일어나게 했던가? 정반대쪽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다른 반구에 히브리 민족과 예루살렘 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달나라에서 생겨나는 일을 나더러 알아야 한다고 우겨 대는 거나 다름없지!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러 왔다고 말하겠지.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걸 가르쳐 주러 오지 않았으며, 그걸 통 몰랐다 해서 그 어진 노인을 왜 지옥에 떨어뜨리는가? 그렇게 착하고 친절하며 진리밖에는 구하지 않던 그가 당신네의 게으름 때문에 영원히 벌받아야 하는가? 성실해지라. 그리고 내 처지가 되어 생각해 보라. 당신네 증언만으로 당신네가 말하는 그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다 내가 믿어야 하며, 또 그 많은 부당한 짓들을 당신네가 알려주는 그 정의의 신의 소행으로 보아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술한 불가사의가 행해진 그 머나먼 나라를 제발 나도 가서 보도록 해 달라.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왜 신을 악당 취급했는지 가서 알아보았으면 해. 그들은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 그럼 당신네를 통해서밖에는 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나는 어쩌해야 하겠는가? 그들은 벌받아 흠어지고 학대받고 정복당해 이젠 그중의 아무도 그 도시에는 얼씬도 못 한다고 덧붙여 말하겠지. 그들은 분명 그래서 마땅했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신을 죽인 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 죄를 부인하고 있고, 그들 또한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 먼저 주민들의 자손을 남겨 두는 편이 오히려 나았지.

뭐라고! 신이 죽은 바로 그 도시에서는 옛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천 년 후에 거기서 이만 리나 되는 곳에서 태어난 내가 그를 인정하기를 바라다니? 당신네는 기록한 책이라 부르지만 나는 통 알 수가 없는 그 책을 내

가 믿기 전에, 그 책이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 어떻게 보존되다가 어떻게 해서 당신네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당신네가 내게 가르쳐 주는 것 모두를 당신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네 나름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당신네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조사하러 유럽에, 아시아에, 팔레스타인에 가야만 한다는 건 당신네도 알겠지. 그러기 전에는 돌기라도 하지 않고서는 당신네 말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겠어.

이런 말이 내게는 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고, 또 증거들을 검토하기도 전에 서둘러 사람을 가르쳐 영세를 주려고 드는 선교사는 마땅히 뿌리쳐야만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같은 반대 의견들이 기독교를 반박할 때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힘을 갖지 않고 반박하는 계서란 없다고 주장하겠어. 따라서 만일 진짜 종교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모든 종교를 연구하고 파고들어 비교하고 그 종교들이 자리잡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데 일생을 보내어야만 하게 되지. 아무도 인간의 첫 의무를 면할 도리는 없고, 아무도 남의 판단에만 의지할 권리는 없거든. 자기 노동으로만 사는 장인바치, 글 읽을 줄도 모르는 농사꾼, 연약하고 수줍은 처녀,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든 병자, 모두가 예외 없이 연구하고 명상하고 토론하고 온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다녀야 한단 말이야. 한곳에 오래 자리잡고 있는 국민이라곤 없어지겠지. 막대한 비용과 오랜 피로를 무릅쓰고, 지구 위에서 믿어지는 온갖 신앙들을 몸소 조사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러 다니는 순례자들로만 온 지구가 뒤덮여지겠지. 그때는 직업도 기술도 학문도 시민으로서의 온갖 일도 다 끝장나는 거지. 종교 공부밖에는 다른 공부가 있을 수도 없어. 가장 튼튼한 몸을 가지고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자기 이성을 가장 잘 써먹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늙어서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며, 어떤 신앙 속에서 살았어야 하는가를 죽기 전에 알게 된다면 대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완화시켜 사람들의 권위에 조금만 힘을 주겠다고? 당장에 모두를

그 권위에 돌려 주게 되며, 또 기독교도의 아들이 깊고 공정한 조사도 없이 자기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좋다면, 터키인의 아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어째서 나쁘겠는가? 세계의 모든 불관용자(不寬容者)들은 이 점에 대해 지각 있는 사람을 만족시킬 대답을 할 테면 해 보라.

이러한 이유들에 몰려 더러는 자기네의 고약한 교리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신을 부당한 자로 만들어 죄 없는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죄로 벌하기를 좋아하고 있어. 또 더러는 친절하게도 천사를 보내어, 깨뜨리지 못할 무지 속에서도 도덕적으로는 올바르게 살 자는 누구나 가르쳐 주게 함으로써 발뺌을 하고 있거든. 이 천사란 정말 근사한 발명이지!<sup>82\*</sup> 그들은 우리를 자기네의 꼭두각시의 노예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 자신더러도 그런 것을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단 말이야.

여보게, 저마다가 자기 의견만 고집해, 인류의 나머지는 체쳐놓고 저만 옳다고 믿으려 들 때, 교만과 불관용이 얼마나 엉뚱한 부조리로 이끌어 가는가를 알아 두게. 나의 탐구가 다 진지했다는 것은, 내가 숭배하고 내가 자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평화의 신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탐구가 성공하지 않았을뿐더러 언제까지나 성공할 리가 없어 자신이 가없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안 나는, 되돌아가 내 신앙을 나의 애초의 개념들 속에 도로 밀어넣기로 했지. 하느님이 나더러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학자가 되도록 명령했다고는 아무래도 믿어지지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모든 책을 다시 닫고 말았어. 모든 사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단 한 권 있는데, 그건 자연이라는 책이지. 그 거룩한 저자를 섬기고 숭배하도록 내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하고 숭고한 책에서야. 그는 모든 머리에 이해되기 쉬운 말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설사 내가 어느 무인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밖에는 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배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이성을 훈련시켜 기른다면, 하느님이 내게 주는 직접적인 능력들을 제대로만 써먹는다면, 나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그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그가 바라는 선을 바라는 법을, 그의 뜻에 맞도록 이 땅 위의 모든

82\* 이 발명이란,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74)의 그것을 말한다.

내 의무를 다하는 법을 나 스스로 배우게 될 거야. 사람들의 모든 지식이 그 이상의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겠는가?

게시에 관해서는, 내가 만일 더 나은 이론가이거나 더 잘 알았더라면 아마 그것의 참됨을, 그것을 인정하는 행복을 가진 자들을 위한 그것의 쓸모를 깨닫게 되겠지. 그런데 게시에 유리하도록 나는, 내가 공격하지 못할 증거들도 보지만, 게시에 불리하게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반대 의견들도 역시 보고 있거든. 찬성과 반대의 확고한 이유들이 하도 많아 정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는, 게시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못하고 있어. 다만 나는 게시를 인정하는 의무를 부인할 따름인데, 그것은 그 이른바 의무가 하느님의 정의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의해 구원예의 장애물들을 없애기는커녕 늘리기만 해 인류의 태반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이것만 제외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손한 의심 속에 머무르고 있어. 나는 자신이 틀릴 리가 없다고 믿을 만큼 뻔뻔스럽지는 않아. 내게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결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나는 나를 위해 추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는 아니며,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도 흉내 내지도 않으며, 그들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나은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라 해서 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성서의 존엄성이 나를 감탄시키고 복음서의 거룩함이 내 가슴에 호소한다는 것도 자네에게 자백하네. 철학자들의 허풍투성이인 책들을 보게, 복음서에 비해 얼마나 시시한가! 그토록 숭고하면서도 소박한 책이 사람들의 저작일 수가 있겠는가? 그 책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 인간 자신에 불과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그것이 광신자나 파벌적인 야심가의 어조이란 말인가? 그의 소행에는 얼마나 놀라운 정다움과 순결이 있는가! 그의 가르침에는 얼마나 감동적인 호의가! 그의 격률들에는 얼마나 놀라운 고귀함이! 그의 이야기에는 얼마나 깊은 지혜가! 그의 대답에는 얼마나 대단한 재치와 섬세함과 정확성이! 자신의 정념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지배력! 약점도 과시(誇示)도 없이 행동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현자가 어디 있는가? 창피한 죄를 온통 뒤집어쓰고도 미덕의 온갖 대가

를 받을 만한 의인을 상상해서 그려 낼 때 플라톤은,<sup>83</sup>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히 그리고 있어. 하도 닮아서 신부들도 다 그걸 깨달을 정도였고, 잘못 볼 수가 없을 정도지. 소프로니스코스<sup>84\*</sup>의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에 감히 견주려면 대단한 편견과 무분별이 있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엄청난가? 공통도 치욕도 없이 죽은 소크라테스는 십사리 자신의 사람됨을 끝까지 지탱했지만, 그 수월한 죽음이 그의 생애를 빛내어 주지만 았았어도 소크라테스가, 그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도 궤변가 아닌 판 사람이었을지는 의심스러웠을 거야. 그가 윤리학을 창시했다고들 말하지. 그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실천했었고, 그는 자기가 행한 바를 말로 했을 뿐이며, 그들이 보인 본보기를 가르침으로 삼았을 따름이야.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리스티데스는 정의의 인간이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하나의 의무로 삼기 전에 이미 레오니다스는 자기 나라를 위해 죽었으며, 소크라테스가 검소를 찬양하기 전에 이미 스파르타는 검소했었어. 그가 미덕을 정의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에는 덕이 높은 사람들이 수도룩했었어. 그런데 예수는 자기만이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여준 그 높고도 순결한 윤리를 자기 나라 사람들 중의 누구에게서 배웠는가?<sup>85</sup> 가장 지독한 광신 한복판에서 가장 높은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 왔던 것이고, 가장 영웅적인 미덕들의 단순함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민족을 빛내어 주었던 걸세. 친구들과 조용히 철학하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바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죽음이지. 온 국민의 욕설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서 숨진 예수의 죽음은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이고, 독약 잔을 든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내놓으며 우는 자를 축복하지. 끔찍한 형벌 속에서 예수는 사정없는 망나니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은 현자의 그것이고,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그것일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까닭 없이 꾸며 내어진 것이라

83 《국가론》 대화 2.

84\* Sophronisque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로, 조각가.

85 산상 교훈에서, 모세의 윤리와 자기의 윤리에 대해 예수 자신이 한 비교를 참조하라.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고 말할 것인가? 여보게, 꾸며 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닐세,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행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보다도 확신이 덜 되어 있거든. 요컨대 이것은 어려움을 격파하지 않고 멀리하는 셈이야. 몇 사람<sup>86\*</sup>이 공동으로 이 책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이 그 테마를 제공했다는 것 이상으로 믿기 어려운 노릇이야. 일찍이 유대인 저작자들은 이와 같은 어조도 윤리도 찾아 낸 적이 없었을뿐더러, 복음서는 하도 위대하고 뚜렷해 전혀 흉내 낼 수도 없는 진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주인공보다도 필시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정도야. 그런데도 이 복음서는 믿기 힘든 일들, 이치에 어긋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을 수도 시인할 수도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거든! 이러한 온갖 모순 한복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보게, 늘 겸허하고 용의주도하라. 부인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일은 말없이 존중하라, 그리고 혼자 진리를 알고 있는 위대한 존재 앞에서 공손해지라.

이와 같은 본의 아닌 회의 속에 나는 머무르고 있는 걸세. 그러나 이 회의는 실천상의 본질적인 점들까지 뻗쳐 있지는 않을뿐더러, 나의 모든 의무의 원칙들에 대해 나는 제대로 마음먹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내게 힘든 것은 조금도 아니야. 나는 소박한 심정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있어. 내 처신상 중요한 것밖에는 애써 알려고 들지도 않아. 행동에도 도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교리로 말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는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하나의 종교들을 다, 각 나라에서 공변된 제식으로 신을 경배하는 일매진 방식을 규정하는 유익한 제도로, 그 풍토나 정체(政體)나 국민성에 있어서는, 또 때와 곳에 따라 한 제도를 다른 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다른 지방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저마다 다 정당할 수도 있는 제도로 보고 있거든. 신을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섬기고만 있다면 모든 종교를 나는 다 좋다고 생각해. 본질적인 신앙이란 마음의 신앙이야. 그 경의(敬意)가 어떤 형식으로 바쳐지건 진지하기만 하다면, 신은 그걸 물리치지는 않아. 교회를 위해 내가 받들고 있는 형식에 따라야 하는 나는, 내게 과해진 일들을 되도록 어김없이 완수하고 있으며, 내 양심

86\* P에서는 “네 사람.”

은 내가 어떤 점에서 짐짓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그냥 두진 않을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오랜 성무 집행 정치 끝에, 드 멜라레드 씨<sup>87\*</sup>의 주선으로 다시 직무를 맡는 허락을 얻어 생계를 돕게 됐어. 아무리 중대한 일도 너무 자주하게 되면 나중에는 예사로 알게 마련이지만, 전에는 나도 예사로 미사를 올리고 있었지. 새로운 원칙들을 갖게 된 뒤로는 나도 더욱 공손한 마음으로 미사를 올리고 있어. 최고 존재의 위엄과 그의 현존을, 자신의 창조자와의 관련을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정신의 무력함을, 나는 사무치게 느끼고 있어. 민중의 소원들을 지시된 형식에 따라 그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온갖 제식을 조심스레 집행하고 있지. 성경 낭독도 주의 깊게 하고 있어. 하찮은 단어도 하찮은 의식도 결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어. 변화지례(變化之禮)<sup>88\*</sup>의 순간이 다가오면 성체의 위대함과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채비를 갖추어 그것을 집행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지. 최고의 지성 앞에서 내 이성을 버리려고 애쓰고 있어. 나는 혼잣말해. 무한한 전능을 재려는 너는 누구냐? 나는 공손한 마음으로 준성사(準聖事)<sup>89\*</sup>의 말들을 발음하고, 나로서는 있는 믿음을 다해 그 효험을 믿고 있어. 이해하지 못할 그 신비야 어쨌든,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모독했다 해서 심판의 날에 벌받을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

신분은 비록 꼴찌지만 성직자로 있는 나는, 그 숭고한 의무들을 다할 자격을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도 말하지도 않겠어. 나는 사람들에게 늘 미덕을 가르쳐, 좋은 일을 하도록 늘 부추겨 주겠고, 되도록이면 그 본보기를 스스로 보여 주도록 하겠어. 종교를 그들에게 탐탁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은 내게 달린 일은 아닐 거야. 정말로 유익해 사람이 다 믿어야 할 교리들로 그들의 신앙을 굳혀 주는 것은 내게 달린 일은 아닐 걸세. 하지만 불관용의 잔인한 교리를 내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따위의 일은, 내가 그들더러 자기네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

87\* de Mellarède는, 사보아 보좌 신부의 모델인 Gaime 신부가 그 집 가정 교사로 있는 적이 있는, 사르디니아 왕의 대신.

88\* la consécration의 역어.

89\* le sacramental의 역어.

이라고 남들에게 말하게 만드는 따위의 일은 제발 안 했으면 해.<sup>90</sup> 내가 더 눈에 띄는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조심성이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많은 염려를 해야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질 리도 만무하거든. 무슨 일이 있건 나는 신의 정의를 모독하지는 않겠고, 성령에 거슬러 거짓말 하지도 않겠어.

주임 신부가 되는 영광을 나는 오랫동안 바라 왔지. 지금도 그걸 바라고는 있지만 이제 기대하지는 않아. 여보게, 주임 신부가 되는 만큼이나 훌륭한 일은 없는 것 같아. 좋은 법관이 정의의 집행자이듯이 좋은 신부는 선의 집행자이거든. 신부는 나쁜 일을 할 필요가 통 없어. 스스로 좋은 일만 늘 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권하고 있으면 자기 소임을 늘 다하는 것이 되고, 또 자중할 줄만 알면 그것을 달성하게 되기가 일쑤지. 오, 내가 만일 우리 두메에서 착한 사람들의 어떤 초라한 사제직을 맡는다면 나는 행복할 걸세, 왜냐하면 나는 내 교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보이니까. 그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가난을 나도 나누어 가질 거야. 궁핍 자체보다 더 참기 어려운 가난의 창피나 멸시는 벗겨 주게 될 거야. 비참을 곧잘 잊게 해 늘 견뎌 내게 해 주는 화합과 평등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줄 걸세. 내가 자기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면서도 만족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도, 자기네 운명을 감수하고 나처럼 만족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교회의 정신보다는 복음서의 정신에 더 치중하게 될 걸세. 교리가 단순하고 모럴이 숭고할뿐더러 종교 의례는 별로 없고 자선 행위가 많이 보이는 복음서의 정신에 말일세. 내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게 해 주기 위해 나는 해야 할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늘 애쓸 걸세. 근처나 내 교구 안에 신교도들이 있더라도 나는, 기독교적인 자비에 관련된 일 모두에 있어서는, 그들을 내 진짜 교

90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고 사랑할 의무는, 예컨대 불관용의 교리처럼 올바른 도덕에 어긋나는 교리들에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을 서로에 대해 무장시켜 모두를 인류의 적으로 만드는 무서운 교리다. 사회적인 관용과 신학적인 관용을 구별하는 것은 유지하고 헛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용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한쪽 없이만 쪽만 시인할 수는 없다. 천사들조차도, 하늘의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구 사람들과 구별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그들을 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형제로 여기도록, 모든 종교를 다 존경하도록, 저마다가 자기 종교 속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 겠세. 태어날 때의 종교를 버리도록 누구를 부추긴다는 것은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도 잘못을 하는 셈이라고 나는 생각해. 더욱 큰 빛들이 오기까지는 공공의 질서를 지키자.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 법들을 존중하자. 그 법이 지시하는 신앙을 어지럽히지 말자, 시민들을 반항으로 이끌질랑 말자. 왜냐하면 자기네 의견들을 버리고 다른 의견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좋은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나, 법을 거역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썩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여, 이제까지 나는 내 신앙 고백을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서 읽으시는 그대로 자네에게 이야기했네.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자네가 처음일세. 앞으로도 아마 자네 말고는 없을 겠세. 사람들 사이에 얼마큼의 좋은 신앙이 남아 있는 동안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 그들을 계발하지는 않고 불안케만 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들을 어지럽혀서도, 순박한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들어서도 안 돼. 그런데 모두가 한 번 뒤흔들렸을 때는 가지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줄기를 간직해야 해. 들떠서 흔들거리고 거의 흐릿해진 양심, 내가 본 자네 양심 같은 상태에 있는 양심들은, 깨어나 굳혀져야 하며, 그 양심들을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다시 세우려면, 그 양심들이 아직도 기대려고 생각하는 흔들거리는 기둥들을 모조리 뽑아 내어야 해.

자네는 위급한 나이에 있어, 머리는 변치 않는 것을 구하고, 마음은 제 형태와 성격이 주어지는 나이, 좋게건 나쁘게건 평생 계속될 것이 결정되는 나이에 있단 말일세. 나중에 가서는 알맹이가 굳어져 새로 찍은 자국들은 표도 나지 않거든. 젊은 이여, 아직은 부드러운 자네의 뒀에 진리의 도장을 찍어 받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더 자신이 있다면 독단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자네에게 말했겠지. 그러나 나는 무지하고 틀리기 쉬운 인간이니,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거리낌 없이 내 마음을 자네에게 털어놓았어. 내가 확실하다고 보는 것은 그대로 자네에게 말했어. 내 의혹들은 의혹으로서, 내 의견들은 의견으로서 자네에게 주었지. 내가 의심

하는 이유와 믿는 이유를 말했어. 이제 자네가 판단할 차례야. 자네는 시간이 걸렸어. 그러한 조심성은 현명해서, 나더러 자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거든. 먼저 자네 양심을 빚 받고 싶은 상태에다 놓게. 자네 자신에 대해 성실해지게. 내 생각들 중에서 납득이 가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게. 자네는 선택을 잘못할 위험이 있을 만큼은 아직은 악덕에 물들어 있지 않아. 우리끼리 상의해 보자고 제의해도 좋아. 하지만 말다툼이 벌어지면 이내 흥분하게 마련. 허영심과 고집이 끼어들어, 성실한 마음은 없어지고 말거든. 친구여, 제발 말다툼은 하지 말게. 말다툼으로는 자신도 남들도 밝혀지지는 않으니까. 나로 말하면, 내가 결심을 한 것은 여러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야.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어. 내 양심은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은 흡족해. 설사 내 생각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싶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에 대한 더 순수한 사랑을 그 일에 바치지지는 않을 거고, 또 이제 덜 활발한 내 정신이 그 진리를 알아볼 힘도 덜할 걸세.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낙으로 바뀐 명상 취미가 내 직무 집행의 열의를 식히지나 않을는지, 나의 애초의 회의(懷疑)론에 다시 빠져들어 헤어날 힘도 없어지거나 않을는지 겁이 나서도, 나는 지금의 나로 머물러 있을 생각일세. 생애의 절반 이상이 흘러가 버린 나에게는 이제, 그 나머지를 보람 있게 쓰고 내 잘못들을 미덕으로 씻는 데 필요한 시간밖에는 없어. 설사 내가 틀리더라도 그건 내 본의는 아니야. 내 마음 밑창을 읽는 자는 내가 좋아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나 자신의 빛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남은 유일한 빠져 나올 방법은 올바른 생활이며, 또 하느님이 돌들에서조차 아브라함에게 아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sup>91\*</sup> 사람은 다 그럴 자격만 되면 빛을 받기를 바랄 권리가 있는 걸세.

내가 살피곤 바들이 자네를 움직여 내가 생각하듯이, 내 생각들이 바로 자네 생각들이고,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나는 자네에게 이런 충고를 주겠네. 자네 생활을 다시는 비참과 절망의 유혹에 내맡기지 말고, 외국인들에게 말려들어 창피한 생활을 다시는 해서 안 되며, 천한 동냥 빵을 얻어 먹지 말게. 자네 조국으로 돌아가 자네 조상들 종교를 되찾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

91\* <마태복음> 3장 9절과 <누가복음> 3장 8절 참조.

으며 다시는 버리지 말게. 그 종교는 아주 단순하고도 신성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그 모럴이 가장 순수하고 이성애 가장 흡족한 종교로 생각돼. 여비는 걱정 말게, 대줄 테니. 기가 죽어 돌아가는 창피도 염려할 것 없어. 잘못을 저지를 때 얼굴을 붉혀야지, 잘못을 고칠 땐 그럴 필요가 없네. 자네는 아직도 다 용서 받는 나이이지만, 이젠 별반지 않고서는 죄를 짓지 못하는 나이기도 해. 자네가 자네 양심에 귀 기울일 생각만 있으면 천 가지의 하잘것없는 장애들이 그 목소리에 사라지고 말 걸세. 우리가 처해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타고난 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내세우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오만이고, 자기가 내세우는 종교를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자네도 깨달을 거야. 길을 잘못 들면, 최고의 심판자의 법정에서 변명의 큰 건더기를 잃게 돼. 그 심판자는 사람이 감히 택한 잘못보다는, 그 속에서 자라 온 잘못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내 아들이, 하느님이 있기를 노상 바라는 상태에다 네 혼을 붙들어 두라, 그러면 그런 의심은 결코 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리고 자네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건, 종교의 진짜 의무들이 사람들의 제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 올바른 마음이 진짜 신전이라는 점, 어느 나라 어느 교파에서나 다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는 점, 도덕상의 의무들을 면하게 해 주는 종교란 없다는 점, 정말로 요긴한 의무란 위의 의무밖엔 없다는 점, 내면의 신앙이 그 의무의 으뜸이라는 점, 신앙 없이는 어떤 미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게.

자연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고약한 교리들을 사람들 마음에 씨 뿌리는 자들, 그 허울 좋은 회의론이 그들의 반대자들의 단호한 어조보다 백배나 더 단정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자들은 멀리하게. 자기들만이 견식이 있고 참되고 성실하다는 건방진 구실로 그들은 억지로 우리를 자기네의 단정적인 결정들에 따르게 하고, 자기네의 상상력으로 쌓아올린 이해도 가지 않는 체계들을 만물의 참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려고 들거든. 뿐더러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다 뒤집어엮고 때려 부수고 발로 밟는 그들은, 상심하는 자들로부터는 그 비참의 마지막 위안거리를, 권력자나 부자들로부터는 그 정념들의 유일한 브레이크를 앗아 가고, 사람들 마음 밑창에서

죄에 대한 뉘우침과 미덕에 대한 희망을 뿌리째 뽑아 가면서도, 자기네가 인류의 은인이라고 뽐낸단 말이야. 진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해롭지가 않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 나도 그들처럼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는 커다란 증거야.<sup>92</sup>

92 양쪽이 하도 술한 궤변들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어, 그것들을 다 지적하려 들면 엄청나고 무모한 일이 될 정도다. 그 몇 가지를 나타나는 대로 적어 나가는 것만도 이미 큰일이다. 철학자들 쪽의 가장 혼란 궤변의 하나는, 좋은 철학자들로 가정된 국민을 나쁜 기독교도들인 국민과 대립시키는 일이다. 마치 진짜 철학자들인 국민이 진짜 기독교도들인 국민보다는 만들기가 더 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한쪽이 딴 쪽보다 더 발견되기 쉬운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이 문제일 때는, 마치 우리 쪽 국민들이 철학 없이 종교를 악용하듯이 종교 없이 철학을 악용할 국민들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러면 문제의 양상이 사뭇 바뀔 것 같다.

벨르는,<sup>93\*</sup> 광신이 무신론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썩 잘 증명했으며,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진실인데도 그가 말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비록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것이긴 하나 광신은, 사람의 마음을 양양시켜 죽음을 깔보게 하고 놀라운 힘을 주는 크고도 강한 정념이며, 더없이 숭고한 미덕들을 거기서 끌어내려면 더욱 잘 이끌기만 하면 되는 정념이라는 점이다. 무종교가, 아니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치만 따지는 철학 정신이, 생명에 집착하고 마음을 나약하고 천하게 만들어 모든 정념을 개인 이익의 웅졸함과 인간 '자아'의 타락 속으로 몰아넣어, 모든 사회의 진짜 토대들을 소리도 나지 않게 무너뜨리는 데 반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개인 이익이 갖는 공통적인 것은 하도 하찮은 것이어서, 제가 갖는 대립적인 것을 뒤흔들지는 못할 테니까.

무신론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화에 대한 사랑보다는 선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자기 서체에 가만있을 수만 있다면 만사가 어떻게 되건 자칭 현자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의 원리들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을 번식시키는 풍습을 파괴하고 그들을 인류로부터 떼어 놓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애정을 국민에게도 미덕에도 해로운 은밀한 이기주의로 몰아넣음으로써,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는 있다. 철학자의 무관심은 전제주의 국가의 평온과도 비슷하다. 죽음의 고요다. 전쟁보다도 더 파괴적이다.

이리하여 광신은 비록 그 직접적인 결과들에 있어서는 오늘날 철학 정신이라 불리는 것보다 더 해롭더라도, 그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훨씬 덜 해롭다. 게다가 근사한 격률들을 책 속에 늘어놓기는 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교리와 제대로 맞아들어가는 것인지를, 교리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아는 일이며, 이는 여태까지 분명히 밝혀진 일이 없는 문제다. 또한 남은 할 일은, 마음 편히 왕좌에 도사리고 앉은 철학이 자만심과 이해 관계와 야심을, 인간의 잔다란 정념들을 제대로 휘어잡을 수 있을지를, 철학이 손에 펜을 쥐고 자랑해 보이는 그 파스한 인정을 실천하게 될지를 아는 일이다.

원칙들에 있어서는, 철학은 종교가 사뭇 잘 하고 있는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어, 종교는 철학이 할 줄 모르는 선을 많이 행하고 있다.

실천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그래도 검토는 해 보아야 한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모든 점에서 그 종교에 따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는 사실이다. 대부분은 종교를 갖지 않았고, 가져도 그 중

교에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이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요컨대 더러는 종교를 갖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에 따르고 있으며, 그래서 종교에서 오는 동기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아 주기가 일쑤여서, 이 동기들 없이는 있지도 않았을 미덕과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그들에게서 끌어내어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한 수도사가 말은 것을 모른다고 잡아챌다면, 말긴 자가 바보가 되는 결과밖에는 더 되겠는가? 파스칼이 그렇게 잡아챌 일이 있다면, 파스칼이 위선자였었다는 증명은 되어도 그 이상의 증명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사란!…… 종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레 종교를 믿는 자들인가? 다른 데서와 마찬가지로 성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도, 종교가 쓸데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썩 적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오늘날의 정부들이 권위가 더 확고하고 혁명이 덜 잦은 것이 기독교의 덕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독교는 정부들 자체도 덜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는 고대의 정부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로서 증명되는 일이다. 종교가 더욱 잘 알려지게 되자 광신이 밀려나 기독교도들의 풍습은 더욱 부드럽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에 탓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에 빚났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인정이 그래서 더 존중된 일은 없으니까. 아테네인들과 이집트인들의, 로마 황제들과 중국인들의 잔인성이 그 증거다. 얼마나 술한 자비로운 행위들이 복음서 덕분인가! 가톨릭의 나라에서는 고해 성사가 얼마나 많은 회복과 보상을 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네 나라에서는 성체배령(聖體拜領) 때가 다가오면 얼마나 많은 화해와 적선이 행해지고 있는가! 히브리인들의 50년절은 찬탈자들의 탐욕을 꺾어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막았던가! 계율로 정해진 박애가 온 국민을 결합시켜 그들 나라에서는 거지 하나 보이지 않았고, 신앙 단계가 무수히 있는 터키인들 나라에서도 거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의 원칙에 따라 자기네 신앙의 적들까지도 환대하고 있다.

샤르댕에 의하면, “만인의 부활에 이은 심사 후에 모든 육신들은 영겁의 불 위에 놓인 풀세로(Poul-Serrho)<sup>94</sup>라 불리는 다리를,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거기기에 제3의 마지막 심사, 즉 진짜 마지막 심판이라 부를 수 있다는 다리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회교도들은 말하고 있다…… 등등.

샤르댕은 계속해 말한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다리라면 사족을 못 써, 누가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양값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위안으로 되어 있다. ‘좋아, 살아 있는 신 때문에 너는 마지막 날에 내게 갑절로 값아 주게 될 거다. 미리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너는 풀세로 다리를 지나가지 못할 거다. 내가 네 옷자락을 붙잡고 네 다리 사이에 매달릴 거다.’ 이 끔찍한 다리를 지나갈 때 누가 ‘저놈 잡아라’ 하고 외칠까 봐 두려운 온갖 직업의 술한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런 일은 나 자신에게도 백 번이나 있었던 일이다. 나더러 귀찮게 굴어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얼마 후 내 기분이 풀렸으리라 생각될 때 내 겉으로 와 말하는 것이었다. ‘제발 부탁이오(balal becon antchisra),’ 즉 ‘그 일을 합법적이거나 옳은 일로 만들어 주구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진심으로 그런다고 언명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선물이나 서비스까지 했었다. 그 까닭은, 자기가 괴롭힌 자들에게 썬을 다 치르지 않고는 지옥의 다리를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을 이외의 딴 것이 아니다.” (12절판, 7권, p. 50).

술한 부정을 바로잡아 주는 이 다리에 대한 생각도 부정을 막아 주지는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겠는

착한 젊은이여, 교만 없이 성실하고 참되어야 해. 무지할 줄을 알아야 해. 그러면 자네 자신도 남들도 속이지 않게 될 테니까. 설사 자네의 재능이 닦아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처지가 되더라도, 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 줄는지의 여부에 마음을 쓰지 말고, 꼭 자네 양심에 따라서만 말해 주도록 하게. 지식의 악용은 무신앙을 낳는 법. 식자는 다 속된 생각을 무시하고, 저마다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려고 들거든. 눈먼 신앙이 광신으로 이끌듯이, 오만한 철학은 자유 사상으로 이끌지. 이러한 양극의 극단을 피하게. 진리의 길, 아니면 자네의 소박한 마음에 그렇게 여겨지는 길을 언제나 굳게 지켜 나가게. 허영심이나 약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랑 말고. 철학자들 앞에서는 과감하게 하느님을 인정하게. 불관용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인류애를 가르치고. 자네 편은 아마 자네 혼자뿐이겠지. 하지만 사람들의 증언이 없어도 좋게 해 줄 증언을 자네는 자네 자신 속에 지니게 될 걸세. 사람들이 자네를 좋아하긴 미워하긴, 자네가 쓴 글을 그들이 읽어 주긴 무시하긴 상관없어. 참된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을 행하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땅 위에서의 자기의 무를 다하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잊음으로써만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야. 내 아들이야, 개인적인 이해 관계는 우리를 속여. 속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의 희망밖엔 없는 거다.<sup>95\*</sup>

나는 이 글을, 종교에 관해 따라야 할 생각들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애쓴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제자와 함께 추리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의 본보기로서 옮겨 썼다. 사람들의 권위도, 태어난 나라의 편견들도 전혀 인정하

가? 만일 시달린 자들이 죽은 뒤에 폭군들에게 복수하게 되는 ‘폴세로’도 비슷한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인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없애 버린다면, 폭군들의 마음만 편하게 해 주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생각마저 가서 줄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이러한 교리가 해롭지 않다는 것은 틀렸다. 따라서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이다.

철학자여, 당신들의 도덕 법칙들은 아주 근사하지만, 제발 그 상벌 규정도 보여 달라. 엉뚱한 짓을 잡지 그만두고, ‘폴세로’ 대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 달라.

93\* Pierre Bayle(1647~1706)은 프랑스의 자유 사상가.

94\* 샤르댕의 글에서는 폴세라(Poul serrla). “길 복판의 다리”라는 뜻.

95\* G에서 루소는 이 ‘신앙 고백’ 끝에 “아멘(Amen)”이라고 썼다.

지 않는 한, 이성의 빛들만으로는 자연의 교육에서 우리를 자연종교보다 더 멀리 이끌어 갈 수는 없으며,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는 나의 에밀과 함께 그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종교가 있어야 한다면, 거기서 그의 길잡이가 될 권리는 이미 내게는 없다. 그 종교를 택하는 것은 그가 혼자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연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으며, 자연이 육신의 인간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정신의 인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진행은 같은 속도가 아니다. 몸은 벌써 튼튼하고 강하나 낮은 아직도 힘이 없어 약하며, 인간의 재주가 무엇을 할 수 있건, 체질이 늘 이성을 앞선다. 되도록이면 인간이 늘 하나로 통일되어 있도록 하려고, 우리는 여태까지 한쪽을 붙잡아 두고 또 한쪽을 부추기는 데에 우리의 정성 모두를 기울여 온 것이다. 천성을 발전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그의 싹트는 감성을 숙여 왔다. 이성을 북돋우어 줌으로써 감성을 가다듬어 왔다. 지성적인 대상들이 감성적인 대상들의 인상을 억제했던 것이다. 사물들의 원리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우리는 그를 감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자연의 연구에서 자연의 창조자의 탐구에 도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우리 제자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영향력들이 주어진 셈이며, 제자의 마음에 호소하는 얼마나 술한 새 방법들을 가진 셈인가! 비단 저마다가 자기애보다는 뒷전으로 돌리는 질서애(秩序愛)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의 창조자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자기애와도 융합되는 사랑을 위해서도, 또 필경은 어진 양심의 평화와 저 최고의 존재자의 눈여겨보심이 그에게 이승의 삶을 제대로 보낸 다음 저승에서 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가 스스로 착해지는 것을, 사람들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법에 강요당하는 일 없이도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남몰래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을,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미덕을 간직하는 것을, 정말로 바람직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비로소 이때에 가서다. 여기서 벗어나 보라. 내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부정과 위선과 거짓말밖에는 없게 된다. 경쟁에서는 영락없이 모든 것을 이겨 내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미덕의 탈로 악덕을 꾸미도록 가르쳐 준다. 판 사람들이 다 자기네 행복을 희생



시켜 내 행복에 이바지해 주었으면, 모든 것이 나하고만 관계를 가져 주었으면, 내가 잠시 동안의 고통이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온 인류가 괴로움과 비참 속에 죽어 주었으면. 이치를 따지는 불신자 모두의 내심의 말투란 이런 것이다. 그렇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우겨 대겠다. 하느님은 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놓고 달리 말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말쟁이 아니면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독자여, 내가 무슨 수를 써 봤자 헛일, 여러분과 내가 나의 에밀을 똑같은 모습으로 보게 되진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그를 언제나 자기네 젊은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짐작할 것이다. 아무것도 고정하지 못하고 노상 텀벙거리고 극성맞고 변덕스럽고, 잔치에서 잔치로, 놀이에서 놀이로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로 말이다. 한창 팔팔한 나이의 격렬하고 활발하고 격하기 쉽고 성급한 청년을 내가 명상가로, 철학자로, 진짜 신학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웃겠지. 이렇게 말하겠지. 이 몽상가는 늘 환상을 좇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제자를 우리에게 내놓지만, 그는 제자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고 있고, 자기 머리에서 제자를 끌어내고 있거든, 늘 자연을 좇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에서 노상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나로서는 내 제자를 여러분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공통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토록 달리 길러진 그가 어떤 점에서 그들과 닮았다면 이것은 거의 하나의 기적이다. 그는 그들이 청년기에 갖게 되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소년기를 보내었기 때문에 청년기에는, 그들이 어려서 복종당하던 규칙을 지키기 시작한다. 이 규칙이 여러분의 제자들에게는 성가신 것이 되며, 그들은 그것을 싫어해 그 속에서 선생들의 오랜 압제박에는 보지 않으며, 온갖 유의 멍에를 떨쳐 버리지 않고서는 소년기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sup>96</sup> 그때에 가서 그들은, 마치 쇠사슬에서 풀려 나온 죄수가 팔다리를 펴고 흔들고 구부리고 해 보듯이, 자기들이 얽매어 있던 그 오랜 속박의 별충을 하게 된다. 에밀은 반대로, 어른이 되는 것을, 싹트는 이성의 멍에에 복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96 마치 '신분' 차별이 대단치가 않아 저마다가 야캤사람과 혼동될까 봐서 늘 안달인 나라들 이상으로 신분이 야단스레 지켜지는 나라가 없듯이, 어린이를 벗어나고 있는 아이들만큼 어린이를 깔보는 자는 없다.



안다. 이미 성숙한 그의 몸은 이제 그전 같은 운동들이 필요 없어 혼자서 멎기 시작하며, 한편 절반은 발달된 그의 정신이 이번에는 비약하려고 든다. 이리하여 철들 나이가 여러분의 제자들에게는 방종의 나이에 지나지 않지만, 내 제자에게는 이성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들과 그의 어느 쪽이 이 점에 있어 자연의 질서에 더 맞아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 질서에서 더 떨어져 있는 자와 덜 떨어져 있는 자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시골 청년들을 관찰해서 그들도 여러분의 제자들 못지않게 극성맞은가를 살펴 보라. 르 보 씨<sup>97\*</sup>는 말하고 있다. “미개인들의 소년기에서는, 언제나 활동적이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갖가지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청년기에 이르기만 하면 조용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되어, 점잖은 놀이나 노름에밖에는 열중하지 않게 된다.”<sup>98</sup> 농촌 청년이나 젊은 미개인들의 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란 에밀도 그들처럼 커 가면서 바뀌고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차이라고는 그가, 놀거나 먹고살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놀이에서도 생각하도록 배웠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이런 길로 해서 이 시기에 이르른 그는, 내가 안내해 주는 길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내가 그에게 제시하는 고찰의 테마들은, 원래가 훌륭해 그에게는 아주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가 그것들을 이해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의 호기심을 끄드긴다. 반대로, 여러분의 따분한 수업이나 지루한 잔소리, 끝없는 교리 문답에 시달려 지쳐 빠진 여러분의 청년들은, 답답한 것이 되고 만 그 정신 집중을, 끊임없이 옆놀러 대는 그 갑갑한 교훈들을, 기쁨의 적이 되고 만, 자기들의 존재의 창조자에 대한 그 성찰을,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이러한 것 모두에 대해 그들은 혐오나 반감밖에는 느끼지 않았으며, 속박이 그것을 진저리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그 속박에 따르게 할 방법은? 그들 마음에 들려면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나 할 말은 아무것도 이제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다. 내 제자에게도 마찬가지다.

97\* Charles Le Beau(1701~78), 프랑스의 역사가로 《동로마제국 역사(Histoire du Bas-Empire)》의 저자.

98 《고등법원 변호사, C·르 보 씨의 모험들》 2권, p. 70.

그가 어른이 되면 나는 그에게 어른에게 말하듯이 말하며, 새로운 것들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가 그것들을 자기 취미에 맞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판 청년들에게는 따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성을 위해 자연의 발걸음을 늦춤으로써 그로 하여금 갑절로 시간을 벌게 해 준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나는 실지로 늦춘 것인가? 아니다. 상상력이 그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막았을 따름이다. 청년들이 다른 데서 받는 올린 수업을 유가 다른 수업으로 별충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의 여울물이 그를 휩쓸어 가는 동안 다른 교육으로 그를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그를 제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이 된다.

자연의 진짜 시기가 마침내 오고 있으며, 와야만 한다. 인류가 존속되고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인간은 죽어야 하고 번식해야 하니까. 내가 말한 바 있는 조짐들로 위기가 예감되거든 당장에,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여태까지의 태도를 영영 버리도록 하라. 아직도 여러분의 제자이긴 하나 이미 여러분의 학생은 아니다. 여러분의 벗이고 하나의 인간이니, 앞으로는 그렇게 대하라.

뭐라고! 내 권위가 내게 가장 필요할 때에 그 권위를 버려야 한다고? 성년자가 처신할 줄을 가장 몰라 가장 탈선하고 있는 시기에 혼자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내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요긴할 때에 그 권리를 단념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권리라니! 누가 그걸 단념하라고 말하는가? 그 권리가 그를 위해 행사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힘이나 꾀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었다. 권위나 의무의 법칙은 그가 알지 못하는 바이었다. 그를 여러분에게 순종시키려면 속박하거나 속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슬픈 새로운 사슬들로 여러분이 그의 마음을 에워싸 놓았는지를 보라. 이성 · 우정 · 감사하는 마음 · 온갖 애정들이 그가 무시하지 못할 어조로 그에게 말하고 있다. 약덕이 아직은 이 목소리들에 대해 그의 귀를 막게 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그는 자연의 정념들밖에는 느끼지 않는다. 그 정념들 모두 중에서도 으뜸가는 자애심이 그를 여러분에게 내맡기고 있다. 습관이 또한 그를 여러분에게 내맡긴다. 일시적인 흥분이 그를 여러분에게서 앗아 가더라도, 뉘우침이 곧 그를 여러분에게

다시 데려다 준다. 그를 여러분에게 뱉어 주는 감정은 한결같은 유일한 감정이다. 만 감정들은 다 사라져 가고 서로 지워 없앤다. 그를 타락하도록만 두지 말라, 그는 언제나 순종할 테니. 그는 이미 타락했을 때밖에는 반항하기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긴 여러분이 그의 싹트는 욕망들과 맞부딪쳐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새로운 욕구들을 어리석게도 죄악시한다면, 여러분에게 오래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나도 시인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방법을 벗어나자마자 나는 이미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연의 대리자라는 점을 늘 명심하고, 그 적이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서는 그의 성향을 두둔해 주느냐 그것과 싸우느냐, 그의 폭군이 되느냐 아첨꾼이 되느냐의 양자택일의 길밖에는 없는데, 양쪽에 모두 하도 위험한 결과들이 있어 선택에 주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언뜻 생각나는 방법은 그를 열런 결혼시키는 일이다. 이는 분명 가장 확실하고도 자연스러운 편법이다. 그런데도 가장 낯거나 가장 유익한 편법인지는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하겠다. 젊은이들을 제 나이에 결혼시켜야 한다는 점은 일단 시인해 둔다. 그러나 그 나이가 그들에게는 앞서 오며, 그것을 이르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다. 성숙할 때까지 늦추어야 하는 것이다.

성향(性向)에 응하고 지시에 따르기만 해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자연의 권리들과 우리의 사회 법칙들 사이에는 모순이 하도 많아, 그것들을 조화시키려면 노상 움찔거리고 얼버무리고 해야 한다. 사회인이 완전히 인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술한 재주를 써야 한다.

앞서 말한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준 수단들이나 그와 비슷한 만 수단들에 의해, 욕망들에 대한 무지와 관능의 순결은 적어도 스무 살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나는 본다. 이는 사실이어서, 게르만인들 나라에서는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동정을 잃은 청년이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되어 있었을 정도며,<sup>99\*</sup> 저작가들은 이 민족

99\* “동정을 가장 오래 간직할 자들은 주위의 존경을 굉장히 받는다. 그들 사이에서는 20살 이전에 여자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수치로 되어 있다(카이샤르의 《갈리아 전기(Guerre des Gaules)》 VI, 21).”

의 건장한 체격과 다산을, 올바르게도 청년기의 절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시기는 훨씬 더 오래 끌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불과 몇 세기 전까지는 흔해 빠진 일이었었다. 잘 알려진 실례들 중에서 예컨대 몽테뉴의, 몸이 건강하고도 신중하고 정직한 사람이던 아버지는, 이탈리아 전쟁에 오래 종군한 다음 서른 세 살에 동정으로 결혼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그가 예순이 지나서도 얼마나 원기와 쾌활을 지니고 있었든가는 그 아들의 저서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인류 일반에 대한 지식보다는 우리의 풍습이나 편견에 더 말미암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우리네 청년의 예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 예는 우리네 청년처럼 길러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 자연은 사람이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고정된 기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나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도, 나의 돌봄에 의해 에밀이 타고난 순결 속에 그때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행복한 시기도 이제는 끝나 가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다. 자꾸만 커 가는 위험들에 둘러싸인 그는, 내가 무슨 수를 쓰건 기회만 오면 내게서 빠져 나가려 하고 있고, 그 기회는 머지않아 생겨날 것이고, 관능의 눈먼 충동에 그는 따르려 하고 있다. 그가 길을 잃게 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 이러한 첫 순간이 그의 나머지 생애에 미칠 어쩔 수 없는 영향을 알아보지 못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나는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일 속여 아무것도 못 보는 체한다면 그는 내 약점을 이용하게 된다.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그는 나를 깔보게 되고, 나는 그의 파멸의 공범자가 된다. 그를 되돌아오게 하려 들어도, 이미 때는 늦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에게는 내가 귀찮고 알밋고 참을 수 없는 인간이 된다. 머지않아 나를 내쫓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취할 온당한 방침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를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다. 적어도 뜻밖의 실수에서 그를 막아 주는 일이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숨김없이 보여 주는 일이다. 여태까지는 그의 무지에 의해 나는 그를 제지했었다. 이제부터는 그의 지식에 의해 그를 제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교육은 중요하므로, 문제를 근본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

겠다. 지금이야말로 이를테면 내 계획들을 그에게 알려 줄 때이며, 그의 시간과 내 시간의 쓰임새를 그에게 보여 줄 때다. 그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 일과 그가 한 일을,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빚지고 있는 바를, 그의 온갖 도덕적 관계를, 그가 한 모든 약속과 그에게 해 준 모든 약속을, 그의 능력들의 진보 과정에 있어 그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가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이 그에게 남아 있는가를, 그 길에서 발견될 어려움들과 그것들을 극복할 방법들을, 어떤 일에서 내가 아직도 그를 도와 줄 수 있는가를, 어떤 일에서 앞으로는 그가 혼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가를, 끝으로 그가 처해 있는 이 위험기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로운 위험들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싹트는 자기 욕망들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조심스레 경계하게 만들 그 확고한 모든 이유들을, 그에게 똑똑히 말해 줄 때인 것이다.

성년자를 이끌어 나가려면, 아이를 이끌기 위해 여러분이 해 온 일 모두의 반대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애써 그에게 숨겨 온 그 위험한 비밀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망설이지 말라. 필경은 그도 그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이나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서만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도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습이 두려워서도 자기 적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유식해졌는지는 모르나 유식해 보이는 청년들은, 탈 없이 유식해진 적이 없다. 조심성 없는 그러한 교육은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는 자들의 상상력을 더럽히기가 일쑤여서 그들을, 그런 교육을 베푸는 자들의 악덕에 물들게 한다. 그뿐이 아니다. 하인들은 이리하여 아이의 환심을 사고 신임을 얻어, 가정 교사를 교약하고 성가신 인물로 보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의 비밀 대화의 인기 있는 화제의 하나는 교사를 욕하는 일이다. 제자가 이 지경이 되면 선생은 물러날 수 있는 것, 이미 그는 할 만한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아이는 왜 별난 통사정 상대들을 택하는 것일까? 언제나 지도하는 자들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을 피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왜 그들을 피하겠

는가? 그들에 대해 마땅찮게 여길 아무런 건더기도 없다면 왜 마땅찮게 여기겠는가? 그들은 마땅히 아이의 첫 통사정 상대다. 자기 생각을 얼른 그들한테 와서 말하는 그 씩씩한 태도를 보면,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 생각을 절반밖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으로부터 잔소리나 꾸지람을 들을 염려만 없다면 아이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리라는 것만 분명해진다면 아무도, 아이가 여러분에게 숨겨야 할 만한 것을 아이에게 감히 터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내 방법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성과들을 되도록 정확하게 뒤쫓아볼 때, 내 제자에 대한 어떤 기분 좋은 이미지를 내게 남겨 주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그의 생활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격한 기질에 끌린 그가,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이를 치며 내게서 빠져 나가려고 들 때조차도, 그 법석과 흥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어릴 때의 순진성을 되찾아본다. 그의 몸 못지않게 순결한 그의 마음은 악덕을 모르는 이상으로 거짓 꾸밈도 모른다. 책망도 멸시도 그를 비겁하게 만든 적이 없고, 비열한 겁이 그에게 거짓 꾸미도록 가르친 일도 없다. 순진에서 오는 무분별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거리낌 없이 소박하다. 속이는 것이 무엇에 소용되는지도 여태 알지 못한다. 그의 입이나 눈이 말하지 않는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곤 없어, 그가 느끼는 감정이 그에게보다도 내게 먼저 알려지는 수가 흔히 있다.

그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내게 활짝 열어 보이고 자기가 느끼는 바를 내게 기꺼이 말해 주기를 계속하는 동안은,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더 소심해지고 신중해지면, 그의 대화에서 부끄러워 난처해 하는 기색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벌써 본능이 발전하고 있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은 이미 없는 것이며, 내가 만일 서둘러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내게는 아랑곳없이 알게 되고 말 것이다.

독자 중에는 내 생각들을 채택하면서도, 어찌다가 주고받는 대화밖에는 여기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

오,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가 아니다! 말할 시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고서는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야 한다. 미덕의 씨앗은 싹트기가 힘들며, 뿌리박게 하려면 오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설교를 더할 나위 없이 무익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구별도 선택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설교하는 일이다. 그토록 소질도 가지각색이고, 정신도 기분도 나이도 성(性)도 신분도 의견도 판이한 그 많은 청중들에게 같은 설교가 알맞다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알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느낌은 하도 꾸준하지가 못해 같은 이야기가 같은 인상을 주는 순간이라고는 저마다의 생애에 아마 두 번도 없을 정도다. 불붙는 관능들이 이성을 잃게 하고 의지를 엷누를 때는, 그것이 지혜의 엄숙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그러니 청년들에게는 설사 철들 나이라 하더라도, 먼저 이치를 알아들을 상태에 그들을 놓아 주기 전에는 결코 이치를 따져 말하질랑 말라. 무익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제자의 잘못보다는 선생의 잘못 때문에 무익한 것이다. 현학자와 교사는 거의 같은 말들을 하지만, 전자는 특하면 다 말하고, 후자는 그 효과에 자신이 있을 때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자는 동안 해매는 몽유병자가, 갑자기 깬다면 굴러 떨어질 그러한 낭떠러지 가장 자리를 자면서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 나의 에밀도 무지의 잠 속에서 저는 알아채지 못하는 위험들을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소스라쳐 깨게 하면 그는 마지막이다. 먼저 그를 낭떠러지에서 멀리해 주도록 힘쓰자, 그리고 나서 그를 깨워 그것을 더 멀리서 보여 주도록 하자.

독서 · 고독 · 무위 · 죽치고 사는 맥없는 생활 · 여자나 젊은이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그의 나이에는 해치고 나가기에 위험한 길들, 노상 그를 위험한 쪽으로 이끄는 길들이다. 나는 탄 감각적 대상들에 의해 그의 관능을 속여 주며, 그의 정기에 탄 흐름을 가리켜 줌으로써 그 정기가 취하기 시작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의 몸을 힘이 드는 일들에 훈련시킴으로써 그를 끌고 가는 상상력의 활동을 가로막아준다. 팔이 부지런히 일할 때 상상력은 쉰다. 몸이 몹시 지쳤을 때 마음이 타오르지는 않는다. 가장 빠르고 쉬운 예방은 그를 위험한 곳에서 떼어 놓는

일이다. 나는 우선 그를 도시 밖으로, 유혹당할 수 있는 대상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어떤 사막, 어떤 외딴 은신처에서 그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미지들을 피할 것인가? 위험한 대상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내가 멀리해 주지 않고서는, 그를 모든 것에서 떼어 놓을 재주를 내가 찾아 내지 않고서는, 그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 않고서는, 위험한 대상들만 멀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있던 곳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에밀은 하나의 직업을 배워 알고 있지만, 그 직업이 여기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고 또 알고도 있지만, 농사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가 않다. 그가 알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버릇이 되어 버려, 그것에 몰두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리와 팔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 있어야 한다. 그 새로움이 흥미를 주어 바깥 달라붙게 만들며 그의 마음에 들어 전념케 하고 훈련시켜 줄 일, 그가 열중해서 전력을 바칠 수 있는 일이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춘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일은 사냥이다. 사냥이 죄 없는 즐거움이고 인간에 알맞은 것이라면, 그 힘을 빌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에밀은 그것을 해내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튼튼하고, 재치 있고, 참을성이 있고, 끈질기다. 영락없이 이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될 것이다. 제 나이의 열을 다 쏟을 것이다. 나태에서 오는 위험한 성향(生向)들을 얼마 동안이나마 이 일에서 잃게 될 것이다. 사냥은 몸 못지않게 마음도 단련해 준다. 피와 잔인에 익숙케 한다. 디아나<sup>100\*</sup>는 사랑의 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비유는 아주 옳다. 사랑의 나른함은 달콤한 휴식에서만 생겨난다. 사나운 운동은 부드러운 감정을 목 조른다. 숲 속이나 외딴 시골에서, 애인과 사냥꾼은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아 같은 대상들에 대해서도 판이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전자의 시원한 그늘, 작은 숲, 아늑한 은신처가 후자에게는 사슴 풀밭이나 짐승 숨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한쪽이 꾀꼬리 소리나 새들의 지저귐밖에 듣지 않는 곳에서 딴 쪽은 뿔피리나 사냥개 짖는 소리를 연상한다. 한쪽은 드라이어드나 님프 생각만 하고, 딴 쪽

100\*사냥의 여신 Diane는 평생 처녀였었다.



은 사냥개 몰이나 사냥개 떼, 말 떼 생각만 한다. 이 두 가지 사람들과 함께 시골을 거닐어 보라. 땅이 그들에게는 같은 모습이 아니며, 그들의 쾌락의 선택 못지않게 그들의 생각의 방향도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말투의 차이에서 곧 알아채게 될 테니.

이러한 취미들이 어떻게 합쳐지며, 그 모두를 위한 시간이 마침내 어떻게 발견되는가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젊은이의 정열들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젊은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을 그에게 주라. 나머지는 다 곧 잊히고 말 것이다. 욕망들의 다양성은 지식의 다양성에서 오며, 처음에 알게 되는 기쁨들만이 오래 계속해 찾는 기쁨이 된다. 에밀의 청년기가 다 짐승들 잡기에 보내어지기를 나는 바라지 않으며, 그 사나운 정열을 다 옳다고 우겨 댈 생각도 없다. 다만 그 정열이 더욱 위험한 정열을 잠시 잡아 두는 데 도움이 되어, 그 위험한 정열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을 냉정히 귀담아 듣도록만 해 주면, 그래서 그를 자극하지 않고 설명해 줄 시간만 내게 주면 나는 족하다.

사람의 일생에는 절대로 잊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시기들이 있다. 에밀에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교육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는 그의 생애의 나머지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그러니 이 시기를 지워지지 않도록 그의 기억에 새겨 주도록 하자. 우리 시대의 잘못된 하나는, 마치 사람들이 정신 자체에 불과하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 생짜인 이성을 쓰고 있는 점이다. 상상력에 호소하는 상징어를 무시하다가 가장 힘찬 말을 잃고 말았다. 말이 귀에 주는 인상은 언제나 약해, 귀보다는 눈을 통해 마음에 더 잘 호소할 수 있다. 추리에만 모두를 맡기려 들다가 우리는 교훈들을 단어들로 줄아들게 해 버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성만으로는 활동적이지 아니다. 이성만 때로 제지만 했지, 자극하는 일은 드물어, 큰일이라곤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노상 이치만 따지는 것은 소인들의 병통이다. 강한 녀은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 남을 설득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언어에 의해서다.

내가 보기에 옛 사람들은 상징 언어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과 감동으로써 훨씬 더 남을 움직인 데 비해, 근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미 힘과 이해 관계로써밖

에는 남을 움직일 건더기가 없어져 버렸다. 모든 약속은 더욱 범치 못할 것으로 만  
들기 위해 엄숙하게 행해졌었다. 권력이 들어서기 전에는 신(神)들이 인류의 법관  
이였었다. 개인들이 계약이나 결연을 맺고 선서를 한 것은 바로 그 신들 앞에서도.  
대지의 표면은 그 기록들이 보존되는 책이였었다. 그 기록들 때문에 거룩해져야  
만인들의 존경을 받게 된 바위나 나무나 돌더미들은, 모든 눈앞에 노상 열려 있던  
그 책의 책장들이었다. 맹세의 우물들, 살아서 보고 있는 자의 우물들, 망브레의  
늪은 떡갈나무, 증인의 돌 더미,<sup>101\*</sup> 이런 것들이 신성한 계약의 조잡하면서도 존엄  
한 기념물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감히 그 기념물들을 불경한 손으로 해치지는 못  
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신의는 그 말 없는 증인들의 보증에 의해, 오늘날 법의 온  
갖 헛된 엄격에 의해 보장되는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통치에 있어서는 왕권의 장엄한 치레가 신화들을 위압하고 있었다. 위엄의 표시  
들, 왕좌·왕홀·주홍빛 옷·왕관·머리띠가 신하들에게는 신성한 것들이었다.  
존경받는 이 표적들이, 그것으로 치장하고 나타나는 인간을 우러러보게 만들었다.  
병사들 없이도, 위협 없이도, 그의 말만 떨어지면 복종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리  
한 표적들을 없애는 모양이지만,<sup>102</sup> 그것을 업신여기는 결과는 무엇인가? 왕의 위  
엄은 모든 사람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왕들은 군대의 힘으로밖에는 복종하게

101\* 이 네 가지 예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따온 것이다.

맹세의 우물(Beer-Schéba)은 Isaac과 Abimelec의 결연을 상기시킨다(〈창세기〉 26장 32~33절).

살아서 보고 있는 자의 우물(Lachai-roi)에서 Agar가 천사를 보았다(〈창세기〉 16장 14절).

Abraham이 있던 망브레의 떡갈나무들 사이로 신이 나타났다(〈창세기〉 18장 1절).

돌더미(Galaad)는 Jacob과 Laban의 협정을 상징한다(〈창세기〉 31장 46~48절).

102 로마의 성직자들은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간직했었고, 몇몇 공화국들도, 그중에서도 베니스 공화  
국이 이를 본따다. 그래서 베니스 정부는 국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위엄을 갖추고,  
국민의 애정과 존경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으며, 권력도 권위도 없으면서 그 화려한 차림으로 신성해  
지고 공작 모자에 여자 머리 매무새로 꾸민 베니스의 총독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3중관을 받쳐 쓴 교  
황 말고는 아마 왕이나 전제 군주에도, 세계의 어떤 사람에도 없을 것이다. 바보들을 그토록 웃기는  
저 부첸타우로<sup>103\*</sup>의 의식은 베니스의 하층민으로 하여금, 그 압제적인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기  
피를 땀방 흘리게 만들 것이다.

103\* Bucentaure는 뜻 없는 거창한 배. 해마다 예수 승천절 날에 베니스 총독이 그 위에 올라가 바다와 결  
혼하는 의식을 올렸다.

베니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놓일 때(1797년)까지 이 의식은 계속 되었었다.

만들지 못하게 되어 버렸고, 신하들의 경의는 별에 대한 두려움 속에밖에는 없게 된다. 왕들은 왕관을 쓸 필요가 없고, 고관대작들은 지위의 표시를 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네 명령을 시행케 하려면 10만의 상비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마 더 근사해 보이겠지만, 이러한 바퀴치기가 결국은 그들의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옛 사람들이 웅변으로 해낸 일은 놀랍다. 그런데 그 웅변은 잘 다듬어진 근사한 연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연사가 가장 적게 말했을 때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일은 없었다. 가장 힘차게 말하는 바는 단어들이 아니라 표적들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보여 주는 것이었다. 눈앞에 내놓는 대상은 상상력을 뒤흔들고 호기심을 꼬드겨, 말하려는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정신을 사로잡으며, 그 대상 혼자서도 할 말을 다 해 버리기가 일쑤다. 양귀비의 폭지를 자르는 트라시불로스와 타르퀴니우스, 총신의 입에 도장을 찍는 알렉산드로스, 제논 앞을 걸어가는 디오게네스는, 긴 연설을 한 이상으로 잘 말하지 않았던가?<sup>104\*</sup> 어떤 완곡한 말들이 같은 생각들을 이만큼 잘 표현했겠는가? 군대를 거느리고 스퀴티아에 침입한 다리우스는 스퀴티아인들의 왕으로부터 한 마리의 새와 개구리와 생쥐와 화살 다섯 개를 받게 된다. 사절이 왕의 선물을 전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린다.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 끔찍한 권고는 이해되어, 다리우스는 되도록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이러한 표시를 편지로 바꾸어 보라. 그 편지가 협박적일수록 오히려 덜 무서울 것이다. 다리우스가 웃기만 할 허세에 불과할 것이다.<sup>105\*</sup>

104\* 신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표시로서 고대 소아시아 Milet의 폭군 Thrasybule는 밀 이삭을, 로마 왕 Tarquin은 양귀비 폭지를 잘랐다 한다(헤로도토스의 《역사》 V, 92).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말조심을 시키려고 Ephestion의 입술에 도장을 찍었다(플루타르코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생애》, 71).

디오게네스는, 움직임의 사실을 부인하는 제논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제논 앞을 걸어갔다(Diogenes Laërtis의 《철학자들의 생애》 VI, 39).

105\* 헤로도토스의 《역사》 IV, 132에 의하면 스퀴티아 왕의 권고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새가 되어 하늘을 날지 않고서는, 생쥐가 되어 땅속에 숨지 않고서는, 개구리가 되어 늪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당신은 내게서 빠져 나가지 못해 이 화살들에 죽고 말 것이다.”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상징 언어에 얼마나 유의했던가! 나이나 신분에 따른 갖가지 옷들, 토가·짧은 군복 사요·귀족 청년의 흰 옷 프레텍스트·아이 목에 다는 금 구슬 불르·원로원 제복 라티클라브<sup>106\*</sup>·고관용 의자들·호위병·집정관 속간(束簡)·도끼·금관과 초관(草冠)과 엽(葉)관·개선 축하의 환호성·개선식, 그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장식이고 표상(表象)이고 의식이어서, 모두가 시민들 마음에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어디보다는 어디에 모이는 일, 카피톨룸 신전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일, 원로원 쪽으로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는 일, 어느 날보다는 어느 날에 협의를 하는 일 따위가, 국가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피고들은 옷을 바꿔 입었고, 입후보자들도 갈아입었으며, 전사들은 무훈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입은 상처를 보여 주었다. 카이사르의 죽음에서 나는, 민중을 감동시키고 싶은 오늘날의 웅변가 한 사람이 그의 상처며 피며 시체에 대한 비참한 묘사를 하려고 흔해빠진 말 재주를 온통 털어놓으리라 상상한다. 안토니우스는 웅변가인데도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시체를 날라 오게 한다. 얼마나 대단한 웅변인가! 그런데 이러한 여담은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어느새 나를 주제에서 자꾸만 빗나가게 하며, 나의 탈선들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되기에 너무나 잦다. 그러니 되돌아가겠다.

젊은이와는 절대로 딱딱하게 이치를 따지지 말라. 이치를 깨닫게 해 주고 싶거든 이치에 옷을 입히라. 정신의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 그것이 마음을 거쳐 들어가게 해 주라. 되풀이하지만, 냉정한 논법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행동은 아니다. 우리를 믿게는 해도 행동하게 하지는 않는다. 생각해야 할 바는 밝혀도 행해야 할 바는 밝히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어른들에게 사실이라면, 아직도 감각에 둘러싸여 있어 제가 상상하는 만큼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더구나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가 말한 바 있는 그 준비들을 마친 뒤에도, 느닷없이 에밀 방

볼테르(Voltaire)도 상징의 본보기로서 이 이야기를 그의 《풍습론(Essai sur les mœurs)》에 인용하고 있다.

106\*toge, saie, prétexte, bulle, laticlave 등의 역어(플루타르코스의 《로물루스의 생애》, 31 참조).

에 들어가 가르쳐 주고 싶은 문제에 대한 장광설을 어설피 늘어놓는 일은 굳이 삼가겠다. 그의 상상력을 끄드기는 데서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주고 싶은 인상에 가장 알맞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들을 선택하겠다. 말하자면 자연 전체를 우리의 대화의 증인으로 부르겠다. 자연을 만든 영원한 존재자를 내 이야기들의 진실성의 증인으로 세우고, 에밀과 나 사이의 심판자로 삼겠다.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 · 숲 · 산들을, 그의 약속들과 내 약속들의 기념비로 지정하겠다. 그에게 불어넣어 주고 싶은 열정과 열의를 내 눈과 말투와 몸짓 속에 담겠다. 그러면 나는 말하고 그는 귀 기울일 것이고, 나는 감동하고 그는 감동될 것이다. 내 의무들의 신성함을 명심함으로써 나는 그에게 그의 의무들을 더욱 존경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미지와 상징들로 추리력을 북돋우어 주겠다. 나는 생기 없는 격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며, 넘쳐나는 감정들로 충만해질 것이다. 내 이성은 엄격하고 점잖아지겠지만, 내 심정은 할 말을 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를 위해 내가 해 온 일을 다 그에게 보여 주면서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 한 것처럼 보여 주게 될 것은 바로 이때다. 내 온갖 정성의 이유를 그는 내 자상한 애정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말투를 갑자기 바꿈으로써 나는 얼마나 큰 놀람과 충동을 그에게 안겨 줄 것인가! 그의 이해 관계에 대한 말만 늘 해 줌으로써 그의 넋을 웅졸하게 만드는 대신, 나는 앞으로 나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만 그에게 말해 줄 것이고, 그래서 그를 더욱 감동시킬 것이다. 이미 내가 싹뜨게 해 주었고 또 북돋우어 주기가 그토록 기분 좋은 그 우정 · 너그러움 · 감사의 온갖 감정들로 그의 젊은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겠다. 나는 감동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를 내 가슴에 껴안겠다. 나는 말해 주겠다. 너는 내 재산이고, 내 아이이고, 내 작품이야. 내가 내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네 행복에서다. 네가 만일 내 기대를 저버린다면, 너는 내 생애의 20년을 내게서 훔쳐 나의 만년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다. 청년으로 하여금 귀담아 듣게 해, 그에게 해 준 말에 대한 기억을 그의 가슴 속에 새겨 두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여태까지 나는 한 교사가 어려운 경우에서 자기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실례들을 보이려고 했다. 이번 경우에도 나는 그러려고 해 봤다. 그런데 여러

번을 해 보고 나서 나는 그것을 단념하고 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맨 처음 교육의 소박함을 책 속에서 지탱해 나가기에는 프랑스어가 너무나 재치를 부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는 가장 깨끗한 말이라고들 말한다. 나로서는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언어의 순결은 너절한 말씨를 애써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런 것을 갖지 않는 데 있다고 여겨지니까. 사실 그런 것을 피하려면 그런 것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프랑스어만큼 모든 의미에 있어 순수하게 말하기 힘든 말도 없다. 저자가 용케 피하는 지저분한 의미를 언제나 더 용케 찾아 내는 독자가, 무엇에나 상을 찌푸리고 질겁한다. 더러운 귀를 거쳐 가는 것이 어떻게 때묻지 않겠는가? 좋은 풍습을 지닌 국민은 반대로 만사에 알맞은 용어를 갖고 있으며, 그 용어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쓰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다. 성서의 말보다 더 절도 있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가 거기서는 소박하게 말해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것을 절도 없게 만들려면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에밀에게 할 말은 그의 귀에 정직하고 깨끗한 것으로만 들릴 것이지만, 읽어서 그렇게 느끼려면 그의 마음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야기의 진짜 깨끗함과, 악덕의 가짜 섬세함에 대한 성찰은, 이 문제가 우리를 끌고 가는 도덕 이야기에서 유익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직한 말씨를 배우면서 그는 예의 바른 말씨도 배워야 하고, 또 이 두 가지 말씨가 왜 그렇게 다른지도 그는 알아야만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때가 오기 전에 젊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나 때가 오면 젊은이의 비웃음만 살 그런 헛된 교훈들을 주지 말고, 알아들을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기만 한다면, 그때에 가서 자연의 법칙들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고, 그 법칙의 위반이 위반자들에게 가져오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그 법칙의 제재를 보여 주라고, 또 알지 못할 그 생식의 신비를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의 창조자가 이 행위에 주는 매력의 관념에다, 그것을 감미롭게 만드는 독점적인 애착의 관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어 그 목적을 채워 줌으로써 그 매력을 갑절로 늘려 주는 정조와 수줍음의 관념을 결부시켜 주라고, 또 결혼을 비단 가장 기본 좋은 사قم으로서

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 중에서도 가장 범치 못할 신성한 것으로서 설명해 주면서, 그 거룩한 결합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그 순결함을 감히 더럽히는 자는 누구나 미움과 욕설을 뒤집어쓰게 하는 이유 모두를 강조해서 말해 주라고, 그리고 난봉과 난봉의 짐승 같은 미련스러움의 끔찍함과, 첫 탈선이 온갖 탈선으로 이끌어 마침내는 그것에 빠진 자를 파멸로 끌고 가는 눈에 띄지 않는 비탈의 끔찍함을, 생생하고 거짓 없이 그려 보여 주라고, 그리고 건강 · 힘 · 용기 · 미덕 · 사랑 자체와 인간의 진짜 재산 모두가 어떻게 순결 애호에 말미암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 준다면, 그때에는 바로 그 순결이 그에게는 바람직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순결을 간직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질 방법들에 그의 정신이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순결을 간직하고 있는 한은 순결을 존중하게 되며, 그것을 잃고 난 다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멀리하게 되지는 않는 법이니까.

악으로 쏠리는 버릇은 건잡을 수가 없어, 그 버릇에 넘어가는 습관이 생기기 전에도 그것을 이겨 내기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다. 아우렐리우스 빅토르<sup>107\*</sup>는, 사랑에 미친 남자 몇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 클레오파트라의 하룻밤을 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희생이 정열에 도취된 자에게는 불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더할 수 없이 들떠 있어 자기 관능을 억누를 도리가 없는 사나이가 15분 후에는 자기가 속절없이 걸려들어 고통 속에 죽게 될 처형대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그 순간부터 그 사나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은 물론, 유혹에 저항하는 데도 별로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유혹에 따르는 끔찍한 이미지가 그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고, 유혹도 노상 따돌림만 당하면 되돌아올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의지의 미지근함뿐이어서, 사람은 자기가 몹시 바라는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강하다. “강한 의지에는 어려운 것이 라곤 없다(Volenti nihil difficile).” 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만큼만 악덕을 미워한다면, 맛있는 음식에 든 무서운 독 못지않게 쉽사리 기분 좋은 죄악도 피하게 될 텐데!

107\* Aurélius Victor(4세기 로마의 역사가)의 《유명한 사람들에 관하여(De viris illustribus)》, 86.

이 점에 관해 청년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이 다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들에는 그 나이에 맞을 이치가 없기 때문이며, 또 어떤 나이에도 그 이치를 좋아하게 만드는 모습들로 그 이치에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찌서 알지 못하는가. 필요할 때는 점잖게 말해 주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언제나 귀담아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통명스럽게도 그의 욕망들과 싸우지 말라, 그의 상상력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괴물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이끌어 주라. 사랑이며 여자들이며 쾌락들에 대해 말해 주라. 그가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젊은 마음을 만족시키는 매력을 찾아보도록 해 주라. 그의 통사정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건 서슴지 말라, 이 때문에만 여러분은 정말로 그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그가 싫증을 낼까 봐 염려하질랑 말라, 그는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으로 많이 여러분에게 말을 시키게 될 테니까. 내가 만일 이러한 격률들에 비추어 필요한 온갖 조심을 할 줄 알아, 세월의 흐름이 나의 에밀을 도달케 한 상황에 알맞은 이야기들을 그에게 해 줄 수만 있었다면, 내가 그를 데려가고자 하는 지점에 그가 스스로 와, 자진해서 나의 보호에 몸을 내맡기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에 놀라 그 나이에 있는 열정을 다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나는 잠시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 나의 친구, 나의 보호자, 나의 스승이여! 당신이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할 때에 당신이 버리고자 하는 그 권위를 도로 가지세요. 여태까지는 저의 약함 때문에 그걸 가지셨지만, 이제저의 뜻에 의해 그걸 가지시게 되어, 제게는 더욱 신성한 것이 될 겁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특히 제가 속에 갖고 있어 저를 저버리는 적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세요. 당신의 작품이 계속 당신에게 마땅한 것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 그 작품을 보살피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법칙에 따르고 싶고, 언제까지나 그러기를 바라며, 이는 저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설사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 본의는 아닐 겁니다. 저를 저버리는 저의 정념들을 미리 막아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 정념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막아 주시고, 제가 저의 관능 아닌 저의 이성에 따름으로써 저 자신의 지배자가 되도록 강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제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하더라도 (하긴 그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지배가 그에게는 너무 심하게 여겨져, 여러분에게 갑자기 당하게 된 것을 비난하면서 그 지배를 벗어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할 염려도 있으니, 그의 말을 얼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성과 무게 있는 태도가 제 구실을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며,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의 존경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주라. 젊은이여, 너는 힘든 약속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 그런 약속들을 할 권리를 가지려면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 거야. 관능이 너 같은 사람들을 쾌락의 매력을 가장한 악덕의 심연으로 얼마나 사납게 끌고 들어가는가를 너는 알지 못해. 너는 비열한 낫을 갖고 있진 않고, 그건 나도 잘 알아. 네가 네 약속을 어길 리는 만무하겠지만, 아마 약속한 것을 뉘우치게 되는 일은 그 몇 번이겠는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위협하는 불행에서 너를 건져 내기 위해 너를 상심케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너는 몇 번이나 그를 저주할 것인가! 바다 요정들의 노래에 홀린 올리시즈가 밧줄을 풀어 달라고 수부들에게 외쳤듯이, 쾌락의 매력에 홀린 너는 너를 얹매는 굴레를 끊고 싶을 것이다. 너는 원망들로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내가 더없이 다정스레 너를 돌보게 될 때 나더러 압제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생각뿐인데도 나는 너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다. 오, 나의 예밀! 네게 미움을 받는 괴로움을 나는 결코 참지 못할 것이다. 너의 행복마저도 이런 값이라면 너무 비싸. 착한 젊은이여, 내게 순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너는 나더러, 너를 이끌어 주도록, 나를 잊고 너에게 헌신하도록, 너의 원망에도 불평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너의 욕망이나 내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도록 강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는 네 멍에보다 더 심한 멍에를 내게 씌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쓰기 전에 둘이 다 우리의 힘을 생각해 보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가장 천천히 약속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충실히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두라.

여러분 자신도, 자기가 약속에 까다로워질수록 그 이행이 더욱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 두라. 젊은이가, 자기도 중대한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은 더욱 중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때가 되어 그가 이른바 계약에 서명하고 나거든, 그때에는 말투를 바꾸라. 여러분이 예고한 만큼의 엄격 못지않은 다정함을 가지고 대해 주라. 이렇게 말해 주라. 젊은이여, 네게는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성이 부족하지 않도록은 내가 해 왔다. 이제 너는 내 행동의 동기들을 어디서나 알아볼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냉정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언제나 먼저 순종부터 해, 그리고 나서 내 명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해. 내가 내 말을 알아듣게만 되면 언제라도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고, 또 너를 너와 나 사이의 심판자로 삼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나는 너를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그 순종을 이용하기로 약속해. 내 약속의 보증으로는 여태까지 네가 즐겨 온 처지가 있어. 네 또래 나이에서 너만큼 즐거운 생활을 보낸 사람이 있나 찾아보라. 있다면 너한테 아무런 약속도 더 하진 않겠어.

내 권위가 서고 나서 내가 할 첫 주의를 그 권위를 씌먹을 필요를 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의 신임을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의 마음의 빗이 되고 그의 쾌락들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못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이에 쏠리게 마련인 버릇들과 싸우지 말고, 그것들을 지배하기 위해 그것들을 살펴보겠다. 그의 의도를 이끌어 주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겠고, 현재를 희생시켜 먼 행복을 찾아 주려 들지는 않겠다. 나는 그를 한 번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언제나 행복하도록 해 주고 싶다.

젊은이를 현명하게 이끌어, 관능의 함정에서 막아 주려는 자들은, 사랑에 겁을 먹도록 만들어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짐짓 하나의 죄악으로 몰게 될 것이다. 마치 사랑이 노인들을 위해 있더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마음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은 다 설득력이 없다. 보다 확실한 본능에 이끌리는 청년은 한심한 격률들에 동의하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어, 그것들을 헛되게 만들 기회만을 노린다. 이런 것은 다 자연에 어긋난다. 나는 반대되는 길을 감으로써 같은 목표에 보다 확실히 도달하겠다. 나는 그가 갈망하는 따뜻한 감정을 두둔해

주기를 겁내지 않겠으며, 그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서 그려 보여 주겠다. 사실 그렇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것을 그려 보여 주면서 나는 그가 그것에 열중하기를 바란다.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 관능의 유혹에 어떤 매력을 덧붙이는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방종을 싫어하게 만들겠고, 그를 사랑에 빠지게 함으로써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젊은이의 싹트는 욕망들 속에서 이성(理性)의 가르침들에 대한 장애물밖에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웅졸해야 하는가! 나로서는 그 속에서 젊은이를 같은 가르침들에 순종케 하는 진짜 방안을 본다. 정념들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념들을 다스릴 도리가 없다. 정념들의 횡포와 싸워야 하는 것은 정념들의 힘에 의해서고, 자연을 통제하기에 알맞은 연장들을 끌어내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자연 자체로부터다. 에밀은 언제까지나 혼자 있게 마련은 아니다. 사회의 일원인 그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마련인 그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개개인들을 아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알고 있다. 세상에서 어떻게들 살고 있는가를 보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가 이미 그 숨은 연기들은 다 알고 있는 이 거창한 무대의 겉모습을 그에게 보여 줄 때다. 이제 그는 되통스러운 젊은이의 어리석은 감탄 아닌, 곧고 올바른 정신의 통찰력을 그리로 돌릴 것이다. 그의 정념들이 영락없이 그를 속일 수는 있을 것이다. 정념에 열중하는 자들을 정념이 속이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러나 적어도 그는 남들의 정념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남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의 본보기에 끌리거나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현자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학문 연구에 알맞은 나이가 있듯이, 세상의 풍습을 제대로 익히기 위한 나이도 있다. 이 풍습을 너무 어려서 배우는 자는 평생을 선택도 반성도 없이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자기만족은 있을지 모르나 자기가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만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 그 까닭을 아는 자는 더한 분별을 가지고, 따라서 더욱 적절하고 멋있게 그것에 따르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12살 난 아이를 내게 맡겨 보라. 15살에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가르쳐 온 아이 못지않게 유식하게 만들어 돌려 줄

테니, 여러분 아이의 지식은 기억 속에밖엔 없지만 내 쪽 아이의 지식은 판단력 속에 있도록 차이가 나게 해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20살 난 청년을 세상에 내보내 보라. 제대로만 지도하면 1년 후에는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길러진 청년보다 더 상냥하고 더 분별 있게 예의 발라질 테니, 왜냐하면 기준이라고는 관례밖엔 갖고 있지 않은 후자가 관례만 벗어나면 당장 어리둥절하는 데 반해, 그 관습을 이루고 있는 나이나 신분이나 성(性)에 따른 모든 예의범절의 까닭을 깨달을 능력이 있는 전자는, 그것을 원칙으로 환원시켜 뜻하지 않은 경우들에도 그것을 넓혀 나갈 수가 있으니까.

프랑스의 처녀들은 다 시집갈 때까지 수녀원에서 길러진다. 그때 가서 그녀들이 그토록 새로운 예절을 익히느라고 진땀을 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또 파리 여자들이 태도가 서투르고 어색하다 해서, 어려서부터 사교계에 내보내지 않아 그 관습을 알지 못한다 해서 비난받는 일이 있는가? 이러한 편견은, 그 하찮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몰라 그 지식을 얻는 데는 이를수록 좋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교계 사람들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너무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기를 온통 상류 사교계에서 동떨어져서 보낸 자는 평생을 그런 데서는, 어색한 억지 태도와 노상 빗나가는 이야기, 미련하고 서투른 거동을 지니게 되어, 그런 데를 노상 드나들어도 고쳐지기는커녕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더욱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어떤 유의 교육에겐, 알아 두어야 할 알맞은 시기와 피해야 할 위험들이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교육에는 더구나 그것들이 몰려 있지만 나도 내 제자를 그것들에서 막아 줄 대비도 없이 그것들에 내맡겨 두지는 않는다.

내 방법이 한 가지 일로써 모든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한 가지 탈을 피함으로써 딴 탈을 미리 막게 된다면, 그때는 내 방법이 옳다고,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판단한다. 내 방법이 여기서 내게 암시하는 편법에서 내가 본다고 믿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만일 내 제자에게 엄격하고 냉혹해지기를 바란다면, 나는 그의 신임을 잃어 그는 곧 나를 피해 감추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너그럽고 만만해져 눈감아 주기를 바란다면, 내 보호를 받아 그가 이로울 것이 무엇인가? 그의 방종

을 허용해 주고, 내 양심을 희생시켜 그의 양심을 홀가분하게 해 줄 따름이다. 내가 만일 그를 가르쳐 줄 걱정만으로 세상에 내보낸다면, 그는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그를 끝까지 세상에서 떼어 둔다면, 그는 내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마 모든 것을, 그러나 인간에게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인, 동포들과 함께 살 줄 아는 기술만은 빼놓고, 내가 만일 그러한 배려의 보람을 너무 멀리 잡는다면, 그 보람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현재밖에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내가 만일 그에게 재미있는 것들만 대어 준다면, 그에게 잘 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물려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은 다 소용없다. 내 편법만이 다 마련해 준다. 네 마음은 짝을 아쉬워하고 있네, 라고 나는 젊은이에게 말해 준다. 네게 알맞은 짝을 찾으러 가자. 아마 쉽사리 찾아 내지는 못할 걸세. 진짜 가치란 언제나 드문 법이니. 그러나 서두르지도 말고, 기가 죽지도 말자. 영락없이 하나는 있어 끝내는 발견될 것이고, 아니면 그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도 발견될 거야. 이토록 그에게 솔직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그를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 무슨 말을 더 해야겠는가? 내가 다 해치웠다고 여러분은 보지 않는가?

내가 마련해 주는 애인의 모습을 그에게 그려 보여 줄 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그가 사랑해야 될 성품을 내가 기분 좋고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는지. 그의 온갖 감정더러 쫓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리게 해 줄 수 있을는지? 누구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가 지레 몸이 닳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에서도 제일 미련한 인간이 되고 만다. 내가 그에게 그려 보일 대상이 가공의 것이더라도 상관은 없어, 그를 피일지도 모를 것들에 싫증이 나게 해 주기만 하면 된다. 눈에 띄 실지 대상들보다 환상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는 비교들을 그가 도처에서 찾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또 진짜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알고 보면 환상이나 거짓말이나 착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머리에 그리는 이미지를 그 이미지와 맞는 대상보다도 훨씬 더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인다면, 지구상에 사랑이라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사랑하기를 그만두게 되면, 사랑받던 사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있지만 이미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력의 베일은 벗겨지고 사랑은 사라진다. 그 런데 가공의 대상을 대 줌으로써 나는 그 비교들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으며, 실제 대상들에서 오는 착각을 쉽사리 막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있을 수도 없는 완벽한 모델을 그려 보여 젊은이를 속인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 아니다. 나는 다만, 그의 애인의 결점들이 그에게 알맞아 그의 마음에 들도록, 그래서 그의 결점들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결점들을 택 하겠다. 그에게 그려 보이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거짓 긍정해서 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그는 곧 그 실물을 원 하게 될 것이다. 소원에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수월하다. 좀 더 뚜렷한 윤곽들로 좀 더 큰 진실감을 그 가공의 대상에 줄 그러한 얼마간의 익숙한 묘사만 해 주면 된다. 나는 그 여자에게 이름까지 붙여 주고 싶다. 나는 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네 장래 애인을 ‘소피’라고 부르자. ‘소피’는 상서로운 이름이다. 네가 그를 애인이 설 사 이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 이름에 알맞은 여자이기는 할 거야. 우리는 이 이름에 미리 경의를 표해도 좋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다 해 주고 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슬쩍 발뺌을 하면,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자기에게 정해 주는 신부를 자기에게는 숨기고 있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그녀를 만나게 되겠지 하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오면, 그리고 그에게 보여 주어야 할 특징들만 제대로 택해 둔다면, 나머지는 다 수월해서, 거의 위험 없이 그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 단지 그의 관능으로부터만 막아 주라. 그의 마음은 안전할 테니. 그런데, 그에게 사랑스럽도록 내가 만들어 준 그 모델을 그가 인격화시키건 안 시 키건, 그 모델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그에게 실지 대상이 있는 경우 못지않게 그로 하여금, 그것을 닮은 것 모두에는 애착을 느끼고 닮지 않은 것 모두에는 반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그의 몸이 내맡겨질 위험들로부터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상상력으로 그의 관능들을 억제하기 위해, 더구나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하면서도 젊은이에게서 성실성을 온통 앗아 가지 않고서는 예절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여자들로부터 그를 떼어 놓기 위해, 이것은 얼마나 큰

이득인가! 소피는 얼마나 얄전한가! 그런 여자들이 거는 수작을 그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소피는 얼마나 단순한가! 그런 여자들의 태도를 그가 어떻게 좋아하겠는가? 그의 관찰이 그에게 위험한 것이 되기에는 그의 생각과 그의 관찰 사이가 너무나 멀다.

아이들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지만 반성은 더구나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편견과 격률들을 따르고 있다. 젊은이의 실수가 시작되는 것은 성욕 때문도 관능 때문도 아니고, 바로 세론 때문이다. 학교에서 길러지는 소년들이나 수녀원에서 길러지는 소녀들을 여기서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역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는 밝혀 보이겠다. 왜냐하면 그 소년 소녀들이 배우는 첫 공부, 즉 열매 맺는 유일한 공부는 악덕의 공부이며,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 남의 본보기이니까. 그런데 학교나 수녀원의 기숙생들은 악습에 빠지게 두자, 영 고쳐 줄 도리가 없을 테니까. 나는 가정 교육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시골의 아버지 집에서 현명하게 길러진 한 젊은이를 염두에 두고, 그가 파리에 오거나 사교계에 들어가는 순간의 그를 살펴보자. 그가 어엿한 사물들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이성 못지않게 건전한 의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악덕에 대한 멸시와 방탕에 대한 혐오를 그에게서 찾아보게 될 것이다. 어느 창녀의 이름만 들어도 순진한 그의 눈이 찡그러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설사 그러한 불쌍한 여자들을 이용할 줄 알아 그 필요를 느낀다손 치더라도, 그녀들의 한심한 집에 혼자서 들어가기로 마음먹을 젊은이는 하나도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반년이 지나서 같은 젊은이를 다시 살펴보자. 이제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전의 자기의 단순함에 대한 농지거리나 그 단순함을 상기시켜 줄 때의 그의 수줍음이, 그가 같은 젊은이며 그래서 얼굴을 붉힌다는 점을 밝혀 주지만 않아도, 그 상스러운 이야기나 건방진 말투, 무람없는 태도가 그를 판사람으로 보게 할 것이다. 오, 잠시 동안에 그는 얼마나 자랐는가! 이토록 크고 갑작스런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체질의 발달에서? 아버지 집에서는 그의 체질이 같은 발전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이러한 어조도 말투도 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럼 관능

의 첫 쾌락들에서? 전혀 반대다. 그런 것에 빠지기 시작할 때는 겁을 먹고 불안해져, 밝은 대낮이나 소음을 피하는 법이다. 첫 향락들이란 언제나 은밀하다. 수줍음이 그것들에 양념을 치고 그것들을 숨겨 준다. 첫 여자는 뻔뻔스럽게 만들지 않고 소심하게 만든다. 그렇게도 새로운 상태에 홀딱 빠져든 젊은이는 그것을 맛보기에 여념이 없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상 떠난다. 그가 만일 떠들어 댄다면, 그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은 즐겁진 것이 아니다.

다른 사고방식들만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그의 마음은 여전하나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더욱 더디게 바뀌는 그의 감정도 마침내는 그의 생각 때문에 바뀌고 말 것이며, 그가 정말로 타락하게 될 것은 비로소 이때다.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는 거기서 먼저 교육과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되며, 그 덕분에 여태 존경하던 것은 경멸하고 경멸하던 것은 존경하도록 배운다. 부모나 선생들의 가르침은 유식한 체하는 횡설수설로, 그들이 타일러 준 의무들은 커서는 깔박야 하는 유치한 모럴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체면상 처신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욕망 없이도 여자를 낚아채고, 쑥스러워서도 거드름을 피우게 된다. 나쁜 행실에 맛을 들이기도 전에 좋은 행실을 비웃고, 난봉꾼이 될 줄도 모르면서 난봉을 자랑한다. 자기 친구들의 야단스러운 쾌락에 몹시 진저리가 나면 서도, 그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감히 손을 뭇지 못하던 어느 친위대 장교의 자백이 영 잊히지 않는다.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싫으면서도 담배 피는 연습을 하듯이, 나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란 습관에서 오겠지요. 언제까지나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사교계에 발을 들여 놓는 젊은이를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은 관능으로부터보다는 오히려 허영심으로부터다. 그는 자기 성향보다는 남의 성향에 더 잘 넘어가며, 자존심이 사랑보다는 더 많은 난봉꾼을 만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묻겠다, 자기 행실이나 감정이나 신념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내 제자보다 잘 무장되어 있는 젊은이가 온 지구 위에 하나라도 있느냐고? 여울물에 더 잘 버티어 나갈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왜냐하면 어떤 유혹에



대해 그는 막아 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설사 욕망이 그를 이성 쪽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는 자기가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일은 없어, 딴 데 팔려 있는 그의 마음이 그를 붙든다. 설사 관능이 그를 꼬드겨 채촉하더라도, 그것을 만족시켜 줄 것을 그는 어디서 찾아 낼 것인가? 간음과 난봉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거리의 여자들과 유부녀들로부터 똑같이 멀리해 주는데, 젊은이의 탈선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신분 중의 하나 때문이다. 혼기의 처녀는 아양을 떨 수는 있어도 뻔뻔스러워질 리는 없어, 자기를 얕전하다고 보면 장가울 수도 있는 청년의 목에 가서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녀에게는 어떤 감시자가 있을 것이다. 에밀 쪽도 완전히 혼자 내버려 두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둘에게는 적어도, 첫 욕망들과는 단적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파수꾼으로 있게 될 것이다. 둘이 단번에 아주 친해져 버릴 리도 없겠지만, 장애 없이는 천천히 친해질 시간도 없을 것이다. 달리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미 친구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한다. 자신의 조심성을 비웃고 그들을 본받아 뻔뻔스러워지는 법을 그들에게서 배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밀보다도 흥내를 덜 내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자신의 편견도 없지만 남들의 편견에도 전혀 아랑곳없는 자만کم이나 실없는 농조에 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겠는가? 빈정거리는 자들에 대해 그를 무장시키느라고 나는 20년을 애써 왔으니,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빈정거림이 그의 눈에는 바보들의 이치로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여론에 초연한 이상으로 놀림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으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농담이 아니라 이치며, 그가 그러는 동안은 젊은 미치광이들이 그를 내게서 앗아 갈까 봐 염려하지는 않는다. 내 편에는 양심과 진리가 있다. 거기에 편견이 섞여들지 않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20년 동안의 애착은 역시 무시 못한다. 내가 부질없는 수업으로 자기를 골탕먹여 왔다고 그에게 믿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충실하고 참된 친구 하나의 목소리는 곧고 민감한 마음속에서 20명의 유혹자의 아우성을 넉넉히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은 그를 속이고 있어 어른으로 대해 주는 체하면서 실은 아이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 그에게 밝혀 주면 되기 때문에, 나는 늘 단순한 체하면서도, 자기를 어른으

로 대해 주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 이치를 따질 때는 점잖고도 명쾌한 태도를 취하겠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겠다.

“너도 알다시피 네 이해 관계만이, 그건 내 이해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더러 이야기를 시키는 거고, 내겐 딱 이해 관계란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저 젊은이들은 왜 너를 설득하려고 들지? 그건 너를 유혹하고 싶어서지.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겐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 동기라고는, 네가 자기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느끼는 분한 생각뿐이야. 너를 자기들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싶은 거고, 자기네가 너를 지배하기 위해 딱 사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거다. 그렇게 바뀌어서 네게 이될 것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지혜가 그래 그토록 대단하며, 그들의 하루 동안의 애착이 내 애착보다도 강하던 말인가? 그들의 농지거리에 얼마간의 무게를 주려면 그들의 권위에도 얼마간의 무게를 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의 격률을 우리 격률 위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경험을 그들은 가졌는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딱 경박한 자들을 흉내 낸 것뿐이야. 이번에는 남이 자기네를 흉내 내기를 바라듯이 말이야. 저희 아버지들의 이른바 편견을 깔 보려다가 저희 친구들의 편견에 굴복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두 가지의 큰 이득, 즉 다정하고 진지한 충고를 주는 아버지의 애정이라는 이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 판단케 해 주는 경험이라는 이득을, 영락없이 잃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이였었지만 아이는 아버지였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어리석은 격률들만은 그래도 성실한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예미야. 그들은 너를 속이려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 자기 자신과도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제 마음이 노상 제 말을 듣지 않아, 제 입이 제게 대들기가 일쑤지. 그들 중의 더러는 성실한 것이라면 다 비웃지만, 자기 아내도 자기처럼 생각한다면 실망하고 말 거야. 또 더러는 품행에 대한 이와 같은 무관심을,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여자의 품행에 대해서까지, 심지어는 창피하게도 이미 아내가 된 여자의 품행에 대해서까지도 밀고 나가겠지. 그러나 더 밀고 나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에게 말해 봐. 그래서 그가 불의의 씨로, 행실 나쁜 여자의 아들

로 통하게 되어도, 어느 집안과 성씨를 가로채고, 그 유산을 법정 상속인으로부터 훔쳐낸 것으로 통해도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사생아 취급을 받고도 가만있을지를 살펴라. 자기가 남의 딸에게 뒤집어씌우는 수치를 자기 딸에게 누가 돌려 주는 것을 그들 중의 누가 바라겠는가? 네가 만일 그중의 누가 네게 주려고 드는 원칙들을 모조리 그에게 대해 실천에 옮긴다면, 네 목숨까지도 해치지 않을 자라곤 하 나도 없지. 이래서 결국 그 문은 자기네의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그들 중의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다. 에밀아, 이게 바로 이치라는 거다. 그들에게도 이치가 있다면, 그걸 잘 검토하고 비교해 봐. 내가 만일 그들처럼 멸시나 빈정거림을 써먹을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아마 나 못지 않게, 아니 나보다 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진지한 검토는 두려워하지 않아. 비웃는 자들의 승리는 오래 가지 않아. 진실은 남고, 그들의 철없는 웃음은 사라지고 말거든.”

20살 난 에밀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짐작 못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달리 생각하고 있는가! 나로서는 그가 10살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이의 그에 대해 나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 힘을 마련하기 위해 내게는 15년의 정성이 필요했다. 그때 나는 그를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는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 교육을 받았다. 그는 우정의 목소리를 알아보며 이치에 따를 줄도 안다. 그에게 자립의 허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지금만큼 내게 잘 묶여 있는 적도 일찍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바라서 묶여 있으니까. 그의 의지의 지배자가 되지 못한 동안 나는 그의 몸의 지배자로 있었다. 나는 한 발자국도 그의 결을 떠나지 않았었다. 지금은 늘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를 혼자 두기도 한다. 결을 떠날 때는 안이주면서 안심한 태도로 말해 준다. 에밀, 나는 너를 내 친구에게 부탁한다. 그의 성실한 마음에 너를 맡기는 거야. 너에 대해 내게 책임질 것은 바로 그야.

전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건전한 애정을 금가게 하는 것은, 또 이성의 첫 빛에서 바로 말미암은 원칙들을 지위 없애는 것은, 잠시 동안에 될 일은 아니다. 설사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다지 오래 없지는 않을 것이다. 화가 미치기 전에 위험을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것을 고쳐 줄 겨를이 내게 없을 만큼이나, 그가 나 몰래 용케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단번에 타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숨기는 법도 단번에 배우는 것은 아니며, 이 재주에 있어 서투른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태 그 재주를 써먹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예미이다.

그는 이러한 배려들과, 또 비슷한 판 배려들에 의해 외부의 대상들이나 속된 격률들로부터 충분히 잘 보호되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가 혼자 자기 방이나 공원에서 그 나이와 온갖 불안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파리의 가장 고약한 사교계 한 복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쁜 차라리 낫겠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 젊은이를 해칠 수 있는 온갖 적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할 뿐더러 피하지 못할 유일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도 이 적은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밖에는 위험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천 번이나 말했듯이, 관능이 눈뜨는 것은 상상력만에 의해서니까. 관능의 욕구는 엄밀히 말해서 육체의 욕구는 아니어서, 이것을 진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일찍이 잡스러운 대상이 우리 눈에 띄거나 창피스러운 관념이 우리 머리에 깃들인 적만 없었어도 아마, 이 욕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리는 없어. 우리는 유혹 없이, 노력이나 재간 없이도 순결을 유지했을 것이다. 가라앉히기도 쉽지 않지만 가라앉혀도 곧 되살아나는 그 첫 불안의 원인을 젊은이 자신이 밝혀 낼 줄을 알기라도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나 광경이 젊은이의 피에 어떤 발효를 일으키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나로서는 이 중대한 위기와 그 가깝거나 먼 원인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무인지경에서 책도 교육도 여자도 없이 자란 외톨토리는, 몇 살까지 살건 거기서 동정인 채 죽어 가리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미개인이 문제가 아니다. 한 인간을 제 동포들 사이에서 사회를 위해 교육할 때는, 그런 바람직한 무지 상태에서 그를 언제까지나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도 당찮은 일이며, 또 지혜에 가장 나쁜 것은 얼치기 식자가 되는 일이다. 우리 눈에 띈 대상들의 기억과 우리가 얻은 관념들은 은거처까지 우리

를 따라와, 우리와는 아랑곳없이 그 대상들 자체보다도 더 유혹적인 이미지들로 그곳을 가득 채워, 그 외딴곳을, 노상 거기서 혼자 죽치고 있는 자에게 유익한 만큼이나, 그 이미지들을 거기에 갖고 들어 온 자에게는 불길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 정성껏 청년을 지켜보라. 그는 나머지 모두로부터는 자신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켜 주는 것은 여러분 일이다. 낮이고 밤이고 그를 혼자 두질랑 말라. 적어도 그의 방에서 같이 자 주라. 본능만으로는 되지 않게 되거든 본능을 믿지 말라. 본능이란 저 혼자서 움직이는 동안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제도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곧 수상쩍은 것이 되고 만다. 본능은 없애 버려서는 안 되고, 규제해야만 하는데, 아마 이것이 없애 버리기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 본능이 여러분 제자에게, 자기 관능들을 속이는 법과 그것들을 만족시켜 줄 기회들을 벌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 그가 일단 이 위험한 벌충을 알게 되면 볼 장 다 본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의 몸과 마음이 늘 안절부절못할 것이다. 청년이 엽매일 수 있는 습관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이 습관의 한심한 결과들을 그는 무덤에까지도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분명 약과일 것이…… 만일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이 꺾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면, 사랑하는 예미아, 나는 너를 동정한다. 그러나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는 않겠고, 자연의 목적이 속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 네가 꼭 어느 폭군에게 사로잡혀야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너를 풀어 낼 수 있는 폭군에게 너를 넘겨주겠다. 어쨌든 너 자신으로부터보다는 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내기가 나는 더 쉬울 것이다.

20살 때까지 몸은 자란다. 몸은 제 자양분이 다 필요하다. 이때 금욕은 자연의 질서에 맞는 것이어서, 체질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이를 어길 도리가 없다. 20살서부터는 금욕은 하나의 도덕상의 의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들의 지배자로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금욕은 중요하다. 그런데 도덕적인 의무들에는 저마다 변화와 예외와 규칙들이 있다. 인간의 약함이 양자택일을 불가피하게 만들 때는, 두 가지 악 중에서 작은 쪽을 택하자. 어쨌든 악덕에 물들기보다는 실수를 저지르는 편이 오히려 나으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라는 점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괴도록 내버려 둔 그의 정념들에 여러분은 찢절매고 있겠지? 그의 승리를 얼버무리려 들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항복하라. 여러분이 그 승리를 있는 그대로 그에게 밝혀 보여 줄 줄만 안다면, 그는 그것을 뽐내기보다는 창피하게 여길 것이며, 하다못해 파멸의 구렁텅이는 면하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그가 해매는 동안 그를 이끌어 줄 권리는 쥐게 될 것이다. 설사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선생이 알고 있어 허락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제자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가 제자한테 속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이 저질러지는 것보다는,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틀리는 편이 백배나 낫다. 어떤 일에는 눈감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머지않아 모든 일에 눈감아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며, 묵인받은 첫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가져와, 이러한 연속은 모든 질서의 붕괴와 모든 법칙의 무시에까지 가지 않고서는 끝날 줄을 모른다.

내가 이미 비난한 바 있지만 소인들 머리에서는 영 떠날 줄을 모르는 또 하나의 잘못은, 스승의 위신을 노상 내세워, 제자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통하기를 바라는 일이다. 이 방법은 틀렸다. 자기네 권위를 굳히려다가 오히려 깨뜨리고 있다는 점을,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상대편 위치에 자신을 놓아 보아야 하며 인간의 마음에 호소할 줄 알게 되려면 자기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들은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이런 완벽한 사람들은 다 감명을 주지도 설득하지도 못한다. 자기네가 느끼지 않는 정념들을 비난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상대편은 언제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약점들을 고쳐 주고 싶거든 여러분의 약점들을 그에게 보여 주라. 제가 겪는 것과 똑같은 싸움들을 여러분에게서도 찾아보도록, 여러분을 본받아 자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판 사람들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주라. 이제 젊지가 않다는 것이 억울한 이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을 늙은이 취급을 하려 들며, 자기네 욕망이 모조리 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욕망을 죄악으로 보고 있다고.

몽테뉴는 어느 날 랑제의 영주에게, 독일과의 협상에서 국왕을 위해 몇 번이나 술에 취했었는지 물어 본 일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sup>108\*</sup> 나는 어느 젊은이의 가정

108\*몽테뉴는 이 외교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 랑제의 영주는 Guillaume du Bellay(1491~1543)이

교사더러, 자기 제자를 위해 몇 번이나 나쁜 곳에 들어가 보았느냐고 묻고 싶다. 몇 번? 내가 틀렸다. 만일 첫 번에 그 난봉꾼더러 거기에 다시 갈 욕망을 영 버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거기서 뉘우침과 창피한 마음을 품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슴에 눈물을 쏟아 놓게 되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를 버리라. 그가 괴물에 불과하거나 당신이 숙맥에 불과하거나이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러한 한심하고도 위험한 극단적인 수단은 문제삼지 말자.

태생이 좋은 젊은이를 지지분한 세속에 내맡기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조심을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조심은 힘들기는 하나 면치 못할 일이다. 젊은이를 다 망쳐 놓는 것이 바로 이 점에 대한 등한이다. 사람들이 나빠져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 가는 것은 바로 젊을 때의 허랑방탕 때문이다. 악덕 속에서조차 천하고 비겁한 그들은, 혈어 빠진 몸이 일찍부터 상했기 때문에 웅졸한 마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다. 제가 움직이기 위한 만큼의 목숨도 남아 있을지 말지다. 그들의 약삭빠른 생각은 바탕 없는 정신을 드러내어 보인다. 위대하거나 고상한 것은 아무것도 느낄 줄 모른다. 솔직함도 생기도 없다. 만사에 비열하고 천해 빠진 악인인 그들은, 허황되고 교활하고 뱃속이 검은, 이름난 악당이 될 만한 용기조차도 없다. 젊은 날의 방탕이 빚어 내는 멸시받을 인간들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절제하고 삼갈 줄을 알아, 그런 인간들 한복판에서도 자기 마음과 피와 행실이 거기 물들지 않도록 지킬 줄 아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30살 때에는 그러한 벌레들을 모조리 짓밟게 될 것이고, 자신의 지배자로 있으려고 쏟아 온 고생보다는 덜한 고생으로도 그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태생이나 재산이 에밀을 위해 해 준 일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바라기만 한다면 그는 이런 인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인간들을 너무나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킬 엄두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젠 그들 한복판에 끼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를 바라보자. 거기서 으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알맞은 짝을 거기서 찾아 내기 위해 나아가는 그를 말이다.

다<에세> I, 26).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건, 어떤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하건, 그의 데뷔는 화려하지 않고 수수할 것이다. 그가 거기서 빛날 만큼 불행해지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첫눈에 띄는 그런 장점들이 그의 장점들은 아니며, 그런 것들은 그가 지니고 있지도 않거니와 지니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사람들의 판단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도 중요시하지 않으며, 자기를 알기도 전에 남에게 평가받을 생각도 없다. 남 앞에 나타나는 태도는 신중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아 자연스럽고 솔직하다. 거북해 할 줄도 꾸며 보일 줄도 몰라, 어떤 모임 한복판에 있거나 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버릇없고 건방져 아무한테도 조심이 없겠는가? 전혀 반대다. 혼자 있을 때 탄 사람들에 아랑곳없다 해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도 아랑곳없겠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자기보다 낮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태도에 있어서도 그들을 자기보다 낮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가질 리가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 주지도 않는다. 예절은 몰라도 인정은 있다. 그는 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보라는 듯이 남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 주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있어 그 때문에 상심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호의로라도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젊은이에게는, 남이 마지못해 서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마음이 내켜 서 있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테니까.

에밀이 대체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동정은 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지로 좋은 것들에 대한 취미를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그는,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그 억측에 의해 좋은 것들을 갖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것은 괜히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빼앗다가 그들을 전보다 더 불행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다. 그래서 그는 논쟁도 반박도 좋아하지 않는다. 추종도 아첨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유를 사랑하고 또 솔직함이 자유의 가장 훌륭한 권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과도 싸우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한다. 남이 자기를 상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통 없기 때문에, 그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그는 소용 있는 말밖에는 하지 않는데, 소용없이는 무엇이 그에게 말을 시키겠는가? 수다쟁이가 되기에는 에밀은 너무나 많이 배웠다. 심한 수다는



반드시, 내가 나중에 말하려는 그 재치를 부리려는 생각에서 오거나, 아니면 어리석게도 남들도 우리만큼 중요시한다고들 생각하는 그 시시한 것들에 가치를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만사에 제 진짜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큼 사리를 알고 있는 자는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것은 남이 자기에게 쏟는 주의와 자기 이야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도 재어 볼 줄 알기 때문이다. 대체로 적게 아는 사람들은 많이 말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적게 말한다. 무식쟁이가 자기 아는 것은 다 중요하다고 여겨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 목록을 쉽사리 열어 보이지 않는다.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자기가 말한 뒤에도 할 말은 더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문다.

에밀은 남들의 방식에 대들기는커녕 기꺼이 그것에 순응해 나가는데, 이는 관습을 잘 아는 체하거나 예의 바른 사람의 태도를 꾸며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대로 남이 자기를 분간할까 봐 염려되어서고, 눈에 띄기를 피하기 위해서며, 남이 자기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만큼 그가 마음 편할 때는 없다.

비록 세상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그 격식들을 전혀 모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심하거나 떠는 것은 아니다. 설사 숨더라도 그것은 난처해서가 아니라, 잘 보려면 제가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자기에 대한 생각에 불안해지는 일은 없어,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조용하고 태연한 그는 스스로워서 당황하는 법이 없다. 남이 보건 안 보건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들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 언제나 열중하며, 여론의 노예들은 가질 수도 없는 편한 마음으로 세상 범절을 알아본다. 바로 그러한 범절을 그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일찍 배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침착성에 대해 잘못 생각하질랑 말라. 그것을 여러분의 상냥한 젊은이들의 그것과 비교하려 들질랑 말라. 그는 군세지만 거만하지는 않다. 그의 태도는 자유롭지만 거드름부리지는 않는다. 불손한 태도는 노예들에게만 딸린 것이고, 자립정신에는 같잖은 데가 전혀 없다. 마음에 긍지를 가진 사람이 그것

을 태도에 나타내어 보이는 것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한 걸치레는 그렇게 해서밖에는 위엄을 부릴 수 없는 천하고 헛된 마음의 사람들에게나 훨씬 더 알맞다. 어느 책<sup>109\*</sup>에서 읽었지만, 어느 날 한 외국인이 그 유명한 마르셀<sup>110\*</sup>의 교실에 나타나자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마르셀이 물었다 한다. “나는 영국인이오” 하고 외국인이 대답한다. “당신이 영국인?” 무용가가 대꾸한다. “당신이 그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해 주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섬나라 사람이라고요.”<sup>111</sup> 천만의 말씀, 그 숙여진 이마며 겁먹은 시선,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봐서는 독일의 어느 선거후(候)의 종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데요.”

이러한 판단이 한 인간의 성격과 그 외모 사이에 있는 진짜 관계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보여 주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춤 선생이 될 명예를 갖지 못한 나로서는 전혀 반대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영국인은 궁중인이 아니다. 궁정인들이 이마를 숙이거나 걸음걸이가 뒤뚱거린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다. 무용가 앞에서 겁먹은 사람도 하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마르셀 씨는 분명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로마인으로 여길 것이 틀림없다! 남을 사랑할 때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에밀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더구나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그의 나이며 품행이며 의도 모두가 힘을 모아 그의 이 욕망을 복돋우어 준다. 내가 품행을 든 것은, 그것이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들은 진짜 여자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여자의 환심을 사려는 빈정거림조의 야릇한 말투를 갖고 있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다 참되고 다정한 짹짹함을 지니고 있

109\*엘베시우스의 《정신론》Ⅱ, 1.

110\* Marcel은 본서 제2부에도 나온 춤 선생.

111 마치 도시 국가의 성원이 아닌 시민들이, 성원으로서 주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은 일찍이 갈리아의 도시들의 성원에게 주어졌던 이 시민이라는 존경할 만한 이름을 가로채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 관념을 무엇인지 통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뒤뚱어놓았다. 《신엘로이즈》가 못마땅해 최근에 시시한 소리를 잔뜩 내게 써 보낸 어떤 사람은, 자기 사인을 펴보프<sup>112\*</sup> 시민이라는 타이틀로 장식하고는 근사한 농을 내게 건 것으로 생각했었다.

112\* Paimboeuf, 프랑스의 도시.

다. 나는 처녀 곁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한 남자를 10만 명의 난봉꾼 사이에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갓 생겨난 성욕과 그것에 저항하기에 넉넉한 이성을 가진 에밀이 과연 어떻게 보일는지를 판단해 보라! 여자들 곁에 있자니 그도 때로는 소심해져 어리둥절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당황은 분명 여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고, 바람기가 가장 없는 여자들도 그것이 재미 있어 더욱 당황케 만드는 재주를 부리기가 일쑤일 것이다. 게다가 그의 씩씩함은 형편에 따라 그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유부녀들에게는 더욱 공손해지고, 혼기의 처녀들에게는 더욱 발랄하고 다정해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않으며, 그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 추구를 생각나게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다.

자연 질서에 따른 온갖 경의 표시에 있어, 또 사회의 바른 질서에 따른 모든 경의 표시에 있어서도, 아무도 에밀 이상으로 빈틈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후자 보다는 전자가 언제나 더 바람직한 것이 되겠기에 그는, 자기 또래의 고관보다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개인을 더 존경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 그가 끼일 모임에서 제일 어린 축에 들어갈 그는, 겸손해 보이려는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이성에 따른 자연 감정 때문에, 언제나 가장 겸손한 사람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같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현자들보다도 큰 소리로 지껄이고 연장자들 말을 가로채는 그런 태깅스러운 청년의 버릇없는 처세술은 갖지 않을 것이다. 당신 시대와 지금 시대는 어느 쪽이 나으냐고 묻는 루이 14세에게 한 어느 늙은 귀족의 다음과 같은 대답을 그로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폐하, 저는 젊어서 노인들을 위해 왔습니다만 늙어서는 아이들을 위해 나가야겠습니다.”

부드럽고 민감한 났은 지녔어도 여론의 시세에 따라 평가하지는 않는 그는 남들의 환심을 사기는 좋아해도 그들에게 존경받을 생각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그는 예의 바르기보다는 다정할 것이고, 꾸며 대거나 떠벌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천 가지 칭찬보다는 인정스런 한 마디 말에 더 감동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태나 태도에도 소홀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쩌면 또 멋쟁이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모를 더욱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몸치장에 신경을 쓸지도 모른다. 금테 그림

들의 힘을 비는 일이 없어, 돈 자랑 표적이 그의 몸단장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보다시피 이 모두는 나더러 교훈을 늘어놓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은 첫 교육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교의 범절을 극비에 붙이려고 든다. 마치 그 범절을 배울 나이가 되어도 저절로 배워지는 것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또 그 으뜸가는 법칙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속에서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진짜 예의범절이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는 데 있다. 그것은, 지니고만 있으면 쉽사리 드러난다. 그것의 걸치레들을 기교로 바꿔 쥐어만 하는 것은 그것을 지니지 않은 자를 위해서다.

“예의범절의 가장 고약한 결과란, 그것이 본뜨는 미덕들 없이도 배기는 재주를 가르쳐 주는 일이다. 교육에서 인정과 친절을 불어넣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예의범절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설사 멋으로 나타나 보이는 예의범절은 갖지 않더라도, 성실한 인간이고 시민임을 나타내는 예의범절은 갖게 될 것이다. 거짓의 힘을 빌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의 환심을 사려고 피꾸리지 말고, 친절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남들의 약점을 봐 주려고 꾸며 대지 말고, 너그럽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해 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지도 타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고맙게만 여겨, 그 때문에 더욱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sup>113</sup>

여기서 뒤클로 씨가 요구하는 유의 예의범절을 낳는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그 플랜을 짜 보인 교육 바로 그것일 것 같다.

그토록 판이한 격률들을 가진 에밀이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나도 시인하며, 또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다 해서 그가 성가시거나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차이는 뚜렷해도 눈에 거슬리지는 않을 것이다. 에밀은 말하자면 상냥한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그도 어른이 되어 가겠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별난 점을 봐 넘겨줄 것이다. 나중에는 그의 거동에 완전히 익숙해질 것이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113 뒤클로 씨의 《금세기의 풍습에 관한 고찰》 p. 65.

보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봐 넘겨 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된 인간이다.’

그는 상냥한 사람으로서 환영받지는 않겠지만, 까닭 모르게 사랑받게는 될 것이다. 아무도 그의 재치를 칭찬하지는 않겠지만, 기꺼이 재사들 간의 심판자로는 삼을 것이다. 그의 재치는 뚜렷하나 한도가 있을 것이고, 올바른 감각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질 것이다. 신기한 관념들을 결코 좇지 않는 그는 재치를 뽐낼 줄 모를 것이다. 유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쓸모 있는 관념들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유일한 진짜 굴레가 되고 있으며,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일이라고는 인류에 해롭고 불길한 관념들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깨닫게 해 왔다. 이런 식으로 칭찬받는 방법이 그의 마음을 끌 리는 없다. 자기 생활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어떤 점에서 남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다. 그의 지식의 테두리는 유익한 것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의 길은 좁으나 아주 뚜렷하다.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통 없는 그는 그 길을 가는 자들 속에 뒤섞여 있으며, 길을 헤맬 생각도 남의 눈에 떨 생각도 없다. 예밀은 양식의 인간이며 다른 것이 될 생각은 없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그를 욕하려 들어 봤자 헛일, 그는 그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삼을 것이다.

남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이 이제는 비록 그를 남의 의견에 전혀 무관심하게 두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한 의견 중에서, 유행과 편견만을 법칙으로 삼는 터무니없는 평가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직접 자신에게 관련되는 의견밖에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해 보겠다는, 남보다 더 잘 해 보겠다는 자존심을 가질 것이다. 달리기에서는 가장 날쌔기를, 씨름에서는 가장 세기를, 일에서는 가장 익숙하기를, 재주놀이에서는 가장 능란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남보다 더 재치가 있다든가, 더 잘 지껄인다든가 더 유식하다든가 하는 따위의 이점들은 별로 얻으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태생이 더 낫다든가, 더 부자이고 더 신용 있고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든가, 대단한 호사로 남을 위압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이점들은 덜 추구할 것이다.

자기 동포이기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는 자신을 착하다고 깨닫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닳은 자들은 더구나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 도덕적인 일들, 착한 성격에서 말미암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취미의 일치에 의해 그 닳은 점을 알아보는 그는, 남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척 기쁠 것이다. 그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잘 한 일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존경받게 된다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들이 이와 같이 건전하게 판단하는 한, 그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전에는 역사에서 사람들을 그 정념에 의해 연구했듯이, 지금은 사교계에서 사람들을 그 풍습에 의해 연구하는 그는, 사람 마음에 들거나 거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흔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취미의 원리들에 관해 철학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시기를 통해 그에게 알맞은 연구이다.

취미의 정의(定義)는 멀리 찾아가면 갈수록 더 길을 헤매게 되는 법이다. 취미란 가장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취미가 무엇인지를 영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안목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대다수가 하나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판단하지만, 만사에 대해 대다수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으니까. 또 가장 보편적인 취미들이 합쳐져 고상한 취미를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안목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으니까. 가장 흔한 선(線)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은 얼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쓸모가 있으니 좋아한다든가, 해로우니 싫어한다든가 하는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취미는 이해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재미 정도가 고작인 그런 사물들에밖에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는 사물들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후자를 판단하는 데는 취미는 없어도 되고 욕망만으로 족하다. 취미의 순수한 결단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그토록 엉뚱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취미를 결정하는 본능 말고는 그 결단의 이유가 따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또한 도덕적인 것들에 있어서의 취미의 법칙

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의 취미의 법칙들도 구별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는 취미의 원칙들이 전혀 설명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방에서 말미암는 것 모두에는 도덕적인 것이 끼어든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14</sup> 그래야만,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면서도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아름다움이 설명되는 것이다. 만사에 있어 취미를 풍토나 풍습·정체(政體)·문물 제도에 좌우되게 만드는 국지적인 규칙들이 취미에는 있다는 점을 나는 덧붙여 두겠다. 나이·성별·성격에 말미암는 만 규칙들도 있으며, 취미를 두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뜻에서라는 점을 말이다.

취미란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 있어 같은 수준으로 발달하지도 않아, 모든 사람에 있어 갖가지 원인에 따라 변하기 쉬운 것이다. 가질 수 있는 취미의 정도는 자기가 받은 감수성에 달렸다. 그 연마와 그 형태는 자기가 살아온 사회들에 달렸다. 첫째로, 많이 비교해 보기 위해 많은 사회에서 살아 보아야 한다. 둘째로 놀이와 무위의 사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의 사회에서는 기준이 기쁨이 아니고 이해 관계이니까. 셋째로는, 불평등이 너무 심하지 않고 여론의 횡포가 대단치 않아, 허영심보다는 쾌락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에는 유행이 취미를 억눌러,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눈에 띄게 해 주는 것을 구하게 되고 만니까.

이렇게 되면 고상한 취미가 대다수의 취미라는 말은 이미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럴까?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 대다수에게는 이미 자신의 판단이라고는 없어진다.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되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서밖에는 판단하지 않게 되고 만다. 좋은 것보다는, 그들이 좋다고 인정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 언제나 저마다가 자신의 생각을 갖도록 해 주라, 그러면 그것 자체로서 가장 기분 좋은 것이 언제나 대다수의 찬동을 얻게 될 것이다.

114 이러한 사실은, 내 저작집에 나오게 될, <멜로디의 원리><sup>115\*</sup>에 관한 논문에서 증명되어 있다.

115\* le principe de la mélodie, G에서와 C의 수정에서는 “말들의 근원(l'origine des langues)”으로 되어 있다.

일에 있어 사람들은 모방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취미의 진짜 본보기는 다 자연 속에 있다. 이 스승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그림은 더 뒤떨어진다. 우리가 자신의 본보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들로부터 끌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이어서, 기분이나 권위에 좌우되는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이란 이미, 우리를 이끄는 자들 마음애나 들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란 예술가와 귀족과 부자들이고, 그들 자신을 이끄는 것은 그들의 이해 관계나 허영심이다. 부자들은 자기네 재산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소비의 새로운 방법들을 앞을 다투어 가며 찾는다. 그래서 대단한 사치가 판을 치게 되어 얻기 힘들고 값나가는 것을 좋아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기는커녕 자꾸 거역해야만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된다. 사치와 악취미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취미가 비싸게 먹는 경우 그 취미는 언제나 가짜인 것이다.

고상하건 천하건 취미가 제대로 틀이 잡히는 것은 특히 남녀 교제에 있어서다. 취미의 연마는 이러한 사귀의 목적의 필연적인 결과다. 그런데 즐거기가 손쉬워 한심을 사려는 욕망이 식으면, 취미는 변질되고 마는데, 이것이야말로 고상한 취미가 왜 좋은 풍습에서 말미암는가의 가장 뚜렷한 또 하나의 이유로 여겨진다.

감각의 판단과 관련되는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취미를, 이해력에 더 달려 있는 정신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취미를 살펴보자. 여자들이란 그래서 마땅한 여자로 있는 동안은, 주제넘은 짓은 하지 않아 늘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심판자로 자처하고 나서면서부터는, 책을 비판하거나 애써 책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다. 자기 저술에 대해 여성 학자들의 의견을 묻는 저술가들은 언제나 제대로 충고받지 못할 것이 뻔하고, 자기 몸치장에 대해 그녀들의 의견을 묻는 색꾼들은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이다. 여성의 진짜 재능과 그것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의 결정에 정작 귀 기울여야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곧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에밀이 처해 있는 형편에서는, 또 그가 몰두하고 있는 탐구에 있어서는, 도저히 무



관심할 수가 없는 하나의 문제에 관해 그와 함께 따져 보다가, 내가 원칙으로서 내놓으려는 기본적인 고찰들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기가 누구인들 이 문제에 무관심할 수야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기본 좋거나 기본 좋지 않을 만한 것을 안다는 것은, 비단 그들의 도움이 아쉬운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도 또한 필요하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글 쓰는 재주도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데 사용되기만 한다면 결코 쓸데없는 공부는 아니다.

내 제자의 취미를 연마해 주기 위해 내가 만일, 그러한 연마가 이제부터 시작될 나라들과 이미 시들어 버렸을 나라들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면, 나는 차례를 거꾸로 잡아, 나중 나라들부터 돌기 시작해서 먼저 나라들에서 끝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택하는 이유는, 대중은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들에도 민감하게 만드는 지나친 섬세 때문에 취미는 퇴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섬세는 말다툼을 좋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대상들은 꼬치꼬치 캐면 켈수록 더 불어나니까. 꼬치꼬치 캐면 촉각은 더욱 섬세해지고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각인각색의 취미가 생겨난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논쟁들 속에서 철학과 지식은 벌어 나가고, 이리하여 생각하는 법은 배워진다. 세밀한 관찰은 딴 모든 관찰 뒤에 오는 것인 만큼, 많은 교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강대강 보는 데서 주의력이 바닥이 나고 말기 때문에, 세밀한 관찰은 교제 넓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해낼 도리가 없다. 지구상의 개화된 곳치고 일반 취미가 파리보다 더 고약한 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상한 취미가 가꾸어지는 것은 바로 이 수도에서이고, 유럽에서 평가받는 책들치고 그 저자가 파리에서 자라지 않은 것은 얼마 없는 것 같다. 이 붓에서 만들어지는 책들만 읽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틀렸다. 책에서보다는 그 저자의 말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워지는 것이며, 또 가장 많이 배워지는 것이 저자들한테서도 아니다. 생각하는 머리를 발전시켜 시야를 되도록 멀리 넓혀 주는 것은 바로 사교 정신이다. 당신에게 번득이는 재기가 있다면 파리에 가서 일 년만 지내보라. 곧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말든지 할 테니까. 고약한 취미가 판치는 곳에서 생각하는 법은 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고약한 취

미를 가진 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그들과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로 매우 힘들다. 판단하는 연장을 그들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그들에게 힘입어 그것을 완성시켜야 한다. 나는 에밀의 판단력을 망가지도록까지 닦아 주지는 않도록 조심하겠으며, 그의 촉각이 사람들의 갖가지 취미를 깨달아 비교할 만큼 예민해지면 그를 보다 단순한 대상으로 되끌고 와 거기다가 그의 취미를 고정시켜 주겠다.

나는 또한 그에게 순수하고 건전한 취미를 간직하게 해 주기 위해 더 일찍부터 손을 쓰겠다. 어수선했던 법석 속에서도 나는 그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드는 대상으로 그를 늘 이끌어 주면서 그것들이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되도록 유의하겠다. 이제야말로 독서의 시기, 재미있는 책들의 시기다. 그에게 이야기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 줄 시기며, 웅변이나 말투의 온갖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해 줄 시기다. 여러 나라 말들을 배우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는 하찮은 일이어서, 그 효용은 생각하기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연구는 일반 문법의 연구로 이끌어 준다. 프랑스 말을 알려면 라틴 말을 배워야 한다. 말하는 기술의 규칙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다 연구 비교해야 한다.

뿐더러, 고대인들의 글에서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로 통하는 그러한 소박한 취미라는 것도 있다. 그는 역사에서처럼 그 글들이 알맹이가 푸짐하고 판단에 신중하다는 것을 웅변에서, 시에서, 온갖 유의 문학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저술가들은 반대로 말은 많으나 알맹이는 별로 없다. 노상 자기네 판단을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북돋우는 방법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취미의 차이는 모든 유적에서, 심지어는 묘비에서도 느껴진다. 우리네 것은 찬사로 뒤덮여 있다. 고대인들 것에서는 사실이 읽힌다.

*Sta viator, Heroem calcas,*

*(길손이여 발을 멈추라, 한 영웅을 밟게 되니.)*<sup>116\*</sup>

116\* 30년 전쟁 때 독일군에 가담해 싸우다가 프랑스의 콩데(Condé) 장군에게 패해 노르들링겐(Nördlingen)에서 전사한(1645) 프랑수아 드 메르시(François de Mercy) 장군의 묘비명.

설사 이 비문을 고대의 유적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그것을 요즘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서는 영웅들만큼 흔해빠진 것이 없지만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드물었었으니까. 그들은 한 인간이 영웅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 한 일을 말했을 것이다. 위의 영웅의 비문에 여자 같은 사르다나팔로스의 그것을 비교해 보라.

*나는 타르소스와 안키알레스를 하루에 건설하고,  
지금은 죽어 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과장된 비명 문체는 난쟁이들을 혼내 주기에 알맞을 따름이다. 고대인들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 그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 명의 후퇴에서 계략에 빠져 죽은 몇몇 전사들을 추도하는 크세노폰은, “전쟁에서도 우정에서도 나무랄 데 없이 그들은 죽었노라”<sup>117\*</sup>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다다. 그러나 이 짧고 꾸밈없는 찬사에서, 작자의 가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테르모필레의 대리석 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

*길손이여, 스파르타에 가서 말하라, 그 거룩한 국법에  
따르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죽었노라고.*<sup>118\*</sup>

이 글은 지은 것이 비문 아카데미가 아닌 것만은 뻔하다. 말을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는 내 제자가 만일 이러한 차이에 그의 첫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또 이 차이가 그의 독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가 틀린

117\*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Anabasis)》 H, 6.

118\* 헤로도토스의 《역사》 VII, 228.

것이다. 데모스테네스의 능률한 웅변에 끌린 그는 말하겠지. 이건 웅변가라고. 그런데 키케로를 읽고는 말할 것이다. 이진 변호사라고.

먼저 난 고대인들이 자연에 가장 가까우며, 그들의 천재는 그들에게 보다 알맞은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에밀은 대체로 우리네 책보다는 고대인들 책에 더 맞들이게 될 것이다. 한쪽에서 딴 것은 모조리 딴 쪽에서 잃게 마련일뿐더러 모든 사람의 머리는 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남들이 생각한 바를 아는 데 쓰이는 시간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잃게 되어 얻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정신력은 더욱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라 모트나 아베 장 테라송 신부<sup>119\*</sup>야 무슨 말을 했건, 인류에 이성의 진정한 진보란 없다. 지금의 우리들 머리는 팔과도 같아서, 모든 일을 연장으로 해치우는 버릇이 들어 제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폰트넬<sup>120\*</sup>은, 고대인과 현대인에 관한 저 논쟁은 결국 옛날 나무들이 지금 나무들보다 컸었는지의 여부를 아는 데 귀착된다고 말했다. 농사짓는 법이 바뀌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해서 엉뚱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렇게 그를 순수한 문학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 다음에 나는, 요즘 편집자들의 수채에 고인 문학의 구정물인, 신문·번역·사전들 따위도 보여 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는 팽개치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를 즐겁게 해 주려고 나는 여러 아카데미의 객설을 들려준다. 아카데미들을 구성하는 자들은 다 단체로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언제나 낫다는 점을 눈치채게 해 준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 이 온갖 근사한 기관들의 효용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게 될 것이다.

풍습이 아니라 취미를 연구하기 위해 나는 그를 극장에 데리고 간다. 취미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에게 유난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거기니까. 설교나 교훈은 아랑곳 말라고 그에게 말하겠다.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고 말이다. 연극이란 진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 주려고 만들

119\* Antoine Houdar de La Motte(1672~1731), l'abbé Jean Terrasson(1670~1750) 은, 17세기 말엽의 신구논쟁(新舊論爭)에서 현대를 두둔했다.

120\*Fontenelle도 위의 두 사람과 같은 현대파.

어진 것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 마음을 끄는 기술이 이만큼 잘 배워지는 학교라곤 없다. 연극 연구는 시의 연구로 통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똑같다. 시에 대한 취미의 변덕임이 그에게 있어 준다면, 시인들의 말인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이나 이탈리아 말을 그는 얼마나 기꺼이 배울 것인가! 이러한 공부가 그에게는 거리낌 없는 재미가 되어, 더욱더 유익하기만 할 것이다. 마음이 저를 감동시키기 위해 있는 온갖 아름다움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나이와 처지에 있는 그에게, 이 공부는 사뭇 감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의 에필을, 또 한편으로는 《아에네이스》의 제4권이나 티볼루스나<sup>121\*</sup> 플라톤의 《향연》을 읽는 농팡이 학생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판이한가! 한쪽 마음은 건드리지도 않는 것에 또 한쪽 마음은 얼마나 감동되는가. 오, 착한 젊은이여! 그만두라, 자네 독서를 중단하라, 너는 너무 감동된 것 같다. 나는 사랑의 말이 너를 기쁘게 해 주기는 바라지만, 네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라. 네가 만일 둘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가 죽은 언어나 문학이나 시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설사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가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리도 없으며, 그의 교육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온갖 익살들은 아니다.

온갖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도록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노리는 주된 목적은, 그의 애정과 취미를 거기에다 붙들어 매어, 그의 타고난 욕구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자기 바로 곁에서 찾아야 할 행복해지는 방법을 나중에 자신의 부(富)에서 찾는 일 없도록 미리 막아 주는 일이다. 취미란 잔다란 일들에 있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말을 나는 딴 데서 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생활의 즐거움은 바로 이런 잔다란 일들의 짜임새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들은 아무래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놓인 좋은 일들이 우리를 위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진실성에 있어서, 그 좋은 일들로 생활을 채워 나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려들에 의해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녀의 좋은 경향에서 말미암는 도덕상

121\* Tibulle는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시대의 로마의 연애 시인.

의 좋은 일들이 아니라, 단지 관능이나 실지 향락에 속하는 좋은 일들이다. 편견이나 여론은 빼놓고 말이다.

내 생각을 더욱 잘 부연하기 위해, 그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는 없는 예일은 잠시 버려 두고, 보다 뚜렷해 독자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하나의 예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본성을 바꾸어 사람들을 보다 낮거나 못하게 뜯어고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태들이 있다. 겁쟁이도 나바르 연대에 들어가면 용감해진다. 단체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비단 군대에서만은 아니고, 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도 늘 좋게만은 아니다. 가령 내가 불행히도 오늘 어느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내일이면 영락없이 압제자나 독직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군주를 해치는 자, 모든 인류와 모든 정의와 온갖 미덕의 공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질겁한 일이 백 번도 더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부자라면, 부자가 되기에 필요한 짓은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만하고도 비열하며, 나를 위해서만 민감 세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 없는 지독한 인간이 되어, 천민들의 비참을 깔보는 구경꾼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나도 같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극빈자들을 이제 탄 이름으로 부를 도리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는 내 재산을, 내가 빠져 들어갈 쾌락의 연장으로만 쓰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나도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는 사뭇 다르리라고 생각되는 점은, 거드름부리기보다는 관능과 쾌락 자체를 좋아해, 허영의 사치보다는 방종의 사치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내 재산을 너무 과시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조차 여겨, 내 호사에 짓눌린 셈바리가 이웃 사람 귀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노상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남이 암체로 알아주지 않을까 봐서 안달인 저 암체 좀 보게나!”

대지를 덮고 있는 그 한없이 푸짐한 재화들 중에서 나는, 내게 가장 기분 좋아 내 것으로 삼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겠다. 그러기 위해 내 재산은 맨 먼저 여가와 자유를 사는 데 쓰일 것이고, 돈으로 되는 것이라면 건강을 이에 덧붙이겠다. 그런

데 건강은 절제로밖에는 사지지 않는 적일뿐더러 이것 없이는 생활에 진짜 기쁨이 라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관능의 쾌락 때문이라도 절제할 것이다.

자연이 내 기쁨 속에 제 것을 넣어 줄수록 더욱 나는 진짜 기쁨을 거거서 찾아보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나는, 자연에서 받은 감각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연 가까이에 늘 머물러 있겠다. 모방의 대상들의 선택에서는 언제나 자연을 모델로 삼겠고, 식욕에 있어서는 자연을 먼저 택하겠고, 맛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연과 상의하겠고, 음식에 있어서는 자연이 솜씨껏 장만해 주어 우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 사람 손을 가장 덜 거친 것들을 항상 바랄 것이다. 속임수로 조작된 것들을 피하고, 몸소 기쁨을 마련해 나가겠다. 미련하고 조잡한 내 식도락이 웨이터를 치부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내게 비싼 값으로 독(poison)을 생선(poisson)으로 팔아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식탁이 으리으리한 쓰레기나 먼 데서 온 썩은 고기들로 뒤덮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관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는 않겠다. 그래야만 그 수고가 바로 기쁨이 되어 기대되는 기쁨을 더욱 늘려 주니까. 세계 끝의 음식이 맛보고 싶다면, 그것을 가져오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피키우스<sup>122\*</sup>처럼 내가 그리로 찾아가겠다. 왜냐하면 가장 맛 좋은 음식에도, 그것과 함께 갖고 가지도 못하거니와 어떤 숙수도 칠 수 없는 양념, 즉 그것을 산출한 풍토의 공기는 늘 빠지게 마련이니까.

같은 이유에서 나는, 자기가 있지 않은 곳에서밖에는 기분이 좋지가 않아 노상 계절들을 서로 엇바꾸고 풍토와 계절을 엇바꾸는 자들, 겨울에는 여름을 찾고 여름에는 겨울을 찾아, 추위를 당하러 이탈리아에 가고 더위를 당하러 북국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의 흉내는 내지 않겠다. 계절의 극성을 피할 생각만 하다가는 그것을 막는 법도 배우지 못한 곳에서 그것과 마주치게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이다. 나로서는 자리를 지키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반대로 나가겠다. 한 계절이 지닌 기분 좋은 것 모두를 그 계절에서 끌어내고 싶고, 한 풍토가 지닌 특수한 것 모두를 그 풍토에서 끌어내고 싶다. 서로 비슷하지는 않으나 늘 자연에 맞는 갖가지

122\*아우구스투스와의 같은 시대의 미식가로, 가재를 먹으러 아프리카로 갔다는 아피키우스(Apicius) 이야기는, 3세기 이집트의 그리스어 작가인 아테네(Athénée)의 《궤변가들의 잔치》I, 12에 나온다.

기쁨과 습관들을 나는 갖게 될 것이다. 여름은 나폴리에 가서, 겨울은 페테르스부르그에 가서 나겠다. 타란토의 시원한 동굴에서 비스듬히 누워 파스한 미풍을 마시기도 하고, 얼음 궁전에서 무도회의 기쁨에 지치고 숨이 차서 말이다. 식탁 마련이나 실내 장식에 있어서는 아주 간소한 꾸밈새로 계절의 변화에 응해 나가겠고, 다가올 계절을 앞지르지 말고 그 계절마다에서 모든 즐거움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어지럽혀, 자연이 저주하면서 마지못해 내놓는 그 질도 나쁘고 맛깔도 없어 위장을 보호해 주지도, 혀를 즐겁게 해 주지도 못하는 억지 산물들을 자연으로부터 아아내는 데는, 고생만 있지 취미라곤 없다. 만물들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파리의 어느 부자는 보일러나 온실을 가지고도 굉장한 돈을 들여 일년 내내 식탁에 형편없는 채소나 과실을 올려놓는 것이 고작이다. 얼음이 얼 때 버찌가 있고 한겨울에 호박색 멜론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입천장은 축이거나 식혀 달라지도 않는 데 무슨 재미로 그런 것을 맛보겠는가? 톱툰한 밤이 삼복더위에 내 구미에 썩 맞겠는가? 그토록 힘들이지 않고도 땅 위에서 쉽사리 얻어지는 까치밥 나무 열매나 딸기 같은 갈증 식혀 주는 열매들을 두고 그래 내가 군밤을 택하겠는가? 축성 재배 식물이나 향기 없는 파리한 꽃들로 정월달에 맨틀피스를 뒤덮는 것은, 겨울을 장식한다기보다는 봄을 망쳐 놓는 것이다. 숲에 가서 첫 오랑캐꽃을 찾고 첫 움을 살펴보고는 기쁨에 넘쳐 이렇게 외치는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된다. 인간들아,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자연은 아직도 살아 있어.

나는 제대로 시중들리기 위해 하인들은 얼마 두지 않겠다. 이 말은 이미 한 바 있지만, 다시 말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한 평민은 하나뿐인 종으로부터, 공작이 자기를 둘러싼 열 명의 신사들로부터 받는 이상의 진짜 시중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상이라면 내가 목을 축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마실 것을 달라는 말이 스무 사람 목소리로 되풀이되어야 하겠지만, 식탁에서 컵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마음 내킬 때 언제나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남을 시켜서 하는 일이란 다 아무래도 제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다. 가게에는 사람을 보내지 말고 나 자신이 가겠다. 하인들이 나보다 먼저 상인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틀림없게 선택하고 덜 비싸게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겠고, 기분 좋은 운동을 하기 위



해서, 내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겠다. 재미도 있겠지만, 때로는 공부도 된다. 끝으로는 그냥 가기 위해서만도 가겠는데, 이것 역시 좋은 일이다. 권태는 지나치게 죽치는 생활에서 비롯된다. 자주 나다니면 권태는 별로 없다. 수위나 종들은 고약한 통역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늘 나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두고 싶지도 않거니와, 마치 남이 접근해 오는 것이 겁이라도 나듯이 야단스러운 사륜마차를 늘 끌고 다니고 싶지도 않다. 자기 다리를 쓰는 사람은 말 채비가 늘 되어 있는 셈이다. 말들이 지치거나 병이 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핑계 삼아 마부가 재미를 보고 싶어 할 때에도 자기 방에 처박혀 있어야 할 염려도 없다. 길에서 천 가지 장애가 그의 조바심을 타게 하는 일도 없지만, 달려가고 싶을 때 제자리에 묶어 두는 일도 없다. 요컨대 아무도 우리 자신만큼 잘 우리에게 시중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설사 알렉산드로스보다 더 권력이 있고 크로이소스<sup>123\*</sup>보다 더 부자라 하더라도, 제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말고는 남들에게 시중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대궐을 집으로 갖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궐이라도 내가 살 방은 하나밖에는 없을 테니까. 공동으로 쓰는 방은 다 누구의 것도 아니며, 내 하인 하나하나의 방은 이웃 사람의 방 못지않게 내게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동양 사람들은 아주 향락적이면서도 다 집이나 세간은 간소하다. 그들은 인생을 여행으로, 자기네 집을 주막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치는, 언제까지나 살겠다고 준비하는 우리네 부자들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게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다른 이치가 있다. 한곳에다 그토록 차려 놓고 자리잡는다는 것은, 만 모든 곳으로부터는 쫓겨나 말하자면 내 대궐에 갇히는 것으로만 여겨질 것이다. 세상이란 꽤 아름다운 대궐이다. 부자는 누리고만 싶다면 다 자기 것이 아닌가? Ubi bene, ibi patria(살기 좋은 곳은 자기 나라). 이것이 바로 그의 좌우명이다. 마치 필리포스가 돈을 실은 노새가 들어갈 수 있는 요새는 다 자기가 차지했듯이,<sup>124\*</sup> 돈으로 다 되는 곳들이 부

123\* 크로이소스는 기원전 6세기의 리디아의 왕으로, 부자로 유명.

124\* 플루타르코스의 《옛 왕들 · 왕족들 · 명장들의 저명한 이야기들》, 27에 나오는 일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는 어느 성을 포위 공격하려고 부하들을 정찰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돌아와서 도저히 접근

자의 집이고, 자기 금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그의 나라이다. 그런데 왜 거기서 영 나오지도 않으려는 듯이 벽과 문들에 둘러싸이려고만 드는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반란이 나를 어느 곳에서 내쫓는다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내 호텔이 나보다 먼저 거기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를 위해 온 세계에다 지어 주고 있는데, 나 스스로 애써 하나를 왜 짓겠는가? 서둘러 살아야 할 내가, 지금 당장 찾아 낼 수도 있는 기쁨들을 왜 먼 앞날에다 마련하겠는가? 노상 자신과 어긋나는 짓만 하다가는 쾌적한 처지를 이룩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아그리젠토 사람들이 살 날이 하루밖에 없기라도 한 것처럼 쾌락을 탐내고, 영영 죽지 않기라도 할 것처럼 집을 지어 낸다 해서 엠페도클레스가 비난하던 것도 이 때문이다.<sup>125\*</sup>

더구나 들어살게 할 사람도 얼마 없고 채울 세간은 더욱 적은데, 그렇게 널따란 집이 내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 세간들은 내 취미처럼 간소할 것이다. 화랑도 서고도 없을 것이며, 내가 독서를 좋아하고 그림을 안다면 더구나 그렇다. 그러한 컬렉션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으며, 무엇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상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풍부가 오히려 궁핍을 가져오는 격이다. 이런 것을 겪어 보지 않은 수집가란 하나도 없다. 컬렉션에 정통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열실을 자신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보여 줄 진열실이란 없는 법이다.

노름은 부자의 오락이 아니라 무위도식자의 소일거리며, 나는 내 쾌락들이 주는 일들에 바빠 그렇게 허비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외롭고 가난한 나는 노름 따위는 통 하지 않으며, 때로 장기썸은 둔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군더더기다. 내가 만일 부자라면 더구나 노름은 하지 않겠고, 한몫자 남이 실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실망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아주 하찮은 노름이 고작일 것이다. 부유하면 목적이 없어지는 노름 욕심은, 시원찮은 머릿속에서밖에는 광기로 바뀔 수가 없다. 부자가 노름에서 딸 수 있는 돈은 언제나 잃은 돈보다는 덜 대단해 보이

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한다. 필리포스는, 금을 실은 작은 노새도 접근하지 못할 만큼 난공불락이냐고 물었다.

125\* 몽테뉴의 《에세》Ⅱ, 1에서 인용된 것.

게 마련이며, 또 웬만한 노름들은 그 방식이 끝내는 판 돈을 चु내게 되어 있어 대체로 따기보다는 잃는 수가 더 많으므로, 제대로 따져 본다면 온갖 위험이 자신에게 덮쳐드는 놀이를 그다지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운명의 특혜를 자랑삼는 자는 훨씬 더 자극적인 대상들에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특혜란 가장 작은 노름에서는 가장 큰 노름에서보다 덜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탐욕과 권태의 열매인 노름 취미는 텅 빈 머리카 마음에만 뿌리박는 것인데, 나는 그러한 보충 없이도 지낼 만큼은 충분한 감정이나 지식을 지니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습관을 중지시키거나 무익한 계획 쪽으로 돌리는 노름을 무척 좋아하는 사색가란 보기 드물다. 실상 학문 취미가 낳은 이득의 하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한 이득은, 이 치사한 열을 얼마간 식혀 준다는 점이다. 노름에 열중하기보다는 노름의 쓸모를 증명해 보기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다. 나로서는 노름꾼들 사이에서 노름과 싸우겠으며, 그들의 돈을 따는 데서보다는 그들이 잃는 것을 보고 비웃어 주는 데서 더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사생활에서나 세상 사قم에서나 똑같은 것이다. 내 재산이 도처에서 안락을 주어, 불평등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야단스러운 옷차림은 어느 모로 보나 불편하다. 가능한 자유 모두를 사람들 사이에서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급 속에 끼여도 어울려 아무도 나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차려입고 싶다. 겉치레나 변장을 하지 않고도 선술집에서는 서민이, 팔레 루아얌(Palais Royal)에서는 훌륭한 손님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처신이 더욱 자유로워진 나는 온갖 신분의 쾌락들을 언제나 손 닿는 곳에 두게 될 것이다. 소맷부리에만 수놓은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레이스를 단 사람만 맞아들이는 여자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낮은 데 가서 지내겠지만, 만일 그 여자들이 젊고 예쁘다면 하다못해 밤이라도 거기서 지내기 위해 가끔은 레이스도 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사قم들의 유일한 밧줄은, 서로의 애착 · 취미의 일치 · 성격의 부합이 될 것이다. 나는 부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귄 것이고, 사قم의 매력이 이해 관계 때문에 상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부유해져도 얼마간의 인정

이 남아 있게 된다면, 나의 봉사와 선행을 멀리 펼쳐 나가겠지만 내가 주위에 갖고 싶은 것은 궁정이 아니라 사교계이고, 줄개들이 아니라 친구들인 만큼, 나는 식객들의 주인은 되어도 그 패트런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주 평등이 나의 사قم에 아주 순진한 호의를 남겨 줄 것이고, 의무도 이해 관계도 끼어들 까닭이 없는 데서는 기쁨과 우정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친구도 애인도 돈으로 사지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여자들을 얻기는 쉽지만, 그것은 어떤 여자의 애인도 되는 방법은 아니다. 사랑이 팔리는 것이기는커녕, 돈이 영락없이 사랑을 죽인다. 설사 남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을 만한 남자라 하더라도, 돈을 치른다면 치른다는 그것만으로도 오래 사랑받을 수는 없다. 머지않아 그는 다른 남자를 위해 치르게 되거나, 그보다도 그 남자가 그 돈을 타 쓰게 될 것이고, 사랑도 지조도 진짜 기쁨도 없이 이해 관계와 바람기로 이루어진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돈 주는 바보를 자기가 다루듯이 돈 받는 치사한 남자에게 다루어지는 부정하고 비참한 욕심쟁이 여자는, 그래서 두 남자에게 다 빚진 것이 늘 없는 처지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 후하다는 것은, 그것이 거래만 되지 않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랑을 잡치는 일 없이 자기 애인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나는 하나밖에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몽땅 주고 나서 그녀의 부양을 받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엉뚱한 것이 되지 않을 만한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라이스에게 차지당하는 일은 없이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sup>126\*</sup> 이런 말을 하던 자는 실없는 소리를 한 셈이다. 서로 차지하지 않는 소유란 아무것도 아니어서, 기껏해야 섹스를 차지하는 것이지 한 인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곳에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왜 야만인가? 이보다 더 찾아 내기 쉬운 것은 없다. 이 점에서는 노새 물이꾼이 백만장자보다도 행복에 더욱 가깝다.

오! 지각없는 악덕을 상당히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악덕이 바라던 바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기대와는 어긋난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순결을 짓밟는 그 야만

126\* Diogène Laërce의 《철학자들의 생애》 H, 75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철학자 아리스티포스(Aristippos). Laïs는 고대 그리스의 창부.

적인 탐욕, 보호해 주어야 할 어린 상대를 제물로 삼아, 죽어서밖에는 벗어나지 못할 비참의 구렁텅이로 첫걸음서부터 영락없이 끌고 들어가는 그 탐욕은 어째서일까? 잔인성 · 허영심 · 어리석음 · 잘못된 생각이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쾌락 자체도 자연에서 온 것은 아니어서, 억설에서, 그것도 가장 비열한 억설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억설은 자기 멸시와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 중의 꼴찌로 자처하는 자는 모든 남과의 비교를 두려워하며, 미움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첫째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가공의 진미에 가장 게걸든 자들이 과연 여자의 환심을 살 만큼 탐탁스러워, 까다롭게 굴어도 용서받을 만한 청년들인지? 생각해 보라. 아니다. 얼마간의 풍채와 재능과 센스가 있다면 자기 애인의 경험 같은 것은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정당한 자신을 가지고 그녀에게 말할 수 있다. 너는 쾌락의 맛을 알고 있지만, 상관없어. 네가 일찍이 맛보지 못한 쾌락을 네게 줄 것을 나는 약속해.

그런데 매력도 조심성도 사려도 없이, 성실성이라곤 전혀 없이, 난봉에 흠아떨어진 늙다리 색마. 탐탁스러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여자의 환심을 살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는, 순결한 처녀에게 경험을 앞질러 관능의 첫 감동을 줌으로써 그 모든 부족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신기한 일을 미끼삼아 환심을 사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분명히 이러한 변덕의 숨은 동기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그가 주는 혐오감은, 그가 끄드기고 싶은 욕망 못지않게 자연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그 어리석은 기대에 있어서도 틀렸다. 같은 자연은 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몸을 파는 여자는 이미 몸을 내어 맡긴 적이 있는 것이고, 제가 고른 남자에게 몸을 맡긴 그녀는, 그가 겁내는 비교를 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 그는 가공의 쾌락을 사고 있는 셈이고, 또 그래서 미움을 덜 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부자가 되어 달라져 봤자 별수 없을 것이다. 결코 달라지지 않을 점이 하나 있으니까. 품성도 미덕도 설사 내게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어떤 취미 · 센스 · 텔리커시는 남아 있어, 내가 속아서 망상을 뒤쫓으며 재산을 축내는 것을, 애송이에게 배반당하고 놀림받으며 지갑과 생명을 탕진하는 것을 막아는 줄 것이다. 내가 젊다면 나는 젊은이의 쾌락들을 구할 것이고, 그것들의 기쁨을 그대

로 고스란히 얻고 싶은 나는 부자로서 그것들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의 나 그대로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조심스레 내 나이에 맞는 쾌락들로 그치겠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들만 취하고, 고통밖에는 이제 주지 않을 그런 취미들은 억제하겠다. 희끗희끗한 내 수염을 처녀들에게 내밀어 놀림과 멸시를 당하지는 않겠다. 나의 징그러운 애무가 그녀들을 구역질나게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나를 희생시켜 가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이야깃거리들을 그녀들에게 마련해 준다는 것은, 늙은 원숭이의 야비한 쾌락을 감당한 양값음으로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녀들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나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가령 습관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해 옛날의 내 정욕이 필요로 바뀌고 말았다면, 나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몰라도, 부끄러움 없이는, 스스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욕망에서 열정은 따돌릴 것이며, 되도록이면 잘 어울리는 상대를 골라잡아 그 정도로 그칠 것이다. 내 약점에 사로잡히는 일은 이미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 증인은 하나밖에는 더 갖고 싶지가 않다. 이런 쾌락들이 없어져도 인생에는 딴 쾌락들이 있다. 도망치는 쾌락들을 괜히 뒤쫓다가는 남아 있는 쾌락들마저 잃게 된다. 세월과 더불어 취미도 바꾸자, 계절처럼 나이도 옮겨 놓지 말자. 어느 시기에나 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며, 자연에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헛된 노력이 생명을 축내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민중은 권태를 느끼는 법이 없어, 그 생활은 활동적이다. 그 오락은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진귀하다. 하고 많은 날의 노고가 며칠의 축제를 더 없는 즐거움으로 맛보게 해 준다. 오랜 노동과 짧은 휴식의 교대가 민중 계급의 기쁨에는 양념이 되어 준다. 부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바로 권태다. 많은 돈을 들여 끌어모은 그 많은 오락 속에서도, 다투어 환심을 사려 드는 그 많은 사람들 한복판에서도, 권태는 그들을 들볶아 못살게 군다. 그들은 권태를 피하고 권태에 붙들리고 하다가 평생을 보내게 되며, 그 감당하지 못할 무게에 짓눌려 있다. 이젠 일할 줄도 놀 줄도 모르게 되고 만 여자들은 더구나, 우울증(vapeurs)이라는 이름의 권태에 시달리고 있다. 권태가 그녀들에게는, 때로는 이성을, 마침내는 생명까지도 앗아 가는 끔찍한 병으로 둔갑한다. 나로서는 파리의 어느 미녀의 팔자보다 더 끔찍한 것을 알지 못하

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그런 여자에게 달라붙어 똑같이 유한부인(有閑夫人)으로 둔갑, 그래서 자기 처지에서 이중으로 벗어나는 색골, 인간이 일찍이 보내 본 적도 없는 더없이 한심한 나날을 행운이라는 허영심 덕분에 견뎌 나가는 색골의 팔자이다.

사치와 근사한 허울에서 생겨나는 예절·유행·관습이, 생활의 흐름을 가장 음산한 단조로움 속에 가둔다. 남들 눈에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쾌락이란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것이어서,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가 않는다.<sup>127</sup> 억설이 무엇보다도 꺼리는 우스꽝스러움이 노상 곁에 따라다니며 억설을 못살게 굴고 벌주고 한다. 사람은 판박이 태도 때문에만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자기 처지나 쾌락들에 변화를 줄줄 아는 자는, 어제의 인상을 오늘은 지워 버려,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 바 없지만, 그는 즐기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마다에, 사물마다에 있는 힘을 다 바쳐 몰두하니까. 나의 한결같은 유일한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하나의 경우에 처해 다른 경우는 염두에도 두지 않을 것이며, 하루하루를 그것 자체로서 전날이나 다음 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민중과 함께 있으면 민중이 되듯이, 시골에서는 시골뜨기가 되어, 내가 농사 이야기를 해도 농사꾼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농촌에 가서 내 도시를 건설하거나, 시골구석 내 방 앞에는 튜르리의 정원을 만들지는 않겠다. 녹음 우거진 어느 기분 좋은 언덕 비탈에 시골풍의 작은 집을, 초록색 덧문 달린 하얀 집을 가질 것이며, 비록 밀짚 지붕이 어느 철에나 제일이긴 하지만, 나는 큰마음 먹고 앙상한 슬레이트 말고, 기와를 택하겠는데, 그것은 기와가 밀짚보다는 깨끗하고 밝아 보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고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지붕을 이는 일이 없어, 어릴 때의 행복하던 시절을 얼마간 생각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안마당 대신 가끔 사육장을 가질 것이고, 내가 무척 좋아하는 우유 제품을 얻기 위해 마구간 대

127 두 사교계 여인은 굉장히 재미보고 있는 체하려고, 아침 5시에야 자리에 눕는다는 것을 법칙으로 삼고 있다. 하인들은 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얼어붙지 않으려고 안절부절못하면서, 그녀들을 기다리느라고 길에서 밤을 새운다. 어느 날 저녁에,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아침에, 그토록 재미를 본 두 여인이 시간을 세지도 않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정확히 단둘이서, 저마다 안락의자에서 자고 있는 그녀들을 발견한다.

신 소 외양간을 갖게 될 것이다. 뜰 대신 채마밭을, 정원 대신 나중에 말할 과수원과 비슷한 아담한 과수원을 갖게 될 것이다. 산책객들이 마음대로 따먹게 될 과실들은 내 정원사에 의해 세어지거나 거두어 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또 나의 껌껌한 호사로서는, 누가 감히 손도 대지 못할 어마어마한 과수장을 사람들 눈앞에 펼쳐놓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돈은 얼마 보이지 않으나 먹을 것은 많아 풍부와 빈곤이 지배하는 어느 먼 지방에서 내 안식처를 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낭비는 별로 비싸게 치이지는 않을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에 정통한 친구들과, 소파를 빠져 나와 전원의 놀이에 탐닉할 수 있는 여자들, 때로는 베를 북이나 카드 대신 낚싯대나 끈끈이 대, 건초 갈퀴나 포도 광주리를 들 수 있는 여자들이 되어 머릿수가 많기보다는 정성된 그룹을 나는 거기에 모으겠다. 거기서는 도시의 분위기는 모조리 잊혀 마을에서 마을 사람이 되어 버린 우리는, 저녁마다 다음날을 위한 선택이 걱정이 될 만큼 술한 가지가지의 오락에 골몰하게 될 것이다. 운동과 활동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위장과 새로운 미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식사는 다 잔맛이 있어서보다는 푸짐해서 환영받는 잔치가 될 것이다. 유쾌함과 시골 일들과 익살맞은 놀이들은 세상에서 제일가는 숙수들이며, 해가 뜰 때부터 바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해의 진미도 정말이지 웃음거리다. 식탁 차림새에는 멋도 없지만 차례도 없을 것이다. 식당은 정원, 배 위, 나무 아래, 어디라도 좋을 것이다. 때로는 멀리 나가, 맑은 샘물 곁이나 시원하고 푸르른 풀 위에서, 오리나무나 개암나무 덤불 아래서, 즐거운 회식자들의 긴 행렬이 잔치 음식을 노래하며 나를 것이다. 잔디밭이 식탁과 의자를 대신하고, 샘물가가 찬장 구실을 하고, 디저트는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음식은 차례 없이 차려지고, 식욕은 격식을 벗어날 것이다. 저마다가 솔직하게 자기 위주이어서, 남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위주인 것도 예사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정하고도 절도 있는 친밀감으로부터 예절보다는 백배나 더 매력 있어 마음과 마음을 더욱 잘 맺어 주게 마련인 익살맞은 싸움질이, 무례한 짓이나 거짓이나 거북함 없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거나 우리의 태도를 꺾속말로 비판하면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을 걸귀 같은 눈으로 세어 보고, 마실 것을



기다리게 해 놓고는 좋아하며, 식사가 너무 오래 끈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성가신 종들은 하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종이 되어, 저마다가 모두의 시중을 받을 것이며, 시간은 가는 줄도 모르게 가고, 식사(repas)는 휴식(repos)이 되어 해가 타오르는 동안을 줄곧 계속될 것이다. 농구를 어깨에 메고 일터로 돌아가는 어느 농부가 우리 곁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나는 가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게 해 줄 상냥한 말 몇 마디나 맛난 포도주 몇 잔으로 그의 마음을 흥겹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도 마음이 얼마간 감동되는 것을 느끼고는 몰래 혼잣말하며 기뻐할 것이다. 나도 아직은 인간이라고.

어떤 시골 축제가 있어 고장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나는 우리 패와 함께 맨 먼저 끼어들겠다. 도시의 결혼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더 받은 어떤 결혼이 근처에서 행해진다면, 내가 기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알려져 초대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처럼 수수하면서도 잔치에 소용될 어떤 선물을 갖고 가겠고, 그 대신 나는 거기서 더없이 값진 보물을, 내 또래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인 순박함과 진짜 기쁨을 찾아볼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길다란 식탁 끝에서 즐거이 만찬을 들고, 시골의 옛 노래를 되풀이해 합창하며, 그들의 창고에서 로페라<sup>128\*</sup>의 무도회에서보다도 흥겨운 마음으로 춤출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겠지. 여기까지는 다 근사하다. 그런데 사냥은? 시골서 사냥도 하지 않는다면 시골에 있는 것이 되는가? 알아들겠다. 나는 농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잘못이다. 나는 자신을 부자로 가정하고 있으니, 독점적인 쾌락, 파괴적인 쾌락들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영지와 숲과 감시원들과 부과금과 영주의 명예가, 특히 향과 성수(聖水)가 내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썩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영지에는, 자기네 권리는 움켜쥐고 남들의 권리는 가로채려 드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다. 감시원들이, 어쩌면 주인들도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말다툼 · 싸움 · 증오가, 하다못해 소송이 벌어진다. 이걸 벌써 썩 기분 좋은 일은 못 된다. 우리 영토 백성들은 자기네 밀이 내 토끼들에, 자기네 잠두콩이 내

128\*l'Opéra, 파리의 유명한 극장 이름.

산돼지들에 침범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리가 없다. 저마다가 자기 일을 망쳐 놓는 적을 감히 죽이지는 못해도 자기 밭에서 쫓아 내려고는 들 것이다. 낮에 종일을 땅을 갈고 나서도 그 땅을 지키느라고 또 밤을 새워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개·북·나팔·방울 따위를 쓸 것이고, 이런 온갖 법석으로 내 잠을 어지럽힐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이 가엾은 사람들의 고생을 생각하게 되어, 자책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내가 만일 명예롭게도 군주라면 이런 일에 충격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졸지에 올라선 벼락부자인 나로서는 아직은 서민의 마음을 얼마간은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푸짐한 사냥감이 사냥꾼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내 밀렵자들을 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감옥·옥사정·순경·깰리선 따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내게는 사뭇 잔인해 보인다. 이 불쌍한 사람들의 아내들이 몰려와 내 집 대문을 둘러싸고 아우성치며 나를 못살게 굴 것이고, 그녀들을 몰아내거나 혼을 내 주어야 할 것이다. 밀렵은 하지도 못하고 내 사냥감들에 수확만 약탈당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몰려와 투덜거릴 것이다. 더러는 사냥감을 죽였기 때문에 벌받고, 더러는 살려 주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얼마나 딱한 진퇴양난인가! 사망에 비참한 일들밖에 보이지 않고,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거의 밭에 밟히다시피 술한 자고새나 토끼를 마음대로 때려 잡는 재미도 많이 깨뜨려질 것같이만 여겨진다.

따르는 고생에서 기쁨만을 따돌리고 싶은가? 그럼 기쁨의 독점을 버리라. 기쁨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게 둘수록 언제나 더욱 순수하게 맛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방금 말한 그런 일은 통 하지 않겠지만, 취미는 바꾸지 않은 나는 탈이 탈할 것으로 짐작되는 일은 해 나가겠다. 사냥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 그 재미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고장에다 내 시골 살림을 차리겠다. 사냥감은 적겠지만, 찾아내는 숨씨나 잡는 기쁨은 더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첫 자고새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느낀 그 심장의 고동이나, 종일 찾아다닌 토끼를 찾아 내던 때의 그 열띤 기쁨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 총과 망태기와 탄약집과 작은 노획물을 메고, 지쳐 빠지고 가시덤불에 굽혀 저녁때 개만 데리고 혼자 돌아오던 그는, 근사한 말을

타고 총을 쏜 스무 명을 뒤에 거느리고는, 숨씨도 명예도 없이, 또 연습도 거의 없이 차례로 쏘게 해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것밖엔 하는 일이 없던 당신네들의 그 안방 사냥꾼들의 누구보다도 그 하루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나는 장담한다. 그러니 지킬 땅이나 벌할 밀렵자나 괴롭힐 빈민이 없을 때, 기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폐단이 없어진다. 이거야말로 선택의 확고한 이유의 하나이다. 무슨 수를 쓰건 자기도 역시 어떤 불편을 입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끝없이 괴롭힐 수는 없는 노릇이며, 민중의 오랜 저주가 조만간에 잡은 짐승의 맛을 씹쓸하게 만들고 만다.

한 번 더 말해서, 독점적인 쾌락들은 쾌락의 죽음이다. 진짜 즐거움은 민중과 나누어 가지는 즐거움이다. 혼자서만 갖고자 하는 즐거움은 가져지지가 않는다. 내 정원 둘레에 내가 쌓는 담장이 나에게 음산한 우리가 된다면,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산책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한 것밖엔 되지 않는다. 산책할 곳을 찾아 멀리 가야만 하게 되고 만다. 소유라는 악마는 손에 닿는 것은 다 해친다. 부자는 도처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곳에서밖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 노상 자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나로서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할 때 하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 이제 내 재산만으로 될 수 있는 이상으로 남들 재산으로 부자가 된 나는, 내 근처에서 내게 맞는 것은 모조리 가로채기로 한다. 나보다 더 철저한 정복자는 없다. 왕족들까지도 침해한다. 내 마음에 드는 울 없는 땅은 다 무조건 내 것으로 삼는다. 그 땅들에다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내 정원으로, 또 하나는 내 동산으로 만들어, 마침내 내가 그 주인이 된다. 그때부터 나는 탈 없이 거기를 거닐고,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되돌아가 본다. 자꾸 걸어다니면 땅은 내 마음껏 닦아, 내가 착복한 부동산의 명의상의 지주가 거기서 생기는 돈에서, 내가 그 땅에서 보는 이상의 득을 보고 있다고 누가 말해 봤자 나는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누가 와서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쳐 나를 성가시게 굴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정원을 어찌에 메고 다른 곳에도 갖다 놓겠다. 근처에 터가 모자라지는 않아, 안식처가 없어지기까지는 털 이웃들이 얼마라도 있을 것이다.

이상은, 기분 좋은 여가 선용법을 택함에 있어 진짜 취미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약간 논해 본 것이다. 어떤 정신으로 즐겨야 하는가를 말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착

각 · 환상 · 어리석은 허영에 불과하다. 이 기준들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다, 황금을 똥으로 먹어 없애어, 인생의 가치는 영영 알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재미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누가 나한테 대들지도 모른다. 내가 언급하려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기쁨은 얻고 싶어 하면 얻어지는 것이다. 만사를 까다롭게 만들어, 우리 앞에서 행복을 밀어내는 것은 억측뿐이며, 행복해지기로 행복한 체하기보다는 백 배나 더 쉬운 일이다. 안목이 있어 진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소용이 없다. 자유로워 자신의 지배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 건강을 누리고 의식에 궁하지 않은 자라면, 억측에서 오는 행복을 자기 마음에서 뽑아 내기만 하면 다 충분한 부자이다. 이것이 호라티우스의 aurea mediocritas(황금의 중용)이다. 금고 가진 사람들아, 당신네의 부유와 어떤 다른 용처를 찾아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에밀은 이 모든 것을 나보다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나보다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진 그는 그것을 훨씬 잘 느낄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관찰은 그것을 확인시켜 줄 따를 일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늘 소피를 찾고 있으나 보이지가 않는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며, 그녀가 있지 않다고 내가 확신하던 곳에서 우리는 그녀를 찾았던 것이다.<sup>129</sup>

마침내 시간은 다급하다. 에밀이 그녀로만 알고 만 여자를 만들었다가, 너무 늦어서야 잘못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 이젠 정말로 찾아 내어야 할 때다. 여자들이 이미 정조를, 남자들이 미덕을 믿지 않게 된 파리, 소음과 매연과 진창의 도시, 이름난 도시여, 그럼 잘 있거라. 아듀, 파리. 우리는 사랑과 행복과 순결을 찾고 있다. 너한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치가 못할 것이다.

129 “정숙한 아내를 누가 찾아 낼 것인가? 먼 곳에 있다. 세계의 끝에서 오는 그녀는 높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Mulierem fortem quis inveniet? Procul, et de ultimis finibus pretium ejus).” (〈잠언〉 31장 10절).

## 제 5 부

이제 우리는 청년기의 마지막 막까지 왔다, 그러나 아직은 대단원은 아니다. 어른이 독신으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sup>1\*</sup> 에밀은 어른이다. 우리는 그에게 짝을 약속한 바 있으니,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 짝은 소피다.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서 찾아 낼 것인가? 찾아 내려면 그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여자인가를 우선 알아보자. 그러면 그녀가 살고 있는 곳도 더욱 잘 짐작이 갈 것이고, 또 찾아 낸 다음에도 만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도련님이 장가들 채비가 다 되었으니, 이젠 그를 애인 곁에 두고 떠날 때다”라고 로크는 말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여기서 그는 펜을 놓았다. 귀공자를 가르치는 명예를 갖지 못한 나로서는 이 점에서도 로크를 흉내 내는 것은 삼가겠다.

## 소피 또는 아내

소피는 에밀이 남자인 것처럼 여자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질서와 정신적인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 종(種)과 성(性)의 구조에 맞는 것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그녀의 성과 우리 성의 일치점과 차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성에 말미암지 않은 모든 점에 있어서는 여자도 남자나 다름없다. 같은 기관들, 같은 필요들, 같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 기계는 같은 식으로 조립되고, 부분품들도 같아, 한쪽의 작용이 바로 딴 쪽의 그것이며, 모양도 비슷해, 어떤 점에서 보건 양자 사이에는 많고 적은 차이밖에는 없다.

성에 말미암은 모든 점에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는 어디서나 관련이 있고 어디서나 차이가 있다. 양자를 비교하는 어려움은, 양자의 구조에서 성에 딸린 것과 딸리지 않은 것을 밝혀 내는 어려움에서 오고 있다. 비교 해부학에 의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양자 사이에는, 성에 말미암지 않은 것 같은 일반적 차이들이 발

1\*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와 비슷한 여자 보조자를 나는 그에게 만들어 주겠다(〈창세기〉 2장 18절).”

2\* 로크의 《아동교육론》, 222.

견된다. 실은 성에 말미암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알아챌 수 없는 관계들에 의해서다. 그 관계들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양자에 공통되는 것은 다 중에 딸린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성에 딸린 것이라는 점뿐이다. 이러한 이중의 관점에서 우리는 양자 사이에 하도 많은 닮은 점과 반대되는 점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존재를 그토록 다르게 조립해서 이토록 닮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자연의 불가사의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닮은 점과 다른 점들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뚜렷하고 경험과도 일치되어, 양성의 우열이나 평등에 관한 논쟁의 헛됨을 보여 주고 있다. 마치 저마다 따로 된 사명에 따라 자연의 목적에 이르는 둘 중의 한쪽이 이 점에 있어, 판 쪽을 더욱 닳았을 경우보다는 덜 완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양쪽이 다 가진 것에 있어서는 양쪽은 평등하다. 양쪽이 달리 가진 것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완전한 여자와 완전한 남자는 얼굴 못지않게 정신도 닳았을 리가 없으며, 완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양성이 맺어지면 저마다가 공동 목적을 위해 똑같이 협력하지만,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다양성으로부터 양쪽의 정신적 관계 사이의 결정적인 첫 차이가 생겨난다. 한쪽은 능동적이고 강하며, 판 쪽은 수동적이고 약하게 마련이다. 마땅히 한쪽은 바라고 또 해낼 힘이 있어야 한다. 판 쪽은 별로 저항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원칙이 서면, 여자는 남자 마음에 들도록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과가 된다. 남자 또한 여자 마음에 들어야 한다 치더라도, 이는 그다지 직접적인 필요성이 되지는 못하며, 남자의 가치는 그 힘에 있어, 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사랑의 법칙은 아니며, 나도 그것을 시인한다. 사랑 자체보다도 먼저인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마음에 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자는, 남자를 자극하지 말고 남자 뜻에 맞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자의 드센 힘은 그 매력에 있다. 남자로 하여금 자기 힘을 발견해서 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매력에 의해서다. 이 힘을

부추기는 가장 확실한 기술은, 저항에 의해 그 힘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자존심이 욕망과 합쳐져, 한쪽은 딴 쪽이 갖다 준 승리를 거두게 된다. 공격과 방어, 남성의 담대함과 여성의 소심, 그리고 강자를 굴복시키도록 자연이 약자에게 준 무기인 정숙과 수줍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이 차별 없이 양쪽에 다 선수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먼저 욕망을 품은 쪽이 그 표시도 먼저 하게 된다고는,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판단의 얼마나 야릇한 타락인가! 양성에 그토록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 모험에, 양쪽이 똑같이 대담하게 빠져든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공동 출자에 그토록 큰 불평등이 있는데도, 자연이 남성에게 과하는 절제를 겸손이 여성에게도 과하지 않는다면, 양성 모두의 파멸을 곧 가져오게 되며, 인류는 자기 유지를 위해 마련된 바로 그 수단들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찌서 알지 못하는가? 남자들의 관능을 쉽사리 끄뜨려,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거의 꺼져 버린 성욕의 불뚝도 되살릴 능력을 여자들이 갖고 있는데도, 철학이 그런 고약한 버릇을 끌어들인 그런 한심한 나라가 땅 위에 있다면, 더구나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태어나는 열대 지방에서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시달려 마침내는 그 제물이 될 것이며,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모조리 죽음으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동물들의 암컷에는 같은 수줍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떤가? 그 수줍음이 브레이크 구실을 하는 한없는 욕망들을 여자들처럼 그것들도 갖고 있는가? 암 짐승들에게는 욕망이 필요와 함께밖에는 오지 않는다. 필요가 채워지면 욕망은 그쳐, 수컷을 시늉으로가 아니라<sup>3</sup> 진심으로 물리치게 된다. 아우구스투스의 딸<sup>4\*</sup>이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가, 배에 짐이 있을 때는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 설사 틈이 나더라도 호의의 시간은 짧아 금방 지나가 버리며, 본능이 부추겨 주고 본능이 제지해 준다. 여자들에게서 수줍음을 없애 버린다면 이 소극적인 본능을 별충해

3 짐짓 아양으로 하는 거절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동물들 사이에서조차, 공통된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는 몸을 맡길 생각이 간절할 때에도 말이다. 여성들의 잔피를 전혀 살피면 일이 없지 않고서는 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4\*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Julie)는, 브랑뚘(Brantôme, 1540~1614)의 《바람둥이 부인들의 생애(Vies de dames galantes)》 1화에 나온다.



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자들이 남성들에 관심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남성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셈이다.

최고 존재자는 성심껏 인류에게 이바지하기를 바랐다. 무제한한 경향들을 인간에게 주면서도, 인간이 자유로워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그 경향들을 가다듬는 법칙도 동시에 준다. 인간을 무절제한 정념들에 내맡기면서도,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성도 아울러 준다. 여자를 무한한 욕망들에 내맡기면서도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수줍음도 아울러 준다. 게다가 제 능력들의 선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까지도 곁들여 준다. 예컨대 성실을 자기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성실한 일에 대해 갖게 되는 취미 같은 것을 말이다. 이 모두가 짐승들의 본능보다는 나아 보인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함께 나누어 가지진 안 가지진, 그것을 만족시켜 줄 생각이 있진 없진, 언제나 남성을 물리쳐 저항하게 마련이지만, 언제나 같은 힘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결과도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공격하는 쪽이 이기려면, 공격당하는 쪽이 그것을 허용하든지 명하든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격자더러 힘을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쉬운 교묘한 수단들을 공격당하는 자는 갖고 있지 않은가?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부드러운 행위는 실지 폭력을 용납하지는 않으며, 자연이나 이성도 이에 반대한다. 즉 자연은 가장 약한 자에게도 마음이 내켜서 저항할 때는 이에 필요한 만큼의 힘은 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은, 실지 폭력이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난폭할뿐더러 그 목적과 가장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남자가 그러다가는 자기 배우자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공격자의 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의 몸과 자유를 지킬 권한을 그녀에게 주게 되기 때문에, 또 여자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한 심판자이며, 모든 남자가 그 권리를 가로챌 수 있다면, 아이가 아버지라고는 갖게 되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양성의 체질에서 오는 셋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강한 쪽이 보매는 지배자이나 실지로는 약한 쪽에 팔려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여자에게 극진하게 구는 경박한 관습 때문이나 보호자로서의 교만한 너그러움 때문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

시키는 능력을 남자에게 주는 이상으로 욕망을 쉽사리 꺾으려는 능력을 여자에게 더 줌으로써 남자를 싫더라도 여자의 뜻대로 따르게 만들며, 남자가 강자가 되는 것을 여자가 찬동하도록 이번에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 마음에 들게 노력하도록 강요하는 자연의 변치 않는 법칙 때문이다. 그래서 승리한 남자에게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약해서 힘에 넘어간 것인지 자의로 굴복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며, 여자의 흔히 쓰는 수작은 이러한 의심을 자기와 남자 사이에 늘 남겨 두는 일이다. 여자들의 정신은 이 점에 있어 자기네 체질과 완전히 부합된다. 약해서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오히려 약함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다. 여자들의 부드러운 근육에는 저항력이 없다. 아주 가벼운 짐도 들어올릴 수 없는 체한다. 강했더라면 오히려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 가냘팠고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약은 속셈 때문이다. 여자하면 약해질 수 있는 핑계와 권리를 미리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악덕에 의해 얻어진 지식의 진보는 이 점에 관해 우리 사이의 옛 견해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으며, 폭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게 되어 남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폭력은 통 입에도 오르지 않게 되고 말았다.<sup>5</sup> 이와 같은 견해들은 자연의 소박함 속에 있어 방종의 경험만이 그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나 유대의 먼 옛날에는 폭력이 아주 예사로 되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말이다. 설사 오늘날에는 폭력 행위가 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남자들이 더욱 절제를 지키게 되어서는 아니고, 덜 어수룩해져, 옛날 같으면 고지식한 민중을 믿게 만들었을 만한 하소연도 오늘날에는 빈정거리는 자들의 웃음을 사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잠자코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범행이 거리에서 저질러졌을 때는 당한 처녀도 색마와 같이 별받도록 한 율법이 <신명기(Deuteronomie)>에 있다.<sup>6\*</sup> 들이나 외딴곳에서 저질러졌을 때는 남자만 별받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가 소리질렀으나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율

5 나이와 힘의 균형이 너무 잡히지 않아 실제로 폭력이 행해지는 수도 있겠지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양성의 상대적인 상태를 여기서 다루는 나는, 이 상태를 이루는 일반 관련 속에서 양쪽을 다루고 있다.

6\* 《구약》〈신명기〉 22장 23~27절.

법은 말하고 있다. 이 너그러운 해석이 처녀들에게 사람 많은 곳에서 선불리 기습 당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의 다름이 풍습에 미치는 작용은 뚜렷하다. 요즈음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극진함은 그 소산이다. 자기네의 쾌락이 생각던 것보다는 더 여성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남자들은, 아양으로 그 의지를 사로잡았고, 여성도 그 아양에 제대로 대답해 주게 되었다.

육체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그리고 양성의 거칠은 결합에서 어떻게 사랑의 더없이 다정한 법칙이 차츰차츰 생겨나는가를 보라. 여자들의 지배권은, 남자들이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들이 갖고 있는 것같이 보이기 전에 이미 그녀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테스피오스의 딸 싼 명을 건드렸다고 자부한 바로 그 헤라클레스도 움팔레 옆에서는 실을 잣지 않을 수 없었고, 힘센 삼손도 델릴라만큼은 세지 못했었다. 이러한 지배권은 여자들에게 딸린 것으로, 그녀들에게서 앗아 낼 수가 없다. 설사 그녀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면 잃고 만 지가 이미 오래였을 것이다.

성의 결과를 두고 말한다면 양성 사이에는 아무런 같은 점도 없다. 남성은 어떤 순간에밖에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은 평생, 아니면 적어도 짧은 동안은 줄곧 여성이다. 만사가 여성을 노상 자기 성으로 되돌아오게 하며, 그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체질이 있어야 한다. 임신 중에는 줄곧 조심이 필요하고, 해산 때에는 안정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젖 먹여 키우려면 편안하게 죽치는 생활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길러 내려면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인내와 상냥함과 열의와 애정이 필요하다. 여성은 아이들과 그 아버지 사이를 잇는 구실을 하며, 여성만이 아버지더러 아이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자기 자식들이라고 부를 자신을 갖게 해 준다. 온 가족의 화목을 유지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애정과 정성이 여성에게는 있어야만 하는가! 끝으로 이 모두가 미덕 아닌 취미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고서는 인류는 이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양성 서로간의 의무의 엄격함은 같지도 않거니와 같을 수도 없다. 여자가 이 점에 대해 남자가 두는 차별을 부당하다고 탓한다면, 여자의 잘못이다. 이 차별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적어도 편견의 소산은 아니고 이성의 소산이다. 양쪽 중에서 자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맡은 쪽이 딴 쪽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 아내로부터 여성의 엄한 의무들에 대한 유일한 상을 가로채는 남편은 다 부당하고 야비한 남자다. 그런데 부정한 아내는 더 해,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연의 모든 밋줄을 끊어 버린다. 남자에게 그 소생도 아닌 아이들을 줌으로써 모두를 배반해, 부정애다 배신을 곁들인다. 여기에 말미암지 않은 어떤 혼란,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나는 알기가 힘들다. 세상에도 끔찍한 처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해 자기 마음의 가장 정다운 느낌에 젖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며, 자기 아이를 안으면서도 딴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창피의 증거물을, 자기 아이들의 재산의 약탈자를 껴안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가엾은 아버지의 처지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란, 죄 많은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체하도록 강요하면서 적대케 하는 은밀한 적들의 모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단지 아내가 충실하다는 것만이 아니고, 남편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겨 주는 일이다. 정숙하고 세심하고 조심성이 있어, 자신의 미덕의 표시를 자신의 양심에 비추듯 남의 눈에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임새까지도 아내들의 의무의 하나로 들어가, 명예나 평판이 순결 못지않게 없지 못할 것이 되는 까닭이 그것이다. 양성의 도덕적인 차이는 있지만, 특히 여자들에게는 자기네의 행동이나 거동이나 태도에 대한 가장 세심한 주의를 명하는 의무와 예절의 새 동기가,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생겨난다. 양성은 평등하고 그 의무도 다 같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헛된 말치레에 빠져드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아주 정당한 일반 법칙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예외들을 내놓는 것은 아주 확실한

추리 방식이 아닌가? 여자들이라고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은 말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여자들 본래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일이다. 뭐라고! 세 계에는 여자들이 난봉을 피워 아이는 얼마 낳지 않는 큰 도시가 백이나 있다 해서, 여자들의 본분은 아이를 얼마 낳지 않는 것이라고 우겨 대다니! 여자들이 보다 소박하고 순결하게 사는 먼 시골들이 귀부인들의 불임증을 벌충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도시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아이를 네댓밖에 낳지 않은 여자들은 그다지 다산으로 보지 않는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sup>7</sup> 또 결국은 이러저러한 여자는 아이를 얼마 낳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슨 대수인가? 어머니가 된다는 여자의 본분이 그래서 덜해지거나 하는가, 또 자연과 풍습이 그 본분에 이바지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임신과 임신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여자는 생활 방식을 탈 없이 갑자기, 그리고 차례로 바꾸게 되겠는가? 오늘은 젖을 먹이고 내일은 전쟁터로 나가고 하겠는가? 카멜레온이 몸빛을 바꾸듯이, 자기 체질이나 취미를 바꾸게 되겠는가? 응달에서, 울안에서, 살림 일에서 느닷없이 거센 바깥바람 속으로, 노동으로, 고역으로, 전쟁의 위험 속으로 옮겨갈 것인가? 겁이 많다가도<sup>8</sup> 용감해지고, 나약하다가도 건강해지겠는가? 청년들도 파리에서 자랐으면 군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데, 햇볕을 쬐어 본 적도 없고 걸을 줄도 잘 모르는 여자들이 50년의 나태한 생활 끝에 군무를 감당해 내겠는가? 남자들도 그만둘 나이에 여자들이 이 힘든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여자들이 별 고통 없이 해산하고 별 걱정 없이 아이들을 기르는 나라들이 있다.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어느 철에나 반 벌거숭이로 다니고, 맹수들을 때려눕히고, 마상이를 배낭처럼 짊어지고, 칠팔천 리를 사냥을 가고, 한데서 땅바닥에 자고, 엄청난 고역을 견뎌 내고 굶고도 며칠을 난다. 여

7 그러지 않고서는 인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인류가 존속되려면 아무래도 여성이 저마다 넷 가량의 아이는 낳아야 한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제 아이를 갖게 되기 전에 죽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두 아이는 남아야 하니까. 도시가 이만한 인구를 대어 주겠는지 생각해 보라.

8 여자들의 소심 또한, 임신 중에 무릅쓰는 이중의 위험을 막는 자연 본능이다.

자들이 건강해질 때는 남자들은 더 건강해진다. 남자들이 나약해질 때는 여자들은 더욱 나약해진다. 양쪽 항(項)이 똑같이 바뀌면 그 차는 여전한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에서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같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것은 나도 좋다고 볼 수밖에! 그가 말하는 통치에서 개개의 가정을 없애 버려,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 그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 도리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훌륭한 천재는 모든 궁리를 다 해 보고 모든 일을 다 예견했던 것이다. 아마 아무도 그에게 내놓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이익에 대해 선수를 쓴 것이었으나, 제기되는 이익에 대한 그의 해답은 틀렸던 것이다. 그 이른바 여자들의 공유(共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비난은 그토록 되풀이되어 왔지만 비난하는 자들이 플라톤을 통 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도처에서 양성을 혼동, 같은 직책과 같은 일을 시켜 두고 보지 못할 폐단들을 빚어 내고야 마는 그 사회적 혼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자연 감정에 의해서만 지탱할 수 있는 인위적 감정인데도, 그 인위적 감정에 희생당하고 만 가장 부드러운 자연 감정의 파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마치 인습의 유대를 맺는 데에 자연의 실마리가 필요하지 않기로도 한 것처럼 말이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갖는 사랑이 국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마음이 큰 조국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작은 조국을 통해서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체질도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일단 증명되고 나면, 같은 교육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연의 지시에 따라 합심해서 행동해야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의 목적은 공통이지만 일 자체는 다르고, 따라서 일을 이끌어 나가는 취미도 다르다. 자연의 남자를 길러 내려고 애써 온 다음에는, 우리의 일을 미완성으로 두지 않기 위해, 이 남자에게 알맞은 여자도 어떻게 길러 내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언제나 제대로 이끌어지기를 바라는가? 언제나 자연의 지시대로 따르라. 여성을

특징짓는 모든 것은 자연이 정해 준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노상 말한다. 여자들은 우리는 갖지 않은 이리이러한 결점들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기 자부심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결점이 되겠지만, 여자들에게는 장점이 된다. 여자들이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만사는 덜 좋아질 것이다. 이 이른바 결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주되,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자들 쪽에서도 노상 투덜거린다. 우리가 자기네를 변변찮게, 교태나 부리게 길러 내고 있다고, 또 보다 쉽사리 지배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노상 유치한 짓들로 자기네를 얼버무려 넘긴다고. 여자들은 우리가 비난하는 결점들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남자들이 언제부터 딸들의 교육에 참견했던 말인가? 어머니들이 자기 마음대로 딸들을 길러 내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딸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니. 딱도 해라! 제발 사내애들 학교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그 애들은 더 지각 있고 올바르게 교육받을 텐데! 여러분의 딸들은 어리석은 짓들로 시간을 낭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본받아 몸단장에 일생의 절반을 보내도록 누가 억지로 시키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딸들을 가르치거나 가르치게 하는 것을 누가 막고 있는가? 그녀들이 예뻐서 우리 마음에 든다 해서, 그 부리는 아양에 우리가 홀린다 해서,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재치가 우리 마음을 끌어 기쁘게 해 준다 해서, 멋있게 차려입은 그녀들을 보기를 우리가 좋아한다 해서, 우리를 정복할 무기들을 그녀들이 틈틈이 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가? 자! 그럼 그녀들을 남자처럼 길러 낼 결심을 해 보라. 남자들도 기꺼이 찬성할 테니! 그녀들이 남자를 닮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남자들을 덜 지배하게 될 것이며, 남자들이 진짜 지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

양성에 공통되는 능력들도 다 똑같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로서 보면 균형은 잡혀 있다. 여자는 여자로서는 훌륭하고, 남자로서는 빠진다. 여자의 권리만 활용하면 어디서나 우세하다. 우리들 남자의 권리를 가로채려 들면 어디서나 우리만 못하다. 예외들을 가지고서밖에는 이 일반적 진리에 대들 도리가 없다. 여성 편드는 멧쟁이들의 한결같은 논법이다.

여자들에게서 남자의 장점들을 길러 주고 여자 고유의 장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 분명 그녀들에게 손해를 주려고 애쓰는 셈이다. 약은 여자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특권을 가로채려 들면서도 자기네 특권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다가는, 양쪽의 특권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느 쪽도 제대로 안배하지 못하는 그녀들이, 우리네 능력 수준에 몸 두기는커녕 자기네 수준에서도 처지고 말아 자기네 가치의 절반은 잃게 되는 수가 있다. 현명한 어머니여, 내 말을 믿고, 자연을 부인하려는 듯이 덕의 따님을 신사로 만들질랑 말라. 숙녀로 만들라, 그러면 그녀 자신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더 나을 것이 틀림없을 테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길러져야 하고 집안 살림에만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가? 남편은 자기 배우자를 식모로 삼게 되어, 그 곁에서는 교제의 가장 큰 기쁨도 포기하게 될 것인가? 더욱 잘 순종케 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아무것도 느끼거나 알지 못하게 막을 것인가? 그녀를 진짜 자동 인형으로 만들 것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여자들에게 그토록 기분 좋고 섬세한 재치를 주는 자연은 그러도록 시키지는 않았다. 반대로 자연은 그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얼굴처럼 정신도 가꾸기를 바란다. 이는 그녀들에게 모자라는 힘을 벌충해 주려고, 또 우리 힘을 이끌게 해 주려고 자연이 그녀들에게 주는 무기이다. 그녀들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알아서 좋을 것들만 배워야 한다.

여성의 특수 사명을 생각해 보나, 그 경향들을 살펴보나 그 의무들을 헤아려 보나, 모두가 하나같이 나에게 여성에 알맞은 교육의 형태를 가리켜 준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서로의 의존 관계는 동등하지가 않다. 남자들은 그 욕망 때문에 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여자들은 그 욕망과 필요 때문에 남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여자들이 우리 없이보다는 우리가 여자들 없이 더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 자기 처지를 지켜 나가려면, 우리가 그것을 주거나, 줄 생각이 있거나, 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거나 해야 한다. 여자들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그 재능에 주는 가치나, 그 매력이나 미덕에 치르는 존경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 자체에 의해서도 여자들은, 자



신을 위해서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남자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여자들은 존경받을 만하기만 해서는 충분치가 않고,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숙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자들의 명예는 그 행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판에도 있어, 망신을 당해도 예사인 여자가 정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는 좋은 일만 하고 있으면, 자신에만 의존해 공중의 판단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여자는 좋은 일만 해도 의무의 절반밖에는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가 실지로 어떠한가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자 교육의 방식은 이 점에 있어 남자의 그것과는 반대이어야 한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미덕의 무덤이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미덕의 왕좌이다.

아이들의 좋은 체질은 먼저 어머니의 그것에 달려 있다. 남자들의 첫 교육은 여자들의 정성에 달려 있다. 그들의 행실 · 정념 · 취미 · 기쁨 그리고 행복 자체 또한 여자들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자 교육은 다 남자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남자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없지 못할 존재가 되고,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이 어릴 때는 길러 주고 커서는 돌봐 주고, 충고하고 위로해 주어, 생활을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어느 시대에나 여자들의 의무이며, 어려서부터 여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일들이다. 이러한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목적에서 벗어나기만 할 것이고, 여자들에게 주는 모든 교훈은 그녀들의 행복에도 우리의 행복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다 남자들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또 바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사랑할 만한 훌륭한 남자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과, 남성의 명예와 제가 흥내 내는 여성의 명예를 다 더럽히는 저 시시한 색골들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연도 이성도, 남자들에게서 여자를 닮은 점을 여자더러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으며, 또 여자도 남자들의 태도를 본똥으로써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성의 겸손하고 착실한 태도를 버리고 그런 되통스러운 태도를 흥내 내게 되면 여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따르기는커녕 포기하는 것이 되며, 가로채고 있다

고 생각하는 권리들을 스스로 잃는 것이 된다. 여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만일 달리 한다면 남자들 마음에 통 들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이다. 미친 남자들을 사랑하려면 미쳐야 한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끌겠다는 욕망은 그런 짓에 몰두하는 여자의 취미를 드러내어 보인다. 경박한 남자들이 없다면 그녀들은 서둘러 만들어 낼 것이며, 그녀들의 경박이 남자들 탓이기보다는 남자들의 경박이 그녀들인 수가 더 많다. 참된 남자들을 사랑하고 그들 마음에 들려는 여자는 그 의도에 어울리는 방법을 택한다. 여자란 본래 교태를 부리게 마련이지만, 그 교태는 목적에 따라 형태와 대상을 바꾼다. 그 목적을 자연의 목적에 맞추자. 그러면 여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여자 아이들은 몸치장을 좋아한다. 예쁘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예쁘게 보아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이 벌써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찮은 태도에서도 보이며,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자마자,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해 줌으로써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남자 아이들에게 같은 동기를 내놓는 것은 아주 경솔해 같은 지배력을 갖기는 어렵도 없다. 무엇에 매여 있지만 않다면, 재미있는 일만 있다면, 남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통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을 같은 법칙에 묶이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고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첫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여자 아이들에게 오건 아주 좋은 일이다. 육신은 이를테면 정신에 앞서 태어나는 것인 만큼, 첫 연마는 육신의 연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서는 양성에 공통되지만 연마의 대상은 각기 다르다. 한쪽에 있어 그 대상은 힘의 성장이고, 딴 쪽에 있어서는 매력의 성장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각기 한쪽에 독점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다. 순서만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여자들이 모든 일을 멋있게 해내는 데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고, 남자들이 모든 일을 힘겹지 않게 해내는 데는 그만한 솜씨가 있어야 한다.

여자들의 지나친 나약에서 남자들의 나약이 비롯된다.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튼튼해서는 안 되지만, 남자들을 위해서는, 여자들에게서 태어날 남자들도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튼튼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는, 기숙생들이, 받는 양육은 조잡하지만 한

데나 정원에서 뛰놀거나 달리며 노는 일이 많은 수녀원 학교가, 딸이 애지중지 길러지고 노상 귀여움받거나 꾸지람을 들으며 닫힌 방에서 어머니 보는 앞에만 앉아 있어, 감히 일어서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숨쉬지도 못하고, 놀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소리질러 그 나이에 당연한 극성에 몸을 내맡길 자유가 잠시도 없는 부모 집보다는 바람직하다. 언제나, 위험한 느즈러짐 아니면 억지 엄격이다. 이치에 따른 것은 하나도 없다. 어린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이다.

스파르타의 소녀들은 소년들처럼 전쟁놀이를 했었는데, 이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전쟁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였다. 내가 찬성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병정들을 국가에 바치기 위해 어머니들이 총을 메거나 프로이센식 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리스의 교육은 대체로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처녀들은, 남자아이들과 섞여서가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 대중 앞에 자주 나타났었다. 머리에 꽃 관을 쓰고, 찬가를 부르고, 합창 가무단(歌舞團)을 만들고, 광주리나 꽃병이나 제물을 들고, 그리스인들의 우악스러운 체육의 고약한 효과를 메꾸어 주기에 알맞은 귀여운 광경을 그들의 거칠어진 감각 앞에 펼쳐 보이는 상류 시민의 딸들의 무리가 보이지 않는 축제나 제사나 의식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풍습이 남자들 마음에 어떤 인상을 주었던 언제나 그것은, 기분 좋고 절도 있고 몸에 좋은 훈련으로 여성에게 어릴 때 좋은 체질을 태워 주는 데는, 또 자기 품성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도, 남의 마음에 들겠다는 끊임없는 욕망으로 여성의 취미를 다듬고 길러 주는 데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이 젊은 여자들도 한번 결혼만 하고 나면 대중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집 안에 갇혀 살림살이와 가족 돌보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 자연과 이성이 여성에게 시키는 생활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들로부터 땅 위에서 가장 건전하고 튼튼하며 가장 잘생긴 남자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또 비록 몇몇 섬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도 넣어 세계의 모든 국민 중에서 고대 그리스 이상으로, 여자들이 현명하면서도 상냥해 단정한 품행과 아름다움을 아울러 가졌던 국민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알다시피, 몸에 꼭 끼이지 않는 편한 옷은, 그들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균형을, 우리들 사이에서는 비뚤어진 자연이 예술에 본모습을 제공하기를 그만 두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술에 본모습으로 쓰이고 있는 그 균형을, 양성의 몸에 남겨 두는 데 크게 이바지했었다. 우리의 사지를 사방에서 눌러 대는 그 온갖 고딕식 고풍들이며 그 술한 속박들을 그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 여자들이 몸통을 두드러지게 한다기보다는 눈을 속이는 데 쓰고 있는 그 살대 받친 코르셋을 그리스 여자들은 쓸 줄을 몰랐다. 영국에서 터무니없이 퍼져 있는 그것의 남용이 필경은 인간을 퇴화시키지 않고 배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런 것으로 매력을 노린다는 것은 악취미라고까지 나는 말하겠다. 말벌처럼 두 동강 난 여자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눈에도 거슬리지만, 상상력도 시달린다. 몸통의 날씬함에도 판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나 절도가 있어, 그것을 넘어서면 영락없이 흠이 되고 만다. 이러한 흠은 벗어도 눈에 띌 텐데, 옷에 가려졌다 해서 어떻게 아름다움이 되겠는가?

나는 이렇게 여자들이 굳이 몸을 죄려 드는 이유를 따질 엄두는 나지 않는다. 처진 젖가슴, 불룩해진 배 등등이 스무 살 난 여자인 경우 보기에 아주 흉하다는 것은 나도 동감이지만, 서른 살에는 이미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자연의 뜻에는 맞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남자의 눈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흠은 어느 나이에 있어서나 마흔 살 난 처녀의 어리석은 억지 아양보다는 눈에 덜 거슬린다.

자연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다 악취미다. 이는 정신의 꾸밈새들에서도 그렇듯이 몸치장에서도 그렇다. 생명 · 건강 · 이치 · 안락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멋에는 마음 편함이 따라야 한다. 세련은 나약함이 아니고, 남의 마음에 들려고 불건강해질 것은 없다. 괴로워하면 남의 동정심을 자아내지만, 쾌락과 욕망은 싱싱한 건강을 구한다.

아이들에게는 남녀에 공통되는 놀이가 많고 또 그래야만 한다. 커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남녀를 갈라놓는 고유의 취미도 없지는 않다. 남자아이들은 움직임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구한다. 북 · 팽이 · 장난감 마차 따위를 말이다. 여자 아이들은

눈을 호리거나 치장이 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거울 · 보석 · 장신구, 그리고 특히 인형을. 인형은 여성 특유의 장난감이다. 이거야말로 분명히 여성의 사명에 비추어 정해진 여성의 취미다. 남의 마음에 드는 기술의 겉모습은 몸치장 속에 있다. 아이들이 이 기술에서 배워 익힐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이다.

소녀가 인형 곁에서 몸단장을 노상 바꿔 주면서 종일을 보내는 것을 보라, 골백번을 입혔다 벗겼다 하며 옷치장의 새로운 배합을 끊임없이 찾는데,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문제가 아니다. 손가락에는 재주가 모자라고 취미도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호는 벌써 나타나 보인다. 이 끝없는 일에 시간은 어느새 흘러 몇 시간이 지나도 소녀는 알지 못하며, 식사조차도 잊으니 음식보다는 몸치장에 더 굶주린 것이다. 하지만 치장하는 것은 자기 인형이지 자기 몸은 아니지 않느냐고, 여러분은 말하겠지. 틀림없다. 소녀는 자기 인형을 보지 자신을 보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형성도 되어 있지 않아 재능도 힘도 없으며,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녀는 온통 인형 속에 있어, 제 아양을 모조리 그 속에 넣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그래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인형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아주 뚜렷한 첫 취미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가며 가다듬어 주기만 하면 된다. 소녀가 자기 인형을 꾸밀 줄 알게 되기를, 그 소맷동이나 솔 · 주름 장식 · 레이스를 만들 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 하도 사정없이 남의 뜻에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자기 솜씨에만 달리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정도이다. 이리하여 소녀에게 하는 첫 수업의 이유가 생겨난다. 그것은 소녀에게 시키는 노력은 아니다. 소녀에 대한 친절인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소녀들은 읽거나 쓰기를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바늘을 잡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배운다. 자랐을 때를 미리 상상해서 그러한 재능이 언젠가는 자기 몸치장에 쓰일 수도 있으리라고 즐겨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린 첫 길은 따라가기도 쉽다. 바느질 · 자수 · 레이스는 제 발로 온다. 실 내 장식은 소녀들 마음에는 썩 들지 않는다. 가구들이란 소녀들과는 너무 동떨어

져 있어, 자기 몸과는 상관이 없고 딴 의견들에 좌우되는 것이다. 실내 장식은 부인들의 재미여서, 처녀들은 그다지 큰 기쁨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진보는 쉽사리 데생에까지 번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멋있게 입는 기술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풍경을 그리게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 아니며, 인물화는 더구나 그렇다. 잎가지·과실·꽃·옷 주름 같은, 옷치장에 멋있는 윤곽을 주는 데 쓰이거나 마음에 맞는 수분이 없어 제 손으로 그것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것 모두이면 그녀들에게는 족하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공부를 실용적인 지식에 국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비록 힘은 덜 드나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 더욱 바지런한, 또 그래야만 하는 여자들의 생활이, 자기네 본분을 잊고 어떤 재능에 즐겨 몰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살꾼들이야 뭐라고 말하건 양식(良識)은 양성에 평등하다. 대체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순하나, 내가 곧 말하겠지만 그녀들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권위를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익함을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녀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머니의 재간이란 시키는 일 모두에 있어 그 유익함을 딸들에게 보여 주는 일이며, 지능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올되는 만큼 더구나 손쉽다. 이 규칙은 우리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으로부터, 비단 쓸모 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뿐더러 한 사람들을 안 한 사람들 눈에 더욱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는 온갖 헛공부들뿐만이 아니라, 유익함이 나이에 맞지 않아 더 나이를 먹어서도 예견되기 어려운 그런 온갖 공부들까지도 몰아 내어 준다. 남자아이에게 읽기를 서둘러 가르치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 아니지만, 읽기가 무엇에 쓰이는가를 제대로 깨닫게 해 주기도 전에 소녀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가르치는 것은 더구나 바라지 않으며, 또 그것의 유익함을 보여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이들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요컨대 여자아이가 그렇게 일찍 읽고 쓸 줄을 알 필요가 어디 있는가? 당장 보살펴야 할 살림이라도 있단 말인가? 이 재수 없는 지식을 이용보다는 악용을 더 하지 않는 여자아이들이란 별로 없으며, 또 모두가 호기심은 적지가 않아, 틈이나 기회만 생

기면 강요하지 않더라도 절로 배우게 마련이다. 어찌면 셈만은 맨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셈 이상으로, 더 뚜렷한 쓸모가 어느 시기예전 있는 것은, 더 오랜 연습이 필요한 것은, 셈만큼 틀리는 수가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식 시간의 버찌를 산수 셈을 하지 않고서는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녀들이 당장에 셈을 할 줄 알게 되리라는 것은 내가 보증하겠다.

읽기보다도 쓰기를 먼저 배워, 펜으로 쓰기 전에 바늘로 쓰기 시작한 어느 아이를 나는 알고 있다. 모든 글자 중에서 처음에 그녀는 오(O)자밖에는 만들 생각이 없었다. 노상 큰 오(O)자와 작은 오(O)자들을, 온갖 크기의 오(O)자들을, 오(O)자들 안에 또 오(O)자들을, 늘 거꾸로 그어 만들고 있었다. 딱하게도 어느 날 그녀는 이 유익한 연습을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는, 그 어색한 자세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고, 미네르바의 화신처럼 펜을 팽개쳐 다시는 오(O)자들을 만들 생각이 없어졌다. 그 남동생도 누나처럼 글씨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싫어하는 까닭은 답답해서지 보기 흉한 자세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더러 다시 글씨를 쓰게 만들려고 판 꾀를 썼다. 소녀는 까다롭고 교만해서 제 속옷을 여동생들이 입도록 두지 않았다. 그것에 표를 해 주곤 했는데, 이젠 아무도 그래 주려고 들지 않았다. 제가 표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그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소녀들에게 시키는 일은 언제나 정당화시키라, 그러나 꼭 시키도록 하라. 무위와 불순종은 소녀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결점이며, 물들고 나면 고치기가 가장 힘들다. 딸들은 조심성이 있고 바지런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부자유를 참아야 한다. 설사 이것이 그녀들에게 하나의 불행이라 하더라도, 이 불행은 여성에게는 피치 못할 것이어서, 더 심한 불행을 당하기 위해서밖에는 이 불행에서 풀려 나올 도리가 없다. 여자들은 예의범절이라는 이 가장 끊임없고 가장 엄한 부자유에 평생을 얹매이게 될 것이다. 먼저 속박에 익혀 속박이 예사가 되게 해 주어야 하고, 온갖 번덕을 눌러 남의 뜻에 따르도록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 늘 일하고 싶어 한다면,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주어야 할 것이다. 주의산만·경박·번덕은 여자들의 타락한 채 줄곧 계속되는 첫 취미들로부터 쉽사리 생겨나는 결점들이다. 이 악습을 미리 막아 주려면 특히 자제하도록 가르쳐 주라. 우

리의 엉뚱한 제도에서는, 정숙한 여자의 생활이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여성이 우리에게 가져온 불행의 고통을 여성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페넬롱이 말했듯이, 한쪽에는 모조리 따분한 일만, 딴 쪽에는 모조리 기쁜 일만 있게 마련인 속된 교육에서는 늘 있는 일이지만, 딸들이 일에 싫증을 내거나 장난에 열중하지 않도록 막아 주라. 이 두 가지 폐단 중의 첫째 것은, 앞서 말한 규칙만 따르다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질 때 말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어머니나 친구를 좋아하는 소녀는 그 옆에서 종일을 일해도 싫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잘거림만으로도 답답함을 다 벌충해 줄 것이다. 그러나 보살피 주는 여자가 귀찮아지면, 그녀가 보는 데서 하는 일에는 다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기 어머니와 같이 있기를 더 좋아하지 않는 딸들이 언젠가 훌륭한 여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녀들의 진짜 감정을 짐작하려면 그녀들을 연구해 보아야지 그녀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꾸며 대어 속을 보여 주지 않으며, 어려서부터 숨길 줄을 아니까. 어머니를 좋아하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 애정이란 의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강제가 힘이 되는 것은 이런 일에서가 아니다. 애착·정성·습관만이 딸더러 어머니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어머니가 딸의 미움을 살 것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의존이 여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태여서 딸들은 자신이 순종하도록 태어났다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에게 가하는 속박도 제대로만 나간다면 애착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늘려만 줄 것이다.

그녀들에게는 자유가 적다는, 아니 적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자유는 남용하게 된다. 만사에 있어 극단적인 그녀들은 놀이에도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폐단의 둘째 것이다. 이러한 열정은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자들에게 특유한 몇 가지 악덕들, 이를테면 한 여인더러 내일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에 오늘은 열중케 하는 그런 변덕이나 열광 같은 악덕의 원인이 되니까. 취미의 변덕스러움은 취미의 지나침 못지않게 여자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며,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근원에서 생겨난다. 명랑·웃



음·법석·익살스러운 놀이들을 그녀들에게서 빼앗길랑 말라. 그러나 이것에 몰려 저것으로 달려드는 일은 없도록 막아 주어, 잠시라도 브레이크를 잊어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말라. 놀이가 한창일 때 그만두고 딴 일을 시켜도 투덜거리지 않도록 버릇을 들여 주라. 여기서도 역시 습관만으로 족하다, 습관은 자연을 거들고 있을 따름이니까.

여자들은 한 남자에게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기를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을뿐더러 또 그 판단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녀들에게는 온 평생 필요하게 되는 순종이, 바로 이 습관적인 강제의 결과로서 생겨난다. 여자의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유순함이다. 악덕투성이기가 일쑤고 노상 결점투성이인 남자라는 불완전한 존재에 복종하도록 태어난 여성은, 부당한 일까지도 참도록, 남편의 잘못을 불평 없이 견뎌 내도록,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여성이 유순해야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다. 여자들의 극성이나 고집은 자신의 고통과 남편의 못된 짓을 늘려 줄 따름이다. 남편들은 여자가 자기를 이겨 내게 되는 것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늘은 잔소리꾼이 되라고 여자들을 상냥하고 설득력 있게 만든 것은 아니다. 명령자가 되라고 약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욕설이나 하라고 그토록 부드러운 목소리를 태워 준 것은 아니다. 화가 나면 찡그리라고 그토록 섬세한 얼굴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화가 나면 제정신이 아니다. 투덜거리는 것은 옳은 적도 있겠지만, 으르렁거리는 것은 언제나 틀렸다. 양쪽이 다 자기 성의 어조를 간직해야 한다. 너무 순해 빠진 남편은 아내를 건방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괴물만 아니라면, 여자의 유순함이 달래어 언젠가는 그를 이겨 내게 되는 것이다.

딸들은 언제나 순해야 하지만, 어머니들은 언제나 엄해서는 안 된다. 어린 여자를 순하게 만들려다가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만들려다가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벌을 모면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약간의 꾀를 부리는 것은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것이다. 의존을 힘들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존을 깨닫게만 해 주면 되니까. 꾀는 여성의 타고난 재능, 타고난 모든 성향은 그대로 좋고 옳다고 믿는 나는, 이 성향도

만 성향들과 마찬가지로 가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것의 남용을 막아 주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모든 성실한 관찰자에게 맡기겠다. 이 점에 관해 부인들까지도 조사해 보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답답한 제도가 그녀들의 재치를 억지로 세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딸들을, 이틀테면 태어나기만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조사해 보기 바란다. 같은 나이의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 그래서 만일 소년들이 소녀들에 비해 미련하고 되통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면 영광없이 내가 틀린 것이다. 사뭇 옛되고 순진한 예를 하나만 들어 보겠다.

식탁에서 아이들더러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서 쓸데없는 설교를 마구 늘어놓는 이상으로 성공하는 길은 없다고들 믿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나 저것 한 토막이, 기대 때문에 꼬드겨진 욕망으로 가엾은 아이를 노상 골탕먹이지 않고서는 당장에 주어지거나 거절되는 일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sup>9</sup> 이러한 법칙을 따르다가 식탁에서 자기가 무시당하자 소금을 달랠 생각이 났다는 소년의 재치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다. 소금을 달라면서 넌지시 고기를 요구하는 것이니 그 소년을 트집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따돌림은 하도 심해서 설사 그 소년이 공공연히 법칙을 어기고 시장하다는 말을 솔직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 때문에 벌을 받았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 여섯 살 난 소녀는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치웠던가. 이 아이에게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무엇을 달라는 것이 딱히 금지되어 있었을뿐더러, 남이 잊고 주지 않았으나 제일 먹고 싶은 한 접시만 남겨 놓고는 다 먹어 보았기에 더구나 불복종은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니, 더 어려운 처지였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불복종을 꾸중 듣지 않고도 무시당한 별충을 받기 위해 소녀는, 손가락을 내밀어 모든 음식을 점검,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먹었고, 이것도 먹어 봤고.” 그런데 자기가 먹어 보지 못한 음식은 하도 표나게 아

9 아이는 성가시게 구는 것이 이득일 때 성가시게 군다. 그러나 첫 대답이 언제나 확고부동이면 아이는 같은 것을 두 번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체했기 때문에 누가 눈치채고는 말했다. “이건 먹었니?” “아뇨” 하고 꼬마 식충이는 시선을 떨구며 넋지시 대답했다. 더 말하진 않았다. 비교해 보라. 이런 재주가 바로 여자아이의 피다. 먼저 것은 남자아이의 피이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어떤 일반 법칙도 나쁘지는 않다. 여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주는 여성이 덜 가진 힘에 대한 아주 당연한 별충으로, 이것이 없다면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되지 않고 노예가 될 것이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순종하면서도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 재능의 뛰어난 때문이다. 여자에게는 다 불리한 것뿐이다. 우리 남자들의 결점들이며 여자의 소심함과 약함. 유리한 것이라고는 그 재간과 아름다움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여자가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술한 사고로 망가지고,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습관이 그 효과를 깨뜨린다. 재치만이 여성의 진짜 밑천이다. 사교계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어리석은 재치는 아니다. 여성의 상태에 맞는 재치, 남성의 상태를 이용하고 남성의 특권을 자기 것으로 행사하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다. 여자들의 이러한 재간이 우리 남자들에게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남녀 교제에 얼마나 매력을 곁들여 주는 것인지를, 아이들의 극성을 억누르는 데 얼마나 힘이 되어 주는지를, 난폭한 남편들을 얼마나 견제하는지를, 이것 없이는 불화로 어지러워질 알뜰한 살림살이를 얼마나 지탱해 해 주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간사하고 심술궂은 여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악덕은 무엇을 악용하지 않는가? 악인들이 때때로 남을 해치는 데 쓴다고 해서 행복의 연장들을 부수질랑 말자.

몸치장으로 빛날 수는 있어도, 남의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사람됨에 의해서뿐이다. 우리가 걸친 옷은 우리 자신은 아니다. 너무 꾸미다가는 보기 흉해지기가 일쑤이고, 입을 사람을 가장 눈에 띄게 하는 옷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이기가 일쑤이다. 이 점에 있어 여자 교육은 완전히 틀려 있다. 그녀들에게 상으로서 몸치장을 약속하고 있고, 그녀들더러 너무 꾸민 옷치장을 좋아하게 만들고 있다. “그녀는 얼

마나 아름다운가!” 여자들이 굉장히 차려입었을 때 이런 말을 해 준다. 전혀 반대로 이토록 지나친 옷치장은 결점을 감추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미인의 진짜 승리란 그 사람됨에 의해서만 빛나는 일이라고 알려 주어야만 할 것이다. 얼굴은 유행과 더불어 바뀌지 않으며, 그 모습은 언제나 같아 한번 어울리던 것은 늘 어울리게 마련이므로, 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악취미다.

처녀가 옷치장으로 으스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거저 꾸민 모습과 또 그것에 대해 남이 할지도 모를 생각 때문에 나는 불안해 보일 것이다. 나는 말할 것이다. 이 온갖 치장이 그녀를 지나치게 꾸미고 있어 유감이군요. 그녀가 더 수수한 치장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런 것들이 없어도 될 만큼 그녀는 아름다운가요? 그러면 아마 그녀가 맨 먼저 자기의 치장을 벗기고 판단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찬해 줄 경우다. 그럴 여지가 있다면 말이다. 그녀가 가장 수수하게 차려입었을 때밖에는 나는 이런 칭찬을 해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몸치장을 몸맵시의 군더더기로밖에는, 남의 마음에 드는 데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자백으로밖에는 보지 않게 되면, 자기 옷치장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단장했을 때 “누가, 참 아름답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분해서 얼굴을 붉힐 것이다.

하기야 몸치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호화로운 옷치장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값비싼 몸치장은 신분의 자랑이지 그 사람의 자량은 아니어서, 편견에서만 말미암은 것이다. 진짜 멋부림이란 때로는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결코 야단스럽지는 않으며, 유노<sup>10)</sup>는 비너스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었다. 굉장히 몸치장을 한 헬레네를 그리던 앙테리 화가더러 아펠레스는 말했었다, “자네는 그녀를 미녀로 만들 수가 없어 부자로 만들고 있다”<sup>11)</sup>고, 나는 또한 가장 야단스러운 몸치장은 못생긴 여자의 표시이기가 일쑤라는 사실도 알아채었다. 이보다 더 어설픈 허영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안목이 있어 유행을 무시하는 처녀에게 리본이나 사(紗)나 모슬린(mousseline)이나 꽃들을 주어 보라. 다이아몬드나 술이나 레

10) 유노(Junon)는 유피테르(주피터, 제우스)의 왕비.

1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교육자(Pédagogue)》Ⅱ, 12.

이스 없이도,<sup>12</sup> 뒤샹프트<sup>13\*</sup>의 온갖 번쩍대는 장신구로 한 것보다 백배나 더 매력 있게 보일 몸치장을 하게 될 것이다.<sup>13</sup>

좋은 것은 언제나 좋아, 되도록이면 언제나 가장 좋게 해야 하므로, 옷차림에 밝은 여자들은 좋은 것들을 택해 그것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를 모르는 여자들보다는 옷에 신경을 덜 쓴다. 진짜 몸치장에는 장식이 별로 소용없다. 양가의 아가씨들이 야단스러운 화장을 하는 일은 드물다. 일이나 공부로 종일을 보낸다. 그런데도 대체로 그녀들은 루즈만 빼고는 귀부인들 만큼이나 공들여, 흔히는 더욱 나은 안목을 가지고 몸차림을 한다. 지나친 화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허영심보다는 훨씬 더 권태에서 오는 것이다. 화장방에서 6시간을 보내는 여자는, 거기서 반시간밖에 보내지 않는 여자보다 더 잘 단장되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력나는 긴 시간을 그만큼 줄이는 것으로, 만사에 싫증이 나기보다는 자신을 즐기는 편이 나은 것이다. 화장이 없다면 오정에서 9시까지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옆에 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애를 태워 주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벌써 여간 일이 아니다. 그 시간에밖에는 보이지 않는 남편과의 대담을 피하게 되는데, 이것은 훨씬 더 한 일이다. 그리고는 상인들·골동품상들·시시한 신사들·시시한 작가들·시·노래·팸플릿 등등이 온다. 몸단장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이 이토록 잘 모여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일에서 오는 유일한 실지 이득은, 옷을 차려입었을 때보다는 얼마간 더 허물없이 말할 핑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도 어찌면 생각하는 만큼 큰 것은 아니어서, 화장방의 여자들도 제대로 말하는 한 덕 보는 것은 없다. 여자의 교육은 염려 말고 여자들에게 맡겨, 같은 여자를 보살피 주기를 좋아하게 만들라, 조심성을 갖도록, 살림을 돌볼 줄 알아 자기네 집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 주라, 야단스러운 몸단장이 절로 없어질 것이고, 더 나은 취미로 차려입게 만 될 테니까.

12 레이스 없이도 될 만큼 피부가 흰 여자들이 레이스를 걸치지 않으면, 딴 여자들이 몸시 분해 할 것이다. 미녀들이 바보처럼 따라가는 유행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언제나 못생긴 여자들이다.

13\* La Duchapt는, 파리의 로페라 근처에 있던 유명한 장신구 상점 여주인.

어린 여자들이 자라면서 맨 먼저 알아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매력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온갖 거족의 매력으로는 족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는 없으며, 그렇게 일찍부터 멋을 부릴 처지도 못 된다. 그러나 이미 자기 동작들에 기분 좋은 태를, 자기 목소리에 듣기 좋은 억양을 주려고, 자신의 태도를 꾸미려고, 가볍게 걸으려고, 우아한 자태를 가지려고, 모든 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려고, 애쓸 수는 있다. 목소리는 폭이 생겨 또렷해지고 잘 울리게 되며, 팔은 발달되고 걸음걸이는 틀이 잡혀, 어떤 식으로 차려입었건 남더러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바늘이나 손재주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재능들이 나타나 그 쓸모를 벌써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엄한 교사들은 소녀들에게 노래도 춤도 즐거운 어떤 예능도 가르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인가? 사내아이들에게? 그러한 재능들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느 쪽인가? 어느 쪽도 아니라고 그들은 대답하겠지. 속된 노래들은 다 죄악이다. 춤은 악마가 만들어 낸 것이다. 소녀는 재미로써 공부와 기도밖엔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10살 난 아이에게는 얼마나 괴상한 재미인가! 나로서는 어릴 때를 하느님께 기도하며 보내도록 강요당하는 이 꼬마 성녀들이 다 청춘기를 판이한 일로 보내는 것이 아닌지, 또 시집가서는 처녀 때 허비한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을 힘껏 벌충하는 것이나 아닌지 매우 걱정이다. 성 못지않게 나이에도 알맞은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소녀가 자기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안 된다고, 발랄하고 명랑 쾌활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그 나이의 죄 없는 온갖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착해져 더욱 진지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때는 너무 일찍만 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 자체는 실제로 있는 것일까? 이것 또한 우리의 편견의 소산이 아닌가? 정숙한 여자들을 한심한 의무들에만 얽매이게 함으로써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결혼 생활에서 몰아 내고 말았다. 집안에 감도는 침묵이 남자들을 밖으로 내몬다 해서, 그토록 비위에 거슬리

는 처지에 뛰어들 염이 별로 나지 않는다 해서 놀라야 하겠는가? 기독교는 모든 의무들을 너무 과장시켜 실천하지 못할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여자들에게 노래와 춤과 세상의 모든 재미를 너무 금지하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는 퐁하고 잔 소리 많고 귀찮은 여자들로 만들고 있다. 결혼 생활을 이토록 엄한 의무들에 굴종케 하는 종교도 없지만, 이토록 신성한 약속이 이토록 무시당하게 두는 종교도 달리 없다. 아내들을 상냥해지지 않도록 하도 기를 쓰고 막다가 남편들을 무관심하게 만들고만 셈이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말하겠다, 기독교도들도 필경은 인간이니까 말이다. 나로서는 어느 알바니아 처녀가 이스파한의 하렘을 위해 상냥해지는 재간을 가꾸는 것과 같은 정성을 가지고 영국의 처녀도 앞날의 남편 마음에 들도록 그런 재간을 가꾸었으면 한다. 남편들이란 그러한 재간엔 별로 관심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겠지. 그러한 재간이 남편 마음에 드는 데 쓰이지 않고 남편의 체면을 깎는 젊은 파렴치한들을 집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구실밖에 하지 않을 때는 분명 그렇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간을 갖추고 그것을 남편을 즐겁게 하는 데 바치는 귀엽고 씩씩한 아내도 그의 생활의 행복을 늘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친 머리로 서재에서 나오는 남편이 레크리에이션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마다가 공동의 재미를 위해 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을 아무도 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한 가정에 있게 마련인 신뢰와 친밀감이, 거기서 맛보게 되는 정다운 기쁨들이, 바깥의 쾌락들의 그 야단스러움을 메꾸어 주는지 아닌지를 말해 보라.

상냥해지는 재간들은 너무나 기술화되고 말았다. 너무나 일반화시켜 버린 것이다. 온통 격률이나 교훈으로 만들어 버려, 여자아이들에게는 재미나 명랑한 놀이에 불과해야만 할 것을 따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늙은 춤 선생이나 노래 선생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저 웃고 싶기만 한 여자아이들 앞에 나타나, 그 시시한 학문을 가르치겠다고, 교리 문답 때보다도 더 현학적이고 더 거만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는 이상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은 통 짐작이 가지 않는다. 예컨대 노래하는 기술은 꼭 악보에서만 오는 것일까? 음표 하나 모르더라도 소리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만들 수는, 멋있게 노래하고 반주하는 법까지도 배울 수는 있지 않을까? 같은 종류의 노래는 모든 목소리에 다 맞는가? 같은 방법은 모든 머리에 다 맞는가? 같은 자세, 같은 걸음걸이, 같은 동작, 같은 몸짓, 같은 춤이, 활발하고 씩씩한 갈색 머리의 키 작은 여자에게도, 가슴츠레한 눈의 키 큰 금발 미녀에게도 어울린다고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선생이 이 두 여자에게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말하겠다. 이 사람은 자기 식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지, 자기 예술에는 청맹과니라고.

소녀들에게는 남선생과 여선생의 어느 쪽이 필요한가?라고들 묻는다. 나도 모르겠다. 어느 쪽도 필요하지 않아 마음 내키는 대로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배웠으면 하며, 야단스럽게 차린 그 술한 광대들이 노상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자들과의 사귀이 소녀들에게는 그자들의 수업이 유익한 이상으로 해롭지 않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그들의 변말이나 말투, 태도가, 자기네에게는 그토록 중요하나 제자들도 곧 본받아 유일한 일거리로 삼게 될 그 경박한 짓들에 대한 첫 취미를 제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는 믿기 어렵다.

재미만이 목적인 예능들에 있어서는 모두가 소녀들의 선생 구실을 할 수 있다. 아버지 · 어머니 · 오빠 · 언니 · 여자 친구들 · 여성 가정 교사들 · 거울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의 취미가 남이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그녀들이어야만 한다. 상이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공하기를 바라는 일이 바로 첫 성공이 되는 것은 특히 이런 유의 공부에 있어서이다. 또 설사 정규 수업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수업을 해 줄 사람들의 성(性)을 나는 정하지는 않겠다. 남자 춤 선생이 어린 제자의 고운 흰 손을 꼭 잡아야만 하는지, 제자더러 치마를 걷어 올리게, 눈을 치뜨게, 두 팔을 벌리게, 파닥거리는 젖가슴을 내밀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나로서는 단연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손재주와 재능들에 의해 취미는 형성된다. 취미에 의해 정신은 차츰차츰 온갖 종류의 미(美)의 관념들에, 그래서 마침내는 이와 관련된 도덕관념들에 눈뜨게 된다. 아마 이것이 예절에 대한 깨달음이 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일



찍 배어드느냐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올된 깨달음을 여성 가정 교사들 탓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녀들의 수업 방식과 인간 정신의 발걸음을 통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테니까. 말하는 재능은 남의 환심을 사는 기술의 으뜸이어서, 감각들이 습관 때문에 예사가 되고 마는 매력들에 새로운 매력들이 곁들여 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재능만에 의해서이다. 육체에 비단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체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정신이 외모에 생기와 변화를 주는 것은 감정과 관념들의 잇달음에 의해서이고, 긴장된 주의력이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흥미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정신이 일러 주는 이야기에 의해서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녀들이 그토록 빨리 상냥하게 재잘거릴 줄 알게 되는 것은, 뜻을 깨닫기도 전에 말에 억양을 붙이게 되는 것은, 그래서 소녀들은 남자들 말을 알아듣기도 전에 남자들은 그토록 일찍 소녀들 말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갖 이유들 때문이다. 남자들은 감정의 첫 기쁨을 알아채려고 이러한 지혜의 첫 기쁨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자들 말은 나긋나긋하다. 남자들보다는 더 일찍, 더 손쉽게 더 상냥하게 지껄인다. 말이 많다는 비난도 받는다. 마땅히 그래야 하며, 나는 이러한 비난을 기꺼이 칭찬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여자들에 있어서는 입과 눈이 같은 이유에 의해 같이 움직인다. 남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하고, 여자는 남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 말하기 위해 한쪽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한쪽은 취미가 있어야 한다. 주되는 목적으로서 한쪽은 쓸모 있는 것들을, 또 한쪽은 기분 좋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 양쪽의 이야기는 진실이라는 형태밖에는 공통되는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자아이들의 재잘거림은 남자아이들의 그것처럼, “그건 무엇에 소용되느냐?”라는 딱딱한 질문으로가 아니라, “그건 어떤 인상을 주게 될까?”라는, 답하기가 더 쉽지도 않은 다른 질문으로 견제해야만 한다. 아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볼 수도 없는 어린 나이의 소녀들은 누구의 심판자도 아니어서,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의 실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규칙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앞선 법칙에 늘 달려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술한 다른 어려움들도 보이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든 뒤의 어려움들이다. 지금으로서는 소녀들이 참되기 위해서는 참말이라도 상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 그러한 상스러움에 소녀들은 본래 질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도록 교육이 쉽사리 가르쳐 주게 된다. 세상의 사طم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의 예절은 보다 알뜰하고 여자들의 그것은 보다 다정하다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다. 남자는 보다 남의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것 같고, 여자는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 결과로서, 여자들의 성격이야 어쨌든 여자들의 예절은 우리 남자들의 그것보다 거짓이 적어, 첫 본능이 연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 이익보다도 내 이익을 앞세우는 체할 때는, 이 거짓을 어떤 야단스러운 말로 발라맞추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나는 갖게 된다. 그러니 예절을 지킨다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전혀 힘드는 일은 아니며, 따라서 소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배우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다. 첫 가르침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고, 기술이 할 일이라고는 이 가르침을 쫓아가, 우리의 관습에 따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뿐이다. 여자들끼리의 예절로 말하면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하도 어색한 태도와 냉정한 조심성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거북해 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감추려 들지도 않아, 꾸며 대려는 생각조차 없이 거짓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소녀들은 더욱 솔직한 우정을 진심으로 갖는 수가 있다. 그 나이에는 쾌활이 천성을 대신하며,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그녀들은 모든 사람에 만족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탐내게 마련인 애정의 표시로 그들의 욕망을 탈 없이 자극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녀들은, 남자들 앞에서는 더욱 신이 나서 서로 키스를 하고 더욱 뽀시 있게 서로 어루만진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년들에게 주제넘은 질문들을 하게 두어서 안 된다면 더구나 소녀들에게는 못하게 해야 한다. 숨겨진 비밀을 떠보는 그 예리한 눈과 그것을 밝혀 내는 재간에 비추어, 그 호기심을 채워 주거나 잘못 피하다가는 큰코다치게 되니 말이다. 차라리 그녀들에게 질문을 당하지 말고 이쪽에서 자꾸만 질문을 해서 지껄이게 만들도록

유의했으면, 그래서 쉽사리 말하도록 꼬드겨 주기 위해, 얼른 대꾸가 나오게 해 주기 위해, 위험 없이 그럴 수 있는 동안에 머리와 혀를 풀어 주기 위해, 그녀들을 성가시게 굴어 주었으면 한다. 노상 즐거움이 되면서도 능란하게 안배되어 제대로 이끌려 나가는 이러한 대화들은, 그 나이에는 매력 있는 재미가 되어 줄 것이고, 어떤 장점들을 남자들은 정말로 존경하며 정숙한 여인의 명예와 행복은 어떤 점에 있는가를 그녀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미끼삼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순진한 어린 마음속에 도덕적인 첫 교훈들을, 어찌면 또 평생에 얻게 될 가장 유익한 교훈들을 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자아이들이 종교에 대한 참된 어떤 관념도 품을 능력이 없다면, 같은 관념이 더구나 여자아이들의 이해력은 넘어서는 것은 뻔한 일이다. 내가 여자아이들에게는 더 일찍부터 종교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이 심오한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영영 그 이야기를 해 주지 못하고 말 위험을 저지르게 될 테니까. 여자들의 이성이란, 어떤 알려진 목적에 이르는 수단은 아주 익숙하게 발견케 해 주지만 그 목적 자체는 발견케 해 주지 않는 실천적인 이성이다. 양성의 결합 관계는 감탄할 만하다. 여자는 그 눈이 되고 남자는 그 팔이 되는 하나의 정신적 인격이 이 결합에서 생겨나지만, 서로가 하도 의존되어 생겨나기 때문에, 여자가 보아야 할 바를 배우는 것은 남자한테서이고, 남자가 해야 할 바를 배우는 것은 여자한테서일 정도다. 만일 여자가 남자 못지않게 원리들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못지않게 세밀한 머리를 갖고 있다면, 노상 서로 독립되어 있는 양자는 끝없는 불화 속에서 살게 되어, 그 결합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를 지배하는 조화 속에서 모두는 공동 목적을 지향해, 어느 쪽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저마다가 상대방의 충동에 따르고 저마다가 복종해, 둘이 다 지배자이다. 여자의 처신은 세론에 얽매인다는 바로 그 때문에 그 신앙은 권위에 얽매인다. 딸은 다 어머니의 종교를, 아내는 다 남편의 종교를 가져야 한다. 그 종교가 가짜인 경우라도, 어머니와 딸을 자연 질서에 따르게 하는 순종심이 잘못된 죄를 하느님 앞에서 지워 준다. 스스로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그녀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결정을

교회의 그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신앙의 규칙을 자기 혼자만으로는 끌어내지 못하는 여자들은, 명증(明証)과 이성의 제한들을 자기 신앙에 가하지 못하고, 술한 외부 충동에 끌려만 다녀 언제나 진실의 이쪽 아니면 저쪽에 있다. 언제나 극단적이어서 아주 무신앙자 아니면 골신자며, 지혜와 신앙심을 아울러 가질 줄 아는 여자라곤 보이지 않는다. 악의 근원은 비단 여성의 지나친 성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의 잘못 가다듬어진 권위에도 있다. 행실의 방종함이 권위를 깔보게 만들고, 뉘우침의 두려움이 권위를 포학하게 만들어, 그래서 권위는 항상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마련이다.

권위가 여자들의 종교를 정해 주어야 하는 만큼 여자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애매한 관념들에 주어지는 신앙은 광신의 시초이고,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강요당하는 신앙은 광기나 무신앙으로 끌고 가게 마련이니까. 우리의 교리 문답이 무신앙자나 광신자가 되는 어느 쪽의 원인이 더 되는지는 나도 모르나, 어느 한쪽을 꼭 만들어 낸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소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려면 첫째로 그것이 우울하거나 따분한 일거리가 결코 되지 않도록, 과제나 숙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라. 따라서 종교에 관련되는 것은 무엇이건, 기도조차도 결코 외게 하지 말라. 소녀들 앞에서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옆에 있도록 강요하지는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는 짧게 하라. 언제나 기도에 어울리는 조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우리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최고의 존재에게 부탁드릴 때는 자기도 자기가 하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마땅하다는 점을 생각하라.

소녀들이 자기 종교를 일찍 알게 된다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만큼은, 더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은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녀들에게 종교를 귀찮은 짐이 되게 해 준다면, 자기들에게 화만 내는 하느님으로 늘 그려 보여 준다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만 가지 힘드는 의무만 과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보는 일이 없다면, 교리 문답을 알고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소녀들만의 의무이니, 여러분처럼 그러한 구속 모두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커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본보기, 본보기! 이것 없이는 아이들에 대해 결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신앙 조목들을 가르쳐 줄 때는, 문답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지도의 형식이 되도록 하라. 소녀들은 남이 일러 준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답해야 한다. 교리 문답의 답은 다 거꾸로 되어 있어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제가 믿지도 못하는 것을 단정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에서는 그 답들이 거짓말까지도 된다. 가장 총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리 문답을 말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보여 주기 바란다.

우리네 교리 문답에 보이는 첫 질문은 이렇다. “누가 너를 만들어 낳아 주었는가?” 그것은 자기 어머니라고 믿으면서도 소녀는 주저 없이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소녀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물음에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이들의 정신의 발걸음을 알 만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교리 문답을 만들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아마 그것은 일찍이 쓰인 책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책이 될 것이고, 또 내 생각으로는 그 저자에게 적은 명예를 줄 책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 책이 잘 된 책이라면 우리네 교리 문답 책들과는 통 닮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교리 문답은, 묻기만 하면 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답을 하게 될 경우 밖에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때로는 아이 쪽에서 질문하는 수도 있을 것은 물론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키려면 본보기 같은 것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 내게는 모자라는 점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개념이나마 주도록은 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교리 문답의 첫 질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체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부      너희 어머니가 어릴 때 생각이 나니?

소녀          아니, 아줌마.

가정부      왜 안 나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네가?  
소녀      난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 걸요.  
가정부      그러니 늘 살고 있었던 건 아니군.  
소녀      그럼요.  
가정부      언제까지나 넌 살아 있을 거냐?  
소녀      그래요.  
가정부      넌 어리니, 늙었니?  
소녀      난 어려요.  
가정부      그럼 너희 할머니는, 젊었니 늙었니?  
소녀      늙었지요.  
가정부      할머니도 젊을 때가 있었니?  
소녀      그럼요.  
가정부      왜 이젠 젊지가 않지?  
소녀      늙었으니까요.  
가정부      너도 늙어질 거냐?  
소녀      몰라요.<sup>14</sup>  
가정부      작년에 입던 네 옷들은 어디 있지?  
소녀      없애 버렸어요.  
가정부      왜 없애 버렸지?  
소녀      내겐 너무 작으니까요.  
가정부      왜 너한테 너무 작지?  
소녀      내가 컸으니까요.  
가정부      또 클 거냐?  
소녀      암! 그럼요.  
가정부      크면 뭐가 되지?

14 “몰라요”라고 내가 쓴 데서 만일 소녀가 달리 대답한다면, 그 대답을 믿지 말고 조심스레 설명을 시켜 보아야 한다.

소녀            아내가 되요.

가정부        아내는 뭐가 되니?

소녀            엄마가 돼요.

가정부        엄마는, 뭐가 되지?

소녀            할머니가 되지요.

가정부        너도 그럼 할머니가 될 거냐?

소녀            엄마가 되고 나서요.

가정부        그럼 노인들은 뭐가 되지?

소녀            몰라요.

가정부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지?

소녀            돌아가셨지요.<sup>15</sup>

가정부        왜 돌아가셨지?

소녀            늙으셨으니까요.

가정부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되지?

소녀            죽어요.

가정부        그럼 너는, 네가 늙으면, 어떻게……

소녀            (말을 가로채며) 오, 아줌마, 난 죽고 싶지 않아요.

가정부        애야,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진 않아. 하지만 다 죽는 거란다.

소녀            뭐라고요? 엄마도 죽나요?

가정부        모든 사람처럼.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늙고, 늙으면 죽게 되는 거다.

소녀            더디 늙으려면 어떡하면 되지요?

15    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소녀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소녀가 얼마간 정확한 죽음의 관념을 갖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의 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한 것도, 아이들의 이해가 미칠 만한 것도 아니니까. <아벨><sup>16\*</sup>이라는 작은 시 작품에서 우리는, 이 관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넣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볼 수 있다. 이 매력 있는 작품에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려면 아무리 취해도 모자랄 그러한 달콤한 소박함이 풍기고 있다.

16\*   스위스의 언어학자 Gessner(1516~65)의 <아벨의 죽음(La Mort d'Abel)>.

가정부      젊을 때 현명하게 살아야 해.  
소녀        아줌마, 난 늘 현명하게 하겠어요.  
가정부      그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결국 넌 언제까지나 살 것으로 생각하니?  
소녀        내가 늙으면, 아주 늙어 버리면……  
가정부      그래서?  
소녀        결국은 아주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부      그러니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되니?  
소녀        아, 그렇군요.  
가정부      너보다 먼저 산 건 누구지?  
소녀        엄마하고 아빠예요.  
가정부      엄마 아빠보다 먼저 산 건 누구고?  
소녀        그 아빠하고 엄마지요.  
가정부      너 다음에 살게 될 건 누구지?  
소녀        내 아이들.  
가정부      그 애들 다음에 살게 될 건?  
소녀        그 또 애들이지요, 등등.

이러한 길을 따라가면 만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에서도 시작과 끝이 분명한 귀납에 의해 발견된다. 이를테면 부모가 없던 부모와 자식들을 갖지 않을 자식들이 말이다.<sup>17</sup> 이와 같은 질문들이 오래 계속된 다음에야 비로소 교리 문답의 첫 질문의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첫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아이는 그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의 본질의 정의라 할 수 있는 둘째 답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비약이 있어야 하는가! 이 간격은 언제 메꾸어질 것인가? 하느님은 성령이라고!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어른들도 빠져 나오

17 영원의 관념은, 머리의 동의를 얻어 인간의 세대들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화된 수적(數的) 연속은 다 이 관념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기가 그토록 힘든 그 형이상학의 어둠 속으로 나는 아이의 영을 끌어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소녀가 할 일은 아니고, 기껏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질문을 해 오면 나는 그저 이렇게만 답할 것이다. 하느님이 무엇이나고 너는 내게 묻는다. 그건 말하기가 쉽질 않아. 하느님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거든. 그 하시는 일에 의해서밖에는 알려지지 않아.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거든, 그가 하신 일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네 교리들이 다 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중요성도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에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느님의 율법이 과하는 의무들을 사람이 다 알고 이행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나 그 성원 하나하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며, 이거야말로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특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일이다. 동정녀가 창조자의 어머니라든가, 그녀가 하느님을 낳았느냐 아니면 단지 하느님이 합체된 인간을 그녀가 낳았느냐라든가,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는 하나이나 아니면 닮기만 했느냐라든가, 성령은 동일체인 부자의 한쪽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양쪽에서 합쳐져 나오느냐라든가 하는, 보매는 요긴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인류에게는, 부활절을 월령(月齡)의 어느 날에 행해야 하는가를, 묵주신공을 바쳐야 하는가를, 단식을, 소재(小齋)일 금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회에서는 라틴 말로 하느냐 아니면 프랑스 말로 해야 하는가를, 벽들을 그림으로 꾸며야 하는가를, 미사를 올리느냐 아니면 들어야 하는가를, 자기 아내를 갖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이상으로 중요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에 관해서는 저마다가 좋도록 생각할 일이지, 이런 것이 어떤 점에서 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고, 또 나로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다만 내가, 나와 모든 내 동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자식인 인간 운명의 절대 지배자가 있어 우리 모두더러 올바르게, 서로 사랑하도록, 친절하고 자비롭도록,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 적과 그의 적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승의 삶의 허울뿐인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승의 삶 다음에는 또 하나의 삶이 있어 거

기서는 이 최고의 존재가 선인들을 상 주고 악인들을 심판하리라는 사실을 저마다 아는 일이다. 이 교리와 이와 비슷한 교리들이야말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시민들에게 납득시켜 마땅한 교리들이다. 이 교리들을 공박하는 자는 누구나 분명 벌받을 만하다. 질서의 교란자이고 사회의 적이다. 이 교리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 우리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반대되는 길로 해서 같은 지점으로 오게 된다. 자기 나름의 질서를 세우려다가 평화를 어지럽히고, 무모란 자만심에서 스스로 신의 통역이 되어,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며, 가능하면 하느님 대신 제가 하느님이 되기도 한다. 불관용자로서는 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의 모독자로서는 별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관념 없는 말들에 불과한 이 모든 수수께끼 같은 교리들은, 그 헛된 연구가 그것에 몰두하는 자들에게는 미덕을 대신해 주어 그들을 선인보다는 오히려 왕인으로 만드는 구실을 하는 이 모든 엉뚱한 교의(敎義)들은 무시하라. 도덕과 관련되는 교리들의 좁은 테두리 안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늘 붙들어 두라.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밖에는 알아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납득시켜 주라. 여러분의 딸들을 신학자나 이론가로 만들지 말고, 하늘나라 일들은 인간의 지혜에 힘이 되는 것밖에는 가르쳐 주지 말라. 자기가 늘 하느님의 감시하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느님을 자신의 행동·생각·미덕·기쁨의 증인으로 삼도록, 하느님은 선행을 사랑하니까 떠벌이지 말고 선행을 하도록, 괴로움은 하느님이 보상에 줄 테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괴로움을 참아 내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오기를 잘 했다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도록, 그녀들에게 버릇을 들여 주라. 이거야말로 참된 종교이고, 악습에도 불경건에도 광신에도 물들지 않는 유일한 종교다. 더 숭고한 종교들을 전도하고 싶거든 얼마라도 하라, 나로서는 이것 아닌 딴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성이 밝아지고 싹트는 감정이 양심더러 말하게 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소녀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남이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금지하는 것은

나쁜 일인 것이다. 그 이상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녀들 가까이에 있어 어떤 권위를 갖게 될 사람들의 선택이 남자아이들의 경우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마침내 그녀들이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가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 계획도 바꿀 때이다.

이 이야기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여자들에게 법칙으로서 일반적인 편견들밖에는 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녀들을 어디로 몰아넣게 될 것인가? 우리를 다스리는 여성, 우리가 타락시키지만 않으면 우리를 명예롭게 해 주는 여성을 이 지경에까지 떨어뜨리질랑 말자. 세론에 앞서는 하나의 규범이 온 인류에게는 존재한다. 판 모든 규범들이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 규범의 곳곳한 방향이다. 이 규범은 편견까지도 심판하며,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대권 위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 규범과 일치되는 한도 안에서 만이다.

이 규범이란 내면 감정이다. 앞서 말한 바를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두 가지 규범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여성 교육은 노상 불완전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세론을 떠난 감정은 세상의 명예로 훌륭한 행실을 꾸며 주는 그 섬세한 마음씨를 그녀들에게 주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감정을 떠난 세론은 미덕 대신 허울을 내세우는 불성실한 거짓 여성들밖에는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자들에게는, 이 두 길잡이 사이의 중재자 구실을 맡아 양심은 해매게 두지 않고 편견의 잘못은 바로잡아 주는 능력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이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술한 질문들이 밀어닥치는가! 여자들은 빈틈없는 추리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여자들이 그런 추리력을 연마한다는 것은 요긴한 일인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연마해 내게 되겠는가? 이러한 연마는 그녀들에게 과해진 직분들에 유익하며, 그녀들에게 알맞은 단순성과 양립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상반되는 극단에 빠져, 더러는 아내를 살림살이에서 하녀들과 함께 바느질하고 실 찾는 일에만 그치게 해, 가장을 섬기는 우두머리 하녀로 삼고 있다. 또 더러는 아내의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남성들의 그것까지도 가로채게 만들고 있다. 왜

나하면 아내를 여성 본래의 장점들에 있어서는 우리 남성보다 낮게 두고, 나머지 모두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자연이 남편에게 주는 의무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자더러 자신의 의무들을 깨닫게 하는 이성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여자더러 자신의 의무들을 깨닫게 하는 이성은 훨씬 더 단순하다. 여자의 의무인 남편에 대한 순종 · 충실과 아이들에 대한 자애 · 정성은, 여성의 처지에서 오는 하도 자연스럽고 분명한 결과이기 때문에, 악의 없이는 자기를 이끄는 내면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또 아직은 변질되지 않은 성향 속에서 이 의무를 무시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한 여자가 여성의 일들에만 얽매어 나머지 모두에 대한 심한 무지 속에 놓여 있다 해서 나는 덮어 놓고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러려면 일반의 풍습이 아주 소박 건전하거나, 아주 외딴 생활을 하거나 해야만 한다. 큰 도시에서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여자는 너무나 쉽사리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녀의 미덕은 흔히 우연에서 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 철학의 시기에는 시련을 견뎌 내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남이 자기에게 할지도 모를 말과 그것에 대해 자기가 생각해야 할 바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더러 남자들 판단에 순종하게 마련인 여성은, 남자들의 존경도 받을 만해야 한다. 특히 남편의 그것을 얻어야 한다. 남편더러 자기를 사랑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편이 한 선택이 옳았음을 여럿 앞에서 증명해 보여, 자기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남편이 존경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의 제도에 관해 무지하고, 우리의 관습이나 예의범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판단의 근원도, 판단을 결정짓는 정념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일에 있어 어떻게 처신해 나가겠는가? 여성은 자신의 양심과 남들의 의견에 동시에 묶여 있는 만큼, 이 두 규범을 비교하고 일치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서로 어긋날 때에는 전자만을 택하도록 배워야 한다. 자기 심판자들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에 따라야 할 경우와 거부해야 할 경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편견을 거부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그것을 살펴본다. 그 편견들의 근원에

저슬러 올라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법을, 그것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의무가 남의 비난을 피하도록 허용할 때는 그런 비난을 사서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도 자신의 재치와 이성을 기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되지 않을 일이다.

나는 늘 원칙으로 되돌아오며, 원칙이 나의 모든 어려움에 해답을 제공해 준다. 나는 있는 것을 연구해, 그 원인을 탐구하다가 마침내는, 있는 것은 다 좋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나는 내외가 다 환대해 주는 개방적인 집들에 가 본다. 둘이 다 받은 교육이 같고 똑같이 예의 바르고 똑같은 취미와 재치를 갖고 있어, 손님을 잘 대해 주어 저마다 만족해서 돌아가게 하려는 같은 욕심에 들떠 있다. 남편은 만사에 주의하려고 어떤 배려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고 살살이 살피고 다녀 수고가 많다. 주의투성이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아내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적은 무리가 그녀 둘레에 모여 있어 나머지 사람들을 그녀 눈에서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하나 일어나지 않고, 그녀가 말을 건네기 전에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은 하나 빠뜨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분 좋지 않을 말은 한 마디 하지 않았으며, 질서를 전혀 어지럽히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보다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도 없다. 식사가 차려져 다들 식탁에 앉는다. 서로 뜻 맞는 사이를 알고 있는 남편은 그대로 손님들을 앉힐 것이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눈이나 태도에서 그런 기분을 눈치채었을 것이고, 모두가 저마다 바라는 자리에 앉혀질 것이다. 식사 시중에서도 아무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빈틈없이 살피는 가장은 아무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누가 탐이나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내놓는다. 자기 옆 사람과 말하면서도 한눈은 식탁 끝에 가 있다. 시장하지가 않아 통 먹지 않는 사람과, 어색하거나 소심해서 집어 오거나 집어 달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분간한다. 식탁에서 일어설 때는 안주인이 자기 생각만 해 주었다고 저마다가 믿는다. 그녀가 단 한입이라도 먹을 틈이 있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이 먹은 것이다.

모두가 떠나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남편은 누가 자기에게 한 말이냐, 같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말하거나 한 일을 보고한다. 아내가 보다 빈틈없는 것은 반드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신 방 저쪽 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지껄여진 일은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말이냐 어떤 몸짓이 무엇에 관계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거의 언제나 어김없는 해석을 당장에 내린 적이 없는 어떤 뜻있는 동작이라고는 한 번도 행해진 일이 없을 정도이다.

손님을 환대하는 솜씨에서 한 사교계 여자를 뛰어나게 하는 바로 그 주변머리가, 여러 구애자를 얼버무려 넘기는 솜씨에서 한 교태부리는 여자를 뛰어나게 만든다. 교태의 잔꾀는 예의범절의 잔꾀보다 더 섬세한 분별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예의 바른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기만 하면 언제나 제대로 잘 한 것이 된다. 그러나 교태부리는 여자는 그렇게 서투르게도 한결같이 굴다가는 당장에 지배력을 잃고 말 테니까. 모든 애인들에게 다 잘 하려다가는 모두를 넌더리나게 만들 것이다. 사교계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하나하나에게도 역시 마음에 들게 마련이다. 제대로 대우만 받는다면 특별 대우 같은 것을 가지고 굳이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랑에서는 독차지되지 않는 호의는 하나의 모욕이다. 민감한 남자라면 딴 사람 모두와 함께 애무를 받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구박받는 것이 백배나 더 나을 것이며,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일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 애인을 간직하고 싶은 여자는 그 하나하나에게 자기만 좋아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하고, 그나마 딴 남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 남자가 보는 앞에서 똑같이 납득을 당하는 딴 남자들 앞에서 말이다.

당황하는 꼬락서니가 보고 싶은가? 한 남자를 양쪽과 다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여자 사이에 두어 보라. 그리고는 그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얼굴을 하는가를 관찰하라. 두 남자 사이에 한 여자를 같은 처지에 두어 보라(이런 예는 분명 더욱 보기도 드문 일도 아니겠지만), 둘을 다 속아 넘겨 서로 상대방을 비웃게 만들게 될 그 능란한 솜씨에 여러분은 감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일 똑같은 신임을 보이

고 똑같이 친밀하게 대해 준다면, 이 남자들은 어떻게 잠시나마 속아 넘어가겠는가? 똑같이 대해 주다가는 그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혀 보이는 것이 되지 않았는가? 천만에, 그녀는 얼마나 더 멋있게 해치우는가!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기는커녕 차별을 두는 체한다. 하도 잘 하기 때문에 그녀가 다정하게 굴어 주는 쪽은 그것이 애정 때문인 줄로 믿게 되고, 냉대받는 쪽은 그것이 원망 때문인 줄로 믿게 된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뒤통에 만족해 그녀가 자기 생각만 해 주는 줄 알지만, 실은 그녀 자신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 것이다. 환심을 사려는 일반적인 욕망 속에서 교태가 이러한 수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변덕은 현명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반감을 살 따름일 것이고, 여자가 변덕을 가지고 자기 노예들을 묶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변덕을 교묘하게 안배함으로써이다.

*Usa ogn'arte la donna, onde sia colto*

*Nella sua rete alcun novello amante;*

*Ne con tutti, ne sempre un stesso volto*

*Serba, ma cangia a tempo atto e sembiante,*

새 애인을 그물로 낚으려고

여자는 갖은 꾀를 다 쓴다;

모든 남자에 대해, 모든 시간에, 얼굴이 달라,

때에 따라 태도와 모습이 바뀐다.<sup>18\*</sup>

이러한 재주는 다, 여자더러 남자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순간마다 알아채게 해 주어, 그녀가 눈치채는 숨은 충동마다에 그것을 가라앉히거나 부추기는 데 필요한 힘을 가하도록 해 주는 예민하고도 끊임없는 관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재주는 배워지는 것일까? 아니다, 여자들과 함께 태어나는 것이다. 여자들은 다 그것을 지니고 있고, 남자들이 같은 정도로 그것을 지니는

18\* 타소의 《해방된 예루살렘》Ⅳ, 87.

일이란 결코 없다. 여성의 특징의 하나가 이것이다. 약빠른 재치 · 통찰력 · 예민한 관찰력이 여자들의 지능이고, 이 지능을 이용하는 능란한 솜씨가 그녀들의 재능이다.

이상은 있는 그대로이고, 또 왜 그래야만 하는가도 보아 왔다. 여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들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자들 고유의 천분은 재치이지 거짓은 아니다. 여성의 진짜 성향으로 보아서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이다. 말해야 하는 것이 그녀들의 입이 아닌데도 왜 그 입에서 본심을 알아 내려고 하는가? 그녀들의 눈 · 안색 · 호흡 · 겉 많은 태도 · 무른 저항에서 알아 내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답하도록 자연이 그녀들에게 주는 언어다. 입은 언제나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해 마땅하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지는 억양은 늘 같지 않으며, 이 억양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남자들처럼 욕구를 표명할 권리가 없다 해서, 남자들과 같은 욕구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인가? 만일 정당한 욕망을 갖고도, 여자가 감히 쓰지 못하는 언어와 맞먹는 판 언어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여자의 운명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될 것이다. 수줍음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하는가? 자신의 마음 풀림을 드러나지 않게 전달하는 재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 가게 만들기 위해, 여자에게는 얼마나 능란한 솜씨가 있어야 하는가? 남자 생각은 하지도 않는 채하면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갈라테이아의 능금과 그녀의 서투른 뺑소니는 정말로 매력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sup>19)</sup> 그녀는 무엇을 또 덧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수양버들 사이로 자기를 뒤쫓는 목동더러, 그를 유인할 속셈으로만 자기가 도망 온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유인하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여자란 조심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자기 남편에 대해서조차 재간을 부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태도 한도만 지킨다면 겸손하고 참된 것이 되어, 정숙함의 법칙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겠다.

19)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목가(Bucoliques)》Ⅲ, 64~72에서, 능금을 던지고 달아나는 갈라테이아의 약은 수작을 그리고 있다.



미덕은 하나라고, 내 적수 한 사람<sup>20\*</sup>이 말했지만 지당한 말이다. 그 한 부분은 반 아들이고 또 부분은 버리기 위해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미덕을 사랑할 때는 온전한 것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며, 가져서 안 될 느낌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자기 마음을, 더구나 입은 언제나 열어 주지 않는 법이다. 도덕적인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백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그 자백이 없었더라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가령 내가 도둑질에 마음이 끌렸다 하고 그 말을 해서 또 사람을 공범자가 되도록 유인한다면, 유혹된 내 마음을 그에게, 알려 주는 일 자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수줍음이 여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말을 여러분은 왜 하는가? 수줍음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여자들이 그래 또 여자들보다 더 참되단 말인가? 어렵없는 소리다. 천 배도 더 거짓말쟁이다. 모두가 지니고 있는 악덕, 간계와 거짓말 덕분에만 지배하는 악덕들 때문이 아니고서는 이 지경으로 타락하게 되지는 않는다.<sup>21</sup> 반대로 아직도 부끄러움을 알아 자기 잘못에 우쭐대지 않는 여자들, 욕망을 끄드려 주는 남자들에게조차 자기 욕망을 감출 줄 알아 그 자백을 얻어 내기가 가장 힘든 여자들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며 모든 약속에 있어 가장 한결같은 여자들이며, 대체로 그 충실성에 가장 기대를 걸 수 있는 여자들이다.

이러한 고찰에 대한 유명한 예외로서 들 수 있었던 여자치고는, 나는 랑클로<sup>23\*</sup>양

20\* 루소의 《학문 예술론》을 비판한 일이 있는 Charles Bordes.

21 어떤 점에 관해 자기 태도를 솔직하게 밝힌 여자들은, 그 솔직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할 작정이어서, 그것 말고는 자기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바보 같은 남자들에게밖에는 그것을 납득시킨 적이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여성의 가장 큰 브레이크를 잃고 나면 그녀들을 붙들 무언이 남게 되며, 그녀들 고유의 명예를 버리고 나면 무슨 명예를 존중하게 되겠는가? 자기네 정념을 일단 제멋대로 굴게 두면 이미 그녀들에게는 그것에 버틸 생각은 없어지고 만다. nec fœmina amissa pudicitia alia abnuerit (여자가 수줍음을 잃었을 때는 버틸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sup>22\*</sup> 이런 말을 한 사람보다도 사람 마음을 납득할 것 없이 더 잘 이해한 작가가 있었겠는가?

22\* 타키투스의 《연대기(Annales)》 IV, 3.

23\* Ninon de Lenclos(1620~1705)는 재치와 미모로 이름난 사교계 여인. 당대의 시인·문사들이 그 집 에 드나들었다.

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랑클로 양은 기적으로 통하기도 한 것이다. 여성의 미덕들을 멸시한 그녀는 우리 남성의 미덕들을 지녔었다고들 말한다. 그녀의 솔직함 · 올곧음 · 빈틈없는 교제 · 충실한 우정이 칭찬받고 있다. 끝으로 그녀의 명예의 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사람들은 그녀가 남장을 했었다고 말한다. 좋다. 하지만 아무리 명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따위 인간을 애인은커녕 친구로 삼을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다 그래 보이는 만큼 당치 않은 것은 아니다. 여성의 수줍음과 그 이른바 거짓됨을 눌러 댄으로써 요즈음의 철학의 격률들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를 나는 알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의 가장 확실한 효과란, 우리 세기의 여자들에게 얼마 안 남아 있는 정조 관념마저 없애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교양이 여자들 머리에 알맞은가를, 또 여자들의 생각을 어려서부터 어떤 대상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여성의 의무들이란 수행하기보다는 알아보기가 더 쉽다. 그녀들이 맨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기네 이익을 생각해서 그 의무들을 사랑하도록 배우는 일이다. 이것이 그것들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어느 처지나 어느 나이에도 의무는 있다. 자기 의무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곧 그것들을 알아보게도 된다. 여자의 처지에 있음을 자랑으로 알라, 그러면 하늘이 당신을 어느 계급에 두건 당신은 반드시 덕 있는 여자가 될 것이다. 요는 자연이 만들어 준 그대로 있을 일이다. 사람들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는 언제나 쉽사리 되는 법이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진리들이나 학문상의 원리 · 공리들의 탐구 같은, 관념들을 일반화시키려 드는 것 모두는 · 여자들이 나설 일이 되지 못한다. 여자들의 공부는

뒤클로(Duclos)의 《xxx 백작의 고백(Confessions du comte de xxx)》 2권에도 나온다. “그녀는 말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에 요구되는 자질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제일 시시한 것만 주고, 주요한 자질들은 남자들이 다 차지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가 된 거예요’라고.”

다 실천과 부합되어야 한다. 남자가 발견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그녀들의 할 일이고, 남자를 원리들의 확립으로 이끌어 주는 관찰을 하는 것이 그녀들 일이다. 여자들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있어서는, 그녀들의 생각 모두는 남자들의 연구나, 아니면 취미만을 목적으로 삼는 즐거운 지식들로 돌려져야 한다. 왜냐 하면 독창적인 일들이란 여자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여자들은 정밀한 학문에서 성공할 만한 정확성이나 주의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연의 인식으로 말하자면, 양성 중에서 보다 활동적이고 보다 많은 대상을 보는 쪽이, 힘이 더 많아 그 힘을 단련하는 쪽이, 눈에 띄는 존재들의 관계와 자연의 법칙들을 판단해야만 한다. 약할뿐더러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여자는, 자신의 약함을 메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원동력들을 평가 판단하는데, 이 원동력들이란 남자의 정념이다. 여자의 메커니즘은 우리 남성의 그것보다 강력해 그 모든 지렛대들이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게 된다. 여성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면서도 필요하거나 기분 좋은 일은 다 우리 남성에게 시키는 재주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정신을 철저히 연구해야 하며, 일반적인 남자를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주위의 남자들의 정신을, 법 때문이건 세론 때문이건 자기가 매여 있는 남자들의 정신을 연구해야 한다. 남자들의 느낌을 그 말·행동·시선·몸짓에 의해 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말·행동·시선·몸짓에 의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기색조차 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느낌들을 남자들에게 넣어 줄 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녀보다는 더 잘 철학적으로 따진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그녀가 그들보다는 더 잘 들여다 볼 것이다. 이를테면 실험적인 도덕을 발견하는 것은 여자들이 할 일이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할 일인 것이다. 여자에게는 재치가, 남자에게는 천분이 더 많아, 여자는 관찰하고 남자는 추리한다. 이 협력의 결과로서,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지식과 가장 완벽한 학문이,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과 남들에 대한 인류의 힘으로는 가장 확실한 인식이 생겨난다. 또 기술이 자연에 의해 주어진 연장을 완성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교계가<sup>24\*</sup> 여자들의 책이다. 이것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녀들의 잘못이고, 아니면 어떤 정념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짜 주부는 사교계 여성이 되기는커녕 수녀원의 수녀 못지않게 자기 집에서 죽인다. 그러나 시집보낼 처녀들에게는 마치 수녀원에 보낼 처녀들에게 해 주거나 해 주어야 하듯이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녀들이 알지 못하는 쾌락들의 가짜 모습이 언젠가는 나타나 그녀들의 마음을 헤매게 하고 그 은거 생활의 행복을 어지럽히지나 앓을는지 염려되는 만큼, 단념하도록 두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버리고 마는 그 쾌락들을 그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처녀들은 수녀원에서 살고 아내들은 사교계를 찾아다닌다. 옛날에는 정반대였었다. 이미 말한 대로 처녀들에게는 술한 놀이와 대중적인 축제들이 있었다. 아내들은 죽치고 살았었다. 이러한 관습은 보다 합리적이어서 풍습을 더욱 잘 유지했었다. 시집갈 처녀들에게는 일종의 교태부리기가 허용되어, 노는 것이 큰 관심거리가 된다. 아내들은 집에 돌볼 일들이 있고, 이젠 신랑감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러한 개혁에서 이득을 보게 되지는 않을 텐데도, 딱하게도 신이 나서 야단들이다. 어머니들이여, 하다못해 자기 딸들을 자기 친구들 속에만마 끼어 주라. 올바른 감각과 정직한 넋을 딸들에게 넣어주라. 그리고 순결한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딸들에게 숨기지 말라. 무도회 · 잔치 · 노름 그리고 연극조차도, 잘못 보면 철없는 젊은이에게는 매력으로 보이는 것도 다, 건전한 눈에는 위험 없이 보여 줄 수가 있다. 그 야단스러운 쾌락들은 잘 보면 볼수록 싫증도 일찍 날 것이다.

반대의 아우성 소리가 솟아오르는 것이 들리는 것 같다. 어떤 처녀가 그 위험한 본보기를 물리치겠는가? 사교계를 보기가 무섭게 처녀들 머리는 돌고 만다. 사교계를 버리겠다는 처녀는 하나도 없다고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 속이는 그림을 보여 주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을 보아도 동하지 않도록 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시켰는가?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 주었는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 보여 주었는가? 허영의 환상들에 대비해 제대로 무장

24\* 또는 “세상이.” Le monde est le livre des femmes; 에서는 le monde가 “사교계”와 “세상”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시켜 주었는가? 그러한 법석 속에 사는 발견되지 않는 진짜 기쁨들에 대한 취미를 젊은 마음속에 넣어 주었는가? 젊은 마음을 해매게 하는 진짜 취미들로부터 지켜 주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대비책을 썼는가? 그녀들 머릿속에 일반적인 편견들의 지배와 맞설 만한 그 무엇을 넣어 주기는커녕 그것들을 복돋우어 주지만 않았는가! 그녀들이 발견하는 온갖 시시한 재미들을 미리 좋아하게 만들어 준 셈이다. 더구나 자신이 그런 것에 빠져들으로써 딸더러도 좋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는 처녀들에게는 자기 어머니밖에는 선생이 없는데, 딸보다도 더 머리가 돌아 있기가 일췌인 어머니는 대상물들을 자기가 보는 것과는 달리 딸들에게 보여 줄 수가 없다. 이성보다도 더 강한 어머니의 본보기는 딸들 자신의 눈에 자신이 옳게 보이게 만들어 주어, 어머니의 권위가 딸에게는 반박의 여지없는 핑계가 된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사교계에 안내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사교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리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하는 말이다.

악은 사뭇 더 일찍 시작된다. 수녀원들은 교태부리기를 가르치는 빈틈없는 학교다. 내가 말한 그 정숙한 교태가 아니라, 여자들의 온갖 괴벽을 빚어 내어 더없이 엉뚱한 선행짓거리들을 만들어 내는 교태의 학교인 것이다. 거기를 나와 단번에 야단스러운 사교계로 들어가는 처녀들은 제자리에 온 것으로 당장에 느낀다. 그녀들은 그런 데서 살도록 교육받아 왔으니 흐뭇해한다 해서 놀랄 것이 무엇인가? 나는 편견을 관찰로 착각하지나 않나 하는 두려움 없이는 내가 하려는 말을 내세우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대체로 가톨릭의 나라들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나라들에 가정의 애착이나 훌륭한 아내들, 다정한 어머니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차이가 일부분은 수녀원 교육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평온한 가정생활을 사랑하려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사로운 어릴 때부터 느껴 와야 하는 것이다. 자기 집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은 부모 집에서만 가능하며, 어머니가 길러 주지 않는 여자는 다 자기 자식 기르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딱하게도 큰 도시들에는 사사로운 교육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 데서는 사교가 하도 넓게 뒤엎혀 있기 때문에, 죽칠 만한 온신처라고는 남아 있지도 않아

자기 집에 있어도 사람들에 둘러싸일 판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보니 가정이 없어지고 말아 자기 부모도 알아보기 힘들다. 남을 대하듯 바라보며, 가정 풍습의 소박함은, 그 매력을 이루던 다정한 친근미와 함께 사라져 간다. 이리하여 이 세기의 쾌락들과, 그것을 지배하고 있음이 분명한 격률들에 대한 취미를 짓과 함께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처녀들의 태를 보고 장가드는 열간이들을 찾아 내기 위해 처녀들에게는 허울뿐인 구속이 가해진다. 그런데 이런 처녀들을 잠시 살펴보라. 어색한 태를 지으면서도 가슴을 태우는 음욕은 제대로 감추지를 못해, 자기 어머니를 닮았다는 불같은 욕망이 이미 그 눈에 엿보인다. 그녀들이 탐내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결혼 생활의 방종이다. 남편 없이 지낼 방편이 그토록 많은데 남편이 무슨 필요인가? 다만 그 방편들을 숨기는 데는 남편이 필요하다.<sup>25</sup> 얼굴은 얄전하나 가슴속에는 방종이 도사리고 있다. 이 거짓 얄전 자체가 그 표시이다. 되도록 일찍 얄전을 떨어 버리기 위해서만 얄전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파리와 런던의 여성들이여,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어디서나 기적이 없지는 않지만, 나로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중의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정숙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우리의 교육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갖가지 교육 모두는 하나같이 처녀들을, 상류 사회의 쾌락들에 대한 취미와, 이 취미에서 금방 생겨나는 정념들에 내어 맡긴다. 큰 도시들에서는 타락이 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도시들에서는 철이 들면서부터 시작된다. 자기네 풍습의 그 바람직한 순박성을 경멸하도록 배운 시골 처녀들은 서둘러 파리에 와 우리의 퇴폐한 풍습을 나누어 가진다. 재능이라는 미명으로 꾸며진 악덕들이 그녀들의 여행의 유일한 목적이며, 와서는 이 고장 여성들의, 고상한 방종과는 하도 동떨어진 자기를 깨닫고는 부끄러워져, 이내 자기도 수도의 여자다운 여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생각에는 악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악이 꾀해지는 곳들에서인가, 아니면 악

25 남자의 젊음 남의 길은 현자도 알지 못하던 네 가지 중의 하나였었다. 다섯째는 바람난 아내의 파렴치다. *quæ comedit, et tergens os suum dicit; non sum operata malum*(그녀는 먹고, 입을 닦는다, 그리고는 말한다. 나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잠언> 30장 20절).

이 행해지는 곳들에서인가?

지각 있는 어머니라면 딸을 시골에서 파리로 데려와 남들에게는 해롭기 짝이 없는 그 광경들을 보여 주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딸이 고약한 교육만 받지 않았으면 그 광경들도 별로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말 하겠다. 취미와 감각과 어엿한 일들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그러한 광경들도, 그것에 매혹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만큼이나 매력 있는 것은 아니다. 파리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고장 사람 흉내를 내어 반년 동안을 인기를 끌다가는 나머지 평생을 놀림감이 되고 마는 그러한 철부지 처녀들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단법석이 지겨워져, 남들이 부러워하는 처지와 비교해 보고는 자기 처지에 만족해 시골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여자들은 누구의 눈에 띄는가? 수도에 얼마라도 정주할 수 있는 애처가 남편을 따라 수도에 온 젊은 여자들이, 오히려 남편을 단념시켜 올 때보다도 더 기꺼운 마음으로 되돌아서는 것을, 그래서 떠나는 전날에 다정스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얼마나 많이 보아 왔는가. 여보! 우리네 초가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사는 게 여기 대궐보다도 더 행복한 걸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 그 터무니없는 신앙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석 떠는 여자들이라고는 어리석은 여자들밖에 없다. 현명한 여자들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인 퇴폐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고약한 여자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고한 판단력을 간직한 사람이 더러 있다면, 그 판단력이 만일에 알맞은 교육에 의해 길러졌더라면,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 판단력이 그릇된 교육에 의해 변질된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자연 감정을 간직하거나 회복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루한 설교로 처녀들을 지겹게 하거나, 딱딱한 교훈을 늘어놓으라는 말은 아니다. 어느 성에나 교훈은 좋은 교육 모두의 죽음이다. 파분한 잔소리는, 잔소리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말 모두를 미워하게 만드는 데밖에는 소용이 없다. 처녀들에게 말할 때는, 자기네 의무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자연에 의해 씌워진 굴레를 가중시킬 것은 없다. 의무를 설명해 줄 때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되, 그것을 수행할

때는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라. 불만스러운 태도도, 교만한 태도도 보이지 말라.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그녀들의 도덕 교리 문답은 종교 교리 문답만큼 짧고 분명해야 하지만, 그만큼 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의무들 속에서 자기들의 기쁨의 샘과 권리의 바탕을 그녀들에게 밝혀 보여 주라.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 상냥해지는 것이, 복종받기 위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 이러한 권리들은 얼마나 근사한가? 얼마나 존중할 만한가! 그것들을 여자가 써먹을 줄만 안다면, 남자 마음에는 얼마나 소중한 권리들인가! 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세월도 늘그막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자의 지배력은 여자의 미덕과 더불어 비롯된다. 여자는 그 매력이 피어나자마자 벌써 그 부드러운 성격으로 지배하게 되어 그 얕전함에 무게가 생긴다. 예뻐도 자신의 성(性)과 어림은 잊지 않아 수줍음으로 남의 관심을 끌고 모든 사람을 존경함으로써 자신이 존경받을 줄 아는 16살 난 소녀 앞에서는, 태도가 조심스럽고 말에는 성실함이 엿보이며, 말이 적고 남의 말은 귀담아듣는 귀엽고도 현명한 소녀 앞에서는, 어떤 미련하고 목석 같은 남자라도 콧대가 꺾여 보다 친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상들은 비록 외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시시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감각적인 매력에서만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 감정, 여자들은 나면서부터 남자들의 가치의 심판자라는 내면 감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기를 바라는가? 아무도 없다. 여자들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남자마저도 그렇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지독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나지만, 난들 그녀들의 판단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여자들보다도 더 여자가이기 일쑤인 독자들이여, 그녀들의 표가 여러분들 표보다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여자들의 풍습은 멀리하면서도 나는 그 공정함은 존중하고 싶다. 그녀들더러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만 만든다면, 그녀들이 나를 미워한대도 나는 상관없다.

이러한 권한을 써먹을 줄만 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숭한 큰일들을 해낼 것인가!



여자들이 지배력을 잃어 그 판단이 남자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지고 만 세기는 저주받으라! 이는 타락의 마지막 단계다. 품행이 단정하던 민족들은 다 여자들을 존경했었다. 스파르타를 보라, 게르만 사람들을 보라, 로마를 보라, 일찍이 지구상에 명예와 미덕이 그 본거지를 가져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명예와 미덕의 본거지인 로마를 말이다. 여자들이 위대한 장군들의 무훈을 찬양하고 조국의 아버지들을 위해 공석에서 울어, 그녀들의 소원이나 애도가 국가의 가장 엄숙한 판단으로서 인정받던 곳이 바로 로마이다. 거기서는 큰 혁명들이 다 여자들로부터 왔었다. 한 여인 때문에 로마는 자유를 얻었고,<sup>26\*</sup> 한 여인 때문에 평민들이 집정관 자격을 얻었고,<sup>27\*</sup> 한 여인 때문에 10대관(大官)의 압제가 끝났고,<sup>28\*</sup> 포위당한 로마는 여자들 때문에 한 추방자의 손에서 구해졌다.<sup>29\*</sup> 프랑스의 호색한들아, 빈정거리는 당신들 눈에는 우습기 짝이 없는 이러한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들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야유를 퍼부으며 뒤따라갔을 것이다. 같은 대상을 우리는 얼마나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다 옳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귀부인들로 그 행렬을 만들어 보라. 이보다 더 너절한 행렬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 여자들로 구성해 보라. 당신들은 다 볼스크족(族)들의 눈과 코리올라누스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더한 말도 하겠고, 그래서 미덕은 자연의 판 권리들에 못지않게 사랑에도 유리한 것이어서, 여자 애인의 권위는 아내나 어머니의 권위 못지않게 덕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열성 없이는 진짜 사랑이란 없고, 현실이건 가공이건 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대상 없이는 열정이란 없다. 그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26\* 로마의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섹스투스(Sextus Tarquin)에게 욕을 당해 자살한 루크레티아(Lucretia)의 복수를 하기 위해, 브루투스는 기원전 509년에 Tarquin 왕가를 몰아 내었다.

27\* 호민관(tribun) 리키니우스(Licinius)는 기원전 367년에, 자기 아내의 권고에 따라, 집정관(Consul) 중의 하나는 평민이 되도록 했다.

28\* 기원전 449년에 10대관이 추방당했다. 그 이유는 그중의 하나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Appius Claudius)가 처녀 비르기니아(Virginie)를 탐내자 그 아버지가 치욕을 씻기 위해 자기 딸을 죽여 민중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29\* 반향심에서 볼스크족(Volsques)을 이끌고 로마를 포위한 코리올라누스(Coriolan)는 기원전 491년에, 자기 어머니 Veturie의 간청으로 고국 정복을 단념하고 물러갔다.

되고 말아 자기가 사랑하는 것 속에서 감각적인 기쁨의 대상밖에는 보지 않는 애인들은 무엇에 열정이 타오르겠는가? 아니다, 낮이 끓어올라, 애인들의 열광이나 그들의 정열의 매력을 빚어 내는 그 희한한 흥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모두가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도 시인한다. 다만 실지로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진짜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를 부추기는 감정들이다. 이 아름다움은 사랑받는 대상 속에 있지는 않다. 우리의 착오의 소산인 것이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가공의 모델을 위한 자신의 속된 감정 모두를 털 바치게 되는가? 귀여워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빌려 준 미덕들에 자기 마음이 털 감동하게 된단 말인가? 인간 자아의 웅졸함에서 털 벗어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진짜 애인이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용의가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죽겠다는 남자 속에 거친 관능적인 정념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옛날의 협객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사랑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난봉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옛 이야기조의 격률들이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이성보다는 악습의 소산이었었던 것이다.

어느 세기에서나 자연적인 관계들이 바뀌는 일은 없어, 거기서 생겨나는 좋거나 그른 것은 늘 마찬가지로이며, 이성의 이름을 빌려 쓴 편견들은 허울밖에는 바뀌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언제나 설사 그것이 터무니없는 세론에 따르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여전히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명예의 참된 동기들은 언제나, 자기 처지에서 삶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지각 있는 모든 여자의 마음에 말을 걸게 될 것이다. 순결은, 마음속에 고귀한 그 무엇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감미로운 미덕이 되게 마련이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자기 발밑에 있음을 보는 동안 그녀는 모두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경의를 표하러 오는 왕좌를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올리고 있는 것이다. 양성(兩性)의 상냥하거나 시새우는 감정, 그러면서도 언제나 공손한 감정이, 만인의 평가와 그녀 자신의 평가가, 잠시 동안의 싸움을 명예라는 공물로 노상 보상해 주는 것이다. 아쉬움은 잠시 동안의 것이지만 그 대가는 오래간다. 아름다움과 뺏어진 미덕이고 귀한 녀에는 얼마나 큰 기쁨인가? 기사도 로망의 여주인공을 현실화시켜 보

라. 그녀는 라이스나 클레오파트라보다도 더 그윽한 쾌락을 맛보게 될 것이고,<sup>30\*</sup> 그 아름다움이 가신 뒤에도 명예와 기쁨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그녀만이 과거를 즐길 줄 알 것이다.

의무란 크고 힘든 것일수록 그 근거가 되는 이유도 더욱 뚜렷하고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관해 경건한 말로 처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 주면서도 납득시키지는 못하는 수가 있다. 그녀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몰래 그것을 깔보는 데서, 자기 성향에 쉽사리 지고 마는 버릇이 생겨난다. 그 성향에 저항할 이유가 사물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으니 말이다. 얌전하고 독실하게 길러진 딸은 유혹에 대한 강한 무기를 분명 갖고 있겠지만, 마음이, 아니 그보다도 귀가 신비스러운 횡설수설만으로 살찌 온 딸은 영락없이 유혹해 오는 능란한 첫 남자의 밥이 되고 만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결코 자기 몸을 깔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자기의 아름다움이 저지르게 하는 엄청난 죄 때문에 진심으로 상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탐욕의 대상이 된 것을 진심으로 하느님 앞에서 슬퍼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자기 마음속의 가장 기분 좋은 느낌이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실속 있는 판 이유들을 일러 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이유들은 먹혀들어 가지는 않을 테니까. 영락없이 그렇게 되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생각들에 모순을 집어넣어 주게 된다면, 즉 그녀의 육체와 매력을 죄악에 더럽혀진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서, 그렇게 깔보게 만든 바로 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존경하게 한다면, 훨씬 더 나쁠 것이다. 지나치게 숭고하거나 지나치게 천한 생각들은 똑같이 힘이 모자라 서로 뗫어질 수가 없다. 그 성(性)이나 나이에 알맞은 이유가 필요하다. 의무에 대한 생각은, 우리더러 그것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들이 곁들여지는 만큼밖에는 힘이 없는 것이다.

*Quæq̃ euia non liceat non facit, illa facit,*

30\* 로망(Roman)은 기사와 미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중세기 프랑스의 설화 문학.

라이스는 본서 제4부에도 나온 고대 그리스의 창녀.

*마지못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여자는 이미 저지른 것이다.*<sup>31\*</sup>

이토록 엄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오비디우스라고는 짐작이 가지 않을 것이다. 착한 행실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녀들에게 넣어주고 싶은가? 얌전해지라고만 노상 말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데서 얻는 큰 이득을 깨닫게 해 주라. 얌전함의 가치 모두를 깨닫게 해 주라, 그러면 얌전함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이득을 먼 앞날에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것을 당장에, 그 나이의 온갖 관계 속에서, 애인의 성격 속에서 밝혀 보여 주라. 덕 있는 남자, 훌륭한 남자를 그려 보여 주라, 그런 남자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친구이건 아내이건 애인이건, 그런 남자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라. 이성애에 의해 미덕을 이끌어 주라. 여성의 지배력과 모든 특권은 비단 자신의 선행이나 품행에서만 아니라 남자의 그것에서도 말미암는다는 점을, 여자는 천하고 비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힘이 없다는 점을, 그리고 남자란 미덕을 섬길 줄 알듯이 밖에는 자기 여자 애인도 섬길 줄을 모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라.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풍습을 그려 보여 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싫증이 우리나라에 해 줄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유행아들을 보여 주어 멸시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격률에 대한 반감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혐오, 그들의 헛된 수작에 대한 멸시만을 품게 해 줄 것이고, 보다 고상한 야심이, 위대하고 힘찬 녀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이, 남자들을 지배하던 스파르타 여자들의 야심이 생겨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애인을 교태로밖에는 끌어당길 줄도, 아양으로밖에는 붙잡아 둘 줄도 모르는 무모하고 뻔뻔스럽고 모사꾼인 여자는, 시시한 일들에서는 애인들을 종처럼 순종시킨다. 중대한 일들에서는 그들에 대해 맥을 추지 못한다. 그런데 정숙하면서도 귀엽고 현명한 여자는, 애인들더러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여자는, 조심성과 겸손을 갖춘 여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존경으로 사랑을 지탱해 나가는 여자는, 손짓 하나로 그들을 세계의 끝으로, 싸움터로, 명예의 마당으로, 죽음으로, 마음에 내키는 어느 곳으로나 보내게 된다. 이

31\* 오비디우스의 《사랑》Ⅲ, 4와 몽테뉴의 《에세》Ⅱ, 16에 인용되어 있다.

러한 지배력은 훌륭해 보이며, 애써 얻을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sup>32</sup>

소피의 취미에 거스르기보다는 뒤따름으로써 고생보다는 정성이 더 든 그녀의 교육이, 어떤 정신 아래 이루어져 왔는가는 위와 같다. 이제는 내가 에밀에게 그러 보인 그녀의 초상에 따라, 또 에밀 자신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아내로서 상상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녀의 사람됨에 대해 한 마디 하기로 하자.

내가 비범한 것들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치지는 않겠다. 에밀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소피도 비범하지가 않다. 에밀은 남자이고 소피는 여자이며, 이것이 그들의 명예의 모두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판을 치고 있는 성의 혼돈 속에서는, 자기 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하나의 비범한 일이다.

소피는 태생이 좋고 천성이 착하다. 마음이 아주 민감해 이 극도의 감수성 때문에 때로는 가누기 힘든 상상력이 발동하기도 한다. 머리는 정확하다기보다는 날카롭고, 성미는 썩썩하면서도 변덕스럽고, 얼굴은 수수하지만 귀여워, 훌륭한 여자를 예고해 주고 어김이 없을 생김생김이다. 예사로 그녀에게 접근할 수는 있어도, 감동 없이 떠날 수는 없는 여자다. 그녀에게는 없는 장점들을 지닌 여자들도 있다. 그녀가 지닌 장점을 더 푸짐하게 지닌 여자들도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격을 이루기 위해 그 장점들이 이보다 잘 조화를 이룬 여자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자기 결점들까지 이용할 줄을 알며, 그녀가 만일 더욱 완벽했다더라면 남의 마음에는 훨씬 덜 들었을 것이다.

소피는 미녀는 아니지만, 그 곁에서는 남자들은 미녀들을 잊게 되고, 미녀들은 자신에 불만을 품게 된다. 언뜻 보기에는 예쁜달 것도 없지만, 볼수록 더 예뻐진다. 술한 여자들이 잃는 데서 그녀는 따고, 탄 것은 잃는 법이 없다. 더 고운 눈, 더 예

32 프랑수아 1세 때 수다쟁이 애인을 가진 한 젊은 여자가, 애인더러 무제한 말을 못 하게 해 2년을 충실하게 그대로 지켰더니 나중에는 병 때문에 병어리가 된 것으로 남들이 알려는 이야기를, 브랑들이 하고 있다. 하루는 어느 모임에서, 연애가 남몰래 진행되던 때라 그 남자의 애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던 그 여인이, 당장에 그의 병을 고치겠다고 장담을 하고는, “말해 봐요” 하고 단 한 마디로 고쳐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에는 장하고 위대한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렇게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어도 이 이상의 무엇을 했는가? 설사 여자가 줄 수 있는 어떤 상으로 보답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어떤 여자가 이러한 침묵을 단 하루인들 기대할 수 있었는가?

쁜 입, 더 당당한 풍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몸맵시, 더 아름다운 얼굴 빛, 더 흰 손, 더 귀여운 발, 더 다정한 시선, 더 인상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남을 호리는 일 없이 관심을 갖게 하고 매혹하는데, 아무도 그 까닭을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소피는 몸치장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밝다. 그 어머니에게는 딸 말고 딸 시녀라고는 없다. 소피는 돈보이게 차려입을 만한 안목을 넉넉히 갖고 있지만, 화려한 옷은 싫어한다. 그 옷차림에는 언제나 멋과 맺어진 단순함이 엿보인다. 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유행하는 색이 어떤 색인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알맞은 색들은 썩 잘 알고 있다. 그녀만큼 멋을 부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몸단장이 멋있는 처녀는 없다. 그 어느 한 조각도 아무렇게나 택해진 것이 없는 데도 재주 부린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보매는 아주 수수하면서도 실지로 아주 멋있는 몸치장이다. 자기 매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지만, 감추면서도 남더러 상상게 할 줄은 안다. 그녀를 보고들 말한다. 얌전하고 영리한 처녀라고. 그런데 그녀 곁에 있는 동안은 눈과 마음이 그 온몸에 쏠려 뗄 수가 없으며, 그토록 수수한 옷차림 모두가 마치 상상에 의해 조각조각 벗겨지기 위해서만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만 같다.

소피에게는 타고난 재능들이 있다.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있어 잊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술한 재주를 부려 그 재능들을 가꿀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고운 목소리를 정확하고 멋있게 노래하도록 훈련하고 그 작은 발을 자유자재로 가볍고 우아하게 걷도록 어떤 경우에도 어색하고 서투르지 않게 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더구나 노래 선생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춤 선생이라고는 어머니밖에는 없었고, 이웃에 사는 오르가니스트가 클라브생으로 반주 공부를 약간 시켜 주어 그 뒤로 혼자서 배워 왔다. 처음에는 그 검은 건반 위에서 자기 손이 좋게 보이게 할 생각뿐이었다. 다음에는 클라브생의 날카로운 딱딱한 소리가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발견해, 차츰차츰 화음에 민감해졌다. 자라면서 마침내는 표현법의 매력들을 깨달아 음악을 그 자체로서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취미이다. 악보를 보고 곡을 연주할 줄을 그녀

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소피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제일 공들여 배우게 한 것은, 여성의 일들이고, 자기 옷을 말라 바느질하는 것 같은, 남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다. 그녀가 할 줄 모르거나 기꺼이 하지 않는 바느질 일이라고는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일은 레이스 짜기인데, 그것은 이보다 더 보기 좋은 자세를 갖게 하거나, 손가락이 이보다 더 멋있고 가볍게 훈련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살림살이의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에도 열중해 왔다. 부엌이나 찬방에도 환하다. 식료품들 값도 알고 있고 그 질에도 밝다. 가계부 적을 줄도 썩 잘 알아, 어머니의 주방장 노릇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주부가 되게 마련인 그녀는, 부모의 집을 다스리면서 자기 집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녀들 일을 대신할 수 있어 늘 기꺼이 그러고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해낼 줄 아는 일밖에는 제대로 남에게 시킬 줄도 모른다. 이것이 그녀를 이렇게 부러먹는 어머니의 이유이다. 소피로서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녀의 첫째 의무는 딸로서의 의무이며,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다하려고 생각하는 의무는 이것뿐이다. 어머니를 섬겨 그 수고를 얼마간 덜어 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런데 그 의무들을 다 하나같이 기쁜 마음으로 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그녀는 비록 게걸쟁이이긴 하나 부엌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뭔가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다. 충분한 깨끗함이 발견되는 일은 없다. 이 점에 있어 그녀는 극도로 까다로워 이 지나친 까다로움이 그녀의 결점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자기 소맷부리를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식사 모두를 불에 익히도록 둘 것이다. 같은 이유로 채소밭 돌아보기를 좋아한 적이 없다. 땅은 더러워 보이기만 한다. 두 엄만 보아도 그 냄새를 맡는 기분이다.

이러한 결점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다. 어머니 생각으로는 여자의 의무들 중에서 으뜸가는 하나는 깨끗함이다. 자연이 과해 면할 도리가 없는 특별 의무인 것이다. 지저분한 여자보다 더 싫은 것은 세상에 없어, 그런 여자를 싫어하는 남편은 결코 잘못이 없다. 그녀는 딸에게 어려서부터 이 의무를 그토록 강조해 왔다. 자기 몸이나 옷가지·방·일·몸단장에 대해 깨끗이 하도록 하도 일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모두가 버릇이 되어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될 뿐더러 탄 시간

까지도 지배할 정도,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뒷전이 되고 만다. 첫째는 언제나 그것을 깨끗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두가 헛된 걸치레나 나약함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었다. 사치한 세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녀 방에는 보통 물밖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 그녀는 꽃향기밖에는 딴 향기를 알지 못하며,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입김보다 더 기분 좋은 향기를 맡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외모에 쏟는 관심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시간이 더욱 고귀한 일들의 덕택임을 잊지는 않는다. 마음을 더럽힐 만큼 지나친 몸의 깨끗함은, 그녀가 모르거나 무시하는 바이다. 소피는 깨끗하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순결한 것이다.

소피가 게걸쟁이었다는 말은 이미 했다. 나면서부터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습관에 의해 삼가게 되었고, 지금은 미덕에 의해 그렇다. 남자아이들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주전부리로 다스릴 수 있는 여자아이들이라고는 없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는 대단찮은 일은 결코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어려서 자기 엄마 방에 혼자 드나들던 꼬마 소피는 언제나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사탕이나 봉봉 과자의 유혹에 늘 견뎌나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발갈해 꾸짖고, 벌주고, 굶기기도 했다. 마침내는, 봉봉이 이를 상하게 하고 너무 먹으면, 똥똥해진다는 것을 납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소피는 버릇을 고쳤다. 자라나면서 딴 취미들을 갖게 되어 그 천한 욕심에서는 벗어났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마음이 피어나기만 하면 주전부리는 이미 대단한 악벽이 아니다. 소피는 여성다운 취미를 간직해 왔다. 우유 제품과 단것들을 좋아한다. 케이크나 앙트르메<sup>33\*</sup>를 좋아하지만,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포도주도 독한 리퀴르도 맛본 적이 없다. 게다가 무엇이건 아주 적게 먹는다. 남성들보다는 힘드는 일이 적은 여성은 기운을 회복할 필요도 덜하다. 무엇에서나 맛난 것을 좋아해 그 맛을 즐길 줄 안다. 맛이 없어도 안달하지 않고 참을 줄도 안다.

소피의 재치는 번득이지는 않으나 상냥하고 깊지는 않으나 야무지며, 남보다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는 재치이다. 여자들

33\* entremets는 식사 후 치즈와 과일 사이에 먹는 단것.



의 재치의 연마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에 비추어 보아 그녀의 재치는 비록 굉장히 다듬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드는 재치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재치는 독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다만 아버지 어머니와의 대화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의 반성에 의해서만, 자기가 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가 한 관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소피는 나면서부터 명랑하다. 어릴 때는 까불기까지 했으나, 이내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쳐 그러한 배려를 불가피하게 만든 순간을 알려 주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어머니는 차츰차츰 딸의 들뜬 태도를 억누르도록 애썼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기도 전에 얌전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고, 그럴 때가 된 지금은 자기가 취한 태도를 간직하기가,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보여 주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더욱 편하다. 그녀가 때로는 남은 버릇 때문에 어릴 때의 극성에 빠져들다라도,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뜨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기란 재미있는 일이다. 이 두 시기 사이의 과도기는 두 시기의 어느 쪽도 조금씩은 닮게 마련이다.

소피는 감수성이 너무 강해 완전히 한결같은 기분을 간직할 수는 없지만, 그 감수성이 남들에게 사뭇 성가신 것이 되기에는 너무도 그녀는 상냥하다. 그것에 시달리는 것은 그녀뿐이다. 기분 상할 말을 한 마디라도 해 보라, 그녀는 토라지지는 않지만 가슴은 터질 지경이다. 가서 울기 위해 그 자리를 빠져 나가려고 애쓴다. 우는 도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불러 한 마디라도 해 보라, 당장에 눈을 슬쩍 닦고 흐느낌을 누르려고 애쓰면서 돌아와 놓고 웃고 한다.

그녀는 또한 변덕도 전혀 없지는 않다. 기분이 좀 지나치게 꼬드겨지면 반항으로 바뀌어, 제정신을 잃기가 일쑤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시간을 주어 보라, 자기 잘못을 씻는 그 태도가 그 잘못을 거의 하나의 장점으로 만들어 줄 테니. 벌을 주면 순종하고, 그래서 그녀의 창피함이 별보다는 잘못 자체에서 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아도 그녀는 스스로 잘못을 사죄하기를 잊는 법이 없고, 더구나 하도 솔직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오래 원망할 수가 없을 정도다. 제일 낮은 하인 앞에서도 조금도 고통 없이 땅에 엎드릴 것이고, 용서

받자마자 나타나는 그 기쁨과 상냥함은, 그녀의 여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는가를 보여 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남들의 잘못된 참을성 있게 견뎌 내고, 자기 잘못은 기꺼이 사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망쳐 놓기 전의 여성의 귀여운 천성이란 이런 것이다. 여자란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남자의 부당함까지도 견뎌 내도록 태어난 것이다. 남자아이들을 이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내면 감정이 들고일어나 부당함에 대든다. 자연은 그들을 부당함을 보고도 참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gravem*

*Pelidæ stomachum cedere nescii.*

펠레우스의 다루기 힘든 아들의 고약한 노여움.<sup>34\*</sup>

소피에게는 종교가 있지만, 이치에 맞는 단순한 종교이며, 교리는 거의 모르고, 신자 행세도 덜한다. 아니 그보다도, 본질적인 의무라고는 도덕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녀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자기 생활을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가르침에 있어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함으로써 딸에게 공손히 순종하는 버릇을 들여 주었다. “얘야, 이런 지식은 네 나이에는 맞지가 않아. 때가 오면 네 남편이 네게 가르쳐 줄 거다.” 뿐더러 그들은 신앙에 대한 긴 이야기 대신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 그것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본보기는 딸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소피는 미덕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그녀의 으뜸가는 정열이 되어 있다. 미덕만큼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미덕은 여자의 명예가 되고, 덕 있는 여자는 거의 천사와도 같이 보이기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미덕을 참 행복에의 유일한 길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파렴치한 여자의 생활에서는 비참과 단념과 불행과 치욕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덕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아버지와 다정하고 훌륭한 어머니에게도 소중한 것으로서 미덕을

34\* 호라티우스의 《오드집》 I, 6, 5~6.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신의 미덕만으로 행복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부모는 딸의 미덕으로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딸 자신의 첫째가는 행복도 부모를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는 희망이다. 이러한 감정 모두가, 그녀의 님을 높이고 그 잔다란 성향들을 그토록 고귀한 정열에 복종케 만드는 열의를 그녀에게 불어넣어 준다. 소피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순결하고 정숙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진심으로 맹세했고, 그러한 서약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미 깨달았을 때에 맹세했다. 관능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어 있었다라면 그 약속을 취소했을 것이 틀림없는 그런 때에 그녀는 맹세한 것이다.

남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눈에 띄기를 바라고, 재미는 구해도 기쁨은 구하지 않는, 기질은 쌀쌀하면서도 허영심 때문에 아양을 부리는 그런 귀여운 프랑스 여자가 되는 행운은 소피에게는 없다. 사랑하겠다는 욕구만이 그녀의 가슴을 태우고, 잔치판에까지 따라와 그녀의 마음을 흐뜨리고 어지럽힌다. 옛날의 명랑은 잃고 말았다. 익살맞은 놀이들도 이제 그녀에게는 맞지 않는다. 따분한 고독을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구하고 있다. 고독 속에서 그 고독을 즐겁게 만들어 줄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은 다 그녀에게는 귀찮기만 하고, 필요한 것은 추종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애인이다. 유행아들의 하루밖에 못 가 다음날에는 야유로 바뀌는 칭찬 소리를 듣기보다는, 성실한 한 남자만의 마음에 늘 드는 편이 나은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찍 판단력이 형성된다. 거의 어려서부터 수세에 놓여 지켜나가기 힘든 것을 맡고 있는 여자들에게는, 선과 악이 필연적으로 더 일찍 알려진다. 기질이 시켜 모든 점에서 조숙한 소피도, 같은 나이의 딸 처녀들보다는 판단력이 일찍 형성되었다. 이 점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성숙이란 같은 시기에 도, 어디서나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소피는 여성과 남성의 의무와 권리를 배워서 안다. 남자들의 결점과 여자들의 악덕을 알고 있다. 반대되는 장점과 미덕도 알아 모조리 명심하고 있다. 정숙한 여자에 대해 그녀가 품고 있는 관념보다 더 높은 관념은 아무도 가질 수 없지만, 그러한 관념에 그녀가 질리는 일은 없다. 다만 더욱 흐뭇한 마음으로 성실한 남자, 홀

룩한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가 그러한 남자를 위해 있고 그러한 남자와 어울리며, 그 남자로부터 받을 행복에 보답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남자를 꼭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느끼고 있다. 그런 남자를 찾아 내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가치의 타고난 심판자이듯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가치의 타고난 심판자이다. 이는 양쪽 서로의 권리인데도, 양쪽이 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 소피는 이 권리를 알고 있어 행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린 나이나 경험·처지에 맞는 겸허함을 가지고 그런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것들밖에는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유익한 어떤 격률을 부연해 줄 때밖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신중히만 말하고, 그것이 여자일 때는 더구나 그렇다. 여자들이 욕 잘하고 비꼬게 되는 것은 자기네 성에 대한 말을 할 때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우리 남성에 대한 말로만 그치는 한 그녀들은 공정하기만 하다. 그래서 소피는 그것으로 그친다. 여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일을 알리기 위해서밖에는 말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같은 여성에게 돌려 마땅한 명예로 믿고 있다. 알릴 만한 좋은 일을 그녀가 통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며, 또 그래서 마땅하다.

소피는 예의범절을 별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싹싹하고 세심해서 하는 모든 일에 맵시가 있다. 잘 타고난 천성이 많은 기교보다 그녀에게는 더 힘이 되어 준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행에 따르지 않아 유행과 함께 바뀌지 않으며, 관습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절을, 남의 환심을 사려는 참된 욕망에서 생겨난 남의 환심을 사는 그러한 예절을 그녀는 지니고 있다. 케케묵은 인사말은 통 모르며, 더 꾸며 댄 인사말을 생각해 내는 일도 없다. 대단히 감사하다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느니, 그러시지 않아도 되느니 따위의 말은 하지 않으며, 더구나 말을 다듬을 생각은 훨씬 덜 한다. 남의 친절이나 판박이 인사말에 대해서는 절이나 간단한 “고맙습니다”로 답한다. 그런데 이 말이 그녀 입에서 나오면 영 판 말처럼 들린다. 진짜 애써 준 데 대해서는 마음이 말하도록 두지만, 그 마음이 찾아 내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다. 가령 방에서 방으로 옮겨갈 때 자기가 부축해 주고 싶을 정도인

60대 노인의 팔에다 자기 손을 내미는 따위와도 같은, 프랑스의 격식이 허례의 굴레를 자기에게 씌우는 것을 감당해 낸 일이 그녀에게는 없다. 태 부리는 남자가 그런 엉뚱한 서비스라도 하려 들라치면 그녀는, 그 썩썩한 팔을 계단에서 팽개치고는 자기는 절름발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깡충 뛰어 방으로 뛰어든다. 사실 그녀는 키는 크지 않으나 하이힐을 바른 적은 없다. 하이힐 없이도 될 만큼 발이 작은 것이다.

그녀는 비단 여자들만이 아니라 결혼했거나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말이 적고 공손하다. 순종하기 위해서밖에는 그들 뒷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럴 수만 있게 되면 당장에 아래 있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존경받아야 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에 앞선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

같은 나이의 청년들하고는 문제가 다르다. 그들을 위압하려면 판이한 태도가 필요한데, 그녀는 자기에게 알맞은 겸손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도 그런 태도를 취할 줄 안다. 그들 자신이 겸손하고 조심성이 있으면 그녀는 그들에 대해 어릴 때의 그 알뜰한 친분을 기꺼이 간직해 나갈 것이다. 친절하기만한 그 대화는 소탈하면서도 예의 바를 것이다.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그녀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를 바란다. 이야기가 싱거워지면 그녀는 당장 그만두게 할 것이, 수작 거는 횡설수설을 그녀는 여성에 대한 아주 큰 무례로서 특히 멸시하니까. 자기가 찾는 남자는 그런 횡설수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어, 그 성격을 마음속에 새겨 둔 남자에 알맞지 않은 말을 탄 남자로부터 기꺼이 듣는 일은 결코 없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 그녀가 지니고 있는 높은 견해, 그녀의 감정의 순수함에서 오는 녀의 고결함, 그녀가 자신 속에 느껴 그녀를 자기 눈에도 존경받게 만드는 그 미덕의 힘이 그녀더러, 자기를 즐겁게 해 주겠다는 그 달콤한 이야기들을 분개하지 않고는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드러난 노여움으로써가 아니라, 어리둥절케 하는 빈정거림조의 칭찬이나 뜻하지 않은 쌀쌀한 어조로 받아넘긴다. 잘생긴 포이보스<sup>35\*</sup>가 상냥한 말을 그녀에게 늘어놓아, 그녀의 재치 · 아름다움 · 멋에 대해, 그녀의 환심

35\* Phébus는 허풍쟁이를 가리킴.

을 사는 행복의 가치에 대해 재치 있게 그녀를 칭찬해 보라. 그녀는 이렇게 공손히 말해서 가로막을 그런 처녀다. “여봐요, 그런 것은 제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까 봐 겁이 나는군요. 더 재미있는 할 이야기가 없다면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정중한 절을 곁들이고, 이어 그에게서 스무 걸음 떨어진 데가 있는 것쯤은 그녀에게는 약과다. 이만큼 다루기 힘든 처녀에게 객설을 늘어놓기가 쉬운 일인지, 여러분의 그 알랑쇠들에게 물어 보라.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어서 남이 자기에 대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칭찬받기를 딱히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장점에 감동된 것으로 보이라면 우선 그 장점을 밝혀 보여 주어야 한다. 존경에서 말미암는 칭찬은 그녀의 오만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약빠른 빈정거림은 언제나 반감을 산다. 소피는 어릿광대의 잔재주들을 훈련시키려고 생겨난 여자는 아니다.

매우 성숙한 판단력을 지녀 모든 점에서 스무 살 난 처녀처럼 숙성한 15살의 소피는, 자기 부모한테서도 아이 취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춘의 첫 불안을 딸에게서 알아채기가 무섭게 부모는 그것이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대비할 것이다. 다정하고 지각 있는 이야기를 딸에게 해 줄 것이다. 다정하고 지각 있는 이야기란 그 나이와 성격에 맞는 이야기다. 그녀의 성격이 내가 짐작하는 대로라면 아버지는 대체로 이런 말을 왜 해 주지 않았는가.

“소피야, 너도 이젠 다 큰 처녀이고, 이렇게 자란 것은 언제까지나 처녀로 있기 위해서는 아니야.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지, 우리의 행복이 네 행복에 달려 있으니 말이다. 안전한 처녀의 행복이란 안전한 남자의 행복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시집갈 생각을 해야 해. 일찌감치 생각해야 하지, 왜냐하면 일생의 운명은 결혼에 달려 있고, 그 생각을 할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좋은 남편의 선택보다 더 어려운 일이란 없어, 하긴 좋은 아내의 선택도 그렇겠지만. 소피야, 너는 바로 그 드문 아내가 될 거고, 우리 평생의 명예와 우리의 노년의

행복이 될 거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는 너보다 더 나은 남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너를 얻어 자랑으로 삼지 않을 남자는 하나도 없어. 너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 남자도 많고, 그 많은 중에서 네게 맞을 남자를 찾아 내어, 그를 이해하고 너를 그에게 이해시키는 게 문제야.

“결혼의 가장 큰 행복은 하도 많은 합치점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모으려고 드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 될 정도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합치점들을 확인해야만 해. 딱 합치점들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완전한 행복이란 땅 위에는 없지만, 불행 중에서 가장 크면서도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불행은 자기 잘못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다.

“타고난 합치점들이 있고, 제도에 의한 합치점들이 있고, 세론에서만 오는 합치점들이 있지. 부모는 나중 두 가지의 심판자이고, 아이들만이 첫째 것의 심판자야.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에서는 오로지 제도와 세론에서 오는 합치점들만 따르게 돼. 결혼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신분과 재산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바꿀 수가 있고, 사람들만이 언제나 그냥 남아 있어 어디서나 같이 따라다니는 거다. 운명이야 어쨌든, 결혼이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개인 관계에 의해서만이야.

“네 어머니는 집안이 좋았었고, 나는 부자였었다. 우리네 부모가 우리를 맺어 주게 된 동기란 이것뿐이었지. 나는 내 재산을 잃었고, 네 어머니는 그 가문을 잃었어. 자기 집안에서 잊힌 지금, 아씨로 태어났다는 게 엄마에게 무슨 소용이겠니? 재난 속에서는 우리 둘의 마음의 결합이 만사에 우리를 위로해 주곤 했지. 취미의 일치가 우리더러 이 은신처를 택하게 했어, 가난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서로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있어. 소피는 우리 둘의 보물이고, 이 보물을 주고 나머지는 다 앗아간 하늘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 봐, 얘야,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가를! 우리를 결혼케 한 합치점들은 사라지고 말았어. 전혀 무시당했던 합치점들 때문에만 우리는 행복한 거다.

“서로를 골라야 하는 것은 당사자다. 서로의 성향이 부부의 첫 유대가 되어야 해. 그들의 눈과 마음이 첫 길잡이가 되어야 하거든. 왜냐하면 맺어진 그들의 첫 의무

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달린 일은 아닌 만큼, 맺어지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기부터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의무가 그 의무에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니까. 이거야말로 아무도 없앨 수 없는 자연의 권리야. 갖은 사회 법칙들을 가지고 이 권리를 방해한 자들은, 결혼의 행복이나 시민들의 미풍양속보다는 허울만의 질서를 더 중히 여겼던 거다. 소피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려운 윤리를 네게 설교하는 건 아니다. 너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해서 네 남편의 선택을 네게 맡기겠다는 것뿐이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네게 주는 이유들을 말해 주었으니, 이번에는 네가 그 자유를 현명하게 써먹는 이유들도 네게 말해 주는 것이 당연하겠어. 애야, 너는 착하고 분별이 있어, 곧은 마음과 효성을 지니고 있고, 정숙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재능도 갖고 있으며, 매력도 없지는 않아. 그런데 너는 가난해. 가장 존중할 만한 재산은 갖고 있어도 가장 존중받고 있는 재산은 없거든. 그러니 네가 얻을 수 있는 것 밖에는 바라지 마라. 그래서 네 야심을 너나 우리의 판단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론에 맞추어 나가도록 해라. 가치의 균등만이 문제라면 네 기대를 어디서 그치게 해 주어야 할지를 나도 모르겠으나, 기대를 네 처지 이상으로 높이지 말고, 그 처지가 가장 하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맞는 남자라면 이러한 불균등을 장애로 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는 그가 하지 않을 일을 해야만 해. 소피는 엄마를 본받아, 너를 자랑으로 삼아 줄 가정에만 들어가야 한다. 너는 우리가 호사할 때를 보지 않았고, 가난할 때 태어났어. 너는 우리의 가난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고통 없이 그 가난을 같이하고 있지. 내 말을 믿어 줘, 소피야, 재산을 구하질랑 마라,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늘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를 잃고 난 다음에밖에는 행복을 맛본 적이 없단다.

“너는 귀여워서 누구의 마음에도 들 거고,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가 난처해질 만큼 가난하지는 않아. 사방에서 구혼을 받을 거고, 네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구혼을 받게 될지도 몰라.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 준다면 너는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거고, 아무리 떠벌여 보여도 너를 오래 속이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비록 너는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 가치에 대해서는 밝지만 경험이 모자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탈을 쓸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든. 약은 사기꾼이 네 취미를 조사해서 너를 유혹할 수 있고, 제게 없는 미덕을 네게는 꾸며 보일 수가 있어. 소피아, 그런 자는 네가 알아채기도 전에 너를 망쳐 놓아, 네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올 도리밖엔 없어져. 온갖 덧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성도 피하지 못하는 유일한 덧은, 감각의 덧이다. 네가 혹시 불행히도 그것에 걸려든다면, 환상이나 망상밖엔 보이지 않아, 네 눈은 홀리고 판단은 흐려지고 의지는 약해져, 네 착각마저도 네게는 소중한 여겨질 것이며, 그 착각을 알아보게 되어도 거기서 벗어나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거다. 애야, 내가 너를 내어 맡기는 것은 소피의 이성한테야. 너를 소피의 마음의 경향에다 맡기는 건 아니다. 네가 냉정할 수 있는 한은 너 자신의 판단자로 있도록 해. 그러나 네가 사랑하게 되거든 곧 네 뒷바라지를 엄마한테 부탁해라.

“우리의 너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우리 사이에 자연 질서를 회복시킬 하나의 협약을 네게 제안한다. 부모들이 자기 딸 신랑감을 고르고 딸과는 형식적인 상의밖엔 하지 않거든. 이게 보통 관습이다. 우리 사이에서는 전혀 반대로 나가자. 네가 고르고 우리가 상의를 받기로 하지. 소피아, 네 권리를 행사해라, 자유롭고 현명하게 행사해. 네게 맞는 신랑을 네가 골라야지 우리가 골라서는 안 돼. 다만 합치점들에 대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않은지, 알지를 못해 네가 바라는 바와는 다른 것을 하고 있거나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야. 태생 · 재산 · 신분 · 세론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을 거다. 사람됨이 네 마음에 들고 성격이 네게 맞는 성실한 남자를 택하도록 해, 딴 점이야 어쨌건 우리는 그를 사위로 받아들일 테니. 팔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의 재산은 언제나 충분히 많은 셈이 될 거다. 미덕으로 자기 신분을 높이기만 한다면, 그의 신분은 언제나 충분히 이름 높을 거다. 온 지구가 우리를 힐난한들 무슨 대수냐? 우리는 세상의 찬동을 구하지는 않으며, 네 행복만으로 우리에게겐 족하다.”

독자들이여,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식으로 길러진 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될지는 나도 알지 못한다. 소피로 말하면, 말로 대답하지 않을지는 모른다. 부끄러

움과 감동이 쉽사리 말로 표시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녀 마음속에 평생 새겨져 남으리라는 것은, 또 사람의 어떤 결심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그녀에게 시키게 될 결심, 즉 부모의 존경을 받을 만한 딸이 되겠다는 결심이라는 것은,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녀가 성적으로 다감해 오랜 기다림을 겨워한다고 치자. 그녀의 판단력과 지식·안목·섬세함이, 그리고 특히 어릴 때 그녀의 마음을 길러 온 그 감정들이, 그 성급한 관능과 맞서 능히 그것을 이겨 내거나 아니면 오래 버티기는 할 것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부모를 상심시키고, 형편없는 남자와 결혼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의 불행을 무릅쓰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처지의 순교자가 되어 죽을 것이다. 그녀가 받은 자유 자체가 그녀의 넋을 더욱 높여 남편의 선택에 대해 그녀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 따름이다. 이탈리아 여자의 기질, 영국 여자의 감수성과 아울러 그녀는 자기 마음과 관능을 억누르기 위해 스페인 여자의 자존심을 갖고 있다. 애인을 구하면서도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애인은 쉽사리 찾아 내지 않는 그 자존심을 말이다.

어엿한 일들에 대한 사람이 넋에 얼마나 활기를 줄 수 있는지를, 또 진심으로 유덕해지고자 할 때는 자신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될 일은 아니다. 위대한 것은 다 가공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속되고 천한 이성애에 빠져 있어, 미덕의 광기마저도 인간의 정념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결코 알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례를 가지고만 말해야 한다. 그들이 실례마저도 끝내 부인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소피는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 이름만이 내 창작이라고, 그녀의 교육과 품행과 성격과 얼굴까지도 실지로 있었던 것이라고, 그 기억은 지금도 어느 어엿한 집안의 눈물을 살 만하다고 내가 말해 준들 그들은 영락없이 아무것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를 하도 닮아 바로 소피 이야기라 해도 놀랄 사람이 없을 정도인 한 처녀의 이야기를 내가 사실대로 끝맺는다 해서 결국은 내게 무슨 잘못이겠는가? 정말이라고 남이 믿진 안 믿진 상관없다. 정 그렇다면 내가 꾸며 낸 이야기를 한 것이 되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방법을 설명한 것은 될 것이고,

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처녀는 내가 소피에게 준 기질 말고도 소피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온갖 합치점들을 갖고 있었기에, 나는 그 이름을 그냥 붙여 두겠다. 내가 인용한 그 이야기가 있는 뒤 그녀의 부모는, 자기들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흔처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딸을 도시에 사는 숙모 집에 보내어 한겨울을 나게 하고, 그 숙모에게는 그 여행의 목적을 몰래 알려 주었다. 왜냐하면 자부심이 강한 소피는 자신을 이겨 낼 수 있다는 높은 자존심을 지니고 있어, 아무리 남편이 필요하다 해도 그것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처녀로 죽었을 테니까.

양친의 속셈에 따르기 위해 숙모는 그녀를 여러 집에 소개하고, 모임이나 잔치에 데리고 가 주어, 세상을 보여 주었다. 아니 그보다도 그녀를 세상에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소피는 그러한 온갖 야단법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상냥한 얼굴의 청년들은 그녀가 굳이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심성 속에서도 청년들을 끄는 어떤 재간을, 교태와도 비슷한 재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과 두세 번 이야기해 보고 나서는 그들이 싫어지는 것이었다. 이내, 남의 존경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 점만 빼는 태도 대신 더욱 겸허한 태도와 더욱 쌀쌀한 예의 바름을 내세우게 되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주의 깊은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 힘을 찬스를 주지 않았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의 애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감수성 있는 마음이 떠들썩한 쾌락들을 좋아한 적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 생명을 열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 생명을 즐기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헛되고 보람 없는 행복을 좋아해 본 적은 일찍이 없다. 소피는 자기가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그런 식으로 발견된 데 실망해서, 도시가 싫어졌다. 자기 부모를 극진히 사랑해, 그들을 대신해 줄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을 잊게 해 줄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돌아오기로 된 날짜보다 훨씬 전에 그녀는 부모한테로 돌아왔다.

부모 슬하에서 자기 일을 다시 맡게 되자, 하는 짓은 여전하면서도 성미는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멍청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쓸쓸히 생각에 잠기곤 했

고, 숨어서 울기도 했다.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 말을 하니 아니라고 대꾸했다. 자기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무도 만나 본 적이 없다고 우겨 대었고, 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우울감은 줄곧 늘어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불안해진 어머니가 마침내 그 원인을 알아 내기로 결심했다. 딸을 따로 불러, 어머니의 애정만이 쓸 수 있는 그 스며드는 말씨와 거역하지 못할 애무를 써 보았다. 애야, 내 뱃속에 있었고 지금도 늘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내 딸아, 네 가슴의 비밀을 내 가슴으로 쏟아 보렴. 엄마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이란 도대체 뭐냐? 네 괴로움을 누가 동정하겠니? 누가 그걸 나누어 가지겠니? 네 아버지나 나 말고 누가 그걸 덮어 주려고 들겠니? 아, 애야, 네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도 좋단 말이나?

처녀는 자기 고민을 어머니에게 감추기는커녕, 위로해 주고 통사정 상대가 되어 주는 어머니를 가진 것이 더없이 기뻐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조심성은, 자기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상태를 설명할 말을 찾아 내지 못해, 저도 모르게 관능을 어지럽히는 설렘이 느껴질 따름이었다. 결국은 딸의 부끄러움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실마리가 되어 주어, 그 창피스러운 자백을 시키고 말았다. 부당한 꾸지람으로 딸을 상심시키기는커녕 위로하고 동정하고 울어 주었다. 딸과 미덕 때문에만 그토록 심해진 병을 하나의 죄악으로 삼기에는 어머니는 너무나 현명했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고치기가 쉽고도 정당한 병을 왜 공연이 견뎌야만 하는가? 주어진 자유를 그녀는 왜 행사하지 않았던가? 왜 신앙감을 맞아들이지 않고, 고르지도 않았던가? 자기 운명이 자기 하기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또 적당하지 않은 선택을 할 리가 없으니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건 동의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가? 도시로 보내졌는데도 그녀는 거기 있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혼처가 더러 나타났지만 그녀는 다 물리쳤다. 그럼 그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든가? 무엇을 바랐든가? 얼마나 풀지 못할 모순인가?

대답은 간단했었다. 젊음을 위한 도움만이 문제라면 선택은 곧 이루어졌겠지만, 평생을 위한 주인은 선택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은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은 남자를 찾아 내기 전에 젊음을 잃고 마는 수도 흔히 있는 것이다. 소피의 경우가 그랬었다. 애인이 필요했지만 그 애인은 남편이기도 해야 했고, 마음에 필요한 것은 애인이었지만 거의 남편 못지않게 찾아 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 빛나던 청년들은 다 그녀와 나이가 알맞을 따름이어서 탄 점에서는 늘 부족했었다. 그들의 알팍한 머리 · 허영심 · 횡설수설 · 대중없는 품행 · 시시한 흥내에 그녀는 진저리가 났었다. 그녀는 인간을 찾았는데 원숭이들밖에는 찾아 내지 못했고, 녀를 찾았으나 통 찾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얼마나 불행해요! 사랑해야만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보이질 않거든요. 제 관능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제 마음은 모조리 물리쳐요. 제 욕망을 끄뜨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 욕망을 억누르지 않는 사람도 하나 없거든요. 존경이 따르지 않는 호감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아, 엄마의 소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남자가 아니란 말예요! 매력 있는 모델이 그 마음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지요. 그 모델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모델밖에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고, 그 모델과 단둘이서밖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노상 속 태우고 싸우는 것이 나아요. 제가 사랑하지 않아 불행하게 만들 남자 곁에서 절망하기보다는, 불행하더라도 자유로운 몸으로 죽는 게 나아요. 괴로워하기 위해서만 있기보다는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낫단 말예요.

이 별난 말에 놀란 어머니는, 그게 하도 이상해서 무슨 비밀이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피는 선뎀을 부리지도,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도 않는 처녀였었다. 이 지나친 꾀까다로움이 어떻게 그녀에게, 어려서부터 무엇보다도,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만족하도록, 해야 할 일을 자진해서 하도록만 배워 온 그녀에게 맞아들어 갈 수 있었던가? 그녀가 그토록 매혹되어 말끝마다 되나타나기가 일쑤이던 그 바람직한 남자의 모델이 어머니더러, 그 변덕에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어떤 탄근거가 있다고, 소피가 다 말해 버린 것은 아니라고, 짐작케 했다. 남모를 괴로움에 짓눌린 가엾은 여인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는 졸라대고, 딸은 망설이다가, 마침내는 항복해,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는 잠시 후에 책

을 들고 들어온다. 이 가엾은 딸을 동정해 주세요, 이 슬픔에는 약이 없어 눈물은 마를 줄을 몰라요. 그 원인이 알고 싶지요. 바로 이거예요 하고 그 책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한다. 어머니가 책을 집어 열어본다. 《텔레마크의 모험들》이었다. 처음에는 이 수수께끼를 통 이해하지 못했다. 자꾸만 묻고 애매한 답을 듣고 한 끝에 마침내 어머니는, 딸이 에우카리스<sup>36\*</sup>의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놀라움은 쉽사리 짐작이 가겠지.

소피는 텔레마크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나마 아무것으로도 가라앉히지 못할 정열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의 광증을 알자 웃어넘기고는, 이치에 의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치는 그들 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소피에게도 이치는 있어 그것을 내세울 줄 아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모에게 반대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논법을 씀으로써 몇 번이나 그들을 입 다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가. 불행 모두는 부모 자신이 만들었으며, 자기를 이 시대의 남자에 맞도록 길러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자기가 남편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고방식을 남편에게 주든지 해야만 되리라는 점을, 부모에게 밝혀 보여 줌으로써 말이다. 첫 방법은, 부모가 자기를 길러 준 방식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으니,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자기가 찾던 그 방법이라는 점을 말이다. 그녀는 말하는 것이었다, 제 격률들을 신봉하거나 신봉시킬 수 있는 남자를 제게 주세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왜 저를 나무라세요? 저를 동정해 주세요, 저는 불행한 것이지 미친 것은 아니예요. 마음은 의지에 맡려 있나요? 아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있지도 않은 사람을 제가 사랑한다 해서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환상가는 아니예요. 왕자를 바라지도 않고, 텔레마크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가 가공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를 닮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이렇게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고 느껴지는 제가 있는데, 그 누군가는 왜 있을 수가 없단 말인가요? 아녜요, 이런 식으로 인류의 명예를 깎아 내리지는 맙시다. 바람직하고 덕 있는 남자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맙

36\* Eucharis는, 페늘롱(Fénelon)의 《텔레마크의 모험들》Ⅶ에 나오는 텔레마크(Ulysse의 아들)의 애인.

시다. 그런 사람은 있어, 살고 있고, 아마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엔 없어요. 앞으로 만날 사람들 중에도 분명 없을 겁니다. 오, 어머니! 왜 저더러 미덕을 너무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미덕밖엔 좋아할 수 없다면, 그 잘못은 저보다도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이 슬픈 이야기를 나는 파국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 파국에 앞서는 오랜 갈등을 말할 것인가? 순하다가 얽매지는, 초조해진 어머니를 그려 보일 것인가? 애초의 약속을 잊고 누구보다도 정숙한 딸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역정난 아버지를 보여 줄 것인가? 마침내는, 환영에 시달리기에 더욱 환영에 얽매여, 남은 시집보낼 생각으로 있을 때 천천히 죽음 쪽으로 걸어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가없는 처녀를 그릴 것인가? 아니다, 그런 불길한 제재들은 피하겠다. 이 세기의 풍습에서 생겨나는 편견들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격은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들에게 무관한 것은 아니며, 자연의 지도 아래서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게는 충분히 인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실례에 의해 밝혀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파고들 짓가지는 없다.

여기서 누가 나를 가로막고 묻는다, 지나친 욕망들을 억누르기 위해 우리더러 이토록 고생을 시키는 것은 바로 자연이냐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욕망들을 주는 것도 자연은 아니라고. 그런데 자연이 아닌 것은 다 자연에 어긋난다. 나는 그것을 골백번이나 증명했다.

우리 에밀에게 그의 소피를 돌려 주자. 이 귀여운 처녀를 되살려, 덜 예민한 상상력과 더 행복한 운명을 그녀에게 주자. 나는 보통 여자를 그려 보고 싶었는데, 그 녀를 너무 치켜 올리다가 그만 그 이성을 어지럽히고 말았다. 나 자신이 길을 잃었던 것이다. 되돌아가자, 소피는 평범한 녀 속에 좋은 천성을 가졌을 따름이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다 그녀가 받은 교육의 성과이다.

나는 이 책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다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말할 수 있

었던 좋은 일 중에서 각자의 힘이 미치는 것의 선택은 각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에밀의 짝을 미리 만들어 서로 맞도록 둘을 함께 교육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본 끝에 나는, 너무 일된 이러한 안배는 다 잘못이며, 이 결합이 자연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를, 이 결합에 알맞은 관계가 서로 사이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도 전에 두 아이를 결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미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것과 시민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개 상태에서는 양쪽이 아직도 원시적이고 공통된 형태밖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알맞다. 시민 상태에서는 저마다 성격이 사회 제도 때문에 발달되어 있고, 저마다 머리가 비단 교육에서만 아니라, 천성과 교육의 잘 되거나 잘못된 협력에서, 자기 고유의 일정한 형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서로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맞는 점들이 가장 많은 선택이나마 하기 위해, 서로를 선보이지 않고서는 짝지어 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딱한 것은, 사회 상태가 사람들 성격을 발달시키다가 신분을 갈라놓게 되는 일이고, 이 두 가지 질서의 한쪽은 딴 쪽을 통 닳지 않았기 때문에 지위가 구별될수록 성격들도 더욱 혼동되는 일이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들과 거기서 말미암은 온갖 혼란이 여기서 생겨난다. 그래서 그 분명한 결과로서,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자연 감정이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사이가 벌어질수록 더욱 부부의 유대는 약해진다. 부자와 빈자가 많아질수록 아버지와 남편은 적어진다.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이미 가족은 없어, 어느 쪽이나 자기 처지밖에는 보지 않는다.

페단을 미리 막고 행복한 결혼을 시키고 싶은가? 편견들을 없애라, 인간의 제도들을 잊어버리고 자연과 상의하라. 주어진 어떤 조건에서만 서로 맞아 그 조건이 바뀌면 맞지 않게 될 그런 사람들을 결합시키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나라에 살건, 어떤 신분에 떨어지게 되건 서로 맞을 그런 사람들을 결합시키라. 인습적인 관계들은 결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자연 관계의 작용은 인습적인 관계의 작용을 하도 능가하기 때문에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작용뿐이라는 말이고, 취미 · 기질 · 감정 · 성격의 합치라는 것은, 현명한 아버지로 하여금, 그가 왕족이건 군주이건 주저 없이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합치점을 다 가진 처녀를 주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말이다. 설사 그 처녀가 창피스러운 집안에 태어났거나 망나니의 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불행이 덮친다 하더라도 잘 화합된 부부라면, 마음의 불화로 잡혀진 온갖 지상의 행운 속에서 갖게 될 이상의 참된 행복을 같이 울면서도 즐기게 되리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래서 나는 에밀에게 어려서부터 신붓감을 마련해 두지 않고, 맞는 여자를 알게 되기를 기다렸다. 이 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자연이다. 자연이 한 선택을 찾아 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내 일이라고 말하고 아버지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게 맡김으로써 그는 자기 지위를 내게 넘겨주고, 자기 권리를 내 권리로 바꾸기 때문이다. 에밀의 진짜 아버지는, 그를 어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나다, 그의 선택, 즉 나의 선택에 따라 그를 장가보낼 자유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그를 맡아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 인간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치르는 수고를 갚아 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 기쁨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에밀의 아내를 찾아 내기 위해 나로서는 그를 시켜 찾게 할 생각뿐이었다고도 생각하지는 말라. 찾는 시늉을 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여자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그에게 여자들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소피는 오래전부터 찾아져 있다. 아마 에밀도 이미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오기 전에는 알 아보지 못할 것이다.

신분의 평등이 결혼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평등이 탄 합치점들에 결들여지게 되면 새로운 가치가 주어진다. 그것은 어떤 합치점과도 저울에 맞달리지는 않지만, 탄 것이 다 맞설 때는 저울을 기울게는 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군주가 아니고서는 모든 신분에서 아내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갖지 않은 편견도 남들에게서는 발견될 것이고, 어떤 처녀가 자기에게 맞더라도 그 때문에 그녀를 얻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분별 있는 아버지의 머느리감 찾기를 제한하게 되는 조심성의 준칙들이 있다. 그는 자기 제자에게 그 지

위보다 높은 자리를 잡아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될 일은 아니니까. 설사 그럴 수가 있더라도 그러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위가 청년에게, 적어도 내 제자에게 무슨 대수이며, 더구나 지위가 올라가면 그는 술한 실지 불행을 무릅쓰게 되어 평생을 시달리게 될 것이니까. 그는 귀족 신분과 돈처럼 성질이 서로 다른 밀전을 엇셈하러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해 두겠다. 이 두 가지는 저마다 상대방에게 가치를 덧붙여 자기보다는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양쪽의 평가가 결코 일치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며, 끝으로 저마다 자기 밀전을 두둔함으로써 양가 사이의, 흔히 부부 사이의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남자가 자기보다 높은 신분과 맺어지느냐 낮은 신분과 맺어지느냐는 것 또한, 결혼의 질서에서 보면 사뭇 다르다. 첫째 경우는 전혀 이치에 어긋나고, 둘째 경우는 보다 이치에 맞는다. 가족은 가장을 통해서만 사회와 연줄이 닿는 것이므로, 가족 전체의 신분을 정하는 것은 바로 그 가장의 신분이다. 자기보다 낮은 신분과 맺어질 때는 자기는 내려가지 않고 아내를 끌어올리게 된다. 반대로 자기보다 높은 여자를 얻으면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아내만 낮추게 된다. 그래서 첫째 경우에는 손해 없이 이득만 있고, 둘째 경우에는 이득 없이 손해만 있다. 더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따르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도 맞는 일이다. 따라서 자기보다 못한 신분에서 아내를 취하면 자연 질서와 시민 질서가 맞아들어가 만사가 잘 되어 간다. 자기보다 높은 신분과 맺어져, 자기 권리나 고마움의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 배은망덕하느냐 아니면 멸시를 받느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그 반대다. 권위를 내세우는 아내가 자기 가장의 폭군이 되고, 종이 된 주인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우습고 비참한 자가 된다. 아시아의 왕들이 인척 관계로 명예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 저 가엾은 충신들, 아내와 같이 자려면 발치로 해서밖에는 감히 침상에 기어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그 충신들의 꼴이 바로 그것이다.

남자를 다스리기 위한 타고난 재능이 여자에게는 있다는 내 말이 생각난 많은 독자들이, 모순을 들어 여기서 나를 비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잘못 생각한 것이다. 명령하는 권리를 가로채는 것과, 명령하는 자를 다스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

가 있다. 여자의 지배란 다정함과 재치와 상냥함의 지배이어서, 그 명령은 어루만짐이고 그 위협은 눈물이다. 여자란 집에서 국가의 대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에게 명령케 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부부란 아내가 보다 많은 권위를 가진 부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 권리를 가로채어 자신이 명령하려 들면, 그러한 무질서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는 비참과 스캔들과 창피밖에 없다.

같은 신분과 못한 신분 사이의 선택이 남아 있지만, 후자에도 역시 얼마간의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엿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내를 하층 사회에서 찾아 내기란 힘든 일이니까. 상층 사회보다 하층 사회 사람들이 더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나, 다만 아름답고 어엿한 것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 탄 계급들의 부정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의 악덕까지도 정당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절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다. 생각한다는 일은 탄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워서, 그것도 더욱 힘들게 배워서 얻는 기술이다. 나는 남녀 할 것 없이 실지로 구별되는 두 가지 계급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급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급이 그것인데, 이 차이는 오로지 교육에서 온다고 하겠다. 이 두 계급의 첫째에 속하는 남자는 둘째 계급 여자와 맺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으면서도 혼자서만 생각해야 한다면, 사귀는 가장 큰 매력이 없어지고 마니까. 평생을 고스란히 먹고살기 위한 일로만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네 일이나 이해 관계에 대한 관념밖에는 탄 관념이 없어, 정신 모두가 팔 끝에만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무지는 성실성이나 바른 행실을 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복돋우어 주기까지도 한다. 자기 의무를 너무 생각하다가는 그 의무와 야합해 마침내는 일 대신 허튼소리를 늘어놓는 수도 흔히 있다. 양심은 가장 현명한 철학자다.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키케로의 ‘의무들’을 알 필요는 없으며, 가장 정숙한 사교계 여인이 정숙이 무엇인가를 제일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양 있는 머리가 교제를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가장에게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만 잠겨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심한 일

이다.

더구나 생각하는 버릇이 통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치겠는가? 자식들에게 알맞은 것을 어떻게 분간하겠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미덕을, 자기는 짐작도 가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자식들더러는 지향하도록 해 줄 수 있겠는가? 어르지 않으면 으르대어 건방지거나 소심하게 만들 줄밖에는 모를 것이다. 약삭빠른 원숭이 아니면 되통맞은 개구쟁이로나 만들었지, 지각이 있거나 귀여운 아이로 만드느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교육받은 남자가 교육받은 일이 없는 여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나로서는, 우리 집에 와서 문예 비평회를 차리고는 그 의장이 될 그런 유식하고 재치 부리는 처녀보다는, 함부로 자라 단순한 처녀가 백배나 낫다. 재치 부리는 아내란 그 남편의, 아이들의, 친구들의, 하인들의, 모든 사람의 주춧덩어리다. 천재라는 콧대가 높을 대로 높아져, 아내로서의 의무는 깡그리 멸시하고, 영락없이 랑클로 양<sup>37\*</sup>식의 남자부터 되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언제나 웃음거리가 되어 마땅히 비판을 받게 된다. 사람이란 제 처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되게 마련이고, 또 자기가 바라는 처지에서 태어나는 법도 없으니까. 대단한 재능을 가진 이런 여자들은 다 바보들밖에는 속이지 못한다. 그녀들이 일할 때 펜이나 붓을 잡아 주는 예술가나 남자 친구가 누구인가는 언제나 알려져 있다. 그녀들이 내리는 결정을 옆에서 몰래 일러 주는 사려 깊은 문인이 누구인가는 알려져 있다. 이런 온갖 속임수는 숙녀답지가 않다. 진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자부심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숙녀의 품위는 알려지지 않는 데 있다. 그 자량은 남편의 존경 속에 있다. 그 기쁨은 가족의 행복 속에 있다. 독자여, 나는 당신 자신에게 맡기겠다. 솔직하게 말해 보라. 어느 여자 방에 들어가다가, 그 여자가 아이들 옷가지에 둘러싸여 여성의 일, 살림살이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온갖 책자들이며 온갖 색깔의 종이쪽지들에 둘러싸여 화상대에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는, 어느 쪽이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을 더 주겠으며,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곁에 가게 하겠는가? 땅 위에 지각 있는 남자들

37\* Ninon de Lenclos, 본서 p. 545 각주 23\* 참조.

만 있게 되면, 유식한 처녀는 다 평생 처녀로 늙을 것이다.

Quæris cur nolim te ducere, Galla? diserta es.

갈라여, 너는 자문한다, 내가 왜 너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수다쟁이이기 때문이다.<sup>38\*</sup>

위와 같은 고려들을 한 다음에 얼굴을 고려해야 한다. 눈에는 맨 먼저 띄고 고려는 마지막에 해야 하지만, 예사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굉장한 미녀란 결혼에서는 구하기보다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녀는 소유에 의해 금방 퇴색한다. 6주일 후면 이미 그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지만, 따르는 위험은 평생을 간다. 아름다운 아내가 천사가 아닌 이상 남편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며, 설사 천사라 하더라도 남편이 노상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주 잘생긴 여자보다는, 싫지만 앓다면 아주 못생긴 여자를 차라리 나는 택하겠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양쪽이 다 남편에게는 대수롭지 않아지면서, 잘생긴 것은 지장이 되고 못생긴 것은 유리해지니까. 그런데 싫증이 날 만큼 못생긴 것은 다시없는 불행이다. 이 느낌은 지워지기는커녕 끊임없이 늘어나 미움으로 바뀐다. 그러한 결혼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맺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아름다움까지도 넣어 만사에 있어 중간치를 바라도록 하라. 사랑은 아니더라도 호감을 품게 하는 기분 좋고 상냥한 얼굴이야말로 택함직하다. 남편에게 해로울 것이 없고, 그 유리한 점이 서로의 이득이 된다. 맵시는 아름다움처럼 퇴색하지는 않는다. 생명이 있고 노상 되살아나, 맵시 있는 숙녀는 결혼 30년 후에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남편 마음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더러 소피를 택하도록 결심시켰던 것이다. 에밀처럼 자연의 제자인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에게 맞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아내가 될 것이다. 태생이나 재능에서는 그와 맞서고, 재산에서는 못하다. 첫눈에 반하게 하지는 않

38\* 1세기의 라틴어 시인 마르티알리스(Martial)의 《에피그램집(Epigrammes)》 19.

아도, 날로 더 환심을 산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점차로만 작용하고 친분 속에서만 발휘되며, 남편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녀가 받은 교육은 뛰어나지도 허술하지도 않다. 공부는 없어도 안목이, 예술은 없어도 재능이, 지식은 없어도 판단력이 그녀에게는 있다. 그 머리는 알지는 못해도 배우도록은 가꾸어져 있어, 거둬들이기 위해 씨앗만을 기다리는 잘 준비된 땅이다. 책이라고는 바렘의 산수책<sup>39\*</sup>과 어쩌다가 입수된 《텔레마크》밖에 읽은 것이 없다. 그러나 텔레마크에게 몸이 달 수 있는 처녀가 느낌 없는 마음이나 텔리커시 없는 머리를 가졌겠는가? 오, 사랑할 만한 무지! 그녀를 가르치게 될 자는 행복하기도 하다. 남편의 선생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이다. 남편을 자기 취미에 따르게 할 생각은커녕, 남편의 취미를 자기도 갖게 될 것이다. 유식한 여자보다도 남편에게는 더 나은 것이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서로 만날 때가 왔다, 둘을 접근시키도록 해 보자.

우리는 서글픈 마음으로 생각에 잠겨 파리를 떠난다. 이 수다스러운 곳은 우리가 몸둘 곳은 아니다. 에밀은 이 큰 도시를 훑어보며 화가 나서 말한다. 헛된 탐구에 얼마나 많은 날이 허비되었는가! 아! 내 마음의 아내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죠. 하기가 제 시간이 선생님께는 대수로운 게 아니고, 제 고통이 선생님을 괴롭히진 않을 테니까요.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해 준다. 에밀아, 너는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믿고 있니? 당장에 그는 당황해서 내 목에 달려들어 대꾸도 없이 나를 껴안는다. 이것이 그가 잘못했을 때 늘 하는 대답이다.

이제 우리는 진짜 편력 기사들인 양 들을 지나간다. 그들처럼 모험을 찾아서가 아니다. 파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반대로 모험을 피해 간다. 그러나 그들의 번덕스럽게 갈팡질팡하는 걸음걸이는 제법 흥내를 내어,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종종걸음으로 걸어간다. 나의 실천 방식을 따르다가 보면 마침내는 그 참 뜻을 알아채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둘이서 꼭 닫힌 역마차의 근사한 의자에서 즐기고 있으리라고, 아무것도 보거나 관찰하는 일 없이, 출발과 도착 사이의 시간을 무의미하

39\* Barrême의 le Livre des comptes faits(1682).

게 만들어, 시간을 아끼려고 빨리 가면서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만큼, 아직도 인습에 젖어 있는 그런 독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생이 짧다고들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려고 극성들인 것 같다. 그것을 이용할 줄을 몰라 시간의 빠름을 탓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사람들 마음대로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 지향하는 목표만 노상 생각하면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억울해한다. 더러는 내일이 되기를, 더러는 다음 달이 되기를, 더러는 십 년 후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지금 시간에는 만족하지 않아 모두가 너무 느리게 지나간다고들 여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힘이 있다면 기꺼이 살 것이다. 자기 평생을 고스란히 없애 버리는 데에 자기 재산을 기꺼이 쓸 것이며, 만일에 짐이 되던 시간들을 지겹다 해서, 바라는 순간까지의 시간들을 조바심이 난다 해서, 제 마음대로 버릴 수만 있었더라면, 자기 일생을 얼마 안 되는 시간으로 줄여 버리지 않았을 사람이라고는 이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도시로, 어느 거리에서 딴 거리로 가는 데에 일생의 절반을 보내는 그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비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 시간 때문에 찢찢매게 될 것이며, 애써 자기 일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 일부러 자기 일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는 거기에 쓰이는 더 많은 시간을, 달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을, 자기가 별로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반대로 달리기 위해 달리고, 역마차로 돌아갈 목적 말고는 딴 목적도 없이 역마차를 타고 온다. 인간들아, 자연을 비방하기를 정 그 만두지 않겠는가? 일생이 너희가 바라는 만큼도 짧지가 않은데 왜 짧다고 투덜거리는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는 일생을 너무 짧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산다는 것과 즐긴다는 것이 그에게는 같은 일이 되어, 설사 젊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생애에 만족해서만 죽게 될 것이다.

내 방법에 이득이 이것밖에 없ads 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느 방법보다도 내 방법을 좋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에밀을 무엇을 바라거나 기다리도록이 아니

라 즐기도록 가르쳐 왔으며, 자기 욕망을 현재 저 너머에 두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의 느낌에 안타까워질 정도로 성급하게 굴지는 않는다. 그는 비단 바라는 기쁨만이 아니라 바라는 대상을 향해 가는 기쁨도 즐기게 될 것이며, 그의 정념들은 하도 온당해서 언제나 그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많이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파발꾼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그 사이 중간도 생각하고 있다. 여행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쁨이다. 꼭 막힌 우리에게 갇힌 죄수처럼 처량하게 앉아서 하는 여행이 아니다. 여자들처럼 맥이 빠져 편안하게 하는 여행이 아니다. 야외의 공기도, 주위의 광경들도, 마음이 내키면 그것들을 마음대로 바라보는 편의도 없애지 않는다. 에밀은 일찍이 역마차를 탄 일이 없고, 급하지만 않으면 역마차로 달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에밀이 뭇 때문에 급하겠는가? 단 한 가지, 삶을 즐기는 일뿐이다.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덧붙일까? 아니다, 그것도 삶을 즐기는 일이 되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것보다 더 기본 좋은 여행 법을 나는 하나밖에 알지 못한다. 걸어서 가는 일이다. 좋을 때 출발하고, 마음대로 멎고, 바라는 만큼 많이도 적게도 걷는다. 그 고장을 살살이 관찰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길을 바꾸고, 마음에 드는 것을 다 살펴보고, 전망 좋은 지점마다 발길을 멈춘다. 내(川)가 보인다고? 나는 그 내(川)를 따라간다. 우거진 숲이 있다고? 나는 그 그늘을 걸어간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본다. 채석장? 광석들을 살펴본다. 마음에 드는 곳에는 다 머무른다. 파분해지면 자리를 뜬다. 말에도 마부에도 나는 매여 있지 않다. 제대로 된 길도 편한 길도 고를 필요가 없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면 다 지나간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고, 매인 데가 없는 몸이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다 누린다. 날씨가 궂어 꼼짝 못하고 답답해지면 그때는 말을 탄다. 만일 피곤하면…… 그러나 에밀은 피로하는 법이 없다. 튼튼한데, 왜 피로하겠는가? 그는 통 급하지가 않다. 가만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파분해질 수 있겠는가? 도처에 즐길 것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어느 장인바치 집에 들어가 일을 한다. 발을 쉬게 하려고 팔을 움직이는 것이다.



걸어서 여행하는 것은, 탈레스나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처럼 여행하는 것이다.<sup>40\*</sup> 철학자가 어떻게 달리 여행할 마음이 들어, 땅이 자기 눈앞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 자기 발로 밟고 가는 보물들의 조사를 버릴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하기에 힘들다. 농업을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누가, 자기가 지나가는 곳의 풍토의 특산물들이나 그 재배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박물학에 조금이라도 취미가 있다면 누가, 흙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어떤 토지를, 그 모서리를 깎아 보지도 않고 어떤 바위를, 식물 채집을 하지도 않고 산속을, 화석을 찾아보지도 않고 돌더미를, 그냥 지나칠 마음이 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안방 철학자들은 서재에서 박물학을 연구한다. 잡동사니들만 갖고 있고, 명칭들은 알지만 자연계에 대한 아무런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에밀의 서재는 왕들의 그것보다 더 풍부하다. 그것은 지구 전체다. 모두가 제자리에 놓여 있다. 그 관리를 하는 박물학자가 아주 훌륭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도방통<sup>41\*</sup>도 더 잘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기분 좋은 여행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까지 기쁨들이 얻어지는가! 건강이 튼튼해지고 기분이 흥겨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늘 보아 온 일이지만, 근사하고 편안한 마차로 여행하는 자들은 생각에 잠겨 있고 쓸쓸해 딱딱거리거나 시무룩해 있으며, 보행자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마음이 가벼워 만사에 만족이다. 물을 집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얼마나 흥겨워지는가! 변변찮은 식사도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식탁에서 쉬게 되는가! 너절한 침대에서 얼마나 단잠을 자게 되는가! 도착할 생각뿐이라면 역마차로 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행할 생각이라면 걸어서 가야만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식으로 오백 리를 가기 전에 소피 생각이 잊히지 않는다면, 내가 능란하지가 못해서든지, 아니면 에밀이 호기심이 통 없어서든지, 어느 한쪽이다. 왜냐하면 기본 지식들을 그만큼 갖고 있는 그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기란 힘든 일이니까. 호기심이란 그 사람이 배워 아는 데 비례해서만 갖게 마련이다. 그는 바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날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는

40\*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여행에 관해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주석 10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41\* Daubenton(1716~1800)은 《박물지》의 저자 뷔퐁(Buffon)의 조수의 하나.

것이다.

하여튼 대상은 바뀌고, 우리는 여전히 나아간다. 우리의 첫 코스를 나는 멀리 잡았다. 그 궤계는 수월하다. 파리를 떠나 멀리로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길이 통 보이지 않는 산속 골짜기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길을 잃은 우리는 갈 길을 찾을 도리가 없어진다. 상관없다. 가 닿기만 한다면 어느 길이건 다 좋다. 더구나 배가 고프면 어딘가에 가 닿아야 한다. 다행히도 농부를 만나 그의 초가집으로 따라간다. 우리는 그 변변찮은 점심을 굉장한 식욕으로 먹는다. 하도 피로하고 시장한 우리를 보고 그는 말한다. 어진 하느님이 당신들을 언덕 저 너머로 이끌어 주셨더라면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텐데요!..... 편안한 집을..... 아주 인심좋은 사람들을..... 아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요!..... 그들은 나보다 마음이 더 착한 것은 아니지만 돈은 더 많아요, 하긴 전에는 더 부자였었지만..... 지금도 어렵게 지내진 않거든요, 고맙게도 말ियो, 온 고장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남아 있는 것에 덕을 보고 있습죠.

이 착한 사람들 말에 착한 에밀의 마음이 밝아진다. 그는 나를 보고 말한다. 선생님, 이웃을 잘 둔 그 집에 가 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반가울 거예요. 그들도 아마 우리를 만나는 게 반가울 거고요. 우리를 반겨 주리라 믿어요. 그들이 우리 친구라면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겠지요.

그 집 길을 잘 듣고, 출발을 하나, 숲 속에서 길을 잃는다. 도중에 큰비가 덮쳐 늦어지나 발길을 멈추지는 않는다. 마침내 길을 찾아 내어 가리켜 준 집에 저녁 때 도착한다. 마을에서 그 집만이 수수하긴 하나 눈에 띄는 데가 있다.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고 목어 가기를 청한다. 우리는 주인에게 인도되고, 주인은 따져서, 그러나 공손하게 묻는다. 우리는 여행의 이유는 말하지 않고 길을 돌게 된 이유만 말한다. 그는 옛날에 잘살던 덕분에 사람들의 신분을 그 태도에서 쉽사리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다. 상류 사회에서 살아 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틀리는 일이 거의 없다. 그것이 통해 우리는 받아들여진다.

아주 작으나 깨끗하고 편안한 방에 안내를 받아 보니 불이 지펴져 있고 속옷이나 옷가지들과 필요한 것이 다 거기에 있다. 아니! 하고 에밀이 깜짝 놀라서 말한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요! 오, 그 농부 말이 정말 웅군요! 얼마나 대단한 배려며 친절이며 선견지명인가요!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예요! 꼭 호메로스 시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 감탄하는 건 좋아, 하고 내가 말해 준다. 그러나 놀라지는 마라. 손님이 드문 곳에서는 다 환영받게 마련이거든. 손님을 환대할 일이 자주 없다는 사실보다 더 손님을 환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으니까. 환대가 시원찮아지는 것은 손님이 몰려들기 때문이지. 호메로스 시대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나그네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았던 거다. 아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여기에 온 유일한 길손일 거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고 에밀이 말을 잇는다. 손님들 없이도 지낼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오면 언제나 환영한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옷을 말리고 매무새를 고친 우리는 주인 있는 데로 간다. 그는 자기 부인을 소개해 준다. 그녀는 인사치레만으로도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맞아들인다. 에밀에게 시선을 자주 돌리는 영광을 베푼다. 이런 처지에 있는 어머니가 에밀 또래의 남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불안 없이, 아니면 호기심이나마 없이 보는 일이란 거의 없다.

우리를 생각해서 저녁 준비가 서둘러진다. 식당에 들어가니 식기는 5인분이다. 우리가 앉으니 한 자리가 빈다. 한 처녀가 들어와 공손히 절을 하고는 말없이 자기 자리에 가서 얌전하게 앉는다. 시장기 때문에, 아니면 해야 할 대답 때문에 딴 생각이 없던 에밀이, 처녀에게 절과 말로 답하고는 먹기 시작한다.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멀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그의 여행의 주된 목적도 지금의 그의 생각에서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 길 잃은 나그네들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 여보게, 하고 주인이 에밀에게 말한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참하고 현명한 청년 같은데, 그래서 나는 마치 칼뤼프소의 섬에 온 텔레마크와 멘토르처럼, 자네 선생님과 자네가 지치고 흠뻑 젖어서 여기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 저희가 댁에서 칼뤼프소의 환대를 발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에밀이 답한다. 그의 스승 멘토르가 덧붙여 말해 준다. 그리고 에우카리스의 매력도요. 그런데 에밀은 《오디세이아》는 알고 있지만, 《텔레마크》는 읽은 적이 없다. 에우카리스가 무엇인지 알지

를 못한다.<sup>42\*</sup> 처녀는 어떤가 하면, 얼굴이 눈까지 빨개져 눈을 접시 위에 떨어뜨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당황해 하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눈짓을 해 보이고, 아버지는 화제를 바꾼다. 그는 자기의 은둔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자기를 이런 생활에 몰아넣게 된 사건들 이야기로 어느새 말려 들어간다. 자기 생애의 불행들, 아내의 한결같은 지조, 자기네의 결합에서 발견된 위안들, 이 은거처에서 보내는 다사롭고 평온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처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마디도 없다. 흥미 없이는 듣지 못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다. 감동된 에밀은 듣느라고 식사도 중단한다. 마침내 더없이 성실한 남편이 더없이 어엿한 아내의 애정에 대해 더욱 큰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자, 젊든 나그네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아 쥐고, 또 한 손으로 아내의 손도 잡고는 감격해서, 그 위에 몸을 숙여 눈물을 쏟는다. 청년의 천진한 극성에 다들 감동되지만, 그의 착한 마음씨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처녀는, 필록테테스<sup>43\*</sup>의 불행에 감동된 텔레마크를 보는 기분이다.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눈을 돌린다. 비교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는 거드름 없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의 거동은 되통맞은 데가 없이 활발하다. 그 감수성 때문에 시선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더욱 감동적이다. 그가 우는 것을 보고는 처녀도 눈물이 글썽거린다. 근사한 핑계지만 남모를 부끄러움 때문에 참는다. 마치 자기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쁘기라도 한 것처럼, 금방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이미 거두고 있다.

식사 시초서부터 줄곧 딸을 눈여겨본 어머니가, 딸이 거북해하는 것을 보고는 심부름을 시켜 풀어 준다. 잠시 후에 처녀는 돌아오지만, 마음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아 그 어수선했음이 모두의 눈에 뚜렷하다. 어머니가 다정스레 말한다. 소피아, 앉아라. 너는 너희 부모의 불행을 언제까지나 슬퍼할 작정이니? 우리의 위안이 되고 있는 너다. 제발 우리보다 더 상심하질랑 말아라.

42\* 본서 p.574 각주 36\* 참조.

43\* 《텔레마크의 모험들》Ⅱ에 나오는 필로클레스(Philoclès) 이야기. 루소는 필록테테스(Philoctète)와 혼동하고 있다.

이 소피라는 이름에 예밀이 소스라치는 것은 여러분도 보았으리라. 이 그리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그는, 용케도 그 이름을 지닌 그 여자를 탐욕스럽게 바라본다. 소피, 오, 소피! 내 마음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 그녀를 살펴본다, 두려움과 의심 비슷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마음속으로 그려 보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은 아니다. 눈앞의 얼굴이 더 나은지 아니면 못한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윤곽선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일거일동을 살펴보니 해석은 온통 뒤죽박죽이다. 그 얼굴이 단 한 마디라도 해 주겠다면 자기 목숨의 절반이라도 바치고 싶은 심정이다. 그는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본다. 그 눈이 나에게 백 가지의 질문과 비난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 눈초리 하나하나가 내게 말하는 것 같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때가 늦기 전에 말예요. 제 마음이 만일에 굴복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저는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진 못할 겁니다.

예밀은 누구보다도 자기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일생에서도 가장 큰 불안에 싸여 있는 그가, 자기를 지켜 보는 네 사람의 목격자 사이에서, 그중에서 보매는 제일 멍해 보이는 사람이 실은 제일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 감정을 숨기겠는가? 그의 낭패는 소피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한다. 더구나 예밀의 눈은 소피가 그 대상임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고도 남음이 있다. 불안이 아직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님은 그녀도 알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는 그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만일 그가 그녀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렇지가 않다면, 그녀는 정말로 불행할 것이다.

어머니들이란 자기 딸들과 같은 눈애다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소피 어머니는 우리의 계획의 성공을 보고 미소 짓는다. 두 젊은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 새로운 텔레마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 딸더러 말을 시킨다. 딸은 타고난 상냥함을 가지고 대답한다. 그 수줍어하는 어조는 효과를 더욱 늘리기만 한다.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밀은 행복하고 만다. 소피다, 이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설사 소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다.

이 처녀의 매력이 마술처럼 그의 가슴에 여울져 흘러들어, 그녀가 따라주는 열근한 독주를 그가 별걱별걱 삼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이제 그는 말하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보이는 것은 소피밖에 없고, 들리는 것은 소피의 말밖에 없다. 그녀가 한 마디하면 저도 입을 벌린다. 그녀가 눈을 숙이면 저도 숙인다. 그녀가 숨쉬는 것이 보이면 저도 한숨을 쉰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소피의 녀인 것 같다. 자기 녀은 잠시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젠 소피가 아니라 에밀이 떨 차례다. 자유도 순진함도 솔직함도 온데간데없다! 얼떨떨해 겁에 질린 그는 이제 남이 자기를 보는 것이 보일까 봐 감히 주위를 바라다보지도 못한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두는 것이 부끄러운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혼자서 그녀를 마음껏 쳐다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소피는 에밀의 질급에 오히려 안심이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알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Nol mostra già, ben che in suo cor ne rida.*

그녀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는다.<sup>44\*</sup>

그녀는 침착성을 잃지는 않았다. 다만 태도는 공손하고 눈은 숙이고 있는데도, 민감한 마음은 기쁨에 설레면서 텔레마크를 찾아 내었다고 속삭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결백한 사랑의 어찌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늘어놓는다 해서, 그 디테일들을 하찮은 장난으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첫 사귀이 양쪽의 평생에 미치게 마련인 영향은 가볍게 보아지기가 일쑤다. 연애나 연애와 맞설 만한 애착의 인상 못지않게 강한 첫 인상이란, 그 효과의 지속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지는 않아도 죽을 때까지 작용해 마지않는 오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지들 못한다. 아이들의 터무니없는 의무들에 관한 쓸데없고 현학적인 장관설은 교육론들에 나오지만, 교육 전체

44\* 타소의 《해방된 예루살렘》Ⅳ, 33.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이를테면 아이에서 어른 상태로의 통로 구실을 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말이다. 혹시 내가 이 교육론을 어디서건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판 사람들은 다 빼먹은 이 요긴한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상술했기 때문이고, 이 시도에 있어 헛된 신중성 때문에 용기가 꺾이거나, 말의 어려움들 때문에 겁에 질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야 할 바를 내가 말했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며, 소설을 쓴 셈이 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본성을 그려 낸 소설은 충분히 훌륭한 소설이다. 그것이 이 책에밖에는 없는 것이라 해서 그게 내 잘못이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아, 내 책을 소설로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여기서 문제삼는 청년은, 어려서부터 겁이나 탐욕이나 시샘이나 자만심 따위의, 여느 교육의 연장 구실을 하는 온갖 정념들에 시달려 온 그런 청년이 아니라, 이것이 비단 그의 첫 사랑일뿐더러 정념치고도 이것이 그가 느껴 보는 첫 정념인 그러한 청년이라는 점이다. 그가 평생 사무치게 느끼게 될 아마 유일한 정념일 바로 이 정념에, 그의 성격이 갖게 될 마지막 형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사고방식 · 감정 · 취미는 영속적인 정념에 의해 틀이 잡혀, 다시는 변질되지 못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녁 뒤에 온 밤이 에밀과 나 사이에서는 잠으로만 지새지는 않는다는 것은 짐작이 가겠지. 어쨌단 말인가? 단지 이름이 같다는 사실이 그래 현명한 남자에게 그토록이나 영향을 미쳐야 한단 말인가? 세계에 소피가 하나밖에 없단 말인가? 이름이 같으면 마음도 다 닮았단 말인가? 그가 만나게 될 소피는 다 그의 것이란 말인가? 말해 본 적도 없는 낯선 여자에 몸이 달은 그는 미쳤단 말인가? 젊은이여, 기다려 보라. 검토하고 관찰해 보라. 너는 자기가 누구 집에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는데, 네 말을 듣고 있으면 네가 벌써 네 집에 와 있는 것만 같다.

지금은 혼계할 때가 아니고, 또 혼계란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청년더러 자기 애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소피에 대한 새로운 관심만 늘어나게 할 따름이다. 닮은 이름과, 그는 우연으로 알고 있는 이 만남, 그리고 나

의 조심성까지가, 그의 극성을 코드길 따름이다. 소피가 벌써 그에게는 하도 훌륭해 보이기에 내게도 좋아하게 만들 자신을 갖고 있다.

아침에 나는 에밀이 비록 험수룩한 여행복이나마 더욱 공들여 입으려니 생각했다. 역시 그렇다. 그런데 그가 이 집 속옷들을 열심히 챙기는 것을 보고 나는 웃는다. 그의 생각은 짐작이 간다. 돌려 주거나 바꿀 것을 마련함으로써, 이 집에 되돌려주거나 자기를 다시 올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연줄 비슷한 것을 맺을 속셈임을 알아 채고 나는 기뻐한다.

소피 쪽에서도 약간은 더 모양을 내려니 하고 기대했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런 속된 교태란, 환심을 살 생각뿐인 상대에게는 괜찮다. 진짜 사랑에서 오는 교태는 좀 더 고상하다. 그것에는 판 의도가 있는 것이다. 소피는 비록 그 세심한 정결함에는 다름이 없었지만, 전날 밤보다도 더 수수하게, 아니다 허술하게 차려입었다. 내가 그 허술함에서 교태를 엿보는 까닭은 오로지 그 속에 어색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소피는 짐짓 꾸민 옷치장이 관심의 표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짐짓 허술한 옷차림도 또 하나의 관심 표시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몸단장으로 환심을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자신의 사람됨으로도 환심을 사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sup>45\*</sup> 하긴 남자 애인에게는, 상대도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안다면 그녀가 어떻게 차려입었건 무슨 상관이었는가? 자기 힘에 이미 자신이 있는 소피는, 에밀의 마음이 자기 매력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서는, 자기 매력들이 그의 눈을 호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 매력들을 그가 보아 주는 것으로는 족하지가 않아, 상상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그것들을 볼 만큼은 보았으니 그 나머지를 짐작해보지 않고는 못 배길 만도 하지 않은가?

그날 밤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소피와 그 어머니도 잠자코만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실토가 나오고, 교훈이 주어지고 했던 것이다. 다음 날은 마음을 단단히들 먹고 모여든다. 우리의 두 젊은이가 만나고 12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태 서로 단 한 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서로 뜻이 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 수 있다. 둘의 응대는 익숙하지가 않아 당황하고 소심하며, 말을 주고받는

45\* 이런 것이 바로 훌륭한 상징 언어다.



일도 없다. 숙인 눈이 서로 피하는 듯하나, 이것 또한 내통의 표시이다. 서로 피하지만 짜고서 그러는 것이다. 말 한 마디 주고받기도 전에 이미 감출 필요를 느끼고 들 있는 것이다. 우리는 떠나면서 갖고 가는 것을 도로 가져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에밀의 입은 그 부탁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면서도, 딸 쪽으로 돌려진 그의 불안스러운 눈은 그녀에게 훨씬 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소피는 아무 말도 아무런 몸짓도 하지 않아, 무엇을 보거나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도 얼굴은 빨개지고, 그것은 양친의 대답보다도 사뭇 더 분명한 대답이 된다.

우리는 더 묵어 달라는 만류는 당하지 않았으나, 다시 와도 좋다는 허락은 받는다. 이러한 처사는 온당하다. 목을 데가 없어 난처한 길손들에게는 식사도 주지만, 남자가 애인 집에서 자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그 정든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에밀은 그 근처에 자리잡을 궁리를 한다. 제일 가까운 초가집도 너무 멀어만 보인다. 저택 도랑에서라도 자고 싶은 것이다. 이 철부지야! 하고 나는 연민하는 어조로 말해 준다. 너는 벌써 정념에 눈이 멀었니? चे면도 이치도 이미 알지 못하다니? 딱한 친구!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애인을 망신시키려 들다니! 그 집을 나온 청년이 근처에서 자고 있다는 걸 남이 알면 처녀를 두고 뭐라고들 말하겠니? 그녀를 사랑한다고 너는 말하겠지! 그럼 그녀 망신을 꼭 네가 시켜야 하겠느냐? 그래 그것이 그 부모한테서 받은 대접의 대가냐? 네 행복을 마련해 줄 여자에게 네가 창피를 주겠다는 건가? 그는 발끈해서 대답한다, 사람들의 허튼 소리나 부당한 의심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삼지 말라고 바로 선생님 자신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피를 위하고 존경하고 싶은지를 누가 저보다 더 잘 알겠어요? 저의 애착이 그녀의 창피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명예가 될 겁니다, 그녀에게 떳떳한 것이 될 겁니다. 제 마음과 정성이 어디서나 그녀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게 되면, 제가 어떤 점에서 그녀를 욕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에밀아, 하고 나는 그를 안아 주며 말을 잇는다, 너는 너를 위해 따지고 있지만, 그녀를 위해 따지는 법도 배워라. 남성의 명예를 여성의 명예에 비유하질랑 마라. 양쪽의 원칙은 판이하니까. 이 원칙들은, 똑같이 자연에서 말미암고 있기 때문에, 또 너를 위해서는 너더러 사람들 말을 무시하게 하는 그 같은

미덕이, 네 애인을 위해서는 너더러 사람들 말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양 쪽이 다 똑같이 확고하고 이치에도 맞거든. 네 명예는 네 속에만 있지만 그녀의 명예는 남에게 달려 있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네 명예 자체를 해치는 것이 되겠고, 그녀에게 주어져 마땅한 것이 너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해야 할 바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게 돼.

그리고는 이러한 차이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무시하려 드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그녀 생각이 어떤지를 그가 알지 못할뿐더러 어쩌면 그녀의 마음이, 아니면 부모가 이미 허혼(許婚)한 데가 있을지도 모르는 터에, 요컨대 그가 통 알지 못하는 그녀,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합치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를 그녀인데, 누가 그에게 소피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가? 스캔들이란 다 처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흠이, 그 원인이 된 남자와의 결혼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흠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가? 도 대체 정을 아는 남자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망치려 들겠는가? 성실한 남자라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잘못 때문에 불쌍한 여자를 평생 울게 만들려 들겠는가?

내가 일러 준 결과들을 생각해 보고 겁을 먹은 젊은이는, 여전히 생각은 과격한지라 벌써, 소피가 있는 데서 더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빨리 멀어지려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누가 엿듣지나 않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 행복은 얼마라도 희생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평생을 다시 만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것이야말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 주려고 어릴 때부터 내가 쏟아 온 정성의 첫 열매인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발이 미치는 거리에서 쉴 곳을 찾아 내는 일이다. 우리는 찾고 물어 보고 한다. 20리 남짓한 곳에 도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묵으면 수상쩍게 여겨질지도 모를 가까운 마을들보다는 차라리 그 도시에 가서 묵기로 한다. 그래서 사랑과 희망과 기쁨에, 특히 착한 감정에 넘치는 이 신출내기 애인이 마침내 도착하는 곳은 바로 그 도시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의 싹트는 정념을 바르고 어엿한 것 쪽으로 이끌어, 그의 온갖 성향이 어느새 같은 쪽으로 쏠리도록 해 주는 것이다.

내 일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나는 진작부터 그것을 알아채고 있다. 큰 어려움 들은 다 이겨 내었고, 큰 장애들도 다 넘어섰다. 내가 해야 할 힘드는 일이라고는 이제, 해 온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다가 망쳐 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인생은 덧없는 만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그런 엉터리 조 심성은 더구나 피하기로 하자. 앞으로 있게 되지도 않을 것을 위해 지금 있는 것을 희생시키게 되기가 일쑤니까. 술한 애를 쓰고도 행복해져 보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 사람은 어느 나이에서나 행복하도록 해 주자. 그런데 삶을 즐길 만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몸과 마음의 기능들이 가장 큰 활기를 얻고 있을뿐더러, 사람이 자기 생애의 한복판에서 생애의 짧음을 깨닫게 해 주는 두 끝을 가장 멀리 서 바라보게 되는, 청년기의 끝 무렵이다. 지각없는 젊은이가 잘못하게 되는 것은 즐기고자 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쁨이 있지도 않은 데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고, 형 편없는 미래만 마련하다가 현재는 써먹을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20살이 지난 우리 에밀을 보라, 제대로 자라나고, 정신과 육체가 제대로 잡혀, 힘 세고 건강하고 발랄하고 재빠르고 튼튼하며, 지각과 이성과 착함과 인정에 넘치 며, 행실이 올바르고 취미가 고상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행하며, 사 나운 정념들의 지배와 세론의 굴레를 벗어나 지혜의 법칙에 따르고 우정의 목소리 에 순종하며, 유익한 재능 모두와 즐거운 재능 몇 가지를 지니고 있으며,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살아 나갈 밑천은 팔 끝에 갖고 있어 무슨 일이 나건 땀 걱정은 없는 그런 에밀을 말이다. 이러한 그가 지금은 싹트는 정념에 도취되어 있다. 마음 이 사랑의 첫 불길을 느끼기 시작한다. 달콤한 환상이 더 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새 세계를 눈앞에 펼쳐 준다. 한 귀여운 대상을, 몸보다는 성격 때문에 더 귀여운 대 상을 그는 사랑하고 있다. 자기에게 돌아와 마땅한 것으로 느껴지는 사랑의 보답 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첫 애착이 생겨난 것은 서로 마음이 닮은 점과 서로의 성실한 감정의 일치에서다. 이러한 애착은 오래 가게 마련이다. 그는 자신을 가지고, 이성마저도 가지고, 두려움도 뉘우침도 가책도 없이, 행복감에는

으레 따게 마련인 불안 말고는 딴 불안도 없이, 더 없이 매력적인 흥분에 빠져 있다. 그의 행복에 무엇이 빠질 수 있겠는가? 그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이, 그가 갖고 있는 것과 맞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찾아보라, 상상해 보라. 사람이 한 꺼번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갖추고 있다. 판것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덧붙일 도리가 없다. 그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한도껏 행복하다. 이토록 기분 좋은 판국을 내가 이 계제에 단축시키려들겠는가? 이토록 순수한 기쁨을 그래 내가 어지럽히려 들겠는가? 아, 삶의 가치 모두가 그가 맛보는 행복 속에 있다!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앗아낸다면 그것에 값하는 무엇을 내가 돌려 줄 수 있겠는가? 설사 그의 행복을 절정으로 끌어올려 준다손 치더라도 나는 그 가장 큰 매력을 깨뜨리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다시없는 행복은 얻기보다는 바라는 것이 백배나 더 기분 좋다. 그것을 맛볼 때보다는 기다릴 때가 더 즐겁다. 오, 착한 에밀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받으라! 갖게 되기 전에 오래 즐겨라. 사랑과 결백을 한꺼번에 즐겨라. 천국을 기다리면서 너의 지상 천국을 만들어라. 네 생애의 이 행복한 시기를 내가 단축시키지는 않겠다. 그 마술의 실을 너를 위해 잣겠다. 그것을 되도록 길게 늘어뜨려 보겠다. 딱하게도 그것은 끝나야 하고, 그나마 얼마 안 가서 끝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네 기억 속에 오래 남도록은, 그것을 맛본 것을 네가 뉘우치는 일이 없도록은 해 주겠다.

우리가 돌려 줄 것이 있음을 에밀은 잊지 않는다. 그 준비가 되자 우리는 말을 빌려 타고 달려간다. 이번에는 떠나기가 무섭게 그는 도착하고 싶어진다. 마음이 정념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권태도 느끼기 시작한다.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닐진대 그의 삶 전체가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딱하게도 길이 많이 끊어져 있어 가기가 힘들다. 우리는 길을 잃어 헤매고, 그가 먼저 그것을 알아채나, 조바심이나 짜증을 내지는 않고 있는 주의를 다해 길을 찾으려 든다. 찾아 내기까지에는 오래 헤매나 여전히 침착하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그의 발끈하는 성질을 아는 나에게는 대견하기만 하다. 그를 어려서부터 피치 못할 타격들을 당해 내도록 단련시키느라고 내가 쏟아온 정성의 열매를 나는 보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도착한다. 우리를 맞는 태도는 먼젓번보다도 솔직하고 짹짹하다. 우리는 이미 구면이다. 에밀과 소피는 약간 당황해서 인사를 하고는 여전히 말은 없다. 우리가 있는 데서 무슨 말을 주고받겠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대화에는 입회자가 필요 없다. 다들 정원을 산책한다. 정원에는 화단 대신 아주 잘 정돈된 채마밭이 있고, 공원 대신 크고 아름다운 온갖 과수로 뒤덮이고 예쁜 개울과 꽃이 가득 찬 꽃밭들로 사방이 끓진 과수원이 있다. 아름다운 곳이군요! 호메로스를 잘 알고 있고 여전히 흥분해 있는 에밀이 외친다. 알키노스의 정원을 보는 기분인데요.<sup>46\*</sup> 알키노스가 무엇인지를 딸이 알고 싶어 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 준다. 알키노스는 코르키라 섬의 임금이었어요, 호메로스가 그려 보인 그의 정원은 너무 수수하고 너무 꾸며져 있지 않다 해서 안목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요.<sup>47</sup> 이 알키노스에게는 귀여운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외국인이 자기 아버지 집에 묵게 된 전날 밤에 그녀는 신랑을 곧 얻게 될 꿈을 꾸었습니다. 당황한 소피가 얼굴이 빨개지며 눈을 숙이고 혀를 깨문다. 상상도 못 할 당황함이다. 더욱 당황하게 해 보고 싶은 아버지가 입을 열어, 공주님은 몸소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던 거더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말한다, 공주는 더러운 냇물은 기름 냄새가 난다면서 만지기도 싫어했다고 너는 생각하니? 한 대 얻어맞은 소피는 타고난 수줍음도 잊고 열심히 변명한다. 하도록 내버려만 두었더라면 그녀가 자질구레

46\* 알키노스(Alcinolis) 이야기는 《오디세이아》 7권에 나온다.

47 “궁전을 나서면, 배·석류, 그 밖의 근사한 열매들이 여는 꽃핀 큰 나무들이며 맛난 열매가 여는 무화과나무들, 푸르른 올리브나무들이 심어진, 사방이 울타리로 막힌 4에이커의 정원이 보인다. 이 아름다운 나무들에는 1년 내내 열매가 없는 적이 없고, 겨울도 여름도 하늬바람의 따스한 입김이 더러는 열매를 맺게 하고 더러는 익게 해 준다. 배나 사과가 가지에서, 무화과가 무화과나무에서, 포도가 그 루터기 위에서, 시들어 말라가는 것이 보인다. 무진장한 포도밭은 노상 새로운 포도를 대 준다. 한쪽에서는 아직 꽃이 달려 시퍼렇거나 검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남겨 두고 거뒀다는 중인데, 한쪽에서는 마당에서 햇볕에 익어 쨍이 되어 간다. 한쪽 끝에는 1년 내 꽃으로 덮인 잘 가꾸어진 화단들이 두 개의 샘물로 장식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원 전체에 물을 주고, 또 하나는 궁전을 지나 시내의 한 높은 건물로 이끌려 시민들의 식수가 된다.”

이것이 《오디세이아》 7권에 나오는 알키노스 왕의 정원의 묘사인데, 저 늙은 문상이 호메로스나 당시의 군주들에게는 안됐지만, 이 정원에는 철망도 조상(彫像)도 폭포도 잔디밭도 보이지 않는다.

한 빨래는 다 했을 것이고,<sup>48</sup> 시켰더라면 신이 나서 더 했으리라는 것은 아빠도 잘 알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불안스러운 얼굴로 몰래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어떤 근심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를 그녀의 순진한 마음에서 읽어 내고는 웃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버지는 잔인하게도 딸의 경솔을 꼬집어 놀리는 어조로 묻는다. 여기서 네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하며, 알키노우스의 딸과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창피하고 떨어져 이제 그녀는 숨을 쉬지도 누구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귀여운 딸아, 속여 봤자 이젠 때가 늦다. 본의 아니게도 너는 속을 털어놓고만 것이다.

이 촌극은 이내 잊힌다, 아니면 그렇게 보인다. 소피에게는 정말 다행하게도 에밀만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산책은 계속 되고, 처음에는 우리 곁에 있던 두 젊은이는 우리의 느린 발걸음에 맞추기가 힘들워진다. 어느새 우리를 앞지르고, 서로 가까워지더니 마침내는 바짝 다가선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꽤 멀리 떨어져서 보인다. 소피는 주의 깊고 찬찬해 보인다. 에밀은 열심히 지껄이며 몸짓을 해댄다. 대화에 난처해하는 눈치들은 아니다. 한 시간 남짓해서 발길을 되돌리며 둘을 부르니 되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느려, 시간을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윽고 그들의 이야기는 들릴 거리가 되기 직전에 푹 그치더니, 켄겔음으로 우리 있는 데로 온다. 에밀이 환하고 상냥한 기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눈이 기쁨으로 번쩍거린다. 그러나 소피의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가 궁금해서 그 눈을 약간 불안스레 그쪽으로 돌린다. 그런 거리낌 없는 티가 소피에게는 통 없다. 다가오면서도 젊은 남자와 나란히 있는 것이 아주 난처해 보인다. 흔히 판 남자들과 같이 있어도 자기가 당황하거나 남이 이상하게 본 일이 없는 그녀가 말이다. 마치 아까부터 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려는 듯이, 별 뜻도 없는 말 몇 마디를 하면서 약간 숨이 차서 어머니 곁으로 얼른 달려온다.

이 귀여운 아이들 얼굴에 나타난 화창한 빛으로 보아, 젊은 마음들이 대화로 훨씬 흥가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조심성이 덜해진 것은 아니나, 거북하기는 덜하

48 소피 어머니가 자기 손 못지않게 부드러워 에밀이 그토록 자주 키스하게 마련인 딸의 손을, 비누로 망치게 두지 않은 데 대해 나는, 자백하지만 약간 고맙게 생각한다.

다. 이제는 에밀의 공손함과 소피의 얌전함, 그리고 두 사람의 예의 바름에서만 오는 조심성이다. 에밀은 몇 마디 말을 건넌 엄두가 나고, 그녀도 이따금씩 대답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입을 여는 일은 없다. 그녀에게서 가장 뚜렷해 보이는 변화는 나에 대한 것이다. 나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다정스레 말을 걸며, 내 환심을 사려고 주의한다. 나를 존경하고 있고, 또 나의 존경을 얻는 데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밀이 내 이야기를 해 준 것이 분명하다. 나를 매수하기로 벌써 짜기라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소피만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매수되지는 않는다. 그는 아마도 나 때문에 그녀의 호의가 필요하기보다는 그녀 때문에 나의 호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귀여운 한 쌍!..... 내 젊은 친구의 인정스러운 마음이 자기 애인과의 첫 대화에 나를 많이 끌어넣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의 노고의 대가를 즐긴다. 그의 우정이 내게 다 갚아 준 것이다.

방문이 되풀이된다. 젊은이들 사이의 대화가 더 잦아진다. 사랑에 도취된 에밀은 자기 행복에 이미 손이 가닿은 기분이다. 그런데도 소피의 명백한 고백은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귀만 기울이지 아무 말도 해 주지 않는다. 에밀은 그녀의 얌전함을 다 알고 있다. 그 지나친 조심성에도 별로 놀라지는 않는다. 자기가 소피에게 나쁘게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다. 소피가 부모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는 짐작하고 재촉해 봐도 좋으냐고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가 그 말을 내게 해서, 내가 대신, 그것도 그가 있는 앞에서 그 말을 한다. 소피는 제 뜻대로 할 수가 있어 그녀가 바라기만 한다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질급을 한다. 그녀의 소행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다. 자신이 줄어든다. 불안해지고, 생각하던 만큼은 일이 진척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 더없이 다정한 사랑이 그녀를 휘어잡기 위해 더없이 감동적인 말을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에밀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아채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것을 남이 말해 주지 않으면 그는 평생을 모르고 넘어갈 것이고, 또 소피는 그것을 말해 주기에는

너무나 자부심이 강하다. 그녀를 가로막는 어려움들이란 딴 여자에게는 부추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는 가난하고 예밀은 부자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가 그를 이렇게만 보다니! 이러한 차등을 없애려면 굉장한 재간이 그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장애를 그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는가? 예밀은 제가 부자인지를 알고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생각이나 있는가? 고맙게도 그는 부자일 필요가 통 없어, 그렇지 않더라도 친절해질 줄을 아는 사람이다. 그가 행하는 선은 마음에서 나오지 지갑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애정과 자기 몸을 불행한 사람들에게 바치고 있으며, 자신의 선행들을 셈해 볼 때라도 자기가 극빈자들에게 뿌린 돈을 셈에 넣을 엄두는 내지도 못한다.

자신의 실연을 두고 무엇을 탓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는 자신의 잘못 탓으로 돌린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변덕스럽다고 나무라겠는가? 자존심이 받은 모욕은 거절당한 사랑의 아픔을 더해 준다. 이제는, 소피의 마음과 맞는다고 여겨지는 마음의 그 귀여운 자신을 가지고 그녀 곁에 가지는 못한다. 그녀 앞에서는 겁을 먹고 떠난다. 이제는 애정으로 그녀 마음을 끌기는 바랄 수가 없어, 동정심으로 그녀가 수그러지도록 만들려고 애쓴다. 때로는 참을성이 지쳐 버리기도 한다. 분한 생각이 잇달아 일어난다. 이러한 걱정을 눈치챈 듯이 소피가 그를 바라본다. 그 시선만으로 그는 사그라져 겁을 먹는다. 전보다도 더 순해진다.

이렇듯 끈덕진 저항과 이겨 내지 못할 침묵에 당황한 그는 자기 친구에게 마음속을 털어놓는다. 슬픔에 빠진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 놓는다. 친구의 도움과 충고를 간청한다. 정말로 풀지 못할 수수께끼군요! 그녀는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견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를 피하기는커녕 같이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면 기쁜 눈치고, 제가 떠나면 서운해 하지요. 제 보살핌은 기꺼이 받아주고요. 제가 드는 시중이 마음에 드나 봐요. 제게 일부러 충고도 해 주고 때로는 명령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소원이나 부탁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제가 마음먹은 결혼 이야기라도 꺼내면 그녀는 명령조로 내 입을 다물게 하고, 내가 한 마디라도 더 하



면 당장에 가 버리거든요. 무슨 야릇한 이유 때문에 내가 자기 것이기는 바라면서 자기가 내 것이 될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들까요? 그녀가 존경하고 좋아해 감히 입을 다물게는 하지 못할 선생님이 말 좀 해 주세요, 그녀더러 말을 시켜 보세요. 저를 도와 주세요, 선생님 일의 마무리를 잘 지어 주세요. 선생님의 정성이 제게 불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 선생님이 제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선생님한테서 얻은 것은 제 불행을 빚어 내게 되겠지요!

나는 소피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을 쉽사리 끌어낸다. 그것을 에밀에게 알려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얻기가 더 힘들다. 마침내 허락을 얻어 그대로 한다. 그 설명에 에밀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런 까다로운 생각에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돈의 많고 적고가 성격이나 가치에 어떤 힘을 미치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돈이 편견에 미치는 힘을 일러 주니 그는 웃기 시작하더니,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소피 못지않게 가난하다는 명예를 얻어 그 신랑이 될 자격을 갖추고 돌아오려고, 당장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찢어 없애고 팽개치고 버리려고 든다.

아니, 뭐라고! 나는 그를 만류하고 그 성급함에 이번에는 내가 웃으며 말한다. 그 풋내 나는 머리는 영 익지 않고 말 것이냐, 평생을 철학을 하고 나서도 추리하는 법을 영 배우지 못하고 말 것이냐? 엉뚱한 네 계획대로 하면 네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소피는 더욱 고집불통이 되리라는 것을 너는 어찌서 알지 못하느냐? 그녀보다 재산이 얼마간 더 많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핸디캡이지만, 그걸 그녀를 위해 다 희생시켰다는 것은 사뭇 큰 핸디캡이 될 것이고, 그녀의 자존심이 먼저도 네게 신세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럴 엄두를 내겠느냐? 남편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싫은 소리하는 것도 그녀는 참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자기 때문에 남편이 가난뱅이가 되었다고 싫은 소리하는 것을 그녀가 참아 내겠느냐? 정 딱한 친구군! 네가 그런 계획을 했다는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조심해. 차라리 그녀를 위해 절약하고 조심스레 쓰도록 해. 편히 네가 피를 부려 자기를 손아귀에 넣으려 든다고, 또 네가 잘못해서 잃게 될 것을 일부러 자기를 위해 희생한다고, 너를 비난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그녀가 큰 재산에 정말로 겁을 먹고 있다고, 그녀의 반대가 바로 그 돈 때문이라고, 너는 믿고 있니? 천만에, 에밀아 더 확고하고 중대한 이유는 그 돈이 그것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서 빚어 내는 결과 속에 있는 거다. 행운의 재산이란 그것을 가진 자들이 늘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거든. 부자들은 다 재능보다도 황금을 앞세우게 마련이지. 돈과 시중들기를 공동 투자하는 경우 부자들은 언제나 후자가 전자를 다 갚아 내지는 못한다고 보아, 평생을 시중을 들어도 뺨을 얻어먹는 것으로 빚은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에밀아, 그녀를 걱정에서 안심시켜 주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키도록 해. 이젠 하루에 될 일은 아니야. 고귀한 네 녀의 보물들 중에서, 불행히도 네가 나누어 가진 보물들의 별충이 되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 주라. 끈기와 시간의 힘으로 그녀의 저항을 이겨 내라. 대범하고 너그러운 감정에 힘입어, 그녀더러 너의 부를 잊게 하라. 그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녀의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섬겨라. 그러한 정성이 경박하고 일시적인 정열의 결과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새겨져 지우지 못할 원칙들의 결과임을 그녀에게 밝히 보여 주라. 행운의 저버림을 받은 재능을 마땅히 존경해 주라. 이것이야말로 이 재능과 행운의 혜택을 받은 재능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러한 이야기가 청년에게 얼마나 열광적인 기쁨을 주고, 얼마나 자신과 희망을 돌이켜 주는가는 짐작이 갈 것이다. 소피가 없거나 소피를 사랑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가 하게 될 일 모두를, 소피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해야 하게 된 것을, 그의 성실한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를 말이다. 그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의 그의 처신을 누가 상상하지 못하겠는가?

이래서 마침내 나는 착한 두 사람의 통사정 상대가 되고, 그들의 사랑의 중매자가 된 셈이다! 교사에게는 정말 근사한 직책이지 뭐가! 하도 근사해서, 내 눈에도 나를 이렇게 높여 주고 이렇게 자기만족하게 해 줄 만한 일은 내 평생에 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다. 더구나 이 직책에는 그 나름의 재미가 없지도 않다. 나는 이 집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는단다. 애인들더러 질서를 지키게 하는 뒷바라지는 내게 맡겨져 있다. 내게 잘못 보일까 봐 노상 걱정인 에밀은 이렇게 순해 본 적이 없다.

처녀는 내게 우정을 마구 베풀지만, 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를 앓아, 내가 받아 마땅한 것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녀는 자기가 에밀에게 강요하는 존경을 간접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떨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나를 그런 다정한 아양을 나를 통해 그에게 떨어 보이는 것이고, 또 내가 자기의 이익을 해칠 생각이 없음을 아는 그로서는 내가 그녀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무척 기뻐한다. 산책 때 그녀가 그의 팔을 뿌리치고 대신 내 팔을 잡아도 그는 참는다. 내 손을 잡고 입과 눈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군말 없이 물러선다. 선생님, 저 대신 잘 말해 주세요. 그는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우리 뒤를 쫓는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생각을 읽어 내려고,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 내려고 애쓴다. 우리 사이에서 지껄여진 말치고 자기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그는 알고 있다. 착한 소피야, 텔레마크에게는 들리지 않게 그의 스승 멘토르와 네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너의 곁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귀엽고도 솔직하게 너는 멘토르더러, 자신의 다정한 마음속을 스쳐가는 모든 생각을 읽어 내게 해 주는가! 얼마나 기꺼이 너는 그에게, 그의 제자에 대한 너의 평가를 모조리 보여 주는가! 얼마나 감동적인 순진함을 가지고 너는 그에게 보다 기분 좋은 감정이 스며들게 해 주는가! 참다못해 네 이야기를 가로챌 때는 그 성가신 친구를 너는 얼마나 애써 화내는 체하며 쫓아 버리는가! 그의 좋은 점에 대해 네가 말하거나 듣는 것을, 또 그를 좋아할 어떤 새로운 이유를 네가 내 대답에서 노상 캐어 내려 드는 것을 그가 와서 가로막을 때, 너는 얼마나 귀엽게 분해하면서 그의 경솔을 나무라는가!

이리하여 공공연한 애인으로서 고민하게 되고 만 에밀은 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모조리 내세우게 된다. 말하고, 조르고, 사정하고, 성가시게 군다. 심한 말을 듣건 구박을 받건, 자기 말이 남의 귀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랑곳없다. 수월한 일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그는, 소피 쪽에서도 애인으로서의 권위를 자기 앞에서 공공연히 가질 염이 나도록 만들고 만다. 그녀가 자기에게 시킬 일은 시키고, 자기에게 사정하는 대신 명령을 하고, 사양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찾아가는 횡수와 시간을 조절해 주고, 어느 날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도록은 지체하지 못

하게 자기를 막아 주도록 말이다. 이런 일은 다 장난삼아서가 아니라 사뭇 진지하게 행해지는 것이어서, 그녀는 그러한 권리들을 비록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그것을 행사할 때는 그런 권리들을 괜히 주었다고 가엾은 에밀이 곧잘 후회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명령하건 그가 대꾸하는 법은 없어, 그는 명령을 이행하러 나가면서도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가 일쑤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녀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한편 뽀내는 여인은 그를 던지지 지켜보며 자기 노예의 자부심을 속으로 웃는다.

알바니와 라파엘로여,<sup>49\*</sup> 기쁨을 그리는 붓을 내게 빌려 달라. 거룩한 밀턴이여, 사랑과 순결의 기쁨을 묘사하는 법을 나의 무딘 펜에게 가르쳐 달라. 아니다, 자연의 거룩한 진실 앞에서는 그대들의 거짓된 예술은 차라리 감추라. 민감한 마음과 성실한 뉘튼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그대의 상상력더러 이 두 젊은 애인의 걱정 위를 마음대로 헤매게 두라. 부모와 지도자들의 눈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기분 좋은 환상에 잠기고, 욕망에 도취되어 서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꽃과 꽃 줄로 무덤에까지도 맺어 줄 행복의 밧줄을 꼬는 애인들의 걱정 위를 말이다. 하도 많은 즐거운 이미지들에 도취된 나는 두서도 없이 그것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거기서 오는 흥분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할 수가 없다. 오, 마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 머릿속에 아버지의 · 어머니의 · 딸의 · 교사의 · 제자의 제각기 다른 처지의 감미로운 그림을, 사랑과 미덕이 그 행복을 갖다 줄 터없이 귀여운 결합을 위한 서로의 협력의 그림을 그려 볼 줄을 모르겠는가?

환심을 사기에 여념이 없어진 에밀이, 자기가 닦아 온 예능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소피는 노래하기를 좋아해 그는 그녀와 함께 노래한다. 나아가서는 그녀에게 음악도 가르쳐 준다. 그녀는 몸이 날렵해 뛰기를 좋아하므로, 그는 그녀와 함께 춤추며 뛰기를 스텝으로 바꾸어 주어 숙달시킨다. 이러한 공부부는 즐겁고 익살맞은 쾌활로 활기를 띠며, 사랑의 겁먹은 스스러움을 덜어 준다. 이러한 공부부를 즐겁게 시키는 일은 애인에게에는 허용되어 있다. 자기 애인의 선행

49\* Francesco Albani(1578~1660)는 이탈리아 화가. 볼로냐 태생.

Raphael(1483~1520)도 이탈리아의 화가.

이 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일이다.

아주 탈이 난 낡은 클라브생 한 대가 있다. 에밀이 그것을 고쳐서 조율을 한다. 그는 소목장이이면서 현악기의 제작자이고 조율사이기도 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건 남의 도움이 없어도 되도록 배운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격률로 삼아 왔다. 그 집은 그림 같은 환경 속에 있어 그는 그 갖가지 전망을 그리는데, 때로는 소피도 거들고, 또 그것으로 자기 아버지 서재를 꾸미기도 한다. 그림들은 금칠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에밀 이 스케치하는 것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그녀는 그를 본받아 가며 익숙해지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가꾸며, 그녀의 매력들이 그 재능 모두를 미화시킨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위에 미술품들이 빛나는 것을 보고는, 그것들만이 값지게 만들어 주던 옛날의 호사를 회상한다. 사랑이 집을 온통 꾸며 놓은 것이다. 사랑만이 비용도 고생도 치르지 않고 집안에 기쁨이 감돌게 한다. 전에는 술한 돈과 걱정 근심을 치러서만 끌어모을 수 있던 바로 그 기쁨들을 말이다.

우상 숭배자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로 숭배의 대상을 장식하고 자신이 경배하는 신을 제단에 모셔 꾸며 대듯이, 애인도 사랑하는 여자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헛일, 노상 새로운 장식들을 덧붙여 주고 싶어 한다.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럴 필요가 그녀에게는 없다. 그런데 그녀를 꾸며 줄 필요가 그에게는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그녀에게 표한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경의다. 그녀를 바라보는 기쁨에 그가 곁들이는 새로운 흥미다. 그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꾸며 주지 않을 때는 제대로 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에밀이 소피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에 맞거나 그녀에게 적당한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은 다 기를 쓰고 가르쳐 주려 드는 것을 보면, 감동적이면서도 우스운 광경이다. 그는 어린애처럼 기를 쓰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설명해 준다. 말만 해 주면 그녀가 당장에 알아들으리라 믿고 있다. 그녀와 함께 추리하고 철학하게 될 기쁨을 미리 상상해 보며, 그녀에게 펼쳐 보일 수 없는 지식은 다 무용한 것으로 여긴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거의 부끄러워할 정도다.

그래서 그는 철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역사의, 한 마디로 말해 모든 것의 수업을 하게 된다. 소피는 그의 열성에 기꺼이 응하며 그것을 이용하려고 애쓴다. 그녀 앞에 꿰어 앉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자 에밀은 얼마나 흐뭇해하는가!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는 기분이다. 그러나 선생보다도 학생이 더 거북한 이러한 자세가 교육에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자기 눈을 뒤쫓는 눈을 피하려고 눈 둘 바를 통 알지 못하게 되고, 두 눈이 마주치면 수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생각하는 기술이 여자들과는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리하는 학문들은 스쳐만 가야 한다. 소피는 다 이해는 하지만 대단한 것을 머리에 남겨 두지는 못한다. 그녀의 진보는 윤리에서, 취미적인 것들에서 가장 뚜렷하다. 물리학에서는 일반 법칙과 우주 이론에 대한 어떤 관념밖에는 머리에 남지 않는다. 때로는 산책에서 자연의 경이를 바라보다가 둘의 순결한 마음이 그 창조자에게까지 이르는 수가 있다. 둘은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그 앞에서 서로의 신앙을 털어놓는다.

뭐라고! 꽃다운 두 애인이 밀회를 종교 이야기로 보내다니? 교리 문답에 자기네 시간을 보내다니? 숭고한 것을 격하시켜 좋을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렇다, 둘은 마음을 호리는 환상에 잠겨 교리 문답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미덕에 상주는 이에 대해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미덕에 바치는 희생 때문에 미덕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억눌러야 할 걱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늘의 이슬보다도 더 맑은 눈물을 같이 흘리기도 하는데, 이 기분 좋은 눈물이 그들의 삶의 기쁨을 빚어 낸다. 그들은 인간의 낮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가장 매력 있는 열광 속에 있는 것이다. 부자유마저도 그들의 행복을 늘려 주며, 그래서 희생당하는 그들을 자기 눈에도 훌륭해 보이게 해 준다. 호색가들, 영혼 없는 육신들, 그들도 언젠가는 너희의 기쁨을 알아, 그런 기쁨을 참아 온 행복한 시기를 평생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때로는 불화가, 싸움조차도, 없지는 않다. 처녀에게는 변덕이, 총각에게는 객기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잔다란 뇌우들은 얼른 지나가 버려, 결합을 굳혀 줄 따름이어서, 그런 경험 자체가 에밀에게 그 뇌우들을

그다지 염려하지 말도록 가르쳐 주고 있으며, 불화가 그에게 해로운 이상으로 화해는 언제나 그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첫 불화의 성과가 그로 하여금 다음에도 같은 성과들을 기대하게 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필경은 그만큼 뚜렷한 이득을 노상 보지는 못하더라도, 소피가 그의 마음에 대해 보이는 진지한 호의가 확인된다는 이득은 노상 보고 있는 셈이다. 그 이득이란 대관절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들 한다. 좋다, 이 본보기가 아주 유익한 하나의 격률을 설명하고 아주 해로운 격률을 반박할 기회를 나에게 줄 것이기에 더구나 나는 기꺼이 말해 주겠다. 에밀은 사랑하고 있다. 따라서 무모하지는 않다. 더구나 기가 센 소피가 그를 무릅없이 굴게 둘 처녀가 아님을 말할 나위가 없다. 만사에 있어 분별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피는 지나친 너그름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냉혹 때문에 비난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조차도 딸의 지나친 자존심이 교만으로 변질되지나 않나 하고 때때로 걱정한다. 가장 은밀한 밀회에서도 에밀은 최소한의 애정 표시를 간청할, 아니 그것을 갈망하는 눈치를 보일 엄두조차도 내지 못할 것이며, 그녀가 권리로써 바꾸어 주지 않는 호의로서 산책 때 팔짱을 끼어 주더라도 그는 가끔 한숨을 쉬면서 그녀의 팔을 자기 가슴에 대고 꼭 쥐어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오래 기를 못 펴다가도 그녀의 드레스에 몰래 키스라도 감행하면 더러는 그녀가 못 본 체해 주기도 해 우쭐해진다. 하루는 그가 좀 더 내놓고 그러려고 들자 그녀는 그것이 아주 몹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우겨 대고 그녀는 화가 난다. 핫김에 따끔한 말 몇 마디가 튀어나온다. 에밀은 대꾸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 날은 줄곧 토라져 있게 되고, 아주 못마땅한 마음으로 헤어진다.

소피는 기분이 언짢다. 어머니가 통사정 상대다. 괴로움을 어머니한테야 어떻게 감추겠는가? 그녀에게는 첫 다툼질이고, 한 시간 동안의 다툼질이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그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어머니는 사과하도록 해 주고 아버지는 그러도록 명령한다.

이튿날, 불안한 에밀은 여느 때보다도 일찍 온다. 소피는 어머니 화장방에 있다. 아버지도 한방에 있다. 에밀은 시무룩하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들어온다. 양친이 그에게 인사를 끝내자 소피는 돌아다보고 손을 내밀며 상냥한 말투로 묻는다, 안

녕하세요?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내밀어진 것은 키스를 받기 위해서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그 손을 잡고도 키스하지는 않는다. 약간 쑥스러워진 소피는 되도록 어색하지 않게 그 손을 거둔다. 여자들처럼 생겨 먹지를 앓아 번덕이 무슨 소용 인지를 알지 못하는 에밀은, 그것을 쉽사리 잊지 못해 금방 마음이 풀리지는 않는다. 소피가 당황해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놀려 대는 바람에 딸은 영 어리둥절해지고 만다. 얼떨떨하고 창피해진 가엾은 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그저 울고 싶은 심정뿐이다. 참을수록 가슴만 더 미어진다. 마침내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나온다. 에밀은 눈물을 보자 그 무르팍 밑에 달려들어 손을 잡고는 정신없이 여러 번을 키스한다. 정말로 너는 착하구나, 하고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나 같으면 그런 철부지 여자들에겐 너그럽지가 않아 나를 목욕 할 입에 벌을 주겠는데, 이 말에 힘을 얻은 에밀은 사정하듯한 눈을 어머니 쪽으로 돌려 동의하는 기색이 보인다고 믿고는, 떨며 소피의 얼굴에 다가가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입을 피하려고 장미 같은 볼만 내놓는다. 이 주책바가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 굳이 거역하지도 않는다. 어머니가 보는 앞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근사한 키스이겠는가! 엄격한 소피야, 조심해야지. 자꾸만 네 드레스에 키스 하겠다고 들 테니까. 하기가 너도 가끔은 거절하겠지만.

이러한 본보기 벌이 있는 뒤에 아버지는 무슨 불일로 나가고, 어머니는 무슨 핑계를 내세워 소피를 내보낸 다음, 에밀에게 입을 열어 사뭇 진지한 어조로 말한다.

“여보게, 자네만큼 태생이 좋고 제대로 자라 생각이나 품행이 반듯한 청년이라면, 한 가정이 보여 준 우정에 불명예로 보답하러 들지는 않을 걸세. 나는 괴팍스러운 여자도 얹지만 떼는 여자도 아니어서, 익살맞은 젊은이들에게는 더러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네. 방금 내가 보고도 가만있었던 일이 그걸 충분히 증명해 주지 않는가. 자네의 본분에 대해 자네 선생한테 물어 보게. 부모가 있는 데서는 허용되는 장난들과, 부모가 없는 데서 부모의 신임을 악용해서, 보는 앞에서는 깨끗하기만 한 애정의 표시들을 함정으로 바꾸면서 무릅없이 구는 짓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선생님이 말해 주실 거야. 내 딸이 자네한테 잘못된 일



이라고는, 제가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을 애초에 알지 못했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선생님은 말해 주실 걸세. 애정의 표시로 여겨지는 것은 다 애정의 표시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무람없는 것들을 남몰래 해 보려고 처녀의 고지식함을 악용한다는 것은 염치를 아는 남자가 합직한 일은 되지 못한다고, 말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여럿 앞에서 예절상 묵인될 수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남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엉뚱한 짓들에 대해 자기만이 심판자인, 그런 자가 어디서 그만둘 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말일세.”

내 제자보다는 내게 이런 정당한 꾸중을 하고 나서 이 현명한,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자기 딸 입술에 키스하는 것은 대단찮게 여기나 혼자서 딸의 드레스에 키스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보기 드문 사례 분별에 나는 감탄해 마지않는다. 언제나 점잔 때문에 진짜 성실성을 희생시키는 우리의 격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해 보다가 나는, 왜 마음이 타락할수록 말은 더 깔끔해지는가를, 또 왜 예의범절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불성실할수록 더 빈틈없어지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내가 진작 일러 주었어야 할 의무들을 이 기회에 에밀에게 명심시키다가 내 머리에는, 아마 소피에게는 더없이 명예가 되겠지만 그 애인에게는 내가 알려 주기를 삼가는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비난받는 그녀의 그 이른바 콧대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심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딱하게도 자신이 불붙기 쉬운 기질임을 깨닫고 있는 그녀는, 첫 불티가 두려워 있는 힘을 다해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엄격한 것은 콧대 때문이 아니라 겸허 때문인 것이다. 자신을 휘어잡지는 못할 것만 같아 에밀을 휘어잡는 것이다. 자신과 싸우기 위해 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더 자신이 있다면 콧대는 덜 세어질 것이다. 이 점만 없애어 보라, 세상에 어느 처녀가 이보다 더 유순하겠는가? 누가 무례를 더 참을성 있게 참아 내겠는가? 남에게 무례가 될까 봐 누가 더 두려워하겠는가? 미덕만 뺀다면 만사에 있어 자부심을 누가 이보다 덜 가졌겠는가? 더구나 그녀가 콧대가 센 것은 자신의 미덕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그 미덕을 간직해 나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위험 없이 자기 마음이 쏠리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는 자기

에인에게까지도 다정하게 군다. 그런데 신중한 어머니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 모두는 아버지에게조차도 알려 주지 않는다. 남자들이란 다 알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더구나 소피는 자신의 승리를 뽐내는 것 같아 보이기는커녕, 모든 사람에게 더 상냥해지고 덜 까다로워졌다. 아마 이러한 변화를 빚어 낸 한 사람만은 빼놓고 말이다. 자유롭다는 느낌 때문에 그녀의 의젓한 마음이 으쓱해지는 일은 이미 없다. 자신의 자유를 주고 얻는 승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애인이라는 말을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듣지 못하게 되고 만 다음부터는, 태도가 덜 자유롭고 말씨는 더 조심스럽다. 그러나 그 당황함 속에도 흐뭇해하는 기색은 엿보이고, 그 부끄러움마저도 불쾌한 감정은 아니다. 그녀의 거동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특히 젊은 남자 손님들 대할 때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서부터는 여태까지의 그 극도의 조심성이 많이 풀렸다. 선택이 끝난 그녀는 관심 밖의 남자들에게는 거리낌 없이 상냥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의 가치에 관심이 없어진 뒤로 덜 까다로워진 그녀는, 그들을 자기에게는 영영 아무것도 아닐 사람들치고는 친절한 사람들로 늘 보아 주는 것이다.

참된 사랑도 교태를 부릴 수가 있다면 나는 그 약간의 흔적들을, 소피가 애인 눈앞에서 그들과 수작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든다. 조심성과 아양을 근사하게 뒤섞어서 애인의 불같은 정열을 타오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가, 그 정열을 약간의 불안으로 끄드겨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젊은 손님들의 흥을 짐짓 돋구어 주는 그녀는 에밀의 괴로움에다가, 그에게는 보여 줄 엄두도 나지 않는 쾌활한 매력들을 곁들여 주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를 실지로 괴롭혀 주기에는 소피는 너무나 자상하고 어질고分別이 있다. 그런 위험한 자극제의 효력을 줄이기 위해 사랑과 정숙이 조심성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를 불안케 만들다가도 필요하면 바로 안심시킬 줄도 알아 때로 걱정을 시키는 수는 있어도 그를 슬프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다. 애인을 영락없이 붙잡아 두고 있나 하는 염려에서 시키는 걱정이니 용서해 주기로 하자.

그런데 이러한 잔피가 에밀에게는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그는 질투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여담도 이 책의 목적에는 들어가는

것이어서, 나를 주제에서 별로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니까.

억측에만 말미암는 일들에서는 이 정념이 어떻게 해서 사람 마음에 생겨나는가를 앞서 밝혀 두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여기서는 질투심이 자연과 하도 밀접되어 있는 것 같아 자연에서 오지 않는다고 믿기가 힘들 정도며, 미칠 듯한 질투까지도 더러 보이는 동물들의 예조차도 반대 견해를 반박의 여지없이 입증해 주는 것 같다. 수탉들더러 서로 박살이 나게 싸우도록, 황소들더러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의 억측인가?

우리의 기쁨들을 어지럽히고 가로막는 것 모두에 대한 반감은 타고난 충동이며, 이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독차지하려는 욕망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념이 된 이 욕망이 격분으로 바뀌거나, 질투심이라 불리는 의심 많고 우울한 변덕으로 바뀌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정념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별해야만 한다.

동물들에서 끌어낸 예는 전에 《불평등론》에서 검토된 적이 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그 검토는 감히 독자들더러 참조케 해도 좋을 만큼 확고해 보인다. 다만 자연에서 오는 질투심은 성(性)의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 능력에 한도가 없거나 없어 보일 때 그 질투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점만을, 그 글에서 내가 해 둔 구별에다 덧붙이겠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권리를 가감하는 수컷은 판 수컷을 성가신 경쟁자로밖에는 결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유의 종족들에서는 언제나 맨 먼저 나타난 수컷에 순종하게 마련인 암컷들이란, 정복의 권리에 의해서만 수컷들 것이 되기에 그것들 사이에 끝없는 싸움을 빚어 낸다.

반대로 수컷 하나가 암컷 하나와 결합되어 이 짝짓기가 일종의 도덕적 유대를, 일종의 결혼을 낳는 그러한 종족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을 바친 수컷에 딸리는 암컷은, 대체로 판 수컷을 다 물리치며, 그 절개의 보증 삼아 각별한 애정을 받는 수컷은, 판 수컷들을 보아도 불안해지는 일이 적어 평화롭게들 어울려 지내는 일이 많다. 이런 종족들에서는 수컷도 새끼들의 뒷바라지를 거들며, 보고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저 자연 법칙의 하나에 의해 암컷은, 아버지의 자식들에 대한 애착에 대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인류를 그 소박한 원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에 의해 남성이 단 하나의 여성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성의 한정된 능력이나 그 욕망들의 절제로 보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남녀의 수효가 적어도 우리의 풍토에서는 같다는 점에 의해 확증된다. 가장 강한 수컷 혼자서 암컷 여럿을 거느리는 그러한 종족들에서는 통 볼 수 없는 수효의 같음에 의해서 말이다. 그리고 비록 남자는 비둘기처럼 알을 품지는 않지만, 또 짓먹일 젖통도 없어 이 점에서는 네발짐승 강(綱)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하도 오래 기어다니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이들도 아버지의 애착과 그 결과인 뒷바라지 없이 지내기관 힘들 것이다.

따라서 모든 관찰은 일치해서, 동물의 몇몇 종족에서의 미칠 듯한 질투가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 일부다처제가 굳어져 있는 남쪽 풍토의 예외마저도 이 원칙을 더욱 굳혀 줄 따름인데, 그것은 남편들의 폭군적인 경계심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아내가 여럿이기 때문이고, 남자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자연 법칙을 피해 강제 수단에 의지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연 법칙들이 이런 점에서는 덜어져 있어도, 반대되는 더 고약한 방향에서는 여겨져 있는 우리네 사이에서는, 질투심의 동기가 원시적인 본능에보다도 사회적인 정념들 속에 더 많이 있다. 대부분의 남녀 관계에 있어 남자는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라이벌들을 미워한다. 자기 말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그 근원을 밝힌 바 있는 자존심의 결과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보다도 허영심이 사뭇 더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어설픈 교육이 여자들을 하도 엉큼하게 만들고,<sup>50</sup> 그 욕망들을 하도 세게 꼬드쳐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표시된 애착도 믿기 힘들 판이고, 여자들은 이제 경쟁자들의 염려를 풀어 줄 만한 각별한 애정의 표시도 하지 못할 판이다.

50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엉큼함은, 여자들이 자연에서 얻어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엉큼함과는 상반된다. 한쪽은 자기가 가진 느낌을 감추는 것이지만, 한쪽은 자기가 갖지도 않은 느낌을 가진 채 하는 것이다. 사교계 여자들은 다 자칭 감수성을 과시하느라고 평생을 보내고 있지만, 자기 자신밖에 는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참된 사랑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그러한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타고난 것은 아니어서, 남자더러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만드는 다정한 습관과, 남자가 이미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하게 된 대상의 터무니없는 매력들로 그를 도취시키는 저 방자한 걱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든 글에서 밝혀 둔 바 있다. 독차지와 편애밖에는 바라지 않는 이 정념이 이 점에 있어 자만심과 다른 점이라고는, 다 달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만심이 언제나 부당한 데 비해, 달라는 만큼은 주기도 하는 사랑은 으레 공정한 감정이게 마련이라는 점뿐이다. 게다가 사랑은 요구가 많을수록 더 고지식하다. 사랑을 빚어 내는 바로 그 착각이 사랑더러 쉽사리 믿게도 만든다. 사랑은 불안해도 존경은 믿음직해, 존경 없는 사랑이 성실한 마음에 갇들여 본 적은 일찍이 없다.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 속에서는 자기가 존중하는 장점들밖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다 제대로 밝혀지고 나면 에밀이 어떤 유의 질투심을 가질 수 있는지도 어김없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념은 사람 마음속에 싹을 갖기는 어려워 그 형태는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니까. 에밀은 사랑하고 질투를 해도 성내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심이 많아지지는 않고 섬세·민감·소심해질 것이고, 역정내기보다는 경계하게 될 것이고, 라이벌을 헐박하기보다는 애인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애써, 되도록이면 적으로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의 장애물로서 멀리할 것이다. 설사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바라는 마음을 얻고자 그와 다투겠다는 대담성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잃을 실지 위험을 그가 무릅쓰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감히 자기와 겨룬다 해서 어리석게도 부당한 자만심이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좋아할 권리는 오로지 그 사람됨에서만 오는 것이고, 명예란 성공에 있는 것임을 아는 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한층 더 애쓸 것이고, 또 아마 성공도 할 것이다. 너그러운 소피는 약간의 불안을 주어 애인을 약올리면서도 그 불안을 풀어 주고 별충해 줄 줄도 알 것이며, 또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만 묵인되었던 경쟁자들은 머지않아 따돌려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끌려가고 말았는가? 오, 에밀,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네게서 내 제자를 알아볼 수나 있는가? 네가 이 꼴이 되다니!

그토록 엄하게 단련되어, 계절의 극성에도 예사, 몸은 더없이 고된 노동들에, 마음은 지혜의 법칙들에만 내어 맡기던 그 청년, 편견에도 정념에도 끄떡하지 않아, 진리만을 사랑하고 이성에만 따르며, 자기 아닌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던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은 한가한 생활에서 나약해진 그는 여자들이 부리는 대로 가만있어, 그녀들의 소일거리가 그의 일이고 그녀들의 의지가 그의 법칙이며, 한 처녀가 그의 운명의 지배자가 되어 그 앞에서 기고 무릎을 꿇으니, 젊음은 에밀이 어린애의 장난감이 되다니!

생활의 국면의 변화란 이런 것이다. 나이마다에 그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지만 사람 자체는 늘 마찬가지다. 10살 때는 과자에, 20살에는 애인에, 30살에는 쾌락에, 40살에는 야심에, 50살에는 인색에 끌려다닌다. 지혜만을 뒤쫓는 것은 언제인가? 저도 모르게 지혜로 이끌리는 자는 행복하기도 하다!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만 한다면 어떤 길잡이를 쓰긴 무슨 상관인가? 영웅이나 현자들까지도 인간의 약점에 대한 이러한 공물을 바쳤던 것이며, 손가락으로 물렛가락을 부러뜨린 자<sup>51\*</sup>도 그래서 털 위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잘 된 교육의 성과를 온 평생에 미치게 해 주고 싶은가? 어릴 때의 좋은 습관들을 청년기에도 줄곧 간직케 해 주라,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가 바람직한 사람이 되거든 언제나 그대로 있도록 해 주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일에 남은 마지막 마무리다. 청년들에게 교사를 계속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때문이다. 판이유 때문이라면, 교사 없이는 연애할 줄도 모른다는 따위의 염려는 거의 할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다. 교사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그릇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생활 방식은 판 생활 방식과 양립될 수가 없으니, 커지면 어려서 하던 것은 다 그만두어야지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렇다면, 유년기의 선용도 악용도 유년기와 더불어 사라지고 말아,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락없이 다른 사고방식도 취하게 될 것인 만큼, 유년기를 돌봐 준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기억을 단절시키는 것이 심한 병들밖에 없듯이, 관습을 단절시키는 것은 심한 정

51\* 헤라클레스.

넘들밖에 없다. 우리의 취미나 성미는 비록 바뀌지만, 때로는 꽤 갑작스럽기도 한 그러한 변화도, 습관 때문에 누그러진다. 색채들의 근사한 바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향들의 잇닿음에 있어서도, 익숙한 기술자는 그 옳아감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색조들을 녹여 섞어야 하고, 어느 색조도 두드러지지 않도록 몇 가지 색조를 작품 전체에 깔아야 한다. 이 규칙은 경험으로 확인된다. 무절제한 사람들은 애정·취미·생각을 날마다 바꾸어, 꾸준한 것이라고는 바꾸는 버릇밖에 없다. 그러나 단정한 사람은 언제나 전 버릇들로 되돌아가, 어려서 좋아하던 기쁨들에 대한 취미를 늘어서도 잃지 않는다.

새로운 시기로 옮겨가더라도 청년들이 지나 온 시기를 깔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도 전의 습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언제 시작했건 상관 말고 좋은 일은 언제나 하기 좋아하도록 해 주라. 그래야만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살리게 되고, 그들에 대해 필생토록 관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염려할 변동이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살피고 있는 시기의 변동이니까. 이 시기는 언제까지나 아쉬워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간직해 온 취미들은 나중에도 좀처럼 잃게 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서 그것들이 중단되면 평생 되찾게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붙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의 대부분은, 그들이 억지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따르긴 하나 거기서 풀려나올 기회밖에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진짜 습관들이 아니다. 감옥살이를 아무리 해도 감옥에 있는 취미가 생기는 일은 없다. 이 경우에 습관은 싫증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기만 한다.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건 마음이 내켜서 기꺼이만 해 왔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행동하기를 계속함으로써 습관의 지배력을 자유의 즐거움에 덧붙여 주지만 하는 예 밑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활동적인 생활·팔로 하는 일·훈련·운동이 그에게는 하도 없지 못할 것이 되어 버렸기에 고통 없이는 그만둘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를 갑자기 맥 빠진 불박이 생활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그를 가두고 엮매어 지독하고 답답한 상태에 붙잡아 두는 셈이다. 그 때문에 그의 기질도 건강도 똑같이 해쳐질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꼭 막힌 방에서는 그

는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해, 아무래도 바깥 공기와 운동과 고된 일이 있어야 한다. 소피 곁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들판을 결눈질해 보며, 그녀와 같이 거기를 쏘다니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래도 가만있어야 할 때는 가만있긴 하지만, 안절부절못해 발버둥이 치는 것 같으며,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 억지로 시킨 일들이고, 내가 그에게 준 속박들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지만, 그것은 다 사실이다. 나는 그를 인간의 상태에 다 묶어 둔 것이다.

에밀은 소피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끈 애초의 매력들은 무엇인가? 감수성과 미덕, 그리고 어엿한 일들에 대한 사랑이다. 애인의 이러한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사랑은 잃은 셈인가? 소피 쪽에서는 어떤 대가로 자신을 내놓았는가? 애인의 마음에 나면서부터 있는 모든 감정들을 대가로 해서이다. 진짜 좋은 것들의 존중·검소·솔직·너그러운 공평무사·호사와 부의 멸시 등이다. 에밀은 이러한 미덕들을 사랑이 강요하기 전에 갖고 있었다. 그러니 에밀이 정말로 바뀐 것은 어떤 점인가? 그에게는 새로운 존재 이유들이 있다. 이 점만이 그가 이전의 그와는 다른 점이다.

이 책을 좀 주의해서 읽는다면, 에밀의 처지의 온갖 형편들이 우연히 그의 둘레에 이렇게 모여진 것으로 믿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도시들이 그 많은 귀여운 처녀들을 제공하는데도 그의 마음에 드는 처녀는 멀리 떨어진 벽지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인가? 그가 그 처녀를 만나는 것이 우연한 일인가?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이 우연한 일인가? 둘이 한곳에 살 수 없는 것이 우연한 일인가? 그녀에게서 그토록 먼 데서밖에는 그가 은신처를 찾아 내지 못하는 것이 우연한 일인가? 그녀를 자주 만나지 못해, 대단한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가끔 만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연한 일인가? 그는 나약해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겠는가? 반대로 튼튼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소피가 감내하게 만드는 고된 일들을 버티어 나가려면, 그는 내가 만들어 준 그대로 튼튼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서 20리는 족히 떨어진 곳에 묵고 있다. 이 거리는 대장간의 풀무이다. 바로 이 거리를 가지고 나는 사랑의 화살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마주보고 살거나, 그가 근사한 마차에 편히 앉아 그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면, 그는 그녀를 제멋대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파리 사람 식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레안드로스를 헤로에게서 떼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녀를 위해 죽으려 들었겠는가?<sup>52\*</sup> 독자여, 나더러 군소리를 시키지 말아 달라.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디테일들에 있어서도 나의 규칙들을 제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소피를 만나러 갔을 때는 되도록 빨리 가려고 말을 잡아타곤 했다. 이러한 편법이 편리하게 여겨져, 다섯 번째에도 우리는 계속 말을 잡아탄다. 마중들을 나와 있었다. 집에서 오 리 남짓한 곳에서 길에 사람들이 보인다. 에밀이 바라본다, 가슴이 뛰다, 다가가 소피인 줄 알자, 말에서 뛰어내려, 날듯이 달려가 그 상냥한 가족들 발치에 가 있다. 에밀은 잘생긴 말들을 좋아한다. 그의 말은 날쌔고 거리낌이 없어 함부로 도망친다. 내가 따라가 간신히 붙들어 가지고 데려온다. 딱하게도 소피는 말을 무서워해, 나는 감히 그녀 곁에는 가지도 못한다. 에밀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소피가 그에게 자기 선생에게 끼친 수고를 귀찮게 준다. 에밀은 어리둥절해서 달려와 양쪽 말의 고삐를 잡고는 뒤에 처진다. 차례는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번에는 우리 말들을 처치하기 위해 그가 맨 먼저 앞장서 간다. 그래서 소피를 뒤에 남기게 되니 이젠 말도 그다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혈레벌떡거리며 돌아와 길 어중간에서 우리와 만나게 된다.

다음에 갈 때는 에밀은 이미 말에는 생각이 없다. 왜 그러지? 돌봐 줄 하인 하나만 데리고 가면 될텐데, 하고 내가 말한다. 아! 그러다간 그 존경받을 만한 집안에 신세만 더 지게요?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는 사람도 말도 다 먹여 주려 들거든요, 하고 그가 말한다. 가난한 사람답게 그들에게는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귀한 마음씨가 있는 건 사실이야, 하고 내가 말을 잇는다. 호사를 누리면서도 구두쇠인 부자들은 친구들밖에 재워 주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의 말까지도 재워 주니까 말이다. 걸어가요, 하고 그가 말한다, 자기 아이의 힘드는 장난까지도 기꺼이 거들

52\* 아비도스(Abydos) 사람 레안드로스(Léandre)는, 세스토스(Sestos)에서 비너스(아프로디테)의 무너로 있던 헤로(Héro)를 사랑해, 헬레스폰트 해협을 헤엄쳐 그녀를 만나러 가곤 했다. 어느 날 태풍으로 그가 빠져 죽자, 헤로도 바다에 몸을 던졌다(그리스 신화).

어 주시는 선생님이 그래 걸어갈 기력도 없으세요? 좋고 말고, 당장에 나도 응한다. 내가 보기엔 사랑이란 것도 그렇게 야단스럽게 해 주길 바라진 않는 모양이군. 가까워지자, 먼저보다도 더 먼 데서 모녀를 발견한다. 우리는 화살처럼 달려왔던 것이다. 에밀은 흠뻑 땀이다. 정다운 손이 손수건으로 볼을 씻어 준다. 세상에 말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 우리가 말을 쓸 염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녁을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심하다. 여름이 끝나 가고 있어 낮은 짧아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밤에 돌아가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니, 아침 일찍이라도 오지 않고서는 거의 도착하자마자 돌아서야 한다. 보기가 딱해 염려한 나머지 어머니는, 자기 집에 우리를 재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당하지가 못하지만, 가끔은 잘 수 있도록 마을에 숙소를 정해 줄 수는 있다고, 마침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에 에밀은 손뼉을 치며 좋아 어쩔 줄을 모른다. 소피도 어머니가 이런 피를 생각해 낸 날에는, 어머니에게 하는 키스가 저도 모르게 여느 날보다는 약간 더 잦다.

부드러운 우정과 순진한 친밀감이 차츰차츰 우리 사이에 생겨나 굳어져 간다. 소피나 어머니가 정해 준 날에는 나는 대개 에밀과 같이 가고, 때로는 혼자서 가게 두기도 한다. 신뢰감이 낮을 높여 주는 것이며, 이제는 어른을 아이로 다루어서도 안된다. 또 내 제자가 내 신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내가 여태까지 해낸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를 두고 나 혼자 가는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는 섭섭해 하지만 투덜거리지는 않는다. 투덜거린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게다가 내가 그의 이익을 해치러 가는 것이 아님은 그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같이 가건 따로 가건, 궁상맞은 모습으로 도착해도 아주 예사인 우리가 어떤 날씨에도 주춤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딱하게도 소피는 우리에게 이런 명예는 주려고 들지를 않아, 궂은 날씨에 오는 것을 금한다. 내가 넌지시 일러 주는 규칙들을 그녀가 어긴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때 뿐이다.

하루는 그가 혼자 가고, 다음 날에야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돌아오기에 포옹을 해 주면서 말한다. 아니, 에밀아, 나한테로 돌아오다니! 그런데 그는 나의 상냥함에 보답하기는커녕 약간 언짢은 기분으로 말한다. 제가 자진해

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마지못해 온 거니까요. 소피가 그러기를 바란 거예요. 제가 돌아온 것은 소피 때문이지 선생님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 순진함에 감동된 나는 또 한 번 포옹해 준다. 솔직하기도 하군. 이 정직한 친구야, 내게 딸린 것을 내게 감추질랑 마라. 소피 때문에 돌아왔더라도, 네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나 때문이야. 네가 돌아온 것은 소피 덕분이지만, 네가 솔직한 것은 내 덕분이거든. 훌륭한 마음씨에서 오는 이런 고귀한 솔직함을 언제까지나 간직하도록 해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둘 수도 있지만, 내가 해 주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친구가 나를 칭찬하는 것을 가만둔다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야.

내가 이 실토에서 도량보다는 사랑을 지적해서, 그에게는 돌아온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으려는 생각보다는 소피의 공으로 돌리려는 생각이 더 많다고 그에게 말해 준다면, 이 실토의 가치를 깎는 일이 되니, 그러지 않도록 나는 조심을 한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을 내게 드러내어 보인다. 즉 그가 연애 생각이나 하며 느릿느릿 마음 편히 돌아왔다면, 에밀은 소피의 애인에 지나지 않는다. 좀 투덜거리더라도 상기가 되어 잔걸음으로 온다면, 에밀은 그의 멘토르의 제자인 것이다.

내 제자가 늘 소피 곁에서 지내거나 마음대로 그녀를 만나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조치들로 보아 알 수 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한 주일에 한두 번의 내왕이 고작이고, 그 방문도 반나절뿐이기가 일쑤여서 다음 날까지 끄는 일은 드물다. 그녀를 실지로 만나 보는 시간보다는, 만나 볼 기대를 하거나 만나 본 것을 기뻐하는 시간이 사뭇 더 많다. 내왕에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그녀 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만나러 가거나 만나고 오는 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참되고 순수하고 감미로우면서도 현실보다는 상상에서 더 많이 오는 그의 기쁨들은, 그의 사랑은 부추겨 주면서도 그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그는 일없이 죽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날들에 는 더욱 에밀다와, 전혀 변한 데가 없다. 대개는 근처의 들판을 쏘다니며 박물학 공부를 계속하고, 그곳의 땅과 산물과 재배법을 관찰, 조사한다. 거기서 보는 일

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 본다. 그 차이의 원인들을 찾아본다. 그곳의 방법보다도 판 방법이 더 낮게 생각되면 그것을 농부들에게 일러 준다. 가령 쟁기의 보다 나은 형태를 권할 때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따라 그것을 만들게 한다. 토탄 지대가 발견되면, 그 고장에서는 모르는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제 손으로 해 보이는 수도 흔히 있다. 그가 자기네 연장들을 자기들보다도 더 수월하게 다루고, 밭고랑을 자기들보다 더 깊고 반듯하게 켜 나가고, 씨를 더 고르게 뿌리고, 두둑을 더 익숙하게 쌓아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놀란다. 그를 일치기 농학자로 깎보지는 않는다. 그가 농사를 실지로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아서 안다.<sup>53\*</sup> 한 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열의와 정성을 으뜸가고 일반적인 쓸모를 지닌 모든 것에 골고루 쏟고 있으며, 더구나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농가들을 찾아가, 그 형편 · 가족 · 아이들 수효 · 땅의 넓이 · 그 소출의 종류 · 판로 · 재산 · 지출 · 빚 따위를 알아본다. 돈은 보통 잘못 쓰게 마련임을 알고 있는 그는 돈은 별로 주지 않는다. 주더라도 그 용처까지도 단속해, 그들이 뭐라 그러건 그 돈이 그들에게 보람 있도록 해 준다. 그는 그들에게 일꾼들을 대어 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그들 자신에게 시켜 날품을 치러 주는 수도 흔히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쯤 쓰러진 자기 초가집을 바로 세워 지붕을 이게 하고, 판 사람에게는 밑천이 없어 버려 둔 자기 땅을 개간케 하고, 또 판 사람에게는 자기가 잃어버린 가축 대신 암소나 말 같은 온갖 가축을 대어 준다. 두 이웃이 송사를 벌이려 들면 양쪽을 타일러 화해시킨다. 어느 농부가 병이 나면 간호를 시키고 자신도 돌봐 준다.<sup>54</sup> 판 농부가 세력 있는 이웃 사람에게 골탕먹으면 보호하고 두둔해 준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서로 좋아하면 거들어 결혼시켜 준다. 노파가 귀여운 자식을 잃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며,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일은 없다. 극빈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고, 불

53\* 이 문장은 원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54 병든 농부를 돌봐 준다는 것은, 관장을 시키고 약을 주고 외과 의사를 보내 주는 일은 아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앓을 때 아쉬워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더 나은 것을 더 푸짐하게 먹여 주는 일이다. 당신들은 열이 나거든 단식을 하라. 그러나 당신의 농부가 그러거든 고기와 포도주를 주라. 그들의 병은 거의 다 가난과 피로에서 온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탕약은 당신의 지하실에 있다. 그들의 유일한 약제사는 당신네 푸주한이께 마련이다.

쌍한 사람들 곁을 얼른 떠나는 일도 없다. 자기가 돌봐 주는 농부들 집에서 식사하기가 일쑤이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농부들 집에서 식사하기도 한다. 더러에게는 은인이, 또 더러에게는 벗이 되면서 노상 그들과 대등하게만 지낸다. 요컨대 자기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만큼은 자기 몸으로도 늘 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 복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소피를 몰래 보기를, 산책하는 그녀를 들키지 않게 보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밀은 하는 짓에 언제나 꾸밈이 없어, 무엇 하나 속일 줄도 모르고 속이려 들지도 않는다. 자신이 착하다는 표시인 자존심을 어루만져 복돋우어 주는 그 상냥한 텔리커시를 그는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추방령을 엄격히 지켜, 소피한테만 신세지고 싶은 것을 우연한 테서 얻을 만큼 가까이 가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대신 애인의 발자국을 더듬어, 자기를 위해 그녀가 해 준 수고에, 마중 나와 준 일에 감동되면서 그 근처를 즐겨 헤맨다. 그녀를 만나게 되어 있는 날의 전날에는 다음 날의 군것질거리를 부탁하러 어느 이웃 농가로 갈 것이다. 산책은 그런 기색도 없이 절로 그쪽으로 향한다. 우연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고, 과일 · 과자 · 크림이 나온다. 미식가인 소피는 이러한 배려에 무관심하지는 않아, 우리의 용의주도함을 치하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사받을 짓을 통 하지 않았는데도 늘 한몫 끼어들게 마련이니까. 이것은 고맙다는 인사를 덜 축스럽게 하기 위한 소녀의 핑계다. 아버지와 나는 과자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에밀은 여자들 축에 끼어 소피의 스푼이 담긴 크림 접시를 훑치려고 노상 노리고 있다.

과자를 먹다가 나는 에밀에게 그가 전에 하던 경주 이야기를 해 준다. 그 경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들 한다. 내가 설명해 주니 다들 웃는다. 그에게들 묻는다, 아직도 달릴 줄 아느냐고? 더 잘 달리지요, 하고 그가 대답한다. 그걸 잊어 먹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게요. 그 자리의 한 사람은 그가 달리는 것이 무척 보고 싶었으나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딴 사람이 대신해서 부탁한다. 그는 받아들인다. 근처의 젊은이 두셋을 불러온다. 상을 주기로 하고, 옛날 경기를 더욱 잘 흉내 내려고 결승점에 과자를 놓는다. 저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빠가 손을 쳐서 신호를 한다. 날쌔 에밀은 바람을 끊어, 세 미련통이가 거의 출발하자마자 벌써 경주로 끝

에 가 있다. 에밀은 소피 손에서 상을 받고, 아에네이스<sup>55\*</sup> 못지않게 인정스러운 그는 진 사람 모두에게 선물로 나누어 준다.

한창 으쓱거리는 판에 소피가 승리자에게 도전을 감행, 자기도 그만큼은 달릴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도 그녀와 겨루기를 사양하지는 않으며, 그래서 그녀가 경주로에 들어갈 차비를 하며 드레스 양옆을 걷어올리고, 또 이 싸움에서 에밀을 이길 생각보다는 날씬한 다리를 그에게 과시할 생각이 더 많아 슬립이 웬만큼 짧은지를 살펴보고 있는 동안, 그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한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찬의를 표한다. 그러자 그는 경쟁자 옆에 가서 서고, 신호가 나자마자 그녀가 새 날아오르듯 출발하는 것이 보인다.

여자들이란 달리도록 생겨난 것은 아니다.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은 잡히기 위해서다. 여자들이 서투르게 하는 것은 달리기만은 아니지만, 맵시 없게 하는 것은 달리기뿐이다. 팔꿈치를 당겨 옆구리에 붙인 자세도 우스꽝스럽지만 발뒤꿈치가 높아 마치 뛰지 않고 달리려 드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소피가 딴 여자보다 잘 달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에밀은, 짐짓 제자리를 뜨지도 않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소피는 날쌔고 굽이 낮은 신을 신었다. 발을 작게 보이려고 잔피를 부릴 필요가 없다. 하도 빨리 선수를 치는 바람에, 이 현대판 아탈란테<sup>56\*</sup>를 따라붙이려면, 그녀에게서 사뭇 떨어져 있는 그로서는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먹이에 덮쳐드는 독수리처럼 출발한다. 그녀를 뒤쫓아 바짝 추격하다가 마침내는 숨이 차 헐떡이는 그녀를 따라붙여, 왼팔을 슬쩍 그녀 허리로 돌려 깃털인 양 가볍게 안아 올리더니, 그 가벼운 짐을 자기 가슴에 껴안은 채 끝까지 달려 그녀더러 결승점에 먼저 닿게 해 준다. 그리고는 “소피의 승리”라고 외치며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자기가 패자임을 자인한다.

이러한 갖가지 일들에, 우리가 배운 직업의 일이 끼어든다. 적어도 한 주에 하루는, 그리고 날씨가 궂어진지를 지킬 수가 없는 날에는 언제나, 에밀과 나는 어느

55\*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 V, 305~308 참조.

56\* 그리스 신화에서 아탈란테(Atalante)는, 자기와 경주해서 이긴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한다.

장인바치 집에 일하러 간다. 거기서 우리는 체면치레로, 그 신분보다는 높은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일꾼으로서 일한다. 한번은 소피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러 와서 작업 중인 우리를 보고는 감탄해서, 자기가 본 대로 아내와 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 가 보렴, 작업장에 있는 그 청년을 말야, 그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깔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될 테니! 이런 말을 듣고 소피가 얼마나 기뻐할지는 짐작이 가리라! 이 이야기는 되풀이되어, 작업 중인 그를 기습하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된다. 시침 떼고 넌지시 내게 물어 우리가 일하는 날을 확인한 다음, 모녀는 바로 그 날로 사륜마차를 타고 시내로 온다.

작업장에 들어서다가 소피는 맞은쪽 구석에서, 윗도리만 걸치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매고는 하도 일에 열중되어 자기는 돌아다 보지도 않는 한 청년에게 눈이 간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눈짓한다. 에밀은 한 손에 끌, 또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장붓구멍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는 널빤지를 톱으로 켜 그 한쪽을 쥘쇠에 끼고 다듬는다. 이 광경에 소피는 웃지 않는다. 그녀를 감동시키는, 머리가 숙여지는 광경이다. 아내여, 당신의 주인을 공경하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에게 빵을 벌어들여 주고,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 그다. 이것이 남자인 것이다.

모녀가 그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내가 알아보고는 에밀의 소매를 잡아당긴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들을 보더니, 연장들을 뺑개치고는 기뻐 소리지르며 달려간다. 잠시 흥분에 잠겼다가는, 그녀들을 앉히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소피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벌떡 일어나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연장들을 살펴보고 다듬어진 널빤지를 만져 보고, 바닥의 지저께비들을 주워 모으고, 우리 손을 눈여겨보더니, 이 직업은 깨끗해서 좋다고 말한다. 이 장난꾸러기는 에밀의 흉내까지도 내어 본다. 그 가냘프고 하얀 손으로 널빤지 위에 대패를 밀어 본다. 대패는 미끄러져 먹히지가 않는다. 사랑의 신이 허공에서 웃으며 날개치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헤라클레스는 복수를 했다”<sup>57\*</sup>고 말하는 것이 들

57\* 헤라클레스는 옴팔레(Omphale)의 발치에서 실을 잣다가 여자처럼 되었지만, 소피는 남자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으니.

리는 것만 같다.

그 사이 어머니는 주인에게 묻는다. 아저씨는 저 남자들에게 얼마씩 주시죠? 마님, 저는 한 사람에게 하루에 20수(sou)씩 주고 먹여 줍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생각만 썼다면 훨씬 더 벌 겁니다. 이 고장에서는 으뜸가는 일꾼이니까요. 하루에 20수하고 먹여 주다니요! 어머니는 감동되어 우리를 바라보며 말한다. 마님, 바로 그렇습죠, 하고 주인이 대답한다. 이 말에 그녀는 에밀에게 달려가 포옹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기 가슴에 껴안고는, 탄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여러 번을 되풀이할 따름이다. 내 아들이! 오, 내 아들이! 하고.

얼마 동안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와 이야기하고 나서, 어머니가 딸에게 말한다. 이젠 가 봐야지, 늦었고, 집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는 에밀에게 다가가서 볼을 살짝 건드리며 말한다. 이거 봐요, 훌륭한 직공님, 우리하고 같이 안 가겠어요? 그는 시무룩한 말투로 대답한다. 저는 고용된 몸이니 주인어른한테 물어 보세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지 주인에게 물어 본다. 안 되겠다는 대답이다. 급한 일거리가 있습죠. 모레까지는 납품을 해야 하거든요. 이 두 양반을 믿고, 나타난 일꾼들을 돌려보냈습죠. 이 양반들이 없어지면 어디서 탄 사람들을 구할 도리가 없어, 약속한 날짜에 납품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에밀이 말하기만 기다린다. 에밀은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있다. 이 침묵에 약간 놀라 어머니가 말한다. 여보게, 자네는 그래 아무 할 말도 없는가? 에밀은 딸을 다정스레 쳐다보며 이렇게만 대답한다. 보시다시피 저는 남아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를 두고 떠난다. 에밀이 문까지 배웅해 끝까지 뒤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지으며 돌아와 말없이 일을 시작한다.

기분이 상한 어머니는 이 별난 처사에 대해 딸에게 가며 가며 말한다. 원 세상에 도! 굳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인을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겠니, 쓸데없이 돈을 마구 뿌리고 다닐 만큼 해폰 그 젊은이가 그래 적당한 기회에는 돈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나? 오, 엄마, 하고 소피가 대답한다. 설마 에밀이 돈만 알아, 돈을 써서 개인적인 계약을 깨뜨리거나, 자기가 한 약속을 예사로 여기고, 납도 약속을 여기게 만들 리야 있겠어요! 자기가 없어 주인이 입게 될 손해쯤



이야 당장에 물어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는 자기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으로 의무를 대신케 해 돈만 치르면 다 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고 말 거예요. 에밀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그리고 저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남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음마, 잘못 생각하질랑 마세요. 그가 남아 있는 것은 저 때문이에요. 그의 눈을 보고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사랑의 진짜 배려들에 대해서도 소피가 너그럽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엄하고 까다롭다. 어중간하게 사랑받기보다는 차라리 사랑받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높이 평가하는 재능, 자신이 존경하듯이 남의 존경도 받고 싶어 하는 재능에 대한 높은 긍지를 그녀는 갖고 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치 전체를 느끼지 못해, 자기 매력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 미덕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은 상대도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보다는 자기의 의무를, 그 밖의 모든 것보다는 그녀를 앞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은 말이다. 법칙이라고는 그녀의 법칙밖에는 모르는 그런 애인을 그녀는 바란 적이 없다. 그녀 때문에 비뚤어진 일이 없는 남자를 그녀는 지배하고 싶은 것이다. 율리시스의 줄개들을 타락시켜 놓고 멸시하는 키르케<sup>58\*</sup>가, 자신이 바뀌 놓지 못한 율리시스에게만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침범 못할 신성한 권리만을 제외한다면, 자신의 모든 권리들에 극도로 집착하는 그녀는, 에밀이 그것들을 얼마나 조심스레 존중하는지를, 그녀의 뜻을 얼마나 열심히 받들어 주고 얼마나 익숙하게 알아채는지를, 그가 얼마나 주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오는가를 눈여겨 살핀다. 그가 늦는 것도 앞당겨 오는 것도 그녀는 바라지 않는다. 그가 정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당겨 오는 것은 자기를 그녀보다 앞세우는 것이고, 늦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다. 소피를 무시하다니!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번 가진 부당한 의심이 모두를 망쳐 놓을 뻔했다. 그런데 소피는 공정해서 자기 잘못을 제대로 고칠 줄을 안다.

58\* 마녀 키르케(Circe)는 율리시스의 줄개들을 돼지로 둔갑시켰으나, 율리시스만은 마술에 넘어가지 않았다(《오디세이아》 X).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라는 전갈을 에밀이 받았던 것이다. 마중을 나온다. 우리는 도착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무 기별도 없다니! 우리를 기다리다가 저녁나절이 다 간다. 가엾은 소피는 우리가 죽은 줄 안다. 상심이 되고 괴로워 울며 밤을 새운다. 저녁 때 심부름꾼을 보내어, 우리에게 대해 알아보고 밝는 날 아침에 소식을 갖고 오도록 일러 두었다. 그가 돌아오고, 동행한 우리 쪽 심부름꾼이 우리의 사과를 직접 전하고 우리는 무고하다고 말한다. 잠시 후에 우리 자신이 나타난다. 이때 장면은 달라진다. 소피는 눈물을 닦고 있고, 설사 눈물을 아직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다. 그녀의 기가 센 마음은 우리가 살았음을 확인한 것으로는 차지 않았던 것이다. 에밀이 살아 있으면서도 남을 바람을 맞힌 것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방에 죽치고 있고만 싶다. 남아 있으라는 분부다.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장에 마음이 바뀌어,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속아 넘어갈 만큼 조용하고 반가워하는 태도를 꾸민다.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말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걱정시켰어요. 쉽사리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아빠, 그게 대체 누구지요? 소피가 되도록 상냥한 미소 같은 것을 꾸며 보이며 말한다. 너만 아니면 됐지 네가 무슨 상관이나? 아버지의 대답이다. 소피는 대꾸도 없이 하던 일에 눈을 떨군다. 어머니는 짐짓 쌀쌀한 태도로 우리를 맞는다. 얼떨떨한 에밀은 소피 곁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어 그의 안부를 묻고 앉도록 권하며 하도 잘 시치미를 떼는 바람에, 사나운 정념의 말을 아직은 통 알아듣지 못하는 가엾은 청년은, 그 태연함에 속아 넘어가 도리어 자기가 기분이 상할 판이다.

그의 오해를 풀어 주려고 내가 가서 소피의 손을 잡고, 가끔 그러던 것처럼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한다. 그녀는 ‘선생님’이라는 한 마디 말로 얼른 손을 뺀다. 이 말이 하도 야릇하게 발음되는 바람에 그 무의식적인 동작이 그녀의 마음속을 에밀 앞에 당장에 드러내어 보이고 만다.

본심을 드러내고 만 것을 소피 자신도 알고는 억지를 덜 부리게 된다. 허울뿐인 침착이 비아냥거리는 멸시로 바뀐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저, 성난 어조가 너무 드

러날까 봐 걱정인 양, 느리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발음된 단음절어로만 대답한다. 두려워서 반은 죽은 에밀은 괴로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진짜 감정을 더 잘 읽어 내려고 자기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의 자신만만함에 더욱 약이 오른 소피는, 그런 부たく을 다시는 할 염도 내지 못하게 하는 시선을 그에게 던진다. 어리둥절해 떨기만 하는 에밀은, 이제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그녀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로서는 아주 다행하게도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녀의 노여움에 예사로 있을 수 있었다라면, 설사 그에게 잘못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녀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때 나는 내가 나설 차례며 해명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소피 곁으로 다시 간다. 그녀 손을 다시 잡으니 이젠 빠지 않는다. 그녀도 어색해질 참이었으니까. 나는 다정하게 말해 준다. 소피야, 우리는 딱하게 돼 있어. 하지만 너는 분별이 있고 공정한 사람이야. 우리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겠지. 우리말을 들어 봐.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어제 4시에 떠났어. 7시에 오라는 전갈이었지만, 이 근처에 와서 쉬기 위해 언제나 우리는 시간을 더 잡아 두거든. 이미 4분의 3이나 왔을 때 어디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 왔지 뭐냐. 얼마 떨어진 언덕의 골짜기에서 나는 소리였어. 소리 쪽으로 달려갔지. 불쌍한 농부 하나가 있는데, 약간 술이 취해 말을 타고 시내에서 돌아오다가 좀 심하게 떨어져서 다리를 빼앗던 거야. 우리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어. 누가 와 주어야지. 도로 말에 태우려고 해 보지만, 되지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그 친구는 무섭게 아파하거든. 말은 따로 숲속에 매어 두기로 했어. 그리고는 둘이 팔을 들것 삼아 다친 사람을 태우고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대로 자기 집 가는 길을 되도록 가만가만 날라다 갔어. 썩 먼 길이어서 몇 번이나 쉬어야만 했지. 마침내 우리는 지쳐 빠져서 도착했어. 가 보니 그 집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집이고, 우리가 그토록 욕을 보며 데리고 간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여기 처음 온 날 그렇게도 진심으로 대해 주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셋이 다 당황해서 그때까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그에게는 꼬마가 둘밖에 없었어. 셋째의 산달이 다 된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너무 질급을 해 심한 진통을 느끼고 이내 해산을 해 버렸지.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할 외딴 초가집에서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하겠니? 에밀은 가서 숲에 두고 온 말을 잡아타고 전속력으로 시내로 달려가 의사를 데려오기로 했어. 그 말은 의사에게 주고, 간호사를 당장 구하지 못한 그는, 댁에 급한 심부름꾼을 보내고는 하녀 하나를 데리고 걸어서 돌아왔고, 짐작이 가겠지만 그동안 다리를 뻗 남편과 산고 든 아내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나는, 둘을 돕는 데 필요하다 싶은 것은 모조리 그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새벽 2시가 되도록 우리는 둘이 다 잠시도 쉬질 못했지. 우리는 마침내 날이 밝기 전에 이 근처의 우리 숙소로 돌아와 우리가 당한 일을 보고하려고 여러분이 잠깨는 시간을 거기서 기다린 거다.”

더는 한 마디도 않고 나는 입을 다문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기 전에 에밀이 애인 곁으로 다가가더니 목청을 돋우어, 내가 기대하던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소피, 너는 내 운명의 지배자이고,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어. 너는 나를 괴롭혀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인류애를 가질 권리들을 나더러 잊게 만들려고 바라질랑 말아요. 그 권리들이 내게는 네 권리들보다도 더 신성하거든. 그것들을 너를 위해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소피는 이 말을 듣고 답하는 대신 일어서서, 한 팔을 그의 목뒤로 돌려 볼에 키스를 하더니, 흥내 낼 수도 없이 멋있게 한 손을 내밀며 말한다. 에밀, 이 손을 잡아요, 당신 손이니. 언제든 마음 내킬 때 내 남편이, 내 주인이 되어 줘요. 그 영광에 값하도록 나도 노력하겠어요.

그녀가 그를 포용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신이 나서, “앙코르, 앙코르” 하고 외치며 손뼉을 친다. 그래서 소피는 더 재촉받을 것 없이 당장에 탄 볼에다 두 번 키스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순간에 자기가 방금 한 일에 질급을 한 그녀는 어머니 품에 뛰어들어, 부끄러워 화끈거리는 얼굴을 엄마 가슴에다 감춘다.

여럿의 기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 기쁨은 모두가 느끼게 마련이다. 점심 후에 소피는, 그 가엾은 병자들을 보러 가기가 너무 먼지를 묻는다. 소피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하다. 다들 거기로 간다. 가 보니 두 침대에 따로 따로 누워 있다, 에밀이 하나를 갖고 오게 했던 것이다. 주위에는 병구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밀이 데려다 준 것이다. 그런데도 양쪽이 다 하도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용태 못지않게 불편함 때문에도 고생이다. 소피는 안주인의 앞치마를 빌려 입고 그녀를 침대에 바로 눕혀 준다. 이어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 준다. 그녀의 부드럽고 가벼운 손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다 찾아 내어, 그 찌르는 사지를 더욱 폭신하게 놓아 줄 줄을 안다. 그들은 그녀 손만 가까이 오면 벌써 편안하게 느껴져, 마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 손이 다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이렇듯 자상한 이 처녀는 불결에도 악취에도 켤리지 않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병자에게 고통도 주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없애 버릴 줄을 안다. 언제나 그렇게 얹전하고 때로는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녀가, 세상없어도 남자 침대에는 손가락 끝도 대어 본 적이 없을 그녀가, 다친 남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젖히고 뒤쳐 오래 버틸 수 있는 더 편한 자세로 놓아준다. 자비의 열성은 얹전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녀는 무엇을 하건 하도 가볍고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손이 자기 몸에 닿았음을 거의 깨닫기도 전에 편안해졌다고 느낀다. 아내와 남편은 자기들을 돌봐 주고 동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친절한 처녀에게 입을 모아 감사한다. 이는 바로 하느님이 보내 주신 하늘의 천사다. 천사의 얼굴과 우아함을, 천사의 다정함과 친절을 그녀는 지니고 있다. 감동된 에밀이 그녀를 잠자코 바라본다. 남자여, 너의 짝을 사랑하라. 고생할 때 너를 위로해 주도록, 괴로울 때 네 고통을 덜어 주도록, 하느님이 네게 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여자다.

갓난아이더러 영세를 받게 한다. 두 애인은 마음속으로 자기들도 같은 부탁을 남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서 아기를 안고 신친 후견(神親厚絹)이 되어 준다. 바라는 그 순간이 몹시 기다려진다. 그들은 그때가 다 된 것 같은 기분이어서, 소피의 온갖 걱정도 다 가셨지만, 내 걱정이 생겨난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까지는 아직 와 있지 않은 것이다. 저마다 차례를 따라야 한다. 그들이 이틀째 만

나지 못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나는,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예밀 방에 들어가 그를 지켜보며 말한다. 소피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는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그는 고함을 지르고 손을 탁 치며 일어나, 말 한 마디도 않고 멍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자, 대답해 봐, 하고 나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재촉한다. 그러자 내가 냉정한 데 약이 오른 그는 화가 나 충혈된 눈으로 다가오더니 거의 울러대는 태도로 버티고 선다. 제가 어떡하겠느냐고요…… 통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기별을 해 준 자를 나는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심하게나, 하고 나는 미소지으며 답한다. 그녀는 살아 있어, 건강하게 말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우리를 기다리겠대. 하지만 우선은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해 볼까.

정념에 사로잡힌 그는 그전처럼 순전히 이치를 따지는 이야기에만 열중할 수는 이미 없다. 바로 그 정념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이 끔찍한 허두에 의해 내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는 그가 내 말을 들으리라는 자신이 있다.

“예밀아, 행복해야 해. 이것이 감성을 갖춘 모든 존재의 목적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넣어 준 첫 욕망이고, 우리한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욕망이야.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나? 누가 행복을 알고 있나? 저마다가 찾지만 아무도 찾아 내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뒤쫓느라고 일생을 보내는데, 그것을 잡지도 못하고 죽고 말 거든. 젊은 친구야, 갓 난 너를 내가 팔에 안았을 때, 최고의 존재를, 내가 감히 맺은 계약의 증인으로 삼고 내 평생을 네 평생의 행복을 위해 바쳤을 때 나 자신은, 무엇을 약속하는 건지 알고나 있었던가? 아니야, 나는 그저 너를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꼭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따름이야. 그 유익한 탐구를 너를 위해 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우리 두 사람 것으로 만들었던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르는 동안은 가만있는 것이 현명해. 이거야말로 모든 격률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사람이 가장 지킬 줄을 모르는 격률이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행복에서 빗나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해매게 될 술한 길들만큼은 어긋나는 술한 위험도 무릅쓰

는 셈이야. 그런데 가만있을 줄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될 일은 아니거든. 안락에 몸이 달아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안락을 얻기 위해 가만있기보다는 차라리 안락을 뒤쫓다가 틀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 안락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거기로 되돌아갈 줄을 모른다.

“똑같이 무지하면서도 나는 똑같은 실수는 피해 보려고 했어. 너를 돌보면서 나는 한 발자국도 소용없이는 내딛지 않기로, 너도 그러지 않도록 막아 주기로 결심했어. 자연이 행복의 길을 가리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연의 길에 머물러 있었던 거다. 길은 같은 길이며, 나는 그럴 생각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지.

“내 증인이 되고, 내 심판자가 되어 줘, 나는 너를 기피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의 첫 시기는 다음에 올 시기 때문에 희생된 일은 없어. 너는 자연이 준 좋은 것은 다 즐겨 왔지. 자연이 네게 강요했지만 내가 막아 줄 수 있었던 괴로움들 중에서 네가 느낀 것이라고는, 너더러 딱 괴로움들을 이겨 내도록 단련시켜 주던 괴로움들밖에 없었어. 너는 더욱 큰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밖에는 어떤 괴로움도 당한 일이 없어. 너는 미움도 예속도 알지 못했지. 자유롭게 흡족한 너는 늘 올바르고 착했었지. 왜냐하면 고생과 악덕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불행할 때밖에는 약해지는 일이 결코 없으니까. 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늙을 때까지 갔으면 해. 너는 마음이 착한 만큼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절을 이끌어 준 손에 감사하지 않을까 봐 나는 염려하지는 않아.

“네가 철들 나이가 되자 나는 너를 사람들의 억설로부터 막아 줬어. 네 마음이 다 감해지자 너를 정념의 지배로부터 막아 줬어. 그러한 마음속의 평온을 네 평생토록 끌고 갈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이룩한 일을 안전한 곳에 둘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에밀야, 내가 네 혼을 아무리 스틱스 강물에 담가도 헛일, 네 혼을 어디서나 다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었어. 네가 이겨 낼 방법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고, 내가 이젠 너를 구해 줄 수도 없게 된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이 적이란 바로 너 자신이다. 자연과 운명은 너를 자유롭게 두었었지. 너는 가난을 견뎌 낼 수 있었어. 육

신의 고통은 당해 낼 수 있었으나, 마음의 고통은 낫선 것이었지. 인간 조건에밖에는 아무것도 얹매이지 않던 네가 이제는, 스스로 만든 온갖 속박에 얹매여 있어. 욕망을 품기 시작하다가 스스로 제 욕망들의 노예가 되고 만 거다. 네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너를 해치거나 너의 존재를 건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슬한 괴로움이 네 혼을 공격할 수 있는가! 병들지 않고도 너는 얼마나 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죽지 않으면서도 너는 얼마나 죽음에 시달릴 수 있는가! 거짓말 하나, 실수 하나, 의심 하나가 너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거야.

“너는 연극에서 지독한 괴로움에 처한 주인공들이 과상망측한 아우성으로 무대를 찡찡 울리게 하고, 여자들처럼 슬퍼하고 아이들처럼 울어 대어, 관중의 갈채를 받는 것을 보았었지. 한결같은 단호한 동작들만을 우리가 기대해서 마땅한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탄식과 아우성과 하소연을 보고 네가 상을 찌푸리던 생각을 해 봐. 뭐야! 하고 너는 온통 분개해서 말했었지, 이게 그래 우리더러 따르라는 실례이고, 우리더러 본받으라는 본보기란 말인가! 미덕의 가면을 씌워 자기 약점을 떠받들기라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아직도 제대로 작고 불행하고 약하지가 않아 걱정이란 말인가? 젊은 친구여, 앞으로도 무대에 대해 더 너그워야 해. 너도 이제 그 주인공들의 하나가 되고 말았으니.

“너는 견뎌 낼 줄 알고 죽어 갈 줄도 알아. 육신의 병에서는 너는 필연의 법칙을 당해 낼 줄 알지만, 네 마음의 욕망들에는 아직도 네가 법칙을 과한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 생활의 혼란은, 우리의 필요에서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애정에서 생겨나는 거거든. 우리의 욕망들은 멀리 퍼져 있고, 우리의 힘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자기 소망들 때문에 슬한 것들에 매여 있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는 아무것도, 자신의 생명에조차도 매여 있지는 않아. 자신의 집착을 늘릴수록 자신의 고행도 불어나게 마련이야. 모두는 땅 위를 스쳐갈 따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 조만간 우리에게서 사라져 갈 텐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도 할 것처럼 그것에 매달리거든. 소피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얼마나 질겁을 했니! 그럼 너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살 줄 알았니? 그 나이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단 말인가? 이거 봐, 그녀도 죽게 마련이야, 어쩌면 너보다도 먼저. 바로



지금도 꼭 살아 있을는지 누가 아니? 자연은 너더러 딱 한 번 죽도록 시킨 거야. 너는 두 번째 죽음에 굴복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두 번 죽는 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제멋대로인 정념들에 굴복하는 너는 얼마나 불쌍한 꼴이 되어 가겠니! 노상 궁핍과 손실과 걱정뿐이겠지. 네게 남아 있는 것을 즐기지도 못할 거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겁 때문에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겠지. 네 정념들만 따라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 줄 수도 없을 거다. 노상 휴식을 찾아도 휴식은 번번이 네 앞에서 도망치겠지. 너는 비참해지고 약해질 거야. 법칙이라곤 네 방종한 욕망들밖에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지 않을 도리가 있겠니? 본의 아닌 상실을 견딜 수가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 버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네가 애정을 의무에 희생시키고, 이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네 마음을 거역할 줄 알게 되겠는가? 네 애인의 죽음을 알려 주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 보고 싶지도 않다는 네가 어떻게 살아 있는 그녀를 네게서 떼어 놓으려는 자를 만나 볼 수 있겠는가? 너더러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을 말이다. 그녀가 네게는 죽은 셈이야, 미덕이 너를 그녀와 갈라놓는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소피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네가 자유로운 몸이건 아니건, 그녀가 너를 사랑하건 미워하건, 저쪽에서 그녀를 네게 주건 거절하건, 상관없이 너는 그녀를 바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녀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게 가르쳐 달라, 법칙이라고는 자가 마음의 소망밖엔 없어 자기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물리칠 줄 모르는 자가, 어떤 죄악까지 가야 끝장이 나는가를?

“얘야, 용기 없이는 행복이 없고, 싸움 없이는 미덕도 없어. ‘미덕(virtu)’이라는 단어는 ‘힘(force)’에서 온 말이다. 힘은 모든 미덕의 바탕이야. 미덕이란, 본성에 의해서는 약하나 의지에 의해서는 강한 존재에게만 딸린 거다. 올바른 인간의 가치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며, 하느님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어질다고는 불려도 유덕하다고 부르지는 않는 거야. 너무 함부로 쓰이는 이 단어를 네게 설명해 주기 위해 나는, 네가 내 말을 알아듣게 될 때를 기다려 온 거다. 미덕이 실천하기에 아무 힘도 들지 않는 동안은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별로 없지. 그럴 필요는 정념이 눈뜰 때 생겨나거든. 그 필요가 네게는 이

미 생겨난 것이다.

“나는 너를 자연의 단순함 속에서 기름으로써, 고된 의무들을 설교하는 대신 그 의무들을 고되게 만드는 악덕들로부터 너를 막아 주었고, 거짓말을 가증한 것으로 보다는 네게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마다에 팔린 것을 저마다에게 돌려 주도록 네게 가르치기보다는 네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가르쳤어. 나는 너를 유덕하기보다는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착하기만 한 사람은, 그렇게 있는 것이 즐거운 동안밖에는 착할 수가 없어, 그 착함은 인간 정념의 충격을 받으면 꺾이고 망가지고 말거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밖에는 착하지가 않은 거다.

“그럼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애정들을 이겨 낼 줄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때 그는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르게 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질서 속에 있게 되어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태까지 너는 겉으로만 자유로웠었어. 아직은 아무 명령도 받지 않은 노예의 텃없는 자유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는 실지로 자유로워야 해. 너 자신의 지배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네 마음을 휘어잡아, 오, 에밀아, 그럼 너는 덕이 있게 될 테니.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수련을 해야 하는데, 이 수련은 먼젓것보다 더 힘이 들어. 왜냐하면 자연은 제가 우리에게 과하는 괴로움들로부터는 우리를 풀어 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견뎌 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괴로움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 주지 않거든.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자기 정념의 제물인 우리가 자신의 헛된 고뇌에 굴복하도록,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눈물까지도 자랑으로 삼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이것이 네게는 첫 정념이다. 어쩌면 네게 마땅한 유일한 정념일지도 몰라. 네가 인간답게 그것을 다스릴 줄만 안다면 마지막 정념이 되기도 하겠지. 너는 판정념들은 다 휘어잡게 될 거고, 그래서 미덕에의 정념에밖에는 순종하지 않게 될 거야.

“이 정념은 죄가 되지는 않아, 나도 그걸 잘 알고 있어. 그것을 느끼는 마음들 못지않게 순수하거든. 성실이 낳아 주고 순결이 길러 준 정념이지. 행복한 애인들아!

미덕의 매력들은 너희를 위해 사랑의 매력들을 늘려 줄 따름이고, 너희를 기다리는 다정한 유대는 너희의 애정의 대가인 것 못지않게 너희의 지혜의 대가이기도 해. 그러나 내게 말해 줘, 성실한 인간아. 이토록 순수한 정념이 그래서 너를 덜 휘어잡았느냐? 그래서 너는 덜 그 노예가 되었으며, 만일 내일이라도 그것이 순결하지 않게 되면 내일 당장 그 목을 졸라 죽이겠는가? 지금이 바로 네 힘을 시험해 볼 때이며, 그 힘을 써야 할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야. 이 위험한 시험은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행해져야 해. 적 앞에서 전투 연습은 하지 않는 법. 전쟁이 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지.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거다.

“정념들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으로 갈라 한쪽에는 따르고 한쪽은 물리치려 드는 것은 잘못이야. 정념들이란 우리가 지배할 때는 다 좋은 것이고, 지배당할 때는 다 나쁜 것이지. 자연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우리의 애착을 우리 힘보다 멀리 펼치는 일이고, 이성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일이고, 양심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유혹당하는 일이 아니라 유혹에 지고 마는 일이야. 정념을 갖고 안 갖고는 우리에게 달린 일은 아니지. 다만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 우리가 다스리는 감정은 다 정당한 감정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감정은 다 죄가 되는 감정이야. 한 남자가 남의 아내를 사랑해도, 그 딱한 정념을 의무의 법칙에 묶어만 둔다면 죄가 되지는 않아. 자기 아내를 사랑해도 그 때문에 모두를 희생시키는 데까지 간다면 죄가 되는 거다.

“긴 도덕 훈계를 나한테서 기대하진 마라, 네게 줄 훈계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 속엔 나머지 모두가 들어 있어. 인간이여라, 네 마음을 네게 주어진 조건의 테두리 안에 가두라. 이 테두리를 연구하고 이해하라. 그것이 아무리 좁더라도 그 속에 갇혀 있는 한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 그것을 넘어서려고 들 때에만 불행한 거야. 터무니없는 욕망에 끌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거다. 자신의 인간 상태를 잊고 영똥한 상태를 조작해 낼 때 불행해지는 거다. 번번이 제 상태로 다시 굴러 떨어지게 마련인 그런 상태를 말이다. 꼭 없어서는 안 될 재산들이란 자기가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재산들뿐이야. 그것을 얻을 가망이 분명히 없다면 물려서게 돼. 가망 없는 소원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 거기

가 임금이 되겠다는 욕망에 시달리는 일은 없고, 임금은 자기가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 믿을 때밖에는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

“자만심에서 오는 착각들이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들의 근원이야. 그런데 인간의 비참을 주시하기에 현자는 늘 중용을 지키는 거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없고, 자기가 간직해 둘 수도 없는 것을 즐기려고 자기 힘을 허비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 잘 소유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쓰는 그는, 우리보다 바라는 것이 적기에 바라는 모든 것에 있어 실지로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풍부한 거다. 죽어 없어질 내가 그래, 모두가 바뀌고 모두가 스쳐지나가 내일이면 나도 사라져 갈 이 땅 위에다 영원한 매듭을 맺으려 들겠는가? 오, 에밀, 내 아들이, 너를 잃으면 내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런데도 나는 너를 잃을 각오를 해 나가야만 해. 왜냐하면 언제 너를 빼앗기게 될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행복하고 현명하게 살고 싶겠지? 그럼 망가지지 않을 아름다움에만 네 마음을 주도록 해. 네게 주어진 조건이 네 욕망들을 제한하고, 네 의무가 네 애정에 앞서도록 해. 필연의 법칙이 도덕적인 것들에게까지 미치게 해야지. 빼앗길지도 모르는 것은 잃을 각오를 해야 해. 미덕이 시킬 때는 모두를 버릴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일들에 초연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로 마음이 상처 입기 전에 물려날 수 있도록, 비참해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역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죄를 짓는 일이 결코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의무를 고수하도록, 배워 나가야 해. 그러면 너는 운명에 상관없이 행복해지고, 정념에 상관없이 현명해질 거다. 그러면 덧없는 것들의 소유에서조차 아무것에도 어지럽혀지지 않을 쾌락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것들에게 소유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될 거고, 아무것도 잡아 두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가 잃을 줄 알고 있는 것밖에는 즐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너는 가공의 기쁨들의 환상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인 괴로움들도 갖지 않게 될 거다. 너는 이러한 바꿈질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괴로움들은 갖고 실지로 있는 것이지만, 그 기쁨들은 드물고 헛된 것이니까. 속기 쉬운 그 많은 역설을 이겨 낸 너는, 삶에 그토록 큰 가

치를 주고 있는 역설도 이겨 내게 될 거야. 너는 네 삶을 탈 없이 보내다가 두려움 없이 마치게 될 거야. 만사에서 그렇듯이 네 삶에서도 해탈하게 되겠지. 공포에 사로잡힌 판 사람들은 삶을 떠나면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고 생각하려면 하라. 자신의 허망함을 아는 너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다. 죽음은 악인의 삶의 끝장이고 옳은 사람의 삶의 시작이다.”

에밀은 불안하면서도 주의 깊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허두에서 어떤 불길한 결론이 나올까 봐 걱정인 것이다. 정신력을 훈련할 필요를 자기에게 밝혀 보임으로써 내가 자기를 이 엄한 훈련에 따르게 할 생각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어, 마치 외과 의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는 부상자처럼, 상처에 그 무서운 손이, 그러나 썩은 것을 막아 주는 그 고마운 손이 벌써 와 닿은 기분이다.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안절부절못하는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겁이 나서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다시피하면서 감히 눈도 쳐들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해 준다. 소피와 헤쳐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정신없이 외친다. 소피와 헤진다고요! 그녀를 버리고, 그녀를 속이고, 배신자가 되고, 험잡꾼, 거짓말쟁이가 되라고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챈다. 뭐라고! 그런 이름으로 불러 마땅한 사람이 되도록 나한테서 배울까 봐 에밀은 겁이 나는 거냐? 아뇨, 선생님한테서도 판 사람한테서도 아닙니다, 하고 여전히 발끈해서 계속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저는 선생님의 공로를 간직해 나갈 줄 알 겁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첫 분격은 내가 예기하던 바이다. 나는 태연하게 그것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둔다. 그에게 가르쳐 주는 자제심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건성으로 가르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에밀은 내가 무슨 좋지 않은 일을 자기에게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 헤진다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라면 소피와 헤지는 것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내 설명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때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한다.

“에밀아,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건, 네가 석 달 전부터 그랬던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임을 깨달아야 해. 삶의 기쁨들을 맛보기도 전에 삶의 행복을 너는 바닥내고 만 거다. 네가 느낀 것보다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감각의 기쁨이란 덧없는 거야. 그 속에서는 마음의 정상 상태가 늘 기울어지거든. 너는 실지로 즐길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기대에 의해 즐겨 왔어. 바라는 바를 꾸며 주는 상상력은 그것을 차지하고 나면 사라지고 말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자 말고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있지 않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갈 수 있었더라면 너는 최고의 행복을 발견했을 거야. 그러나 인간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다시 늙게 마련이지.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에 끝이 있고 모두가 일시적이어서, 설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 된다면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버릇이 그 맛을 앗아 가고 말 거다. 밖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행복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행복을 버리게 돼.

“네가 들떠 있는 동안 시간은 너도 모르게 흘러갔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어. 혹독한 계절에도 우리는 계속해 나들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그걸 용서해 주지는 않을 거야. 본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해, 지금 방식대로는 이제 계속될 수가 없거든. 이러한 어려움이 네게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초조한 네 눈을 보고 알 수 있어. 소피의 동의와 너 자신의 소망이, 그녀를 만나러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눈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방법을 네게 암시해 주고 있거든. 이 편법은 분명 편리해. 그런데 봄이 오면 눈은 녹지만 결혼은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어느 계절에도 괜찮은 결혼을 생각해야만 해.

“너는 소피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를 알게 된 지가 다섯 달밖에 안 된단 말야! 그녀가 네게 알맞다기보다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겠다는 거야. 마치 사랑은 서로 맞고 안 맞는 데 대해서는 결코 틀리는 일이 없어, 처음에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정숙한 여자이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까? 서로 맞으려면 암전하기만 하면 될까? 내가 의심해 보는 것은 그녀의 미덕이 아니라 그녀의 성격이야. 여자의 성격이 그래 하루에 다 드러나는가? 여자의 기질을 속속들이 알려면 얼마나 많은 상황에 놓고 그녀를 본 다음이려야 하는가를 너는 아느냐? 넉 달 동안의 애착이 너의 일생을 보증해 주는가? 두 달 동안의 부재가 어찌면 그녀더러 너를 잊게 만들지도 몰라. 어찌면 딴 남자가 그녀 마음에서 너를 지워 없애려고 네가 멀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찌면 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여태까지 다정해 보이던 것 못지않게 쌀쌀해 보일지도 모를 일이야. 감정이란 원칙에 좌우되는 것이야. 그녀는 여전히 암전하면서도 너를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가 있어. 그녀는 꾸준히 충실하긴 할 거야, 나도 그렇게만 생각돼. 그러나 너희가 시련을 당해 보지 않고서는, 누가 너에게 그녀를 보증해 주고 그녀에게 너를 보증해 주겠는가? 너희들은 그 시련을 받기 위해 그 시련이 소용없어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헤칠 수 없게 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소피는 18살이 안 되었고, 너는 고작 22살이다. 이런 나이는 사랑할 나이지 결혼할 나이는 아니야. 얼마나 어린 아버지이고 어머니인가! 이거 봐, 아이들을 기를 줄 알게 되려면 적어도 자기가 아이가 아닐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 나이가 차기 전에 당한 임신의 고역이 얼마나 술한 젊은 여자들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망쳐 명을 줄이고 말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얼마나 술한 아이들이 틀이 제대로 잡힌 몸으로 영양을 받지를 못해서 허약한 채로 남아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자라 한쪽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 어느 쪽도 자연이 마련해 준 것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돼. 어떻게 둘이 다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내가 에밀을 영 잘못 보지만 않았다면 그는, 처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켜 가며 자신의 성급함을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튼튼한 처자를 천천히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거야.

“네 이야기를 해 보자.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너는 그 의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니? 가장이 되면 국가의 구성원이 되게 마련인데,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는 알고 있니? 정부가, 법률이, 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 네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살아가게 되어 있으며, 또 네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지? 너는 다 배운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시민의 질서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그 질서를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지위가 네게 알맞은가를 알도록 배워야 해.

“에밀아, 소피와 헤어야 해.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네가 버릴 수 있다면 그녀는 너와 결혼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일 거야. 그녀에게 마땅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 위해 그녀와 헤어야 하는 거다. 이미 그럴 만하다고 자부할 만큼 건방져서는 안 돼. 오, 아직도 할 일이 너는 얼마나 많은가! 자, 이 고귀한 임무를 다하도록 해. 헤어서 건디는 법을 배워요. 네가 돌아와서 그녀에게 뭔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으로서 그녀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숙의 대가가 될 만한 것을 얻어 내어야 해.”

아직은 자기 자신과 싸워 본 경험이 없고, 하나를 탐내면서 딴것도 바라는 데 아직은 익숙하지 못한 이 젊은이는, 좀처럼 행복하지 않는다. 그는 버티고, 대든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왜 물리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손을 받아들이기를 늦춘다는 것은 그 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뭔가요? 또 설사 그럴 필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돌아올 확실한 보증을 풀지 못할 매듭으로서 그녀에게 남겨 두어서는 왜 안 되나요? 그녀의 남편만 되면 언제라도 선생님 말대로 하겠어요. 결혼만 하면 염려 없이 그녀 곁을 떠나겠어요…… 결혼하고 헤지겠다고, 에밀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사랑을 하는 남자가 애인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장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득이한 일없이 아내와 헤어져 있어서는 안 돼. 네 걱정을 덜어 주려면 결혼 연기가 본의 아닌 것이 되어야 할 것 같군. 본의 아니게 헤지는 거라고 소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렇다면 좋아, 너는 이성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딴 주인을 인정하도록 해. 너는 내게 한 약속을 잊지는 않았어. 에밀아, 소피와 헤어야만 해. 나는 그러길 바라.

이 말에 그는 고개를 숙여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나를 쳐다보며 말한다. 언제 떠날까요? 1주일 후에. 소피더러 작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하니까. 여자들이란 더 약한 거다. 사정을 봐주어야 하며, 이 작별이 너와는 달리 그녀에게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용기가 덜해도 참을 수 있게 돼 있어.

두 젊은이의 사랑의 기록을 그들이 작별할 때까지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나는 독자들의 너그러움을 남용해 왔다. 단번에 끝내도록 줄이기로 하자. 에밀은 방금 자기 선생에게 보여 준 것과 같은 자신을 자기 애인 앞에서도 지탱해 낼 것인가? 나로서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한 자신은 바로 그의 사랑의 진실성 자체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니까. 헤지는 것이 덜 괴롭다면 그녀 앞에서는 더 당황할 것이다. 죄인으로서 그녀와 헤지게 될 것이고, 이런 역할은 성실한 마음의 남자에게는 언제나 난처한 것이다. 그런데 그 희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그는, 그것을 괴롭게 만드는 여자 앞에서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가기를 결심시킨 동기에 대해 그녀가 잘못 알지나 않을까 하고 겁내지는 않는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오, 소피! 내 마음을 알아 줘, 그리고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해. 너는 덕이 없는 애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부심이 강한 소피는 소피대로 이 뜻하지 않은 충격을 어엿하게 참아 내려고 애쓴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에밀처럼 싸워서 이긴 명예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꾀꾀한 태도가 잘 지탱되지는 않는다. 울고, 저도 모르게 한숨지으며, 자기를 잊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별의 괴로움만 심해진다. 그러나 그녀가 우는 것은 애인 앞에서가 아니고,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은 애인한테가 아니다. 그가 보는 데서 한숨이 새어 나게 둘 바에야 차라리 질식하고 말 것이다.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눈물을 보는 것은, 그녀가 통사정 상대로 삼는 체하는 것은, 바로 나다. 여자들이란 약아서 본심을 숨길 줄 안다. 그녀는 나의 심한 처사를 속으로 원망하면 할수록 더욱 애써 내 환심을 사려고 든다. 자기 운명이 내 손아귀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위로해 주고 안심시켜 주면서, 그녀의 애인, 아니 남편에 대해 책임을 져 준다. 그가 그녀에 대해 가질 신의를 그녀도 그에 대해 간직하라, 그러면 2년 후에 그는 남편이 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장담한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속이려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은 나를 믿고 있다. 나는 하나하나에게 상대방을 보증해 준

다. 그들의 마음과 미덕, 나의 성실성과 그들의 부모의 신뢰, 이 모두가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약한 마음 앞에서는 이성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하기라도 할 것처럼 해서 작별하게 된다.

소피가 에우카리스의 슬픔이 생각나서 자기가 실지로 그녀 처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때다. 서로 못 보는 동안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깨어나게 두질랑 말자. 어느 날 나는 말해 준다. 소피야, 에밀과 책을 서로 바꿔요. 텔레마크를 닮는 법을 배우도록 네 《텔레마크》를 그에게 줘요, 그러면 에밀더러 네가 읽기 좋아하는 《목격자(Le Spectateur)》<sup>59\*</sup>를 내게 보내 주도록 할 테니. 그걸 읽어서 정숙한 아내들의 본분을 배워요, 그러면 2년 후에는 그것이 바로 네 본분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바꿈질은 둘을 다 기쁘게 해 주고 그들에게 자신을 준다. 마침내 슬픈 날이 와, 헤어야 한다.

내가 모든 일을 상의해 온, 소피의 훌륭한 아버지가, 내 작별 인사를 받으며 나를 포옹한다. 그리고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무거운 어조와 약간 힘준 억양으로 말한다. “나는 만사를 덕의 뜻대로 해 왔습니다. 나는 명예를 소중히 아는 분과 약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덕의 제자가 결혼 계약을 내 딸 입술에다 사인했다는 사실만 명심하십시오.”

두 애인의 태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발끈해서 제정신이 아닐 만큼 흥분한 에밀은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의 손에 눈물을 쏟고, 흐느끼면서 그 집의 모든 사람과 포옹을 해 대고, 다른 경우라면 웃음거리가 될 만큼 어수선했던 태도로 같은 짓만 자꾸 되풀이한다. 풀이 죽어 창백하고 눈이 꺼져 흐릿한 시선으로 요지부동인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아무도, 에밀조차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가 손을 잡고 끌어안아 주어도 막무가내다. 꿈쩍도 않는 채, 그의 눈물에도 어루만짐에도,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아랑곳없다. 그녀로서는 그는 이미 떠나간 사람이다. 그 모습은 그녀의 애인의 성가신 하소연이나 야단스러운 슬

59\* 영국 작가 애디슨(Joseph Addison)의 《목격자》, 부제 〈현대의 소크라테스(le Spectateur ou le Socrate moderne)〉(1711~1714)를, 루소는 젊어서부터 읽어 왔다. 이 정기 간행물은 1714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품보다도 얼마나 더 감동적인가! 그도 그것을 보고 느끼기에 가슴이 아프다. 나는 그를 간신히 데리고 간다. 잠시만 더 그냥 두어도 그는 떠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 서글픈 모습을 그가 마음속에 지니고 떠나가는 것이 나는 기쁘다. 떠날 때 그가 본 그대로의 소피의 모습이 생각나게 해 주어도 소피에 대한 의무를 잊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를 그녀한테 도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아주 돈 것이 될 것이다.

## 여행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여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고들 묻기도 하고, 또 이 점에 대해 논쟁도 많이들 한다. 질문을 달리 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나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토록 논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책들의 악용은 학문을 죽인다. 자기가 읽은 것은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기는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들 생각한다. 지나친 독서는 건방진 무식쟁이를 만드는 데 소용될 뿐이다. 모든 문학의 세기 중에서도, 이 세기만큼 책은 많이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덜 박식했던 세기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유럽의 모든 나라 중에서도, 프랑스만큼 많은 역사책이나 여행담이나 기행문을 찍어 내면서도 사람들이 탄 국민들의 정신이나 풍속을 덜 알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많은 책들이 우리더러 세계라는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하고 있으며, 설사 그 책을 아직은 읽고 있다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 페이지로만 만족하고 있다. ‘페르시아인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sup>60\*</sup> 라는 말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만 들으면 나는 그것이, 국민적인 편견이 가장 판치고 있는 나라에서, 그 편견을 가장 많이 퍼뜨리는 여성들에게서 생긴 말임을 알아챌 것이다.

파리 사람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프랑스 사람들밖에는 알지 못한

60\* Comment peut-on être Persan? 이 말은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Lettres persanes)》<sup>30</sup>에 나오는, 파리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이다.

다. 외국인들이 늘 들끓는 도시에 있으면서도 외국인 하나하나를, 세계의 판곳에  
는 같은 것이 통 없는 별난 현상으로만 보고 있다. 그렇게 재치가 있으면서도 이렇  
게 어리석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이 대도시의 시민들을 가까이서  
본 일이, 그들 사이에서 살아 본 일이 있어야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저마다, 자  
기를 그렇게 놀라게 하는 외국인의 나라에 관한 글을 아마 열 번은 읽고 있다는 사  
실이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저자의 편견과 우리의 편견을 한꺼번에 돌파해야 한다는 것  
은 너무하다. 나는 평생을 여행 견문기를 읽어 왔지만, 한 국민에 대해 같은 관념  
을 준 두 가지 책을 본 적이 없다.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과 읽  
은 것과는 비교해 보다가, 관찰할 사실이란 무엇이건 보아야지 읽어서는 안 된다  
고 확신한 나는 마침내, 여행가들은 땀겨워 버리고 그들 책을 읽어서 배우려다가  
허비한 시간을 아까워하게 되었다. 설사 여행가들이 다 정직해서 자기가 보았거나  
믿고 있는 것밖에는 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비친 거짓 색들로부터는 진실을 꾸미  
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 말은 맞을 것이다. 하물며 그들의 거짓말과 불성실을  
통해 진실을 분간해 내어야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칭찬받는 책들에 의지하는 방편은, 책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 맡겨 두자. 이 방편은 라이문두스 룰루스<sup>61\*</sup>의 재주와 마찬가지로, 통 알지도 못  
하는 것에 대해 지껄여 대는 법을 배우는 데나 안성맞춤이다. 15살짜리 플라톤들  
로 하여금, 모임에서 철학을 논하게 하거나, 파울 루카스나 타베르니에<sup>62\*</sup> 말만 믿  
고 이집트나 인도의 관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데나 안성맞춤이다.

한 국민밖에 보지 못한 자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알기는커녕 같이 살아온 사람  
들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두말할 여지없는 격률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여

61\* Raimond Lulle(1235~1315)는 마조르카 섬 태생의 수도사로, 논리 탐구술인 ars magna(1275)를 고  
안해 내었다. 데카르트는 《방법 서설》 2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물들에 대해 판단 없이 말하도록 한  
다 해서 이 재주를 비판하고 있다. 루소의 빈정거림도 여기서 온 것이다.

62\* Paul Lucas(1664~1737)는 중동에 여러 번 여행했고, Jean-Baptiste Tavernier(1605~89)는 인도  
까지 갔다. 이 두 사람의 여행 목적은, 보석이나 피륙의 거래였었다. 본서 p. 645, 26행과 관련이 있  
다.

행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밖에 알지 못해도 좋은가, 아니면 널리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되면 논쟁도 의문도 없어지고 만다.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때로는 질문하는 방식에 얼마나 달려 있는가를 알라!

그런데 사람들을 연구하려면 지구를 다 돌아다녀야만 하는가? 유럽 사람들을 관찰하러 일본에 가야만 하는가? 인종을 알려면 모든 개인을 다 알아야만 하는가? 천만에, 서로 하도 닮아서 따로따로 연구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10명의 프랑스인을 본 사람은 모든 프랑스인을 다 본 것이다. 영국인이냐 판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나라에는, 그 구성원 하나만으로는 안 되지만 여럿에 대한 관찰에서 귀납적으로 끌어 낼 수 있는 고유한 국민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10명의 프랑스인을 본 자가 모든 프랑스인을 알듯이, 10나라 국민을 비교해 본 자는 모든 나라 사람을 아는 것이다.

무엇을 배우려면 여러 나라를 쏘다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행할 줄을 알아야 한다. 관찰하려면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알고자 하는 대상 쪽으로 그 눈을 돌려야 한다. 여행에서 책에서보다도 덜 배우는 사람도 많다. 생각하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그래도 그들의 머리가 저자의 인도는 받지만, 여행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더러는 배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통 없다.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달라, 배운다는 목적에는 아랑곳없다. 눈여겨볼 생각조차 없는 것이 제대로 보인다면 이만저만한 우연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 중에서도 프랑스인은 가장 많이 여행하는 국민이지만, 자기네 관습으로 머리가 꼭 차 있어 비슷하지 않은 것은 다 혼동한다. 프랑스인은 세계의 구석구석에 다 있다. 여행해 본 사람이 프랑스보다 더 많은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도 유럽의 모든 국민 중에서 그들을 가장 많이 보는 국민이 그들을 가장 덜 알고 있는 것이다. 영국인도 여행은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이 두 국민은 만사에 있어 반대이게 마련이다. 영국 귀족은 여행하고, 프랑스 귀족은 여행하는 일이 없다. 프랑스의 평민은 여행하고, 영국의 평민은 여행하는 일이 없다. 이 차이는 후자에게 명예로운 것 같다. 여행할 때 프랑스인들은 거의 언제나 어떤 이익을 노린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행운을 찾아 남의 나라들로 가는 일은 없다. 장사 때문에 잔뜩 가지고 가는 일은 있지만, 그들이 여행하는 것은 자기네 돈을 거기에 쏟아 놓기 위해서이지 꾀를 부려 가며 살기 위해서는 아니다. 나라 밖에 나가서 굶질거리기에는 너무나 쿼대가 높다. 그래서 머리에 전혀 딴 목적이 있는 프랑스인들보다는 외국에서 더 잘 배우게도 되는 것이다. 하긴 영국인들에게도 그 나름의 국민적인 편견은 있다. 어느 국민보다 많기조차하다. 그러나 그 편견은 무지보다는 정념에서 오고 있다. 영국인은 자만심에서 오는 편견을, 프랑스인은 허영심에서 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

제일 교양 없는 국민들이 대체로 제일 현명하듯이, 제일 적게 여행하는 국민이 제일 잘 여행한다. 까닭은 우리가 하는 시시한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뒤져 있어, 우리의 헛된 호기심의 대상들에 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정말 유익한 것에만 주의를 다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국민을 나는 스페인들밖에는 알지 못한다. 프랑스인이 어느 나라의 예술가들에게 달려가고, 영국인이 어느 골동품의 데생을 시키고, 독일인이 자기 ‘앨범(사인첩)’을 학자들 집마다 들고 다니는 동안, 스페인인은 말없이 정부와 풍습과 치안제도를 연구하고 있어, 네 나라 중에서도,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자기 나라에 유익한 어떤 안목을 갖고 돌아오는 유일한 국민이다.

고대인들은 여행도 독서도 저술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시대 사람들을 관찰하는 이상으로 서로 잘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들의 책을 보아 알 수 있다. 자기가 묘사한 나라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는 유일한 시인 호메로스의 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고찰보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긴 하나 자기의 역사책에서, 우리네의 모든 역사가들이 인물과 성격 묘사를 책에 잔뜩 곁들여 가며 하는 이상으로 풍습을 잘 그려 낸 명예는 헤로도토스에게 주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작가가 오늘날의 독일인들을 묘사한 것보다도 잘 타키투스는 자기 시대의 독일인들을 묘사했다.<sup>63\*</sup> 고대사에 밝은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

63\* Hèrodote는 대단한 여행가였었고, Tacite는 독일과 인접한 지방의 장관을 지낸 뒤에 《게르마니아(Germanie)》를 썼다.

이, 오늘날의 어느 국민이 이웃 나라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인들과 카르타고인들과 로마인들과 갈리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을 잘 알고 있다.

여러 국민 본래의 성격이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따라서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어져 간다는 사실도 인정은 해야 한다. 인종과 인종이 뒤섞이고 민족과 민족이 합류됨에 따라, 전에는 첫눈에 단박 띄던 그 국민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 국민이나 보다 폐쇄적이어서, 민족들 사이의 교류도 여행도, 공통되거나 상반되는 이해 관계도, 정치적·사회적 관계도 적었다. 담판이라 불리는 그 많은 왕실 사이의 모함도 없었고, 주차대사나 변리공사도 없었다. 원양 항해가 드물어 먼 나라와의 무역이 별로 없었고, 어쩌다가 있어도 외국인들을 써서 군주 자신이 하거나, 누구의 모범도 되지 않아 여러 국민을 접근시키지도 못하는 멀리받는 위인들이 있었다. 옛날에 갈리아와 스페인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백배도 더 되는 관계가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다. 유럽만 해도 오늘날의 지구 전체보다 더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들 사이에는 로마인들의 침입 이후에도 최근의 야만족들의 이주로 모두가 뒤섞이고 합류되어 버린 데 반해, 대부분이 자기 나라 본래의 토박이로 자처하던 고대 민족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곳에 자리잡은 먼 옛날의 기억을 잃어버릴 만큼 오래전부터, 또 풍토더러 지워지지 않을 자국을 그들에게 남길 시간을 줄만큼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해 보라.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은 이미 옛날의 그 금발과 흰 살결의 키 큰 몸집이 아니고, 그리스인들은 이미 미술의 모델로 쓰이게 마련이던 그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다. 로마인들마저도 그 얼굴의 특징이 그들의 천성처럼 바뀌고 말았다. 달단 지방 태생인 페르시아인들은 시르카시아<sup>64\*</sup> 사람들과의 혼혈로 타고난 보기 흉함을 날로 잃어 가고 있다. 유럽인들은 이제 갈리아인도, 게르만인도, 이베리아인도, 알로브로게스인도 아니다. 얼굴로 말하면, 아니 풍습으로 말하자면 더구나, 모두가 갖가지로 퇴화된 스קי티아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의 인종 차이나, 공기 및 토지의 특성은, 각 민족의 기질과 용

64\* Circassie는 코카서스 북부의 옛 이름.

모와 풍습과 성격을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유럽 인종이 어떤 자연 원인더러도 제 자국을 남길 시간을 주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베어진 숲들과 말라붙은 늪들, 보다 시원찮으면서도 보다 일매지게 경작된 땅이 이제 는 걸모습에조차도, 땅과 땅,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옛날 같은 차이를 남겨 주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모두는 드러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미 우리 눈에는 띄지도 않게 된 본래의 얼굴 모습과 두드러진 차이들을 가지고 온갖 나라의 주민들을 그려 내었다 해서, 헤로도토스나 크테시아스나 플리니우스<sup>65\*</sup>를 그리 성급하게 우습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과 같은 얼굴을 알아보려면 같은 사람들을 되찾아 내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전과 마찬가지로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그들을 변화시킨 일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바라볼 수가 있다면, 오늘날 나라에 따라 가지각색인 이상으로 시대에 따라 가지각색인 그들을 보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겠는가?

관찰은 더욱 어려워질뿐더러, 더욱 영성하고 아무렇게나 행해지게 된다. 이는 인류 박물학에서 우리의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여행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그 여행을 꾀하게 하는 목적과 일치된다. 그 목적이 하나의 철학 체계일 때는 나그네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는 보지 않는다. 그 목적이 이해관계일 때는 그것에 골몰하는 자들의, 주의는 다 그것에 쏠리고 만다. 여러 나라 국민을 뒤섞어 합류시키는 장사와 기술 또한 그들이 서로를 살펴보는 못하게 한다.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을 알고 나면,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나중에 택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곳을 다 알아 두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다. 저마다가 자급자족이 된다면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만 알면 될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세상에 탐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개인은 자기 나라밖에는 딴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살아가기 위해 마지못해 벌여 나게 되더라도 사람 사는 곳은 피한다. 짐승들에밖에

65\* Ctésias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여행가로, 페르시아와 인도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Pline(23~79)는 《박물지》의 저자. 베스비오 화산의 분출로 죽었다.



는 눈독을 들이지 않으며, 먹고살기 위해 그것들밖에는 필요치가 않다. 그러나 개화된 생활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먹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고 만 우리들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장들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각자의 관심사이다. 이 때문에 모두가 로마로, 파리로, 런던으로 몰려든다. 인간의 피가 제일 혈값으로 팔리는 곳은 언제나 수도이다. 그래서 큰 나라 국민들밖에는 알려지지 않으며, 그들은 다 서로 닮았다.

지식을 얻으려고 여행하는 학자들도 우리나라에는 있다고들 말한다. 잘못이다. 학자들도 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 관계 때문에 여행한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없고, 있어도 우리와는 사뭇 동떨어져 있다. 우리네 학자들은 궁정의 분부에 의해서만 여행하고 있다.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이러저러한 것을 보도록 그들을 파견하고, 비용을 대 주고 돈을 치른다. 그들은 시간을 다 그 유일한 목적에 바쳐야 하며, 받은 돈을 가로채기에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들이다. 설사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이건 자비로 여행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연구하거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문이 아니고 빠기는 일이다. 그들이 여행에서, 세론의 멍에를 벗어나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세론 때문에만 여행하는 그들이 말이다.

나라를 보려고 하는 여행과 국민을 보려고 하는 여행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첫째 목적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어서, 그들에게는 둘째 목적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철학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사물들을 관찰한다. 어른은 우선 자기 동류들부터 관찰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사물들을 관찰한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여행한다 해서 여행을 무익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된 추리다. 그러나 여행의 유익함이 인정되었다 해서 여행이 모든 사람에게 알맞다는 결론이 나오겠는가? 어렵도 없다. 반대로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밖에 알맞지가 않은 것이다. 그릇된 가르침을 들어도 유혹당하지 않고, 악덕의 본모습을 보아도 끌려들어가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알맞은 것이다. 여행은 천성을 제 버릇대로 밀고 나가, 사람을 좋게 만들건 나쁘게 만들건 요정을 내고 만다. 세계를

쫓다니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그때의 자기가 평생을 그대로 갈 것이다. 선보다는 악에 끌리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져서 돌아오는 자가 더 많다. 제대로 길러지고 지도받지 못한 청년들은 여행에서, 자기가 찾아간 나라 국민들의 온갖 악덕에 몰드나, 그 악덕들과 뒤섞여 있는 미덕에는 통 물들지 않는다. 그러나 잘 타고나 좋은 천성이 제대로 가꾸어지고, 배우겠다는 참된 의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청년들은 다 떠날 때보다도 더 착하고 현명해져서 돌아온다. 에밀도 이렇게 여행할 것이다. 더 살아야 했을 텐데도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죽어 가, 자기 미덕으로만 장식된 그 무덤이 한 외국인의 손이 거기에 꽃을 뿌려 추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청년<sup>66\*</sup>도, 유럽이 놀라 그 공을 우러러 본 그 청년, 더 나은 시대에나 태어남직한 그 청년도, 그렇게 여행했던 것이다.

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일에는 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일부로 여기는 여행에도 제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여행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은, 해매는 것이고 방랑자가 되는 것이다. 배우기 위해 여행하는 것 또한 너무나 막연한 일이다. 일정한 목표가 없는 배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배우는 데 대한 뚜렷한 관심을 청년에게 넣어주고 싶으며, 제대로 선택된 이 관심은 배움의 성질을 결정하게도 될 것이다. 이것도 여전히 내가 실천하려고 애써 온 방법의 계속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탄 존재들과의 물리적 관련 및 탄 사람들과의 도덕적 관련에서 살펴본 다음에 남은 일은, 동국인들과의 사회적 관련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정체의 본질과 갖가지 정체들의 형태의 연구에서 시작해서, 마침내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정체가 자기가 살기에 알맞은가를 알기 위해 이 개별적인 정체를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저마다, 무엇에도 폐기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에 의해, 공동체가 이루어진 나라를 떠남으로써 그 공동체에 자기를 가입시키는 계약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오로지, 그가 철들 나이가 된 뒤에도 그 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뿐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버리듯이 조국도 버릴 권리를

66\* 이 청년은 이미 본서 제2부 끝에 나온 Gisors 백작.

얻는 것이다. 또한 출생지는 자연의 선물인 만큼, 자기 출생지를 버리면 그것도 양도하게 된다. 어디서 태어나건 사람은 저마다, 재난에서 보호받는 권리를 얻으려고 자발적으로 법에 복종하지 않는 한, 엄격한 권리에 의해, 재난만 자기가 책임진다면 언제나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령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너는 여태까지 내 지도 아래 살아와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에 의해 네가 네 재산을 처분하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가고 있어. 너는 곧 사회 속에 혼자 있게 돼, 모든 것에, 네 가산에까지도 얽매어서 말이다. 너는 살림을 차릴 작정을 하고 있지. 그러한 작정은 칭찬받을 만하고, 인간의 의무의 하나이기도 해.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무엇으로 일생을 보낼 생각이며 너와 네 가족의 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할 생각인지를 알아야 해. 왜냐하면 이러한 배려는 자신의 주된 일로 삼을 것까지는 없더라도, 한번은 생각해 두어야 할 일이니까 말이다. 너는 네가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살고 싶은가? 너를 노상 남에게 줘여 살게 하고 사기꾼을 피하려면 너 자신이 사기꾼이 되도록 강요하는 사회관계에 의해, 너는 네 재산을 이룩하고 네 신분을 굳히고 싶은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그에게, 장사를 하건 관직에 있건 돈놀이를 하건, 그의 재산을 활용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일러 주겠고, 그중에서 그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를 불안정한 의존 상태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은, 그로 하여금 남의 본보기나 편견에 따라 자신의 습관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가다듬도록 강요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그에게 밝혀 보여 주겠다.

자기 시간과 몸을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지, 하고 나는 말해 주겠다. 그것은 바로 군에 들어가는 일이야, 말하자면 우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 아주 험값으로 고용되는 일이지. 이 직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해, 그런 일에밖엔 쓸모없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존경을 받고 있어. 더구나 이 직업은 너더러 판 방편들은 없어도 되게 해 주기는커녕, 더욱 없어서는 안 되게만 해주거든. 왜냐하면 이 직업에 몸 받치는 자들을 파산시키는 일도 이 신분의 명예의

하나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파산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직업들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직업에서도 부자가 되는 풍조가 어느새 생겨나고도 있다.  
그러나 성공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네게 설명해 준다면,  
네가 그들을 모방하고 싶어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이 직업에서도 이젠, 여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서는, 용기도 인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는 알게 될 거야. 오히려 가장 비굴하고 천한 자가 언제나 가장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도 네가 진심으로 네 직무를 다할 생각이라  
면, 너는 깔보이고 미움을 사 아마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정실에 시달리  
게는 될 거고, 동료들은 화장대 앞에서 근무하는 동안 너는 참호에서 근무했다 해  
서 그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사실도 말이다.

이러한 온갖 직무들이 다 에밀의 취미에는 통 맞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갈 것  
이다. 그는 내게 말하겠지, 뭐라고요! 제가 그래 어릴 때의 놀이를 다 잊어 먹었던  
말인가요? 제가 팔이라도 잃었나요? 제 힘은 바닥이 났나요? 이젠 제가 일할 줄  
도 모르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사한 직무들이나 사람들의 어리석은 억  
설 모두가 제게 무슨 대수인가요? 저는 명예라고는 친절하고 올바르게 사는 명예  
밖엔 알지 못하고, 행복이라고는 날마다 자신의 노동으로 식욕과 건강을 얻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인 데 없이 사는 행복밖엔 알지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말  
하시는 그 온갖 귀찮은 일들에는 저는 통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재산이라고는 세  
계의 어느 구석에 조그마한 전답(논밭) 하나밖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  
는 데에 제 욕심을 다 쏟아, 걱정 없이 살아 나가겠어요. 소피와 우리 밭이면 나는  
부자일 거예요.

그래, 친구야, 자기 것인 아내와 밭이면 현재의 행복에는 충분해. 그런데 이 두 가  
지 보물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네가 생각하는 만큼 흔한 것도 아니다. 썩 드문 보물  
이 너를 위해 발견된 거야. 또 하나의 보물에 대해 말해 보자.

네 것이 될 밭! 에밀아, 그걸 너는 어느 곳에서 택하겠니? 여기서 나는 내 주인이  
고, 내게 팔린 땅의 주인이라고, 너는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 말할 수가 있겠니? 어  
느 곳에서 부자되기가 쉬운지는 알고들 있지만, 부자가 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딘지는 누가 알고 있는가? 누구를 해칠 필요도 해를 입을 염려도 없이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누가 아는가? 언제나 성실한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찾아 내기 쉽다고 너는 생각하니? 모략도 말썽도 속박도 없이 살아갈 어떤 떳떳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으로 는 자기 땅을 갈면서 자기 손으로 일해 가며 사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복받은 땅을 택하기 전에 네가 찾는 평화가 거기서 발견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 포악한 정부가, 박해하는 종교가, 타락한 풍습이, 거기서 너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네가 한 고생의 열매를 먹어치울 턱없는 세금, 네 재산을 들통낼 끝없는 송사들은 피하라. 네가 소홀히 대하면 대뜸 너를 괴롭히려 드는 지사나 그 대리들 · 재판관들 · 신부들 · 근처의 권력자들 · 온갖 사기꾼들에게는, 네가 올바르게 삶으로써 알랑거리지 않아도 되게 하라. 특히 귀족이나 부자들의 골탕을 피하라. 그들의 땅은 어디서나 나봇의 포도밭<sup>67\*</sup>과 인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 재수 없게도 어느 지위 높은 사람이 네 초가집 곁에 집을 사거나 짓게 된다면, 늘어나려고 무슨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네 땅을 침범할 방법을 찾아 내지 않으리라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네 생활 밑천이 몽땅 넓은 한길에 삼켜 들어가는 꼴을 네가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니? 이러한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네가 세력을 간직하고 있다면, 네 재산도 간직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때는 재산도 지키기에 힘들지는 않을 테니까. 부와 세력은 서로 떠받치고 있어, 한쪽 없이는 판 쪽도 언제나 제대로 지탱 되지는 않는 법이야.

에밀야,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네 계획의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훌륭하고 적절한 계획이어서, 너를 실지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걸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보자. 네게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정한, 네가 돌아올 때까지의 2년을, 내가 망금 말한 온갖 위험을 피해 네가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안식처를 유럽에서 택하는 데 바치기로 하자. 우리가 성공만 하면

67\* Naboth는 자기 포도밭을 탐내는 이스라엘 왕 Achab에게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비 Jézabel이 누명을 씌워 돌을 던져 죽이게 했다(《구약》〈열왕기상〉 1장 21절).

그 많은 남들이 찾아도 없던 참 행복을 네가 찾아 낸 것이 될 거고, 거기에 보낸 시간을 후회도 하지 않게 될 거야. 만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겠지. 피치 못할 불행으로 알고 마음을 달래며 필연의 법칙에 따르게 되겠지. 이렇게 제안된 이 탐색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독자들이 다 짐작하게 될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시작되어 계속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에밀이 만일, 체제(政體)의, 국가적 관습의, 국가의 온갖 격률들의 모든 문제에 정통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나 내가 하나는 지능이, 또 하나는 판단력이 사뭇 모자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정치법학<sup>68)</sup>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영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학자들 모두의 스승인 그로티우스<sup>69)</sup>는 아이에 지나지 않고, 더욱 딱하게도 정직하지 못한 아이다. 그로티우스를 격찬하고 흠스에게 욕을 퍼붓는 것을 듣고 있으면, 지각 있는 사람이 몇이나 이 두 사람을 읽어 이해하는지를 나는 알게 된다. 그들의 원리는 똑같이 표현밖에는 다르지 않음이 사실이다. 방법도 다르기는 하다. 흠스는 궤변에, 그로티우스는 시인들에 힘입고 있다. 나머지는 다 공통이다.

이 대단하고도 무익한 학문을 만들어 낼 힘이 있던 유일한 요즘 사람은 고명한 몽테스키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법학의 원리들을 다룰 생각은 통 없었다. 이미 서 있는 정체들의 실정법을 다루는 것만으로 만족했으며, 이 두 가지 연구보다 더 다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정체들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는 두 가지 연구를 아울러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있어야 할 것도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더러 이 문제들을 검토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고, 다음 두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내게 무슨 필요인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에밀더러 이 두 가지에 다 답

68\* le droit politique의 역어.

69\* Grotius(1583~1645)는 네덜란드의 정치가·법학자. 그의 《평화와 전쟁의 법》(1625)은 오랫동안 국제 관계의 법전으로 통했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둘째 어려움은, 어린 시절의 편견들과, 자기가 그것에 따라 길러져 온 격률들로부터 생겨나며, 특히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진리에 대해 노상 말하면서도, 입 밖에는 내지도 않는 자기네 이해 관계밖에는 생각지 않는 저작가들의 치우침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국민은 교수직도 연금도 아카데미 회원 자리도 주지는 않는다. 국민의 권리들이 어째서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확립되어야만 하는가를 판단해 보라! 나는 이 어려움도 에밀에게는 없도록 해 주었다. 그는 정체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그에게 요긴한 단 한 가지는 가장 나은 정체를 찾아 내는 일이다. 그의 목적은 책을 써 내는 일은 아니며, 설사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인류의 권리들을 확립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확고하다기보다는 허울만 좋아 내가 해결할 생각도 제기할 생각도 없는 셋째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것이 내 열성만 꺾지 않으면 나는 만족이다. 이런 유의 연구에서는 대단한 재능이란 것이, 정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나 진리에 대한 참된 존경보다는 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 문제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면, 내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다시없는 기회다.

관찰하기 전에 관찰을 위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한다. 재는 것들을 대어 볼 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법학의 원리들이 바로 이 자다. 우리가 재는 것은 각국의 정치법들이다.

우리의 기본 자료들은 사물들의 본성에서 바로 얻어져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것들은 토론된 문제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 때에만 그 자료들을 원리로 삼을 것이다.<sup>70\*</sup>

예컨대 우리는 먼저 자연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는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나는지를, 결합된 자로 태어나는지 독립된 자로 태어나는지를, 자발적으로 결합되는지 강제로 결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은 하나의 영속적인 권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 권리에 의해 먼저의 힘은 탄 힘에 눌리게 되더라도 강제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따라서 첫 민족들을 정

70\* 《사회계약론》에서 부연되어 있는 이론의 설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본서 p. 661, 각주 74 참조.

복했다는 니므롯 왕<sup>71\*</sup>의 힘 이후로는, 이 힘을 꺾은 판 힘들은 다 찬탈하는 부당한 힘이 되고, 니므롯의 자손이나 권리 계승인들밖에는 정통의 왕은 없어지고 말았던가? 아니면 이 첫 힘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이어받는 힘이 이번에는 강제하게 되어 먼저의 힘이 강제하던 바를 없애 버리고 마는지를, 따라서 사람은 복종을 강제 당하는 동안밖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며, 저항할 수 있게만 되면 당장 복종을 면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이러한 권리란 보매 대단한 것을 힘에 덧붙여 주지는 않을 것 같으며, 하나의 말 재물에 불과할 것도 같다.

우리는 살피볼 것이다, 모든 병은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지를, 따라서 의사를 부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인지를?

또한 우리는 살피볼 것이다. 큰길에서 지갑을 달라는 강도에게, 설사 그것을 감출 수 있을 경우라도 정직하게 내어 주어야만 하는지를? 왜냐하면 그가 가진 피스틀도 필경은 하나의 권력이니까 말이다.

이 경우의 권력이란 단어는 정통적인 권력, 따라서 제가 생겨난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권력과는 뜻이 다른지를?

이러한 힘의 권력을 물리치고 자연의 권력이나 아버지의 권위를 사회의 원리로서 받아들이기를 가정한다면, 우리는 탐구할 것이다, 이 권위의 미치는 넓이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연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또 그것에는 아이의 슬모나 아이의 약함,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 가지는 타고난 사랑 이외의 판 근거가 있는지를? 따라서 아이의 약함이 없어지고 이성이 성숙하게 되면, 그는 자기 보존에 알맞은 일을 판단하는 유일한 타고난 심판자가, 즉 판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아버지에게서도 독립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가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이상으로 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더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이들은 만행을, 아니면 아버지 같은 타고난 애정을 가져 주지 않을 어느 판 사람에게 복종해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가족이 다 복종해야 하는 하나의 가장이 대대로 늘 있게 될지를? 이 경우에는 또 탐구하게 될 것이다, 권위가

71\* 함(Cham)의 손자이고 구스(Chus)의 아들 Nemrod(또는 Nembrod)는 바빌론의 건설자(<창세기> 10장 6~12절).



어째서 나누어질 수가 있으며, 어떤 권리 때문에 온 지구상에는 인류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한 사람 이상 있게 되는지를?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 택해서 형성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는 권리를 사실과는 구별하게 되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그들은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서 형이나 삼촌이나 친척에게 이렇게 복종한 것인 만큼, 이런 유의 사회는 반드시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노예 제도로 옮겨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 인간은 제약이나 제한 없이도, 아무런 조건 없이도 합법적으로 탄 인간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자면, 자기 보존의 책임을 직접 자기에게 지우는 자연을 어겨 가며, 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을 지시해 주는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어겨 가면서 그는, 자신의 몸과 생명과 이성과 ‘자아’를, 자기 행동의 도덕성 모두를 버릴 수가, 아니 한 마디로 말해서 죽기도 전에 생존하기를 그만둘 수가 있는지를?

가령 노예 제도에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다면 우리는 따져 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제도가 하나의 진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지를? 계약자가 저마다 그 자격에 있어 공통되는 뒷사람을 갖고 있지 않아,<sup>72</sup> 계약 조건들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심판자로 남게 되는 그러한 계약,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저마다가 언제나 자유로워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당장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를 말이다.

따라서 노예도 제한 없이는 주인에게 넘겨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한 국민이 제한 없이 우두머리에게 넘겨질 수 있는가. 또 노예가 자기 주인의 계약 이행을 판정하는 심판자로 남아 있다면, 어째서 국민은 우두머리의 계약 이행을 판정하는 심판자로 남아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온 길을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리는, 국민이라는 이 집합 명사의 뜻을 생각하며 탐구해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을 성립시키려면 암암리의 계약이나 마, 우리가 가정하는 계약에 앞서는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를?

72 만일 갖고 있다면, 그 공통되는 뒷사람은 주권자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권에 바탕을 둔 노예제가 주권의 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금이 뽑히기 전에도 국민은 국민일진대, 사회 계약 아니고는 무엇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회 계약은 그러니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이며, 이 계약이 만들어 내는 사회의 본질을 탐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약의 본질 속에서다.

이 계약의 내용<sup>73\*</sup>은 무엇인지를, 또 그것은 대체로 이런 문투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우리는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재산과 몸과 생명과 온 힘을 공동으로 일반 의지의 최고 지시에 맡기고, 각 부분을 전체의 갈라질 수 없는 일부로서 함께 받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어들의 뜻을 정하기 위해, 이 결사 행위가 각 계약자의 개체 대신, 집회가 갖는 투표수와 같은 수효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덕적인 집합체를 낳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 공공체(公共體)는 보통 ‘정체(corps politique)’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것은 또 구성원들로부터, 수동적일 때는 ‘국가(Etat)’라고,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souverain)’라고, 같은 것들과 비교될 때는 ‘권력(puissance)’이라고 불린다. 구성원들 자신에 대해서는, 집합적으로는 ‘국민(people)’이라는 이름이 붙고, ‘도시(국가)(cité)’의 구성원이나 주권 참여자로서는 개별적으로 ‘시민들(citoyens)’이라고, 같은 주권의 복종자로서는 ‘신민들(sujets)’이라고 불린다.

이 결사 행위에는 공공 집단과 개인의 상호 약속이 포함되어, 이를테면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셈인 각 개인은 이중의 관계에서 얽매이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겠다. 즉 개인들에 대한 주권자의 일원으로서의 관계와, 주권자에 대한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관계에서.

자기하고만 맺은 약속에는 아무도 얽매이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신민을 저마다가 걸리는 두 가지의 다른 관계 때문에 주권자에게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는 공공 결의도, 국가를 국가 자체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서의 기본법이라고는 오로지 사회 계약밖에는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정체(政體)가 어떤 점에서는 남과 약속을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정체도 하나의

73\* la teneur의 역어. 루소는 처음에 G에서는 “본질(la nature)”이라고 썼다.

단순한 존재, 하나의 개체가 되고 만니까.

두 계약 당사자, 즉 각 개인과 공공은 그들의 분쟁을 심판할 수 있을 공통되는 어떤 뒷사람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은 저마다 좋을 때에 언제나 계약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겠다. 말하자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당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자유가 있는지를?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사회 계약에 따르면 주권자는 공동적이고 일반적인 의지에 의해서밖에는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이고 공동적인 목적밖에는 갖지 못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살펴보겠다. 이 결과로서 한 개인은 모든 개인이 다 침해당하지 않고서는 주권자에게 직접 침해당할 수가 없을 것인 바,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겠다는 것이 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회 계약에는 공공의 힘 이외의 탄 보증이 전혀 필요치가 않은데, 이는 침해가 개인들로부터밖에는 생겨날 수가 없고, 생겨나도 그 때문에 개인들이 약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해 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이 자기 자신하고만 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주권자로서의 국민 전체가 신민으로서의 개인들과 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계약은 자체에게만 알맞은 특별한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도록 조심하겠다. 이거야말로 정치 기구의 수단과 활동 모두를 만들어 내는 조건이고, 자칫하면 부조리하고 압제적인 것이 되어 더없이 엄청난 폐단에 빠지기 쉬운 약속들을,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위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개인들은 주권자에게만 복종하고 주권은 일반 의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는, 어째서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각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되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보다도 사회 계약 속에서 더 자유로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의 타고난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비교하고 나서 우리는, 재산에 있어서의 소유권과 영토권을, 개인 소유지와 주권 소유지를 비교하겠다. 주권의 근거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은 주권이 가장 존중해야 할 권리다. 소유권은 개별적

이고 개인적인 권리로 남아 있는 동안은 주권에게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이 권리는 모든 시민 공유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곧 일반 의지에 따르게 되고 말며, 이 의지는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는 한 개인의 재산도 여러 개인의 재산도 건드릴 아무런 권리도 없다. 그러나 스파르타나 리쿠르고스의 시대에 그랬듯이,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는 있다. 솔론(Solon)에 의한 부채 면제가 비합법적인 처사였던 것과는 반대로 말이다.

신민들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 의지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지가 어떻게 표명되며, 어떤 표시로 확인되는가를, 법이란 무엇이며 법의 참된 성격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겠다. 이러한 테마는 아주 새로운 것이다. 법의 뜻매김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그 구성원의 하나나 여럿을 특별 취급하면 당장에 국민은 분열되고 만다. 전체와 그 부분 사이에 그것을 따로 떨어진 두 존재로 만드는 하나의 관계가 생겨나, 그 부분이 하나가 되고, 전체 마이너스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된다. 그런데 전체 마이너스 한 부분은 전체가 아니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따라서 전체란 이미 없고, 갈지 않은 두 부분이 있을 따름이다.

반대로 국민 전체가 국민 전체를 규정할 때는 이 전체는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않아, 설사 어떤 관계가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본 대상 전체와 다른 관점에서 본 대상 전체와의 관계여서, 전체의 분열은 전혀 없다. 이 경우 규정받는 대상은 일반적인 대상이고, 규정하는 의지도 일반적인 의지다. 법이라는 이름을 지닐 수 있는 어떤 탄 종류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주권자는 법에 의해서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지, 또 법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관련되는 일반적인 대상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지. 그렇다면 주권자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 무엇을 규정할 권력이 전혀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국가의 보전에는 개별적인 것들도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일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자.

주권자의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위, 법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법률들의 시행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행위들이, 즉 힘의 행위나 통치의 행위들이 필요한데, 이 통

치의 행위들은 반대로 개별적인 대상들밖에는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뽑도록 주권자가 규정하는 행위는 하나의 법률이지만, 이 법률을 시행해서 그 우두머리를 뽑는 행위는 하나의 통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아래 모인 국민이 고려될 수 있는 셋째 관계가 또 있다. 즉 국민이 주권자로 정한 법률의 시행자나 위정자로서의 국민이 고려될 수 있는 관계가 말이다.<sup>74</sup>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벗어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왜냐하면 선거 행위는 법률이 아니고, 이 행위에서 국민은 주권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도 않은 권리를 어떻게 넘겨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권의 본질은 일반 의지로 이루어지지만, 개인 의지가 늘 이 일반 의지와 일치되리라는 점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도리가 없다. 오히려 개인 의지가 자주 그것과 상반될 것이라고 짐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관심은 언제나 제게 좋은 것들 쪽으로, 공적인 관심은 평등 쪽으로 늘 쏠리게 마련이어서, 설사 그 일치 가능성이 하더라도, 거기서 주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일치가 필연적이거나 깨뜨려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또 탐구해 보자, 국민의 우두머리들은 어떤 명목으로 뽑혔건 사회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법률을 시행하도록 국민에게 명령받는 관리들과는 판것일 수가 있는지를? 그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행정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는지, 또 남더러 지키게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률에 자기 자신도 복종해야 하지 않는지를? 국민이 자신의 지상(至上)권을 양도할 수는 없더라도 얼마 동안 위임할 수는 있는 지? 국민이 한 주인을 가질 수는 없어도 대표들을 가질 수는 있는 지? 이 문제는 중요해서 따져 볼 만하다.

국민이 주권자도 대표들도 가질 수가 없다면, 어떻게 법률들을 스스로 제정할 수

74 이러한 문제나 명제들은 대부분이 《사회계약론》에서 추려 낸 것이고, 이 논문 또한, 내가 자기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피했다가 오래전에 포기한 더욱 큰 저작의 발췌이다. 거기서 떼어 내어 여기서 그 개요만 보인 작은 논저는, 따로 간행될 것이다.<sup>75\*</sup>

75\* 이 주석은 《사회계약론》의 간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난관 때문에 인쇄가 늦어진 《에밀》은, 오히려 두 달이나 늦게 1762년 5월 27일에야 발간되었다.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겠다. 국민은 많은 법률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것들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지를, 대국민이 자신의 입법자가 되기가 쉬운 일인지를? 로마의 국민은 대국민이 아니었던가를? 대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가를?

앞서 한 고찰들의 결과로서, 국가에는 시민들과 주권자 사이에 하나의 중간 단체가 있게 된다. 구성원의 하나 또는 여럿으로 된 이 중간 단체는, 국가 행정과 법률 시행 및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의 멤버들은 ‘위정자들(magistrats)’, 또는 ‘왕들(Rois)’로, 즉 통치자들로 불린다. 이 단체 전부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로 보면 ‘군주(Prince)’라 불리고, 그 활동으로 보면 ‘정부(gouvernement)’라 불린다.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 단체 전부의 활동을, 즉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나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정부가 그 내항(內項)이 되는 연비례의 외항들의 관계에 비할 수 있다. 위정자는 명령들을 주권자에게서 받아 국민에게 전해 주니, 다 상쇄하고 나면 그의 곱하기나 제곱은, 한편으로는 신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곱하기나 제곱과 같아진다. 균형을 당장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 3항 중의 어느 항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주권자가 통치하려 들거나, 군주가 법률을 내리려 들거나, 신민이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하면, 혼란이 규율을 뒤엎고 국가는 무너져 전제 정치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만다. 국가가 만 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주권자란 집합적으로 단체를 이룬 것으로밖에는 생각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각 개인은 신민으로서 개인적이고 독립된 존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권자 대 신민은 1만 대 1이다. 말하자면 국가의 구성원은 저마다, 비록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는 있지만, 주권의 1만 분의 1의 제 몫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국민이 10만의 사람들로 되어 있다 하자. 신민들의 상태는 바뀌지 않아 저마다가 여전히 법률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만, 한편 10만 분의 1로 줄어든 그의 투표는 법률 작성에 있어 10분의 1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신민은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비율은 시민들의 수효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국가가 커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그런데 개인 의지의 일반 의지에 대한 관계, 즉 풍습의 법률에 대한 관계가 덜해질

수록 억압하는 힘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한편 국가가 커지면 공권 수임자들에게 그것을 남용할 유혹과 수단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억제할 힘을 더 가질수록 이번에는 주권자도 정부를 억제할 힘을 더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중의 관계의 결과로서, 주권자와 군주와 국민 사이의 연비례는, 터무니 없는 관념이 아니라 국가 본질의 하나의 귀결이 되는 것이다. 또한 외항(外項) 중의 하나 즉 국민은 고정된 것이기에, 복비(複比)가 늘거나 줄어든 때마다 이번에는 단비도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는 내항도 변번이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성 방식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크기가 다른 국가들이 있는 만큼은 본질이 다른 정부들도 있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말이다.

국민의 수효가 많을수록 풍습의 법률에 대한 관계는 덜해지는 것이라면, 위정자의 수효가 많을수록 정부는 약해진다는 말 또한, 충분히 명백한 유추(類推)에 의해 할 수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자.

이 격률을 밝혀 내기 위해 우리는 위정자 하나하나에게서 본질적으로 다른 세 가지 의지를 가려 내겠다. 첫째는 자신의 개인 이익으로만 쏠리는 개인 고유의 의지다. 둘째는 위정자들의 공통 의지로, 군주의 이익하고만 부합되는 의지다. 단체의 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의지는, 정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지고, 정부가 그 일부분인 국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의지다. 셋째로는 국민의 의지 즉 최고의 의지인 바, 이 의지는 전체로 보이는 국가를 위해서나 전체의 부분으로 보이는 정부를 위해서나 똑같이 일반적인 의지다. 완전한 입법에서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의지는 거의 쓸모없게 마련이고, 정부 고유의 단체 의지는 아주 종속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최고 의지가 다른 모든 의지의 기준이 된다. 반대로, 자연 질서에 따르면 이 다른 의지들은 좁아질수록 더욱 활발해진다. 일반 의지가 언제나 가장 약하고, 단체 의지가 둘째며, 개별 의지가 무엇보다도 앞선다. 따라서 각자는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다음은 위정자이고, 그다음이 시민이다.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차례와는 정반대되는 차례다.

위와 같다 치고, 단 한 사람 손에 든 정부를 가정해 보자. 여기서는 개별 의지와 단

체 의지가 완전히 합쳐지며, 따라서 단체의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강도(強度)를 갖게 된다. 그런데 힘의 행사는 이 강도에 달려 있으므로, 또 정부의 절대적인 힘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어서 바뀌는 일이 없으므로, 가장 활동적인 정부는 한 사람만의 정부라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정부를 최고 권력과 합쳐 보자. 주권자를 군주로, 시민들을 다 위정자로만 들어 보자. 그러면 일반 의지와 완전히 뒤섞인 단체 의지는 일반 의지 이상의 활동력을 갖지 못해, 개별 의지더러 전력을 다 발휘하게 둘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도 정부는 제 활동력의 '최소한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른 고찰들을 해 보아도 확인이 된다. 예컨대 위정자들은 자기 단체에서, 시민이 자기 단체에서 그런 것보다 더 활동적이며, 따라서 개별 의지가 거기서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는 저마다 거의 언제나 정부의 어떤 특수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따로 따로 본 시민 하나하나에게는 주권에서 오는 어떤 임무도 없는 데 반해서 말이다. 더구나 국가는 뵈어 날수록 그 실지 힘이, 비록 면적에 비례해서는 아니더라도 늘어난다. 늘 마찬가지로 국가는 위정자들만 늘어나 봤자 소용없다. 정부는 우리가 늘 같다고 가정하는 국가의 실지 힘의 수입자이므로, 더 큰 힘을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정부의 활동은 줄어들며, 그 힘이 늘어날 수가 없다.

위정자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는 약해지고, 국민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억압력은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위정자들의 정부에 대한 비례는 신민들의 주권자에 대한 비례와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겠다. 말하자면 국가가 커질수록 정부는 오히려 줄어들어, 우두머리의 수요는 국민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가지각색인 형태들을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 묶기 위해 우리는 맨 먼저, 주권자는 온 국민이나 국민의 대다수에게 통치를 맡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하자. 그냥 개인인 시민들보다도 위정자인 시민들이 더 많아지게 말이다. 이러한 통치 형태에는 민주 정치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또한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인의 손에 들어가게 오그라뜨려, 위정자들보다는 그냥 개인인 시민들이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는 귀족 정치라는 이름이 붙는다.

끝으로 주권자는 통치 모두를 한 사람만인 위정자 손에 집중시킬 수도 있다. 이 셋째 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군주 정치 또는 왕정이라 불린다.

이 형태들은 다, 적어도 처음 두 가지는, 그 수효가 들쭉날쭉하며 그나마 꽤 자유롭게 그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왜냐하면 민주 정치는 온 국민을 포함할 수도, 절반으로 오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귀족 정치 또한 국민의 반수에서 작정 없이 최소수에까지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왕정도 때로는 부자 사이나 두 형제 사이에 또는 달리 분배될 수가 있다. 스파르타에는 언제나 왕이 둘 있었고,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동시에 여덟까지 있었지만, 제국이 분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각 통치 형태가 다음 것과 혼동되는 하나의 점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세 가지의 특수 명칭 아래서도 실지로는, 국가가 갖는 시민들과 같은 수효만큼의 형태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 정부는 저마다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다스려지는 부분과 저런 식으로 다스려지는 부분 등, 갖가지 부분으로 더 세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의 배합으로부터 술한 혼합 형태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 혼합 형태들은 저마다 모든 단순 형태들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정체의 가장 좋은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지만 또 경우에는 가장 나쁘기도 하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위정자들<sup>76</sup>의 수효가 시민들의 수효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로 민주 정치는 작은 국가들에, 귀족 정치는 중치 국가들에, 군주 정치는 큰 국가들에 알맞다고 결론짓겠다.

시민들의 의무와 권리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지? 조국이란 무엇이고,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에게는 조국이 있는지

76 여기서는 내가 최고의 위정자들, 즉 국민의 우두머리만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만 위정자들은 이러저러한 부문에서 그 대리에 지나지 않다.

또는 없는지를 저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연구의 계속에 의해서다.

이렇게 시민 사회 자체의 종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비교해서 그 사이의 갖가지 관계들을 관찰해 보자. 더러는 크고 더러는 작다. 더러는 강하고 더러는 약해, 서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파괴하면서 이 끊임없는 옥신각신 속에서, 모두가 애초의 자유를 그대로 간직해 왔을 경우보다도 더 많은 비참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사회 제도에는 자유가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를, 사회들은 서로 사이에 자연의 독립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법률과 사람들에게 얽매인 개인들은 여전히 두 가지 상태에서 이득은 보지 못하고 그 화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그래서 세계에 여러 시민 사회가 있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는 살펴보겠다. 두 가지에 다 한몫 끼어들면서도 어느 한쪽도 안정시키지 못하는 이 혼란 상태는 바로, ‘전쟁 때의 준비도, 평화 때의 안전도 허용하지 않는 것(per quem neutrum licet, nec tanquam in bello paratum esse, nec tanquam in pace securum)’이 아닌가? 압제와 전쟁을 빚어 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결합이 아닌가, 그리고 압제와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아닌가?

끝으로, 각 국가를 안으로는 자기 주인이 되게 두면서도 밖으로는 부당한 공격자 모두에 대비시켜 주는 동맹이나 연합에 의해 이러한 탈을 막으려고 한 일련의 대책들을 우리는 살펴보겠다. 좋은 연합 사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으며, 무엇이 그것을 오래 가게 할 수 있는지, 또 주권을 해치지 않고 연합의 권리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탐구해 보겠다.

생 피에르 신부는 유럽의 모든 국가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결합은 실현성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서 오래 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는가?<sup>77</sup> 이러한 연구는 우

77 이 글을 쓴 후에, ‘찬성’ 이유는 이 계획의 발췌에서 설명되었다. 적어도 내게는 확고해 보인 그 ‘반대’ 이유는, 내 저작집에서 바로 이 발췌 다음에 나올 것이다.

리를, 정치법학의 온갖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는 국제공법<sup>78\*</sup>의 온갖 문제들로 직접 이끌어 준다.

끝으로 우리는 전쟁법의 진짜 원리들을 세워, 그로티우스 및 그 밖의 사람들이 왜 틀린 원리들밖에는 내놓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겠다.

우리가 따져 나가는 동안에, 양식을 지닌 우리 젊은이가 내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조각 하나하나를 규칙대로 너무 어김 없이 늘어놓다 보니, 마치 우리는 사람들을 가지고가 아니라 목재를 가지고 우리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군요! 사실이야, 하지만 법은 사람들의 정념에는 꺾이지 않으며, 정치법학의 진짜 원리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해. 자, 이제 우리의 토대가 섰으니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운 것을 살펴보자, 근사한 것들을 보게 될 테니!

그래서 나는 그에게 《텔레마크》를 읽게 하고 여행을 계속하게 한다. 복받은 도시 살렌툼과 갖가지 불행으로 현명해진 이도메네우스를 우리는 찾는다. 도중에서 프로테실라오스는 많이 만나나 필로클레스는 통 만나지지 않는다. 다우니아인들의 왕 아드라스토스도 만나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79\*</sup> 그러나 우리의 여행은 독자들더러 상상하게 두자, 아니면 우리 대신 《텔레마크》를 손에 들고 여행하게 두자, 그리고 저자 자신도 피하거나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적용(適用)들은 독자들에게 암시해 주질랑 말자.

더구나 에밀은 왕이 아니고 나도 하느님이 아닌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텔레마크나 멘토르를 흉내 낼 수 없다 해서 애태우지는 않는다. 아무도 우리만큼 제자리를 지킬 줄 알아 벗어날 생각을 앓는 사람은 없다. 같은 임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으며, 진심으로 선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해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텔레마크나 멘토르

78\* droit public의 역어.

79\* 페늘롱은 《텔레마크》(1699)를 어린 부르고뉴 공작의 교육을 위해 썼으며, 특히 이도메네우스가 이탈리아에 건설한 행복한 살렌툼을 묘사함으로써(10권) 루이 14세의 정치에 대한 비판을 그 속에 엮어 넣었다. 프로테실라우스(Protésilas)는 배신자이고, 필로클레스(Philoctès)는 현자다(11권). 신앙도 법도 없는 아드라스토스(Adraste)는 프로이센의 프레드릭 2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 가공의 인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에밀은 한가한 사람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며, 군주가 된 이상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왕이라면 자비롭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왕이면서 자비롭다면, 허울뿐인 선 한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천 가지의 실지 악을 저도 모르게 저지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이면서 현자라면,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맨 먼저 하고 싶은 선은 왕위를 물려주고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여행을 모든 사람에게 보람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미 말했다. 여행을 젊은이에게 더욱 보람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행을 시키는 방식이다. 젊은이의 교육보다도 자기 재미가 더 보고 싶은 교사들은, 이 도시 저 도시로, 이 궁전 저 궁전으로, 이 클럽 저 클럽으로 끌고 다니고, 또 교사가 학자나 문학자이면, 도서관들을 돌아다니고, 골동품상들을 찾아다니고, 유적들을 발굴하고, 옛 비문들을 베끼고 하는 데에 시간을 다 보내게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들은 딴 세기 일에 몰두한다. 그래서 시시한 일들이나 권태에 파묻혀 많은 비용을 써 가며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관심을 줄 만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유익할 만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된다.

모든 나라의 수도는 다 비슷하다. 거기서는 온갖 민족이 뒤섞이고 온갖 풍습이 합류된다. 여러 나라 국민을 연구하러 가야 할 곳은 그런 곳은 아니다. 파리와 런던은 내가 보기에는 같은 도시에 불과하다. 그 시민들은 다른 편견을 약간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이 편견을 덜 가진 것은 아니며, 그들이 실천하는 격률들은 다 같다. 궁정에는 어떤 유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인가는 다들 알고 있다. 인구의 밀집과 재산의 불평등이 어떤 풍습을 도처에서 빚어 내게 마련인가도 알고 있다. 인구 20만의 도시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는 당장 알 수 있다. 이런 곳들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것을 배우러 일부러 갈 것까지는 없다.

한 국민의 특성과 풍습을 연구하러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동이나 거래가 적어 외국인들의 여행이 적고 주민의 이동도 덜해 재산이나 신분의 변동이 덜한 외딴 시골들이다. 수도는 지나는 길에 보라, 그러나 그 나라는 먼 데까지 가서 관찰하라. 프랑스인들은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렌에 있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런던보다는

머서에서 더욱 영국인답고, 스페인인들은 마드리드보다는 갈리시아에서 더욱 스페인인답다. 한 국민의 특징이 드러나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곳은 이런 동떨어진 곳들에서다. 통치의 좋거나 나쁜 결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그런 곳들이다. 마치 보다 큰 반지를 끝에서는 호(弧)들의 비율이 더욱 정확 하듯이.

풍습과 통치의 필연적인 관계는 《법의 정신》<sup>80\*</sup>이라는 책에서 하도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를 연구하려면 이 저작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러나 통치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쉽고 단순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 하나는 인구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다 국가가 몰락해 가는 경향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이 늘는 나라는 가장 가난하더라도 영락없이 가장 잘 통치되고 있는 나라다.<sup>81\*</sup>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구 증가가 통치와 풍습의 자연적인 결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식민이나 그 밖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에 의해 된 일이라면, 그때는 그 방법들이 약으로 병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독신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는, 그 법률은 이미 로마 제국의 쇠퇴를 알려 주었던 것이다. 잘 된 통치가 시민들을 결혼하게 만들어야지, 법이 그러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바탕을 건드리는 법률은 지켜지지 않아 헛것이 되고 만니까, 강제로 행해지는 일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고, 풍습의 영향과 통치의 자연적인 경향에 의해 행해지는 일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단들만이 항구적인 효과를 갖게 되니까. 병들의 공통되는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병을 한꺼번에 고칠 도리밖에는 없다는 점을 알아 내지는 못하고, 개별적인 병 하나하나에 대한 하찮은 약만 늘 찾는 것이 생 피에르 신부의 정치였었다. 병자 몸에 생기는 궤양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두를 생겨나게 하는 혈액 전체를 순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영국에는 농업에 대한 상들이 있다고들 말한다. 나는 더 듣고 싶지도 않다. 그것만으로도 농업이 거기서는

80\* Esprit des Lois, 몽테스키외의 저서.

81\* “이 법칙의 예외를 나는 하나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중국이다.” (P의 원주).

오래 잘 되어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으니까.

통치와 법률의 잘잘못의 둘째 표적도 역시 인구에서 나오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즉 인구의 양이 아니라 그 분포에서 나오는 것이다. 면적과 인구가 같은 두 국가도 국력은 사뭇 다를 수가 있으며, 둘 중의 강한 쪽은 반드시 주민이 국토에 더 고루 퍼져 있는 나라다. 그다지 큰 도시들이 없고, 따라서 눈에는 덜 띄는 쪽이 반드시만 쪽을 쳐부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힘을 떼어 약하게 만드는 것은 대도시들이고, 그 도시들이 낳는 부는 허울뿐인 허망한 부이어서, 돈은 많아도 알맹이는 거의 없다. 프랑스 왕에게는 파리가 한 주와 맞먹는다고들 말한다. 내 생각 같아서는 파리가 왕에게 몇 개 주에 해당하는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보아 파리는 지방 덕분에 먹고살고 있으며, 지방의 수입의 대부분이 이 도시에 흘러들어, 국민에게도 왕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셈 빠른 자들이 판치는 이 세기에, 파리가 없어지면 프랑스가 훨씬 더 강력해지리라는 사실을 알아챈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잘못 분포된 국민은 비단 국가에 이롭지 못할뿐더러 인구 감소 자체보다도 더한 망조인 바, 그것은 인구 감소는 생산을 보잘것없이 만들 따름이지만 터무니없는 소비는 생산을 마이너스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네 수도가 커서 자랑인 한 프랑스인과 한 영국인이 어느 쪽의 인구가 더 많은가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마치, 어느 쪽 국민이 더 잘못 통치 받는 영광을 지니고 있는가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듣는 기분이다.

한 국민은 그 나라 도시들 아닌 곳에서 연구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 국민을 이해하게 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국민 사이와 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낳는 성과에 의해 그 정부의 본질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행정 기구나 행정 관리들의 횡설수설로 걸치레된 정부 형태만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형태와 알맹이의 차이는 그 모든 행정 단계 사이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그 전체를 포착하지 않고서는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사 대리의 거동으로 내각의 방침을 짐작하게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이 정말로 자유로운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 선거를 보아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건 그 도시들밖에 보지 않은 사람이 그 통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치의 방침이 도시에 대해서와 시골에 대해서 똑

같은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시골이고, 국민을 이루는 것은 시골 사람이다.

갓가지 국민들에 대해, 그들의 동떨어진 지방들에서, 그들 본래의 소박한 특성 속에서 하는 이러한 연구는, 이 책의 제명(題銘)과도 아주 걸맞지만 인간의 마음에도 사뭇 위안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실을 엿보게 해 준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훨씬 나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그 성격에서 선이 더 우세해진다. 그들이 타락하여, 해롭다기보다는 거친 몇 가지 결점을 즐겁기는 하나 해로운 악덕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오로지, 도시에 틀어박히고, 문화 덕분에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여행 방식에는 또 하나의 이득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끔찍한 부패가 판치는 대도시에 얼마 머무르지 않는 청년들은 부패에 물들 위험이 적고, 보다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수효 적은 교제를 하면서, 보다 확실한 판단력과 보다 건전한 취미와 보다 성실한 풍습을 간직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 에밀은 그런 부패에 물들 염려가 통 없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취한 온갖 예비 조치 중에서도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애정이다.

참된 사랑이 젊은이들의 기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람들은 이미 알지 못한다. 사랑을 그들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것에서 외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년이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난봉을 피우든지 하게 마련이다. 겉으로 속이기는 쉽다. 사랑하지 않고도 아주 순결하게 살고 있다는 청년들을 얼마라도 대겠지.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치고,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내었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남자가 있거든 하나라도 대어 보라. 모든 미덕과 모든 의무에서 사람들은 허울밖에는 찾지 않고, 나로서는 실속을 찾는데, 만일 거기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내가 말하는 이외의 방법들이 있다면 나는 틀린 것이다.

에밀더러 여행을 시키기 전에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궁리해 낸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내게 암시해 주었던 것이다.

베니스에 있을 때 나는 어느 영국 청년의 가정 교사 집에 찾아간 일이 있다. 겨울

이라, 우리는 난로 옆에 있었다. 교사는 우편 편지들을 받았다. 읽고 나더니, 그중의 한 통을 제자에게 큰 소리로 다시 읽어 준다. 영어 편지였다. 나는 통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읽는 동안 나는, 청년이 자기 소매의 아주 예쁜 레이스 커프스를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찢어서는 차례로 불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 엉뚱한 짓에 놀란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심상치 않은 빛이 엿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정염의 내색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고는 하나 국민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잘못 보기가 일쑤다. 국민이 다르면 입 밖에 나오는 말 못지않게 얼굴에 나타나는 말도 다르다. 다 읽기를 기다려서 나는, 애써 감추고는 있었으나 드러난 제자의 손목을 교사에게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무슨 뜻인지 말해 주실 수 없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 교사는 웃기 시작하며 만족스러운 듯이 제자를 포옹했다. 그리고는 제자의 동의를 얻어 내가 바라던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었다.

존 군이 방금 찢은 커프스는 이 도시의 어느 부인이 얼마 전에 준 선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존 군은 자기 나라에 약혼한 규수가 있어요, 그가 무척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을 더 믿어도 좋을 만한 처녀지요. 이 편지는 그 애인의 어머니가 보낸 건데, 당신이 목격한 그 파손의 원인이 된 대목을 번역해 드릴까요.

“루시는 존 도련님의 커프스를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어제는 베티 롤댐 양이 와서 딸과 같이 오후를 지내며 그 일을 꼭 거들어 주려고 들었지요. 오늘은 루시가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을 알고, 뭇을 하는가 제가 보러 갔더니, 어제 베티 양이 한 일을 죄다 풀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는 선물에는 자기 손 아닌 딴 손은 조금도 끼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에 존 군은 딴 커프스를 가지러 나갔고, 나는 교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뛰어난 성질의 제자를 갖고 있군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 줘요. 루시 양 어머니의 편지는 손질한 게 아닌가요? 커프스를 준 부인에 대비해서 당신이 생각해 낸 피가 아닌가요? 천만에요, 진짜지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재주를 부려 가며 돌봐 주는 건 아닙니다. 솔직함과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 하느님이 제 일에 축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내 기억에서 사라진 일은 없다. 나 같은 몽상가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는 두지 않을 모습이다.

끝낼 때가 되었다. 존 도련님을 루시 양에게, 즉 에밀을 소피에게 도로 데리고 가자. 그는 떠나기 전에 못지않게 다정한 마음과 더불어 더욱 총명해진 머리를 가지고 그녀에게 돌아가며, 여러 정부들을 그 모든 악덕에 의해, 여러 국민들을 그 모든 미덕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이득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나는 또 그가 나라마다에서, 고대인들과도 같은 환대의 약속을 하며 훌륭한 사람과 맺어지도록 유의하기까지 했는데, 그가 이러한 교분을 편지 내왕으로 복돋우어 나가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먼 나라들과 편지 내왕을 갖는다는 것은,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늘 즐거운 일이기도 할뿐더러, 평생 우리를 공격해 조만간에 우리를 손아귀에 넣고 마는 국민적인 편견들의 지배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그러한 편견이 없어, 자기들 편견으로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편견들을 노상 서로 대립시키는 방법과, 그래서 우리를 모든 편견에서 지켜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대 주는 존경받는 양식의 인사들과의 이해를 떠난 교제 이상으로, 그러한 손아귀를 벗어나게 해주기에 알맞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국인들과 우리나라에서 사귀는 것과 그들 나라에 가서 사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첫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조심성을 늘 갖고 있어, 그 나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감추거나, 있는 동안은 좋게 생각하게 된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깎아내리게 되는데, 당연하기만 하다. 내가 물어 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본 일이 있다면 나는 좋겠지만, 그 사람의 나라에서밖에는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겠다.

유럽의 몇몇 큰 나라와 많은 작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느라고 근 2년을 보내고 나서, 그중의 주요한 두세 나라 말을 배우고, 박물학 · 정치 · 예술 · 인물들에 있어 정말 볼 만한 것들을 보고 나서, 조바심에 안절부절못하게 된 에밀은, 우리의 기한이 다 되어 왔다고 내게 경고한다. 그래서 내가 말해 준다. 그래, 너는 우리 여행의 주된 목적을 명심하고 있겠지. 너는 보았고, 관찰해 왔어. 그런데 네가 한 관찰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지? 어떻게 할 작정인가?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는 다

음과 비슷하게 대답해야 한다.

“뭇을 할 작정이냐고요? 선생님이 길러 주신 그대로의 인간으로 살아갈 작정이고, 자연과 법이 저를 묶는 사슬에다 딴 어떤 사슬도 스스로 뚫붙이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사람들이 해 놓은 일을 그들의 제도에서 살펴보면 볼수록 저는 더욱, 사람들은 독립하기를 너무 바라다가 오히려 노예가 되며, 자기 자유를 확보하려는 헛된 노력 속에서 그 자유마저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물들의 여율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사방에 매달리다가는, 정작 한 발자국을 내놓으려 들면 되지가 않아, 모두에 얽매어 있는 데 스스로 놀라게 되지요.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롭기를 그만둘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오, 선생님, 저더러 필연에 따르도록 가르쳐 주심으로써 저를 자유롭게 길러 주신 것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필연은 언제나 오고 싶거든 와요, 저는 거리낌 없이 그것에 끌려가겠고, 그것과 싸울 생각이 없으므로, 버티려고 무엇에 매달리지도 않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제가 완전히 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어디에 없나 하고 찾았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정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겠어요? 모두를 잘 살펴본 저는, 제 소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알았지요. 왜냐하면 설사 제가 딴 것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자리잡을 땅에 만은 얽매이게 될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의 생활이 나무에 매여 있었듯이 제 생활은 그 땅에 매이게 될 것이니까요. 지배와 자유는 양립될 수 없는 두 개의 낱말이기에, 나 자신의 주인이기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한 초가집의 주인도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Hoc erat in votis modus agri non ita magnus.*

내 소원? 그것은 보통 넓이의 땅이다.<sup>82\*</sup>

“저의 행복이 우리의 탐구의 원인이었다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부와 자

82\* 호라티우스의 《풍자시》Ⅱ, 6, 1.

유를 한꺼번에 간직할 수 없음을 선생님은 아주 빈틈없이 증명하셨지만, 제가 아쉬운 것 없이 자유롭기를 바라셨을 때는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속박 밑에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저는 사람들의 속박에서 빠져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는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선 그것에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것에 매달리게 하는 온갖 고삐를 늦추겠어요. 재산이 제 손에 남겨진다면 그대로 남아 있겠지요. 누가 앓아 가더라도 저는 같이 끌려가지는 않겠어요. 그걸 붙잡아 두려고 애태우지 않고 제자리에서 탁 버티고 있겠어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저는 자유로울 겁니다. 그것도 어떤 나라, 어떤 지방에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땅 위의 어디서나 그럴 겁니다. 저에게는 세론의 온갖 시슬이 다 끊어져 버려, 필연의 시슬들밖에는 알아보질 못해요. 저는 나면서부터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배워 왔고, 또 죽을 때까지 감당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니까요. 노예가 되더라도 감당해 내어야 할 거고, 노예 신분의 시슬들까지도 감당해 내어야 할 텐데, 자유로우면서 제가 왜 감당해 내지 못하겠어요?

“땅 위에서의 조건이 제게 무슨 대수인가요? 제가 어디에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저는 형제 집에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면 어디서나 저는 내 집에 있는 거고요.”<sup>83\*</sup> 부자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동안은 저는, 살아 나갈 재산이 있으니 살아 나가겠지요. 내 재산에 내가 묶이게 되면 저는 당장에 재산을 버리겠어요. 일할 팔이 있으니 살아 나가겠지요. 팔이 없어진다면 저는 남이 먹여 살려 주면 살 거고, 버림받으면 죽겠지요. 남에게 버림받지 않아도 저는 역시 죽을 겁니다. 죽음은 가난의 벌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죽음이 언제 오건 저는 예상일 겁니다.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덮쳐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나는 살았노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결코 막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작정한 바입니다, 아버지. 제가 만일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있는 것밖엔 바라지 않아 운명과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 상태에

83\* “형제 집에” 있다는 것은 “내 집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치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이, 만년에 몽상하는 루소의 고독처럼 완전한 고독을 암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 바로 하느님과도 같이 되겠지요. 적어도 제게는 사슬이 하나밖에 없어 그것만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게 될 거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디 소피를 제게 주세요, 그럼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에밀아, 네 입에서 인간의 말을 듣고, 네 마음에서 인간의 감정을 보니 나는 무척 반갑다. 그렇게 지나친 무사무욕도 네 나이에서는 바위에 거슬리지 않아서 좋아. 그것도 네가 아이들을 갖게 되면 줄어들 거고, 그때는 너도 영락없이 버젓한 어진 가장이나 현명한 인간이 될 거다. 네가 여행하기 전부터 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우리의 제도들을 네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그것들에는 당치도 않은 신뢰를 네가 가질 리가 없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법률의 보호 아래서 자유를 바라 봤자 헛일이야. 법률들! 그런 것이 어디 있으며, 어디서 존경받고 있는가? 너는 도처에서 이 법률의 이름 아래 개인 이익과 사람들의 정념이 판치는 것밖에 보지 않았어. 그러나 자연과 질서의 영원한 법칙들은 존재하고 있어. 이것들이 현자에게는 성문법을 대신해 주고 있지. 양심과 이성에 의해 그의 마음 밑창에 쓰여 있는 거야. 자유로워지기 위해 현자가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들이며, 그래서 노예라고는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어. 왜냐하면 악은 언제나 본의 아니게 행해지게 마련이니까. 자유란 어떤 통치 형태 속에도 없고, 자유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를 어디서나 지니고 있다. 천한 사람은 어디서나 예속을 지니고 있고, 후자는 제네바에서도 노예일 거고, 전자는 파리에서도 자유로울 거다.”<sup>84\*</sup>

“내가 시민의 의무에 대해 말해 주면 너는 아마, 조국이 어디 있느냐고 내게 되물을 거고, 그래서 나를 당황케 만들 것으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에밀아, 네 잘못이 될 거다. 왜냐하면 조국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라는 있으니까. 자기가 그 밑에서 평온하게 살아온 정부나, 법률 비슷한 것들은 여전히 있는 거야. 일반 의지가 보호해 주는 대신 개인 이익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다면, 공공의 폭력이 개인의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주었다면,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선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제도들 자체 덕분에 그 그릇된 점들을 알아서 미워하게 되었다면,

84\* P에서는, “나는 제네바에서 신민들을, 파리에서 시민들을 보았다”로 되어 있다.

설사 사회 계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오, 에밀! 자기 나라 신세를 지지 않는 군자가 어디 있니? 어떤 나라이건 그는 그 나라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행동의 도덕성과 미덕에의 사랑을 신세지고 있는 거다. 어느 숲 속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과 싸우지 않고도 자기 성향대로 나갈 수 있어, 보람도 없이 착했을 것이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의 그는 자기 정념들에게도 불구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질서의 허울만으로도 그는 질서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단 말이야. 남들에게는 핑계 구실밖에 되지 않는 공익이 그에게만은 실지 동기가 되는 거야. 그는 자신과 싸워 자신을 이겨 내도록,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바치도록 배우는 거야. 그가 법률에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악인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게 살 용기를 그는 거기서 얻고 있는 거다. 법이 그를 자유롭게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자기를 지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 내가 어디 있건 무슨 상관이야?”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네 의무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네게는 중요하며, 그 의무의 하나는 네가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이야. 네 동향인들이 네가 어릴 때 보호해 주었으니, 어른이 되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해. 너는 그들 속에서 살아야 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만큼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에서나마, 네가 필요하면 너를 찾아 낼 수 있는 곳에서나마 살아야 해. 어떤 사람이 조국의 품안에 살기보다는 조국 밖에서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 경우에 그는 자신의 열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불평 없이 타향살이를 참아 나가야 해. 타향살이마저도 그의 의무의 하나거든. 하지만 에밀야, 그런 쓰라린 희생을 통 강요받지 않는 너로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는 딱한 구실을 맡은 적 없는 너로서는, 그들 속에 가서 살도록 해, 다정한 사귄으로 그들과의 우정을 북돋우어 나가야 해, 그들의 은인이, 본보기가 되어 줘, 네가 보이는 모범이 그들에게는 우리의 온갖 책들보다도 힘이 되어 줄 거고, 네가 행하는 선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헛된 온갖 연설에 서보다도 더한 감명을 받을 거야.

“그렇다고 너를 대도시에 가서 살도록 권하지는 않아. 반대로 좋은 사람들이 딴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본보기의 하나는, 검소한 시골 생활의 본보기며,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연스러워 마음이 썩지 않은 이에게는 가장 쾌적한 생활, 인간 최초의 생활인 것이다. 젊은 친구여, 평화를 찾아 사막으로 갈 필요가 없는 나라는 복도 많거니!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해 봐도 모사꾼이나 험잡꾼들을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도시 한복판에서는 자비로운 사람도 자기 성향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 행운을 찾아 도시로 오는 게으름뱅이에게 베푸는 환대는, 오히려 도시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인구를 늘려 주어야 할 지방을 황폐시킬 따름이야. 상류 사회의 악덕은 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런 사교계를 물러나는 모든 사람은 물러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도 유익한 거야. 그들의 원상태의 생활과 경작과 사랑을 쓸쓸한 곳에 되가져올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더욱 유익해져 에밀과 소피가 그 초라한 은거처에서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주위에 베풀어 나갈 수 있으며, 시골에 얼마나 생기를 주고 불우한 시골 사람들의 끼진 열의를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나는 감동이 되거든. 인구가 늘어 가고, 밭이 기름져 가고, 땅이 새로운 단장을 하고, 사람이 많고 산물이 풍성해져 노동이 축제로 바뀌고, 기쁨과 축복의 환성이 놀이판에서, 그것을 부활시킨 귀여운 부부의 둘레에서 솟아오르고 하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 것만 같아. 사람들은 황금시대를 환상으로만 보지만, 누구이건 마음과 취미가 손상된 자에게는 언제나 환상으로만 그칠 거야. 황금시대를 그리워한다는 말도 옳지가 않아, 그리워만 해 봤자 역시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러니 그것을 재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뿐이지만, 되지 않을 일이야. 그건 황금시대를 사랑하는 일일 테니까.

“소피의 거처 둘레에서는 그것이 이미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훌륭한 부모가 시작한 일을 너희는 같이 마무리 짓기만 하면 될 거다. 하지만 에밀아, 그렇게 기분 좋은 생활 때문에, 고된 의무가 과해졌을 때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돼. 로마인들은 쟁기를 잡다가도 집정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국가나 군주가 조국에의 봉사로 너를 부르거든, 다 버리고 가서 주어진 자리에서 시민으

로서의 명예로운 임무를 다하도록 해야 돼. 그 임무가 만일 네게 번거로운 것이 된다면, 그것을 벗어날 버섯하듯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지. 그것은 그 임무가 네게 오래 남아 있지 않을 만큼 공명정대하게 그걸 완수하는 거다. 하기가 그런 번거로운 일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오늘날 같은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국가에 봉사하라고 너를 데리러 오지는 않을 테니까.”

소피 곁으로의 에밀의 돌아옴과, 그들의 사랑의 결말을, 아니 그들을 맺어 주는 부부의 시작을 묘사하는 일도 내게 허락되었으면! 생명이 다하도록 계속될 존경에 바탕을 둔 사랑을, 아름다움과 같이는 사라지지 않는 미덕과, 부부 사이를 알뜰하게 해 주고, 첫 결합의 매력을 늘그막까지 연장시켜 주는 성격의 합치에 바탕을 둔 사랑을 묘사하게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테일이란 다 남을 즐겁게는 해 주더라도 쓸모는 없을지도 모르며, 여태까지도 즐거운 디테일들은 꼭 쓸모 있어 보이는 것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일의 끝판에 와서 이러한 규칙을 버려야겠는가? 천만에, 하긴 내 펜도 이제 지친 것처럼 느껴진다. 이토록 오래 끄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한 나는, 이 일이 좀 덜만 나갔어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미완성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는 끝장을 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

마침내 에밀의 생애에서 가장 매력 있는 날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나는 본다. 내가 쏟은 정성들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보며 그 열매를 맛보기 시작한다. 이 훌륭한 쌍은 풀지 못할 사슬로 묶어지고, 결코 헛되지 않을 맹세를 그들의 입이 말하고 마음이 다짐한다. 둘은 부부가 된 것이다. 신전에서 돌아와서는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한다. 자기들이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주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둘은 알지 못한다. 남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대답도 애매한 말로만 할 뿐, 어리둥절한 그들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 이 황홀경! 오, 인간의 약함이여! 행복감에 인간은 짓눌린다. 그것을 감당해 낼 만큼 강하지는 못한 것이다.

혼인날 신랑신부를 제대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떤 사람들의 따분한 점잔도 경박한 수다도 내게는 똑같이 격에 맞지 않아 보인다. 차라리 그 젊은 마음들이 자기 생각을 하며 매력이 없지도 않은 흥분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낫

겠다. 선불리 흥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다가 어설픈 예절로 그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또 여느 때라면 좋아할지 모르나 이런 날에는 성가시지만 한 짓국은 농담으로 당황하게 만들기보다는 말이다.

두 젊은이가 얼떨떨하나 기분 좋게 나른해져서 남이 하는 어떤 말도 귀담아듣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일생의 모든 날을 즐기기를 바라는 내가 그래 이토록 소중한 날을 헛되이 보내게 두겠는가? 천만에, 둘이서 이날을 맛보고 만족하기를, 이날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나는 바란다. 나는 못살게 구는 철없는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그들을 따돌려 산책을 시키며, 자기들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준다. 나는 비단 그들의 귀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말해 주고 싶다. 그들이 이날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는 모르지는 않는다.

나는 두 사람 손을 잡으며 말한다, 애들아, 너희들의 오늘의 행복을 가져온 그 힘차고 깨끗한 애정이 싹트는 것을 내가 본 지도 3년이 되는구나. 그 불꽃은 끊임없이 늘어나기만 했어. 그것이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는 것이 너희 눈에서 엿보여. 이젠 사월 도리밖엔 없어. 독자여, 에밀의 흥분과 본격과 장담이, 내 손에서 자기 손을 빼는 소피의 새치름한 표정이, 숨길 때까지 서로 열렬히 사랑하겠다고 그들의 눈이 주고받는 그 다정한 맹세가 보이지 않는가? 나는 가만 내버려 두다가, 말을 잇는다.

사랑의 행복을 결혼하고도 간직해 나갈 수 있다면 천국은 땅 위에 있게 될 거라고 나는 종종 생각해 봤어. 그런데 그런 일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너희 둘이야말로 아무도 보여 준 적이 없고 얼마 안 되는 부부만이 흥내 낼 수 있을 본모기를 보여 줄 만한 부부야. 애들아,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방법을, 또 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을 말해 주랴?

둘은 미소를 짓고 나의 고지식함을 웃으며 서로 바라본다. 에밀은 소피가 더 나은 비결을 갖고 있어 자기로서는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면, 나의 비결을 딱 잘라 사양한다. 소피도 동의하는데, 자신만만해 보인다. 그런데도 그녀의 빈정거리는 표정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이는 것 같다. 나는 에밀을 살펴본다. 그 이글거



리는 눈이 아내의 매력을 탐내고 있어,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영 뒷전이다. 곧 내 말에 주의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미소를 짓는다.

이러한 감정의 숨은 움직임들의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차이는, 남녀에 있어 아주 독특한 차이, 선입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의 차이를 드러내어 보인다. 그것은 남자들이 대체로 여자들만큼 꾸준하지가 못해, 행복한 사랑에 더 일찍 싫증이 난다는 점이다.<sup>85\*</sup> 여자는 남자의 변덕을 지레짐작하고 불안해한다.<sup>86\*</sup> 그래서 질투도 더 해진다. 남자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 전에는 자기 마음에 들려고 그가 쏟은 온갖 정성을 그에게 돌려 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울며, 이번에는 자기가 찢찢매게 되지만, 남자 같은 성공을 거두는 일은 드물다. 애착이나 정성은 마음을 사기는 하나 돌이키지는 못한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식는 것을 막는 나의 비결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그건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야, 하고 나는 말을 잇는다. 그건 부부가 되어서도 애인 이기를 계속하는 거다. 그래요, 그거라면 우리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에밀이 비결을 듣고 웃으며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너에게는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힘들 거다. 제발 나에게 설명할 시간을 다오.

매듭은 너무 죄려 들면 끊어지고 말아. 이런 일은 결혼의 매듭에도 겨운 힘을 가하려 들면 일어나거든. 결혼이 부부에게 과하는 충실성은 모든 권리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권리이지만, 결혼이 한쪽에 주는 상대방에 대한 권력은 군더더기다. 강제와 사랑은 양립되지 않으며, 기쁨은 강요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얼굴을 붉힐 건

85\* 이 교사의 생각은 몽테뉴의 생각과 비슷하다. “결혼에서는 여자들의 선심이 너무 후해서, 애정과 욕망의 고비를 무디게 만든다(《에세》Ⅲ, 5).”

86\* “프랑스에서는 아내들이 먼저 떨어지는데,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성욕이 별로 없어 비위 맞춰 주기만 바라는 아내는, 남편이 그래주지 않게 되면 그 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판 나 라들에서는 반대로 먼저 떨어지는 것은 남편인데, 이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충실은 하나 조심성 없는 아내가 자기 욕망으로 남편을 못살게 굴어 싫증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에는 많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는 그것을 일반적인 사실로 믿고 있다.” (P의 원주).

없어, 오, 소피아, 뽕소니칠 생각도 말고, 얌전한 네 마음을 나는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 일생의 거취가 문제거든.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딴 데서라면 그냥 듣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남편과 아버지 앞에서는 참고 들어야만 해.

사람을 물리게 하는 것은 소유보다는 속박이어서, 아내보다는 애첩에 대해 훨씬 오래 가는 애착을 갖게 마련이야. 어쩌면 사람들은, 더없이 다정한 애무를 의무로 삼고, 사랑의 더없이 기분 좋은 표시를 권리로 삼을 수 있었던가? 권리를 넣는 것은 서로의 욕망이고, 자연은 딴 권리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법도 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확대시킬 수는 없을 거다. 관능의 기쁨은 그것 자체로서 기분 좋은 것! 제 본래의 매력에서 짜내지 못한 힘을 한심한 강제에서 얻어 내어야만 하는가? 천만에, 애들아, 결혼으로 마음과 마음은 뗄어지지만 몸과 몸이 묶이는 건 아니야. 너희는 서로 충실해야 하지만, 아첨할 건 없어. 두 사람 몸은 저마다 상대 쪽의 것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느 쪽도 마음이 내킬 때밖엔 상대 쪽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 에밀아, 네가 정말로 네 아내의 애인으로 있고 싶다면, 그녀는 언제나 네 주인이면서 자신의 주인이어야 해. 너는 행복하면서도 존경받는 애인이어야 해. 아무것도 의무로서 요구하지랑 말고, 모든 것을 사랑에서 얻어 내도록 해, 그래서 사랑의 하찮은 표시도 네게는 권리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어야 해. 수줍음은 뚜렷한 자백을 피하며, 정복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텔리커시와 참된 애정을 갖고 있다면 애인이 그런 숨은 뜻을 잘못 보기야 하겠는가? 입이 거절하는 체하는 것을 마음과 눈은 허락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는가? 저마다가 늘 자기 몸과 애무의 주인인 두 사람은 서로, 자발적으로만 그것을 상대 쪽에게 베풀어 주는 권리를 갖도록 해. 결혼 생활에서도 쾌락은 욕망을 같이 할 때밖에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애들아, 이러한 법칙이 너희들 사이를 멀리할까 봐 염려하지랑 말아. 오히려 더욱 주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 주도록 만들 거고, 물리지 않도록 막아 줄 테니까. 서로가 서로로만 만족한다면, 자연과 사랑이 너희를 충분히 가깝게 해 줄 거다.

이 이야기와 딴 비슷한 이야기들에 에밀은 화가 나서 대든다. 부끄러운 소피는 부

채로 눈을 가린 채 말이 없다. 둘 중에서 불만이 많은 쪽이 투정을 더하는 쪽은 아닌 모양이다. 나는 사정없이 우겨 댈다. 텔리커시가 모자란 에밀을 낫을 붉히게 해 준다. 소피에게는 그녀가 자기 나름으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준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시키려 든다, 그녀가 내 말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이 가리라. 불안해진 에밀이 신부의 눈치만 살핀다. 당황하는 눈빛 속에서도, 믿어도 좋다고 안심시켜 주는 관능적인 수심에 싸인 두 눈을 그는 바라보고 있다. 그는 그녀 발치에 뛰어들어, 그녀가 내미는 손에다 정신없이 입 맞추며, 약속된 충실 이외의 그녀에 대한 권리는 다 포기하겠다고 맹세한다. 여보, 당신은 내 일생과 내 운명의 지배자이듯이, 내 쾌락들의 지배자도 되어 줘요. 설사 당신이 지독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가장 소중한 권리들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당신의 아양에 신세지고 싶은 생각은 통 없어요. 모든 것을 당신의 진심으로부터 얻어 내고 싶어요.

착한 에밀아, 안심해. 네가 네 너그러운의 제물이 되어 죽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소피도 너무나 너그러운 여자야.

저녁에 둘과 헤어질 때 나는 되도록 점잖은 어조로 말해 준다. 너희는 자유이고, 이제 부부의 의무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둘이 다 명심해라. 내 말을 믿어 줘, 공연한 인사치레는 빼고. 에밀, 나를 따라오겠니? 소피는 그걸 용서하고 있어. 화가 난 에밀은 나를 치고 싶겠지. 그런데 소피는 뭐라 그러겠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야 하나? 거짓말쟁이. 낫이 빨개지면서 그러라고 말하겠지? 참말보다도 나는 귀엽고 다정스러운 거짓말!

다음 날……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모습에도 흐뭇해하지 않는다. 악덕의 부패 작용은 사람들의 마음 못지않게 취미도 망쳐 놓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제 감동적인 것을 느낄 줄도, 사랑스러운 것을 볼 줄도 모른다. 관능의 기쁨을 그릴 때는 환희의 품속에서 헤엄치는 북 많은 애인들밖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당신들, 당신들의 그림은 아직도 얼마나 불완전한가! 당신들은 조잡한 반쪽밖에는 그리지 않았다. 관능의 기쁨의 가장 달콤한 매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 당신들 중의 누가 일찍이 본 일이 없겠는가, 거슴츠레하면서도 해맑은 눈에, 처음 맞본 달콤한 쾌

락의 도취감과, 순결에 대한 귀여운 신뢰감, 백년해로하겠다는 그렇게도 즐거운 확신을 한꺼번에 담고, 신방에서 나오는 전도유망하게 맺어진 신랑 신부를? 이거야말로 사람 마음에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아리따운 제재이다. 이거야말로 관능의 기쁨을 그린 진짜 그림이 아닌가! 당신들은 그것을 골백번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당신들의 메마른 마음은 이미 그런 것을 사랑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 소피는 다정한 어머니 품에서 하루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낸다. 그것은 신랑 품 안에서 밤을 보낸 뒤에 취할 정말 기분 좋은 휴식이다.

다음다음 날, 나는 벌써 약간의 낯새를 눈치챈다. 에밀이 좀 시무룩해 보이려고 든다. 그러나 그 꾸며 낸 태도에서도 하도 알뜰한 마음씀이, 사뭇 순종하는 태도마저도 엿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할 것은 없다는 짐작이다. 소피도 말하자면 전날보다도 명랑하다. 그 눈에 만족의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에밀하고는 아주 즐거워 보인다. 그에게 아양을 떨다시피하는데, 그는 약간 더 오를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이지만, 내 눈을 피하지는 못한다. 걱정이 되어 에밀에게 따로 물어 본다. 어젯밤에는 그가 사정사정했는데도, 섭섭하게도, 침대를 따로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정없는 신부가 벌써 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해명을 들어 본다. 에밀은 불평이 대단한데, 소피는 해롱거린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진심으로 화를 내려 드는 것을 보자 다정함과 사랑이 넘치는 시선을 그에게 던지더니, 내 손을 잡으며 “철부지!”<sup>87\*</sup> 하고 한 마디만을, 그러나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입 밖에 낸다. 에밀은 하도 미련해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른다. 나는 알아듣는다. 에밀을 내보내고 이번에는 소피에게 따로 말해 준다.

“나는 이 변덕의 이유를 알고 있어. 너만큼 텔리커시를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그걸 너만큼 계제에 맞지 않게 써먹는 사람도 없을 거다. 소피, 안심해도 돼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은 한 사람의 남자야, 염려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의 젊음의 만물을 너는 차지한 거다. 그는 그걸 아무한테도 마구 준 일은 없어. 너를 위해 그걸 오랫동안 간직해 온 거야.

87\* ingrati의 역어. 본뜻은 “배은망덕자.”

“이거 봐요, 어저께 우리 셋이서 한 대화에서의 내 의도를 네게 설명해 주어야겠군. 그 대화에서 아마, 너의 기쁨을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 아끼는 기술 하나밖에 알아채지 않았을 거다. 오, 소피! 그 대화에는 나의 배려에 더 알맞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거야. 에밀은 너의 남편이 됨으로써 너의 주인이 된 거다. 네가 순종을 해야 해, 자연이 그러도록 바란 거야. 여자가 소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끌리는 것도 무방하겠지. 이것 또한 하나의 자연 법칙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그의 쾌락들의 지배자로 삼은 것은 바로, 그가 남성으로서 네 몸에 대해 갖는 만큼의 권위를 너도 그의 마음에 대해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야. 너로서는 아쉬움이 있어 괴롭겠지만, 네가 너를 지배할 줄 안다면 그도 지배하게 될 거고, 이미 있었던 일들로 보아 이 힘든 기술도 네게는 힘겨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 네가 네 애정의 표시들을 흔하지 않은 귀한 것으로 만들어 돋보이게 할 줄만 안다면 너는 사랑에 의해 오래오래 지배하게 될 거야. 남편이 노상 네 발치에 있는 게 보고 싶은가? 그럼 언제나 그를 네 몸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게 하라. 그러나 엄격하면서도 겸손하라, 변덕은 부리지 말고, 그가 너를 괴짜가 아니라 조심성 있는 여자로 알도록 해. 그의 애정을 안배하다가 네 애정을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요. 네 애정 표시로 귀여움받고 거절로 존경받도록 해. 아내의 쌀쌀함을 타하는 일 없이 그 정숙함을 존경받도록 해 주라.

“애야, 그렇게 해야만 그는 너를 믿어, 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도 네게 물어, 너와 상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야만 너는 그가 길을 헤맬 때 그에게 지혜를 돌이켜 주고 다정한 설득으로 그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귀여우면서도 쓸모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다. 미덕을 위해 아양을, 이성을 위해 사랑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 자체도 네게 늘 힘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조심을 해도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 쾌락들이, 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시들게 마련이야. 그런데 사랑이 오래간 뒤에는 기분 좋은 습관이 사랑의 공백을 메워 주고, 신뢰의 매력이 걱정의 뒤를 잇게 돼. 자식들이 자기들을 낳아 준 사람들 사이를, 사랑 자체 못지않게 정답고 보다 강하기도 한 밧줄로 매어 주게 되고, 에

밀의 애인은 아니게 되더라도 너는 그의 아내가, 친구가 될 거야. 그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때는 애초의 조심성 대신, 더없이 친밀한 관계를 너희들 사이에 이루도록 해. 그때는 이미 따로따로의 침대도, 거절도, 변덕도 있어서는 안 돼. 너 없이는 지낼 수가 없어 떨어지지만 하면 자기 자신에서 떨어진 걸로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그의 반쪽이 되어야 해. 친정집에도 가정생활의 매력이 감돌게 한 너니까, 네 집에도 똑같이 감돌게 해야지. 자기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 네 남편이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면 너도 행복한 아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요.

“이제는 네 애인에게 너무 엄하게 굴지 마라. 더 상냥하게 해 주었어야 해. 너의 지나친 조심에 그는 기분이 상할지도 몰라. 그의 행복을 막아 가면서까지 그의 건강을 돌보질랑 마라, 그리고 네 자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 싫증나기를 기다리거나, 욕망을 물리칠 필요는 없어.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거절해야만 하는 거다.”

그리고는 둘을 한데 불러 그녀 앞에서 신랑에게 말해 준다. 스스로 쓴 명에는 견뎌 내어야만 해. 그걸 가볍게 해 주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특히 상냥해야만 해, 토라져야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질랑 말고. 화해란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그 조건들은 어느 쪽이나 쉽사리 짐작이 간다. 그 조약은 키스로 서명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제자에게 말한다, 에밀아, 사람에게는 평생 충고와 지도가 필요한 거다. 여태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임무를 내 힘껏 다해왔어. 이젠 나의 오랜 과업이 끝나고 판 사람의 그것이 시작되고 있어. 네가 내게 위임했던 권위를 나는 오늘 버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의 네 지도자야.

애초의 흥분이 차츰 가라앉아 두 사람더러 자기네의 새로운 처지의 매력을 차분히 맛보게 해 준다. 행복한 애인들, 훌륭한 부부! 그들의 미덕을 기리고 그들의 행복을 그려 보려면, 그들의 일생의 역사를 써야 하겠지.<sup>88\*</sup> 그들 속에서 내가 해 놓

88\* 루소가 이 주인공들의 후일담을 쓸 생각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에밀과 소피(Emile et Sophie ou les Solitaires)》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았음도 알 수 있다. 편지 형식의

은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몇 번이나, 가슴 설레는 황홀감에 사로잡힘을 느끼는가!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뜨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그 몇 번이나 두 사람 손을 내 손에 모아 잡는가! 그 잡은 두 손에 나는 몇 번이나 키스하는가! 그 손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쏟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가! 이번에는 그들이 나의 흥분을 나누어 가지며 감동한다. 그들의 훌륭한 부모들은 자식들의 젊음에서 자기들의 젊음을 다시금 즐긴다. 말하자면 자식들 속에서 자기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며, 그보다도 삶의 가치를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토록 매력 있는 운명을 같은 나이에 즐기지 못하게 가로막던 자기들의 옛날의 부를 저주한다. 땅 위에 행복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은거처에서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에밀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포옹하며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의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머지않아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얼마나 술한 뒷바라지를 저희는 열성껏 해 나가게 될 것이며,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해지겠어요! 아버지를 길러 낸 다음에 그 자식까지도 선생님께 길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설사 저 자신을 위해 택한 만큼이나 잘 제 자식을 위해 제가 택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아닌 딴 사람에 의해 그토록 신성하고 즐거운 의무가 이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젊은 선생들의 선생으로는 남아 계셔 주십시오. 저희들을 충고하며 보살펴 주세요, 저희는 순종하겠으니까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저는 선생님이 필요할 겁니다. 저의 인간으로서의 임무들이 시작되는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임무를 다하셨어요. 선생님을 본받아 나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쉬십시오. 그럴 때가 왔으니까요.

로 된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지은이 소개 | **장 자크 루소** (1712~1778)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소설가, 교육학자이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살았으며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설파했고 그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물론 음악과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논했고 교육학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정치 경제론》 《에밀》 《사회계약론》 《고백록》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과 근거들에 관한 논문》 등을 저술했다.

옮긴이 소개 | **박은수** (1920~2004)

경상남도 진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외국어대·숙명여대 교수를 지냈으며, 불어불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5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바 있다. 편저로 《프랑스 문학사》 《현대불문법》 《불어입문》 등이 있고, 역서에 《루소 전집》 《팡세》 《알랭의 프로포》 《발레리 시전집》 《보들레르 시전집》 등이 있다. 담백하고 정확한 우리말로 옮겨 놓은 번역으로 명성이 높다.

## 에밀

©사단법인 올재

---

발행 | 2014년 8월 28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8-89-97876-31-0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